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문화精選文化

10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10

精選文化정선문화 · 譯註역주

Buddhist Cultures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vol. 10

역주 ▣ 정병삼

엮은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팩스 ▣ 02)725-0364 · 02)725-0365

펴낸이 ▣ 대한불교조계종

펴낸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등록번호 제 300-2009-5호(2009.1.22)

인쇄일 2009년 10월 15일

발행일 2009년 10월 25일

편집 · 디자인 ▣ 아르떼203

인쇄 · 제책 ▣ 동화인쇄공사 · (주)가원

ISBN 978-89-94117-00-3 94220

ISBN 978-89-962509-0-6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09003166

© 2009 by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이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문화
精選文化

10

역주... 정병삼 鄭炳三

라정숙 · 박광연 · 오나영



刊行辭 간행사

2000년이 시작되던 몇 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새 천년 즉 밀레니엄이라 부르며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육이 자행되는 분쟁지역의 비극과 경제위기 등 지구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세계는 늘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엄연한 고통의 바다라고 확인시키고 있으니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안정한 생명의 바다에, 탐욕과 분노와 사건 즉 삼독이 파도치면, 무한으로 연결된 중생계의 고통은 더없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반하여 탐욕을 치유하는 인내와 절제의 계학(戒學), 분노를 진정시키는 정학(定學), 사건을 정화하는 혜학(慧學) 등 삼학의 활동이 점차 증장될 수 있다면, 인류는 온 생명계를 요익케 하는 제일류(第一流)의 유정(有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5세기 이후 이미 불교공동체인 승가전통과 대승교학의 수승한 요체를 토착화한 이후 선문(禪門)의 정화를 거쳐 현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행승가를 통해 정법유산(正法遺産)을 단절 없이 전승하고 있는 귀중한 불연토(佛緣土)입니다.

자원과 영토 그리고 탐욕의 자본과 사건으로 얼룩진 종교분쟁 등, 삼독의





화염이 치연한 지구촌 그 한가운데서, 무명(無明)의 파도를 진정시킬 정
법유산을 전승하고 또 널리 유통하는 일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을 애호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대무변한 불법의 교설을 활약한
‘중요’로서 남긴 원효스님의 대자대비행으로부터, 대승의 광장설과 그 실
천규범 등을 널리 유통키 위해 주석 등의 유산을 남긴 동아시아에 빛나는
지성 원측스님과 대각국사 그 외 수많은 선지식들의 활동, 그리고 선문
(禪門)을 중흥시켜, 경계 없는 마음의 영토를 계발시켜준 선사들의 어록
과 행장 등, 우리불교의 전통으로 전승된 귀중한 유산들은 실로 우리 국
민 나아가 인류공익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이미 수집 출간된 『한국불교전서』 총14책에는 현재 한국고승 등 150여
인에 의해 찬술된 320여 종의 문집이 고전 한문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
니다. 금번 문집간행불사의 1차 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고승문집 90여 종
을 선별, 국역과 영역을 거쳐 각각 13책씩 총26책으로 출간하여 널리 유통
하는 대작불사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서세동점에 급속히 포획되어,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대중





들에게 전통의 위대한 유산들은 열리지 않는 보물창고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어떤 생명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누적된 성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연속성을 감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기억의 상실은 세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해하기 어려운 고전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빛을 감추어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생명계의 의내명주(衣內明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슬을 꺼내 갖고 닦아 빛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번역간행물사업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전승은 그 인과(因果)를 아울러 수행할 때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체용(體用)이 상응하고 성상(性相)이 불유(不謬)해야 명실상부할 수 있으니, 모양은 그 쓰임의 결과로 빛나고 쓰임은 모양을 빌어 비로소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헌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多者翻譯傳統)을 원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삼장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삼장은 처음부터 합송(合誦)으로 결집(結集)되고 역장설치(譯場設置)를 통해 번역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범어삼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역장에는 범어를 이해하는 자와 한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외의 역할을 달리하여 협력한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9인의 역관(譯官)으로 구성된





역장에는 범본삼장을 읽고 풀이하는 역주(譯主), 역주의 좌측에서 역주와 함께 그 뜻을 꼼꼼히 살피는 증의(證義), 역주의 우측에 자리하여 문장의 정밀함을 살피는 증문(證文), 출발어인 범문을 자세히 살피는 범학승(梵學僧), 현지어로 받아쓰는 필수(筆受), 번역된 글을 한자문법에 맞게 구문을 구성하는 철문(綴文), 범문과 한문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참교(參校)하는 참역(參譯), 산만한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는 간정(刊定), 역주와 마주하여 번역된 문장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윤문(潤文) 등이 협력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다자들의 합송에 의한 결집으로 전승된 삼장은 다시 이렇듯 다자에 의한 협동으로 번역되어 전승되었고, 한국승가의 강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논강(論講) 또한 이러한 전통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독해와 전통이해 그리고 다양한 불교술어를 번역할 수 있는 연구자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국고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전통의 다자번역 전통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까지 아우르는 고난도 작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간행위 여러분들과 국내외 번역자들 그리고 간행위 사무처 관계자 등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부처님께 기원드리며 간행사에 대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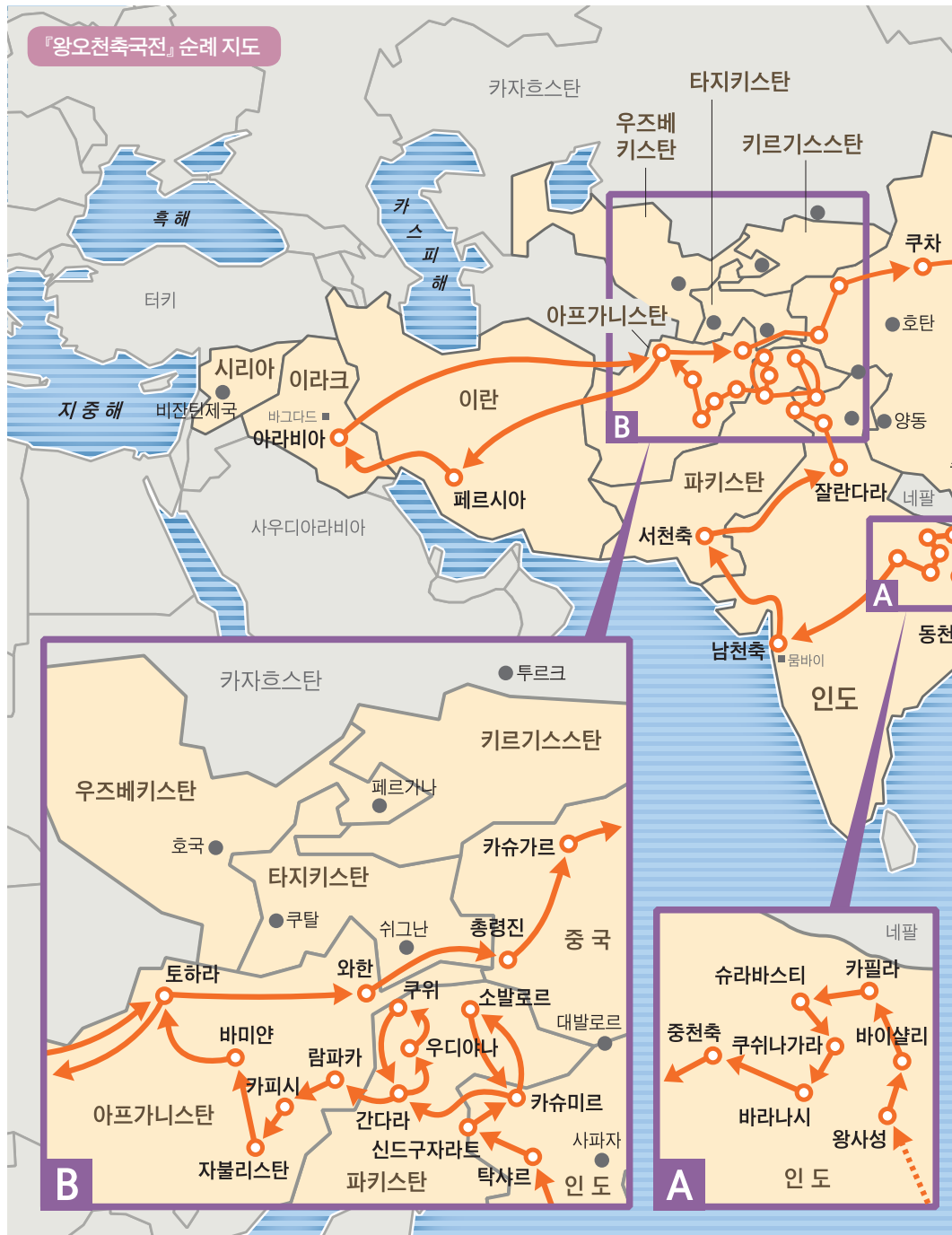
불기 2553(2009)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가산지관 적음



『왕오천축국전』 순례 지도







總目次 총목차

【往五天竺國傳 왕오천축국전】

【三國遺事「塔像」 삼국유사「탑상」】

【三國遺事「義解」 삼국유사「의해」】





凡例 일러두기

1.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 전통사상의 선양·유통을 위하여 기획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제10권 [문화편]이다. 한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전적을 가려 뽑았다.
2.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의 번역 지침에 따랐다.
3. 번역의 저본은 「한국불교전서」로 하여 교감한 교감본을 대본으로 번역하였다. 저본과 다른 교감 내용은 각주로 밝혔다.
4. 전체 내용을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 번역문과 원문을 나란히 실었다. 단락은 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역주자가 구분하였다.
5. 번역문과 원문의 표점은 직접인용은 큰 따옴표(“ ”), 직접인용 안의 인용은 작은따옴표(‘ ’), 작은따옴표 안에 다시 인용이 있을 경우는 홑낫표(「 」)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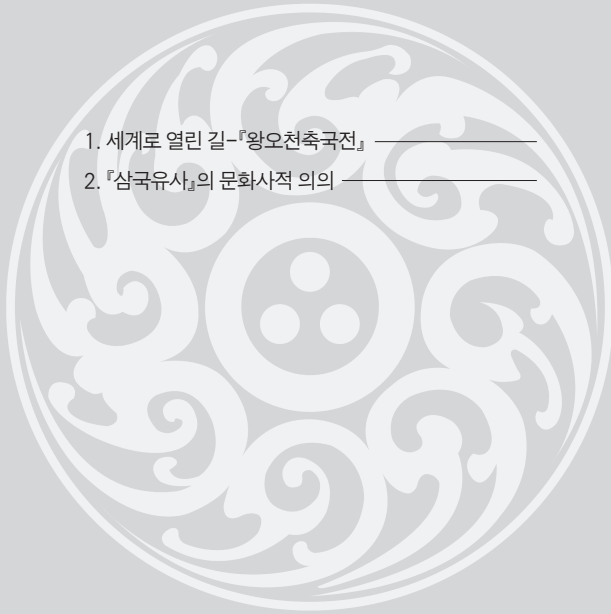
6. 한자어 그대로인 경우에는 (), 한자를 풀어서 쓴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으며, 원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위하여 덧붙인 부분은 ()를 사용하였다. 삼국유사의 원주는 < >로 표시하고 글씨의 크기를 작게 하였다.
7.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는 韓,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은 大,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 卍續藏經)은 卍으로 표시하고, 그 인용문은 번역문-전거-원문 순서로 제시하였다. 전거는 『책 이름』- 권수- 전거권수-면수 순서로 표기하였다. 예) 『삼국유사』권4 韓6 p.318b3.
8. 산스크리트어는 ㄷ, 팔리어는 ㅍ로 표기하였다.
9. 이 책에서는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모두 번역하였으나 한권에 엮는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일연의 『삼국유사』는 제4 탑상(塔像)편과 제5 의해(義解)편만을 가려 번역하고 목차는 4-1, 5-1 등으로 구분하였다.





解題 해제

1. 세계로 열린 길-『왕오천축국전』 _____
2. 『삼국유사』의 문화사적 의의 _____



1. 세계로 열린 길- 왕오천축국전

1) 돈황문서와 왕오천축국전의 발견

지금부터 1300년 전의 먼 옛날에 저 멀리 인도를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긴 신라인이 있다. 일찍이 세계화의 문을 열고 넓은 마음으로 문화를 받아들인 그는 혜초(慧超)였다. 그가 남긴 여행기가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다.

광대한 타클라마칸 사막지대의 오른쪽 끝이자 중국의 서쪽 변방에 오아시스 도시 돈황(敦煌)이 있다. 돈황은 중국 문물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첫걸음이자 서양 문물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 비단길의 길목이었다. 돈황의 명사산(鳴沙山) 막고굴(莫高窟)은 남북조시대부터 수당을 거쳐 원대까지 불상과 불화로 가득찬 수많은 석굴(石窟)이 있어 흔히 천불동(千佛洞)으로 불린다.

1900년 봄에 천불동을 관리하던 도사 왕원록(王圓籙)은 석굴을 수리하다 벽 너머의 새로운 굴을 찾아냈다. 진흙으로 바른 문을 열고 보니 가로 2.8m 세로 2.7m에 높이 3m되는 작은 방 안에 보자기에 쓴 더미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돈황 제16동 내벽에 만들어진 작은 방 제17동 장경동(藏經洞)의 발견이었다.

이 안에 들어 있던 엄청난 양의 사본(寫本)과 서화들은 알아보는 이 없어 외면되다가 중앙아시아 침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서구 열강의 눈에 띄어 수탈의 표적이 되었다. 1905년 러시아의 오브루체프(Obruchev)에 이어 1907년에 본격적으로 영국의 스타인(Stein)과 프랑스의 펠리오(Pelliot)가 수천 권의 방대한 사경과 회화 등을 본국으로 실어갔다.

동양 문물에 정통한 동양학자였던 펠리오가 1909년에 북경에 가서 이 돈황 사본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돈황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의 보고(寶庫)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 도교 유교의 사상과 지리 언어 그리고 조각과 회화 공예 등 문화 전 방면에 걸친 돈황학(敦煌學)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청나라는 1910년에 남은 돈황 문서 5,6천 권을 북경으로 가져갔고 1912년에는 일본 오타니(大谷光瑞) 탐험대가 5백여 권의 문서를 가져갔다. 이렇게 하여 돈황의 소중한 문화재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수많은 돈황 사본 중에 동양 문물에 밝았던 펠리오가 찾아낸 것이 『왕오천축국전』이었다. 왕오천축국전 사본(寫本)은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앞뒤가 떨어져나가고 현재 남은 것은 1행이 30자 남짓한 모두 227행으로 된 기록이다. 세로 28.5cm에 한 장의 길이가 42cm되는 종이 9장을 붙여서 현재 남은 총 길이는 358.6cm가 된다.¹⁾

처음과 끝이 완전하지 않아 이름도 모르는 이 사본을 조사한 펠리오는 혜림(慧琳)의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 같은 어구가 있음을 확인하여 『왕오천축국전』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후 『왕오천축국전』은 당대 중국의 석학이던 루오전유(羅振玉)에 의해 그 의의가 평가되어 『돈황석실유서(敦煌石室遺書)』에 실리게 되었고, 이어 일본의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에 의해 『대일본불교전서(大日本佛教全書)』에 실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후지타 도요하치(藤田豊八)와 폭스(Fuchs)와 같은 일본과 유럽 학자들에 의해 내용이 분석 연구되어 그 가치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²⁾

1) 桑山正進,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1992,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p.1

2) 高柄翔,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史略」 『白性郁博士頌壽記念 佛教學論文集』, 1959, pp.302~307

혜초(慧超)는 『일체경음의』에서처럼 혜초(惠超)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혜초가 신라인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불공이 남긴 유서에 그의 법을 전승할 뛰어난 제자 6인을 꼽는 데서 ‘신라혜초(新羅慧超)’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사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일반적인 한문 문법에 어긋나는 구절이 보인다는가, 글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자주 눈에 띄인다는가 하는 것도 신라인인 혜초의 기술을 확인해주는 방증으로 지적된다.³⁾

삼국의 승려들은 일찍부터 중국에 가서 불법을 익혀 본국의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남북조시대에 16명에 지나지 않던 중국 유학 구도승(求道僧)은 수당시대(589~907)에 들면 185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진다. 그중 7세기에 43명, 8세기에 41명, 그리고 선종이 왕성해진 9세기에는 98명이 중국에 가서 불법을 익혀 본국의 불교 이해와 발전에 앞장섰다.⁴⁾

이러한 구도열은 중국 땅에 그치지 않고 불교의 본고장 인도에까지 이어졌다. 6세기에 2명이었던 인도 구법승은 7세기에는 9명 그리고 8세기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15명의 인도 구법승들 중에 여행지 인도에서 혹은 왕래하던 여행길에서 객사한 이가 10명이나 되고 중국에 돌아온 이가 3명, 그리고 고국 신라에 돌아간 이는 불과 2명에 지나지 않는다.⁵⁾ 이처럼 목숨을 내건 구법 여행으로 이들 구도승들은 신라불교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혜초는 밀교를 공부한 승려였는데, 인도 후기밀교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

3) 高田時雄, 「慧超往五天竺國傳の言語と敦煌寫本の性格」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1992, pp.205~209

4) 陳景富, 『中韓佛教關係一千年』,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1999, pp.22~23

5) 謙益, 義信/ 阿離耶跋摩, 慧業, 求本, 玄太, 玄格, 慧輪, 玄遊, 미상 2인(義淨, 『大唐西域求法高僧傳』; 覺訓, 『海東高僧傳』)/ 慧超, 無漏, 元表, 悟眞. 陳景富, 위의 책, pp.44~54 참조

하던 선무외(善無畏)는 716년에 장안에 들어왔고 금강지(金剛智)는 719년에 광동에 도착해서 720년에 낙양에 이르러 전법활동을 펼쳤다. 당시 밀교가 성행하던 인도 불교를 직접 순력한 혜초는 구법여행 후에 중국에서 밀교를 펴고 있던 금강지와 불공(不空)에게 차례로 제자가 되어 밀교의 고승이 되었다. 스승에게서 배움과 동시에 자신이 익힌 범어 실력으로 스승과 함께 『만수실리천비천발경(曼殊室利千臂千鉢經)』 등의 경전을 번역하는데 참가하였고, 그 뜻을 8년 동안이나 익혔지만 그것도 모자라 무려 48여 년이나 그 탐구에 매달렸던 열렬한 구도자였다.⁶⁾

2) 밀교 고승 혜초의 생애

신라 출신 혜초는 일찍이 당에 건너가서 구도에 열중하였다. 700년경에 태어나 780년대에 생을 마친 것으로 추측될 뿐 그의 생몰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 혜초는 780년대까지 산 것으로 보아 20대의 젊은 나이에 치열한 구도정신으로 인도 구법 여행을 이루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곧 혜초는 723년경에 중국 광주(廣州)를 떠나 바닷길로 수마트라를 거쳐 인도 동해안에 상륙하여 인도 각 지역의 유적을 순방하고, 육로로 서역을 거쳐 728년경에 당의 수도 장안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혜초는 인도 순력 후 5년쯤이 지난 733년에 장안의 천복사에서 금강지에게 밀교 교법을 배워 칙명으로 시행된 범본 번역의 필수(筆受)를 맡을 만큼 핵심적인 활동을 하였다. 인도 순력 여정에서 익힌 범어 구사와 밀교 교학 연마로 익힌 능력이 인정된 결과였을 것이다.

이후 774년까지 30여 년 동안 혜초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6) 정병삼, 「慧超의 활동과 8세기 신라밀교」 『한국고대사연구』 37, 2005, p.162

774년에 내도량(內道場) 사문으로 활동한 것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밀교 수행에 전념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774년 2월에 내도량 사문으로 활동하던 혜초는 성지 옥녀담(玉女潭)에서 기우제를 주관하고 「하옥녀담기우표(賀玉女潭祈雨表)」를 지어 황제에게 올렸다.⁷⁾ 옥녀담은 서안 서쪽 80km 지점의 주질현(盩厔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주지현周至縣) 선유사(仙遊寺) 앞에 있었는데, 당시 혜초와 비슷한 활동을 하였던 밀교승 담정(曇貞)도 선유사에 주석하며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선유사는 수 문제 때 세운 절로 601년에는 인수탑(仁壽塔)이 건립되었다. 그 후 당 현종 725년에 중건되었으나 원터가 댐을 만들면서 수몰되어 1998년에 인근으로 이건하였다. 이때 탑에서 「선유사사리탑명(仙遊寺舍利塔銘)」 기록과 진신사리가 출토되었다.⁸⁾

혜초는 칙령을 받아 옥녀담에 가서 제단을 시설하고 기도하였는데, 계곡에서 소리가 나서 사리를 던졌더니 실낱 같은 빗줄기가 내려 하룻밤 새에 초목이 빛나고 다음날 개울물이 넘쳐흘러 메마른 대지를 윤택하게 하였다 한다. 이런 기도 감응을 두고 혜초는 자신의 정성이 아니라 황제의 덕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라며 비가 내리게 됨을 하례하는 표를 올렸다. 이를 기뻐한 황제도 혜초에게 답글을 보냈다. 이 사실은 혜초가 내도량사문으로서 국가적인 행사의 주역을 맡았던 사정을 말해준다.⁹⁾

774년 10월에 혜초는 대흥전사에서 불공에게 다시 「만수실리천비천발경」의 내용을 묻고 정리하였다. 혜초는 이 경의 서문을 썼는데, 이 내용은 이 경에 대한 해제 내용과 거의 같아 혜초가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7) 慧超, 「賀玉女潭祈雨表一首」(并答)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上表制集』 권5, 大52 p.855a
8) 趙克禮, 『陝西古塔研究』, 北京:科學出版社, 2007, pp.163~164
9) 鄭炳삼, 앞의 글, 2005, pp.163~174



중국 섬서성 주지현 선유사터

알게 한다. 불공이 금강지의 제자였기 때문에 혜초와는 동문이 되며, 출생년도 720년대 전반에 인도 구법행을 나섰던 혜초가 705년 출생의 불공보다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혜초는 밀교 조사 상승 관계에서 불공의 제자로 전승되었다. 불공이 자신을 계승할 제자를 부족하는 유서(遺書)에서 그의 뛰어난 제자 6인을 거명하였는데, 여기에 ‘신라혜초’를 명기하였다.¹⁰⁾

불공의 제자로 혜초와 함께 거명된 이들은 모두 밀교 대가들이다. 두 번째로 거명된 혜초의 다음에 나오는 혜과(慧果)는 중국 밀교를 집대성한 조사이다. 이들 중국 밀교 조사들과 나란히 거명된 혜초는 당시 밀교 승려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불공이 774년에 입적하기 전에 자신이 믿는 21인의 밀교 고승들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데서도

10) 不空, 「三藏和上遺書一首」 『代宗朝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上表制集』 권3, 大52 p.844b.

혜초는 두 번째로 등장한다.¹¹⁾

80을 넘은 고령으로 추정되는 780년에 혜초는 오대산(五臺山)에 입산하여 수행에 들어갔다. 오대산은 불공이 오랫동안 체류하며 밀교 도량으로 정립한 곳이고 동문들이 이어 주석하며 밀교를 퍼던 성지였다. 나이로 보아 혜초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왕오천축국전의 구성과 기행 경로

현존하는 『왕오천축국전』 사본은 일부만 남아 있는데, 본래는 3권 분량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펠리오가 이 『왕오천축국전』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혜림의 『일체경음의』에는 ‘혜초왕오천축국전(慧超往五天竺國傳)’을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 주요 어귀를 설명하고 있다.¹²⁾ 이 내용과 비교하면 현존하는 『왕오천축국전』 사본은 중·하권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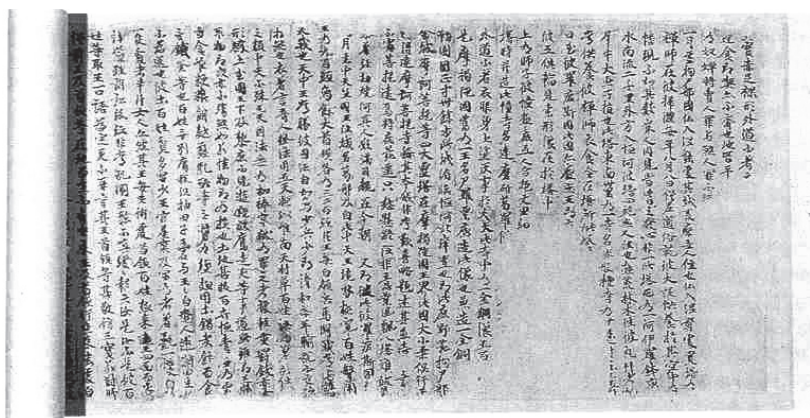
그러나 계속 이어져 있는 현존 사본 중에는 보이지 않는 어귀가 『일체경음의』에 여러 차례 나온다. 이를 토대로 류오전유가 현존하는 사본은 3권으로 된 본래 『왕오천축국전』을 1권으로 줄여 만든 절략본(節略本)이라고 추정할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¹³⁾ 이와는 달리 이 사본이 원래의 초고본(草稿本)이고 혜초는 이를 토대로 3권으로 된 책으로 정리하였으며, 혜림은 이 3권본 정본을 대상으로 음의를 집성하였다는 주장도 있다.¹⁴⁾ 또 현존 사본이 3권으로 된 원본의 절략본이 아니라 권을 나

11) 不空, 「請於興善當院兩道場各置持誦僧制一首」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上表制集』 권4, 大52 p.845b.

12) 慧琳, 『一切經音義』 권100, 大54 pp.726c~927c

13) 정수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학고재, 2004, pp.48~49; 57~64

14) 高田時雄, 앞의 글, pp.207~209. 만약 절략본이라면 원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



왕오천축국전 사본

누지 않은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사록본(寫錄本)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⁵⁾ 그런데 『일체경음의』의 어귀 수록 순서와 현존 사본에 나오는 어귀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고, 사본에 안서대사 ‘조군(趙君)’으로만 나오는 것이 『음의』에는 그 이름인 ‘이정(頤貞)’이 실린 것 등은 현존 사본에 없는 구절들이 3권 본에는 수록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현존 사본이 여행의 일정에 따라 간략하게 기술한 초본이고, 이를 토대로 다시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한 3권본의 『왕오천축국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본의 내용이 불교적 내용보다는 각 나라의 형세와 풍습을 간략하게 요점식으로 서술하였고, 그런 가운데서도 찬자가 현장에서 느꼈던 감흥을 기술한 시가 5수나 남아 있는 것 등이 현존 사본이 초본일 가능성을 시사해

을 것이므로 같은 단어를 표기하는 데 필사본과 음의가 다를 이유가 없으며, 초고본을 완본으로 증보 윤색하였기에 이런 기술 차이가 생겼다고 본다.

15) 大谷勝眞, 「慧超往五天竺國傳の一二に就いて」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1934, pp.143~160

준다.¹⁶⁾ 『왕오천축국전』의 구성을 보더라도 오천축에 대한 서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천축 전반에 대한 서술이 곳곳에 나뉘어 있어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것도 이런 추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3권본 완본이 아닌 이 초본이 필사되어 돈황문서에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¹⁷⁾ 현재 사본에는 필사하면서 글자 순서가 뒤바뀌어 수정표시를 한 곳이 10군데 있고, 고치거나 삽입 중복된 곳도 있다.¹⁸⁾

완전하지 않은 현존 사본의 본래 모습을 추정하는 데는 『일체경음의』가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왕오천축국전』에 대해 상권 39항목, 중권 18항목, 하권 28항목의 모두 85항목의 어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중에서 『일체경음의』의 중권 중간 부분인 ‘피라닐사(彼羅泥斯)’ 항목이 현존 사본의 10행에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중권의 4항목이 나오며, 하권에서는 사본 103행에 나오는 ‘사파자(娑播慈)’와 130행에 나오는 ‘위오야차(饒五夜叉)’를 비롯하여 220행의 ‘명운(明暉)’ 항목까지 14항목이 보여 전체로는 18개 항목이 나온다.¹⁹⁾ 상호 대조가 가능한 ‘피라닐사’에서 ‘명운’까지의 부분만을

16) 정병삼, 「慧超와 8세기 신라불교」 『世界精神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慧超』,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9, p.24

17) 이를 절략본으로 본다 하더라도 왜 완본 외에 따로 절략본을 만들어 필사 보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알 수 없다.

18) 수정표시를 한 10곳은 23, 48, 52, 72, 93, 122, 147, 148, 167, 170행에 있다. 수정자 9곳은 20, 44, 52, 58, 122, 138, 173, 191, 210행에, 삽입 4곳은 44행과 54행 그리고 195행에 2군데 있으며, 중복 2곳은 96행과 156행에 있다.

19) 중권- 彼羅泥斯(10행-음의에는 波羅泥斯) 土鍋(28행-음의에는 土鍋) 毛毯(89행-음의에는 一毯) 毛褐(108행)

하권- 娑播慈(103행-음의에는 婆簸慈) 氈帳(106행-음의에는 氈裝) 猫牛(107행-음의에는 犛牛) 蟻虱(111행-음의에는 牙嚙蟻虱) 饒五夜叉(130행) 謝颺(147행) 匙筋(171행-음의에는 匙箸) 胡蜜(193행-음의에는 胡蜜) 峭巖(195행) 擘地烈(196행-음의에는 擘地裂) 瀑布(19행-음의에는 瀑布) 播蜜(209행-음의에는 播蔑) 伽師祇離(212행-음의에는 迦師伽黎) 明暉(220행)

비교해보면 『일체경음의』의 34개 항목 중에서 18개 항목만 사본에 보이고 나머지 16개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체경음의』가 대상으로 했던 3권본이 현존 사본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존 사본의 앞부분이 많게는 절반쯤 떨어져 나갔지만 뒷부분은 거의 남은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²⁰⁾ 현존 사본이 3권본의 중권 후반부터 하권 후반까지 남아 있다면 원책의 전체 분량은 적어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혜초는 해로를 통해 인도를 돌아보고 서역지방을 거쳐 당에 돌아왔다. 『왕오천축국전』이 안서도호부가 있던 구자국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아 돌아온 길이 육로였다는 것은 확실한 반면 갔던 길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현존 사본의 시작 부분이 동인도 지방에서 시작하고 있고, 현존하지 않는 부분 곧 『일체경음의』에서 상권으로 분류한 부분의 어귀들이 ‘대모(玳瑁)’·‘구별(龜鼈)’·‘원타(鼃鼃)’ 등과 같은 해안 도서지방의 특산물이나 지세와 주거 상황 등 해양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은 간 길이 해로였음을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펠리오는 일찍이 『일체경음의』의 이와 같은 어귀

음의 중권에 수록된 어휘가 사본에는 彼羅羆斯(10행), 土鍋(28행), 毛毯(89행), 毛褐(108행) 순서이나, 음의는 波羅羆斯, 一毯, 毛褐, 土塢로 순서가 다르다. 하권 수록 어휘도 毘帳은 謝廳과 匙箸 사이에 실려 있고, 播蔑은 胡篋과 峭巖 사이에 실려 있어 다르다. 또 음의 권상에 參差가 수록되어 있는데, 순서는 많이 다르지만 사본 20행에 나온다. 高田時雄은 사본의 樵机(114행)이 음의 하권의 磻礪와 뜻이 통한다고 본다.(앞의 글, p.206) 적극적으로 보면 모두 20항목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 20) 앞부분이 많게는 절반쯤까지 떨어져 나갔다는 추정 은 『일체경음의』에 수록된 어귀가 중권 중간 부분부터 시작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 권마다 일정한 비율로 어귀를 추출한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인도와 서역의 여정이 더 중요하고 많은 나라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분량이 그렇지 않을 것이나 대강 추정하자면 그런 예상도 가능할 것이다.

에 기초하여 『왕오천축국전』이 중국에서 남해를 거쳐 인도를 돌아보고 투르키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온 기록이라고 추정하였다.²¹⁾

혜초의 인도와 서역 구법 행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혜초는 당나라 남방의 광주(廣州)에서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 떠난 것으로 생각된다.²²⁾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였기 때문에 대체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출항하여 한 달이면 수마트라에 도착하였다. 구법승들은 현재의 팔렘방(Palembang)이나 잠비(Djambi)로 추정되는 수마트라(Sumatra, 실리불서室利佛逝) 지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열대 기후도 익히고 현지어와 산스크리트어도 배웠다. 혜초 역시 당시 구법승들의 예에 따라 이곳을 거쳐 콜카타 인근 서남방의 탐라립티(Tamlīpti, 탐라립저耽羅立底, 지금의 탐룩Tamluk)를 통해 인도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된다.²³⁾

혜초는 동인도를 지나 먼저 강가(Gangā, 恒河)강과 야무나(Yamuna)강 일대의 불적을 순례하였다.²⁴⁾ 가장 중요한 불적이 있는 마가다(Magadha, 마게타摩揭陀) 지방을 이때 순례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은 기록 중에 맨 먼저 나오는 부분은 바이샬리(Vaiśālī, 비야리毗耶離)에 대한 서술로 생각된다. 이어 쿠쉬나가라(Kuśinagara, 구시나拘尸那)에서 바라나시(Vārāṇasī, 피라닐사彼羅睺斯)를 거쳐 2개월 걸려 중천축국의 왕성인 카나우지(Kanauj, 갈나급자葛那及自)에 도착하여 유적을 순례한 것이 724년경이었다. 중천축에서 3개월 걸려 남천축국(지금의 나시크Nasik)을 순례하고, 여기서 2개월

21) 高柄翊, 앞의 글, p.303

22)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는 65명중 40명이 해로를 통해 인도에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 육로보다 해로를 선호했던 구법승들의 경향을 알 수 있다.

23) 高柄翊, 「慧超의 印度往路에 대한 考察」 『佛敎와 諸科學』 東國大學校開校八十周年紀念論叢, 1987, pp.873~887

가서 아랍의 침입을 받고 있던 서천축국(신드Sindh)을 순례하였다.

여기서 3개월이 걸려 편자브지방의 북천축국 잘란다라(Jālandhara, 사란달라闐達羅)에 이르고, 여기서 수바르나고트라(Suvarnagotra, 소발나구달라蘇跋那具怛羅, 티베트)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 다시 1개월이 걸려 탁샤르(Takshar, 타사吒社, 지금의 파키스탄 시알코트Sialkot)를 지나고 또 1개월 만에 신드구자라트(Sindh-Gujārat, 신두고라新頭故羅, 지금의 펀치Punch)를 지나, 여기서 보름만에 카슈미르(Kashmir, 가섬미라迦葉彌羅)지방에 들어갔다. 이곳 카슈미르에서 티베트(Tibet, 토번吐蕃)와 그 관할 하에 있던 대발로르국(Balor Major, 대발률국大勃律國, 지금의 Baltistan), 양동(楊同, 지금의 카슈미르 동남부와 서티베트), 사파자(娑播慈, 지금의 카슈미르 중부 라다크Ladakh)의 소식을 듣고 나서 7일이 걸려 당의 통제를 받던 소발로르국(Balor Minor, 소발률小勃律, 지금의 길기트Gilgit)에 갔다.

다시 카슈미르에서 산을 넘어 1개월 만에 간다라(Gandhāra, 건타라建駄羅, 지금의 페샤와르Peshawar)에 이르니 725년 가을부터 726년 봄에 걸친 때였다. 간다라에서 북쪽으로 3일을 가서 우디아나(Uddiyāna, 오장烏長, 지금의 스와트Swat)에 가고, 또 간다라에서 15일 걸리는 쿠위(Kuwi, 구위拘衛, 지금의 치트랄Chitral)에 이르고, 다시 간다라에서 서쪽으로 7일을 가서 람파

-
- 24) 현재 남은 사본 중에서 바라나시와 중천축의 서술에서 슈라바스티, 카필라, 바이샬리, 상카시아의 4대탑을 보았다고 하였고, 마가다 4대 영탑으로 녹야원, 쿠쉬나가라, 왕사성, 마하보리사를 들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현존하는 확실한 첫 부분인 쿠쉬나가라에 앞서 슈라바스티, 카필라, 바이샬리, 왕사성과 마가다 일대 유적에 대한 서술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추정에 따르면 탐라 립티의 동천축으로 상륙하여 왕사성 일대(부다가야, 날란다 포함)→바이샬리→카필라→슈라바스티→쿠쉬나가라→바라나시에 이르렀다는 여정이 그려진다. 일반적인 여정은 왕사성에서 바이샬리를 거쳐 쿠쉬나가라로 가므로, 여기서 추정된 것과 같이 쿠쉬나가라 등 북쪽 유적지를 보고 나서 바이샬리로 다시 와서 바라나시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카(Lampāka, 남파覽波,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라그만Laghman)에 이르렀다. 람파카에서 8일만에 카피시(Kāpīśī, 계빈闕賓, 지금의 카불Kabul)에 이르고, 여기서 7일을 가서 자불리스탄(Zābulistān, 사울謝颶, 지금의 가즈니Ghazni)을 거쳐 다시 7일을 가서 바미얀(Bāmiyān, 범인犯引)에 이르렀다. 여기서 20일을 더 가서 토하라(Tokhara, 토화라吐火羅)의 발흐(Balkh)에 들어간 것은 726년에서 727년초까지의 겨울이었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1개월 가서 페르시아(Persia, 파사波斯, 지금의 이란 파르스Fars주 쉬라즈Shiraz 일대)에 이르고, 다시 북쪽으로 10일을 가서 아랍(Arab, 대식大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쿠파Kufa 일대)에 이르렀다.²⁵⁾ 여기서 비잔틴제국(Byzantine Empire, 대불림大拂臨)의 이야기를 듣고, 아랍 동쪽에 있던 소그드(Sogd)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호국(胡國)이라는 이름으로 전하였다. 그 호국 여섯 나라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던 부하라(Bukhara, 안국安國), 카부단(Kabudhan, 조국曹國), 키쉬(Kish, 사국史國), 타쉬켄트(Tashkent, 석나국石驪國), 펜지켄트(Penjikent, 미국米國), 사마르칸드(Samarqand, 강국康國)였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우즈

25) 이 페르시아와 아랍 지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당시 페르시아는 651년에 아랍에게 멸망하였고, 옛 페르시아 지역은 파르스 호라산 등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총독이 파견되어 다스렸다. 토하라의 중심지 발흐 역시 호라산 지역에 속한다. 토하라에서 ‘서쪽으로 1개월’ 간다는 혜초의 기술을 ‘서남쪽으로 2개월’로 바꾸면 페르시아의 중심지였던 파르스 지방에 닿게 된다. 다시 여기서 ‘북쪽으로 10일’ 간다는 혜초의 기술을 ‘서북쪽으로 20일’로 바꾸면 7세기 중반에 아랍의 중심지였던 유프라테스강 연안의 쿠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혜초가 갔던 페르시아나 아랍 지역을 이란 동부의 호라산 치하 니사푸르(Nishapur)로 보는 견해도 있다.(정수일, 앞의 책, p.99에서는 아랍 순례지의 서쪽 끝으로 니사푸르를, p.343에서는 페르시아를 니사푸르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은 혜초가 기술한 일정과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지만, 아랍에 이어 비잔틴제국을 기술한 것을 보더라도 아랍 서술의 중심을 아랍 중요 지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베키스탄의 페르가나(Ferghāna, 발하나跋賀那), 타지키스탄의 쿠탈(Khuttal, 골돌骨咄, 지금의 카틀론Khatlon)과 투르크(Turk, 돌궐突厥, 지금의 카자흐스탄 일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토하라에서 동쪽으로 7일을 나아가 파키스탄의 와한(Wakhan, 호밀胡蜜)의 서율인 이슈카심(Ishkāsim)에 이르고, 여기서 북쪽에 있는 타지키스탄의 아홉 쉬그난(Shighnān, 식닉識匿)의 소식을 전해 듣고, 와한에서 보름을 더 가서 중국 영역인 타슈쿠르간(Tashukurghan, 갈반단渴飯檀; 총령진蔥嶺鎮, 지금의 타시쿠르간塔什庫爾干)에 이르렀다.

타슈쿠르간에서 1개월을 더 가서 안서(安西) 4진의 하나인 카슈가르(Kashgar, 소록疎勒, 지금의 카시喀什)에 이르고 다시 1개월을 더 가서 안서도호부가 있는 쿠차(Kucha, 구자龜茲, 지금의 쿠처庫車)에 이른 것이 727년 11월이었다. 여기서 남쪽으로 타클라마칸 사막 너머에 있는 호탄(Khotan, 우전于闐, 지금의 허토펜和田)의 소식을 전해 듣고, 쿠차에서 1개월을 가서 카라샤르(Kharashar, 언기焉耆, 지금의 옌지)에 이르렀다.²⁶⁾ 『왕오천축국전』의 현존 사본은 여기서 끝난다. 그런데 『일체경음의』에 이어 나오는 ‘성국(姓麴)’이 바로 고창(高昌)의 왕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혜초의 귀로는 카슈가르에서 쿠차와 카라샤르로 서역북도를 따라 와서 고창과 돈황을 거쳐 728년 경에 장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여정을 정리하면 혜초는 언급한 36개 지역 중에서 26개 지역을 직접 순례하였고, 수바르나고트라, 대발로르국·양동국·사파자국, 티베트, 비잔틴제국, 호국, 페르가나, 쿠탈, 투르크, 쉬그난, 호탄의 10개 지역의 이

26) 여정은 추정된 당시 국명을 앞에 표기하고 그에 대한 혜초의 한자 표기와 현재의 지명을 덧붙였다. 당시 국가의 비정은 여러 연구 성과를 종합한 것인데, 구와야마 쇼신(桑山正進)의 견해가 큰 도움이 된다(桑山正進,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1992, pp.4~10).

야기는 전해 들은 것으로 생각된다.²⁷⁾

혜초의 역정 중에서 서쪽으로 어디까지 순력했느냐에 대해 이견이 많다. 일정이나 여행 목적 등에 비추어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술이 혜초가 직접 순례했던 지역에 대한 서술 방식과 같고 기술 내용이 정확하며 아랍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혜초가 아랍 지역에 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²⁸⁾

4) 왕오천축국전의 내용과 특성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이름은 오천축(五天竺) 곧 인도를 왕래한 기록이라는 의미인데 당나라 때는 인도를 이렇게 오천축이라고 불렀다. 파미르 서북쪽의 3만리쯤 되는 지역을 다섯으로 나누어 중천축·동천축·남천축·서천축·북천축으로 불렀다는 것을 『당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⁹⁾ 이런 당대의 인식에 따라 혜초는 오천축의 이름을 붙인 구법 여행을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사본은 실제 인도 오천축에 대한 기록은 삼분의 일에 지나지 않고 서역 지방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이 남아 있다. 떨어져 나간 앞부분에 일부 중천축과 동천축 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도 이전의 동남아 지방 기사가 있었던 것을 『일체경음의』에 견주어 추정해보면 천축의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이런 점에서 법현의 『불국기』는 물론 현장의 『대당서

27) 이에 더하여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리고 남천축과 서천축의 서술도 전해 들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桑山正進, 위의 책, p.4).

28) 정수일, 앞의 책, pp.89~99. 김상영도 파사국과 대식국 그리고 호국 가운데 강국 등 일부는 탐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慧超의 求法行路 檢討」 『世界精神』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혜超, 1999, pp.46~48). 이때의 아랍은 호라산 총독부의 서쪽 끝인 니사푸르로 본다. 이 아랍 지역은 이라크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

29) 『舊唐書』 권198 列傳 西戎-天竺; 『新唐書』 권221上 列傳 西域上-天竺

역기』와 같은 대표적인 구법기가 인도의 순례에 많은 비중을 두어 서술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³⁰⁾

동진의 법현(法顯)은 399년에 서역을 통해 육로로 인도에 가서 불적지를 돌아보고 공부한 후 412년에 해로로 당나라에 돌아왔다. 법현의 이 구법 여정을 기록한 『불국기(佛國記)』에 등장하는 지역은 중국 4개 지역, 서역 6개국, 북천축 10개국, 중천축 14개 지역, 동천축 1개국, 그리고 스리랑카 등 2개 지역을 합해 모두 37개 지역을 기록하였다.³¹⁾ 당의 현장(玄奘)은 629년에 육로로 서역을 통해 인도에 가서 645년에 다시 육로로 돌아오기까지 17년 동안 각 지역을 순례하고 불법을 배웠다. 이를 기록한 가장 방대한 구법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는 순력한 나라를 자신이 직접 5인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그중 중인도는 30개국, 동인도 6개국, 남인도 15개국, 서인도 10개국, 북인도 19개국이며, 중앙아시아와 기타 58개국을 합쳐 모두 138개국 이 된다.³²⁾ 당의 오공(悟空)은 혜초보다 30년쯤 뒤인 750년에 사행(使行)의 일원으로 안서로를 따라 인도에 갔는데, 총령을 넘어 호밀·구위·남파·오장나·신도 등을 지나 간다라에 이르렀다. 인도에 가서 병을 얻어 그곳에서 출가하여 수행한 후 790년에 귀국하였는데, 『오공입축기(悟空入竺記)』에서 그의 여정과 순력 지역을 소략하게 기록하였다.³³⁾

이런 구법여행기와 비교해보면 『왕오천축국전』은 독자적인 특색이 있다. 『왕오천축국전』은 인도와 서역에 대한 8세기 전반의 유일한 견문기이자, 해로로 가서 육로로 돌아온 특색 있는 구법기이다.

30) 법현과 현장의 간략한 여정 비교와 의의는 나가사와 가즈도시(長澤和俊) 지음·이재성 옮김,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민족사, 1990, pp.89~105 참조.

31) 法顯, 『高僧法顯傳』(佛國記), 大51 pp.857~866

32) 玄奘, 『大唐西域記』, 大51 pp.868~947

33) 圓照集, 『悟空入竺記』, 大51 pp.979b~981b

현존하는 사본 『왕오천축국전』은 모두 36개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³⁴⁾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원문의 기록	현재의 지역	거리	분량
1 (비아리성 毗耶離城 Vaiśālī)	인도 (바이살리 Vaiśālī)		3
2 구시나국 拘尸那國 Kuśinagara	인도 쿠쉬나가라 Kuśinagara	1개월	6
3 피라닐사국 彼羅隄斯國 Vārāṇasī	인도 바라나시 Vārāṇasī	□ 일	7
마게타국 摩揭陀國 Magadha	보드 가야 Bodhgaya 등		4
4 중천축국 中天竺國	인도 카나우지 Kanauj	바라나시에서 서쪽으로 2개월	28
갈나급자성 葛那及自城			
5 남천축국 南天竺國 Chālukya	인도 나시크 Nasik	중천축에서 남쪽으로 3개월	11
6 서천국 西天國 Sindh	파키스탄 신드 Sindh	남천축에서 북쪽으로 2개월	7
7 북천국 北天國	인도 잘란다라 Jalandhara	서천축에서 북쪽으로 3개월	6
사란달라국 閼蘭達羅國			
8 *소발나구달라 蘇跋那具怛羅 Suvarṇagotra	티베트 수바르나고트 라	동쪽으로 1개월	2
9 타사국 吒社國 Takshar	파키스탄 시알코트 Sialkot	자란달라에서 서쪽으로 1개월	3
10 신두고라국 新頭故羅國 Sindh - Gujārat	파키스탄 펀치 Punch	탁샤르에서 서쪽으로 1개월	5+8

34) 이 36개 지역은 나라만은 아니다. 중국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다. 또 한 지역 안에 여러 나라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몇 나라의 기행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지역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나라’로 부르기로 한다. 혜초가 직접 간 지역과 전해 들은 지역은 기술 중의 “어디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어느 나라에 이른다(從---國 --行 --日至---國)”는 표현이 명확한 경우는 직접 간 곳으로 본다. 다만 페르시아와 아랍을 어느 지역으로 보느냐에 따라 직접 갔다는 견해와 전해 들었다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11	가섭미라국 迦葉彌羅國 Kaśmīra	인도 카슈미르 Kashmir	북쪽으로 15일	9+7
12	*대발률국 大勃律國 양동국 楊同國 사파자국 娑播慈國	인도 발티스탄 Baltistan 라다크 Ladakh 사포체 Sa spo rtse	카슈미르에서 동북으로 15일	4
13	*토번국 吐番國 Tibet	티베트 시짱 西藏	동쪽	6
14	소발률국 小勃律國 Balor Minor	파키스탄 길기트 Gilgit	카슈미르에서 서북으로 7일	5
15	건타라국 建駄羅國 Gāndhāra	파키스탄 페샤와르 Peshwar	카슈미르에서 서북으로 1개월	16
16	오장국 烏長國 Uḍḍiyāna	파키스탄 스와트 Swat	간다라에서 북쪽으로 3일	4
17	구위국 拘衛國 Kuwi	파키스탄 치트랄 Chitral	우디아나에서 동북으로 15일	2
18	납파국 覽波國 Lampāka	아프가니스탄 라그만 Laghman	간다라에서 서쪽으로 7일	2
19	계빈국 罽賓國 Kāpiśi	아프가니스탄 카불 Kabul	람파카에서 서쪽으로 8일	8
20	사율국 謝婁國 Zābulistān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Ghazni	카피시에서 서쪽으로 7일	5
21	범인국 犯引國 Bāmiyān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Bāmiyān	자블리스탄에서 북쪽으로 7일	5
22	토화라국 吐火羅國 Tokhara	아프가니스탄 발흐 Balkh	바미얀에서 북쪽으로 20일	6
23	파사국 波斯國 Persia	이란 파르스 Fars	토하라에서 서쪽으로 1개월	6
24	대식국 大寔國 Arab	이라크 쿠파 Kufa	페르시아에서 북쪽으로 10일	6
25	*대불림국 大拂臨國	터키 비잔틴제국 Byzantine Empire	소비잔틴 서쪽	3
26	*호국(胡國-安 曹 史 石 驪 米 康) Sogd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아랍 동쪽 7	
27	*발하나국 跋賀那國 Ferghāna	우즈베키스탄 파르고나 Farghona	사마르칸드 동쪽	3
28	*골돌국 骨咄國 Khuttal	타지키스탄 카틀론 Khatlon	페르가나 동쪽	5

29	*돌궐 突厥 Turq	(카자흐스탄 Kazakhstan)	호국 북쪽	4
30	호밀국 胡蜜國 Wakhan	아프가니스탄 와한 Wakhan	토히라에서 동쪽으로 7일	10
31	*식닉국 識匿國 Shighnān	타지키스탄 쉬그난 Shighnān	와한 북쪽 산	6
32	총령진 蔥嶺鎮 Tashukurghan(Pamir)	중국 타시쿠르간 塔什 庫爾干	와한에서 동쪽으로 15일	3
33	소록 疎勒 Kashgar	중국 카시 喀什	중국 총령에서 1개월	2
34	구자국 龜茲國 Kucha	중국 쿠차 庫車	카슈가르에서 동쪽으로 1개월	2
35	*우전국 于闐國 Khotan	중국 허톈 和田	쿠차에서 남쪽으로 2천리	2+7
36	언기국 焉耆國 Kharashar	중국 옌지 焉耆	쿠차에서 동쪽으로 □	4

* 표는 전해 들은 지역. 분량은 원본의 줄 숫자.

현존 사본에 나타난 『왕오천축국전』의 서술은 어느 부분에서는 체계적인 구성이 부족하다. 인도의 오천축 지역에 대한 서술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동천축을 제외한 중·남·서·북천축에 대한 서술이 있다. 그러나 중천축국 왕성으로 소개한 카나우지 지역의 서술에서 중천축 영내에 있는 4대탑으로 슈라바스티·바이샬리·카필라·상카시아의 유적이 서술되어 있고, 이보다 앞서 바라나시국에 이어서는 마가다국의 4대 영탑이 소개되고 있다. 일반적인 분류에서 이들은 모두 중천축에 속한 지역들이다. 중요 불교 유적은 마가다에 가장 많은데 이를 따로 드러내지 않고³⁵⁾ 4대탑만 소개한 것도 적절한 구성은 아니다. 북천축의 경우는 ‘북천축 잘란다라국’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탁샤르·신드구자라트·카슈미르도 북천축으로 보고 있다. 카슈미르 서술에서 “이 카슈미르국 역시 북천축국에 속한다”고

35) 저자가 5인도의 어디에 속한 것인지 명기한 『대당서역기』와는 달리 『왕오천축국전』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한 “따로 드러냈다”는 것은 ‘어디에서 얼마를 가면 어디에 이른다’는 형식에 따라 제시한 나라를 말한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슈미르 다음에 오천축국의 일반적인 사찰 조성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신드구자라트국의 서술에서도 중간에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오천축국의 사람들은”이라는 서술이 있고, 같은 신드구자라트국 서술에서 다시 “또 북천축국에 절이 하나 있는데”라고 서술하고 있어 이 나라도 북천축국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천축 일반에 대한 서술은 중천축국의 중간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의복과 언어, 풍속, 법률, 형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천축과 북천축은 여러 나라를 소개하고, 남천축과 서천축은 한 나라의 소개에 그친 것이 된다. 오천축 전체를 놓고 볼 때 불적이 많은 중천축과 서역으로 통하는 불교 중심 지역인 북천축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를 소개하고, 남천축과 서천축은 개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또 오천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이곳저곳에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는 『왕오천축국전』의 서술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³⁶⁾ 바라나시국 서술에서도 그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바라나시의 녹야원 초전법륜처에 대한 서술에 이어 절 안에 봉안된 불상이 마가다국의 실라디티야왕이 만들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 녹야원을 비롯한 4대 영답이 마가다국에 있다고 하고 이때 마하보디사에 이르렀다고 기술하였다. 이 서술에서는 바라나시국과 마가다국이 구분되지 않는다. 물론 『왕오천축국전』의 모든 기술이 어떤 나라를 구분하여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순례한 나라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다시 어느 나라에 이른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나라를 구분 지을 수 있다. 이 책의 번역에서도 이에 따라 번호를 붙여 구분하였다.

36) 이처럼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이해는 현존하는 필사본이 원본이 아니라 초고본 또는 절략본일 가능성을 더해준다.

『왕오천축국전』에서 소개한 여러 나라의 기술 내용은 위치와 정치 상황, 기후와 지형, 특산물과 생활 풍속, 불교 신앙 여부 등이다.³⁷⁾ 불교에 대해서는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여 신행 사정을 기술하였다. 36개 나라 중에서 소승이 7개국, 대승이 4개국, 대소승을 겸한 나라가 10개국, 그냥 절과 승려가 있다고 기록한 것이 4개국, 불교가 없다고 한 것이 7개국이며 4국은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인도 지역은 대체로 대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대승보다 소승이 더 널리 행해지고 있었고, 중국 영향권에서는 대승만이 행해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장이 1세기 전에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어 이 시기 인도와 서역의 불교계 변화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³⁸⁾ 전체적으로 보아 인도 지역은 힌두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불교는 점차 약해지는 추세였고, 이에 비해 북인도와 서역 지방은 불교가 점차 성행하는 추세였다. 이처럼 『왕오천축국전』은 전반적인 불교의 전파와 유행의 변화상을 알려준다.

『왕오천축국전』이 갖는 의의는 8세기 전반의 인도와 서역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혜초가 순력할 때의 인도는 하르샤바라다나왕조의 패망 이후 분열의 시대였다. 6세기 중엽에 멸망한 굽타왕조에 이어 7세기 전반에 하르샤바라다나(Harṣa Vardhana)왕조가 등장하여 수도 카나우지

37) 『대당서역기』가 전반적인 국가 정황과 풍정 및 종교 상황 등을 개괄적으로,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나 설화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한 반면 『왕오천축국전』은 일반적인 정황에 대한 기술이 중인도를 제외하면 불적에 대한 기술보다 오히려 많다. 그리고 같은 나라의 서술이 두 기록이 상당히 다른 것도 다른 시대적 배경과 관점의 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

38) 『대당서역기』에는 100개국 중 대승 25, 소승 60, 대소승 15국으로 기록하였다. 서역(5:12:1), 북인도(9:7:1), 중인도(7:26:6), 동인도(1:2:0), 남인도(1:7:5), 서인도(2:7:2)로 나타나 북인도가 대승이 성한 반면 중인도나 남인도·서인도·서역은 소승이 성한 것으로 기록하였다(水谷眞成 역, 『大唐西域記』, 東京:平凡社, 1971, pp.417~420)

(Kanauj)가 북인도의 정치 중심으로 상황을 누렸으나, 하르샤가 647년에 죽은 후 왕위계승 분쟁이 일어나 여러 제후 세력이 독립하여 왕국은 붕괴되었다. 이후 8세기 후반에 북인도 지방은 카나우지의 프라티하라(Pratihara)와 벵갈의 팔라(Pala)와 데칸의 라쉬트라쿠타(Rashtrakuta)의 세 나라로 나뉘어 경쟁하게 되므로, 7세기 후반과 8세기 전반에 북인도는 통일된 세력이 없이 여러 나라가 분립해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혜초가 ‘나라[國]’로 표기한 여러 지역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중천축에서 서술한 재판 광경 같은 경우가 특히 현장감이 넘치는 예이다.

혜초가 기록한 아랍에 대한 사실도 그 의미가 크다. 당시 중동 지역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패망하고 아랍에 복속되었으며, 아랍은 우마이야(Umayyah) 왕조의 히삼왕(Hishām, 724~743) 시대로서 다마스쿠스 지역에 중심을 두고 여러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그 영역은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과 중앙아시아 곧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까지 이르렀음을 혜초의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혜초는 페르시아와 아랍 지역을 순력하여 견문록을 남김으로써 동아시아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교류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³⁹⁾

지금 전하는 기록이 완본이 아니라는 점도 연관이 있겠지만 혜초의 서술은 매우 사실적이다. 그 지방에 대한 사실을 감정을 섞지 않고 그대로 기술할 뿐이다. 그러나 5수의 시는 여정에서 느낀 감회를 잘 표출하고 있다. 순례 중 만났던 여러 난관 앞에서 구도자 혜초는 이런 장벽을 헤쳐 나가 순례의 서원을 완성하고자 하였고, 그 생생한 감정을 진솔하게 시 속에 담아내 구도자의 정서가 담긴 훌륭한 서정시를 남겼다.⁴⁰⁾ 혜초의 기술은 객관적

39) 정수일, 앞의 책, pp.91~100

40) 林基中, 「大唐西域記와 往五天竺國傳의 文學的 意味」 『佛敎學報』 31, 1994, p.26

관찰과 주관적 정서를 엄격히 구분하였는데 이 두 부분은 여행기 전반에 걸쳐 완벽한 짜임새를 갖추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⁴¹⁾ 산문에서는 자신의 경험보다 대상 지역의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데 치중하여 사실적인 묘사가 적고 객관적인 기술에 충실한 반면, 시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여정의 험난함을 걱정하는 정서적 표현과 개인적 체험을 잘 그려냈다.

혜초가 『왕오천축국전』에 남긴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대한 간략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이 시기 연구의 중요한 사료이자 목숨을 내건 험난한 여정을 따듯한 마음에 담아 생생하게 전하는 구비여행기이다. 『왕오천축국전』은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8세기 전반의 유일한 견문기이자 독특한 매력을 가진 문화유산인 것이다.

왕오천축국전 주요 연구업적

- 羽田亨·폴 펠리오 編, 『慧超往五天竺國傳殘卷』 『燉煌遺書』 第1集, 上海, 1926
- 藤田豊八,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 北京, 1931
- W. Fuchs, Hwei ch'ao's Pilgerreise durch Nordwest-Indien und Zentral-Asien um 726,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X X X (1938), Berlin, 1939
- 李錫浩 譯, 『往五天竺國傳』, 乙酉文化社, 1970
- 定力晟 譯, 『慧超往五天竺國傳』和譯 『東海大學紀要』 文學部 第16輯, 東京, 1971
- Yang Han-Sung, Jan Yün-hua, Iida Sh. and L. W. Preston, *The Hye Ch'o Diary Memoir of the Pilgrimage to the Five Regions of India*, Asian Humanities Press and Po Chin Chai Ltd., Berkeley/Seoul, 1984
- 桑山正進 編,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2
- 張毅 箋釋, 『往五天竺國傳箋釋』, 北京: 中華書局, 1994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世界精神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혜초』,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9
- 정수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학고재, 2004

41) 이진오, 『『往五天竺國傳』研究의 글쓰기 방식과 저술의도』 『고전산문 연구』 1, 1998, pp.183~194

2. 삼국유사의 문화사적 의의

우리 고대문화를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삼국유사』를 찬술한 일연(一然, 1206~1289)은 무신란이 일어나 최씨정권이 정착되던 시기에 태어나서 몽고의 침공기를 살다가 그 압제를 받던 시기에 생을 마쳤다.

화엄종과 법상종 중심의 교종 불교가 문벌귀족체제를 토대로 사회에 밀착되어 활발하게 운영되던 고려 불교는 의천(義天) 이후 선종과 천태종이 이에 더해졌다. 무신란(1170년)이 일어나자 기존 문신귀족체제는 부정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났다. 불교계에서는 무신 집권 초기에 교선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다 최씨집권 이후에는 선종 위주로 교단이 개편되었다. 최씨정권은 정혜쌍수를 표방하며 새로운 결사운동을 개창한 지눌(知訥)의 수선사를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지겸(志謙)을 왕사로 책봉하여 양종(兩宗) 오교(五敎)를 주관토록 함으로써 불교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1211년경에는 요세(了世)가 정토관과 참회수행을 내세우며 백련결사를 제창하여 수선사와 함께 새로운 불교운동을 주도하였다.

1) 일연의 생애

일연은 최충헌 집권 시기인 희종 2년(1206)에 지금의 경산시(慶山市) 동부동(東部洞 - 본래 자인군慈仁郡 서면西面 유곡동油谷洞) 일대로 추정되는 경주의 속현 장산군(章山郡)에서 태어났다. 지방 향리층의 자제로 태어난 일연의 처음 이름은 견명(見明), 자는 회연(晦然)이다. 9세에 출가하여 해양(海陽: 현재의 光州) 무량사(無量寺)에서 불법을 배우기 시작한 일연은

14세에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의 대웅(大雄) 장로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 진전사는 신라 하대에 최초로 남종선을 폈던 가지산문(迦智山門)의 개산조 도의(道義)선사가 은거한 유서 깊은 사찰로서, 이에 일연은 가지산문에 적을 올리게 되었다.

여러 사원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던 일연은 구산사선(九山四選)의 으뜸으로 추대되었고, 22세에 승과(僧科)에 응시하여 상상과(上上科)에 합격하였다. 그리고는 지금의 달성 비슬산인 포산(包山) 보당암(寶幢庵)에 주석하면서 선관을 수행하였다. 일연이 26세 되던 고종 18년(1231)부터 시작된 몽고군의 침공에 고려 관민(官民)은 3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대몽항쟁을 계속하였다. 일연은 몽고 침공기 22년 동안 포산의 여러 사찰에 머물렀다.

포산에는 미타결사가 이루어진 옥천사(玉泉寺)가 있었고, 범화 예참과 밀교 신앙이 시행된 보당암이 있었다. 포산의 이런 다양한 신앙 분위기를 경험했던 일연의 활동은 어느 특정 신앙이나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계통의 신앙과 사상을 모은 『삼국유사』를 찬술하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대몽항전기에 고려 불교계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새로운 결사불교 운동으로 참신한 분위기를 주도하던 수선사와 백련사가 최씨정권의 비호와 통제를 받으며 한편으로는 대몽항전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로 천도하던 1232년에는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던 초조(初雕) 대장경이 소실되어 몽고에 대한 항전 의지가 더욱 굳세어져, 1236년부터 재조(再雕) 대장경의 조판사업을 시작하여 16년 만에 완성하였다.

1237년에 일연은 포산의 묘문암(妙門庵)에서 화두를 참구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일연의 간화선(看話禪) 경향은 수선사와의 사상적 교류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일연은 선에만 몰두하지 않고 대장경을 읽고 교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을 섭렵하고 제자백가에도 관통하여 내외로 폭넓은 사상 기반을 다졌다. 이 해에 일연은 삼중대사(三重大

師)로 승계가 올라가고, 1246년에는 다시 선사(禪師)로 승계가 상승한다.

1249년에 일연은 최이의 장인으로 최씨정권과 밀접한 유대를 가진 정안(鄭晏, ?~1251)이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만든 남해 정림사(定林社)에 초청되었다. 정안은 남해로 퇴거하여 대장경 간행에 참여하기도 하고 수선사 2세 교주인 혜심(慧諶)과 깊은 교유를 맺기도 하였다. 일연은 정안의 도움을 받아 『선문염송(禪門拈頌)』 등 혜심의 저작에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수선사와 사상 교류를 갖고 간화선에 더욱 심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연은 『선문염송사원(禪門拈頌事苑)』 30권을 편수하여 혜심이 엮은 『선문염송』을 계승하였다. 1256년에는 지리산 길상암에서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를 펴내 4년 후에 간행하였다.

최씨정권이 붕괴된 뒤 1259년에 일연은 대선사(大禪師)에 오르고, 강화 정부가 몽고에 항복한 후인 1261년에는 왕명에 의해 강화에 초청되어 선월사(禪月社)에서 활동하였다. 이런 정세 격변기의 강도(江都) 활동은 최씨정권 몰락 이후 원종대의 정권을 주도한 이장용(李藏用: 1201~1272) 등 세력가들의 지원 때문에 가능하였다.

일연은 1264년에 경북 영일의 오어사(吾魚社)로 물러나고 다시 포산 인흥사(仁弘社)로 옮겼다. 1268년에 김준이 주살되자 일연은 왕명에 의해 운해사(雲海寺)에서 선교 명승이 모인 대장낙성회(大藏落成會)를 주도하였다. 1274년에는 인흥사를 중수하여 인흥사(仁興社)로 개명하고, 포산 동쪽에 있는 용천사(湧泉寺)를 중수하여 불일사(佛日社)로 삼았다.

1277년에 일연은 왕명에 의해 운문사(雲門寺)에 주석하며 선풍을 드날렸고, 이듬해에는 인흥사에서 『역대연표(歷代年表)』를 간행하였다. 1281년에 동정군(東征軍)의 격려차 경주에 온 충렬왕의 부름을 받은 일연은 다음 해에 내전에 들어가 설법하고 개경의 광명사(廣明寺)에 주석하였다. 78세 때인 1283년에 국존(國尊)에 책봉된 일연은 노모 봉양의 명분으로 개경

에서 물러났고, 이듬해에 노모가 돌아가자 충렬왕은 일연에게 인각사(麟角寺)에 내려가 쉬도록 하였다. 일연은 인각사에서 두 번의 구산문도회(九山門徒會)를 개최하여 불교계의 교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때 많은 승려들이 일연의 문도로 영입되었다.

일연은 간화선을 중심에 두고 조동선 등 여러 선사상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교학이나 신앙에도 폭넓은 관심을 가졌다. 문수보살의 감응을 얻었고 관음 진언의 공덕을 강조하였던 것은 일연의 신앙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일연은 충렬왕 15년(1289) 7월에 84세로 입적하였다. 왕은 시호 보각(普覺)과 탑호 정조(靜照)를 내렸다. 일연이 입적한 6년 후인 1295년에 청분(淸玢)이 작성한 행장에 의거해서 민지(閔漬)가 짓고 왕희지의 글씨를 모은 「고려국화산조계종인각사가지산하보각국존비명(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이 인각사에 세워졌다. 비의 뒷면에는 비를 세운 경위와 문도와 단월들을 기록한 음기를 역시 왕희지의 글씨로 새겼다.

일연은 『삼국유사』 5권을 저술하고 『중편조동오위』 2권과 『선문염송사원(禪門拈頌事苑)』 30권을 편수한 이외에도 『어록(語錄)』 2권과 『계송잡저(偈頌雜著)』 3권을 저술하였고, 『조파도(祖派圖)』 2권과 『대장수지록(大藏須知錄)』 3권, 『제승법수(諸乘法數)』 7권, 『조정사원(祖庭事苑)』 30권 등을 편수하였다. 그래서 모두 100여 권에 이르는 일연의 책이 세상에 유행하였다 한다.

2) 삼국유사의 역사인식

일연의 역사인식은 무신란 이후의 혼란한 사회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기준을 찾기 위해 과거의 전통을 재인식

하려는 문화적 배경이 고려 사회 전반에 전개되고 있던 데에 그 토양을 두고 있다.

『삼국유사』보다 앞서 고려문화의 난숙기에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유교적 정치사관에 기반하여 정치제도 중심의 현실 문제를 주 내용으로 다룬 것이었다. 이는 합리주의의 추구라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고대 전통문화의 이해 범위 축소라는 문제점도 보여준다. 그런데 몽고간섭기와 같은 민족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역사의식은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사관이 나타나게 된다. 『삼국유사』는 이런 정신사관을 반영하는 사서이다.

일연은 우리나라의 역사전통을 불교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인식은 역대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고려 사회를 이끌어온 중심 사상이 불교였던 것을 고려하면 고려문화의 일반적 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연은 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전통을 재인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절반의 분량을 왕력(王曆)편과 기이(紀異)편에 배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나타냈다.

『삼국유사』의 찬술 의도는 ‘유사(遺事)’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기록에서 빠졌거나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 표현하려는 뜻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나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등의 기존 사서에 대한 보충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정사(正史)로 인식하고 사론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해동고승전』의 기사도 10여 군데에서 그대로 수용하였다. 대신 기존 사서에서 간과해버린 고대사와 불교사의 많은 부분을 다방면의 사료를 모아 폭넓게 전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삼국유사』는 완전한 형태의 사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원효불기(元曉不羈)」편을 보면 원효에 대한 간략한 전기를 서술하고 나서 자세한

활동 상황은 『당고승전』과 『행장』에 있으므로 다시 신지 않는다 하고, 새로 찾아낸 한두 가지 특이한 일만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만으로는 원효의 완전한 전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연은 승전이나 행장과 같은 널리 인정된 전기 이외의 자료를 제시하여 그 생애를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원효전을 마련한 것이다.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불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연은 고기(古記)·사지(寺誌)·금석문(金石文)·고문서(古文書)·사서·승전(僧傳)·문집 등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자신이 직접 발굴해낸 민간 전승의 수많은 설화와 전설들도 주요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삼국유사』는 단순한 불교문화사가 아닌 종합 사서이다.

『삼국유사』에서 채록한 민간 전승 사료들은 이 시기 고려 사회의 일반민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당시 몽고의 압제 하에서 우리 문화 역량을 확인하고 이민족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열렬한 신앙심을 북돋아줌으로써 기층사회의 역량을 모아가야 하였기 때문이다. 일연이 기층사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고려 후기 이후 지방 향리층의 중앙 진출이나 기층사회의 활발한 움직임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데서 온 것이었다.

일연의 역사인식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삼국유사』 기이(紀異)편의 서문이다. 일연은 “대체로 성인이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仁義)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난신(怪力亂神)은 말하지 않는 바였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나려 함에 부명(符命)을 받고 도록(圖籙)을 받아 반드시 남과 다른 점이 있는 연후야 능히 대변(大變)을 타고 대기(大器)를 쥐어 대업(大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겠는가”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중국문화와 대등한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원천이 되는 의식이었다.

『삼국사기』는 설화 형태로 전승되던 많은 고대 사료를 고쳐 씌으로써 그 구체적 성격이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비해 일연은 신이한 설화들을 그대로 제시하고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살아남은 자료를 통해서 고대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왕력편과 기이편의 일반 역사를 앞에 두고 흥법 이하 불교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일곱 편목으로 나눈 『삼국유사』의 구성은 이전의 불교 사서들에 비해 불교사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켰다.

3) 삼국유사의 구성

『삼국유사』는 전5권에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왕력(王曆)과 기이(紀異)편이고 제2권은 기이편의 계속이다. 제3권은 흥법(興法)편과 탑상(塔像)편이며 제4권은 의해(義解)편이다. 그리고 제5권은 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편이다. 이와 같은 『삼국유사』의 체제는 일반적인 사서나 승전(僧傳)과는 달리 자유로우면서도 면밀한 편성 형식을 보인 특이한 것이다.

중국에서 편찬된 고승전들은 대체로 역경(譯經) 의해(義解) 신이(神異) 습선(習禪) 명률(明律) 호법(護法) 감통(感通) 유신(遺身) 독송(讀誦) 흥복(興福) 경사(經師) 창도(唱導)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삼국유사』가 이들 고승전 체제에 유의하여 편목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전반의 자료를 모아 왕력편과 기이편을 엮어 전체의 절반을 이룬 것은 역사와 불교를 결합한 『삼국유사』의 독창적 면모를 잘 드러내준다. 이전의 불교 사서들은 고승의 전기를 주로 기록하는 승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p>永元二年</p>	<p>和帝</p>	<p>中興二年</p>	<p>梁高祖</p>	<p>天監元年</p>	<p>晉通鑑</p>	<p>大通二年</p>	<p>史通鑑</p>	<p>大同元年</p>	<p>中大</p>
<p>作智識也又智度論王猛父拘狹 手男期吉 晉書王猛字叔牙</p>	<p>之文姬迎滿天 代漢只許作 日下為上吉</p>	<p>王猛字叔牙</p>	<p>梁高祖</p>	<p>天監元年</p>	<p>晉通鑑</p>	<p>大通二年</p>	<p>史通鑑</p>	<p>大同元年</p>	<p>中大</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p>王猛字叔牙</p>

각왕의 재위 연수만 기록한 데 비해 왕력편은 각왕의 세계(世系) 기년(紀年) 그리고 간략한 치적이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 등을 수록하였다.

두번째 기이편은 고조선 이래 후백제에까지 이르는 우리 고대사의 광범위한 영역을 신이를 바탕으로 59항목으로 엮은 것이다. 기이편 이하 전체 138항목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른 편에도 신이한 자료가 많이 보이지만, 국가의 흥망에 신이한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인식에서 ‘신이를 기록한다’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해제 47

帶方), 9 말갈 발해(靺鞨 渤海), 10 이서국(伊西國), 11 오가야(五伽耶), 12 북부여(北扶餘), 13 동부여(東扶餘), 14 고구려(高句麗), 15 변한 백제(卍韓 百濟), 16 진한(辰韓), 17 사절유택(四節遊宅), 18 신라시조 혁거세왕(新羅始祖 赫居世王), 19 남해왕(南解王), 20 노례왕(弩禮王), 21 탈해왕(脫解王), 22 김알지(金閼智), 23 연오랑 세오녀(延烏郎 細烏女), 24 미추왕 죽엽군(未鄒王 竹葉軍), 25 내물왕 김제상(奈勿王 金堤上), 26 실성왕(實聖王), 27 사금갑(射琴匣), 28 지철로왕(智哲老王), 29 진흥왕(眞興王), 30 도화녀 비형랑(桃花女 鼻荊郎), 31 천사옥대(天賜玉帶), 32 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 33 진덕왕(眞德王), 34 김유신(金庾信), 35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36 장춘랑 파랑(長春郎 罷郎), 37 문호왕법민(文虎王法敏), 38 만파식적(萬波息笛), 39 효소왕대 죽지랑(孝昭王代 竹旨郎), 40 성덕왕(聖德王), 41 수로부인(水路夫人), 42 효성왕(孝成王), 43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44 혜공왕(惠恭王), 45 원성대왕(元聖大王), 46 조설(早雪), 47 흥덕왕 앵무(興德王 鸚鵡), 48 신무대왕 염장 궁파(神武大王 閻長 弓巴), 49 경문대왕(景文大王), 50 처용랑 망해사(處容郎 望海寺), 51 진성여대왕 거타지(眞聖女大王 居陁知), 52 효공왕(孝恭王), 53 경명왕(景明王), 54 경애왕(景哀王), 55 김부대왕(金傅大王), 56 전백제(前百濟), 57 무왕(武王), 58 후백제 견훤(後百濟 甄萱), 59 가락국기(駕洛國記)이다.

기이편의 구성에 보이는 일연의 고대사 체계는 고조선 곧 단군조선을 천손(天孫)인 단군이 세운 최초의 국가로 파악하고, 이를 위만조선과 마한이 병렬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기자(箕子)에 관한 기록을 덧붙이면서도 기자조선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한에 이어서는 사이(四夷), 구이(九夷), 구한(九韓), 예맥(穢貊)에서부터 이부, 칠십이국, 낙랑국, 북대방, 남대방, 말갈 발해, 흑수(黑水) 옥저(沃沮), 이서국, 오가야, 북부여, 동부여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세력들을 모두 모아

놓아 체계를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마한에서 고구려로, 변한에서 백제로, 그리고 진한에서 신라로 계승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고조선에서 삼한을 거쳐 삼국에 계승되는 뚜렷한 역사체계를 기본으로 그 중간에 중국 기록에 보이는 여러 나라와 군현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다. 삼한과 삼국의 연결은 마한이 백제로, 진한이 신라로, 변한이 가야로 계승되는 지금의 견해와 다른 것이지만, 일연이 인용한 것처럼 신라시대에도 최치원(崔致遠)이 마한에서 고구려로 계승되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삼국의 건국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서로 기사를 구성하였다. 다만 백제의 경우는 신라의 앞에 백제를 싣고, 신라 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남부여 항목 안에 백제에 대한 기사를 담았다.

신라는 박혁거세 이래 신라의 역대 왕에 대한 기록으로서 기이편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신라 국왕 중심의 구성이다. 박혁거세 이하 김부대왕(경순왕)에 이르기까지 30편이다. 그중에 ‘우사절유탉(又四節遊宅)’ 항목은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진한’ 항목의 35금입택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다른 항목과 달리 아무런 서술 없이 택 이름만 열거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이편 59항목은 실제로는 58항목이 된다. 신라 역대 왕 중에서 이 기이편에 기사가 없는 것은 5대 파사왕에서 53대 신덕왕에 이르는 19왕으로서 삼분의 일에 해당한다.

『삼국유사』의 편 이름은 판본에 별도 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판목에 새기는 과정에서 몇 글자가 잘못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고, 제목에 왕대(王代)가 들어간 경우는 상당수가 본문을 시작해야 할 구절이 제목에 이어져 잘못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신라에 이어 남부여 항목에 백제 건국설화 등 백제 기사를 싣고, 무왕과 후백제 견훤의 기록이 이어지며, 마지막에 고려 중기에 찬술된 장편의 가

락국기를 실었다.

홍법편 이하는 모두 불교에 대한 기사로서 종합 불교사를 이룬다. 홍법편 7항목은 1 순도조려(順道肇麗), 2 난타벽제(難陀闢濟), 3 아도기라(阿道基羅), 4 원종홍법 위촉멸신(原宗興法 猷勅滅身), 5 법왕금살(法王禁殺), 6 보장봉로 보덕이암(寶藏奉老 普德移庵), 7 동경흥륜사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이다. 이 홍법편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에의 불교 전래와 법흥왕과 이차돈의 불교 수용, 백제 법왕의 살생 금지, 고구려 보덕의 망명, 흥륜사의 십성 기사를 수록하였다.

탑상편 30항목에 실린 내용은 불상, 불탑, 불전(佛殿), 범종, 사리(舍利), 불경(佛經) 등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1 가섭불연좌석(迦葉佛宴坐石), 2 요동성육왕탑(遼東城育王塔), 3 금관성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 4 고려영탑사(高麗靈塔寺), 5 황룡사장륙(皇龍寺丈六), 6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 7 황룡사종 분황사약사 봉덕사종(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 8 영묘사장륙(靈妙寺丈六), 9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10 생의사석미륵(生義寺石彌勒), 11 흥륜사벽화보현(興輪寺壁畫普賢), 12 삼소관음 중생사(三所觀音 衆生寺), 13 백률사(栢栗寺), 14 민장사(敏藏寺), 15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 16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17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18 분황사천수대비 맹아득안(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19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20 어산불영(魚山佛影), 21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 22 명주오대산보길도태자전기(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23 대산월정사오류성중(臺山月精寺五類聖衆), 24 남월산(南月山), 25 천룡사(天龍寺), 26 무장사미타전(鑿藏寺彌陀殿), 27 백엄사석탑사리(伯嚴寺石塔舍利), 28 영취사(靈鷲寺), 29 유덕사(有德寺), 30 오대산문수사석탑기(五臺山文殊寺石塔記)이다. 이들은 불교 문

화 유물을 그 조성 연기(緣起)를 중심으로 신앙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의해편 14항목은 고승들의 전기를 통해 교리의 이해와 흥포를 서술하였다. 그 항목은 1 원광서학(圓光西學), 2 보양이목(寶壤梨木), 3 양지사석(良志使錫), 4 귀축제사(歸竺諸師), 5 이해동진(二惠同塵), 6 자장정률(慈藏定律), 7 원효불기(元曉不羈), 8 의상전교(義湘傳敎), 9 사복불언(蛇福不言), 10 진표전간(眞表傳簡), 11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 12 승전촉루(勝詮觸臚), 13 심지계조(心地繼祖), 14 현유가 해화엄(賢瑜珈 海華嚴)이다.

신주편 3항목은 1 밀본취사(密本摧邪), 2 혜통항룡(惠通降龍), 3 명랑신인(明朗神印)인데, 이 항목들은 밀교의 영험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감통편 10항목은 1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 2 옥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 3 광덕 엄장(廣德 嚴莊), 4 경흥우성(憬興遇聖), 5 진신수공(眞身受供), 6 월명사도솔가(月明師兜率歌), 7 선율환생(善律還生), 8 김현감호(金現感虎), 9 용천사혜성가(融天師彗星歌), 10 정수사구병녀(正秀師救氷女)인데, 이 항목들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신앙 영험을 수록하였다.

괴은편 10항목은 1 낭지승운 보현수(朗智乘雲 普賢樹), 2 연회도명 문수점(緣會逃名 文殊帖), 3 혜현구정(惠現求靜), 4 신충괘관(信忠掛冠), 5 포산이성(包山二聖), 6 영재우적(永才遇賊), 7 물계자(勿稽子), 8 영여사(迎如師), 9 포천산 오비구(布川山 五比丘), 10 염불사(念佛師)로서 은일(隱逸) 고사(高士)들의 신앙을 엮은 것이다.

효선편 5항목은 1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 2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 3 향득사지할고공친(向得舍知割股供親), 4 순순매아(孫順埋兒), 5 빈녀양모(貧女養母)로서 효(孝)와 선(善)을 동시에 강조하는 불교적 효 윤리와 관련된 신앙 사례를 서술하였다.

이처럼 흥법편 이하는 삼국에 불교가 전래하여 유통 정착되는 기사들을

영험을 중심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으로서 이 중에서 2항목만이 불교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흥법편은 삼국을 고루 다루었지만 신라가 중심이 된다. 탑상편은 3항목만 제외하고는 신라의 것이고, 의해 이하 효선까지는 1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라의 기사뿐이다. 이러한 신라 중심 서술은 일연 당대에 남아 있던 사료가 신라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한계에 연유한다. 일연이 활동하던 지역 또한 대체로 경상도 일원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료 수집에 대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균형된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4) 삼국유사의 자료와 사학사적 의의

『삼국유사』는 다방면의 고대 문화 연구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준다. 먼저 정치사회사 연구의 경우 건국설화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라의 건국설화는 『삼국사기』에도 실린 박씨족의 시조설화만이 아니라 사로국의 건국에 참여한 여러 유력 부족들의 설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6부족이 연합하여 사로국이 형성되고 지배권력이 성립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또한 신라 중고시대 이후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 혹은 제도를 설명하는 독자적인 내용들은 신라 정치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하며 정치사의 서술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사회사 관련 자료는 더욱 풍부하여 장원(莊園) 경영과 같은 골품제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지배층의 실제 생활과 함께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용작(傭作) 계층과 같은 기층민의 실상과 그들이 깊이 받아들였던 정도신앙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 고유의 자료들은 신라사회의 종합적인 이해에 넓은 지평을 열어준다.

『삼국유사』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연구 분야는 고대 불교

사이다. 수집한 자료들이 신라에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연은 신라 고구려 백제를 망라하는 한국고대불교사의 체계화를 추구하였다. 홍법편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 순서로 불교의 전래를 바로잡아 기술하였고 다른 편에서는 가야의 불교 사적도 찾아 실었다. 탑상편에 실린 기사들은 불탑이나 불상 등 조형물의 조성 사실보다는 조성 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기적적인 영험이나 신앙을 장려하고 있어 신앙과 조형이 복합된 불교문화사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의해편의 내용은 전형적인 고승 전기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를 통해 불교 사상의 정립과 흥포 양상을 구명하는 불교사상사를 구성할 수 있다. 신주편 이하의 내용들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의 영험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이 관음신앙이나 정토신앙과 같은 구원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불교가 사회의식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효(孝)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방도를 제시하였다.

『삼국유사』에 일연 자신의 견해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은 찬(讚)이다. 『삼국유사』에는 모두 47수의 찬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자신의 신앙심을 기저에 두고 짧게 찬탄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는데, 주로 부처의 위력이나 영험 또는 이적 등을 감동적으로 읊은 것이 많다. 이 찬들은 일연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된다.

일연은 많은 자료를 각고의 노력 끝에 수집하여 수록하되 인용된 사료와 저자의 견해를 구분하여 서술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료 사이의 차이를 가리고 자신의 고증을 첨가하며 확실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 채 서로 다른 사료를 그대로 인용해두었다. 이런 태도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며 동시에 객관적으로 서술하려는 자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각 항목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유의하여 서술한 면도 엿보인다. 한편으로는 변

거로운 사료나 당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록은 생략하기도 하였다. 또 전체 138항목의 인용 내용 중에는 절반 가량이 인용 전거가 밝혀져 있지 않아 서술 태도가 일관되지는 않았다. 많은 설화 자료가 수록된 점도 역시 그 설화로 인해 고대 사회상을 밝히거나 문학적인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는 의의는 있으나, 설화가 가지는 역사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추구에는 어려움도 있다.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는 이와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사서와 비교된다. 1145년에 고려 귀족문화 의식에서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사기』는 강렬한 국가의식의 위에 중국의 역사관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성과 융통성을 강조한 합리성이 두드러진 사서이다. 1215년에 각훈(覺訓)이 왕명으로 편찬한 『해동고승전』은 우리나라 불교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고 불교의 홍포(弘布)와 영이(靈異)를 강조한 것인데, 전적을 밝히지 않아 객관적 신빙성을 약화시켰으며 참고 사료에 대한 검토나 서술에 대한 논증도 명확하지 못하다.

1193년에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편(東明王篇)」은 고구려 건국설화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우고 강력한 정치 윤리를 지향한 서사시이다. 『삼국유사』와 거의 같은 시기인 1287년에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장편 서사시로 묘사하여 단군과 발해를 강조하는 등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한 자주성이 주목되지만, 몽고의 지배 현실을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한 한계도 보인다. 불교 사서로는 신이적인 설화 형태의 사서로 추측되는 백련사 천책(天頌, 1206~?)의 『해동법화전홍록(海東法華傳弘錄)』이 있다. 그리고 신앙결사를 제창하며 서민들의 신앙을 주도하던 천태종의 무기(無寄)가 고려 불교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장편시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蹟頌)』을 1328년에 찬술하였다.

일연이 『삼국유사』 전편을 통해 강조하는 신이는 민족 자주성과 문화의

우위성을 내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외세의 압제에 대항하여 그를 극복하는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서 자기 전통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사를 파악하는 정신사관에서 대단히 폭넓은 역사와 불교를 정리한 『삼국유사』의 의의는 고려 후기 몽고 압제하의 문화를 반영하는 시대적 소산이라는 점이다.

다음에 『삼국유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불교사 영역의 확대이다. 『삼국유사』를 통해 일연은 선과 교에 모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거기에 실천 신앙을 포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불교사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일연의 불교사관의 특징은 불국토(佛國土) 및 호국불교(護國佛教) 사상의 강조이다. 불국토 사상은 이 나라가 오래도록 불연(佛緣) 깊은 땅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몽고 침략 세력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혼란한 민심에 강렬하고 건전한 신앙을 고취시키려는 강한 저항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는 나아가 이처럼 불연 깊은 땅이기에 불력(佛力)에 의해 지켜져야 하고 부처가 머무는 불국토이기에 마땅히 수호되어야 한다는 호국불교 사상으로 이어진다. 일연의 불교사관이 불국토와 호국불교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정신과 긍지를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당시의 불교와 사회 모순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다. 세속적인 명리에 집착하거나 취처하고 사치를 일삼는 부도덕한 승려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무질서한 반승(飯僧)이 성행하던 고려 왕실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와 함께 서민과 대중불교에 대한 애착이 분명히 드러난다. 노비들의 출가 수행과 이에 따른 왕생 사례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일연이 불교 신앙의 과제가 명확하게 중생의 구제임을 뚜렷하게 의식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사람들의 갖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관음신앙(觀音信仰)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도 당시

고통받던 서민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족 자주성의 강조와 서민의식의 표현은 이 시기 고려 사회의 주도적인 인식이었다.

『삼국유사』에서 보인 원자료 수집과 채록 노력은 설화(說話) 및 향가(鄕歌)와 관련하여 그 의의가 두드러진다. 역사적 사실성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정신사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도에서 채록된 다양한 설화들은 고대 문화에의 심층적인 분석이나 문학적인 탐구의 문을 크게 열어주었다. 『삼국유사』에 모두 14편이 채록되었고 이름만 거명된 것도 여러 편인 향가는 기이편과 감통편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데, 주로 입으로 불리어 구전(口傳)되었고 서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내용이 신묘하고 기이한 일을 읊은 것이 많다.

『삼국유사』는 우리 전래의 고문서나 민간 기록 또는 전설을 중국에서 편찬된 정사류 기록보다 더 비중있는 전거로 삼았다. 그리고 찬술 형태도 여러 자료의 출전을 명시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논단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일연이 각고 끝에 수집한 사료를 소박한 표현으로 전거를 명시하며 제시하고 자신이 직접 답사하는 등의 용의주도한 노력으로 고증한 수많은 서목(書目)들은 다양함이나 치밀함에서 『삼국사기』보다 훨씬 뛰어나며, 원자료의 본모습을 더 많이 전해주어 그만큼 사료적 가치도 높다. 객관적 서술 태도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찬술 태도에서 채록된 많은 민간 전승 자료들이 고대 문화의 원형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일연이 차지하는 사학사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

『삼국유사』 기이편은 역사적 신이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 고대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새로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일연이 여기서 서술한 고조선에서 삼한을 거쳐 삼국에 계승되는 뚜렷한 고대사 체계는 『동국통감(東國通鑑)』이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 대표적인 사서에 채용되어 오랫동안 우리 통사를 이루어왔다. 이런 의미에서도 또한 『삼국유사』가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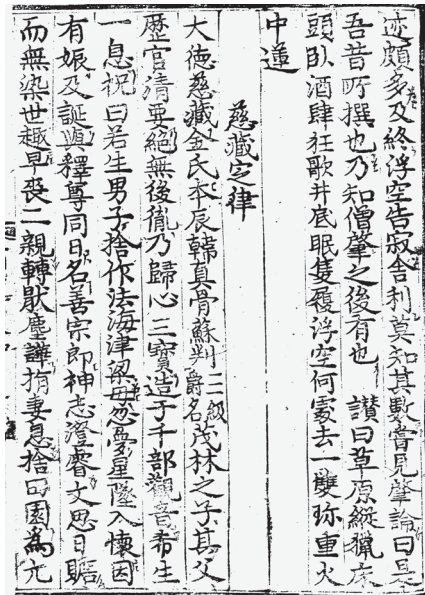
는 사학사적 의의는 매우 소중하다.

5) 삼국유사 탐상과 의해

이 책에서는 『삼국유사』의 탐상편과 의해편만을 번역하였다. 불교문화의 저변에 깃든 뜻을 밝히고자 했던 일연의 찬술 의도가 탐상편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보았고, 신라 불교사상사를 더듬어볼 수 있는 문화적 탐색이 의해편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두 편의 소개를 통해 신라 불교문화의 사상과 조형 그리고 신앙을 살펴볼 수 있다.

탐상편은 불교 관련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구성 순서나 내용의 수량 그리고 분량에서 가장 중점을 둔 편이다. 불탑이나 불상, 불전, 장엄구 등 불교 조형물의 구성과 아울러 그 조성 연기에 큰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영험이나 신앙을 장려한 30편의 글을 실었다.

이 책에서는 탐상편의 편목 구성을 새롭게 조절하였다. 12·13·14 항목으로 실린 중생사·백률사·민장사는 그 앞에 삼소관음(三所觀音)이라는 공통된 제목을 갖는다. 그러므로 각 절을 따로 제목으로 내세우든지, 아니면 삼소관음이라는 제목 아래 세 절을 한데 묶어야 한다. 여기서는 한데 묶어 12-1, 12-2, 12-3의 제목을 붙였



삼국유사 의해편

다. 그리고 21 대산오만진신과 22 명주오대산보절도태자전기는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다. 보절도태자의 전기가 오만진신에 거의 수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절도태자의 전기를 오만진신의 항목을 설명하면서 관련 구절에 각주로 제시하여 통합하였다. 이런 편성 변경으로 인해 탑상편의 항목이 30항목이 아닌 27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의해편은 14편을 수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형적인 고승 전기에 가깝다. 이를 통해 불교 사상의 정립과 흥포 양상을 살펴보는 불교사상사를 구성할 수 있다. 신라 불교사상사의 전개가 중고기에는 섭론 지론 등 유식계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공관 사상과 계율 사상이 함께 흐름을 이루었으며, 통일기 이후에는 원효의 일심사상과 유식사상 및 화엄사상 그리고 밀교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의해편에 수록한 승려들의 기록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원광-자장-혜공-원효-의상-진표-대현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선후에 따른 승려들의 활동이 주축을 이루며, 여기에 후반의 승전, 심지, 법해가 더해져 의해편을 구성한다. 여기에 신주편에 수록한 밀본·혜통·명랑의 밀교 관련 기록을 더하면 신라시대의 주요 교학 사상을 모두 망라하게 된다. 의해편은 신주편을 따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교학사상을 담은 것이다. 다만 신라 하대에 수용되어 큰 영향을 미쳤던 선종이 제외된 것은 선종사는 별도로 정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삼국유사』의 편찬의도가 선종을 제외한 삼국과 신라 불교를 정리하려 했던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의해편의 구성을 조절하여 13항목으로 하였다. 11 관동풍악 발원수석기는 10 진표전간의 또다른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진표전간에 수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각주로 제시하여 통합하였다. 그리고 1 원광서학은 본래 당의 도선이 편찬한 『속고승전』에 수록된 「원광전」과 『삼국유사』를 편찬하던 고려 후기에 경주지방에 전해지고 있던 『수이전』에 실린 「원광전」

을 나란히 수록하였다. 두 자료의 전기 내용이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삼국유사』의 편찬 취지는 이 두 자료를 비교 검토하자는 것이지만, 한국 불교의 성과를 소개하는 본 총서의 취지에 비추어보자면 고려 전승의 『수이전』 자료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기록만을 제시하고, 『속고승전』의 관련 기록은 각주에 제시하여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리한 답사편과 의해편의 글을 마음 깊이 읽는다면 믿음과 염원이 깃든 신라 불교문화와 신라불교의 사상적 지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참고문헌

- 이재호, 1997 『삼국유사』1·2, 서울출판사
- 三品彰英·村上四男, 1975·1979·1994·1995·1995 『三國遺事考證』上·中·下1·下2·下3, (東京)塙書房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譯註三國遺事』I·II·III·IV·V, 以會文化社
- 李基白, 1973 「三國遺事の史學史的意義」 『震檀學報』36
- 金相鉉, 1978 「三國遺事に 나타난 一然의 佛教史觀」 『韓國史研究』20
- 金相鉉, 1982 「三國遺事の刊行과 流通」 『韓國史研究』38
- 洪潤植, 1985 『三國遺事와 韓國古代文化』 원광대학교 출판국
- 蔡尙植, 1986 「至元15年 仁興寺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 李基白, 1987 「三國遺事 塔像篇의 意義」 『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
- 文明大, 1988 「三國遺事 塔像篇과 一然의 佛教美術史觀」 『講座美術史』1
- 蔡尙植, 1988 「一然의 사상적 경향」 『韓國文化研究』1, 부산대학교 사학과
- 鄭병삼, 1994 「일연」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 李基白, 2000 「三國遺事 興法篇의 趣旨」 『震檀學報』89
- 金杜珍, 2000 「三國遺事の 體制와 內容」 『韓國學論叢』23
- 金相鉉, 2002 「三國遺事の 書誌의 考察」 『譯註三國遺事』V
- 金杜珍, 2002 「三國遺事の 史料의 性格」 『譯註三國遺事』V
- 金相鉉, 2003 「三國遺事論」 『강좌 한국고대사』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鄭병삼, 2007 「삼국유사 의해편과 신라불교사상사」 『불교학연구』16
- 일연학연구원, 2007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목 차

• 간행사	004
• 『왕오천축국전』 순례지도	008
• 일러두기	012
• 해제	015

1. 【慧超 혜초·往五天竺國傳 왕오천축국전】

01 바이샬리毗耶離城	67
02 쿠쉬나가라국拘尸那國	69
03 바라나시국彼羅痾斯國	73
04 중천축국中天竺國	83
05 남천축국南天竺國	96
06 서천축국西天國	100
07 잘란다라국闍蘭達羅國	103
08 수바르나고트라국蘇跋那具怛羅國	105
09 탁샤르국吒社國	107
10 신드구자라트국新頭故羅國	108
11 카슈미르국迦葉彌羅國	113
12 대발로르국 양동국 사파자국大勃律國 楊同國 娑播慈國	118
13 티베트국吐番國	121
14 소발로르국小勃律國	124
15 간다라국建駄羅國	126
16 우디아나국烏長國	135
17 쿠위국拘衛國	137





18 람파카국覽波國	138
19 카피시국屬賓國	139
20 자불리스탄국謝颺國	142
21 바미안국犯引國	144
22 토하라국吐火羅國	145
23 페르시아국波斯國	148
24 아랍국大寔國	151
25 비잔틴제국大拂臨國	153
26 호국胡國	154
27 페르가나국跋賀那國	158
28 쿠탈국骨咄國	160
29 투르크突厥	161
30 와한국胡蜜國	163
31 쉬그난국識匿國	167
32 총령진蔥嶺鎮	169
33 카슈가르疎勒	171
34 쿠차국龜茲國	173
35 호탄국于闐國	175
36 카라샤르국焉耆國	180





2. 【一然 일연·三國遺事「塔像」삼국유사「탑상」】

4- 1	가섭불이 좌선했던 돌迦葉佛宴坐石	185
4- 2	요동성의 아쇼카왕탑遼東城育王塔	193
4- 3	금관성의 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	201
4- 4	고구려의 영탑사高麗靈塔寺	208
4- 5	황룡사의 장륙상皇龍寺丈六	211
4- 6	황룡사의 구층탑皇龍寺九層塔	222
4- 7	황룡사의 종과 분황사의 약사상과 봉덕사의 종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	235
4- 8	영묘사의 장륙상靈妙寺丈六	242
4- 9	사불산과 굴불산과 만불산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244
4-10	생의사의 돌미륵상生義寺石彌勒	254
4-11	흥륜사의 벽화 보현보살興輪寺壁畫普賢	257
4-12	세 곳의 관음상三所觀音	262
	1 중생사衆生寺 262 2 백률사栢栗寺 275 3 민장사敏藏寺 285	
4-13	전후하여 가져온 사리前後所將舍利	288
4-14	미륵선화와 미시랑과 진자스님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321
4-15	남백월산의 두 성인-노힐부득과 달달박박 南白月二聖 努拏夫得 怛怛朴朴	335
4-16	분황사 천수관음상으로 눈먼 아이가 눈을 뜨다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354
4-17	낙산의 두 성인- 관음보살과 정취보살 그리고 조신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358
4-18	어산의 부처 그림자魚山佛影	379
4-19	오대산의 오만 진신臺山五萬眞身	395
4-20	오대산 월정사의 다섯 성중臺山月精寺五類聖衆	424
4-21	남월산[감산사]南月山	429
4-22	천룡사天龍寺	437
4-23	무장사의 미타전鑿藏寺彌陀殿	447





4-24	백엄사의 석탑과 사리 <small>伯嚴寺石塔舍利</small>	454
4-25	영취사 <small>靈鷲寺</small>	459
4-26	유덕사 <small>有德寺</small>	462
4-27	오대산 문수사의 석탑기 <small>五臺山文殊寺石塔記</small>	464

3. 【一然 일연·三國遺事「義解」삼국유사「의해」】

5- 1	원광이 중국에 유학하다 <small>圓光西學</small>	469
5- 2	보양과 배나무 <small>寶壤梨木</small>	487
5- 3	양지가 석장을 부리다 <small>良志使錫</small>	499
5- 4	인도에 간 여러 스님들 <small>歸竺諸師</small>	505
5- 5	혜숙과 혜공이 세상과 어울리다 <small>二惠同塵</small>	510
5- 6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 <small>慈藏定律</small>	521
5- 7	원효가 얹매이지 않다 <small>元曉不羈</small>	544
5- 8	의상이 교학을 전하다 <small>義湘傳敎</small>	557
5- 9	사복이 말하지 않다 <small>蛇福不言</small>	576
5-10	진표가 간자를 전하다 <small>眞表傳簡</small>	581
5-11	승전과 돌 해골 <small>勝詮觸骸</small>	598
5-12	심지가 조사를 잇다 <small>心地繼祖</small>	605
5-13	대현의 유가와 법해의 화엄 <small>賢瑜珈海華嚴</small>	616

● 찾아보기	625
● 역주자	663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665
● 한국전통사상총서	667





慧超 혜초

【往五天竺國傳 왕오천축국전】



1. (바이살리)¹⁾

〈여기까지 윗부분 떨어져 나감〉²⁾

삼보를 …, 맨발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외도(外道)³⁾는 옷을 입지 않는다.
〈16자 정도 아래쪽 떨어져 나감〉 먹을 것을 보면 보자마자 먹어버리고 스님들에게 공양하지 않는다. 땅이 모두 평평하고 〈16자 정도 아래쪽 떨어져 나감〉 노비

* 원문의 교감은 필사본을 위주로 하여 부분만 남은 글자를 복원하거나 의미상 추정하기도 하였고, 필사본에서 잘못 썼다고 생각되는 글자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한국불교전서의 대본은 韓3 p.374b1~381a2.

교감 글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불완전한 글자를 복원한 글자나 필사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수정부호를 붙인 글자를 바로잡은 글자

(): 의미상 빠진 글자를 추정하거나 잘못된 글자를 바르게 추정한 글자

** 주석은 기존의 연구를 많이 참조하였다. 구와야마 쇼신(桑山正進)의 『혜초왕오천축국전연구(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1992,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장이(張毅)의 『왕오천축국전전석(往五天竺國傳箋釋)』(1994, 中華書局), 정수일의 『혜초의 왕오천축국전』(2004, 학고재)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 1) 나라 이름을 들 때, 당시 지명이 비교적 분명한 것은 원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우선하되, 원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설이 있는 경우에는 혜초가 표기한 한자어를 그대로 두었다.
- 2) 바이살리는 슈라바스티일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가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바이살리가 불교와 자이나교가 성행했던 것과 건주어 이 나라에 대한 기술 중에서 옷을 입지 않는 외도의 표현이 이와 일치하므로 바이살리(Vaiśālī, 혜초는 비야리성毗耶離城으로 기술. 현장은 폐사리국吠舍釐國으로 기록)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쿠쉬나가라로 가는데 1개월이라는

가 없으며, 사람을 팔려는 죄가 사람을 죽인 죄와 다르지 않다. <15자 정도 아래쪽 떨어져 나감>

〈上缺〉

實。赤足裸形，外道不着[衣]⁴⁾〈下缺〉[逢]⁵⁾食卽喫，亦不齋也。
地皆平〈下缺〉。(無)⁶⁾有奴婢，將賣人罪，与煞人罪不殊〈下缺〉

이동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바이샬리로 추정할 때, 혜초가 마가다 지방의 여러 불적을 순례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므로 여정의 추정이 복잡해진다. 동인도에 상륙하여 부다가야→왕사성→바이샬리→쿠쉬나가라→슈라바스티→카필라→바이샬리의 여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바이샬리에 돌아와 바라나시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 혜초는 중천축의 4대탑을 서술하면서 슈라바스티와 바이샬리, 카필라, 상카시아의 탑이나 나무를 “보았고”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직접 순례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지역들에 대한 일반적인 여정을 생각한다면 동인도→왕사성 일대(부다가야, 날란다 포함)→바이샬리→카필라→슈라바스티→쿠쉬나가라→바라나시가 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당서역기』에서 바이샬리는 “천사가 수십개이고 이도가 섞여 있어 몸을 드러낸 무리가 매우 많다(天祠數十，異道雜居，露形之徒，寔繁其黨.)”고 하고, 슈라바스티는 “천사가 백개이며 외도가 매우 많다(天祠百所，外道甚多.)”고 하여 바이샬리에서 ‘몸을 드러낸다’고 한 표현이 이곳의 ‘벌거벗은(裸形)’이라는 표현과 더욱 유사하지만, 외도가 번성하기는 슈라바스티가 더 심하여 이 첫 번째 부분을 슈라바스티로 볼 수도 있는 한 증거가 된다.

3) 외도(外道) : 𑖀𑖦𑖯𑖳𑖫𑖞𑖪𑖥 또는 ūrthika, 외교(外教)·외법(外法)·외학(外學)이라고도 쓴다. 불교 이외의 일체 종교를 가리킨다. 초기에는 단순히 다른 교파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점차 모멸, 배척의 의미가 추가되어 진리 이외의 삿된 법을 의미하게 되었다.

4) 衣로 추정됨

5) 𑖀𑖦𑖯𑖳𑖫𑖞𑖪𑖥만 보이는데 逢으로 추정됨

6) 의미상 有 앞에 無가 빠진 것으로 추정됨

2. 쿠쉬나가라국

〈떨어져 나감〉 한 달을 가면 쿠쉬나가라[拘尸那, Kuśinagara]⁷⁾국에 도착하니 부처께서 열반에 드셨던 곳이다. 그 성은 황폐해져 아무도 살지 않는다. 부처께서 열반에 드신 장소에 탑⁸⁾을 세웠는데, 어떤 선사가 탑을 청소하

7) 쿠쉬나가라[拘尸那, Kuśinagara] :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하 『왕』으로 표기함) 구시나(拘尸那),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구시나게라(拘尸那揭羅). 중인도의 도성 또는 국명으로서, 부처가 입멸하신 곳이다. 현재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주 데오리아(Deoria)의 북동쪽 35km, 고락푸르(Gorakhpur)의 동쪽 55km에 위치한 카시아(Kasia)이다. 현장이 방문했을 때 이미 황폐해지기는 했지만 부처의 열반상과 아쇼카왕이 세운 스투파가 있었다. 10~11세기 이후 완전히 황폐해진 것을 1861년 커닝햄(Cunningham)의 발굴로 부처의 입멸지임을 확인하였고, 1904년부터 인도 고고학국에 의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져 승원의 유적을 찾아내 열반당과 스투파 그리고 주변의 많은 유적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8) 탑: 현재 남아 있는 대열반탑(大涅槃塔, ㉔ Mahāparinivāṇa Stūpa)은 아쇼카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처가 열반한 자리에 세운 사원인 열반사(涅槃寺, Nirvāṇa Mandir)는 5c.초 하리발라(Haribala)라는 비구가 기증하였음을 명문에 의해 알 수 있다. 현재의 열반사는 1876년의 발굴을 거쳐 1956년 미얀마 스님들에 의해 재건된 것으로,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게 만들어졌으며 입구는 서쪽의 가운데에 있다. 시멘트로 건축하고 흰 페인트칠을 하였으며 건물 내부 벽 아래 부분에 흰 대리석을 붙였다. 열반사 안에는 모래와 진흙으로 만든 길이 6.2m에 달하는 열반상이 있다. 열반사 뒤의 대열반탑은 아쇼카왕에 의해 만들어져 여러 차례 증축된 것이다. 1876년에 커닝햄의 조수 칼레일(Carleyle)이 발굴했을 당시에는 둥그런 벽돌 무더기 위에 다른 벽돌 무더기가 7.5m높이로 남아 있었는데, 미얀마 승려들이 1927년과 1972년에 증축하면서 높이 15m의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1911년 발굴

고 있었다. 해마다 8월 8일⁹⁾이면 비구와 비구니, 출가자와 재가자가 탑에 가서 크게 공양을 베푸는데, 탑의 공중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깃발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함께 보고서 이 날을 맞아 발심(發心)하는 이가 한둘이 아니다. 이 탑 서쪽에 강이 하나 있어 이라바티[伊羅鉢底, Airāvati]¹⁰⁾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2천 리 넘어 흘러가 강가[恒河, Gaṅgā]강¹¹⁾

조사 때 기단부의 감실에서 테라코타 좌불상이 발견되었으며, 탑 안에서 원래 탑 형상의 모조탑과 함께 부장품, 대반열반당(Ṣ Mahāparinirvāṇa-caitya)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동판 등이 나와 열반한 곳임을 확인해 주었다.

- 9) 8월 8일: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교단에서는 부처의 입멸일이 8월 8일이라고 한다. 설일체유부 율장 『살파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 권2에 “부처는 2월 8일 불성(佛星)이 뜰 때 정각을 이루셨다. 또 2월 8일 불성이 들 때 태어나시고, 8월 8일 불성이 뜰 때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고, 8월 8일 불성이 뜰 때 반열반에 드셨다.”(大 23 p.510b21~24. 佛以二月八日弗星現時, 初成等正覺, 亦以二月八日弗星出時生, 以八月八日弗星出時轉法輪, 以八月八日弗星出時取般涅槃.)고 하였다. 같은 부파불교에서도 상좌부는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에 따라 2월 15일을 열반일로 삼으며, 동아시아 불교권에 전승되는 2월 15일 열반일은 『열반경』에 따른 것이다.(桑山, p.56)
- 10) 이라바티[伊羅鉢底, Ṣ Airāvati]: 『왕』 이라발저(伊羅鉢底), 『대당서역기』 아시다벌저하(阿特多伐底河). 부처가 열반에 든 지점 근처를 흐르는 강. 열반처 근처의 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부파의 전승에서는 히란야바티(Ṣ Hiranyavati)라 하여 『장아함경』에서는 희련선하(熈連禪河), 아함계 『대반열반경』에서는 희련하(熈連河)로 번역하였고, 대승 열반경 계통에서는 아지라바티(Ṣ Ajiravati)라 하여 『대반열반경』에서는 아리라발제하(阿利羅跋提河), 아이라발제하(阿夷羅跋提河)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왕오천축국전』에서는 열반탑 서쪽에 강이 있다고 하고, 현장은 동쪽에 있다고 하여 서로 기록이 다른데, 이에 대해 강물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 11) 강가[恒河, Ṣ Gaṅgā]: 항하(恒河).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델리 동쪽 지방인 힌두스탄평야로 흘러들어 동쪽으로 흘러 알라바드에서 야무나강과 합류하고 바라나시를 지나 파टना에서 고그라강·간다크강 등과 합류하여 벵골평야를 관류하고 마지막에 여



쿠쉬나가라 열반상

에 흘러 들어간다. 그 탑의 사방은 인적이 끊어져 사람이 살지 않는다. 너무나 황량한 숲이어서 탑에 가서 예배드리려는 사람은 코뿔소나 호랑이¹²⁾에게 해를 입는다. 이 탑 동남쪽 삼십 리에 절이 하나 있어 수바반다나[娑般檀

리 갈래로 나뉘어 뽕골만으로 흘러든다. 길이 2,510km, 유역 면적 약 173만km²이다. 힌두교에서는 선인들의 기도에 따라 비슈누(☸Viṣṇu)신의 발 끝에서 흘러나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여 신성한 강으로 여긴다. 불교에서도 복된 강으로 생각하여 불전에 자주 등장한다. 강가강 일대는 인구가 조밀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교통이 발달하여 경제가 활발한 지역으로 힌두문명의 중심지였고, 석가가 활동할 때 강가강 양안이 그 중심 지역이었다. 인도 사람들은 살아서 강가에서 목욕하고 물을 마시면 죄가 씻기고, 죽어서 강가 강변에서 화장하고 그 재를 강에 뿌리면 구원으로 직행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강가강은 파괴의 신 쉬바(☸Śiva)가 창조주인 브라마(☸Brahma)의 머리를 잘랐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찾아왔던 곳이라 하여 더욱 성스럽게 여긴다. 두 강이 합쳐지는 알라하바드(Allahabad)나 바라나시(☸Vārāṇasī) 등이 가장 즐겨 찾는 성지로서 지금도 매년 수백만 명의 힌두교도들이 이곳을 찾는다.

12) 호랑이: 대충(大虫)은 큰 벌레나 늙은 호랑이를 가리킨다.

寺, Subha-bandhana]¹³⁾라고 한다. 30여 명이 사는 마을 서너댓 곳이 있어 그 선사에게 늘 옷과 음식을 공양하고, 지금도 탑에서 공양받고 있다 <아래쪽 12자 정도 떨어져 나감>.

一月至拘尸那國，佛入涅槃處。其城荒廢，無人住也。仏入涅槃處置塔，有禪師在彼掃灑。每年八月八日，僧尼道俗就彼，大設供養，於其空中，有幡現不知其數。衆人同見，當此[之日]¹⁴⁾，發心非一。此塔西有一河伊羅鉢底水，南流二千里外，方入恒河。彼塔四絕，無人住也。極荒林木，往彼禮拜者，[被]¹⁵⁾犀牛大虫所損也。此塔東南卅里，有一寺名娑般檀寺。有卅餘[人村庄三五所]¹⁶⁾，常供養彼禪師衣食。今在塔所供養<下缺>

13) 수바만다나[娑般檀寺, Subha-bandhana] : 또는 마कु타 만다나(Makuṭa-bandhana). 『왕』 사반단사(娑般檀寺)로 표기. 『대당서역기』에는 나오지 않음. 부처의 유해가 화장된 장소인 다비처에 세운 절로 추정된다. 부처의 다비처는 마कु타 만다나로 표기되어 한역 경전에는 천관사(天冠寺), 천관탑(天冠塔)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현재 열반처로 알려진 쿠쉬나가라의 열반당에서 동쪽으로 1.5km정도 떨어진 곳에 다비처로 추정되는 라마바르(Rāmabhār)탑이 있는데, 혜초가 여기에 기록한 30리와는 차이가 있어 3리의 잘못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한다.(桑山, pp.60~61)

14) 필사본에는 日之로 썼으나 오른쪽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수정부호 표시를 하고 있어 之日로 바로잡음

15) 분명하지 않으나 被로 추정됨

16) 여섯 글자는 모두 오른쪽 절반쯤 남아 있는데 人村庄三五所로 추정됨

3. 바라나시국

〈떨어져 나감〉 일 가면 바라나시[彼羅痾斯, Vārāṇasī]¹⁷⁾ 국에 도착한다. 이 나라도 황폐해져서 왕이 없으니, 바로 〈14자 정도 떨어져 나감〉 저 다섯 비구의¹⁸⁾ 소상(塑像)이 탑 안에 있다.¹⁹⁾ 〈15자 정도 떨어져 나감〉²⁰⁾ 위에는 사자상이 있

-
- 17) 바라나시[彼羅痾斯, Vārāṇasī] : 『왕』 피라닐사(彼羅痾斯), 『대당서역기』 파라닐사(波羅痾斯). 현장이 방문했을 때는 매우 번영한 도시였다. 바루나(Varuna)강과 아씨(Assi)강이 강가강과 만나는 지점으로, 두 강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서 바라나시라 불렀다. 그러다가 무굴제국의 아우랑제브(Aurangzeb) 황제에 의해 베나레스(Benares)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바라나시로 부른다.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쉬주에 속한다. 석존이 처음 깨달음을 설법한 사르나트(Sārnāth)가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바라나시의 영향권 안에 있으므로 석존 이후 불교가 번성하였다. 지금은 힌두 성지로 유명하며 자이나교의 성지이기도 하여 ‘신성한 도시’, ‘종교의 수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명한 종교가, 철학자, 예술가 등이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힌두교도들이 바라나시의 강가강을 찾아 강물에 몸을 씻고 순례한다.
- 18) 오구륜(五俱輪)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는 글의 흐름상 다섯 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부처는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전에 함께 수행하던 콘디니야(Kauṇḍinya, 憍陳如) 등 다섯 비구를 녹야원(鹿野園)으로 찾아가 처음으로 불법의 뜻을 설하였는데 그 결과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다(初轉法輪)’라는 일화가 생겼다.
- 19) 초전법륜의 성지인 사르나트에는 이를 기념하는 거대한 탑이 세워져 있었다. 황폐된 유적은 1834년부터 커닝햄(Cunningham)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여 1904년 이후 인도 고고국에 의해 여러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다. 현재 유적지에는 사원 구역 서남쪽에 다르마라지카(Dharmarājikā) 대탑의 거대한 탑지가 있고, 이들 유적과 다소 떨어져 약 33.5m 높이로 남아 있는 다메크

는데, 석주(石柱)²¹⁾가 매우 커서 다섯 사람이 두 팔로 에워싸야 할 정도지만 새겨진 무늬는 섬세하다. <13자 정도 떨어져 나감>²²⁾ 탑을 세울 때 이 석주도 함께 만들었다. 절 이름은 다르마차크라[達磨斫葛羅, Dharmacakra]²³⁾

(Dhamekh)탑이 있고, 여러 개의 사원 유적과 세 동강 난 15m 길이의 아쇼카석주가 있다. 다르마라지카대탑은 아쇼카왕이 최초로 건립한 것이라 하며, 직경 13.5m의 원래 탑은 이후 여섯 차례나 확대되었다고 한다. 고고국 발굴 이전의 유물은 주로 켈타 인도박물관에 수장되었고, 5세기 굽타 시대의 불상 초전법륜상과 아쇼카왕 석주 사자주두 등 고고국이 발굴한 유물은 유적 인근에 세운 사르나트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현재 일부 파손되어 남아 있는 다메크탑은 기단부 직경 28.5m 높이 33.5m의 크기로 6세기 경에 세운 것인데, 겉을 벽돌로 쌓았는데 아래쪽 3분의 1쯤은 석재로 쌓고 표면에 장식도 새겼으며 8개의 감이 만들어져 있다. 혜초가 여기서 기록한 “소상이 탑 안에 있다”는 표현이 현재 다메크탑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한다.

20) 떨어져 나간 부분에 당(幢)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21) 석주(石柱) : 당(幢)의 번역어. 아쇼카(㉟ Aśoka, 阿育)왕이 만든 돌기둥이다. 아쇼카왕은 마우리아(㉟ Maurya) 왕조의 제3대 왕으로 서기전 약 273~232년에 재위하였다. 그는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된 대제국을 완성하였다. 즉위 8년에 칼링가(㉟ Kalinga)국을 공략했는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왕은 불교를 배우고, 불법에 의한 정복과 불법에 의한 통치를 결심하였다. 왕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지킬 것을 알리기 위해 영토 내의 각처에 석주(Aśoka's pillar, 아쇼카왕석주)를 세우고 바위면에 선정을 펼치겠다는 여러 종류의 법칙을 새기게 하였다. 현재 20여개의 석주와 마애법칙이 남아 있다. 석주 꼭대기의 주두에는 사자, 코끼리, 황소 등을 새겼다.

22) 혜림의 『일체경음의』중권에 파라닐사(波羅毘斯)에 이어 아수가(阿戍笥)가 나오는데, 현존하는 필사본에는 이 말이 보이지 않는다. 아쇼카왕을 뜻하는 이 말은 바로 이곳 떨어져 나간 부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쇼카왕이 탑을 세우고 석주도 세웠기 때문이다.

23) 다르마차크라[達磨斫葛羅, ㉟ Dharmacakra] : 사르나트(Sārnāth)에 있는 다르마라지카(㉟ Dharmarājikā) 탑 부근의 절 이름. 번역하면 법륜사(法輪寺)가 된다. 초전법륜지를 기념하여 세운 절이므로 그런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르나트 유적지에는 여러 개의 사원 터가 있는데, 여기서 출토된 유물 중에 불상 명문에 1026년에 다르마라지카탑과 다르마차크라사당을 완전히 중수하였다는

이고, <12자 정도 떨어져 나감> 외도는 옷을 입지 않고 몸에 재를 바르며 대천(大天)²⁴⁾을 섬긴다. 이 절에 하나의 금동상과 오백 <떨어져 나감> 상이 있다. 마가다[摩揭陀, Magadha]²⁵⁾국에 옛날에 왕이 있어 실라디티야[尸羅栗底,

기록이 있다고 한다. 어느 위치에 있는 사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원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기록이다.

24) 대천(大天, ㉔Mahādeva) : 대자재천(大自在天, ㉔Maheśvara). 대자재천은 힌두교의 신 쉬바(㉔Śiva)의 다른 이름으로서 마헤수라(摩醯首羅)라고도 한다. 원래는 나라연천(那羅延天)과 같이 범천(梵天)의 하위신이었는데 뒤에 최고 신격이 되어 범신론의 교지를 성립시켰다. 대자재천은 세계의 창조신으로, 삼계(三界)의 일체가 대자재천에게서 태어난다고 한다. 허공은 그의 머리이고, 땅은 몸, 물은 오줌, 산은 똥, 일체중생은 배 속의 벌레이다. 그러므로 그를 받들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대자재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불에 태우므로 재를 바르는 외도(塗灰外道)라고도 한다. 힌두교의 쉬바파 중에서 파슈파타(㉔pāśupata)파가 옷을 입지 않고 몸에 재를 바른다고 한다.(桑山, p.67)

25) 마가다[摩揭陀, ㉔Magadha] : 여러 기록이 마게타(摩揭陀)로 한역하여 표기하고 있다. 인도 동북부에 있는 비하르(Bihar)주 남부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왕국으로, 브리하드라타(Brihadraṭha)가 세웠다고 전한다. 서기전 6세기에 빔비사라(㉔Bimbisāra, 頻毘娑羅)왕이 왕사성(王舍城, ㉔Rājagṛha)으로 도읍을 옮기고, 인도 서부의 여러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는 한편 무력으로 동방의 앙가왕국을 정복하였다. 그의 아들 아자타샤트루(㉔Ajātaśatru, 阿闍世)는 부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라, 코살라(㉔Kosālā)국과 카시(㉔Kāśī)국을 합치고 부왕 이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바이샬리(㉔Vaiśālī)국을 정복하였다. 이후 난다(㉔Nanda)왕조, 마우리아(㉔Maurya)왕조를 거치면서 파트나(Patna)를 중심으로 북인도 통일제국을 건설하고 수세기 동안 북인도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서기 4세기에 굽타(㉔Gupta)왕조가 마가다에서 일어나 북인도를 통일하고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여 번영을 누렸으나, 6세기 중엽에 굽타왕조가 멸망하면서 마가다의 지위는 급속히 하락하였다. 7세기 전반 하르샤바르다나(㉔Harṣavardhana)왕조를 창설한 하르샤(Harṣa)왕이 수도를 카나우지(Kanauj)로 정하자 북인도의 정치 중심도 이전의 파탈리푸트라에서 카나우지로 옮겨졌다. 하르샤가 647년에 죽은 후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 여러 제후 세력이 독립하여 왕국은 분교되었다. 이후 8세기 후반에 인도 지방은 카나우지의 프라티하라(Pratihara)와 벵갈의 팔라(Pala)와 데칸의 라쉬트라쿠타(Rashtrakuta)의 세 나라로 나뉘어 경쟁하게 되므로, 7세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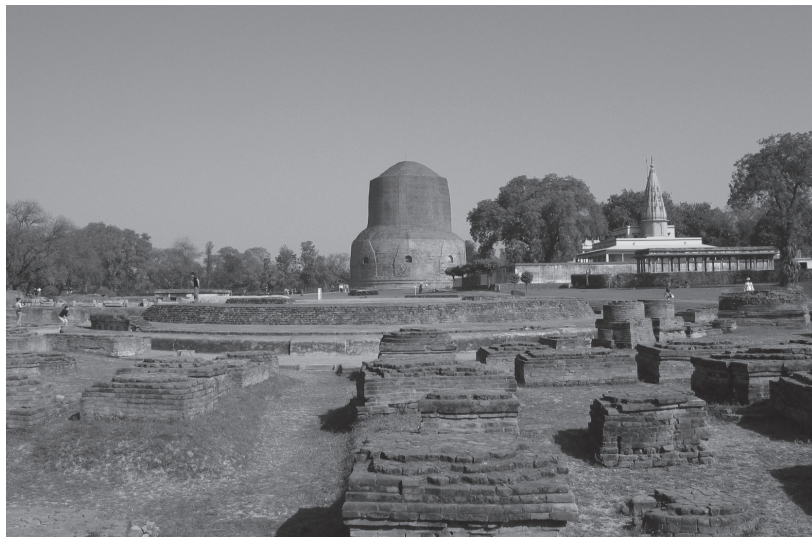


왕사성 영취산

Śilāditya]²⁶⁾라고 했는데, 이 상을 만들었다. 아울러 하나의 금동 <떨어져 나

반과 8세기 전반에 복인도는 통일된 세력이 없이 여러 나라가 분립해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마가다 지역은 대보리사나 왕사성 등 주요 불적이 집중되어 순례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7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마가다국에 대해 12권 중 2권의 분량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기도 하였다. 혜초도 여전히 이 지역을 마가다국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여정이나 주요 불적에 대한 서술은 없는 것이 의문점으로 남는다.

- 26) 실라디티야[尸羅栗底, Śilāditya] : 하르샤바르다나(ṣHarṣavardhana, 戒日王)왕. 재위 606~647년. 굽타 왕조 이후 서북 인도 지방에 바르다나 왕조를 세운 이. 강가강 유역에서 구자라트 지방에 걸친 영역을 확보하여 지금의 라자스탄·펀자브·우타르 프라데쉬·비하르·오리사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더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남쪽으로 진출하다고 데칸지방에서 찰루키야(ṢCālukya) 왕조의 풀라케쉬(ṢPulakeśin)에게 저지되었다.(람 샤란 샤르마 지음·이광수 옮김, 『인도고대사』, 1994, 김영사, pp.299~301) 현장이 인도를 순례할 때 이 왕을 만나 보고 궁중에서 몇 년을 체류하며 그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 이 왕의 통치기에 녹야원, 쿠쉬나가라가 모두 그 영역에 속하였다.



사르나트 녹야원

감)²⁷⁾을 만들었는데, 테두리가 둥글고 일정하며 둘레가 30보쯤 된다. 이 성은 강가강을 굽어보는 북쪽 언덕에 있다.²⁸⁾

녹야원(鹿野苑, Mṛgadāva)²⁹⁾, 쿠쉬나가라, 왕사성(王舍城, Rājagṛha)³⁰⁾, 마

27) 여기 떨어져 나간 곳에는 뒤에 이어지는 글로 보아 법륜(法輪)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현재 바라나시 시가지는 이곳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가강의 북서쪽에 이루어져 있다. 헤초는 강의 북쪽에 성이 있다고 하여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도성이 서쪽으로 강가강에 임해 있다고 하여 방향이 다르다.

29) 녹야원(鹿野苑, 𑖦𑖃𑖦𑖃𑖦𑖃) : 사슴동산이라는 뜻.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후 칠칠일(七七日)이 지난 뒤 처음에 함께 수행하다 자신을 떠났던 콘디니야 등 다섯 명의 비구를 찾아와 사성제(四聖諦) 등 깨달은 내용을 설한 곳으로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법이 이루어진[初轉法輪] 역사적인 장소이다. 현재 바라나시(𑖦𑖃𑖦𑖃𑖦𑖃) 북쪽 10km 거리에 있는 사르나트(𑖦𑖃𑖦𑖃𑖦𑖃)이다. 탄생지 룸비니(𑖦𑖃𑖦𑖃𑖦𑖃 Lumbinī), 성도지 보드가야(𑖦𑖃𑖦𑖃𑖦𑖃 Bodhgaya), 열반지 쿠쉬나가라(𑖦𑖃𑖦𑖃𑖦𑖃 Kuśinagara)와 함

하보리사(摩訶菩提寺, Mahābodhi Temple)³¹⁾ 등 사대영탑(四大靈塔)³²⁾이 모

께 불교 4대 성지의 하나이다.

- 30) 왕사성(王舍城, 𑖔𑖄𑖔𑖀𑖔𑖁𑖔𑖃) : 왕의 성이라는 뜻. 부처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마가다(Magadha)국의 도성이다. 아버지 빔비사라(𑖔𑖄𑖔𑖀𑖔𑖁𑖔𑖃)왕이 쌓은 산 속에 둘러 싸인 구(舊)왕사성지와 아들 아자타사트루(𑖔𑖄𑖔𑖀𑖔𑖁𑖔𑖃)왕이 평지로 나가 만든 신(新)왕사성지가 있다. 구왕사성을 둘러싼 산중에 유명한 설법처 영취산(靈鷲山)이 있고, 신왕사성 근처에 죽림정사(竹林精舍)가 있으며 신왕사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에 처음으로 경전을 편찬한[結集] 칠엽굴(七葉窟)이 있어 왕사성은 불교 8대 성지의 하나로 꼽힌다.
- 31) 마하보리사(摩訶菩提寺, Mahābodhi Temple) : 서기전 250년경 마우리아왕조의 아쇼카왕이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인 보드가야를 찾아 보리수 나무 밑의 금강좌 자리에 세운 절이다. 아쇼카왕은 석주와 승원을 세우고 보리수 주위에 돌담을 조성하였다. 서기 5세기 경 굽타(𑖔𑖄𑖔𑖀𑖔𑖁𑖔𑖃)왕조 기간에 증축되어 사당형 고탑이 이루어졌고 이후 몇 번에 걸친 증축과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 높이 52m의 탑이 되었다.
- 32) 사대영탑(四大靈塔) : 혜초가 마가다국 영역 내에 있다고 한 4대탑은 현재 불교 4대 성지와 관련 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 처음 설법을 한 사르나트, 열반에 들어간 쿠쉬나가라를 불교의 4대 성지라고 한다. 여기에 슈라바스티(𑖔𑖄𑖔𑖀𑖔𑖁𑖔𑖃), 상카시아(𑖔𑖄𑖔𑖀𑖔𑖁𑖔𑖃), 왕사성(𑖔𑖄𑖔𑖀𑖔𑖁𑖔𑖃), 바이샬리(𑖔𑖄𑖔𑖀𑖔𑖁𑖔𑖃)를 더하여 불교의 8대 성지라고 한다. 혜초가 마가다국의 4대탑이라고 든 것은 사르나트 녹야원의 다메크(Dhamekh)탑, 쿠쉬나가라의 대열반탑, 보드가야 마하보리사의 사당형 고탑(高塔), 그리고 왕사성의 탑이다. 그런데 왕사성은 부처가 태어난 곳도 아니며, 탑도 없으므로 왕사성의 탑이란 왕사성 가까이 있는 영취산의 설법화경탑(說法華經塔)을 말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대당서역기』 권9에서는 왕사성 부근에 취한 코끼리를 조복시킨 탑[伏醉象塔]·자살비구탑(自殺比丘塔)·불사리탑(佛舍利塔)·아난반신사리탑(阿難半身舍利塔) 등 불교 유적이 많다고 하므로 이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혜초는 뒤에 중천축국의 4대탑으로 슈라바스티, 바이샬리, 카필라, 카냐쿱자의 네 곳을 들었다. 또 이 기록의 바로 다음에 기록된 시에서는 8탑을 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승전 등에서는 인도를 순례한 이들의 행적 중에 4대탑과 8대탑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8대탑의 구체적인 이름을 든 경우는 없다. 오직 799년에 중국에 돌아온 오공(悟空)의 『입축기(入竺記)』에 탄생처 카필라바스투, 성도처 마가다 보리사, 전법륜처 바라나시 녹야원, 설법화경처 영취산, 현부사의처 바이샬리, 삼도보계 하

두 마가다국 왕의 영역 안에 있다.³³⁾ 이 나라는³⁴⁾ 대승(大乘)³⁵⁾과 소승(小乘)³⁶⁾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이때 마하보리사에 도달하고 보니,³⁷⁾ 나의 본래 서원에 맞아서 매우 기

강처 상카시아, 설반야경처 슈라바스티, 열반처 쿠쉬나가라(悟空, 『入竺記』大 51 p.980a27~b7. 從此南遊中天竺國, 親禮八塔. 往迦毘羅伐窣覩城, 佛降生處塔, 次摩竭提國, 菩提道場成佛處塔, 於菩提寺, 夏坐安居. 次波羅泥斯城仙人鹿野苑中, 轉法輪處塔. 次鷲峯山, 說法華等經處塔. 次廣嚴城, 現不思議處塔. 次泥嚩襪多城, 從天降下三道寶階塔. 次室羅伐城逝多林給孤獨園, 說摩訶般若波羅蜜多度諸外道處塔. 次拘尸那城娑羅雙林, 現入涅槃處塔, 如是八塔右遶供養, 瞻禮略周.)를 들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8대 불교성지로 알려져 있다. 이 8탑은 혜초가 든 마가다국 4대 영탑과 중천축국 4대탑을 합친 것과 같다. 다만 4대성지에 탄생지 대신 왕사성이 들어간 것이 다르다. 또 혜초나 오공 모두 불탄지를 룸비니가 아닌 카필라를 들고 있다. 이는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카필라국 안에 부처가 탄생한 룸비니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大 51 p.902a20~22)

- 33) 이 네 영탑이 모두 마가다국에 있다는 것은 마가다국 전성기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혜초도 녹야원은 바라나시국, 쿠쉬나가라는 쿠쉬나가라국으로 서술하고 있어 왕사성과 마하보리사만이 마가다국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 34) 이 기록은 바라나시국에 이어 나오는 기록으로 마가다국의 4대 영탑 기록에 이어 마하보리사에 이르렀다는 기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마가다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마가다국의 역사적 4대 영탑 서술이라고 본다면 이 나라는 바라나시국이 될 수도 있다. 마가다국에 대한 다른 서술이 없기 때문이다.
- 35) 대승(大乘) : 𑖀mahāyāna, 마하연나(摩訶衍那), 마하연(摩訶衍)으로 음역한다. 승(乘, yāna)이란 탈 것이란 의미로 중생을 번뇌의 차안으로부터 깨달음의 피안으로 데려가는 가르침을 가리킨다. 재가자 중심의 불교 혁신운동을 전개한 이들이 원시불교와 부파불교를 폄하하는 의미에서 소승이라 부르고, 자신들을 많은 [大] 사람을 피안으로 태우고 간다[乘]는 의미에서 대승이라 불렀다.
- 36) 소승(小乘) : 𑖀hīnayāna, 성문승(聲聞乘)이라고도 한다. 대승(大乘)·보살승(菩薩乘)의 대칭으로 대승운동을 일으키며 상대방인 부파불교를 지칭했던 이름으로서 원시불교 또는 부파불교를 가리킨다. 현재는 대체로 상좌부(上座部, Theravāda)불교라고 부른다. 대승의 주장으로는 소승이 자기 해탈 추구에 주력하는 점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모두 추구하는 보살도와 다르다고 한다.
- 37) 이 구절은 바라나시국이 아닌 마가다국의 기록이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혜

뻘었다. 나의 어리석은 뜻을 간략히 오언시로 적어 본다.

보리사가 멀다고 걱정하지 않는데
어찌 녹야원이 멀다 하리오
가파른 길 험해서 걱정되지만
마음과 달리 업의 바람 몰아치네
여덟 개 탑³⁸⁾은 참으로 보기 어렵구나

초의 『왕오천축국전』에는 따로 마가다국에 대한 기록이 없다. 바로 앞서 “4대 영탑이 모두 마가다국 왕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한 것은 마가다 변영 시절의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서술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마가다국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고, 다만 이곳에서 마가다국 경내의 4대영탑을 거론하고 바로 마하보리사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떨어져 나간 앞 부분에 마가다국이 있었는지, 아니면 혜초가 마가다국에 대해 다른 기술을 하지 않고 이곳의 시로만 그쳤는지 알 수 없다. 부처가 깨달음을 이룬 곳으로서 불교가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불적지인 대보리사와 중요 불적이 많은 왕사성이나 당시 불교학의 산실이었던 날란다사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도 있다. 혜초는 중천축의 서술에서 중천축 4대탑을 모두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슈라바스티, 바이샬리, 카필라, 상카시아이다. 따라서 혜초는 이들 유적지를 다 순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정으로 보면 카필라, 슈라바스티, 바이샬리에 대한 서술은 떨어져 나간 앞 부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바라나시에서 마하보리사가 있는 보드가야로 왔다가 남천축으로 가려면 다시 카나우지 쪽으로 가야 하는 중복 여정이므로 마하보리사를 비롯한 마가다 지역의 여러 유적은 떨어져 나간 앞 부분에 서술되어 있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하보리사 자체에 대한 서술도 없이 시 한 수만으로 불교의 핵심 성지를 소개한 것은 구도자의 순례기로서는 너무 소략하다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에서 혜초의 인도 초기 여정을 동인도→왕사성 일대 (부다가야, 날란다 포함)→바이샬리→카필라→슈라바스티→쿠쉬나가라→바라나시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하보리사에서의 감회를 읊은 시가 바라나시국 다음에 실려 있으므로 바라나시→마가다(마하보리사 등)의 여정이 되어 다시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38) 여덟 개 탑(八塔): 석가모니가 인도의 쿠쉬나가라 사라쌍수 밑에서 입멸 후 유해



부다가야 마하보리사

를 다비(荼毘)하였고, 이때 인도의 8국이 그 사리(舍利, śarīra)를 차지하기 위하여 쟁탈전이 벌어지자 드로나(Droṇa, 香姓) 바라문의 의견에 따라 8국에 사리를 균등 분배하고 각기 탑을 세웠다. 이를 분사리(分舍利), 8분사리라고 한다. 이때 부터 사리신앙이 싹트고 불탑의 기원이 이루어졌다. 그 후 서기전 3세기에 마우리야왕조의 아쇼카왕이 인도에 대제국을 건설한 후 8대탑을 발굴하여 8만 4천으로 나누어 전국에 사리탑을 세웠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8탑은 부처의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성지에 세운 탑을 말한다. 탄생지 카필라바스투, 성도지 대보리사, 전법륜처 사르나트, 열반처 쿠쉬나가라가 4대 성지이며, 법화경을 설한 왕사성 영취산, 부사의탑이 있는 바이샬리, 삼도보계 하강처인 상카시야, 반야경을 설한 슈라바스티를 더해 8대성지가 되고, 이곳에 건립한 탑이 8대탑이다.

이리저리 오랜 세월에 타버렸도다
 어찌 사람이 소원 다 이루겠는가마는
 오늘 아침 내 눈으로 보았구나

日, 至彼³⁹⁾羅疵斯國. 此國亦廢無王, 卽[六]〈下缺〉彼五俱輪見素形像, 在於塔中〈下缺〉上有師子, 彼幢極麤, 五人合抱, 文里細〈下缺〉塔時, 并造此幢. 寺名達磨斫葛羅, [僧]〈下缺〉外道不着衣服, 身上塗灰, 事於大天〈下缺〉. 此寺中有一金銅像五百□□□. 是摩揭陀國, 舊有一王, 名尸羅栗底, 造此像也. 兼造一金銅□□□輻團圓正等卅餘步. 此城俯臨恒河北岸置也. 卽此鹿野苑, 拘尸那, [王]⁴⁰⁾舍城, 摩訶菩提等四大靈塔, 在摩揭陀國王界. 此國大小乘俱行.

于(時)⁴¹⁾得達摩訶菩提寺, 稱其本願, 非常歎喜. 略題述其愚志, 五言.

不慮菩提遠 焉將鹿苑遙
 只愁懸路險 非意業風飄
 八塔難誠見 參差經劫燒
 何其人願滿 目覩在今朝

39) 『왕오천축국전』에서는 일관되게 彼를 썼으나 『대당서역기』 등 다른 기록에서는 波를 쓴다. 『왕오천축국전』의 낱말을 수록한 『일체경음의』의 해당 부분에도 波를 썼다.

40) 앞줄 마지막에 王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41) 時로 추정됨

4. 중천축국

다시 이 바라나시국에서 서쪽으로 두 달 정도 가면 중천축국(中天竺國)⁴²⁾ 왕이 사는 성에 도착하는데, 그 이름은 카니야쿱자[葛那及自, Kānyakubja]⁴³⁾이다. 이 중천축 왕은 영토가 매우 넓고, 백성이 번성하다. 왕

42) 중천축국(中天竺國): 중천축국은 카니야쿱자(Kānyakubja)를 도성으로 두고 나르마다(Narmadā)강 이북, 지금의 북인도 일대를 지배한 나라이다. 혜초가 방문한 무렵 중천축국의 왕은 야쇼바르만(᳚Yaśovarman, 재위 725~752)이다. 혜초는 『왕오천축국전』에서 중천축국, 남천축국, 서천축국을 들고 하나의 나라로 기술하였고, 북천축국은 자란달라국이라고 나란히 표기하여 자란달라 이외에도 북천축국이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기술해 나간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한다. 이런 기술은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같은 다른 기록과 큰 차이가 있다. 현장은 모두 138개국을 기술하면서 중인도 30, 동인도 6, 남인도 15, 서인도 10, 북인도 19, 그리고 서역에서 중국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56국과 싱갈라와 페르샤를 자신이 직접 세주를 붙여 기술하였다. 법현의 『불국기(佛國記)』는 대략 북천축 10, 중천축 12, 동천축 1, 서역과 기타 8국 등으로 기술하였다. 혜초는 카니야쿱자가 중천축국 도성이라고 소개했지만 이에 앞서 기술한 바라나시국이나 쿠쉬나가라국도 중천축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북천축도 마찬가지로 자란달라국 외에 카슈미르 등도 북천축에 속한다. 현장의 분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혜초의 중천축과 북천축 기술은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에 걸친 기술, 또는 중천축과 북천축을 대표하는 나라의 기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43) 카니야쿱자[葛那及自, ᳚Kānyakubja]: 곡녀성(曲女城). 지금의 우타르 프라데쉬주 카나우지(Kanauj). 『왕』 갈나급자(葛那及自), 『대당서역기』 갈약국사(羯若鞠闍). 강가강 우안 칸푸르(Kanpur)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델리(Delhi)로 통하는 간선도로변에 있다. 7세기 초기에 하르샤바르다나(᳚Harṣavardhana) 왕조의 수도로서 건설되어 북인도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르샤 왕조의

은 900마리의 코끼리를 소유하고, 다른 대수령(大首領)은 각각 200마리나 300마리의 코끼리를 소유한다.⁴⁴⁾ 왕이 늘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데, 다른 네 천축국과 항상 싸우면 중천축왕이 언제나 이겼다. 그 나라 법에는 스스로 코끼리나 군대가 적은 줄 알면 곧 화해를 청하여 해마다 세금을 보내고 서로 맞서 싸우고 죽이지 않는다.

의복과 언어, 풍속과 법률은 오천축국이 서로 비슷하다. 다만 남천축국의 시골 사람들의 말은 다르지만,⁴⁵⁾ 관리들의 말은 중천축국과 다르지 않

창시자 하르샤바르다나(ᱥᱟᱨᱜᱟᱴᱚᱰᱤ, 戒日王, 590~647)는 606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강가 유역의 영토를 확보한 후 서쪽의 카니아쿱자를 정복하고 벵갈에서 서부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을 확보하였다. 다시 서데칸까지 진출을 시도했으나 찰루키야(ᱠᱷᱚᱨᱱᱟᱹᱨᱠᱟᱹᱭᱤᱞᱤᱰ)왕조의 풀라케신(ᱯᱟᱨᱜᱟᱴᱚᱰᱤ) 2세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9~10세기 구르자라 프라티하라(Gurjara Pratihara)왕조 때 다시 수도가 되어 발전하다가, 1194년 이슬람 세력에 의해 크게 파괴된 뒤부터 이 도시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44) 고대 인도에서는 코끼리 보유 수가 군사력의 한 척도이기도 하였다. 코끼리가 갖는 엄청난 힘을 이용하여 무기나 군량을 운반하기도 하고, 공사와 창병 등 몇 명의 군사가 타고 돌격하는 임무를 주로 맡기도 하였다. 인더스문명과 함께 인도에서 코끼리는 가축으로 사육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강한 힘을 이용하여 농사에 보조 역할로 이용되었다. 서기전 10세기 무렵부터 군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산스크리트어 찬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후 인도에서 이란을 통해 서방에도 전파되어 지중해 세계에서도 군용으로 사용되었다. 알렉산드로스대왕과 인도와의 싸움에도 사용되었고, 포에니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인도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코끼리군대가 활용되었다. 최초의 통일국가인 마우리아왕조의 주력부대는 코끼리부대였으며, 기병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줄어들기도 했으나 굽타왕조 때 다시 중시되기도 하였다. 그후에도 16세기까지 전투에 사용되어 많을 때는 1천마리의 코끼리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혜초가 각 나라의 코끼리 수를 적은 것은 이런 사정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45) 남천축국의 시골 사람들의 말은 차이가 난다: 인도 북부, 서부, 중부, 동부의 언어는 모두 아리아(ᱠᱷᱚᱨᱱᱟᱹᱨᱠᱟᱹᱭᱤᱞᱤᱰ)어계에 속하므로 방언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기본적인 어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서로 통한다. 그러나 남인도 언어는 드라비

다. 오천축국의 법에는 목에 칼을 씌우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없으니,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벌금을 내게 하지 죽이는 일은 없다.⁴⁶⁾ 위로 국왕으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돌아다니며 사냥하며 매를 날리고 사냥개를 내달리게 하는 등의 일을 보지 못했다. 길에 비록 도적이 많긴 하지만 물건만 빼앗고 곧 놓아주어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다. 만약 물건을 아끼다가는 곧 다치게 된다.

기후가 매우 따뜻하여 온갖 풀이 항상 푸르고 서리나 눈은 내리지 않는다. 음식은 멍쌀, 곡물, 빵, 보릿가루, 버터[蘇, ghr̥ta]⁴⁷⁾, 젖[乳, kṣīra], 요구르트[酪, dadhi]⁴⁸⁾ 등 뿐이고, 장(醬)은 없으나 소금은 있다. 모두 흙솥으로 밥

다(㉔Dravida)어계에 속하므로 어법은 물론 표현이 아리안계와 완전히 다르다.

46) 인도의 고대 법전(法典)에는 일반적으로 타이름(說諭), 질책, 벌금, 체형(體刑)의 4가지 징벌 규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체형이 없다고 한 것은 체형이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桑山, p.71)

47) 원문의 소(蘇, ㉔ghr̥ta)는 소나 양의 우유를 응고시켜 만든 제품으로, 버터와 유사하다. 소유(蘇油), 소유(酥油), 소(酥)라고도 쓴다.

48) 원문의 락(酪, ㉔dadhi)은 소, 양, 말 등의 우유로 만든 제품으로, 요구르트와 유사하다. 불전에서는 이치의 열고 깊음을 비유할 때 우유[乳, ㉔kṣīra], 크림[酪, dadhi], 생버터[生酥, ㉔navanīta], 버터[熟酥, ㉔ghr̥ta], 정제 버터[醍醐, ㉔sarpīrmaṇḍa]에 비유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일정하지 않아서 일단 앞서의 구분을 제시해 둔다. 『장아함경』에 “우유에 비유하면 젖이 변하여 낙이 되며, 낙이 변하여 생소(生酥)가 되고, 생소가 변하여 숙소(熟酥)가 되며, 숙소가 변하여 제호(醍醐)가 된다”(『長阿含經』 권12 大1 p.112b1~5. 譬如牛乳, 乳變為酪, 酪為生酥, 生酥為熟酥, 熟酥為醍醐, 醍醐為第一. 『四分律』도 같음. 권40 大22 p.854c18~20)라고 하였고, 『대반열반경』에도 “비유하면 소에서 젖이 나오고, 젖에서 낙이 나오고, 낙에서 생소가 나오고, 생소에서 숙소가 나오고, 숙소에서 제호가 나온다. 제호는 가장 좋아서 이를 먹으면 모든 병이 없어지므로 모든 약에 들어간다”(『大般涅槃經』 권14, 大12 p.449a5~9. 譬如從牛出乳, 從乳出酪, 從酪出生酥, 從生酥出熟酥, 從熟酥出醍醐. 醍醐最上, 若有服者, 眾病皆除, 所有諸藥, 悉入其中.)고 하였다. 『열반경』은 다시 이 5단계에 12부경, 수다라, 방등경, 반야경, 열반경을 차례로 대비시켜 『열반경』이 제호이며 불성이자 여래라고 하였다.

을 지어 먹으며 무쇠술 따위는 없다. 백성은 별도의 부역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다만 땅에서 나는 생산에서 다섯 섬은 거두고 한 섬은 왕에게 바칠 뿐이다.⁴⁹⁾ 왕이 사람을 보내 운반해가고 땅 주인이 일부러 보내지 않는다. 이곳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자가 적다. 왕이나 관리집안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면직물 한 벌을 입고, 이밖의 사람들은 한 겹만 입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반조각만 입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이다.⁵⁰⁾

왕이 관청에 앉으면 수령과 백성이 모두 와서 왕을 둘러싸고 사방에 앉는다. 각자 도리로 다투고 소송이 많아서 매우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왕은 듣기만 하고 화를 내지는 않으며 느긋하게 “네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판결해주면 백성들은 왕의 한 마디 말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두 번 다시 말하지 않는다. 왕과 수령들은 삼보를 매우 공경하고 믿는다. 스님들을 마주할 때면 왕과 수령들은 땅에 앉지 의자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왕과 수령들은 어디에 갔다 올 때 오고가는 모든 곳에 자신의 의자를 가지고 따르게 하여 이르는 곳마다 그 의자에 앉고 다른 의자에는 앉지 않는다. 절과 궁궐은 모두 삼층으로 짓는데, 아래의 첫 번째 층은 창고로 쓰고 위의 두 층은 사람이 산다.⁵¹⁾ 여러 대수령들의 집도 그러한데, 집은 모두 지붕이 평

49) 다섯섬과 한섬 : 인도 고대사회는 전세(田稅)로 보통 6분의 1세(ṣaḍbhāga)를 징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혜초가 “다섯섬을 (경작자가) 거두고 한섬을 왕에게 준다”고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당서역기』 권2에도 6분의 1세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확 다섯섬 중에서 한섬을 왕에게 바친다고 하여 5분의 1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50) 이 나라 사람들의 옷 입는 풍속에 대해서는 의정(義淨)의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 권2에서 여러 옷에 대해 말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 참고가 된다. “서방의 풍속은 관인처럼 귀하고 뛰어난 사람은 입는 옷이 다만 백첩(좋은 면직) 한 벌 뿐이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 다만 천 하나만을 입는다(大54 p.214b1~3. 西方俗侶, 官人貴勝, 所著衣服, 唯有白氈一雙, 貧賤之流, 只有一布.)” 여기서 일쌍(一雙)은 한 벌, 일포(一布)는 천 하나를 의미한다.

평하며 벽돌과 나무로 짓는다. 이 밖의 사람들은 모두 초가집으로, 중국의 맞배집⁵²⁾과 비슷하게 지으며 단층집이다.

이 나라 산물은 면직물[氎布]⁵³⁾과 코끼리, 말 등 뿐이다. 이 곳 땅에서는 금과 은이 나지 않아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다. 또한 낙타, 노새, 나귀, 돼지 등의 가축도 기르지 않는다. 소는 모두 흰 색인데, 만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정도가 붉은 색이거나 검은 색이다. 양과 말은 아주 적어 왕만이 양 200~300마리, 말 60~70필을 가지고 있다. 이 밖의 수령들과 백성들은 모두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 오직 소 기르는 것을 좋아하여, 소에서 젖[乳]과 크림[酪]과 버터[蘇]를 얻는다. 이 나라 사람들은 착해서 살생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나 가게에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파는 곳을 보지 못했다.

又卽從此彼羅痕斯國, (西行兩)⁵⁴⁾月, 至中天竺國王住城, 名葛那及自. 此中天王, 境界極寬, 百姓繁鬧. 王有九百頭象, 餘大首領各有三二百頭. 其王每自領兵馬鬪戰, 常與餘四天戰也,

51) 인도 중부의 아잔타 석굴에 묘사된 궁궐 그림에서도 3층 구조가 확인된다. 현장도 『대당서역기』에서 승원의 누각이 3층임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사원 건축의 유적에서는 벽돌로 쌓은 단층 내지 2층 일부가 확인된다.

52) 맞배집: 양하(兩下)의 번역어.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지어 두 개의 널판을 맞대어 놓은 팔(八)자형으로 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지붕형식의 집. 정면에서 보면 장방형의 지붕면이 보이며, 측면에서는 지붕면의 테두리(내림마루)만 보인다.

53) 첩(氎)은 가는 모직물을 말하기도 하고, 면직물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로 표기된 첩포(氎布)는 면직물로 옳겠다. 원래 인도는 면화의 원산지이고 기 후도 더워 면직물이 주요 직물이었기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이와 대비하여 『왕오천축국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전삼(氎衫)이라는 표현은 모직물로 번역하였다.

54) 의미상 西行兩으로 추정됨

[中天]⁵⁵⁾王常勝. 彼國法, 自知象少兵少, 卽請和, 每年輸稅, 不交陣相煞也.

衣着言音人風法用, 五天相似. 唯南天村草百姓, 語(有)⁵⁶⁾差別, 仕(宦)⁵⁷⁾之類, 中天不殊. 五天國法, 無有枷棒牢獄, 有罪之者, 據輕重罰錢, 亦無(刑)⁵⁸⁾戮. 上至國王下及黎庶, 不見遊獵放鷹走犬等事. 道路雖卽足賊, 取物卽放, 亦不(傷)⁵⁹⁾煞. 如若悞物, 卽有損也.

土地甚暖, 百卉恒青, 無有霜雪. 食唯粳粮餅麩蘇乳酪等. 無醬有鹽. 惣用土鍋煮飯而食, 無鐵釜等也. 百姓無別庸稅, 但抽田子五一石与王. 王自遣人運將, 田主(勞)⁶⁰⁾不爲送也. 彼土百姓, 貧多富少. 王官屋裏及富有者, 着氎一雙, 自(外)⁶¹⁾一隻, 貧者半片, 女人亦然.

其王每坐衙處, 首領百姓, 惣來遶王, 四面而坐. 各諍道理, 訴訟紛紜, 非常亂鬧. 王聽不嗔, 緩緩報云, 汝是汝不是, 彼百姓等, 取王一口語爲定, 更不再言. 其王首領等, 甚敬信三寶. 若對師僧前, 王及首領等, 在地而坐, 不肯坐床. 王及首領, 行坐來去處, 自將牀子隨身, 到處卽坐, 他牀不坐. 寺及王宅, 竝皆三重作樓, 從下第一重作庫, 上二重人住. 諸大首領等亦然, 屋

55) 필사본에서 天中은 中天을 잘못 쓴 것임을 수정부호로 밝힘

56) 의미상 有로 추정됨.

57) 의미상 宦으로 추정됨.

58) 필사본의 形은 刑의 오사인 듯함

59) 필사본의 殤은 傷의 오사인 듯함

60) 의미상 勞로 추정됨

61) 의미상 外로 추정됨

皆平頭，塼木所造。自外□並皆草屋，似於漢屋兩下作也，又是一重。

土地所出，唯有氎布象馬等物。當土不出金銀，並從外國來也。亦不養駝騾驢猪等畜。其牛惣白，萬萬頭之內，希有一頭赤黑之者。羊馬全少，唯王有三二百口六七十疋。自外首領百姓，惣不養畜。唯愛養牛，取乳酪蘇也。土地人善，不多愛煞。[於]⁶²⁾市店間，不見有屠行賣肉之處。

이 중천축국은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중천축국⁶³⁾ 경내에 사대탑(四大塔)⁶⁴⁾이 있는데, 강가강 북안에 세 개의 대탑이 있다. 첫째 탑은 슈라바스티[舍衛, Śrāvastī]⁶⁵⁾국 급고독원(給孤獨園, Jetavana

62) 형태와 의미로 보아 於로 추정됨

63) 이곳의 기술처럼 중천축 경내에 슈라바스티국, 바이샬리국(여기서는 비야리성으로 기술), 카필라국 등이 따로 나라의 이름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천축이 여러 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하고 기술한 것임을 알게 한다.

64) 사대탑(四大塔) : 중천축 경계 내의 슈라바스티, 바이샬리, 카필라, 카니야쿱자 4곳의 탑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4대탑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ŚLumbini),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ŚBodhgaya), 처음 설법을 한 사르나트(ŚSārnāth), 열반에 든 쿠쉬나가라(ŚKūśinagara)의 4대 불교성지에 세운 탑을 말한다. 여기에 슈라바스티(ŚŚrāvastī), 상카시아(ŚSaṃkāśya), 왕사성(ŚRājagṛha), 바이샬리(ŚVaiśālī)를 더하여 불교의 8대 성지라고 한다. 룸비니는 카필라의 한 지역이고, 상카시아는 카니야쿱자 도성에 속한 지방이며, 보드가야는 마하보리사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혜초는 마가다국의 4대영탑이라 하여 사르나트탑, 쿠쉬나가라탑, 마하보리사탑, 왕사성탑을 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4대탑을 들었다. 혜초의 4대탑과 일반적인 4대탑의 차이는 룸비니(여기서는 카필라)와 왕사성이 바뀐 것이다.

65) 슈라바스티[舍衛, ŚŚrāvastī]국 : 『왕』 사위국(舍衛國), 『대당서역기』 실라벌설저국(室羅伐悉底國). 중인도 왕국이다. 본래는 코살라(ŚKosālā)국 도성 이름이었었는데 남코살라(ŚDakṣiṇa-Kosālā)국과 구별하기 위해 도성 이름을 나라 이름으



슈라바스티 기원정사

Anāthapiṇḍikārāma)⁶⁶⁾에 있는데, 절도 있고 스님도 있는 것을 보았다. 둘째

로 대신하였다. 부처가 살아 계실 때 프라세나짓(Prasenajit, 波斯匿)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 이 나라는 유명한 기원정사가 있어 부처는 성도 후 45년 설법하는 동안 이곳에서 25년을 머물만큼 자주 와서 지냈고 많은 중요한 설법이 이루어졌다. 상업 요지이며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경전에도 수만 채의 집이 있다고 묘사되었다. 그러나 7세기에 현장이 방문했을 때 이미 황폐화되어 사원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일부 승려가 정량부(正量部)를 배우고 있었고, 외도는 많았다고 기록하였다.

- 66) 급고독원(給孤獨園, ㉔Jetavana-Anāthapiṇḍikārāma) : 중인도 슈라바스티의 남쪽에 위치한다. 부처가 설법한 유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다.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 약칭해서 기원정사(祇園精舍, ㉔Jetavana) 등으로 불린다. 코살라국의 제타(祇陀, ㉔Jeta) 태자가 소유한 숲에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 ㉔Anāthapiṇḍada, 수닷타 ㉔Sudatta장자인데, 항상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여 이렇게 불렸음)가 세운 절이란 의미이다. 왕사성의 죽림정사(竹林精舍)와 함께 초기의 불교 사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부처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가장 많이 지



바이샬리 대탑

탑은 바이샬리[毗耶離, Vaiśāli]⁶⁷⁾성 암라(菴羅, Āmra)⁶⁸⁾원에 있는데, 탑이

났고, 이곳에서 설했다고 하는 경전도 많다. 사원의 주변에 깨끗한 못과 물이 흘러 수림이 울창하고 꽃이 많이 피어 아름다운 정경을 이루는 가운데 경행처(經行處)와 강당(講堂)을 비롯하여 식당과 주방 등 여러 건물이 갖추어져 있었다. 사원의 중앙에는 향실(香室, Gandha-kūṭi)이 있어 중심을 이루었다. 지금은 사원 터가 여럿 남아 있어 원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67) 바이샬리[毗耶離, Vaiśāli]성 : 『왕』 비야리성(毗耶離城), 『대당서역기』 폐사리국(吠舍釐國). 고인도 16국의 하나. 광엄(廣嚴)이라고 의역한다. 서기전 5세기 북인도 릿차비(Ṛcchavi)족의 수도였다. 강가강을 끼고 있어 상업이 크게 발달한 상업도시이자 북인도 일대의 교통,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다. 재가불교운동이 태동한 곳이며, 유마(維摩, Vimalakīrti)거사 같은 인물이 등장한 곳이다. 그래서 『유마경』과 『약사경』이 이곳에서 설해졌다고 한다. 부처가 열반에 든 1백년 후에 7백 현성이 모여 경전을 새롭게 편집하는 제2차 결집(結集)을 이루었다고 한다. 현재 아쇼카왕이 세운 탑과 석주가 잘 남아 있으며 유마거사의 고택 유적지 등이 남아 있다.

68) 암라(菴羅, Āmra)원 : 기녀(妓女) 암라팔리(Āmrāpālī, 菴羅波利, 菴沒羅女, 菴羅女라고도 함)가 부처께 바친 망고나무 동산을 가리킨다. 암라팔리는 『사분율』 등에는 바이샬리에 사는 음녀(淫女)로 이름난 사람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나녀



룸비니

있는 것을 보았으나 절은 황폐해져서 스님이 없다. 셋째 탑은 카필라[迦毗羅, Kapila]⁶⁹⁾국 즉 부처가 본래 태어난 성에 있는데, 무우수(無憂樹)⁷⁰⁾는 보

기바경(奈女耆婆經)』에는 이야기가 바뀌었다. 바이샬리의 범지원(梵志苑)에 암라팔리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나 나수(奈樹) 곧 암라팔리 나무에서 나왔다 하여 나녀라 하였다. 15세가 되니 용모가 뛰어나 인근 7국의 왕이 다투어 데려가려 하였다. 빔비사라왕이 밤을 함께하여 아들을 낳으니 지바카라 이름하였다. 8세에 태자로 삼았으나 2년 뒤에 바이데히부인이 아자타샤트루를 낳자 지바카는 태자 자리를 물려주고 의술을 배워 명의가 되었다. 나녀는 부처에 귀의하여 자신의 동산을 보시하였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암라팔리는 마가다국 빔비사라왕의 부인으로서 의사 지바카(Ṭjīvaka, 耆婆)의 어머니가 된다. 본래 지바카는 서역에서 의술을 배워 왕사성에서 빔비사라왕과 아자타샤트루왕의 어의(御醫)를 했던 명의라고 한다. 기녀 암라팔리와 명의 지바카를 연결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처는 바이샬리에 있는 암라원에서 『유마경』을 설했다고 한다. 지바카 역시 왕사성에 부처를 위해 망고동산을 기증하였다.

69) 카필라[迦毗羅, Kapila]국 : 그 성은 카필라바스투(ṬKapilāvastu). 『왕』 가비야라

왔으나 성은 이미 황폐해졌다. 탑은 있으나 스님은 없으며 백성도 없다. 이 성은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숲이 황량하고 길에 도적이 많아 그 곳에 가서 예배드리려는 이들이 찾아가기 어려워 곧잘 헤매곤 한다. 넷째는 삼도보계탑(三道寶階塔)으로, 중천축왕이 사는 성⁷¹⁾에서 서쪽으로 7일 정도 간 거리의 두 강가⁷²⁾ 사이에 있다. 부처께서 도리천(初利天)⁷³⁾에서 오실 때 삼도보계⁷⁴⁾를 만들어 염부제(閼浮提)⁷⁵⁾ 땅으로 내려오신 곳이다. 원

(迦毗耶羅), 『대당서역기』 겁비라벌솔도(劫比羅伐率堵), 카필라바스투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사키야(Śākya, 釋迦)족의 작은 공화국으로 석가모니 탄생 당시 슈도다나왕(Śuddodana, 淨飯王)이 통치하고 있었다. 카필라바스투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데, 범현의 기록과 현장의 기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네팔의 티라우라코트(Tilaurakot)와 인도의 피프라하와(Piprahwa)에 각각 카필라바스투라고 주장하는 곳이 따로 있다.

- 70) 무우수(無憂樹):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어머니 마야부인이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아래에서 낳았다고 한다. 본래 아쇼카나무[阿輸迦樹, Śāśoka]였는데, 석가모니가 싯타르타태자로 아쇼카 나무 아래서 태어나 어머니 마야부인과 태자가 모두 편안하게 되자 근심이 없는 나무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 나무 줄기는 곧게 자라며 잎은 길쭉한 복엽이고, 꽃이 선홍색으로 피며 열매는 타원형이다. 인도 문학에서 흔히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긴다고 한다.
- 71) 중천축국왕이 사는 성은 카니야궤자이다.
- 72) 두 강가강: 야무나(Ś Yamuna)강과 강가(Ś Gaṅgā)강을 말한다.
- 73) 도리천(初利天): Ś Trāyastriṃśa. 불교 우주관에서 욕계(欲界) 육천(六天) 가운데 두 번째 천(天)이다. 제석천(帝釋天)이 살고 있는 천계(天界)로 수미산(須彌山) 꼭대기에 있다. 모두 33곳으로 이루어져 있어 33천이라고도 한다. 원래 인도 신화에 나오는 산이었는데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須彌山)이 우뚝 솟아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주위에 여덟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고 한다. 일곱 번째의 산 바깥으로 짝 바다가 있고 그 바깥으로 철위산(鐵圍山)이 있어 수미산의 사대주를 이루는데 그 중의 남쪽인 염부제주(閼浮提洲)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위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 곧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다고 한다. 도리천은 제석천(帝釋天)이 주인이 되어 사방에 팔천을 거느리고 있어 삼십삼천이라고도 부른다.
- 74) 삼도보계(三道寶階): 금, 은, 유리로 만들어진 세 계단으로, 부처가 도리천에서

쪽은 금, 오른쪽은 은, 가운데는 유리로 만들어졌다.⁷⁶⁾ 부처는 가운데 길로 오시고, 범왕(梵王)⁷⁷⁾이 왼쪽 길, 제석천(帝釋天)⁷⁸⁾이 오른쪽 길에서 부처

내려올 때 사용한 세 길의 계단을 가리킨다. 삼도보제(三寶寶梯)라고도 쓴다. 전하는 말에 부처가 도리천에 올라가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3개월 간 설법한 뒤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때 제석천이 금, 은, 유리 세 길의 계단을 만들어 부처가 이것에 의지하여 내려왔다고 한다. 이 탑이 만들어진 곳은 상카시아(Śaṁkāśya)로서, 지금의 인도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주의 파루카바드(Farrukhabad) 지구에서 47km 떨어진 곳이다. 카나우지에서 서북쪽 델리 방향으로 강가강 상류쪽에 있다.

75) 염부제(閼浮提) : ㉔ Jambu-dvīpa, 잠부(jambu)는 나무 이름이고 드비파(dvīpa)는 대륙의 뜻으로, 염부나무가 자라는 대륙이라는 뜻이다. 수미산 사대주(四大洲)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주이다. 본래 인도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뒤에 인간 세계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76) 혜초는 탑에 삼도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장은 이곳에 대가람이 있고 그 담장 안에 70척의 삼도보계가 경전에 설한 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였다.『大唐西域記』 권4 劫比他國, 大51 p.893a24)

77) 범왕(梵王) : ㉔ Brahmā, 범천(梵天). 인도 신화의 창조신이며 브라만교 3대신의 하나. 불교에 수용되어 색계 초선천이 범천에 속하는데 범중천(梵衆天)·범보천(梵輔天)·대범천(大梵天)의 셋으로 나뉘며 통칭하여 범천이라 한다. 범천은 사바세계의 주인이라고도 한다. 제석천(帝釋天)과 함께 정법(正法)을 옹호하는 신이 되어 부처에게 제일 먼저 설법하기를 청한다. 항상 부처를 오른쪽에서 모시며, 손에는 흰 먼지털이(拂子)를 들고 있다고 한다.

78) 제석천(帝釋天) : ㉔ Śakra-devānām indra, 석가제환인다라(釋迦提桓因陀羅)라고 음역하여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 줄여 부르기도 하며 천제석(天帝釋) 또는 천주(天主)라고 하기도 한다. 수미산 정상 도리천의 천주(天主)로서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면서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이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는 하늘의 임금이다. 본래 힌두교의 인드라신으로서 불교에 들어와 제석천이라 불렸다. 경설에 따르면 제석천은 원래 마가다국의 브라만으로서 보시와 같은 공덕을 쌓아 마침내 도리천(忉利天)에 태어나 도리천 곧 33천의 천주(天主)가 되었다고 한다. 불교에 들어와서는 범천(梵天)과 함께 불교를 지키는 주신이 되어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 선견성(善見城)에 거주하며 십대천자의 시위를 받는다고 한다. 한 달에 여섯 차례 육재일(六齋日)에 사천왕과 태자와 시자를

를 모시고 내려와서 이곳에 탑을 세웠다. 절도 있고 스님도 있는 것을 보았다.⁷⁹⁾

此中天大小乘俱行. 卽此中天界內, 有四大塔, 恒河在北岸有三大塔. 一舍衛國給孤園中, 見有寺有僧. 二毗耶離城菴羅園中, 有塔見在, 其寺荒廢無僧. 三迦毗耶羅國, 卽仏本生城, 無憂樹見在, 彼城已廢. 有塔無僧, 亦無百姓. 此城最居北, 林木荒多, 道路足賊, 往彼禮拜者, 甚難方迷. 四三道寶階塔, 在中天王住城西七日程, 在兩恒河間. 佛當從刀利天, 變成三道寶階, 下閻浮提地處. 左金, 右銀, 中吠瑠璃. 佛於中道, 梵王左路, 帝釋右階, 侍佛下來. 卽於此處置塔. 見有寺[有僧].⁸⁰⁾

데리고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의 선악과 옳고 그름을 살펴 사람들이 효도나 보시나 재계행을 하지 않으면 수명을 줄이고 반대로 열심히 정진하면 수명을 늘린다고 한다. 석존이 성도한 다음에는 수호신이 되어 석존이 돌아가신 모친을 위해 도리천에 설법하러 올라가자 제석천은 보개를 들고 시종하였다 한다.

- 79) 혜초는 여기서 중천축의 4대탑을 모두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마가다국 4대영탑에서 말한 것처럼 혜초의 인도 지역 초기 여정에 대한 한 가지 추정은 동인도→부다가야→왕사성→바이샬리→카필라→슈라바스티→쿠쉬나가라→바라나시의 여정이다. 그러나 바라나시 다음에 마하보리사에서 지은 시를 실은 것이 문제가 되고, 중천축 왕성인 카니아콕자 다음 여정이어야 할 상카시아도 이 삼도보계탑에서 탑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현재 사본으로만 판단하면, 중천축국은 왕성만 소개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탑만 소개한 셈이 된다.

- 80) 필사본의 僧有는 有僧을 잘못 쓴 것임을 수정 부호로 밝힘

5. 남천축국

중천축국에서 남쪽으로 석달 남짓 가면 남천축국(南天竺國)⁸¹⁾ 왕이 사는 곳에 도착한다. 왕은 코끼리 8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 영토가 매우 넓어 남쪽으로 남해에 이르고, 동쪽으로 동해에 이르고, 서쪽으로 서해에 이르고, 북쪽으로 중천축·서천축·동천축 등의 나라와 경계를 접하는 곳까지 이른다. 의복과 음식, 풍속이 중천축국과 비슷하고, 언어만 조금 다른데, 기후는 중천축국보다 덥다. 이 지방 산물로는 면직물[氍布], 코끼리, 물소, 황소가 있다. 또 양은 조금 있으나 낙타, 노새, 나귀 등은 없다. 논은 있지만 기장이나 조 등은 없다. 비단⁸²⁾ 같은 것은 오천축국 어느 나라에도 없다. 왕과 수령과 백성들이 삼보를 지극히 공경하여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그 곳 산 속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81) 남천축국(南天竺國) : 나르마다(Narmadā)강 유역 남부의 남서부 인도를 지배한 서찰루키야(chālukya)왕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 있는 바다미(Bādāmi)에 도움을 두고 오랫동안 존속했던(543~757) 왕조이다. 혜초가 방문했을 때의 왕은 비자야디티야(Vijayaditya, 696~733)로 추정한다.(桑山, p.80) 그러나 남천축 왕이 사는 곳을 지금의 인도 중서부에 있는 뭄바이 인근인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나시크(Nasik)로 보기도 한다.(정수일, p.200) 바다미는 석굴사원으로 이름난 곳이고, 나시크 근처에 모두 석굴사원이 남아 있어 혜초의 기술과 일치한다. 혜초의 여정에서 중천축에서 3개월 거리를 고려하면 나시크일 가능성이 크다.

82) 면(綿)은 헝섬으로 만든 비단이고 견(絹)은 생명주로 만든 비단으로 면견을 합쳐서 비단을 말한다.

나가르주나[龍樹, Nāgārjuna]⁸³⁾보살이 야차(夜叉)⁸⁴⁾ 신을 보내서 지은 절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모두 산을 깎아 기둥을 만들고⁸⁵⁾ 3층으로 누각을 지었는데, 사망의 두려움이 3백여 보나 된다. 나가르주나보살이 살아 있을 때 절에 3천 명의 스님이 있어서 공양미만 해도 열다섯 섬이나 되었는데 매일

83) 나가르주나[龍樹, Nāgārjuna] : 인도 대승불교(大乘佛敎) 중관학파(中觀學派)의 창시자이다. 2~3세기경(150~250) 남인도의 브라만 출신으로 베다 등을 익히다 친구 3인과 은신술을 익혀 궁녀를 희롱하려다 발각되어 다른 친구들이 모두 죽어 이 일로 인해 출가하였다고 한다. 출가 후 삼장을 널리 익혔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히말라야산에 갔다가 한 노비구에게서 대승경전을 얻었고, 뒤에 용궁에 가서 많은 대승경전을 얻어 교리를 체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남천축왕이 브라만교를 신봉하여 불법을 공격하자 이를 교화하였고, 이후 힘써 불법을 전파하고 대승경전의 주석서를 써서 대승교학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대승 반야(般若) 학설을 전 인도에 두루 퍼뜨렸다. 이후 전개된 제 교학에 두루 큰 영향을 미쳐 팔종(八宗)의 조사로 추앙될 만큼 대승교학의 중심을 이룬다. 제자에 제바(提婆) 등이 있다. 저술로는 『중론(中論)』·『공칠십론(空七十論)』·『회쟁론(迴諍論)』·『대승파유론(大乘破有論)』·『보리자랑론(菩提資糧論)』 등 매우 많아 천 부의 논주[千部論主]로 불리며, 『대지도론(大智度論)』·『십이문론(十二門論)』·『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도 그의 저술로 보지만 논란이 있다.

84) 야차(夜叉) : yakṣa,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중(八部衆)의 하나로, 보통 나찰(羅刹, rākṣasa)과 함께 쓰인다. 지상이나 공중에 살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무리였는데, 불교에 수용되어 정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전에서는 항상 정법을 수호하는 신으로서의 야차를 서술하고 있으며, 약사 계통에서는 12 야차가 『약사경』을 수지하는 이들을 수호한다.

85) 산을 깎아 기둥을 만들고 : 석굴사원(石窟寺院)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의 바위를 깎아 동굴을 만들고 탑을 조성하거나 불상을 안치하여 예배를 드리는 탑원굴(塔院窟, caitya, 支提)이나, 작은 승방을 만들어 승려들이 수행하는 승원굴(僧院窟, vihāra, 精舍)을 만들었다. 나중에는 두 가지를 한 굴에 합쳐 만들었다. 석굴사원은 서기전 1~2세기 인도에서 남서부에서 시작되었다. 헤초가 기록한 이곳의 모습은 현재 남아 있는 엘로라(Ellora) 석굴에서 3층 형태의 석굴을 찾아볼 수 있다. 나시크 일대와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잔타(Ajanta)와 엘로라 일대에 6세기 경까지 건설된 많은 석굴사원들이 있다.



나시크석굴 (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3천 명의 스님에게 공양하는데도 쌀이 바닥나지 않고 쌀을 퍼내면 다시 생겨 원래 양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절은 황폐해져 스님이 없다. 나가르주나보살은 나이 7백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죽었다.

그때 남천축의 여로에서 오언시를 지었다.

달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 구름만 너울너울 돌아가는구나
 구름가 편에 편지라도 부치려는데
 바람이 거세어 돌아보지도 않네
 내 나라는 하늘 가 북쪽에 있고
 남의 나라는 땅 끝 서쪽에 있네
 따뜻한 남쪽에는 기러기 오지 않으니
 누가 소식 전하리 숲으로⁸⁶⁾ 날아가리

卽從中天國，南行三箇餘月，至南天竺國王所住。王有八百頭象。境土極寬，南至南海，東至東海，西至西海，北至中天西天東天等國接界。衣着飲食人風，與中天相似，唯言音稍別，土地熱於中天。土地所出，氎布象水牛黃牛。亦少有羊，無駝騾驢等。有稻田，無黍粟等。至於綿絹之屬，五天惣無。王及[首領]⁸⁷⁾百姓等，極敬三寶，足寺足僧，大小乘俱行。於彼山中，有一大寺，是龍樹菩薩(使)⁸⁸⁾夜叉神造，非人所作。並鑿山爲柱，三重作樓，四面方圓三百餘步。龍樹在日，寺有三千僧，獨供養以十五石米，每日供三千僧，其米不竭，取却還生，元不減少。然今此寺廢，無僧也。龍樹壽年七百，方始亡也。

于時在南天路，爲言曰，五言。

月夜瞻鄉路 浮雲颯颯歸
緘書忝去便 風急不聽迴
我國天岸北 他邦地角西
日南無有鴈 誰爲向林飛

86) 이 숲은 새들이 깃드는 숲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신라를 계림(鷄林)으로 불렀으므로 이 ‘림(林)’은 혜초의 고향인 계림 곧 신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87) 필사본의 領首는 首領을 잘못 쓴 것임을 수정부호로 밝힘

88) 필사본의 便是 使의 잘못으로 추정됨

6. 서천축국

다시 남천축에서 북쪽으로 두 달을 가면 서천축국(西天竺國)⁸⁹⁾ 왕이 사는 성⁹⁰⁾에 도착한다. 이 서천축국왕도 코끼리 5,6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 지방에서 나는 산물로는 면직물과 은, 코끼리, 말, 양, 소가 있다. 보리와 밀, 콩 종류 등이 많이 나고, 벼는 매우 적다. 음식은 빵과 보릿가루, 젓, 크림, 버터기름을 많이 먹는다. 시장에서 매매할 때 은화나 면직물 등을 사용한다. 왕과 수령과 백성들이 삼보를 지극히 공경하고 믿어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영토가 매우 넓어서 서쪽으로 서해까지 이른다.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노래를 잘 부르는데, 다른 천축국 사람은 이 나라만 못하다. 또 목에 칼을 씌우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처하는 등의 일은 없다. 지금은 아랍[大寔, Arab]⁹¹⁾의 침입을 받아 나라의 절반이 파괴되었다.⁹²⁾ 또 오천축국 법에 외

89) 서천축국(西天竺國): 『왕』 서천축국, 『대당서역기』 신도국(信度國). 현재 파키스탄 남부 신드 지방에 있었던 신드(Sind)국으로 추정한다. 7세기 초에 시하라스(㉔Siharas)왕이 통치하며 북쪽으로는 카슈미르, 동쪽으로는 카니아쿱자(㉔Kanyakubja), 서쪽으로는 마르칸(Markān)과 접하는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7세기 중반에 두 개로 나뉘었다가 711부터 아랍 무슬림군의 공격을 받아 이듬해에 두 왕성이 함락되었다. 이후 이곳에 부임한 아랍 총독과 일부 지역을 되찾고 다시 뺏기는 일이 계속되었다.(桑山, pp.83~84)

90) 신드국의 왕성은 인더스강 중류쪽의 알로르(Alor)와 그보다 남쪽의 브라흐마나바드(Brahmanabad) 두 곳이 있었는데, 혜초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신드왕이 탈환하였던 브라흐마나바드로 추정된다.

지에 가는 자는 양식을 가져가지 않고 도착하는 곳에서 바로 걸식하여 먹을 수 있다. 다만 왕과 수령들이 밖에 나갈 때는 스스로 양식을 가져가고 백성들이 바치는 음식⁹³⁾을 먹지 않는다.

又從南天北行兩月，至西天國王住城。此西天王，亦五六百頭象。土地所出，氎布及銀象馬羊牛。多出大小二麥及諸荳等，稻

91) 아랍[大寔, Arab]: 대식(大寔)은 대식(大食)의 고자(古字)이다. 대식국이란 중국 당·송대의 아랍을 가리킨다. 아랍의 본거지는 이란 서부 및 남부이다. 대식의 중국어 음인 따쉬(Tashi)는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로 무역상의 뜻을 가진 타이지르(Taijr)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650년 이후 아랍군이 중국의 서부변방에서 급속하게 영토 확장을 해나가자 이를 군사 야욕이라 규정한 중국인들이 아랍을 '영토의 탐욕자'라는 모멸감 섞인 말인 대식으로 불렀다는 설 등이 있다. 아랍인을 사라센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1세기경부터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사용한 아랍에 대한 호칭인 사라세니(Saraceni)에서 유래하였다. 처음에는 한 부족만을 가리켰으나 뒤에는 아랍족과 이슬람교도까지도 뜻하게 되었다.

92) 아랍은 무함마드(Muhammad, 570?~632)가 주장한 이슬람 교의를 따르는 교단이 나라로 발전한 경우다. 630년 무함마드가 신도군(信徒軍)과 함께 메카를 정복한 뒤 곧 아라비아반도의 대부분을 이슬람교의 세력 하에 통일하였다. 632년 그가 메디나에서 병사하자, 예언자의 후계자(할리파Khalifah)로서 교단의 장로인 아부 바크르(Abū bakr, 632~634)를 선출하였다. 그는 단기간의 재임 중에 아랍 제부족을 평정하고, 다시 비잔틴제국령인 시리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본거지인 이라크에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대정복 사업은 제2대 할리파인 우마르(Umar)의 재임 중(634~644)에 성공을 거두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750년까지 유지된 우마이야(Umawiyah)왕조 때는 동쪽으로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북서부, 서쪽으로 북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이베리아반도와 프랑스에도 침입하였다. 또 비잔틴제국(Byzantine Empire)의 수도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지금의 이스탄불 Istanbul)에도 여러 번 진격하였다.(김정위, 『중동사』, 대한교과서, 2005, pp.140~142) 710년에 이라크주의 총독 쿠타이바(Qutaybah)가 카심(Qasim)을 인더스강 유역에 파견하여 신드주를 정복한 이후 헤초 방문 당시의 서천축은 아랍의 침입으로 일부는 정복당하고 일부는 다시 탈환하는 등 얄팍타귀치락하고 있던 상태였다.

93) 바치는 음식: 지조(祇髓). 시주하는 음식이나 바치는 음식 일반을 가리킨다.

穀全少. 食多餅麩乳酪蘇油. 市買用銀錢氎布之屬. 王及首領百姓等, 極敬信三寶, 足寺足僧, 大小乘俱行. 土地甚寬, 西至西海. 國人多善唱歌, 餘四天國, 不如此國. 又無枷棒牢獄(刑)⁹⁴⁾戮等事. 見今被大寔來侵, 半國已損. 又五天法, 出外去者, 不將糧食, 到處即便乞得食也. 唯王首領等出, 自費糧, 不食百姓祇糲.

94) 필사본의 形은 刑의 잘못으로 추정됨

7. 잘란다라국

또 서천축국에서 북쪽으로 3개월 남짓 가면 북천축국⁹⁵⁾에 도착하는데, 이름이 잘란다라[閼蘭達羅, Jālandhara]⁹⁶⁾국이다. 왕은 코끼리 3백 마리를 가지고 있으며, 산에 의지해 성을 만들어 살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북쪽은 점점 산이 많아 나라가 좁아진다. 군대가 많지 않아 늘 중천축국이나 카슈미르[迦葉彌羅, Kashmir]⁹⁷⁾국에게 거듭 병탄되므로 산을 의지해 살고 있다. 풍속과 의복, 언어가 중천축국과 다르지 않지만 기후는 중천축국보다 조금 추운 편이어서 서리나 눈은 없지만 바람이 불어 춥다. 이 지방 산물로는 코

95) 여기서 말하는 북천축도 중천축과 마찬가지로 잘란다라 한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한다. 현장의 분류에 따르면 잘란다라 외에 탁샤르, 카슈미르, 간다라, 우디아나, 쿠위, 람파카 등이 북천축에 속한다. 그러나 혜초는 카슈미르 다음에 오천축의 풍속을 정리하고 있어 카슈미르까지만 북천축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96) 잘란다라[閼蘭達羅, Jālandhara] : 『왕』 사란달라(閼蘭達羅), 『대당서역기』 사란달라(閼爛達羅). 현재 인도 북부 편잡(Punjab) 지역의 잘란다라 지방에 해당한다. 편자브 지방의 교통의 요지이다. 현장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라야가(Prayaga)로부터 잘란다라 국왕인 우디타(Udita) 군대에 경전과 불상을 맡기기도 하였고, 하르샤바르다나 실리디티야는 우디타에게 큰 코끼리와 금전 은전을 맡겨 현장의 여비에 쓰도록 하였다. 7세기 중엽에 현조(玄照)는 티베트에서 잘란다라국에 와서 4년간 머물며 경률과 범문을 배우고 마하보리사로 갔다. 이런 사실들은 이곳이 교통의 요지였음을 말해 준다.(桑山, p.87)

97) 카슈미르[迦葉彌羅, ㉟ Kāśmīra] : 인도 평야에서 신장(新疆)과 티베트로 들어가는 통상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현재의 스리나가르(Srinagar) 일대이다.

끼리, 면직물, 벼, 보리 등이 있고, 나귀, 노새가 조금 있다. 왕은 말 100필, 수령은 서너 필을 가지고 있지만 백성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서쪽은 평야이고, 동쪽은 히말라야산[雪山]⁹⁸⁾에 가깝다. 나라 안에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又從西天北行三箇餘月，至北天國也，名闐蘭達羅國。王有三百頭象，依山作城而住。從茲已北，漸漸有山，爲國狹小。兵馬不多，常被中天及迦葉彌羅國屢屢所吞，所以依山而住。人風衣着言音，與中天不殊。土地稍冷於中天等也，亦無霜雪，但有風冷。土地所[出有]⁹⁹⁾象氎布稻麥，驢騾少有。其王有馬百疋，首領三五疋，百姓並無。西是平川，東近雪山。國內，足寺足僧，大小乘俱行。

98) 히말라야산: ⑤ Himālaya, 설산(雪山)의 번역어. 눈(⑤hima)이 있다(⑤ālaya)는 뜻이다. 인도 서북부에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으로, 처음에는 강가강 연변의 수원(水源)지대를 가리키는 좁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넓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히말라야산맥은 북서쪽에서 남동 방향으로 활 모양을 그리며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네팔·시킴·부탄·티베트 남부를 뻗어 내리면서 몇 갈래의 산계로 나누어진다. 설산은 경우에 따라 가리키는 곳이 다른데, 여기서는 파미르 서남부에서 힌두쿠시산맥에 걸친 지역을 말한다. 아쇼카왕 시대에 이 일대에 불교가 널리 퍼졌다. 예로부터 중국에서 육로로 서역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99) 필사본의 有出은 出有의 잘못임을 수정부호로 밝힘

8. 수바르나고트라국

또 한 달을 가서 히말라야산을 지나면 동쪽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수바르나고트라[蘇跋那具怛羅, Suvarṇagotra]¹⁰⁰⁾이다. 티베트[土蕃, Tibet]¹⁰¹⁾국의 관할에 속한다. 의복이 모두 복천축국과 비슷하나 언어는 다

100) 수바르나고트라[蘇跋那具怛羅, ☐Suvarṇagotra]: 『왕』 소발나구달라(蘇跋那具怛羅), 『대당서역기』 소벌랄라발구달(蘇伐剌拏跋瞿咄). 그 의미는 “김씨, 황금의 성씨”라고 한다. 왕성이 김씨이기 때문이다. 티베트 서쪽에 있던 나라로 왕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국(女國)이라 불렀다. 부군도 왕이긴 하지만 정사에는 간여하지 않았다. 티베트에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650년대에 티베트에 병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파악한 여국은 이밖에 티베트 동부에서 사천성에 걸쳐 있던 동여국(東女國)이 있었다. 티베트의 동서 지역에 있던 이 작은 여국들은 같은 계통이었다. 중국의 역대 사서에서는 이 두 여국이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101) 티베트[土蕃, Tibet]: 『왕』 토번(土蕃), 『대당서역기』 토번(吐蕃). 7세기 초에서 9세기 중엽까지 활동한 티베트왕국 및 티베트인에 대한 당(唐)·송(宋) 때의 호칭이다. 티베트인들은 스스로를 보에(Boe)라고 불렀으나 중국 사람들은 이들을 토번이라 칭했으며 이 호칭은 티베트왕국이 망한 후에도 14세기 무렵까지 사용되었다. 토번의 조상은 원래 네팔 북서부에서부터 카슈미르 동쪽 사이에 거주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4, 5세기 경에는 동부 티베트의 캄으로 이동하여 더욱 강성해졌다. 6세기 후반에는 중앙 티베트 남부에 거점을 두고 대두하기 시작한 이들 일부가 왕조의 기초를 만들고, 손첸감포왕 말기부터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룩하였다. 이 왕이 죽은 후 토욕혼(吐谷渾)의 귀족을 둘러싸고 당나라와 싸워 점차 전쟁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군사국가 조직과 기마부대에 의한 기동력을 활용하여 8세기 후반 이후에는 당나라로부터 서역의 지배권을 빼앗기도 하였으나 같은 무렵 성행하기 시작한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르다. 기후가 매우 춥다.

又一月程過雪山，東有一小國，名蘇跋那具怛羅。屬土蕃國所管。衣着與北天相似，言音卽別。土地極寒也。

822년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 후 불교에 의한 이상적 국가의 실현을 꿈꾸었으나 군사국가로서 운영상의 모순으로 846년 붕괴되었다.

9. 탁샤르국

또 이 곳 잘란다라국에서 서쪽으로 한 달 가면 탁샤르[吒社, Takshar]¹⁰²⁾ 국에 도착한다.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하다. 의복과 풍속, 토산물, 절기와 기후가 북천축국과 비슷하다. 역시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왕과 수령과 백성 등이 삼보를 크게 공경하고 믿는다.

又從此闍蘭達羅國西行經一月，至[吒社]¹⁰³⁾國。言音稍別，大分相似。衣着人風，土地所出，節氣寒暖，與北天相似。亦足寺足僧，大小乘俱行。王及首領百姓等，大敬信三寶。

102) 탁샤르[吒社] : Takshar, Takka, Takkadeśa라고도 표기한다. 『왕』 타사(吒社), 『대당서역기』 책가(磻迦). 동쪽은 비아스(Bias)강, 서쪽은 인더스강의 지류인 체나브(Chenab)강에 이르는 현재 파키스탄의 펀자브(Punjab) 지방에 해당하는 둘레 1만여 리의 넓은 영역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로 수도는 사칼라(Śākala, 사갈라(奢羯羅)였다. 지금의 시알코트(Sialkot)를 그 중심지로 추정한다.

103) 필사본의 一社吒에서 社吒는 吒社의 잘못임을 수정부호로 밝혔고, 一자는 잘못 들어간 글자로 추정됨.

10. 신드구자라트국

또 이곳 탁샤르국에서 서쪽으로 한 달을 가면 신드구자라트[新頭故羅, Sindh-Gujarāt]¹⁰⁴⁾국에 도착한다. 의복과 풍속, 절기와 기후가 북천축국과 비슷하나 언어는 조금 다르다. 이 나라에는 낙타가 매우 많아서, 사람들이 낙타에서 젖과 요구르트를 얻어 즐겨 먹는다. 왕과 백성들이 삼보를 크게 공경하여 절도 많고 스님도 많다.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¹⁰⁵⁾을 지은 상가바드라[衆賢, Saṅghabhadra]¹⁰⁶⁾ 논사가 이 나라 사람이

104) 신두고라(新頭故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확정하기 어렵다. 지금의 라즈푸타나(Rājputana, 인도 서부의 라자스탄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고라를 『대당서역기』의 구절라(瞿折羅)로 보아 지금의 구자라트(Gujarāt)로 보는 신드-구자라트(新頭故羅)의 견해도 있는데, 현장은 이 두 나라를 서인도 영역에서 서술하였다. 지금의 파키스탄 남부가 신드주이고, 그에 이어지는 인도 서부가 구자라트주이다. 그런데 탁샤르국에서 서쪽으로 한 달을 가는 곳이고, 이곳에서 북쪽으로 15일을 가면 카슈미르라고 한 혜초의 기록으로 추정하면 파키스탄 펀자브 북부의 탁실라(Taxila)와 젤룸(Jhelum)과 스리나가르(Srinagar) 사이에 있는 펀치(Punch,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반노차(半斂蹉) 근처로 보기도 한다. (桑山, pp.90~91) 젤룸과 그 남쪽의 라호르 사이에 현재 구즈라트(Gujrat)라는 지명이 있는데, 탁샤르에서는 바로 이웃해 있는 지역이어서 혜초가 기록한 15일 걸리는 일정과 차이가 크다. 위치로 보아서는 펀치가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로 생각되지만 그 표기가 혜초가 제시한 신두고라와 너무 다른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가능하면 원어에 따라 표기하였으므로 일단 나라 이름은 신드구자라트설을 따라 표기해 둔다.

105)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 新 Abhidharma-nyāyānusāra-śāstra. 모두 80권이다. 인도인 상가바드라(新 Saṅghabhadra, 衆賢)가 짓고 현장(玄奘)이 번역

다. 이 나라는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지금은 아랍이 침략하여 나라의 절반이 손상을 입었다.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오천축국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오천축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술 취해서 서로 싸우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비록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얼굴색이 붉어지고 기운이 좋아질 뿐 노래하고 떠들썩하게 자리를 벌이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又從此吒國西行一月，至新頭故羅國。衣着風俗，節氣寒暖，與北天相似，言音稍別。此國極足駱駝，國人取乳酪喫也。王及百姓等，大敬三寶，足寺足僧。卽造順正理論衆賢論師，是此國人也。此國大小乘俱行。見今大寔侵，半國損也。卽從此國，乃至五天，不多飲酒。遍歷五天，不見有醉人相打之者。縱有飲者，得色得力而已，不見有歌儻作劇飲宴之者。

하였다. 『수실론(隨實論)』, 『구사포론(俱舍電論)』이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순정리론(順正理論)』, 『정리론(正理論)』이라고도 한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입장에서 세친(世親)의 『구사론(俱舍論)』을 논파하여 설일체유부의 주장을 선양하고자 한 책으로서 변본사품(辯本事品), 변차별품(辯差別品), 변연기품(辯緣起品), 변업품(辯業品), 변수연품(辯隨緣品), 변현성품(辯賢聖品), 변지품(辯智品), 변정품(辯定品)의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6) 상가바드라[衆賢, ㉔ Saṅghabhadra] : 『대당서역기』에서는 상가바드라가 카슈미르에서 『순정리론』을 저술했고, 중인도에 속하는 말저보라(秣底補羅, Mandawar) 국에서 임종했다고 하였으며, 『바수반두법사전』에서는 아요디아에서 책을 썼다고 되어 있어 활동 지역에 대한 전승이 서로 다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명성이 있었는데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을 깊이 탐구하였다. 바수반두(世親, Vasubandhu)가 『구사론』을 지어 설일체유부의 교의를 일부 수정하고 경량부 교의를 포함시켜 비바사 논사를 비판하자, 상가바드라는 12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 정통 유부의 입장에서 바수반두를 다시 비판한 『순정리론』을 지었다. 그리고 동학 몇 명과 함께 바수반두에게 토론하러 갔는데 바수반두가 다른 곳으로 가버려 바수반두에게 책을 보냈고, 바수반두는 결국 그 논지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또 북천축국에¹⁰⁷⁾ 절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타마사바나[多摩三磨娜, Tamasāvana]¹⁰⁸⁾라 한다. 부처가 살아 계실 때 이곳에 오셔서 설법하시어 인 천(人天)¹⁰⁹⁾을 널리 제도하셨다. 이 절 동쪽 계곡의 시내에 있는 샘물 가에 탑이 하나 있는데, 부처가 자른 머리카락과 손톱이 이 탑 안에 있다. 이 절 에는 현재 300여 명의 스님이 있고, 절에는 대벽지불(大辟支佛)¹¹⁰⁾의 어금 니와 뼈 사리¹¹¹⁾ 등이 있다. 또 7,8개의 절이 더 있는데 각각 5,6백 명의 스

-
- 107) 북천축에: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치나북티국의) 대성 동남으로 5백 여리를 가면 타마사바나 승가람에 이른다. 승려 3백 여인이 설일체유부를 배운다(『大唐西域記』 권4 大51 p.889 b28~29. 大城東南行五百餘里, 至答祿蘇伐那僧伽藍[唐言閼林]. 僧徒三百餘人, 學說一切有部.)”고 한 구절을 들어 이 북천축 다음에 ‘치나북 티[至那僕底, Cinabhukti]국에 가면’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108) 타마사바나[多摩三磨娜, Tamasāvana]: 『왕』 다마삼마나(多摩三磨娜), 『대당서역 기』 지나북저(至那僕底)국의 담말소별나승가람(答祿蘇伐那僧伽藍). 현장이 방문 했을 때 이곳에서는 3백 여 명의 승려들이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학설을 배우 고 있었다.
- 109) 인천(人天): 인간계(人間界)와 천계(天界)를 가리킨다. 육도(六道) 중의 두 곳으 로 모두 중생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 업(業)에 따라 윤회하는 미망(迷妄)의 세계 로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에 이어 등장하는 선도(善道)에 속한다.
- 110) 벽지불(辟支佛): 𑖀𑖦𑖫𑖞𑖳𑖻𑖪𑖹𑖫𑖼𑖱𑖻𑖪𑖹, 연각(緣覺), 독각(獨覺)이라 의역한다. 성 문(聲聞)·연각·보살(菩薩)의 삼승(三乘)의 하나이고, 소승을 둘로 나눈 성문·연각의 이승(二乘)의 하나이다.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성인을 말한다. 두 가 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부처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 불법이 이미 없어졌으나 전 생애에 닦은 인연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았음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터득함을 의미한다.
- 111) 사리(舍利): 𑖀𑖦𑖫𑖞𑖳𑖻𑖪𑖹𑖫𑖼𑖱𑖻𑖪𑖹, 원래는 죽은 시체나 유골을 뜻한다. 부처가 열반에 든 후 다비하여 얻은 유골을 8대탑으로 만들어 경배한 후 불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처의 유골을 불골(佛骨) 또는 불사리(佛舍利)라 한다. 고 승이 죽은 뒤 화장하고 남은 뼈 또한 사리라고 하며 이를 봉안한 승탑을 만들기도 한다. 『금광명경(金光明經)』 권4 사신품(捨身品)에는 사리란 계(戒)·정(定)·혜(慧)를 닦아야 나오는 실로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님이 불법을 잘 지키고 있다.¹¹²⁾ 왕과 백성들이 대단히 공경하고 믿는다.

또 산중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나가라다나[那揭羅駄那, Nagara dhana]¹¹³⁾이다. 어떤 중국인 스님 한 분이 이 절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곳의 대덕이 말하기를, “그 스님은 중천축국에서 왔으며 삼장(三藏)¹¹⁴⁾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밝았습니다.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곧바로 입적하고 말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 사운(四韻)의 시를 지어 그의 저승 길을 슬퍼하였다. 오언시는 다음과 같다.

112) 주지(住持)는 흔히 절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나 본래 경전에서 말하는 뜻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불법 또는 삼보를 견실하게 지키고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113) 나가라다나[那揭羅駄那, ㉟Nagaradhana]: 『왕』 나가라타나(那揭羅駄那), 『자은사삼장법사전』 권2에는 나가라타나(那伽羅駄那). 절 이름이다. 『자은사삼장법사전』에는 잘란다라국에 있는 절로서 전달라벌마[施達羅伐摩, ㉟Candravarman 한 자로는 月冑]라는 삼장이 있어 현장은 이곳에서 닉 달 동안 비바사를 배웠다고 하였다.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권2 閼爛達那國 大 50 p.232b6~8) 이에 비해 『대당서역기』에는 잘란다라국에 가람 50여개 소가 있다고 하였으나 절 이름은 들지 않았다.

114) 삼장(三藏): ㉟tri-pitaka, 경(經)·율(律)·론(論)의 가르침. 장(藏)을 뜻하는 피타카(pitaka)는 그릇, 곡창, 바구니 등을 뜻한 것이었다. 불교 성전을 분류하는데 경·율·론의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일체의 아는 것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장(藏)’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는 법을 외위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구전되어 왔으므로 암송을 뜻하는 말로 ‘장’을 사용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일체 교법을 모두 담기 때문에 그릇의 의미로 ‘장’을 사용했다고도 한다. 삼장 중 경은 부처가 설한 경전으로서 부처의 이치와 중생의 근기에 맞는 것이라 한다. 율은 부처가 정한 율의(律儀) 곧 교단 생활의 규칙으로서 중생의 잘못을 다스리고 중생의 심성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논은 불전의 뜻에 논의를 더하고 설명한 것으로 후인들의 풀이가 더해져 체계화된 해석을 말한다.

고향집 등불은 주인을 잃고
 타향의 보배나무 꺾어졌구나
 신령스런 혼령은 어디로 갔는가
 옥 같던 모습은 이미 재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슬픈 마음만 간절하도다
 그대 소원 못 이룸이 서럽구나
 누가 고향 가는 길을 알리오
 돌아가는 흰구름만 부질없이 바라보네

又從北天國，有一寺，名多摩三磨娜。仏在之日，來此說法，廣
 度人天。此寺東澗裏於泉水邊，有一塔，則仏所剃頭及剪爪甲，
 在此塔中。此見有三百餘僧，寺有大辟支仏牙及骨舍利等。更
 有七八所寺，各五六百人，大好住持。王及百姓等，非常敬信。

又山中，有一寺，名那揭羅馱娜。有一漢僧，於此寺身亡，彼大
 德說，“從中天來，明閑三藏聖教。將欲還鄉，忽然違和，便卽
 化矣。”

于時聞說，莫不傷心，便題四韻，以悲冥路，五言。

故里燈無主 他方寶樹摧
 神靈去何處 玉兒已成灰
 憶想哀情切 悲君願不隨
 孰知鄉國路 空見白雲歸

11. 카슈미르국

또 이곳에서 북쪽으로 15일 가서 산으로 들어가면 카슈미르[迦葉彌羅, Kashmir]¹¹⁵⁾국에 도착한다. 이 카슈미르도 북천축국에 속하는데, 이 나라는 조금 크다. 왕¹¹⁶⁾은 코끼리 3백 마리를 가지고 있고, 산 속에서 산다. 길이 험악하여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 인구가 매우 많은데, 가난한 이가 많고 부유한 이는 적다. 왕과 수령과 여러 부자들은 의복이 중천축국과 다르지 않으나 그 밖의 백성들은 모두 모포로 몸의 추한 곳을 가린다. 이 지방 산물로는 구리와 철, 면직물, 모포, 소, 양이 있고, 코끼리, 작은 말, 뱀쌀, 포도¹¹⁷⁾ 등이 있다. 기후가 매우 추워 이전의 여러 나라와 같지 않다. 가을

115) 카슈미르[迦葉彌羅, Kashmir]: 『왕』가섭미라(迦葉彌羅), 『대당서역기』가습미라(迦濕彌羅). 『왕오천축국전』에서는 가라(迦羅), 가미라(迦彌羅)라고도 표기하고 있다. 한위(漢魏) 때는 이 지역을 계빈(罽賓)이라 불렀다. 인도 평야에서 신장[新疆]과 티베트로 들어가는 통상로에 해당하며, 중앙아시아에 불교를 전한 경로로 추정된다. 현재 인도 서북부인 스리나가르(Srinagar)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현재의 카슈미르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남부는 인도가, 북부는 파키스탄이 각각 점유를 주장하고 있어 잠정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국경 분쟁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116) 혜초가 방문했을 때의 카슈미르왕은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지배한 카르코타(Kārkota)왕조의 랄리타디티야(Lalitāditya, 724~760)로 추정하지만, 전승에 따라 찬드라피다(Candrāpīḍa)나 무크타피다(Muktāpīḍa)로 추정하기도 한다. (桑山, p.98)

117) 포도: 흔히 포도(葡萄)라고 쓰나 『사기(史記)』에서는 포도(蒲陶)라고 하였으며 남북조시대에는 포도(蒲桃)라고 썼다. 여기서 사용한 포도(蒲桃)는 포도(蒲桃)의 다른 표기이다. 당송대에 싼과 포도는 이곳 카슈미르의 특산으로 알려졌다.



카슈미르에서 스리나가르 가는 길 (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에는 서리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며, 여름에는 찬 비가 많이 내려 온갖 초목이 늘 푸르다가 잎이 시들고 겨울이 되면 풀들이 모두 말라 버린다. 시내와 골짜기가 좁아 남북으로는 5일 정도 걸리고, 동서로는 하루만 가면 땅이 끝나며¹¹⁸⁾ 나머지는 모두 산으로 덮여 있다. 지붕은 모두 나무 널판자로 덮고, 짚이나 기와는 쓰지 않는다. 왕과 수령과 백성들이 삼보를 매우 공경한다. 나라 안에 용(龍)이 사는 못¹¹⁹⁾이 하나 있는데, 그 용왕이 매

118) 카슈미르 분지는 북서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길게 벌어 있는데 길이 135km, 너비 40km 정도가 된다.

119) 용이 사는 못 : 당시 카슈미르의 중심지였던 인도 서북 지방 스리나가르(Srinagar)에서 북서쪽 약 35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카슈미르 분지 최대의 호수인 울라르(Wular)호를 가리킨다. 예로부터 카슈미르에서는 용(☉ Nāga)을 이 지역 수호신으로 존숭하였고, 용은 물에 산다고 생각하였다. 용 숭배는 예부터 이 지역의 민족종교로 여겨져 지금도 지명에는 용이 들어간 이름이 많다고 한다.(桑山, p.102)

일 천 명의 아라한¹²⁰⁾ 스님을 공양한다. 아무도 성승(聖僧)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본 사람은 없지만 공양이 끝나고 나면 빵과 밥이 어지러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공양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왕과 대수령은 외출할 때 코끼리를 타고, 낮은 관리들은 말을 타고, 백성들은 모두 걸어간다. 나라 안에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又從此北行十五日入山，至迦羅國。此迦彌羅，亦是北天數，此國稍大。王有三百頭象，住在山中。道路險惡，不被外國所侵。人民極衆，貧多富少。王及首領諸富有者，衣着與中天不殊，自外百姓，悉(枝)¹²¹⁾毛毯，覆其形醜。土地出，銅鐵氎布毛毯牛羊，有象少馬粳米菟桃之類。土地極寒，不同已前諸國。秋霜冬雪，夏足霜雨，百卉亘青，葉彫，冬草悉枯。川谷狹小，南北五日程，東西一日行，土地即盡，餘並蔭山。屋並板木覆，亦不用草瓦。王及首領百姓等，甚敬三寶。國內有一龍池，彼龍王，每日供養[一千]¹²²⁾羅漢僧。雖無人見彼聖僧食，亦過齋已，即見餅飯從水下紛紛亂上，以此得知。迄今供養不絕。王及大首領出外乘象，小官乘馬，百姓並皆塗步。國內足寺足僧，大小乘俱行。

120) 아라한(阿羅漢) : ㉠ arhat. 성문(聲聞) 사과(四果)의 하나이며, 여래(如來) 십호(十號)의 하나이다. 응공(應供), 불생(不生), 무생(無生), 무학(無學), 진인(眞人) 등으로 의역한다. 깨닫지 못한 중생이 윤회 유전하는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三界)에서 이치를 보고서 끊는 견혹(見惑)과 수도하여 끊는 감각적·육체적·정의적인 사혹(思惑)을 다 끊고 참 앎을 증득하였으므로 마땅히 세간의 큰 공양을 받을 만한 성인을 가리킨다. 이 과위(果位)는 대승(大乘)·소승(小乘)에 공통되지만 일반적으로 소승불교에서 얻는 최고의 과위를 뜻한다.

121) 필사본의 枝는 被의 잘못으로 추정됨

122) 필사본의 千一은 一千의 잘못임을 수정 부호로 밝힘

오천축국의 풍습

오천축국의¹²³⁾ 법에 위로는 국왕과 왕비, 왕자에서부터 아래로는 수령과 그의 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기 스스로 절을 짓는데, 서로 따로 짓지 함께 절을 짓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기를, “각자의 공덕인데 어찌 함께 지어야 하는가?” 라고 하니 이 말도 그럴 듯하다. 다른 왕자들도 그러하다. 절을 지어 공양하는 경우에는 곧 마을과 백성을 보시(布施)하여 삼보를 공양하도록 하는 것이며, 헛되이 절만 짓고 백성을 보시하지 않는 일은 없다. 외국의 법은 왕과 왕비는 각각 따로 마을과 백성을 소유하고, 왕자와 수령도 각각 백성을 소유한다. 보시하는 것은 자유여서 왕에게 묻지 않는다.¹²⁴⁾ 절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을 지어야 하면 짓고 왕에게 묻지 않으며, 왕도 감히 막지 못하니 죄를 받을까 두려워해서이다. 만약 부유한 백성이 마을에 보시하지 않았다면 힘써 절을 지어 스스로 경영하여 얻은 물건으로 삼보에게 공양한다. 오천축국에서는 사람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노비가 없어서 반드시 백성과 마을에 보시해야 한다.

五天國法，上(至國王)¹²⁵⁾王妃王子，下至首領及妻，隨其力能，各自造寺也。還別作，不共修營。彼云“各自功德，何須共造？”此既如然。餘王子等亦爾。凡造寺供養，即施村庄百姓供養三寶，無有空造寺，不施百姓者。爲外國法。王及妃姪，各別村庄

123) 여기서 오천축의 풍속을 정리하여 기술한 것은 혜초가 카슈미르까지를 천축의 범위로 여겼던 것을 말해준다. 이는 현장이 발로르나 간다라, 우디아나, 람파카 등까지 북인도에 포함하여 보았던 것과 다르다.

124) 이 부분의 원문은 ‘不(問)王也’로 ‘問’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줄에 바로 이어진 문장에 ‘亦不問王’이란 구절이 이를 반증한다.

125) 필사본에 이에 이어 기록된 至國王 3자는 중복된 글자라서 삭제함

百姓，王子首領，各有百姓。布施自由，不(問)王也。造寺亦然，
須造卽造，亦不問王，王亦不敢遮，怕招罪也。若富有百姓，雖
無村庄布施，亦勵力造寺，以自經紀得物，供養三寶。爲五天不
賣人，無有奴婢，要須布施百姓村園也。

12. 대발로르국·양동국·사파자국

또 카슈미르에서 동북쪽으로 산을 넘어 15일을 가면 곧 대발로르[大勃律, Balor]¹²⁶⁾국과 양동(楊同)¹²⁷⁾국과 사파자(娑播慈)¹²⁸⁾국이다. 이 세 나라

-
- 126) 대발로르[大勃律, Balor]국 : 『왕』 대발율(大勃律), 『대당서역기』 발로라(鉢露羅). 지금의 발티스탄(Baltistan) 지방으로 카슈미르 지방의 북쪽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교통의 요충지여서 여러 문헌에 이름이 등장한다.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는 발로룩(鉢廬勒), 『신당서(新唐書)』 「서역전(西域傳)」(권221하)은 포로(布露)라고 하였다. 7세기 중엽 이후 발로르[勃律, Balor]는 대발로르와 소발로르로 분열하여, 대발로르는 현재의 발티스탄(Baltistan) 지방을 근거로 하였고 소발로르는 대발로르보다 서북 지역으로 현재의 파키스탄 동북부 끝 지역인 길기트(Gilgit) 지방을 근거로 하였다. 이후 대발로르는 티베트 지배하에, 소발로르는 당의 세력권 안에 들어갔다.(桑山, p.108) 당에서는 발로르의 통치자를 왕으로 책봉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소통에 이곳이 중요한 지역이고 서쪽으로 아랍, 남쪽으로 티베트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들 지금의 발티스탄 지방은 동쪽은 라다크, 서쪽은 길기트 지방과 접한 지역으로 히말라야 산계의 서쪽에 해당하며 해발고도 7,000m 이상의 고봉이 솟아 있고 빙하지대가 있다. 인더스강의 상류지역에 해당하며, 마을은 계곡 사이에 드문드문 있다.
- 127) 양동(楊同) : 『당서(唐書)』에서는 양동(羊同)이라고 쓴다. 카슈미르 동남부에서 서티베트에 이르는 지역 곧 라다크(Ladakh) 동부에서 구게(Guge)에 이르는 사이의 지역으로 추정한다.(桑山, p.107)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등 교류가 있었으나 7세기 중반에 티베트에 멸망당하였다.
- 128) 사파자(娑播慈) : 인도 서북부의 라다크(Ladakh) 지방에 있는 레(Leh)의 서쪽으로, 인더스강에서 알치(Alchi) 대안에 있는 근세에 사포체(Sa spo rtse)로 불리는 지역으로 추정한다.(桑山, p.107) 카슈미르의 중부 지역으로 카슈미르의 중심지인 지금의 스리나가르에서 동쪽에 있다. 『일체경음의』의 해당 부분에는 파파자(婆簸慈)로 되어 있다.

는 모두 티베트 관할에 속한다.¹²⁹⁾ 의복과 언어, 풍속이 모두 다르며, 가축
 외투와 면직물 상의, 가죽신, 바지 등을 입는다. 땅이 험소하고 산천이 매우
 험하다. 절도 있고 스님도 있으며 삼보를 공경하고 믿는다. 여기보다 동쪽
 에 있는 티베트 같은 곳은 전혀 절이 없고 불법을 모르지만¹³⁰⁾, 이 땅은 호
 (胡)¹³¹⁾인들이므로 불법을 믿는다.¹³²⁾

129) 이 세 나라는 모두 티베트 관할에 속한다: 티베트는 7~9세기에 중앙아시아로
 진출하여 교통의 간선을 장악하였다. 발로르, 양동, 사파자 등은 모두 중앙 티베
 트에서 서북으로 향한 길에 존재하고 있다. 티베트에서 가장 가까운 양동이 티
 베트에 복속된 것은 643~645년이다. 혜초가 방문한 무렵(725~728년경)에는 이
 미 발로르·양동·사파자·수바르나고트라가 티베트 영역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혜초의 이 기록이 앞의 세 나라가 티베트의 영역이 되었다고 명시한 최
 초의 기록이라고 한다.

130) 티베트에 절이 없고 불법을 모른다고한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티베트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손첸 캄포왕(재위 629~650)의 왕비인 당의 문성(文成)
 공주에 의해서였고 현조(玄照)를 후원하여 사란달라국에 보냈다는 등의 설화
 가 알려져 있다. 그리고 라사에는 7세기 불교 사원이 건립되었던 것이 확실하며
 혜초가 순력한 시기의 왕인 티데 츠쿠첸왕(재위 712~754)은 당의 금성(金城)공
 주를 맞아들여 이때 불교를 지원하였으나 왕이 죽은 후 다시 위축되었다. 그래
 서 티베트에 불교가 공인된 것은 다음 대인 티손 데첸왕(재위 755~796) 때였다.
 이때까지는 일반인들에게 불교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혜초가 전해 들었던
 카슈미르에는 티베트 불교의 사정이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혜초는
 불법을 모른다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31) 호(胡): 중국에서 진한(秦漢) 이전에는 흉노(匈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진대부터 사이(四夷)가 공식화됨에 따라 서융(西戎) 또는 서호(西胡)라고 불리
 게 되어 서쪽의 외국인을 가리키게 되었다. 남북조시대에는 서방의 이란인 특
 히 소그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나아가 변경 밖 민족의 범칭으로 사용되었다.
 수당(隋唐) 때는 특히 신장(新疆), 티베트[西藏], 내몽고(內蒙古) 등과 몽고에서
 러시아에 이르는 일대를 가리켰다. 수대 이후에는 인도는 호에 포함되지 않았
 다. 여기서 말하는 호는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과 국가를 가리킨다.

132) 호인들이므로 불법을 믿는다: 투르크[突厥]인이 불교를 믿지 않는 데 대한 상대
 적 표현인 듯하다. 현재 서티베트를 포함한 파미르 남부에 불교 내용을 포함한

又迦葉彌羅國東北隔山十五日程，卽是大勃律國，楊同國，娑播慈國。此三國，並屬吐蕃所管。衣着言音人風並別，着皮裘氎衫靴袴等也。地狹小，山川極險。亦有寺有僧，敬信三寶。若是已東吐蕃，惣無寺舍，不識佛法，當土是胡，所以信也。

암벽화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13. 티베트국

이보다 동쪽에 있는 티베트[吐蕃, Tibet]¹³³⁾국은 순전히 얼어붙은 산과 눈 덮인 산과 골짜기 사이에서 사는데, 모직 천막을 치고 산다. 성곽이나 가옥은 없어서 거처하는 곳이 투르크[突厥, Turk]¹³⁴⁾와 비슷하다. 물과 풀을 따

133) 티베트[吐蕃, Tibet] : 『왕』 토번(吐蕃)·토번(吐蕃), 『대당서역기』 토번(吐蕃). 7세기 초에서 9세기 중엽까지 활동한 티베트왕국 및 티베트인에 대한 당(唐)·송(宋) 때의 호칭이다. 티베트인들은 스스로를 보에(Boe)라고 불렀으나 중국 사람들은 이들을 토번이라 칭했으며 이 호칭은 티베트왕국이 망한 후에도 14세기 무렵까지 사용되었다. 토번의 조상은 원래 네팔 북서부에서부터 카슈미르 동쪽 사이에 거주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고, 4,5세기 경에는 동부 티베트의 캄으로 이동하여 더욱 강성해졌다. 6세기 후반에는 중앙 티베트 남부에 거점을 두고 대두하기 시작한 이들 일부가 왕조의 기초를 만들고, 손첸캄포왕 말기부터 국가 체제를 정비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룩하였다. 동왕이 죽은 후 토욕혼(吐谷渾)의 귀속을 둘러싸고 당나라와 싸워 점차 전쟁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군사국가조직과 기마부대에 의한 기동력을 활용하여 8세기 후반 이후에는 당나라로부터 서역(西域)의 지배권을 빼앗기도 하였으나 같은 무렵 성행하기 시작한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822년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 후 불교에 의한 이상적 국가의 실현을 꿈꾸었으나 군사국가로서 운영상의 모순으로 866년 당에 멸망당하였다.

134) 투르크[突厥, Turk] : 『왕』 돌궐(突厥), 『대당서역기』 돌궐(突厥). 민족 이름이자 나라 이름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철륵(鐵勒)·돌궐(突厥)의 각 부족을 포괄하고, 좁은 의미로는 돌궐칸국(突厥汗國)만을 가리킨다. 6세기 초 금산(金山, 지금의 아미타산)서남쪽 산기슭에서 처음 일어나 하나의 유목부락이 되었고, 552년 오르혼(Orkhon)강 유역에 정권을 세워 6세기 후반에 서역 제국을 지배하고 요동만에서 카스피해, 바이칼호에서 고비사막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였다. 문자를 만들고, 관제(官制)를 정비하여 중원과 빈번하게 교류하였다. 중앙아시아

라 이동하여 왕은 비록 한 곳에 있지만 역시 성이 없고, 모직 천막¹³⁵⁾에 의지해 생활할 뿐이다. 이 지방 산물로는 양과 말, 야크,¹³⁶⁾ 모포, 베 등이 있다. 의복은 털옷과 베옷과 가죽외투인데, 여자들도 그러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기후가 매우 춥다. 집에서는 항상 보릿가루 음식을 먹고 빵과 밥은 가끔 먹는다. 국왕과 백성들이 모두 불법을 알지 못해 절이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누워 자고 침대나 의자는 없다. 사람들이 매우 검고, 흰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언어가 여러 나라와 같지 않다. 다들 이[風] 잡아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털옷과 베옷을 입기 때문에 이가 매우 많다. 이를 잡으면 바로 입 안에 던져 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已東吐番國，純住氷山雪山山川谷之間，以氈帳而居，無有城墉屋舍．處所與突厥相似，隨逐水草．其王雖在一處，亦無城，但依氈帳以爲居業．土地出，羊馬猫牛毯褐之類．衣着毛褐皮裘，女人亦爾．土地極寒，不同餘國．家常食麩，少有餅飯．國王百姓等，惣不識佛法，無有寺舍．國人悉皆穿地作坑而臥，無有床

아의 실크로드를 장악하여 서역과 교역하는 등 동서문명 교류에 큰 자취를 남겼다. 583년에 분열하여 동투르크, 서투르크로 나뉘었다. 서투르크는 658년 당 나라에 복속되었고, 동투르크는 8세기 중엽에 분열하여 745년에 그중에서 위구르제국이 일어났다.(정수일, pp.400~403) 이때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타지키스탄 일대에 이르는 지역으로 쿤두즈(Kunduz) 지방에 본거를 두고 25주를 통치하였다.

135) 유목을 하고 사는 티베트인들의 거처는 중국 사서에 불려(拂廬)로 나오는 이동식 텐트인 장막이다.

136) 야크: yak, 묘우(貓牛). 티벳에 많이 서식하는 털이 길고 많은 소. 소와 비슷하나 몸집이 크고 어깨가 솟아올라 있으며 네 다리는 짧고 단단한데 몸 아래쪽에 긴 털이 났고 몸 빛깔은 검은빛을 띤 갈색이다. 인도 북부와 중앙아시아, 티베트의 고원에서 많이 자라며 야크에서 젖·고기·가죽·털 등을 얻고 짐을 나르는 데 이용한다. 이 털을 이용하여 옷이나 천막 등을 만든다.

席。人民極黑，白者全希。言音與諸國不同。多愛喫虱，爲着毛
褐，甚饒蟣虱。捉得便拋口裏，終不棄也。

14. 소발로르국

또 카슈미르국에서 서북쪽으로 산을 넘어 7일을 가면 소발로르[小勃律, Balor]¹³⁷⁾국에 도착하는데, 이곳은 중국의 관할에 속한다. 의복과 풍속, 음식과 언어가 대발로르국과 비슷하다. 면직 상의와 가죽신을 착용한다. 수염과 머리를 자르고 머리 위에 면직 천을 한 장씩 두르며, 여인은 머리를 기른다. 가난한 이가 많고 부유한 이는 적다. 산천이 협소하여 농사가 많지 않다. 산이 메마르고 황량하여 원래부터 나무나 여러 가지 풀이 없다. 대발로르국은 원래 소발로르국 왕이 사는 곳이었는데 티베트의 침입을 받아



스왈트에서 길기트 가는 길 (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대발로르국 왕이) 소발로르국으로 도망와서 주저앉았다. 수령과 백성은 대발로르국에 남고 오지 않았다.

又迦葉彌羅國西北隔山七日程，至小 律國，此屬漢國所管。衣着人風飲食言音，与大勃律相似。着氎衫及靴。剪其鬚髮，頭上纏疊布一條，女人在髮。貧多富少。山川狹小，田種不多。其山樵杌，元無樹木及於諸草。其大 律，元是小 律王所住之處，爲吐番來逼，走入小勃律國坐。首領百姓，在彼大勃律，不來。

-
- 137) 소발로르[小勃律, Balor]: 『왕』 소발율(小勃律), 『대당서역기』 발로라(鉢露羅), 『신당서(新唐書)』 「서역전(西域傳)」(권221하) 포로(布露). 지금의 파키스탄 동북부 끝 지역인 길기트(Gilgit) 지방. 7세기 중엽 이후 발로르(勃律)는 대발로르와 소발로르로 분열하여 대발로르는 현재의 발티스탄(Baltistan) 지방을 근거로 하였고 소발로르는 현재의 길기트(Gilgit) 지방을 근거로 하였는데, 대발로르는 티베트 지배하에, 소발로르는 당의 세력권 안에 들어갔다. 당(唐)의 서쪽 관문에 해당하는 나라로, 『신당서(新唐書)』 「토번전(土蕃傳)」(권141)에는 722년에 소발로르국을 공격하면서 발로르는 당의 서문(西門)이니 이를 잃으면 서문의 모든 나라가 티베트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니 지켜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혜초가 이 지역을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발로르가 당의 관할이 되었다.(桑山, p.114) 지금의 길기트 지방은 인더스강의 원류인 길기트강과 훈자(Hunza)강 유역으로서 북쪽은 타림분지, 서쪽은 아프가니스탄, 동쪽은 티베트, 남쪽은 인더스강 유역과 연결되어 고대부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길기트 강가의 도시인 길기트가 이 지역의 중심지이다.

15. 간다라국

또 카슈미르국에서 서북쪽으로¹³⁸⁾ 산을 넘어 한 달 정도 가면 간다라[建馱羅, Gandhāra]¹³⁹⁾에 도착한다. 이곳의 왕과 군대는 모두 투르크인이고, 토착민들은 호인(胡人)이며 브라만[婆羅門, brāhmaṇa]¹⁴⁰⁾도 있다. 이 나라는

138) 현재의 지역으로 보면 간다라는 카슈미르에서 서북쪽이 아닌 서쪽으로 간다고 해야 맞다. 아마 헤초는 직선 방향인 서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당시 경로를 따라 방향을 바꾸어 가느라 그렇게 표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39) 간다라[建馱羅, 𑀧𑁆𑀭𑀸𑀓𑀲𑀢𑀺 Gandhāra] : 『왕』 건타라(建馱羅), 『대당서역기』 건타라(健馱邏). 고대 인도 16대국 가운데 하나로, 인도 옛 문헌에 일찍부터 등장한다. 현장이 방문했을 때는 카불국의 속국이었다. 푸루샤푸라(𑀧𑀸𑀓𑀲𑀢𑀺 Puruṣapura)에 도성이 있다. 현재는 파키스탄 북서변경주(North-West Frontier Province)의 페샤와르(Peshwar)현에 속하며, 인더스강의 지류인 카불강 하류 평원지대에 위치한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고대 중앙아시아와 서부아시아의 여러 문화가 교류하였다. 이민족이 서쪽에서 인도로 오는 통로이기도 했으며, 북쪽으로 서역을 지나 중국에 이어졌고, 불교와 같은 인도문화가 동쪽에서 와서 다른 세계로 전파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특히 서기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Alexandros)대왕이 침입한 이후 헬레니즘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기 1세기 쿠산왕조 때부터 인도 불교미술과 서방 문화가 결합한 독특한 간다라 불교문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2세기 카니슈카(𑀧𑀸𑀓𑀲𑀢𑀺 Kanishka)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간다라식 불상과 불탑 그리고 불교사원이 간다라 중심지 페샤와르를 중심으로 스와트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지금도 수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다. 5세기 중반에 에프탈(Hephthalites)에게 점령되었고 7세기에는 투르크가 지배하였다.

140) 브라만[婆羅門] : 𑀧𑁆𑀭𑀸𑀓𑀲𑀢𑀺 brāhmaṇa, 정행(淨行)·범행(梵行)·범지(梵志)라 한역한다. 인도 4종성(種姓) 가운데 최상위인 승려, 학자 계급이다. 범천(梵天)의 입에서 태어났다고 전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청정·고결하며, 제사 주관을 업으로 한다.



요즘의 페샤와르 시내의 모습(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옛날에 카피시[罽賓, Kāpiśi]¹⁴¹⁾국의 왕이 다스렸는데¹⁴²⁾ (당시) 투르크왕의

『마노법전』에 규정된 바라문의 6가지 의무는 베다를 익힘, 베다를 가르침, 자신을 위해 제사 주관,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 주관, 보시를 행함, 보시를 받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간다라의 브라만이 인도 사성계급의 브라만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41) 카피시[罽賓, Kāpiśi] : 『왕』 계빈(罽賓), 『대당서역기』 가필시(迦畢試). 카피시의 토착왕조인 킹갈(Khingāl)조가 7세기 말에 카불(Kābul)왕조에 의해 찬탈되어, 7세기말~8세기의 계빈은 카불을 가리킨다. 7세기 중반에 카피시는 당에 조공하며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하의 수선도독부(修鮮都督府)에 예속되었다. 719년에 당 조정이 카피시 왕을 책봉하여 투르크 계통의 호칭인 갈라달지특근(葛羅達支特勤)을 가졌는데, 이후 이 칭호는 계속 이어졌다. 738년에는 카피시왕 오산특근궤(烏散特勤灑)가 자신이 연로하여 아들인 불림계파(佛林闍婆)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당에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고 한다.(桑山, pp.117~118)

142) 원래 카피시 왕이 다스렸다는 것은, 토하라에서 북서인도에 걸쳐 위세를 과시한 에프탈(Hephthalites)이 서투르크의 침공으로 6세기 중엽에 쇠락한 뒤에 새롭게 일어난 카피시가 카피시 지방으로부터 인더스강 서안까지의 카불강 유역을

아버지¹⁴³⁾가 한 부락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카피시국왕에게 투항하였다
가 그 뒤 투르크 군대가 강성해지자 카피시국왕을 죽이고 스스로 나라 왕
이 되었다. 이 일로 (간다라는) 투르크 패왕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¹⁴⁴⁾

이 나라 북쪽은 모두 산 속에 살고 있는데, 산은 모두 메말라서 풀과 나
무가 없다. 의복과 풍속, 언어와 기후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의복은 가죽외
투나 면직물 상의, 가죽신, 바지 등을 입는다. 토질은 보리와 밀에 적합하
고, 기장이나 조, 벼는 전혀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릿가루와 빵을 먹는다.
카슈미르국, 대발로르국, 소발로르국, 양동국 등을 제외하고, 이 곳 간
다라국이나 오천축국, 곤륜국(崑崙國)¹⁴⁵⁾ 등에는 모두 포도는 전혀 없고,
사탕수수는 있다. 이 투르크왕은 코끼리 5백¹⁴⁶⁾ 마리를 가지고 있고, 양과
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낙타, 노새, 나귀들도 매우 많다. 중국 지역에서
서 호(胡)와 무역¹⁴⁷⁾할 때는 (5자 썸 빠짐) 돌아서 지나가지 못한다. 남쪽을

지배하였던 토착세력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143) 아버지 : 아야(阿耶)는 아버지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르크 왕의 아버지는
바르하 테긴(Barha Tegin)으로 추정된다.(桑山, p.118)

144) 투르크 패왕과 나라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 투르크 패왕은 지금의 아프가니스
탄 북서부 쿤두즈(Kunduz) 지방에 본거를 두고 25주를 직접 통치하던 투르크
전체의 지배자를 말한다. 이 투르크 패왕이 간다라와 경계를 맞대게 되었다는
것은 혜초가 방문했을 때의 일이 아니라 그 이전 7세기 말의 상황을 서술한 것
이라고 한다.

145) 곤륜국(崑崙國) : 중국의 곤륜에는 곤륜산(崑崙山)으로 유명한 서역지방의 곤륜
과 남양의 곤륜이 있는데, 여기서는 서역의 곤륜을 말한다. 『서경(書經)』에 등장
하는 말로, 춘추전국시대에 청해(青海) 방면에 살던 민족을 가리킨다. 당시 중국
인은 청해 방면에서 구슬을 수입하였는데, 한(漢)나라 때 중앙아시아의 사정을
알게 되어 구슬의 원산지인 호탄[于闐]의 남산(南山)에 이 이름을 붙였다. 곤륜
산맥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146) 원문에는 ‘五’이지만 왕이 소유한 코끼리 숫자로는 너무 적어 다른 나라의 경우
를 비교해 보면 ‘五百’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향하면 도로가 험악해져서 습격하는 도적이 매우 많다. 여기에서 북쪽으로는 악업(惡業)을 짓는 자가 많아 시장, 상점에서 짐승을 도살하는 자가 매우 많다. 이곳 왕은 비록 투르크인이지만 삼보를 깊이 공경하고 믿는다. 왕과 왕비, 왕자, 수령들이 각각 절을 지어 삼보를 공양한다. 이 나라 왕은 매년 두 번 무차대재(無遮大齋)¹⁴⁸⁾를 열어 몸에 지니고 즐겨 사용하던 물건과 처, 코끼리, 말 등을 모두 내어 보시한다. 다만 처와 코끼리만은 스님에게 값을 매기게 하여 왕이 값을 치르고 다시 돌려받으며, 그 밖에 낙타, 말, 금, 은, 의류, 가구는 스님들이 팔게 하여 자신들의 생활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 왕은 다른 북쪽의 투르크왕과 같지 않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서 각자 절을 지어 공양을 베풀고 보시한다. 이 성은 인더스(Indus)¹⁴⁹⁾강[辛頭大河]을 굽

147) 무역: 興의 번역어. 이익을 일으키는 무역, 상업으로 해석한다.

148) 무차대재(無遮大齋): ᄃᆞᆫpañca-vāṛṣika-maha, 불교에서 거행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큰 행사로, 보시(布施)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차란, 일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모든 악에서 벗어나며, 신분의 귀하고 천함[貴賤], 출가자와 재가자[僧俗],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선악(善惡)을 구분하지 않고 한결같이 평등하게 대함을 의미한다. 재(齋)는 스님과 일반인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뜻하는데,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공양하는 행사로 실시되었다. 인도에서는 원어의 뜻에서 보는 것처럼 5년마다 열리는 무차대재가 있었다 하며, 중국에서는 양나라 무제(武帝)가 529년에 동태사(同泰寺)에서 사부대중(四部大衆, 출가한 남녀승, 재가의 남녀 신도)을 모아 무차대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많이 열렸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개최되었다.

149) 인더스(Indus)강: 신두대하(辛頭大河)로 번역한다. 인도 북서부와 파키스탄 지역을 흐르는 큰 강으로 강가(ᄃᆞᆫGangā)·브라마푸트라(ᄃᆞᆫBrahma-putra)와 함께 인도 지방의 3대강을 이루고 있는 강이다. 인디아(India)라는 말도 이 강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티베트 남서쪽 카일라스 산맥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1,100km를 북서방향으로 흘러 카슈미르 지방의 북부를 거쳐 시작하여 라다크(Ladakh) 산지를 횡단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키스탄 전체 영역을 흘러 카라치 근처의 아라비아해로 들어간다. 길이 3,180km, 유역 면적 116만 5,500km²이다. 종류 지역은 5개의 강이 나뉘어 흐르다 합쳐지므로 펀자브(Punjab, 다섯 개 강의 땅이라는

어보는 북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에서 서쪽으로 3일 정도 가면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이는 바수반두[天親, Vasubandhu]¹⁵⁰⁾ 보살과 아상가[無着, Asaṅga]¹⁵¹⁾ 보살이 살던 절로서 절 이름을 카니슈카[葛諾歌, Kaniṣka]사¹⁵²⁾라 부른다. 절에는 큰 탑이 하나

뜻)지방으로 부른다. 서기전 2500년경에 꽃피었던 인더스문명이 이 강을 모체로 이루어졌다. 그 후 북서쪽으로부터 진입해 온 아리아인이 가장 먼저 정주한 곳도 인더스강 중류의 펀자브 지방이며, 알렉산드로스대왕의 인도 원정을 시작으로 20세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침략이나 전쟁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150) 바수반두[天親, ㉔Vasubandhu] : 현장 이전에는 천친(天親)으로 한역(漢譯)하였는데, 현장부터 세친(世親)으로 번역하였다. 혜초는 다시 천친의 번역어를 쓰고 있다. 인도 대승불교(大乘佛教) 유가행파(瑜伽行派)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다. 4~5세기경 북인도 간다라국 사람으로 국사(國師)인 바라문 카우시카(㉔Kauśika, 憍尸迦)의 둘째아들이다. 처음에 형 아상가[無着]와 함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 출가하였다가 무착은 바로 대승(大乘)에 들어가고 세친은 경량부(經量部)에 들어갔다. 이 때 바수반두는 대승은 부처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며 비방하였는데, 아상가에게 교화되어 대승의 이치를 깨닫고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기초를 닦았다. 주요 저술로는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30권, 『십지경론(十地經論)』 12권, 『법화경론(法華經論)』 2권, 『정토론(淨土論)』 1권,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15권, 『유식삼십승(唯識三十頌)』 1권, 『불성론(佛性論)』 4권 등이 있다.

151) 아상가[無着, ㉔Asaṅga] : 인도 대승불교 유가행파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바수반두의 형이다. 처음에 설일체유부에 출가하여 소승공관(小乘空觀)을 깨달았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신통력으로 도솔천(兜率天)에 가서 미륵보살(彌勒菩薩)로부터 대승공관(大乘空觀)을 받아왔다고 한다. 뒤에도 자주 도솔천에 가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 대승의 깊은 뜻을 배워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주요 저술로는 『섭대승론(攝大乘論)』 3권,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20권,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7권, 『금강반야경론(金剛般若經論x)』 2권, 『순중론(順中論)』 2권 등이 있다.

152) 카니슈카[葛諾歌, ㉔Kaniṣka]사 : 카니슈카왕이 세운 절. 카니슈카는 『왕』 갈락가(葛諾歌), 『대당서역기』가니색가(迦膩色迦)로 번역. 대월지(大月氏)인들이 세운 쿠산(㉔Kuṣāṇa) 왕조의 제3대 왕. 펀자브지역에서 파미르와 파르티아에 걸친 큰 나라를 이룩하였다. 대외 교통을 크게 열어 로마에까지 사신을 보내고 풍족한

있는데, 항상 빛을 발한다. 이 절과 탑은 옛날에 카니슈카왕이 만들었으므로 왕의 이름을 따라 절의 이름을 붙였다.¹⁵³⁾ 또 이 성에서 동남쪽으로 (글자 빠짐)리 가면 부처가 과거에 시비[尸毗, Śibi]왕¹⁵⁴⁾이 되어 비둘기를 구해 주던 곳이니, 현재 절도 있고 스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부처가 과거에 머리를 보시하였던 곳¹⁵⁵⁾, 눈을 보시하였던 곳¹⁵⁶⁾, 다섯 야차(夜叉)가 먹

경제로 동서문화를 융합한 간다라 불교미술을 꽃피우게 하였다. 불교를 보호하여 절과 탑을 세우고 카슈미르에서 5백 나한을 모아 『대비바사론』을 편찬하였다. 카니슈카왕의 불교 신앙은 아쇼카왕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쿠산왕조가 북인도의 힌두쿠시지방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인도와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촉진되어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기 1세기 중반에 대월지국에 사신을 보내 불전을 전해오도록 한 것이 중국불교의 초전이라고 전해온다. 지루가참(支婁迦讖)과 지겸(支謙) 등 대월지 출신 승려들이 중국에 많이 건너와 중국불교의 초석을 다졌다.

- 153) 현장의 『대당서역기』에도 카니슈카왕이 세운 절을 소개하였다. 간다라국 편에서 유명한 카니슈카대탑(작리부도雀離浮圖라 기록, 폐사와르 인근 사지키테리 Shāh-jī-ki-Dherī에서 이 탑의 유적이 발굴되어 카니슈카대왕 사리용기가 출토되었음)을 소개하고 그 탑 서쪽에 카니슈카왕가람이 있다고 하였다.(『大唐西域記』 권 2 健駄邏國 大51 p.880 b15) 그리고 혜초와는 달리 이 절에 협(脇)존자의 방, 세친이 『구사론』을 지은 방, 여의(如意)논사가 『비바사론』을 지은 곳 등이 있다고 하였다.
- 154) 시비[尸毗, Śibi]왕: 부처가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때의 이름이다. 부처의 본생담으로 유명하며, 인도 고대 문학에 자주 등장한다. 하루는 시비왕이 매가 비둘기를 쫓아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았는데, 비둘기가 날아와 왕의 겨드랑이 아래로 피하자 왕은 자신의 살을 베어 매에게 주어 비둘기를 살려주었다고 한다. 이 때 비둘기는 화신(火神)이 변한 것이며 매는 제석천이 변한 것으로서 왕의 자비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다. 이 이야기는 『현우경(賢愚經)』(권1, 1 梵天請法六事品)이나 『보살본행경(菩薩本行經)』 등에 실려 있다. 『법현전(法顯傳)』에서는 시비왕 이야기를 서술하고, 이 곳에 세운 탑이 인도 4대탑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 『대당서역기』도 같은 내용을 실고 있는데, 그 위치는 우디아나국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
- 155) 부처가 과거에 머리를 보시하였던 곳: 부처가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때 월광왕

게 한 곳¹⁵⁷⁾도 모두 이 나라 안에 있으니¹⁵⁸⁾ 이 성의 동남쪽 산 속에 있다.

(月光王)으로서 머리를 보시하였다는 본생담. 부처가 과거세에 발타기바성(跋陀耆婆城)의 월광왕이 되어 통치를 잘 하였는데, 이웃 나라의 비마사나(毘摩斯那)왕이 이를 시기하여 바라문을 보내 왕의 머리를 달라고 하자 월광왕은 자기가 과거세에 9백99두를 보시하고 이제 머리를 보시하면 천개를 채운다고 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주었다고 한다. 『현우경(賢愚經)』(권6, 31 月光王頭施品)이나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등에 실려 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법현의 『불국기』에서는 이곳이 타크실라(Taxila)라고 하였다.

156) 눈을 보시하였던 곳: 부처가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때 눈을 보시하였다는 본생담. 부처가 과거세에 수제라(須提羅, 快目이라는 뜻)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웃에 파라타발미(波羅陀跋彌)라는 왕이 있어 통치를 잘못하므로 한 대신이 왕을 죽이려 하다 발각되자 수제라왕 밑에 와서 있게 되었다. 그 대신이 파라타발미를 치려 하자 파라타발미는 눈 먼 바라문을 보내 보시하기 좋아하는 수제라왕의 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수제라왕이 두 눈을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현우경(賢愚經)』(권6, 32 快目王眼施緣品)이나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등에 실려 있다.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간다라국의 카니슈카왕가람 근처라고 하였다.

157) 다섯 야차가 먹게 한 곳: 부처와 초전법륜 대상인 교진여(橋陳如) 등 다섯 비구와의 과거세 이야기이다. 옛날 미구라발라(彌伽羅拔羅)왕이 있어 항상 십선(十善)으로 백성은 물론 역귀(疫鬼)들도 가르쳐 태평하였는데 영내에 다섯 야차가 있어 항상 사람의 피를 먹고 살았다. 백성들이 십선을 행하므로 야차들이 이를 먹을 수 없어 굶주림에 지쳐 왕에게 가서 배고픔을 해소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왕은 자신의 신체 다섯 곳을 베어 야차들이 신선한 피를 마시게 하였다. 미구라발라왕은 부처의 전신이고, 다섯 야차는 부처가 처음 설법했던 다섯 비구의 전신이다. 『현우경(賢愚經)』(권2, 13 慈力王血施品)이나 『보살본생만론(菩薩本生鬘論)』 등에 실려 있다.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우디아나국의 몽계리성 근처라고 하였다.

158) 혜초는 부처의 전생담으로 유명한 이 네 가지 유적지가 모두 간다라국 경내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장은 머리 보시한 곳과 눈 보시한 곳이 간다라국에 있고, 시비왕 본생처와 다섯 야차 먹인 곳은 우디아나국에 있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곳 간다라지방은 카니슈카왕 시대에 불교미술의 중심지가 되고 대승 경전이 편찬되는 등 대승불교가 크게 발달하여 불교 중심 지역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곳이 부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전승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각각 절이 있고 스님이 있어 지금도 공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나라는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又從迦葉彌羅國西北隔山一月程，至建馱羅。此王及兵馬，惣是突厥，土人是胡，兼有婆羅門。此國舊是罽賓王王化，爲此突厥王阿耶，領一部落兵馬，投彼罽賓王，於後突厥兵盛，便煞彼罽賓王，自爲國主。因茲國境突厥霸王。

此國已北並住(山)¹⁵⁹⁾中，其山並焦，無草及樹。衣着人風言音節氣並別。衣是皮毯氎衫靴袴之類。土地宜大麥小麥，全無黍粟及稻。人多食麩及餅。唯除迦葉彌羅大勃小勃楊同等國，卽此建馱羅國乃至五天崑崙等國，惣無[菰](桃)¹⁶⁰⁾，(唯有)¹⁶¹⁾甘蔗。此突厥王象有五(百)¹⁶²⁾頭，羊馬無數，駝騾驢等甚多。漢地興胡□□□□迴不過。向南爲道路險惡，多足劫賊。從茲已北，(惡)¹⁶³⁾業者多，市店之間，極多屠煞。此王雖是突厥，甚敬信三寶。王王妃王子首領等，各各造寺，供養三寶。此王每年兩廻設無遮大齋，但是緣身所愛用之物妻及象馬等，並皆捨施。唯妻及象，令僧斷價，王還自贖，自餘駝馬金銀衣物家具，聽僧貨賣，自分利養。此王不同餘已北突厥也。兒女亦然，各各造

다. 부처의 발자취인 불족석(佛足石, 우디아나국에 있었다 한다)이 있다고 하는 것 등이 그런 예이다. 여기서 든 네 가지 이야기는 부처의 전생 이야기이므로 부처의 실제 생애 곧 부처가 활동했던 지역과 직접 연관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 역시 이곳이 불교의 중심지라는 의식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된다.

159) 山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160) 菰桃로 추정됨.

161) 唯有로 추정됨.

162) 의미상 五는 五百의 잘못으로 추정됨

163) 필사본의 西는 惡의 잘못으로 추정됨

寺，設齋捨施。此城俯臨辛頭大河北岸而置。

此城西三日程，有一大寺，卽是天親菩薩无着菩薩所住之寺，此寺名葛諾歌。有一大塔，每常放光。此寺及塔，舊時葛諾歌王造，從王立寺名也。又此城東南□里，卽是佛過去爲尸毗王救鴿處，見有寺有僧。又佛過去捨頭捨眼，餒五夜叉等處，並在此國中，在此城東南山裏。各有寺有僧，見今供養。此國大小乘俱行。

16. 우디아나국

또 이 간다라국에서 정북쪽으로 산으로 들어가 3일 정도 가면 우디아나[烏長, udyāna]¹⁶⁴⁾국에 도착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스스로 울지이나(鬱地引那)라 부른다. 이 나라 왕은 삼보를 매우 공경하며, 백성과 마을 사람들은 많은 뭇을 절에 시주하여 공양하고, 작은 뭇은 집에 남겨두어 (스님에게) 의식을 공양한다. 재(齋)를 올려 공양하는 것은 매일의 일상사이다. 절도 많고 스님도 많은데 스님이 속인보다 조금 많다. 오로지 대승법만 행해지고 있다. 의복과 음식, 풍속이 간다라국과 비슷하지만 언어는 같지 않다. 이



스왈트 마을(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지방 산물로는 낙타, 노새, 양, 말, 면직물 등이 풍부하다. 기후가 매우 차다.

又從此建馱羅國，正北入山三日程，至烏長國，彼自云鬱地引那。此王大敬三寶，百姓村庄多分，施入寺家供養，少分自留，以供養衣食。設齋供養，每日是常。足寺足僧，僧稍多於俗人也。專行大乘法也。衣着飲食人風，与建馱羅國相似，言音不同。土地足駝騾羊馬氍毹布之類。節氣甚冷。

-
- 164) 우디아나[烏長, Uḍḍiyāna] : 『왕』 오장(烏長), 『대당서역기』 오장나(烏仗那). 파키스탄 북부의 스와트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로서 지금의 스와트(Swat) 지방이다. 조금 아래의 페샤와르를 중심으로한 간다라 지역과 동일 문화권에 속해 사원건축과 불상 등 불교문화가 발달하여 지금도 유적지가 많다. 역대의 여행기에서 불교가 융성하다고 하였는데, 현장의 『대당서역기』에는 불교가 점점 쇠퇴하는 중에 있다고 하였지만 주술에 능하다고 하여 밀교계 불교가 있었음을 말해주며 소승 5부파의 계율이 전해지고 있다고도 하였다. 혜초는 왕성한 불교 신앙과 행사를 기록하고 있어 이때는 다시 불교가 부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혜초가 지날 때는 이미 당의 책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책부원귀(冊府元龜)』 권964에는 혜초가 여행하던 무렵인 720년에 오장국왕과 골돌(骨咄)국왕, 구위(俱位)국왕에게 당에서 사신을 보내 책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세 나라가 중국의 서쪽에 있으면서 아랍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아랍에 따르지 않고 당과 친선 관계를 갖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745년 기사에서는 계빈국왕이 오장국왕을 겸하도록 하여 정세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桑山, p.127)

17. 쿠위국

또 우디아나국에서 동북쪽으로 산에 들어가 15일 정도 가면 쿠위[拘衛, Kuwi]국¹⁶⁵⁾에 도착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스스로 사마갈라사(奢摩褐羅闍)¹⁶⁶⁾국이라 부른다. 이 나라 왕도 삼보를 공경하고 믿어 절도 있고 스님도 있다. 의복과 언어가 우디아나국과 비슷하여 면직 상의와 바지 등을 입는다. 양과 말 등도 있다.

又從烏長國東北入山十五日程，至拘衛國，彼自呼云奢摩褐羅闍國。此王亦敬信三寶，有寺有僧。衣着言音，與烏長國相似，着氎衫袴等。亦有羊馬等也。

165) 쿠위[拘衛, Kuwi]: 『왕』 구위(拘衛), 『대당서역기』 상미(商彌), 『당서(唐書)』 구위(俱位),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 쿠나르(Kunar)강 상류의 치트랄(Chitral) 지방, 치트랄과 마스투지(Mastuj) 사이로 비정된다.(桑山, p.128) 지금의 스와트 지방인 우디아나의 서북쪽에 있으므로 혜초가 동북으로 15일 간다고 한 것과 방향이 다르다.

166) 사마갈라사(奢摩褐羅闍):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사마라자(Ṣamarāja), 즉 사마(Ṣama, 商彌)의 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18. 람파카국

다시 이 간다라국에서 서쪽으로 산에 들어가 7일을 가면 람파카[覽波, Lampāka]¹⁶⁷⁾국에 도착한다. 이 나라에는 왕은 없고 대수령이 있는데, 역시 간다라국 관할에 속한다. 의복과 언어가 간다라국과 비슷하다. 절도 있고 스님도 있으며 삼보를 공경하고 믿는다. 대승법이 행해지고 있다.

又從此建馱羅國西行入山七日，至覽波國。此國無王，有大首領，亦屬建馱羅國所管。衣着言音，與建馱羅國相似。亦有寺有僧，敬信三寶。行大乘法。

167) 람파카[覽波, S]Lampāka: 『왕』 람파(覽波), 『대당서역기』 람파(濫波).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카불(Kābul) 인근 카불강 중류 지역의 라그만(Laghmān)지방으로 추정된다.(桑山, p.129) 카불과 가깝고 카이버 고개(Khyber Pass)를 넘어 간다라와도 이어진다. 현장은 히말라야산을 등에 지고 나머지 세 면은 눈이 없는 산이라 하였는데, 히말라야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 시기에 카불지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카불과 통하는 람파카의 위상도 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19. 카피시국

또 이 람파카국에서 서쪽으로 가서 산에 들어가 8일이 지나면 카피시국 [Kāpiśī, 罽賓國]¹⁶⁸⁾에 도착하는데, 이 나라도 역시 간다라국왕의 관할이다. 이 왕은 여름에는 카피시국에 있으면서 서늘한 곳을 따라 지내고 겨울에는 간다라국에 가서 따뜻한 곳을 따라 지낸다.¹⁶⁹⁾ 그곳에는 눈이 없고 따뜻하여 춥지 않지만, 카피시국은 겨울에 눈이 쌓여 추워진다. 이 나라의 토착민은 호인(胡人)이고, 왕과 군대는 투르크인이다.¹⁷⁰⁾ 의복과 언어, 음식이 토하라[吐火羅, Tokhara]¹⁷¹⁾국과 대부분 비슷하고 조금 다르다. 남자, 여자 구

168) 카피시국[罽 Kāpiśī, 罽賓國] : 『왕』 계빈(罽賓), 『대당서역기』 가필시(迦畢試). 카피시(Kāpiśī)는 현장(迦畢試)과 의정 등 몇 경우 외에는 한자로 옮길 때 모두 계빈으로 기록하였으며, 카불을 옮긴 것으로 생각되는 말은 없다고 한다. 7세기말~8세기의 계빈은 카불(Kābul) 지방을 가리키는데, 카피시의 토착왕조인 킹갈(Khingāl)조가 7세기 말에 카불왕조에 의해 찬탈되었기 때문이다. 카피시 지방의 도시 유적으로는 베그람(Begram)이 있고, 지금의 카불시 지역인 발라 히사르(Bālā Hīṣār) 주변에 성벽과 불교 유적이 남아 있어 그곳을 구체적인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한다.(桑山, p.130)

169) 현장은 간다라국왕이 철따라 다른 곳에서 지내니 봄가을에는 간다라, 여름에는 인도 여러 나라, 겨울에는 카피시국에서 지낸다고 하였다.(『大唐西域記』 권1 迦畢試國, 大 51 p.873c27~29)

170) 이 나라 토착민은 호인(胡人)이고, 왕과 군대는 투르크인이다 : 카피시국은 호(胡)에 해당하지만 간다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카피시왕이 곧 간다라왕이다. 당시 간다라왕은 투르크인이었기 때문이다.

171) 토하라[吐火羅, Tokhara] : 『왕』 토화라(吐火羅), 『대당서역기』 도화라(都貨邏). 현

분 없이 모두 면직물 상의와 바지, 가죽신을 착용하여 남녀 의복이 차이가 없다. 남자들은 모두 수염과 머리를 깎고, 여자들은 머리를 기른다. 이 지방 산물로는 낙타, 노새, 양, 말, 나귀, 소, 면직물, 포도, 보리, 밀, 울금향(鬱金香)¹⁷²⁾ 등이 난다. 나라 사람들이 삼보를 크게 공경하고 믿어 절도 많고 스님도 많다. 백성들은 집집마다 절을 지어 삼보를 공양한다. 큰 성 안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사히스[沙糸, Śāhis]¹⁷³⁾사이다. 절 안에 현재 부처님의 나발(螺髮)¹⁷⁴⁾과 뼈¹⁷⁵⁾ 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왕과 관리

재 아프가니스탄 북부 일대의 넓은 지역에 해당한다. 넓게 볼 때 하토하라(아무 다리야강 남쪽, 발흐 서쪽)와 상토하라(발흐 이동, 힌두쿠시 이북)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 172) 울금향(鬱金香): 백합과의 식물, 또는 백합으로 만든 향수를 말한다. 『대당서역기』 권2에도 울금향 향수를 뿌린다는 기록이 있다.
- 173) 사히스사[沙糸寺, Śāhis Temple]: 지금의 카불시 일대에 불교사원 유적은 테페 카자나(Tepe Khazana) 등 몇 군데가 있어 이들이 사히스사의 후보가 될 수 있다. (桑山, p.132) 현장의 『대당서역기』 가필시국(迦畢試國)에는 옛 왕의 절[舊王伽藍]에 여래의 정골(頂骨) 한 쪽과 머리카락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옛 왕의 절을 사히스사로 보기도 한다.
- 174) 나발(螺髮): 혜초는 나계(螺髻)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부처의 머리가 소라모양처럼 오른쪽으로 돌아나 말려 있는 모습을 말하는 나발(螺髮)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부처의 머리 위에 둥근 상투 모양의 살이 솟아난 것을 육계(肉髻, uṣṇīṣa-śīraskatā)라 하는데, 이 육계는 선행을 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등의 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서 존귀함을 상징한다. 나발과 육계는 부처의 형상을 상징하는 32상 80종호의 하나이다.
- 175) 뼈: 부처의 진신 뼈.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옛 왕의 절[舊王伽藍]에 머리뼈[頂骨] 한 조각이 있는데, 너비 한 치 남짓에 황백색이며 머리카락 구멍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처의 머리카락도 있는데, 색깔은 청감색으로 소라처럼 오른쪽으로 말려 있어 길이가 펴면 한 자, 말면 5푼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大唐西域記』 권2 迦畢試國 大51 p.875a16~18. 其伽藍東南有一伽藍, 亦名舊王. 有如來頂骨一片, 面廣寸餘, 其色黃白, 髮孔分明. 又有如來髮, 髮色青紺, 螺旋右縈, 引長尺餘, 卷可半寸.) 혜초가 말한 나계골(螺髻骨)은 이 정골과 머리카락이 소라처럼

와 백성들이 매일 공양한다. 이 나라는 소승이 행해지고 있다. 이 곳 사람들도 산 속에 사는데, 산 정상에 초목이 없어 마치 불에 탄 산 같다.

又從此覽波國(西)¹⁷⁶⁾行入山, 經於八日程, 至罽賓國, 此國亦是建馱羅王所管. 此王夏在罽賓, 逐涼而坐, 冬往建馱羅, 趁暖而住. 彼即無雪, 暖而不寒, 其罽賓國, 冬天積雪, 爲此冷也. 此國土人是胡, 王及兵馬突厥. 衣着言音食飲, 与吐火羅國大同少異. 無問男之与女, 並皆着氎布衫袴及靴, 男女衣服, 無有差別. 男人並剪鬚髮, 女人髮在. 土地出駝騾羊馬驢牛氎布蒲桃大小二麥鬱金香等. 國人大敬信三寶, 足寺足僧. 百姓家各並造寺, 供養三寶. 大城中有一寺, 名沙糸寺. 寺中見佛螺髻骨舍利見在, 王官百姓每日供養. 此國行小乘. 亦住山裏, 山頭無有草木, 恰似火燒山也.

럼 말려 있는 모습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176) 필사본의 而는 西의 잘못으로 추정됨

20. 자불리스탄국

또 이 카피시국에서 서쪽으로 7일을 가면 자불리스탄[謝颺, Zābulistān]¹⁷⁷⁾ 국에 도착하는데, 그 곳 사람들은 스스로 사호라살타나(社護羅薩他那)¹⁷⁸⁾라고 부른다. 토착민은 호인(胡人)이고, 왕과 군대는 투르크인이다. 그러나 왕은 카불왕의 조카로, 스스로 부락과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 나라에 살면서 다른 나라에 복속되지 않고 숙부에게도 복속되지 않았다. 이 나라 왕과 수령은 비록 투르크인이지만, 삼보를 지극히 공경하여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대승법이 행해지고 있다. 투르크 출신 대수령이 한 사람 있어 이름이 사탁간(娑鐸幹)이라고 하는데, 매년 한 번씩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을을 보시하는데 그곳 왕보다도 많다. 의복과 풍속, 토산물이 카피시국과 비슷하지만 언어는 매우 다르다.

177) 자불리스탄[謝颺, Zābulistān] : 『왕』 사율(謝颺), 『대당서역기』 조구타(漕矩吒), 『신당서(新唐書)』에 의하면, 측천무후(則天武后) 시대에 지금의 호청 즉 사율(謝颺)로 고쳤다고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남부지역에 카불 남서쪽의 가즈니(Ghazni)와 칸다하르 사이에 자볼(Zābol)주가 있다. 이런 위치로 보면 혜초가 카피시에서 서쪽으로 7일을 갔다는 것은 처음에 서쪽길로 향해서 가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갔다고 해야 맞는다.

178) 사호라살타나(社護羅薩他那) : 자불리스탄을 도성을 뜻하는 일반명사인 사흐리스탄(Śāhristān, 페르시아어 계통)으로 불렀거나, 자구리(Ṣ Jāghūrī)라는 지명을 음역한 것으로 추정한다.(桑山, p.139) 살타나(薩他那)는 스타나(Ṣ sthāna) 즉 지방, 나라의 뜻을 지닌다.

又從此罽賓國西行[七日至]¹⁷⁹⁾謝颶國，彼自呼云社護羅薩他那。土人是胡，王及兵馬卽是突厥。其王卽是罽賓王姪兒，自把部落兵馬，住[於此]¹⁸⁰⁾國，不屬餘國，亦不屬阿叔。此王及首領，雖是突厥，極敬三寶，足寺足僧，行大乘法。有一(大突厥)¹⁸¹⁾首領名娑鐸幹，每年一廻設金銀無數，多於彼王。衣着人風土地所出，与罽賓王相似，言音各別。

179) 필사본의 至七日是 七日至의 잘못임을 수정부호로 밝힘

180) 필사본의 此於是 於此의 잘못임을 수정부호로 밝힘

181) 필사본의 大突厥은 突厥大의 잘못으로 추정됨

21. 바미얀국

또 자불리스탄국에서 북쪽으로 7일을 가면 바미얀[犯引, Bāmiyān]¹⁸²⁾국에 도착한다. 이 나라 왕은 호인(胡人)이다. 다른 나라에 복속되지 않았으며, 군대가 강하고 많아서 여러 나라가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 의복은 면직물 상의와 가죽외투와 모직물 상의 등을 입는다. 이 지방 산물로는 양, 말, 면직물 등이 있고 포도가 매우 많다. 기후는 눈이 오고 매우 추워 대개 산에 의지해서 산다. 왕과 수령과 백성들이 삼보를 크게 공경하여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대승법과 소승법이 행해지고 있다. 이 나라와 자불리스탄국 등의 사람들은 모두 수염과 머리를 깎는다. 풍속은 대부분이 카피시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곳의 언어는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又從謝颺國北行七日，至犯引國。此王是胡。不屬餘國，兵馬強多，諸國不敢來侵。衣着氎布衫皮毳衫等類。土地出羊馬氎布之屬，甚足菡桃。土地有雪極寒，住多依山。王及首領百姓等，大敬三寶，足寺足僧，行大小乘法。此國及謝颺等，亦並剪於鬚髮。人風大分，與罽賓相似，別異處多。當土言音，不同餘國。

182) 바미얀[犯引, Bāmiyān]: 『왕』 범인(犯引), 『대당서역기』 범연나(梵衍那). 6세기 후반 북방의 토하라를 서투르크가 침략하여 약화시키자 일어난 나라이다. 힌두쿠시 산맥 서단,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지역으로 카불과 토하라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현장이 방문했을 때 높이 1백 4,50척과 1백척의 큰 두 불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최근까지 잘 남아 있다가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일부러 폭파하여 높이 53m와 35m의 불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22. 토하라국

또 이 바미안국에서 북쪽으로 20일 가면 토하라[吐火羅, Tokhara]¹⁸³⁾ 왕이 사는 성에 도착하는데, 이름이 박트리아[縛底耶, Bactria]¹⁸⁴⁾이다. 지금 아랍 군대에게 진압당하여¹⁸⁵⁾ 왕은 쫓겨나 동쪽으로 한 달 걸리는 바다흐

183) 토하라[吐火羅, Tokhara] : 『왕』 토화라(吐火羅), 『대당서역기』 도화라(都貨邏).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던 나라. 아무 다리아 강의 북부 지방이다. 토하라는 이름은 서기전 2세기 박트리아 기록에서 나오기 시작하며, 서기전 1세기부터 서기 4세기까지는 쿠산왕조에 속하였다. 5~6세기에는 에프탈의 통치 하에 있었고, 7세기에는 투르크의 통치를 받다 아랍에 정복당하였다. 당나라 때 중국과 교류하여 『당서』에 토화라(吐火羅)전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 기록에는 지중해에 이르는 세 갈래 길 중에서 천산남로를 지나와 한-토하라-바미안 등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길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대당서역기』에는 토하라가 27개국으로 나뉘어 있으며, 동쪽은 파미르, 서쪽은 페르시아, 남쪽은 힌두쿠시, 북쪽은 철문(鐵門)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동서 3천리, 남북 1천리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때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타지키스탄 일대에 이르는 지역으로 쿤두즈(Kunduz) 지방에 본거를 두고 25주를 통치하였다.

184) 박트리아[縛底耶, Bactria] : 『왕』 박저야(縛底耶), 『대당서역기』 박갈(縛喝). 토하라의 수도 남씨성(藍氏城)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발흐(Balkh)를 가리킨다고 보는데, 왕이 사는 성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보기도 한다. (桑山, p.147) 박트리아는 서기전 3세기에 그리스인이 세웠다가 서기전 2세기에 대월지(大月氏)에게 멸망한 나라로서 대하(大夏)라고 알려졌는데, 그 도움이 이 박트리아였다.

185) 아랍-무슬림군의 동방 진출은 651년부터 시작되어 바스라(Basra) 총독 압둘라 이븐 아미르(ʿAbd Allāh ibn ʿAmir)의 군대가 호라스산(Khorāsān)에 진군하고 그 후 발흐까지 원정하였다. 이후 아랍 지배에 대한 반란과 재공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704년에 ‘중앙아시아의 정복자’로 불렸던 호라스산 총독 쿠타이바

산[蒲特山, Badakhshān]¹⁸⁶⁾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아랍 관할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다. 언어가 여러 나라와 다르며,¹⁸⁷⁾ 카피시국과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같지 않다. 의복은 가죽외투와 면직물 등으로 만든 옷을 입는데,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죽외투를 겹옷으로 입는다. 이 지방 산물로는 낙타, 노새, 양, 말, 면직물, 포도가 풍부하다. 음식은 오직 빵을 좋아한다. 기후가 추위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내린다. 국왕과 수령과 백성들이 삼보를 깊이 공경하여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소송법이 행해지고 있다. 고기와 파, 부추 등을 먹지만 외도를 섬기지 않는다. 남자는 모두 수염과 머리를 깎고, 여자는 머리를 기른다. 이 지방에는 산이 많다.

又從此犯引國北行廿日，至吐火羅國，王住城，名爲縛底耶。

(Qutaybah)가 파견되어 하 토하리스탄(아무다리야강 남쪽, 발흐 서쪽)과 부하라(Bukhara), 상 토하리스탄(발흐 이동, 힌두쿠시 이북), 사마르칸드(Samarqand), 페르가나(Ferghana) 등을 지배하였다. 715년 새 할리파의 즉위에 따라 쿠타이바가 죽은 뒤에도 아랍은 주요 지역을 계속 지배하였고 730년에는 쥬네이드(Junayd)가 호라산 총독에 취임하였다. 이들 아랍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과중한 세금 부과에 힘들어 하며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아랍과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高仙芝) 장군이 이끄는 당 사이에 751년에 탈라스(Talas)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슬람군이 승리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의 이슬람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혜초의 이곳 방문은 쿠타이바와 쥬네이드 사이의 시기에 해당한다.(桑山, pp.147~150)

186) 바다흐산[蒲特山, Badakhshān] : 『왕』 포특산(蒲特山), 『대당서역기』 발탁창나(鉢鐸創那). 현재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끝 지역의 좁고 긴 지역이 바다흐산(Badakhshān)주이고, 이와 국경을 맞댄 타지키스탄의 동부도 바다흐산주이다. 금, 은, 루비 등의 보석 광산이 있어 부유한 사람이 많고 상인들이 모여든다.

187) 박트리아어는 토하라국의 문어(文語)이고, 힌두쿠시 남쪽으로부터 아무다리야강 북쪽, 소그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桑山, pp.153~154)

見今大寔兵馬在彼鎮押，(其王被)¹⁸⁸⁾逼，走向東一月程，在菡特山住。見屬大寔所管。言音與諸國別。與罽賓國少有相似，多分不同。衣着皮毬氎布等，上至國王，下及黎庶，皆以皮毬爲上服。土地足駝騾羊馬氎布菡桃。食唯愛餅。土地寒冷，冬天霜雪也。國王首領及百姓等，甚敬三寶，足寺足僧，行小乘法。食(肉)¹⁸⁹⁾及蔥(菲)¹⁹⁰⁾等，不事外道。男人並剪鬚髮，女人在髮。土地足山。

188) 필사본에 이어 있는 其王被의 3자는 중복된 글자로 추정되어 삭제함

189) 필사본의 內는 肉의 잘못으로 추정됨

190) 필사본의 蔥는 菲의 잘못으로 추정됨

23. 페르시아국

또 토하라국에서 서쪽으로 한 달을 가면 페르시아[波斯, Persia]¹⁹¹⁾국에

-
- 191) 페르시아[波斯, Persia]: 『왕』 파사(波斯), 『대당서역기』 파탈사(波刺斯).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사산조 페르시아에 해당하는데, 사산조 페르시아는 651년에 아랍에게 멸망당하여 이때는 나라의 실체는 없던 때이다. 그러나 헤초가 페르시아에 이어 아랍을 나란히 기술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아랍시대 이후에도 아랍과 페르시아를 병칭하기도 하였다.(張毅, pp.106~107) 아랍은 이란 동부 일대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동부 지역에 호라산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이슬람 지리서에 따르면 토하라에서 호라산의 4대 도시(발흐Balkh, 메르브Merv, 헤라트Herat, 니샤푸르Nishapur) 중 가장 서쪽에 있는 니샤푸르(이란 북동부 끝에 있는 라자비 호라산Razavi Khorasan 주의 도시 네이샤부르Neyshabur)에 이르는데 30일 전후가 걸린다는 기록이 헤초가 1개월만에 페르시아에 도착한다고 기록한 여정과 같다고 한다. 한편 페르시아라는 말이 파르스(Fārs)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현재 이란의 남서부에 위치한 파르스주의 중심도시 쉬라즈(Shiraz)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경우 2개월이 걸려야 갈 수 있다고 한다.(桑山, pp.155~156) 헤초가 기술한 1개월 여정으로 보면 페르시아를 호라산 소속의 니샤푸르로 볼 수도 있다.(정수일, p.343) 그런데 그 다음에 기술한, “아랍이 여기서 북쪽으로 10일을 가서 산으로 들어가면 나온다”는 것과 견주어 보면 아랍의 위치를 비정할 수 없다. 그래서 헤초의 기술 중에서 방향과 시간을 변경하여 토하라에서 서남쪽(원문은 서쪽)으로 2개월(원문은 1개월) 걸리는 페르시아의 중심지로서 페르세폴리스가 있던 이란 남서부 파르스주의 쉬라즈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서북(원문은 북쪽)으로 20일(원문은 10일) 걸려 7세기 중반 한때 아랍의 도움이었던 이라크 쿠파(Kufa) 지방에 이른다는 기술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桑山, pp.155~156) 페르시아는 서기전 2세기에 파르티아(Parthia, 安息)를 성립시켜 한 무제의 서역 진출로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곳 출신의 안세고(安世高)와 같은 승려들이 중국 불교의 초기 전래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기 2세기에 파르티아에 이어

도착한다. 이 나라 왕이 예전에는 아랍을 관할하여 아랍은 페르시아왕의 낙타를 방목하는 처지였으나 뒤에 반란을 일으켜 페르시아왕을 죽이고 자립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도리어 아랍에게 병탄되었다. 의복은 옛부터 폭이 넓은 면직 상의를 입고, 수염과 머리를 깎는다. 음식은 빵과 고기만 먹어 비록 쌀이 있어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다. 이 지방 산물로는 낙타, 노새, 양, 말이 나고, 덩치가 큰 나귀와 면직물, 보물이 난다. 언어가 유별나서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이 지방 사람들의 성품이 교역을 좋아하여 항상 서해에서 배를 타고 남해로 들어가 싱할라[師子, Sinhala]¹⁹²⁾ 국에 가서 여러 보물을 가져오므로 그 나라에서 보물이 난다고들 말한다. 또한 곤륜국(崑崙國)¹⁹³⁾에 가서 금을 가져오고, 배를 타고 중국에도 가는데 곧장 광주(廣州)¹⁹⁴⁾에 가서¹⁹⁵⁾ 무늬 있는 비단과 비단, 명주실과 면 등을

등장한 사산조 페르시아도 지속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가졌다.

192) 싱할라[師子, 𑖀𑖦𑖫𑖜𑖳𑖫𑖹] : 싱할라 드비파(Sinhala dvīpa, 사자의 섬이라는 뜻), 즉 실론(Ceylon) 섬, 현재의 스리랑카(Sri Lanka)를 가리킨다. 이곳에는 진주 어장이 있고 산에는 루비와 사파이어 광산이 있으며 침향, 황금, 보석 등의 진귀한 물건이 많이 난다고 전하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193) 곤륜국(崑崙國) : 중국의 곤륜에는 곤륜산(崑崙山)으로 유명한 서역지방의 곤륜과 남양의 곤륜이 있는데, 여기서는 남양의 곤륜을 말한다. 지금의 메콩 델타 지역 동남쪽에 있는 콘 손(Con Son)섬으로 추정한다.(桑山, p.158) 이 섬에는 살고 있던 흑인종이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피부가 검고 곱슬머리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며, 여기서 나아가 남해 해상 일대의 흑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였다. 족명 외에 지명이나 바다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이런 유래에 따라 중국에서는 삼국시대 이후에 남해의 흑인노예를 곤륜노(崑崙奴)라고 불렀다.

194) 광주(廣州) : 현재 중국 광둥성(廣東省)의 성도(省都)이자 화남(華南) 지방 최대의 무역도시이다. 일찍이 한(漢) 때부터 외국무역을 시작하였고, 당(唐)·송(宋) 때 급격히 발전하여 멀리 페르시아, 아랍과도 교역하였다. 해로로 인도에 가는 구법승들의 대륙 출발지이기도 하여 해초도 이곳에서 바닷길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가져온다. 이 지방 산물로는 가늘고 질 좋은 면직물이 난다. 나라 사람들이
살생을 좋아하며, 하늘을 섬기고 불법은 알지 못한다.

又從吐火羅國西行一月，至波斯國。此王先管大寔，大寔是波斯王放駝戶，於後叛，便煞彼王，自立爲主。然今此國，却被大寔所吞。衣舊着寬氎布衫，剪鬚髮。食唯餅肉，縱然有米，亦磨作餅喫也。土地出駝騾羊馬，出高大驢氎布寶物。言音各別，不同餘國。土地人性，愛興易，常於西海，汎舶入南海，向師子國取諸寶物，所以彼國云出寶物。亦向崑崙國取金，亦汎舶漢地，直至廣州，取綾絹絲綿之類。土地出好細疊。國人愛煞生，事天，不識佛法。

195) 페르시아와 광주의 직항로 개통은 당의 출현 이후라고 한다. 중국의 가탐(賈耽, 730~805)이 지은 「광주통해이도(廣州通海夷道)」에는 33곳의 경유지를 거쳐 1백 일 걸리는 해로의 노정과 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고 한다.(정수일, p.355)

24. 아랍국

또 페르시아국에서 북쪽으로 10일을 가서 산으로 들어가면 아랍[大寔, Arab]국¹⁹⁶⁾에 도착한다. 그 왕은 본국에 살지 않고 현재 소비잔틴제국[小拂臨國]¹⁹⁷⁾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를 쳐서 얻기 위해서다. 소비잔틴제국에서도 섬에 사는데, 거처하는 곳이 너무나 짐승우리 같지만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이렇게 한다. 이 지방 산물로는 낙타, 노새, 양, 말, 면직물, 모포가 생산되고, 보물도 있다. 의복은 가는 모직으로 만든 통이 넓은 상의를 입고, 상

196) 이때의 아랍국은 우마이야(Umawiyah)왕조의 말기인 히삼(Hishām, 724~743) 치하이다.(김정위, 앞의 책, p.143) 당시 아랍의 우마이야왕조는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도읍을 두고 각지에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혜초가 여기서 말한 아랍 본국은 쿠파(혹은 메디나)로 생각된다. 왕이 본국에 살지 않고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다고 한 표현이 이를 말해 준다. 혜초가 페르시아에서 북쪽으로 10일을 가면 아랍에 이른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아랍은 다마스쿠스가 아닌 7세기 일시 아랍의 중심지였던 이라크의 쿠파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7) 소비잔틴제국[小拂臨國]: 『당서(唐書)』에 불림(拂林)·불림(拂臨)·불림(拂林)·불림(拂林) 등으로 표기된다. 이관어족이 로마를 지칭하는 프롬(Frōm/Hrōm)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 표기로,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 Byzantine Empire)을 가리킨다. 대불림이 동로마 본부 지역을 가리킨 데 비해 소불림은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다마스쿠스(Damascus)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지방에 해당한다. 7세기에 아랍의 중심이 메디나에서 쿠파로 옮겨졌다가 7세기 후반 우마이야왕조 때는 다마스쿠스에 도읍을 두었다. 혜초의 기술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의 위에 또 면직물 한 장을 걸쳐 겹옷으로 한다. 왕과 백성의 의복이 한가지로 구별이 없다. 여자도 통이 넓은 상의를 입는다. 남자는 머리는 깎고 수염은 기르며, 여자는 머리를 기른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같이 한 그릇에 함께 먹고, 손으로는 수저도 잡는다. 성질이 아주 나빠 자기 손으로 잡아 먹어야 무량한 복을 얻는다고 말할 정도로 나라 사람들이 살생을 좋아한다. 하늘을 섬기며¹⁹⁸⁾, 불법을 알지 못한다. 국법에 무를 꿇고 절하는 법이 없다.

又從波斯國北行十日入山，至大寔國。彼王[不住]¹⁹⁹⁾本國，見向小拂臨國住也，爲打得彼國。彼國復居山島，處所極窄，爲此就彼。土地出駝騾羊馬疊布毛毯，亦有寶物。衣着細疊寬衫，衫上又披一疊布，以爲上服。王及百姓衣服，一種無別，女人亦着寬衫。男人剪髮在鬚，[女人]²⁰⁰⁾在髮。喫食無問貴賤，共同一盆而食，手把亦匙筋耶。見極惡，云自手煞而食，得福無量，國人愛煞。事天，不識佛法。國法無有跪拜法也。

198)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조로아스터교(Zoroaster)를 믿는 것을 말한다. 배화교(拜火敎) 혹은 현교(祆敎)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는 서기전 7세기 경 예언자 짜라투스트라(Zarathustra, 그리스어로 조로아스터)에 의해 창시된 종교로서,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믿는데 인간은 선신(善神)의 축복과 보호 아래 악신(惡神)과 싸우며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아케메네스왕조 시대에 오늘날의 이란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전파되었고, 후에 사산조 페르시아시대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아 발전시켰다. 불을 숭배한다는 뜻인 배화교라는 이름은 신자들은 불이 타오르는 제단 앞에서 제례를 치르며 봉헌물에 불꽃과 냄새를 피워 경배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199) 필사본의 住不는 不住의 잘못임을 수정부호로 밝힘

200) 필사본은 人女는 女人의 잘못임을 수정부호로 밝힘

25. 비잔틴제국

또 소비잔틴제국에서 바다를 끼고 서북쪽이 곧 비잔틴제국[大拂臨國, Byzantine Empire]²⁰¹⁾이다. 이 나라 왕은 군대가 강하고 많아서 다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아랍이 여러 차례 공격했으나 정복하지 못했고, 투르크도 침입하였으나 정복하지 못했다. 이 지방 산물로는 보물이 많고, 낙타, 노새, 양, 말, 면직물 등이 매우 풍부하다. 의복은 페르시아국이나 아랍국과 비슷하고, 언어는 각각 달라 같지 않다.

又小拂臨國傍海西北，即是大拂臨國。此王兵馬強多，不屬餘國。大寔數廻討擊不得，突厥侵亦不得。土地足寶物，甚足駝驛羊馬疊布等物。衣着与波斯大寔相似，言音各別不同。

201) 비잔틴제국[大拂臨國, Byzantine Empire] : 대불림(大拂臨)은 동로마제국 곧 비잔틴제국(Byzantine Empire)을 가리킨다. 중국 사서에 나오는 불림(拂臨) 또는 불림(拂菻)이라는 표기는 이란어족이 로마를 지칭하는 프롬(Frōm/Hrōm)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한자 표기로서,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을 가리킨다. 소불림이 소아시아 지방을 가리킨 데 비해, 대불림은 동로마 본부 지역을 가리킨다. 지금의 이스탄불인 비잔티움(Byzantium,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에 도읍을 마련하고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1천년 이상 존속하였다. 그리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넓은 영역을 차지하던 비잔틴 제국의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로마 제국의 고전적 전통 및 중세 가톨릭 유럽과 소아시아의 동방문화가 교차하였다. 스텝의 유목 민족과 슬라브족, 동방의 사산조 페르시아와 아랍 이슬람 및 투르크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다원화된 제국으로 성장했으며, 실크로드와 지중해 상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26. 호국[부하라국, 카부단국, 키쉬국, 타쉬켄트국, 펜지켄트국, 사마르칸드국]

또 아랍국 동쪽은 모두 호국(胡國)²⁰²⁾이니, 부하라국[安國, Bukhārā]²⁰³⁾, 카부단국[曹國, Kabūdhan]²⁰⁴⁾, 키쉬국[史國, Kish]²⁰⁵⁾, 타쉬켄트국[石驪

202) 호국(胡國) : 타쉬켄트를 제외하면 아랄해에서 발원하는 두 강인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사이의 땅인 트란스옥시아나에 위치한 소그드(Sogd)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을 호국이라 하고 있다. 간다라, 바미얀, 카슈미르 등에 호인(胡人)이 있다고 한 것은 호(胡)의 넓은 의미의 용법이고, 호국(胡國)이라 서술한 것은 소그드 지방뿐이라고 한다(森安孝夫, 「당대 불교적 세계지리와 ‘호’의 실태」,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2006).

203) 부하라국[安國, Bukhārā] : 『왕』 안국(安國), 『대당서역기』 보갈(捕喝).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보소로(Boxoro)이다. 제라프산(Zeravshan)강 하류에 자리잡고 있는데, 제라프산강의 흙과 모래가 쌓여서 생긴 땅에 세워진 사원을 중심으로 교역 지로서 발달하였다. 실크로드 여정상의 주요 오아시스 국가 중 하나이다. 부하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도원’이라는 뜻이다. 7세기 전반에 당에 사신을 보내 교류하였는데, 708년 아랍인들의 침입을 받아 언어와 종교가 이슬람화되었다.

204) 카부단국[曹國, Kabūdhan] : 『왕』 조국(曹國), 『대당서역기』 겁포달나(劫布咀那). 당대에는 동·중·서 세 조국(曹國)으로 나뉘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중조국(中曹國)이 카부단이다.(桑山, p.163) 동조국(東曹國)은 우스루샤나(Usrūshana, 塞堵利瑟國), 서조국(西曹國)은 이쉬티칸(Ishtikhan, 瑟底痕城)이다.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속한다.

205) 키쉬국[史國, Kish] : 『왕』 사국(史國), 『대당서역기』 갈상나(羯霜那). 카스카루드(Kaska-rud)강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북으로 펜지켄트, 남으로 토하라와 접하고 있었다. 수(隋)나라 대업(大業) 연간(605~617)에 중국과 처음으로 통교하였고 당대에는 그곳 군주를 자사로 책봉하기도 하였다. 키쉬국 동쪽 경계인 철문(鐵門)은 중앙아시아에서 남하하여 인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國, Tashkent)²⁰⁶⁾, 펜지켄트국[米國, Penjikent]²⁰⁷⁾, 사마르칸드국[康國, Samarqand]²⁰⁸⁾ 등이다. 비록 각자 왕이 있지만, 모두 아랍 관할에 속한다.²⁰⁹⁾ 나라가 협소하고 군대가 많지 않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 이 지방

다. 철문이란 가파른 산에 철색갈의 돌이 관문을 이루어 경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철문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에서 테르메즈로 가는 중간의 다르밴드(Darband) 근처로 비정된다.

- 206) 타쉬켄트국[石驛, Tashkent]: 『왕』 석라국(石驛國), 『대당서역기』 자시(赭時). 석국(石國)을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서』에 이 나라의 왕의 성이 석(石)이고 이름이 널(涅)이라 한데서 이를 합쳐 말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정수일, p.378) 수당과 교류를 가져 당에서 왕을 책봉하기도 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서 시르다리아 강의 지류인 치르치크 강변에 자리잡은 오아시스 국가이다. 우즈베크어로 '돌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207) 펜지켄트국[米國, Penjikent]: 『왕』 미국(米國), 『대당서역기』 미말하(彌秣賀). 미말하(彌秣賀)나 『당서』의 미말(彌末)은 마이말하(Maimargh)의 음역으로, 미(米)는 그 약칭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남쪽에 해당하며 제라프산강 연변에 있다. 수당과 교류하여 사서에 그곳 사정이 실려 있다.
- 208) 사마르칸드국[康國, Samarqand]: 『왕』 강국(康國), 『대당서역기』 샵말건(颶秣建). 사마르칸드는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시대에 건설된 유서 깊은 곳으로, 소그드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이다. 소그드 지방은 파미르고원과 천산산맥의 서쪽, 이란고원과 카스피해와 아랄해 사이에 아랄해로 흘러드는 아무 다리야(Amu Darya)강과 시르 다리야(Syr Darya)강 사이의 지방을 지칭하는데,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이 지역에는 6~7세기경부터 이란계의 소그드인들이 소그드 문자를 쓰며 살았는데 실크로드의 십자로에 해당하는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상업을 행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중국과 교역이 많았는데, 특히 당 초기인 624년부터 650년경 사이에는 중국에 온 사절단이 35차례에 이른다. 또 당 고종 영희 연간(650~655)에 이 지역에 강거도독부(康居都督府)를 설치하고 국왕 와후만(Wahuman)을 도독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사마르칸드 인근 아프라시아(Afrasiab) 유적의 궁전 벽화에 당 사신과 함께 2인의 고구려(혹은 신라) 사신이 그려져 있어 우리나라와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 209) 아랍-무슬림군의 동방 진출은 651년부터 시작되어 압둘라 이븐 아미르의 군대가 호라산에 이어 발흐까지 원정하였다. 이후 아랍 지배에 대한 반란과 재공격

산물로는 낙타, 노새, 양, 말, 면직물 등이 난다. 의복은 면직물 상의와 바지 등과 가죽외투를 입는다. 언어가 여러 나라와 같지 않다.

또한 이 여섯 나라는 모두 조로아스터(Zoroaster)교²¹⁰⁾를 섬기며, 불법은 알지 못한다.²¹¹⁾ 사마르칸드국에만 절이 하나 있고 스님도 한 분 있지만, 불법을 이해하고 공경하지 않는다. 이들 호국은 모두 수염과 머리를 깎고, 면직²¹²⁾ 모자 쓰는 것을 좋아한다. 풍속이 지극히 나빠서 혼인을 서로 뒤섞여 하여 어머니나 누이나 여동생을 처로 맞아들이기도 한다. 페르시아국도 어머니를 처로 맞아들이고, 토하라국·카피시국·바미얀국·자불리스탄국 등에서는 형제가 10명이건 5명, 3명, 2명이건 함께 한 명의 처를 맞이하고 각각 한 명의 부인을 맞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집안 살림이 무너지질까 염려해서이다.

이 여러 차례 반복된 후 704년에 호라산 총독 쿠타이바(Qutaybah)가 토하리스탄, 부하라, 사마르칸드, 페르가나(Ferghana) 등을 정복하여 지배하였다. 혜초가 이곳 사정을 전해 들은 것은 시기의 상황을 말해 준다.

- 210) 조로아스터(Zoroaster)교 : 배화교(拜火敎) 혹은 현교(祆敎)라고도 한다. 서기전 7세기 경 예언자 짜라투스트라(그리스어로 조로아스터)에 의해 창시된 이원론적 종교이다. 인간은 선신(善神)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ā)의 축복과 보호 아래 악신(惡神) 앙그라 마이뉴(Angra Mainyu)와 싸우며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한다.
- 211) 혜초는 이 여섯 나라가 불교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바로 다음에 사마르칸드에는 절이 하나 있다고 기술한 것처럼 이곳에는 불교가 알려져 있었다. 일찍이 중국 불교 초기 전래시대에 강승회(康僧會)와 같은 사마르칸드 출신 역경승들의 활약이 매우 컸다. 혜초의 기술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국 여러 나라들이 불교보다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정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 212) 면직 : 백첩(白氎)은 백첩포(白氎布, 白疊布)라고도 하며, 목화의 일종인 초면(草棉)의 면섬유로 짠 가는 면직물을 말한다.(민길자, 「白疊布·白氎布考」, 『교육논총』 7, 1988, 국민대 교육연구소, pp.79~98)

又從大寔國已東，並是胡國，卽是安國，曹國，史國，石驪國，米國，康國等。雖各有王，並屬大寔所管。爲國狹小，兵馬不多，不能自護。土地出駝驪羊馬疊布之類。衣着疊衫袴等及皮毬。言音不同諸國。

又此六國，愍事火祆，不識佛法。唯康國有一寺有一僧，又不解敬也。此等胡國，並剪鬚髮，愛着白氎帽子。極惡風俗，婚姻交雜，納母及姊妹爲妻。波斯國亦納母爲妻，其吐火羅國乃至罽賓國 犯引國 謝 國等，兄弟十人五人三人兩人，共娶一妻，不許各娶一婦，恐破家計。

27. 페르가나국

또 사마르칸드국 동쪽은 곧 페르가나[跋賀那, Ferghāna]²¹³⁾국인데, 왕이 둘이다. 아무다리야[縛叉, Amu Darya]²¹⁴⁾라는 큰 강이 나라 한 복판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강 남쪽의 왕은 아랍에 복속되었고 강 북쪽의 왕은 투르크 관할에 속한다.²¹⁵⁾ 이 지방 산물도 낙타, 노새, 양, 말, 면직물 등이

213) 페르가나[跋賀那, Ferghāna] : 『왕』 발하나(跋賀那), 『대당서역기』 패한(怛捍). 동·남·북 세 방향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그 중앙을 시르다리아강이 흐르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파르고나(Farghona)주와 타지키스탄 서부의 레니노보드(Leninobod)주에 이어지는 지역이다. 일찍부터 이란계 주민에 의한 농경 문화가 발달한 동서교통의 요지였다. 서기전 2세기에 한(漢)의 장건(張騫)이 이 지방에 관한 일을 대완(大宛)이라는 명칭하에 처음으로 중국에 전하였다.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당에서는 왕을 책봉하고 이 지역 안에 도독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214) 아무다리야[縛叉, Amu Darya] : 중앙아시아 고원에서 발원하여 아랄해로 흘러드는 총 2,540km의 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아무’는 페르시아어로 광기(狂氣), ‘다리야’란 강(江)으로, 즉 ‘미친 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이 강이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갈라놓고 있다. 그런데 페르가나 한복판을 지나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아무다리야강이 아니라 시르다리아(Sir Darya, 錫爾河)강인데, 헤초는 이 두 강을 혼동하였다. 시르다리아강의 옛이름은 락사르테스(Laxartes)인데 진주하(眞珠河)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불리기도 하였다.

215) 8세기의 이 지역은 지역 세력과 아랍, 투르크, 당의 세력이 뒤섞여 복잡한 전개를 보였다. 721년부터 아랍군과 페르가나가 격돌하여 724년에 시르다리아강 남부는 아랍이 지배하게 되고 북부는 투르크계 세력이 유지되었다. 727년에는 북

다. 의복은 가죽외투와 면직물 옷이며, 음식은 빵과 보릿가루를 많이 먹는다. 언어가 유난히 달라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불법을 몰라 절이나 스님이 없다.

又從康國已東，卽跋賀那國，有兩王。縛叉大河，當中西流，河南一王屬大寔，河北一王屬突厥所管。土地亦出駝騾羊馬疊布之類。衣着皮裘疊布。食多餅麩。言音各別，不同餘國。不識佛法，無有寺舍僧尼。

부에 있던 투르크계의 소록(蘇祿)이 남쪽으로 진격하여 사마르칸드를 제외하고 아무다리야강까지 세력을 확보하였다.(桑山, p.173)

28. 쿠탈국

또 페르가나국 동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쿠탈[骨咄, Khuttal]²¹⁶⁾국이다. 이 나라 왕은 원래 투르크 종족이고, 이 나라 백성은 반은 호인, 반은 투르크인이다. 이 지방 산물로는 낙타, 노새, 양, 말, 나귀, 포도, 면직물, 모포 등이 난다. 의복은 면직물 옷과 가죽외투를 입는다. 언어는 토하라어와 투르크어와 토착어가 섞여 있다. 왕과 수령과 백성들이 삼보를 공경하고 민어서 절도 있고 스님도 있으며 소송법이 행해지고 있다. 이 나라는 아랍 관할에 속한다. 외국에서는 비록 나라라고 말하지만, 중국의 한 개의 큰 주와 비슷하다. 이 나라 남자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여자는 머리카락을 기른다.

又跋賀那國東有一國，名骨咄國。此王元是突厥種族，當土百姓，半胡半突厥。土地出駝騾羊馬驢蒲桃疊布毛毯之類。衣着疊布皮裘。言音半吐火羅半突厥半當土。王及首領百姓等，敬信三寶，有寺有僧，行小乘法。此國屬大寔所管。外國雖云道國，共漢地一箇大州相似。此國男(人)²¹⁷⁾剪鬚髮，女人在髮。

216) 쿠탈[骨咄, Khuttal] : 『왕』 골돌(骨咄), 『대당서역기』 가들라(珂咄羅). 아무 다리야(Amu Darya)강 상류의 북쪽, 현재 타지키스탄의 서남부 지역으로 수도 두산베의 동남부쪽인 바크쉬(Vakhsh)강과 판지(Panj)강 사이의 쿨로브(Kulob)를 중심으로 한 카틀론(Khatlon)주 지역이다. 계곡과 구릉에 양질의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그 곳에서 자라는 말이 유명하다고 전해져 『당서』에도 실려 있다.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당에서는 왕을 책봉하고 이 지역 안에 도독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217) 원문의 女는 人의 잘못으로 추정됨

29. 투르크

또 이 호국의 북쪽은 북으로는 북해에 이르고, 서로는 서해에 이르고, 동으로는 중국에 이르는데, 이 북쪽은 모두 투르크[突厥, Turk]²¹⁸⁾인이 사는 영역이다. 이들 투르크인은 불법을 알지 못하여 절도 없고 스님도 없다. 의복은 가죽외투와 모직 상의를 입고, 고기를 먹는다. 성곽이나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털담요로 만든 천막을 집으로 삼아 가거나 머물 때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닌다. 남자들은 모두 수염과 머리를 깎고, 여자들은 머리를 기른다. 언어가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나라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하며,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 이 지방 산물로는 낙타, 노새, 양, 말 등이 많다.

又從此胡國已北，北至北海，西至西海，東至漢國，已北惣是突

218) 투르크[突厥, Turk]: 『왕』 돌궐(突厥), 『대당서역기』 돌궐(突厥). 민족 이름이자 나라 이름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철륵(鐵勒)·돌궐(突厥) 각 부족을 포괄하고, 좁은 의미로는 돌궐칸국(突厥汗國)만을 가리킨다. 6세기 초 금산(金山, 지금의 아미타산) 서남쪽 산기슭에서 처음 일어나 하나의 유목부락이 되었고, 552년 오르콘(Orkhon)강 유역에 정권을 세워 6세기 후반에 서역 제국을 지배하고 요동만에서 카스피해, 바이칼호에서 고비사막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였다. 문자를 만들고, 관제(官制)를 정비하여 중원과 빈번하게 교류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장악하여 서역과 교역하는 등 동서문명 교류에 큰 자취를 남겼다. 583년에 분열하여 동투르크, 서투르크로 나뉘었다. 서투르크는 7세기 중엽 당나라에 복속되었고, 동투르크는 8세기 중엽에 분열하여 그중에서 위구르제국이 일어났다. 여기서 서술하는 곳은 대체로 지금의 카자흐스탄(Kazakh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에 해당한다.

厥所住境界. 此等突厥, 不識佛法, 無寺無僧. 衣着皮毬氍衫, 以虫爲食. 亦無城墉住處, 氍帳爲屋, 行住隨身, 隨逐水草. 男人並剪鬚髮, 女人在頭. 言音与諸國不同. 國人愛煞, 不識善惡. 土地足駝驢羊馬之屬.

30. 와한국

또 토하라국에서 동쪽으로 7일을 가면²¹⁹⁾ 와한[胡蜜, Wakhan]²²⁰⁾ 왕이 사는 성²²¹⁾에 도착한다. 마침 토하라국에서 올 때, 외국²²²⁾에 들어가는 중국 사신을 만났다.²²³⁾ 간략히 사운체로 오언시를 지었다.

219) 토하라에서 와한까지는 적어도 1천 5백리 쯤 되는 거리로서 보통 30일 걸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거리를 7일만에 갔다는 혜초의 기록은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필사본의 ‘七日’이 ‘廿日’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桑山, p.176)

220) 와한[胡蜜, Wakhan]: Wakhkhān으로도 표기. 『왕』 호밀(胡蜜), 『대당서역기』 달마실철제국(達摩悉鐵帝國). 도읍은 혼타다성(昏駄多城, Khandut). 당의 현경(顯慶, 656~660) 연간에는 조비주(鳥飛州)라 불렀다. 아무 다리야강 상류에 있는 와한 다리야(Wakhān Darya) 계곡에 연해 있는 가늘고 긴 나라이다.(桑山, p.176) 현재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의 바다흐산주 끝 지역으로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에 좁고 길게 자리잡아 파미르고원에 이어지는 지역이다.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고대부터 다양한 세력이 침입하였다. 혜초가 방문한 당시에는 당, 티베트, 아랍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었고, 그 얼마 전에는 투르크가 간여하기도 하였다.

221) 와한 왕이 사는 성을 혜초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당서역기』에서는 혼타다성(昏駄多城) 곧 현재의 칸두트(Khandut)라 하였고, 『신당서』에서는 그보다 훨씬 서쪽에 있는 새가심성(塞迦審城) 곧 지금의 이슈카심(Ishkāsīm)이라고 하였는데, 혜초가 토하라에서 가는 길로는 이슈카심을 지나 칸두트에 이르게 된다.

222) 외국: 번(蕃)은 일반적으로 서역(西域) 일대 및 중원 서부 변경 지역을 가리킨다.

223) 혜초가 토하라에서 와한으로 오는 도중에 만난 중국 사신은 외국의 입조(入朝)에 대한 답례사(答禮使)로 추정된다. 책봉사(冊封使)는 사서에 기록되는데, 이에 비길 수 있는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혜초가 여행한 시기인 724년부터 727년에 이르는 시기에 이 길을 통해 중국에 입조한 나라는 페르시아, 아랍, 토하

그대는 서쪽 번국이 멀다 원망하고
 나는 동쪽 길이 길다고 탄식하네
 길은 거칠고 산마루엔 눈이 가득한데
 험한 골짜기에 도착때가 날뛰는구나
 새도 날다가 깎아지른 산에 놀라고
 사람은 기우뚱한 다리 지나기 어렵네
 평생 눈물 흘려본 적 없지만
 오늘은 천 길 눈물을 뿌리누나

겨울 어느날 토하라에서 눈을 만난 감회를 오연시로 읊었다.

차가운 눈은 얼음을 끌어 모으고
 찬 바람은 땅이 갈라지도록 매섭구나
 큰 바다는 제단마냥 얼어붙고
 강물은 낭떠러지를 깎아먹네
 용문에는 폭포수마저 끊기고
 우물가는 서린 뱀처럼 얼었구나
 불을 벗삼아 땅 끝에 올라 노래한다마는
 어찌 저 파미르를 넘을 수 있을까

又從吐火羅國東行七日，至胡蜜王住城。當來於吐火羅國，逢
 漢使入蕃。略題四韻取辭，五言。
 君恨西蕃遠 余嗟東路長
 道荒宏雪嶺 險澗賊途倡

라, 쉬그난의 네 나라이므로, 그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桑山, p.178)

鳥飛驚峭嶷 人去偏樛難
 平生不捫淚 今日灑千行
 冬日在吐火羅, 逢雪述懷, 五言.
 冷雪牽氷合 寒風擘地烈
 巨海凍墁壇 江河凌崖囓
 龍門絕(瀑)²²⁴⁾布 井口盤蛇結
 伴火上(垓)²²⁵⁾歌 焉能度播蜜

이 와한왕은 군대가 적고 약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여 아랍의 관할에 속해 있으므로, 해마다 세금으로 비단 3,000필을 바친다.²²⁶⁾ 산골짜기에 살아서 사는 곳이 좁고²²⁷⁾ 가난한 백성이 많다. 의복은 가죽외투와 모직 상의를 입으며, 왕은 비단과 면직 옷을 입는다. 음식은 빵과 보릿가루만 먹는다. 기후가 매우 추워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언어가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산물로는 양과 소가 있는데 아주 작고 크지 않으며, 말과 노새도 있다. 스님도 있고 절도 있으며 소송법이 행해지고 있다. 왕과 수령과 백성들이 모두 부처를 섬기고 외도에 귀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외도가 없다. 남자들은 모두 수염과 머리를 깎고, 여자들은 머리를 기른다. 산 속에서 사는데, 그 산에는 나무나 여러 가지 풀들이 없다.

此胡蜜王, 兵馬少弱, 不能自護. 見屬大寔所管, 每年輸稅絹

224) 필사본의 爆은 瀑의 잘못으로 추정됨

225) 필사본의 垓는 垓의 잘못으로 추정됨

226) 이때 비단은 옷감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화(通貨)로서의 기능도 가졌다.

227) 와한은 동서로 길게 옥서스(Oxus)강의 협곡을 따라 전개된 나라이므로 살 수 있는 땅이 좁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는 동서 1천 5,6백 리이고 남북은 넓은 곳이 4,5리이고 좁은 곳은 1리를 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三千疋. 住居山谷, 處所狹小, 百姓貧多. 衣着皮裘氎衫, 王着綾絹疊布. 食唯餅飴. 土地極寒, 甚於餘國. 言音與諸國不同. 所出羊牛, 極小不大, 亦有馬騾. 有僧有寺, 行小乘法. 王及首領百姓等, 惣事佛, 不歸外道, 所以此國無外道. 男並剪除鬚髮, 女人在頭. 住居山裏, 其山無有樹(木)²²⁸⁾及於百草.

228) 필사본의 水는 木의 잘못으로 추정됨. 소발로르국에도 “원래부터 나무나 여러 가지 풀이 없다(元無樹木及於諸草)”라는 표현이 있음.

31. 쉬그난국

또 와한국 북쪽 산 속에 아홉개의 쉬그난[識匿, Shighnān]²²⁹⁾국이 있다. 아홉 왕은 각기 군대를 거느리며 사는데, 한 왕만 와한왕에게 복속되었고 그 밖에는 각기 독립하여 살고 다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근래에 굴에서 생활하는 두 왕[兩窟王]²³⁰⁾이 중국에 투항하여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²³¹⁾에 사신을 보내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 왕과 수령만 면직 옷과 가죽 외투를 입고, 그 밖의 백성은 가죽외투와 모직 상의만 입는다. 기후가 몹시 춥고, 눈 덮인 산에 살아서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이곳에도 양, 말, 소, 나귀가 있다. 언어가 유별나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왕은 항상 200~300명을

229) 쉬그난[識匿, Shighnān]: 『왕』 식닉(識匿), 『대당서역기』 시기니(尸棄尼). 지금의 파미르강 북쪽 파미르고원 서남 경사지역의 타지키스탄 쉬그난 일대이다. 『신당서(新唐書)』에 “처음에는 고한성(苦汗城, Kurghan)에 중심을 두었으나 나중에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았다. 다섯 개의 큰 골짜기가 있고 추장이 스스로 다스려 다섯 식닉(識匿)이라 한다”(『新唐書』 권221하 西域傳下)라고 하였고, 또 파미르천 네 골짜기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굴 속에서 생활하는 풍속이 있다고 하였다. 혜초는 여기서 9개국을 들었는데, 중국 사서류에서는 5개국을 들었다.

230) 굴에서 생활하는 두 왕[兩窟王]: 위의 『당서』에 나오는 굴 속에서 생활하는 쉬그난국 가운데 두 곳을 가리키는 듯하다.

231)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 당이 쿠차에 설치한 서쪽 요충지. 『책부원귀(冊府元龜)』에 따르면 이 즈음에 쉬그난국에서 당에 보낸 사신은 724, 725, 727년 세 차례 있었다.

대파미르[大播蜜, Pamir] 평원²³²⁾에 보내 그 곳 교역상과 사신을 습격한다. 가령 습격하여 얻은 비단이라도 창고 안에 쌓아 두고 못쓰게 되도록 내버려 둘 뿐 옷을 지어 입을 줄 모른다. 이 쉬그난국 등에는 불법이 없다.

又胡蜜國北山裏，有九箇識匿國。九箇王各領兵馬而住，有一箇王，屬胡蜜王，自外各並自住，不屬餘國。近有兩窟王，來投於漢國，使命安西，往來(不)²³³⁾絕。唯王首領，衣着疊布皮裘，自餘百姓，唯是皮裘氈衫。土地極寒，爲居雪山，不同餘國。亦有羊馬牛驢。言音各別，不同諸國。彼王常遣三二百人於大播蜜川，劫彼興胡及於使命。縱劫得絹積在庫中，聽從壞爛，亦不解作衣着也。此識匿等國，無有佛法也。

232) 대파미르[大播蜜, Pamir] 평원: 『왕』 파밀천(大播蜜川), 『대당서역기』 파미라천(波謎羅川). 파미르천은 본래 파미르강을 말한다. 외한 지방의 북쪽으로 타지키스탄과 경계를 이루며 흐르는 강이다. 그런데 천(川)에는 평원의 뜻도 있으므로 파미르강 연안을 대파미르(Great Pamir) 평원, 그 동쪽을 소파미르(Little Pamir) 평원으로 부르기도 한다.

233) 필사본은 絶인데, 의미상 不絶이라 해야 자연스러움

32. 총령진

또 와한국에서 동쪽으로 15일 가서 파미르평원²³⁴⁾을 지나면 곧 총령진(蔥嶺鎮)²³⁵⁾에 도착한다. 이 곳은 중국에 속하여 지금 그 군대가 장악하고 있다. 이 곳은 옛날에는 배성(裴星)²³⁶⁾왕의 영역이었는데, 왕이 배반하고

234) 파미르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고원지대이다. 파미르고원은 천산(天山)과 캐라코람(Karakoram)과 곤륜(崑崙)과 힌두쿠시(Hindu Kush)산맥이 만나는 교차 지점으로 해발 5,000m가 넘는 10여 갈래의 복잡한 흐름을 가진 산맥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총령(蔥嶺)이라 불렀다. 파미르고원의 대부분이 지금의 타지키스탄 동부인 고르노 바다흐산(Gorno Badakhshan)주에 속하며, 동쪽은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서남쪽은 키르기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에 속한다. 최고봉은 동부의 중국 카시 서남쪽에 있는 쿡구르봉[公格爾山, 7,719m]이며, 서쪽에는 타지키스탄의 이스모일 소모니봉(Ismoil Somoni Peak, 1998년까지는 코뮤니즘봉 Communism Peak으로 불렸다. 7,495m)이 가장 높다.

235) 총령진(蔥嶺鎮): 『왕』 총령진(蔥嶺鎮), 『대당서역기』 총령(蔥嶺). 타슈쿠르간(Tāshukurghān)국이 있던 총령(蔥嶺), 즉 파미르 고원에 설치했던 진(鎭). 당(唐)은 군대를 변방에 배치할 때 큰 지역에는 군(軍), 작은 지역에는 수찰(守捉)·성(城)·진(鎭)을 두고 총괄하는 곳을 도(道)라 하였다(『新唐書』 권50 兵志). 개원(開元) 연간(713~741)에 당시 서쪽 변방 지역의 방어를 위해 파미르 고원에 수찰(守捉)을 두어 안서지역의 끝을 지키도록 하였다고 한다.

236) 배성(裴星): 배씨(裴氏)는 독립한 오아시스 도시국가였던 카슈가르(Kashgar)의 왕족으로 유명하다.(桑山, p.183) 타슈쿠르간국은 카슈가르인이 대대로 왕위에 올랐다(『唐書』·『통전(通典)』). 배성도 카슈가르의 왕성 배씨의 일족으로 생각된다.



파미르 풍경(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티베트로 달아나 투항하였으므로 지금 나라 안에 백성이 없다. 외국인들은 타슈쿠르간[渴飯檀, Tāshukurghān]²³⁷⁾국이라 부르는데, 중국 이름은 총령(蔥嶺)이다.

又從胡蜜國東行十五日，過播蜜川，卽至蔥嶺鎮。此卽屬漢，兵馬見今鎮押。此卽舊日王裴星國境，爲王背叛，走投土蕃，然今國界，無有百姓。外國人呼云渴飯檀國，漢名蔥嶺。

237) 타슈쿠르간[渴飯檀, Tāshukurghān] : 『왕』 갈반단(渴飯檀), 『대당서역기』 결반타(揭盤陀). 현재의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인 타시쿠르간[塔什庫爾干]. 서역에서 중국에 갈 때 와한 지방에서 타림(Tarim)분지에 뻗어 있는 파미르 고원을 넘어 남도(南道)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으로 일찍부터 널리 알려졌으며, 사리 콜(Sar-i Kol)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桑山, p.184)

33. 카슈가르

또 총령에서 걸어서 한 달을 가면 카슈가르[疏勒, Kashgar]²³⁸⁾에 도착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가사기리(伽師祇離)²³⁹⁾국이라고 부른다. 이 곳 역시 중국 군대가 지키고 있다.²⁴⁰⁾ 절도 있고 스님도 있으며 소송법이 행해지고 있다.²⁴¹⁾ 고기와 파, 부추 등을 먹는다.²⁴²⁾ 토착민들은 면직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

238) 카슈가르[疏勒, Kashgar]: 『왕』 소록(疏勒), 『대당서역기』 거사(佉沙), 『당서』 소록(疏勒).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북서쪽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로 현재 이름은 카시[喀什]이다. 한(漢) 때부터 서역 36국의 하나로 등장한다. 천산산맥 자락의 타클라마칸사막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타클라마칸사막의 남도와 북도가 만나는 동서 교통의 요지로서 크게 발전하였다. 현재 캐라코럼 고속도로(Karakorum Highway)의 시작점으로 이 도로는 파키스탄과의 국경인 쿤자랍 고개를 넘어 이슬라마바드까지 연결된다.

239) 가사기리(伽師祇離): 카슈가르를 소록(疏勒)이라고 옮기는 것은 음이 일치하지 않는데, 혜초의 이 기록에서 처음으로 음을 전하고 있어 이 기록의 정보적 가치가 크다고 한다. 『일체경음의』에서는 가사길려(迦師佉黎)로 표기했다.

240) 수착(守捉)은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풀 수 있다. 그런데 당대의 변경 군사 조직에서 작은 지역에는 설치한 수착(守捉)·성(城)·진(鎭)의 이름과도 같다.

241)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당시에는 카슈가르에서 가람 수백개소의 승려 만 여인이 소송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를 학습한다고 하였다.

242) 고기나 파와 부추 등의 오신채(五辛菜, 익혀 먹으면 음한 기운을 내고 날로 먹으면 화를 키우며 불전을 익히더라도 천선들이 그 냄새를 싫어하여 멀리 하는 것이기에 불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매운 맛을 내는 다섯 가지 야채)를 먹는다는 데서 소송이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슈가르 모르불탑(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又從蔥嶺步入一月，至疎勒。外國自呼名伽師祇離國。此亦漢軍馬守捉。有寺有僧，行小乘法。喫肉及葱韭等。土人着疊布衣也。

34. 쿠차국

또 카슈가르에서 동쪽으로 한 달을 가면 쿠차[龜茲, Kucha]²⁴³⁾국에 도착한다. 바로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²⁴⁴⁾로 중국 군대의 대규모 집결처이다. 이 쿠차국에는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²⁴⁵⁾, 소송법이 행해지고 있

243) 쿠차[龜茲, Kucha]: 『왕』 구자(龜茲), 『대당서역기』 굴지(屈支). 신장웨이우얼자 치구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중심부 북쪽의 도시로 현재 이름은 쿠치[庫車]. 서기전 1~2세기부터 중국 사서(史書)에 등장한다. 전한 때 서역 36개국 중 9개 대국의 하나였다. 서역의 중심으로 중국은 서역과의 관계 때문에 항상 이 지역을 중시하였다. 후한 명제 때 쿠차를 점령하고 서역도호부(西域都護府)를 설치하였으나, 곧 독립 왕국을 이루었다. 전진(前秦) 때도 중국과 접전을 하였는데, 이 때 쿠차에서 중국으로 초빙해 온 사람이 쿠차 왕실 출신의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이다. 구마라집은 중요한 경전을 많이 한역하여 중국불교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44)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 중국의 서쪽 변방을 지키기 위한 안서도호부의 설치는 그 이동이 잦았다. 설치와 이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640년에 국씨(麴氏)의 고창국(高昌國)을 멸망시킨 뒤 그 수도 고창(高昌)을 서주(西州)로 하고 그 곳에 안서도호부를 설치하였다. 648년에 안서도호부를 쿠차로 옮기고, 651년에 쿠차에서 서주로 옮겼다가 658년에 다시 쿠차에 설치하였다. 670년에 티베트가 서역에 진출하자 안서도호부를 다시 서주로 옮겼다가, 692년에 다시 쿠차로 옮겼다. 이후 안사난(安史亂)이 일어날 때까지는(755년) 계속 쿠차에 있었다. 그러므로 혜초가 쿠차에 이르렀던 727년에는 안서도호부가 쿠차에 있었다.(桑山, p.187) 당은 안동(安東), 안서(安西), 안남(安南), 안북(安北), 선우(單于), 북정(北庭) 여섯 개의 대도호부(大都護府)를 두었다.

245) 이 쿠차국의 불교의 상황은 타클라마칸 북쪽 지역에서 출토된 산스크리트 사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730종의 사본 중 절반 가까이가 쿠차국 계통이라고



쿠차의 키질석굴(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다.²⁴⁶⁾ 고기와 파, 부추 등을 먹는다. 중국 스님이 대승법을 행하고 있다.

又從疎勒東行一月，至龜茲國。卽是安西大都護府，漢國兵馬大都集處。此龜茲國，足寺足僧，行小乘法。食肉及蔥韭等也。漢僧行大乘法。

한다.

246)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쿠차에서는 가람 백여 개 소의 승려 5천여 인이 소승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를 학습한다고 하였다.

35. 호탄국

또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에서 남쪽으로 호탄[于闐, Khotan]²⁴⁷⁾국까지는 이천 리이다.²⁴⁸⁾ 이 곳에도 많은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대승법이 행해지고 있다.²⁴⁹⁾ 고기를 먹지 않는다.²⁵⁰⁾

247) 호탄[于闐, Khotan]: 『왕』 우전(于闐), 『대당서역기』 구살단나(瞿薩旦那).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의 요지에 자리잡은 도시로 현재 이름은 허톈(和田). 예로부터 중국인이 가장 귀하게 여긴 연옥(軟玉)의 산지로 유명하다. 호탄은 전한 말부터 급격히 세력을 신장한 야르칸드[莎車, Yarkand]국에게 한때 지배되었으나, 이윽고 독립하여 야르칸드를 무너뜨리고 니야[尼雅, Niya]·카슈가르 사이의 13국을 복속시켜 선선국(鄯善國)과 아울러 서역남도의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의 서역에 대한 영향력이 쇠퇴한 3세기 무렵에는 동서교역으로 번영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타림분지의 5대국 중 하나였다. 당나라 초기에는 북의 서투르크에 복속되었으나, 당의 타림분지 진출에 따라 다른 오아시스국가와 함께 멸망하고 안서사진(安西四鎮)의 한 곳이 되었다. 그 뒤 티베트의 타림분지 진출로 790년 안서도호부와 북정(北庭)도호부가 함락됨에 따라 호탄도 투르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248) 이곳 호탄은 쿠차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어 바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 헤초는 이곳을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정을 전해 듣고 기록하였다.

249) 대승법이 행해지고 있다: 중국 안서(安西) 사진(四鎮)의 서쪽 4개 지방 중에서 실크로드의 서역북도(西北北道)에 속하는 카슈가르, 쿠차, 카라샤르는 소승의 설일체유부가 행해지지만 이곳 서역남도(西域南道)의 호탄만은 대승이 행해지고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250) 대승이 행해지므로 고기를 먹지 않아 소승이 행해지는 다른 3국이 고기를 먹는 것과 비교된다.



호탄 풍경 (사진제공 실크로드여행사)

여기서부터 동쪽은 모두 당나라 영역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又安西南去于闐國二千里，亦足漢軍馬領押。足寺足僧，行大乘法。不食肉也。從此已東，並是大唐境界。諸人共知，不言可悉。

안서 사진의 불교

개원 15년(727) 11월 상순에 안서대도호부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절도대사(節度大使)²⁵¹는 조군(趙君)²⁵²이었다. 또 안서에는 두 절에 중국 스님이

251) 절도대사(節度大使): 관직명으로 일반적으로 절도사(節度使)라 한다. 당의 초반에 북주(北周)와 수(隋)의 제도를 본따 중요 지구에 총관(總管)을 설치하고 뒤에 도독(都督)으로 이름을 바꾸어 여러 개 주(州)의 군사(軍事)를 총감독하게 하였다. 당 예종 경운(景雲) 2년(711)에 하발연사(賀拔延嗣)를 양주도독(涼州都督)으

주지하고 있는데, 대승법을 행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대운사(大雲寺)²⁵³⁾ 사주(寺主)²⁵⁴⁾ 수행(秀行)은 강설을 잘 하고, 전에는 서울 칠보대사(七寶臺寺)²⁵⁵⁾의 승려였다. 대운사 도유나(都維那)²⁵⁶⁾ 의초(義超)는 율장(律藏)²⁵⁷⁾

로 삼고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에 임명하였는데 이때부터 절도사(節度使)라는 명칭이 생겼다. 처음에는 변경 지역에만 절도사를 두었는데, 안사난 이후에는 국내에도 두루 설치되었다. 한 명의 절도사가 하나의 도 또는 여러 개의 주를 총관하여 군사, 백성, 재정을 총감독하였다.

252) 조군(趙君) : 726년에 안서 부대도호(副大都護, 종3품)에 임명된 조이정(趙頤貞)을 가리킨다. 그는 727년 티베트가 투르크와 함께 안서성을 포위하자 그들을 막아냈고, 728년에는 곡자성(曲子城)에서 티베트를 격파하였다(『舊唐書』 권8 ; 『資治通鑑』 권213). 당시 안서대도호는 왕족이 임명되어 변경에 부임하지 않아 부대도호(副大都護)가 실질적인 대도호(大都護) 역할을 하며 도호로 불렸다. 도호는 군정과 민정을 겸하였는데 8세기 들어 군사적 역할이 비대해졌다.(桑山, p.192) 『일체경음의』에는 이정(頤貞)이라는 항목이 있어 이 약본이 아닌 『왕오천축국전』의 정본에는 조이정(趙頤貞)이라는 이름이 성과 이름 모두 수록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253) 대운사(大雲寺) : 『대운경(大雲經)』을 통치 이데올로기의 기반으로 삼았던 측천무후(則天武后)는 재초(載初) 원년(690) 7월에 승려들이 여자가 국왕이 된다는 내용을 부각시킨 위경 『대운경(大雲經)』을 지어 올리자 전국의 모든 주에 대운사를 두게 하였다(『舊唐書』 권6). 이곳 혜초의 기록을 통해 쿠차와 카슈가르에 도 대운사가 세워졌고, 장안의 승려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4) 사주(寺主) : 사원(寺院)의 사무를 관장하는 세 승직(僧職)을 삼강(三綱)이라 하는데, 상좌(上座), 사주(寺主), 도유나(都維那)로 구성되어 있다. 삼강 제도는 4세기 말 전진(前秦) 시대에 처음 시작되어 당대에는 법전에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절마다 상좌 1인, 사주 1인, 도유나 1인을 있어 함께 여러 일을 총괄하도록 하였다.(『大唐六典』 권4) 사주는 원래 사원을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원 건립 및 관리 등의 일을 책임진 사람을 말한다.

255) 칠보대사(七寶臺寺) : 의봉(儀鳳) 2년(677)에 세운 광택사(光宅寺)를 가리킨다. 측천무후 때 광택사에 칠보대(七寶臺)를 세우고, 절의 이름을 칠보대사로 바꾸었다.

256) 도유나(都維那) : 유나(維那)라고도 한다. 유(維)는 강유(綱維)에서 온 한자어이고, 나(那)는 산스크리트어 갈마다나(羯磨陀那)에서 온 말로, 한자어와 범어가

을 잘 이해하고, 전에는 서울 장엄사(莊嚴寺)²⁵⁸⁾의 승려였다. 대운사 상좌(上座)²⁵⁹⁾ 명운(明惲)은 계율을 크게 불도를 닦았는데, 그 역시 서울의 승려였다. 이들 스님들은²⁶⁰⁾ 불법을 잘 지키고 도심이 매우 깊으며 즐거이 공덕을 쌓았다. 용흥사 사주는 이름이 법해인데 비록 안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지만 학식과 인품이 중원(華夏) 사람과 다르지 않다. 호탄에도 중국 절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용흥사(龍興寺)²⁶¹⁾이다. □□라 하는 중국 스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주로서 불법을 잘 지킨다. 그 스님은 하북 기주(冀州)²⁶²⁾ 사람이다. 카슈가르에도 중국 대운사가 있다. 중국 스님 한 사람이

함께 이룬 말이다. 열중(悅衆)이라 번역하기도 하는데, 승려들의 기강을 담당하고 잡무를 맡는다.

- 257) 율장(律藏) : 계율장(戒律藏)이라고도 하는데, 계율(戒律)을 기록한 경전을 가리킨다.
- 258) 장엄사(莊嚴寺) : 인수(仁壽) 3년(603) 수(隋) 문제(文帝)가 전 해에 죽은 왕후 문헌(文獻)황후를 위해 선정사(禪定寺)를 지었는데, 무덕(武德) 원년(618)에 장엄사(莊嚴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장안의 대표적인 절 중의 하나였다.
- 259) 상좌(上座) : 원래 법랍(法臘)이 높은 비구라는 의미로, 법랍이 높고 덕망(德望)을 갖추고 있으므로 승려들을 통솔하는 일을 맡는다. 본래 불교 초기부터 출가하여 수행한 순서를 증시하여 먼저 출가한 자가 덕망도 갖추었으므로 윗자리에 앉도록 한데서 유래하였다.
- 260) 여기서 대운사 소속 삼강직 승려를 모두 소개하였다. 당대 8세기 전반에 지방 주에 삼강직이 설치 운영되었음을 알려 주는 기록이다. 당대의 삼강직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좌·사주·도유나의 순서였는데, 여기서는 사주·도유나·상좌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 261) 용흥사(龍興寺) : 신룡(神龍) 원년(705)에 장안과 낙양과 전국의 모든 주에 불교와 도교 사원인 대당중흥사(大唐中興寺)·대당중흥관(大唐中興觀)을 두게 하였고(『唐會要』 권48), 신룡(神龍) 3년(707)에 중흥(中興)을 용흥(龍興)으로 바꾸게 하여 용흥사가 되었다.(『舊唐書』 권7)
- 262) 기주(冀州) :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남쪽의 형수시(衡水市)에 속하는 기주시(冀州市)이다.

주지하고 있는데, 그는 혼주(嶠州)²⁶³⁾ 사람이다.

開元十五年十一月上旬，至安西。于時節度大使趙君。且於安西，有兩所漢僧住持，行大乘法，不食肉也。大雲寺主秀行，善能講說，先是京中七寶臺寺僧。大雲寺都維那名義超，善解律藏，舊是京中莊嚴寺僧也。大雲寺上座名明憚，大有行業，亦是京中僧。此等僧，大好住持，甚有道心，樂崇功德。龍興寺主名法海，雖是漢[兒]²⁶⁴⁾生安西，學識人風，不殊華夏。于闐有一漢寺，名龍興寺。有一漢僧，[名]□□，是彼寺主，大好住持，彼僧是河北冀州人士。疎勒亦有漢大雲寺。有(一漢)²⁶⁵⁾僧住持，卽是嶠州人士。

263) 민주(嶠州):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동부 정서시(定西市)에 속하는 민현(岷縣)이다.

264) 글자의 모양과 의미로 보아 兒로 복원함

265) 떨어져 나가 보이지 않으나 의미상 一漢으로 추정됨

36. 카라샤르국

또 안서대도호부에서 동쪽으로 <2자 정도 떨어져 나감>²⁶⁶⁾ 가면 카라샤르[焉耆, Kharashar]²⁶⁷⁾ 국에 도착한다. 이곳도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왕이 있고, 백성은 호인이다. 절도 많고 스님도 많으며 소송법이 행해지고 있다.²⁶⁸⁾ <5자 정도 떨어져 나감> 이곳은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의 4진(鎭)²⁶⁹⁾에 해당되니, 이름은 첫째 안서대도호부, 둘째 호탄, 셋째 카슈가르,

266) 『대당서역기』에서는 카라샤르에서 쿠차에 이르는데 9백 리라 하고 『신당서』에서는 630리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 하루에 50리를 가는 것으로 기준하면 보름 남짓 걸리므로 ‘반월(半月)’이라는 글자가 떨어져 나갔다고 추정한다.

267) 카라샤르[焉耆, Kharashar]: 『왕』 연기(焉耆), 『대당서역기』 아기니(阿耆尼). 신장 웨이우얼자치구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동북쪽의 도시로 현재 옌지회족자치현(焉耆回族自治縣)으로 구분되어 있다. 천산산맥 남쪽 기슭에 위치하여 천산산맥 남부를 지나가는 서역북도(西域北道)가 동쪽에서 투르판 분지를 빠져나가 타림분지로 들어서는 요지에 해당하므로 서기전 1세기에는 흉노 서역 경영의 중심지가 되었고, 한족과의 사이에 쟁탈전도 벌어졌다. 최초에는 흉노의 나라였지만 서기전 59년 이후에는 한(漢)의 서역도호부였으며, 후한과 삼국시대에는 흉노와 한 사이에서 자립하여 국력을 키우기도 하였으나 당(唐) 때는 안서도호부에 속했다.

268)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카라샤르에서는 가람 백여 개 소의 승려 3천여 인이 소송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를 학습한다고 하였다.

269)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의 4진(鎭): 당대(唐代)에 서역(西域)의 네 개 지역에 설치된 군사상 중요한 진(鎭)을 말한다. 649년에 호탄·카슈가르·쿠차·카라샤르에 4진을 설치하였으나 670년에 티베트가 이 지역에 진출하자 4진을 폐지하였다. 679년에 서부 천산(天山) 지방에 쇄엽성(碎葉城)을 설치하고, 692년에 다시 안서도호부를 쿠차에 두어 호탄·카슈가르·쿠차·쇄엽을 4진으로 삼았다.

넷째 카라샤르이다. <아래 16자 정도와 다음 줄 위 3자 정도 떨어져 나감> 대체로 중국 법에 따라서, 속에 치마를 입는다.

<여기서부터 아랫부분은 떨어져 나감>

又從安西東行□□, 至焉耆國, 是漢軍兵(馬)²⁷⁰⁾領押. 有王, 百姓是胡. 足寺足僧, 行小乘法. □□□□□, 此卽安西四鎮名[數]²⁷¹⁾, 一安西 二于闐 三疎勒 四焉耆. <下缺> <上缺>[大]²⁷²⁾依漢法, 裏頭着裙.

<下缺>

719년에 투르크에게 쇄엽성을 내주고 카라샤르를 4진으로 복구하였다. 이곳 최초의 기록은 이 시기의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안서 4진은 안사난(安史亂) 이후 티베트에게 완전히 함락되었다.

270) 의미상 馬로 추정됨

271) 형태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數로 추정됨

272) 형태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大로 추정됨



一然 일연

【三國遺事「塔像」삼국유사「탑상」】



4-1 가섭불이 좌선했던 돌

[해제]

신라불교의 핵심이었던 황룡사가 오래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황룡사 자리가 과거불인 가섭불(迦葉佛)이 그곳에서 앉아 선정 수행하였던 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록한 편이다. 일연은 그 근거로 『옥룡집(玉龍集)』과 「자장전(慈藏傳)」 등을 들었다. 이에 맞추어 황룡사가 궁궐을 짓다가 사찰로 바뀐 창건 연유를 말하고, 일연 자신이 직접 황룡사를 찾아가 가섭불이 수행하였다는 돌을 살펴 보고 현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신라 불교의 오랜 인연을 증명하기 위해 『아함경』과 같은 불교 경전에 따라 겁(劫)의 시간과 과거칠불(過去七佛)의 시간을 살펴 보고, 이를 고려의 「역대가」와 『대일역법』같은 기록이나 중국의 『찬고도』에서 말하는 개벽(開闢) 등의 시간과 비교하여 불교의 시간 관념이 가장 오래됨을 말하고 불교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있다.

[역주]

가섭불이 좌선했던 돌

『옥룡집(玉龍集)』¹⁾과 자장전(慈藏傳)²⁾과 여러 집에서 전해오는 기록에

1) 『옥룡집(玉龍集)』: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도참서(圖讖書)의 하나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여러 종류의 도참서들이 도참설의 개창조로 여겨진 도선(道詵, 827~898)에게 가탁하여 『도선비기(道詵秘記)』·『도선밀기(道詵密記)』 등으로

모두 이렇게 전한다.

“신라 월성(月城)³⁾ 동쪽 용궁(龍宮)의 남쪽에 가섭불(迦葉佛)⁴⁾이 좌선했던 돌⁵⁾이 있는데 그 땅은 전불(前佛) 시대의 절터이고, 지금의 황룡사(皇龍寺) 땅이니 일곱 개 절⁶⁾의 하나이다.”

불려 전해졌다. 도선은 옥룡사에 35년간 주석하였기 때문에 도참서들이 『옥룡기(玉龍記)』나 『옥룡집』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 2) 자장전(慈藏傳) : 자장(慈藏)의 전기로는 『속고승전(續高僧傳)』 권24 자장전, 『삼국유사』의 「대산오만진신(台山五萬眞身)」편 인용의 「산중고전(山中古傳)」, 「자장정율(慈藏定律)」편의 근거자료, 『법원주림(法苑珠林)』 권64 자장조 등이 있으나, 이들 자료에는 본문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유사』 권3 「황룡사장록(皇龍寺丈六)」편과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편에는 위에서 말한 기록들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쓰여 있다. 특히 「황룡사장록」편에는 오대산에서 문수가 자장에게 부촉하면서 이 가섭불이 좌선했던 돌이 있다고 언급하였다.(後大德慈藏西學, 到五臺山, 感文殊現身授訣. 仍囑云, “汝國皇龍寺, 乃釋迦與迦葉佛 講演之地, 宴坐石猶在, 故天竺無憂王, 聚黃鐵若干斤 泛海 歷一千三百餘年, 然後乃到而國, 成安其寺, 蓋威緣使然也.”) 따라서 ‘가섭불연좌석’편의 기록이 실린 자장전은 별개의 국내자료였을 것이다.
- 3) 월성(月城) : 경북 경주시 인왕동(仁旺洞)에 있는 101년(파사왕 22)에 축조한 신라의 왕성.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반월성(半月城) 또는 월성이라 부른다. 성의 동·서·북쪽은 흙과 돌로 쌓았으며, 남쪽은 남천이 흐르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성벽 밑으로는 물이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마련한 방어시설인 해자가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임해전으로 통했던 문터가 남아 있다. 성 안에 많은 건물터가 남아있으며, 1741년에 월성 서쪽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석빙고가 있다.
- 4) 가섭불(迦葉佛) : 석가모니불을 포함하여 과거에 이미 성불한 일곱 부처 중의 한 부처. 과거 7불은 첫째 비바시불(毘婆尸佛, ㉔ Vipasīyin), 둘째 시기불(尸棄佛, ㉔ Śikhin), 셋째 비사부불(毘舍浮佛, ㉔ Viśvabūm), 넷째 구류손불(拘留孫佛, ㉔ Krakucchanda), 다섯째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㉔ Kanakamuni), 여섯째 가섭불(㉔ Kāśyapa), 일곱째 석가모니불(㉔ Śakyamuni)이다. 이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과거 장엄겁에 성불한 부처이고, 네 번째 부처부터 현재 현겁에 성불한 부처이다.
- 5) 연좌(宴坐)는 좌선을 말함. 연좌석(宴坐石)은 좌선했던 돌을 가리킴.

국사(國史)⁷⁾를 살펴보면, 진흥왕(眞興王)⁸⁾ 즉위 14년인 개국(開國)⁹⁾ 3년(553) 계유년 2월에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을 짓자 황룡(皇龍)이 그 땅에 나타나서 왕이 이상하게 여기고 고쳐서 황룡사(皇龍寺)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좌선했던 돌은 불전의 뒤쪽에 있다. 예전에 한번 뵈었더니 돌의 높이는 대여섯 자쯤 되고 둘레는 겨우 세 발¹⁰⁾이며, 깃대처럼 섰는데 꼭대기는 평평하였다. 진흥왕이 절을 창건한 이래 두 번 화재를 겪어 돌이 갈라진 곳이 있었으므로 절의 승려가 쇄를 붙여 보호하였다.

이런 찬이 있다.

불교가 쇠잔해져 햇수를 적을 수 없는데,

- 6) 신라 도성 내에 있었다는 과거불 시대의 가람 일곱 곳인데 이곳에 모두 절을 지었다. 『삼국유사』 권3 흥법 「아도기라(阿道基羅)」편에서 이 7곳이 금교(金橋) 동쪽의 천경림(天鏡林, 興輪寺), 삼천기(三川岐, 永興寺), 용궁(龍宮) 남쪽(皇龍寺), 용궁 북쪽(芬皇寺), 사천미(沙川尾, 靈妙寺), 신유림(神遊林, 天王寺), 서청전(婿請田, 曇嚴寺)이라고 하였다.
- 7) 국사(國史): 『삼국사기』를 말한다. 인용부분은 『삼국사기』 권4 진흥왕 14년조로서, 본문은 “봄2월 왕이 담당 관청에 명해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도록 하였다. 황룡이 그 땅에 나타나 왕이 의아하게 여기고 궁궐을 고쳐 절을 만들고 이름을 황룡사라고 하였다.”(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이다.
- 8) 진흥왕(眞興王): 신라 제24대 왕. 재위 540~576. 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삼맥종(三麥宗) 또는 심맥부(深麥夫). 지증왕의 손자로, 법흥왕의 아우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 김씨이며, 왕비는 박씨로 사도부인(思道夫人)이다. 백제의 땅이었던 한강 유역의 요충지를 획득하고,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다. 이어 대가야를 평정하고, 창녕에서 북한산, 마운령, 황초령에 이르는 새로 개척한 땅에 순수비를 세웠다. 화랑제도를 창시하여 젊은 인재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 9) 개국(開國): 신라 진흥왕 때의 연호. 551~567년.
- 10) 세 발: 일주(一肘)는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 끝까지의 길이로서 세 자이다. 삼주는 세 발이다.

다만 좌선했던 돌만이 의연히 남았구나.
 뽕나무 밭은 몇 번이나 푸른 바다가 되었는데,
 애처롭게도 우뚝 서서 자리 옮기지 않았구나.
 몽고 병란 이후¹¹⁾에 불전과 탑이 타버리고 이 돌도 파문혀 거의 땅과 같
 이 평평해졌다.

迦葉佛宴坐石¹²⁾

玉龍集及慈藏傳, 與諸家傳紀皆云. “新羅月城東, 龍宮南, 有
 迦葉佛宴坐石. 其地卽前佛時伽藍之墟也. 今皇龍寺之地, 卽
 七伽藍之一也.” 按國史, 眞興王卽位十四開國三年癸酉二月,
 築新宮於月城東, 有黃¹³⁾龍現其地. 王疑之, 改爲皇龍寺. 宴坐
 石在佛殿後面, 嘗一謁焉, 石之高可五六尺來, 圍僅三肘, 幢立
 而平頂. 眞興創寺已來, 再經災火, 石有析裂處, 寺僧貼鐵爲
 護. 乃有讚曰, 惠日沈輝不記年, 唯餘宴坐石依然. 桑田幾度成
 滄海, 可惜巍然尚未遷. 旣而西山大兵已後, 殿塔煨燼, 而此石
 亦夷沒, 而僅與地平矣.

『아함경(阿含經)』¹⁴⁾을 보면, 가섭불은 현겁(賢劫)¹⁵⁾의 세 번째 부처로서,

-
- 11) 서산대병(西山大兵)은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의 침공을 말한다. 특히 고종 25년
 (1238)년의 침공 때는 경주까지 공격하여 황룡사구층탑을 불태웠다.
- 12) 『삼국유사』 탑상편 원문 대본은 韓6 p.313b1~339c9.
- 13) 원본의 皇은 黃이 맞다.
- 14) 『아함경(阿含經)』: 불교 경전 가운데 아함부에 속하는 소승(小乘) 경전. 주요 사
 상은 사제(四諦)와 연기(緣起)로 요약할 수 있다. 아함경에는 『장아함경(長阿含
 經)』·『중아함경(中阿含經)』·『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잡아함경(雜阿含經)』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곳에서 인용한 내용은 『장아함경』에서 전거를 찾을 수
 있다. 『장아함경』 권1에 과거칠불(過去七佛)의 출현시기와 인간의 수명 등을 설
 하고 있다. 제1 비바시불(毘婆尸佛)은 과거 91겁시에 사람의 수명 8만세 때 출현

사람의 수명이 2만 세일 때에 세상에 출현한다고 한다. 이것에 근거하여 중감법으로 계산하면, 매번 성겁(成劫)¹⁶⁾의 처음에는 모두 수명이 한 없이 길었는데, 점차 줄어서 수명이 8만 세일 때에 이르면 주겁(住劫)¹⁷⁾의 처음이 된다. 이로부터 다시 백 년에 1년씩 줄어 수명이 10세일 때에 이르는 것이

하며, 제2 시기불(尸棄佛)은 과거 61겁, 사람 수명 7만세 때에, 제3 비사바불(毘舍婆佛)은 과거 31겁, 사람 수명 6만세 때에, 제4 구류손불(拘樓孫佛)은 현겁(賢劫), 사람 수명 4만세 때에, 제5 구나함불(拘那含佛)은 현겁, 사람 수명 3만세 때에, 제6 가섭불(迦葉佛)은 현겁, 사람 수명 2만세 때에, 제7 석가불(釋迦佛)은 현겁, 사람 수명 100세 때에 출현한다고 하였다.

- 15) 현겁(賢劫) : ㉔ bhadra-kalpa, 삼겁(三劫)의 하나. 겁(劫, ㉔ kalpa)이란 음역어인 겁파(劫波), 갈랍파(羯臘波) 등의 약칭이다. 본래 ‘분별(分別)’의 뜻을 가진 말로서 ‘극대(極大)의 시한(時限)’을 가리키는 말이다. 겁의 종류는 경전마다 차이가 있다. 현겁은 현재주겁(現在住劫)을 말하며, 현겁(現劫)이라고도 한다. 천불현성(千佛賢聖)의 많은 현인이 출현하므로 현겁(賢劫)이라고 한다. 이 겁에는 1천 불이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구류손불, 구나함불, 가섭불, 석가불 등이 현겁에서 이미 성불한 과거불이다. 사람의 수명이 8만 4천세에서 1세로 감소하였다가(減) 다시 증가하는(增) 1갑1증을 1소겁(小劫)이라 하고, 그 시간은 『구사론』 등에 의하면 1680만 년이라 한다. 이 1소겁을 20차례 되풀이하는 동안 세계가 성립되는(成劫) 중겁(中劫)의 시간이 된다. 다음 20겁 동안 머물러 있고[住劫], 다음 20겁 동안 무너지고[壞劫], 다음 20겁 동안 텅 비어[空劫] 있다. 이 성·주·괴·공겁을 다 지나는 것을 1대겁(大劫)이라 한다. 과거의 대겁을 장엄겁(莊嚴劫), 현재의 대겁을 현겁, 미래의 대겁을 성수겁(星宿劫)이라 한다.
- 16) 성겁(成劫) : 사겁(四劫)의 하나. 사겁은 성겁(成劫)·주겁(住劫)·괴겁(壞劫)·공겁(空劫)이다. 이중에서 성겁은 세계가 파괴되어 없어진 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세계가 생기고 인류가 번식하는 기간이다. 이 세계가 완전히 파괴된 후 정업(情業)의 증상력(增上力)으로 미풍이 생기고, 풍륜·수륜·금륜이 생기며, 금륜 위에 수미산·칠금산·사대주가 생겨 사람들이 살 곳이 생기고 사천왕천·도리천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 17) 주겁(住劫) : 사겁의 하나. 사겁 중에서 주겁은 중생들이 사는 여러 차별의 세계인 기세간(器世間)과, 부처가 교화할 대상인 중생들의 세계인 중생세간(衆生世間)이 평온하게 지속되어 인류가 세계에 안주하는 기간이다.

1감(一減)이며, 다시 늘어나 사람의 수명이 8만 년인 때에 이르면 것이 1증(一增)이다. 이와 같이 하여 20감 20증이 되면 1주겁이 된다. 이 1주겁 중에 천불(千佛)이 세상에 출현하는데, 지금 본사(本師)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은 네 번째 부처이다. 네 부처는 모두 제9감 중에 나타난다. 수명이 100세인 석가세존으로부터 2만세인 가섭불에 이르기까지는 2백만여 년이며, 현겁의 처음 제1존인 구류손불(拘留孫佛)¹⁸⁾ 때까지가 또 수만 년이다. 구류손불 때부터 위로 겁의 처음 수명이 한없이 길 때까지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석가세존으로부터 지금 지원(至元)¹⁹⁾ 18년(1281) 신사년까지는 벌써 2천 2백 30년이니,²⁰⁾ 구류손불로부터 가섭불 때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수만 년이 된다.

按阿含經，迦葉佛是賢劫第三尊也，人壽二萬歲時，出現於世。據此以增減法計之，每成劫初，皆壽無量歲，漸減至壽八萬歲時，爲住劫之初。自此又百年，減一歲，至壽十歲時，爲一減，又增至人壽八萬歲時，爲一增。如是二十減二十增，爲一住劫。此一住劫中，有千佛出世，今本師釋迦，是第四尊也。四尊皆現於第九減中。自釋尊百歲壽時，至迦葉佛二萬歲時，已得二百萬餘歲，若至賢劫初第一尊拘留孫佛時，又幾萬歲也。自拘留

18) 구류손불(拘留孫佛) : ㉔ Krakucchanda-buddha, 과거 7불 중 네 번째 부처이며, 현겁 천불의 첫 번째 부처이다. 사람들의 수명이 4만세 때에 출현하며 시리사나무 아래서 성도하여 한번에 4만명의 제자를 교화한다고 한다.

19) 지원(至元) : 원(元)나라 세조(世祖) 때의 연호, 1264~1294년. 고려 원종 5년~충렬왕 20년.

20) 이로부터 역으로 계산하면 '석가세존으로부터'는 서기전 949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 된다. 이는 부처가 입멸한 해를 기준으로 한(佛滅紀元) 것이다. 이 연대가 중국과 우리나라 등 북방불교에서 사용해 온 전통 불기(佛紀)이다. 그러나 지금은 1956년 세계불교대회 결의에 따라 전세계 불교계가 공통으로 남방 전래 설에 따른 서기전 544년설을 사용한다.

孫佛時, 上至劫初無量歲壽時, 又幾何也. 自釋尊下, 至于今至元十八年辛巳歲, 已得二千二百三十矣, 自拘留孫佛, 歷迦葉佛時, 至于今, 則直幾萬歲也.

우리 고려의 명사인 오세문(吳世文)²¹⁾이 「역대가(歷代歌)」를 지어, 금(金)나라 정우(貞祐)²²⁾ 7년(1219) 기묘년으로부터 거꾸로 셈하여 4만 9천 6백여 년에 이르면, 반고(盤古)²³⁾가 천지개벽한 무인년이 된다고 하였다. 또 연희궁(延禧宮)²⁴⁾ 녹사(錄事)²⁵⁾ 김희령(金希寧)이 지은 『대일역법(大一曆法)』에서는 개벽한 상원(上元) 갑자(甲子)²⁶⁾년으로부터 원풍(元豐)²⁷⁾ 갑자(甲子, 1084)년까지를 1백 93만 7천 6백 41년이라고 하였다. 또 『찬고도(纂古圖)』²⁸⁾에는 개벽에서 획린(獲麟, 서기전 477)²⁹⁾에 이르기까지를 2백 7십 6

21) 오세문(吳世文): 고려 의종~고종 때의 인물. 의종 6년(1152)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명종 때 벼슬이 동각시학(東閣侍學)에 이르렀다.

22) 정우(貞祐): 금(金)나라 선종(宣宗) 때의 연호. 1213~1217년. 그런데 정우는 5년에 끝나므로, 정우 7년은 흥정(興定) 3년이며 고려 고종 6년에 해당한다.

23) 반고(盤古): 천지가 생겨날 때 나타났다는 중국의 전설적인 신. 세계가 혼돈 상태에 있을 때 태어나 반고가 자라나면서 하늘과 땅도 점점 멀리 떨어져 1만 8천 년이 지나 지금과 같은 하늘과 땅이 되었다고 한다.

24) 연희궁(延禧宮): 고려 명종(明宗, 1170~1197 재위)이 장공주를 연희궁주에 봉하였다. 이와 관련된 관청으로 생각된다.

25) 녹사(錄事): 고려시대 각 관부의 이속(吏屬)으로 두었던 관직. 대개 7~9품에 해당하였다.

26) 상원(上元) 갑자(甲子): 시대 변화의 큰 단위로 잡는 세 묶음의 육십갑자. 180년 이면 도수가 다 하여 근본에 돌아온다고 한다. 그중 첫째 갑자의 60년을 상원, 그 다음 60년을 중원(中元), 그 다음 60년을 하원(下元)이라고 한다.

27) 원풍(元豐):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의 연호. 1078~1085년. 고려 문종 32년~선종 2년.

28) 찬고도(纂古圖): 중국에서 상고의 역사를 말하는 책 중에 개벽에서 획린까지를

만년이라고 하였다. 여러 경을 보면, 가섭불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이 연좌석의 수명이 된다고 하였으니 오히려 겁의 처음에 개벽할 때로부터의 시간이 어린아이 정도가 된다. 세 가지 설이 오히려 이 어린아이 돌의 나이에 도 미치지 못하니, 개벽의 이야기에는 한참 멀 뿐이다.

有本朝名士吳世文，作歷代歌，從大金貞祐七年己卯，逆數至四萬九千六百餘歲，爲盤古開闢戊寅。又延禧宮錄事金希寧所撰大一曆法，自開闢上元甲子，至元豐甲子，一百九十三萬七千六百四十一歲。又纂古圖云，開闢至獲麟，二百七十六萬歲。按諸經，且以迦葉佛時至于今，爲此石之壽，尙距於劫初開闢時爲兒子矣。三家之說，尙不及茲兒石之年，其於開闢之說，疎之遠矣。

276만년으로 말하는 것은 원명포(元命苞)나 건착도(乾鑿度)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後漢書』 권12 律歷志)

- 29) 획득(獲麟): 춘추시대 애공(哀公) 14년(서기전 477)에 봄에 “서쪽으로 사냥을 갔다가 기린을 잡았다”(西狩獲麟)고 한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서기전 477년을 가리킨다. 공자가 『춘추(春秋)』를 정리하면서 이 기사에서 마쳤으므로 절필(絶筆)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천지가 개벽한 때로부터 『춘추』의 끝까지 곧 인류 상고의 역사를 의미한다.

4-2 요동성의 아쇼카왕탑

[해제]

당의 도선(道宣)이 쓴 『집신주삼보감통록』에 나오는 요동성의 아쇼카왕탑을 소개한 글이다. 고구려왕이 발견하고 확인한 이 아쇼카왕탑은 흙으로 만든 삼층탑으로 그 안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명문이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왕은 후에 목조 칠층탑을 만들었으나 오래 되어 썩었다고 하였다. 또한 요동에는 고구려 후기에 오래된 불상도 있었음을 고구려와 당 전쟁에 참가한 중국의 설인귀(薛仁貴)의 말을 빌려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대 고증이 뒤따랐고, 천하에 팔만 사천탑을 만들었다는 아쇼카왕의 조탑 설화를 들어 이들이 사실임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역주]

요동성의 아쇼카왕탑

『삼보감통록(三寶感通錄)』³⁰⁾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다.

30) 『삼보감통록(三寶感通錄)』: 당의 불교사가(佛教史家) 도선(道宣, 596~667)이 인덕(麟德) 원년(664)에 쓴 책.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또는 『감통록(感通錄)』이라고도 한다. 3권으로 되어 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후한(後漢)에서 저자가 살던 당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탑·절·불상·경전·승려에게 나타난 150여 건의 감통 관련 사적과 기록을 모은 책이다. 본문에 인용된 부분은 위 『삼보감통록』 권상의 잡명신주산천장보등연20(雜明神州山川藏寶等緣

고구려의 요동성(遼東城)³¹⁾ 곁에 있는 탑³²⁾은 옛날 노인들이 전하여 말하기를, “옛날 고구려의 성왕(聖王)³³⁾이 국경을 순행하다가 이 성에 이르렀는데, 오색구름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구름 속을 찾아보니 한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는) 다가가면 문득 사라지고 멀리서 보면 다시 나타났다. 곁에 삼층으로 된 흙으로 만든 탑이 있었는데 위는 가마솥을 엮어 놓은 것과 같았으나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가서 찾아보았으나 다만 거친 풀만 있을 뿐이었다. 한 길 파보았더니 지팡이와 신발이 나왔다. 또 파더니 명문이 나왔는데 위에 산스크리트어[梵語]³⁴⁾로 된 글이 있었다. 시종하던 신하가 알아보고 ‘이것은 불탑입니다.’라고 하였다.

二十, 목록 이름. 내용에서는 雜明神州山澤所藏)과 권중의 당요구산봉자연출상연 50(唐遼口山崩自然出像緣五十)에서 가져온 것이다.

- 31) 요동성(遼東城): 중국 요녕성(遼寧省) 요양(遼陽) 부근에 있던 고구려 성. 한(漢) 나라 때 요동군의 군치(郡治)인 양평현(襄平縣)이 있다. 요하 일대에서 가장 견고한 고구려의 요새로서 수나라 대군의 침공 때도 맹렬한 공격을 막아냈던 요새였다.
- 32) 평안남도 순천군 용봉리 방촌에서 발견된 요동성총(遼東城塚)에는 요동성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는데 성 바깥에 탑을 묘사하였다. 이 그림은 사다리 모양으로 기단을 그렸으며, 그 위에 문을 단 탑신과 지붕의 모습이 2층까지 남아 있다 (원래의 층수는 윗부분 마멸로 알 수 없다). 사다리 또는 층계를 묘사한 부분과 등불을 단 기둥 같은 것도 그려서 전체적으로 목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항목에서 말하는 요동성 목탑은 요동성총의 탑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 33) 성왕(聖王): 고구려에서 성왕(聖王)으로 칭해진 왕으로는 동명성왕(東明聖王, 재위 서기전 37~서기전19)과 광개토왕(廣開土王, 재위 381~413)의 예가 있다. 동명성왕은 시기적으로 불교가 수용되기 훨씬 전이라서 거리가 멀고, 광개토왕은 시기적으로 그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왕이란 일반적으로 왕을 칭송하는 말이므로 반드시 광개토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글의 후반부에 “후에 불법이 들어오면서” 라고 한 것을 보면 성왕은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소수림왕 이전의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34) 범어(梵語)는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

왕이 자세히 묻자 대답하기를, ‘한(漢)나라에 있던 것인데 그 이름은 포도(蒲圖)³⁵⁾〈본래 휴도왕(休屠王)³⁶⁾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쓴 금인(金人)³⁷⁾이라고 하였다.³⁸⁾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³⁹⁾ 그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 칠층 목탑을

35) 포도(蒲圖) : ㉠ buddha를 한자로 번역한 여러 말 중의 하나. 일반적으로 불타(佛陀)라는 역어가 가장 널리 쓰였지만 부도(浮屠), 불도(佛圖), 포도, 휴도(休屠)라고도 썼다.

36) 휴도왕(休屠王) : 휴도는 ㉠ buddha를 한자로 번역한 여러 말 중의 하나로서 불타(佛陀)를 말한다. 한역 초기에 쓰였다. 그래서 부처를 가리키는 말인데 때로는 승려를 지칭하는 데도 쓰였다. 불교가 중국에 수용되기 전에 흉노를 정벌하고 불상을 들여온 사실을 기록한 『사기(史記)』 흉노열전(권110)의 “흉노를 쳐서… 휴도왕이 하늘에 제사지낸 금인을 얻었다(擊匈奴, 得胡首虜騎萬八千餘級, 破得休屠王祭天金人)”는 기록이나 『한서(漢書)』 광거병(霍去病)열전(권55)에 “휴도가 하늘에 제사지낸 금인을 가져왔다(收休屠祭天金人)”는 기록의 휴도왕 또는 휴도는 흉노의 왕을 가리킨다. 그러나 휴도는 승려나 불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위략(魏略)』 서이전(西夷傳)에 “박사 제자 경헌이 대월지국 사자 이준으로부터 휴도경을 구전해 받았다(哀帝元壽元年, 博士弟子景憲, 受大月氏王使伊存口傳休屠經.)”는 부분의 휴도경이란 불경을 말하기 때문에 휴도는 불타를 가리킨다. 이곳의 일연 세주는 포도를 불타로 파악하지 않고 휴도왕으로 생각한 데서 불인 주이므로 불탑을 말하는 이 부분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다.

37) 금인(金人) : 부처. 또는 불상을 말한다.

38) 이 부분의 주는 『삼보감통록』에는 없는 것으로 『삼국유사』에서 불인 것이다. 『삼국유사』는 이 주를 앞의 ‘포도왕’ 뒤에 붙여 “한나라에 있던 것인데 그 이름은 포도왕입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불탑에 대한 문답으로 이루어진 문맥으로 볼 때 위에 제시한 번역문과 같이 “한나라에 있던 것인데 그 이름은 포도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로 인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휴도왕이 하늘에 제사지낼 때 쓴 금인(金人)이란 『사기(史記)』 흉노전(匈奴傳)·광거병전(霍去病傳)과 『한서(漢書)』 김일제전 등에 보이는 말로서, 한의 광거병이 흉노를 정벌하고 ‘금인(金人)’을 노획한 사실을 말한다. 이는 전한 때 전쟁을 통해 중국에 불상이 전래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주는 이것을 불탑을 말하면서 인용하고 있다.

39) 주8)에서 말한 것처럼 ‘왕(王)’을 세주의 앞에 두는 것보다 뒤에 붙여 해석하는 것이 『삼보감통록』의 원 뜻과 문맥상의 흐름에 타당하다.

세웠는데, 뒤에 불법이 비로소 전해지자 전말을 모두 알게 되었다. 지금 다시 높이가 줄어들어 목탑이 썩어서 무너졌다. 아쇼카왕(阿育王)⁴⁰⁾이 통일한 염부제주(閼浮提洲)⁴¹⁾에는 곳곳에 탑을 세웠던 것이니 이상할 것이 없다.⁴²⁾ 또 당나라 용삭(龍朔)⁴³⁾ 연간에 요동의 왼쪽에서 전쟁이 있을 때, 행

40) 원문의 육왕(育王)은 아쇼카왕(𑀘𑀓𑁆𑀭𑀯𑀭𑀮 Aśoka, 阿育王)을 말한다. Aśoka를 아육왕(阿育王)이라 음역하고 무우왕(無憂王)이라 의역한다. 서기전 268~232년경 재위. 인도 마우리아왕조의 제3대왕.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를 보호한 왕. 즉위 초에는 폭정을 일삼았으나 영역을 크게 넓히고 불교에 귀의하여 선정을 베풀었으며 진리를 애호하고 박애정신을 가진 이로써 인도 역사에서 변영의 시대를 연 왕이다. 불교계의 진승에는 왕의 재위 기간동안 전국에 8만 4천 개의 절과 탑을 세웠고 제3차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통치 영역 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불법을 전도하였으며, 불적지 곳곳에 마애법칙을 새긴 석주(Aśoka's pillar)를 세우고 바위에 새겨 정법(正法)을 선포하였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어 불교 유적의 명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석주에는 특별 사면을 행하고 살생을 금하며 보시를 행하고 길 옆에는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는 등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한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 추앙되었다.

41) 염부제주(閼浮提洲): 염부제는 𑀘𑀓𑀢𑀺𑀓𑀭𑀯 Jambu-dvīpa의 음역어. 수미산의 남쪽에 있는 대륙. 섬부제주(瞻部提洲)·염부제비바주(閼浮提鞞波洲)·예주(穢洲)·예수주(穢樹洲) 등으로도 쓴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인간 세상을 동·서·남·북의 넷으로 나눌 때 남쪽의 땅을 말한다. 여기에 16 대국, 500 중국, 10만 소국이 있다고 하며, 부처가 출현하는 것은 오직 이 남염부제뿐이라 한다. 원래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후에 인간 세계를 말하게 되었다.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흔히 남섬부주(南瞻部洲)라고도 한다.

42) 이 대목은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권상의 20 잠명신주산택소장(雜明神州山澤所藏)에 나오는 내용이다.(大52 p.409a24~b4. 二十 雜明神州山澤所藏 高麗遼東城傍塔者, 古老傳云, 往昔高麗聖王, 出見案行國界, 次至此城, 見五色雲覆地, 即往雲中, 有僧執錫住立. 既即便滅, 遠看還見. 傍有土塔三重, 上如覆釜, 不知是何. 更往覓僧, 唯有荒草. 掘深一丈, 得杖并履, 又掘得銘, 上有梵書. 侍臣識之云, 是佛塔. 王委曲問, 答曰, 漢國有之, 彼名蒲圖. 王因生信, 起木塔七重, 後佛法始至, 具知始末. 今更損高, 本塔朽壞, 斯則育王所統一閼浮洲, 處處立塔, 不足可怪.) 몇 글자의 차이가 있다.

43) 용삭(龍朔): 당(唐) 고종(高宗)의 연호. 661~663년. 신라 문무왕1~3년.

군(行軍)⁴⁴⁾ 설인귀(薛仁貴)⁴⁵⁾가 수(隋)나라 왕이 토벌했던 요동의 옛 땅에 이르러 산에 있는 불상을 보았는데, 텅 비고 쓸쓸하여 왕래가 끊어졌다. 노인에게 물으니 “이것은 선대에 나타난 것입니다.”고 하니, 곧 그대로 그려서 서울로 돌아왔다.⁴⁶⁾ 〈모두 우자함(右字函)⁴⁷⁾에 있다.〉라고 하였다.

전한(前漢)⁴⁸⁾과 삼국(三國)의 지리지(地理志)⁴⁹⁾를 살펴보면 요동성은 압

-
- 44) 행군(行軍):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에 의하면, 설인귀가 신라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에 스스로를 ‘행군총관설인귀(行軍總管薛仁貴)’라 칭하고 있어 그가 행군총관의 직책을 가진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시기(661~663경)에 그가 이미 행군총관의 직책에 있었는지는 다른 곳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행군~’은 전쟁 시 임시로 주어서 군대를 지휘하게 한 직책이었다.
- 45) 설인귀(薛仁貴): 당(唐)나라 장수. 강주(絳州) 용문(龍門: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피산현(稷山縣)) 사람이다. 태종·고종 때 거란·돌궐을 토벌하고,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가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자 검교안동도호(檢校安東都護)로 취임했다. 문무왕 11년(671) 계림도행군총관(鷄林道行軍總管)으로 신라를 침공하였으며, 675년 신라의 천성(泉城)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다시 침략했으나 소부리(所夫里)의 기벌포(伎伐浦)에서 패했다. 681년 과주자사(瓜州刺史)·대주도독(代州都督)으로 임명되었다. 뒤에 본위대장군(本衛大將軍)으로 임명되고 평양군공(平陽郡公)에 봉해졌다.
- 46)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권중 당요구산봉자연출상연50(唐遼口山崩自然出像緣五十)을 그대로 옮겼는데 몇 글자 차이가 있다. 大52 p.423a8~11. (五十 唐龍朔中, 有事遼左, 行軍將薛仁貴, 行至隋主, 討遼古地, 乃見山像, 空曠蕭條, 絕於行往, 討問古老, 云是先代所現, 便圖寫, 傳本京師云云.)
- 47) 약자함(若字函): 『삼보감통록』이 들어 있는 고려대장경의 함(函)을 말하는 것인데, 대장경은 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천자문의 글자 순서대로 매겼다. 그런데 지금 전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에서 『삼보감통록』은 약(若)자함이 아닌 우(右)자함에 들어있다. 약자함은 283번째이고 우자함은 465번째이다. 따라서 ‘우함(右函)’의 잘못된 글자로 보아야 한다.
- 48) 서한(西漢): 전한(前漢, 서기전 206~서기8). 한(漢)은 약 400년에 걸쳐 존속했는데, 전한과 후한(서기 25~219) 사이에 외척 왕망(王莽)이 잠시 나라를 세워 신(新, 서기 8~25)이라 하였다. 전한은 수도가 장안(長安)이었고, 후한은 낙양(洛

록강의 바깥에 있어 한(漢)의 유주(幽州)⁵⁰⁾에 속한다. 고구려의 성왕(聖王)은 어느 임금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동명성제(東明聖帝)⁵¹⁾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동명왕은 전한(前漢) 원제(元帝) 건소(建昭) 2년(서기전 37)에 즉위하여 성제(成帝) 홍가(鴻嘉) 임인년(서기전 19)에 승하(昇遐)⁵²⁾하였다. 그때는 한나라에서도 패엽(貝葉)⁵³⁾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외의 제후의 신하가 벌써 범어로 된 글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부처를 포도왕이라 칭하였으니, 아마 전한 때에 서역(西域)⁵⁴⁾의 문자를 혹시 아는

陽)이었다. 수도의 위치에 따라 전한은 서한(西漢), 후한은 동한(東漢)이라 한다.

49) 『한서(漢書)』와 『삼국지(三國志)』의 지리지를 말하나, 『삼국지』에는 지리지가 없다. 『한서』 지리지에 “요동군은 유주에 속한다(遼東郡 秦置 屬幽州 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 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 縣十八)”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권37 지리지에는 “한서의 지에서 요동군은 낙양에서 3600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漢書志云 遼東郡 距洛陽三千六百里)”라고 하였다.

50) 유주(幽州): 지금의 산둥성·하북성·요녕성 일대. 전한의 유주는 요동군·낙랑군·현도군 등 10여군을 관할하였다.

51) 동명성제(東明聖帝):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東明王)

52) 승하(升遐): 임금 등 높은 사람이 죽은 것을 높여 이르는 말.

53) 패엽(貝葉): 패다라엽(貝多羅葉)의 약칭. 패다라수(貝多羅樹, ^ṣpāttra)의 잎을 말한다. 이 잎은 크고 두꺼워 옛날 인도에서 종이가 많이 쓰이기 이전에 불경을 새기는데 쓰였다. 또 서사(書寫)하기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다라수(多羅樹 ^ṣtāla)라 한다. 다라수의 잎은 길고 재질이 조밀하여 서사용에 적합하다. 잎을 잘 말려 적절한 크기로 잘라 침이나 칼 철틀 등 날카로운 재질로 잎의 면에 경전 글을 새기고 그을린 다음 그 위에 먹을 묻혀 닦아 내면 잎 면에 새겨낸 자국이 남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만든 경전을 패엽경(貝葉經)이라 한다.

54) 서역(西域): 넓은 의미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대개 지금의 신강성 천산남로 지방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인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서역은 일정한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불교사에서는 인도에서 육로로 불교가 전해진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 초기인 서기전 3세기에는 대월지국(大月氏國) 통치하의 대하(大夏)와 아프가니스탄 일부, 카슈미르, 안식국(安息國) 범위에 있던 페르시아 북부, 강거국(康居國) 범위에 있던 소그디니아 등

사람이 있어서 범어로 된 글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옛 전승을 살펴보면,⁵⁵⁾ 아쇼카왕이 귀신의 무리에게 명하여 9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탑 하나를 세우게 하였는데, 이같이 하여 이 염부제 세상⁵⁶⁾ 안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우고 큰 돌 안에 숨겨두었다고 한다. 지금 곳곳에서 상서로움이 나타남이 한 돌이 아니니, 대개 진신사리란 감응을 헤아리기 어렵다.

찬한다.

아쇼카왕의 보탑은 세상에 두루 퍼졌는데,

비에 젖고 구름에 덮여 이끼로 얼룩졌네.

그때의 나그네 안목을 상상해보면

몇 사람이나 신에 제사 지낸 무덤을 가리켰을까?

의 여러 나라를 말한다. 불교와 관련 있는 나라들은 파미르고원 서쪽의 월지국(투르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부), 안식국, 강거국(투르키스탄 북부, 시베리아 남부), 간다라, 계빈국(카슈미르), 파미르고원 동쪽의 호탄, 쿠차, 카슈가르, 투르판 등을 말한다.

- 55) 『삼보감통록』 서두의 「초명사리표탑(初明舍利表塔)」에 부처가 결행을 할 때 어린애가 길가에서 놀다 부처를 위해 흙으로 음식을 만들어 부처에게 공양하였는데 그 인연으로 부처 입멸 후 1백년에 왕으로 태어나 귀신들을 시켜 8만 4천 탑을 만들게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권상 大52 p.404a19~25.昔如來行乞 有童子戲於路側 以沙土爲米麪 逆請以土麪奉 佛因爲受之 命侍子以爲土漿 塗佛住房 足遍南面 記曰 此童子者 吾滅度後一百年 王闍浮提空中地下四十里內 所有鬼神並皆臣屬 開前八塔所獲舍利 於一日夜役諸鬼神造八萬四千塔 廣如衆經 故不備載) 또 법림(法琳)이 편찬한 『파사론(破邪論)』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권상 大52 p.484c1~4. 東天竺國有阿育王 收佛舍利 役使鬼兵散起八萬四千寶塔 遍闍浮提 我此漢地九州之內 並有寶塔” 이 아쇼카왕 불탑 건립 이야기는 여러 불전에 널리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고전(古傳)’ 이 어떤 책을 가리키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 56) 원문의 염부제(閻浮界)는 염부제주 곧 수미산 남쪽에 있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말한다.

遼東城育王塔

三寶感通錄載. 高麗遼東城傍塔者, 古老傳云, “昔高麗聖王, 按行國界, 次至此城, 見五色雲覆地, 往尋雲中, 有僧執錫而立. 旣至便滅, 遠看還現. 傍有土塔三重, 上如覆釜, 不知是何. 更往覓僧, 唯有荒草. 掘尋一丈, 得杖并履, 又掘得銘, 上有梵書. 侍臣識之云“是佛塔.”王委曲問詰, 答曰, “漢國有之, 彼名蒲圖王(本作休屠王祭天金人.).”因生信, 起木塔七重, 後佛法始至, 具知始末. 今更損高, 本塔朽壞. 育王所統一閭浮提洲, 處處立塔, 不足可怪.

又唐龍朔中, 有事遼左, 行軍薛仁貴, 行至隋主討遼古地, 乃見山像, 空曠蕭條, 絕於行往. 問古老云, “是先代所現.”便圖寫來京師(具在右⁵⁷⁾函.)

按西漢與三國地理志, 遼東城在鴨綠之外, 屬漢幽州. 高麗聖王, 未知何君. 或云東明聖帝, 疑非也. 東明以前漢元帝建昭二年卽位, 成帝鴻嘉壬寅升遐. 于時漢亦未見貝葉, 何得海外陪臣, 已能識梵書乎. 然稱佛爲蒲圖王, 似在西漢之時, 西域文字或有識之者, 故云梵書爾.

按古傳, 育王命鬼徒, 每於九億人居地, 立一塔, 如是起八萬四千於閭浮界內, 藏於巨石中. 今處處有現瑞非一, 蓋真身舍利, 感應難思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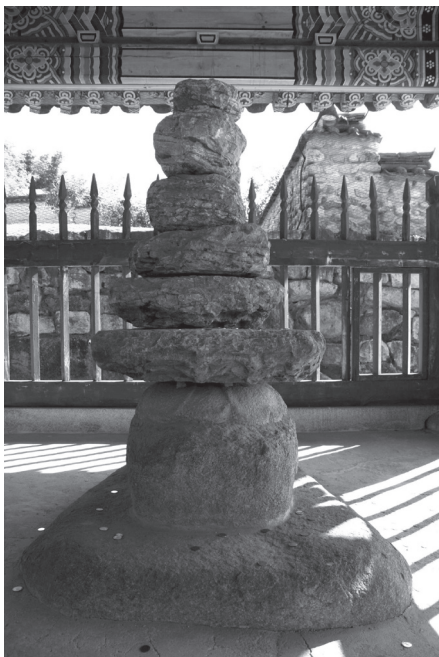
讚曰 育王寶塔遍塵寰, 雨濕雲埋薜蘿斑. 想像當年行路眼, 幾人指點祭神壇.

57) 원문의 若은 右의 오자

4-3 금관성의 파사석탑

[해제]

옛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김해 지방에 있던 석탑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는 이 석탑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재료인데다 형태도 특이하여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왔다. 이 편에서는 가야의 첫째 왕인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許黃玉)이 가야에 올 때인 42년에 고향인 서역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가야 남방 불교 전래설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석탑의 형태도 인도의 것과 차이는 있다. 그래서 찬자 일연도 이때의 불교 도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452년의 사찰 창건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허황옥이 가야에 올 때 생겨났던 일화와 유적들을 아울러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일연이 삼국 중심으로 불교를 이해할 때 가야의 불교 역시 삼국과 연관 관계 속에서 전래와



김해 파사석탑

유포 시기를 고려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다.

[역주]

금관성의 파사석탑

금관주(金官州)⁵⁸⁾ 호계사(虎溪寺)⁵⁹⁾의 파사석탑(婆娑石塔)⁶⁰⁾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金官國)⁶¹⁾이었을 때, 세조(世祖) 수로왕(首露王)⁶²⁾의 비 허

58) 금관주(金官州): 경상남도 김해시를 말한다. 가야의 왕도로서 처음에 가락국(駕洛國) 또는 가야(伽倻)라고 하고 후에 금관국(金官國)이라 하였는데 신라 법흥왕 때 신라에 합쳐져 금관군이라고 하였고 문무왕 때 금관소경(金官小京, 『삼국사기』지리지에는 金海小京)을 두었다가 고려 성종 때 금주(金州)가 되었다.(『高麗史』 권57 地理志 金州) 이처럼 지리지 자료에는 금관주라는 명칭은 없다. 그런데 『삼국유사』가락국기편 세주에 금관지주사(金官知州事) 문인(文人)이 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 일연 당시에 금관주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9) 호계사(虎溪寺): 경상남도 김해군에 있던 절. 김해부 중심을 흐르던 호계(虎溪) 근처에 있던 절로 생각된다. (“호계: 부성(府城) 북편에 있다. 물의 근원이 분산(盆山)에서 나오며, 남쪽으로 강창포(江倉浦)에 들어간다. 강창포 부 남쪽 6리 지점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金海都護府 山川)

60) 파사석탑(婆娑石塔): 파사는 너울거리는 모양이나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를 말한다. 또 산스크리트어인 𑖣𑖰𑖔𑖹 vasa를 번역한 말로 쓰였는데, 그 의미는 머문다는 뜻이다.

61) 금관국(金官國): 가야 연맹의 초기 중심 국가였던 금관가야. 김해 지방에 있었다. 532년에 신라에 병합당하였다.

62) 세조(世祖) 수로왕(首露王): 가야의 시조 수로왕. 가야 지방에 9간이 사람들을 이끌고 살고 있었는데, 구지봉의 신탕이 있는 후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땅이 드리워져 내려와 하늘로부터 드리워져 그 끝에서 금합에 든 황금색 알 여섯 개를 얻었다. 다음날 함을 열어 보니 여섯 아이로 변해 있어 공경하다가 보름날 와에 추대하고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수로(首露)라고 이름하고 다른 사람들도 각기 다섯 가야의 왕이 되었다고 하였다.(『삼국유사』 권2 駕洛國記) 이 기록에는 서기 42년에 즉위하여 199년에 158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하였다.

왕후(許皇后)⁶³⁾ 황옥(黃玉)이 후한(後漢)⁶⁴⁾ 건무(建武)⁶⁵⁾ 24년(48) 무신년에 서역(西域)⁶⁶⁾ 아유타국(阿踰陀國)⁶⁷⁾에서 신고 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가 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 동으로 향하다가 파도의 신[波神]의 노여움에 방해를 받아 가지 못하고 돌아가 부왕에게 아뢰니 부왕이 이 탑을 신고 갈 것을 명하였다. 그제서야 순조로이 바다를 건너 (금관국의) 남쪽 해안에 와서 정박하였다. (배에) 붉은 돛과 붉은 깃발과 주옥(珠玉)의 아름다움이 있어 지금 (그곳을) 주포(主浦)⁶⁸⁾라고 하고, 처음 산등성이 위에서 비단바지를 벗던 곳⁶⁹⁾을 능현(綾峴)⁷⁰⁾이라 하며, 붉은 기가 처음 해안에 들

-
- 63) 허왕후(許皇后): 가야 시조 수로왕의 비. 본래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서 성은 허(許)씨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인데 부왕과 모후가 꿈에 상제(上帝)로부터 하늘이 내려보낸 수로의 배필을 삼게 하라고 하여 배를 타고 와서 가야에 이르렀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2 駕洛國記) 이 기록에 따르면 서기 48년에 가야에 와서 왕비가 된 때가 16세였으며, 189년에 157세로 죽었다고 하였다.
- 64) 원문의 동한(東漢)은 후한(後漢, 25~219)을 말한다. 한(漢)은 약 400년에 걸쳐 존속했는데, 전한(서기전 206~서기 8)과 후한 사이에 외척 왕망(王莽)이 잠시 나라를 세워 나라 이름을 신(新, 서기 8~25)이라 하였다. 전한은 수도가 장안(長安)이었고, 후한은 낙양(洛陽)이었다. 수도의 위치에 따라 전한은 서한(西漢), 후한은 동한(東漢)이라 한다.
- 65) 건무(建武):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연호. 25~56년. 신라 유리왕 2~33년에 해당한다.
- 66) 서역(西域): 넓은 의미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대개 둔황 서쪽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을 돌아 서쪽으로 인도로 가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는 인도를 가리킨다. 4-2 주54 참조.
- 67) 아유타국(阿踰陀國): 인도 강가강 중류에 있는 아요디아(𑂔 Ayodhyā)에 비정하기도 하고, 중국 남부지방으로 보기도 한다.
- 68) 주포(主浦): 김해 남쪽에 있던 포구. (“주포: 부 남쪽 40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명월산(明月山)에서 나오며, 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金海都護府 山川)
- 69) 허왕후가 금관국에 닿아 수로왕을 만나기 전에 별로 나루터에 배를 매고 육지로 올라와서 높은 언덕에서 쉬고는 입었던 비단바지를 벗어서 폐백 삼아 산신

어은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한다.⁷¹⁾

수로왕이 맞아들여 함께 나라를 다스린 것이 150여 년이 되었다.⁷²⁾ 그러나 그 때에 해동에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드는 일이 없었다. 대개 불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그 지방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았으므로 『가락국기(駕洛國記)』⁷³⁾에 절을 세웠다는 글이 없다.⁷⁴⁾

제8대 질지왕(鎡知王)⁷⁵⁾ 2년(452) 임진년에 이르러 그 곳에 절을 지었다.⁷⁶⁾ 또 왕후사(王后寺)⁷⁷⁾를 창건하였는데 <아도(阿道)⁷⁸⁾와 눌지왕(訥祗王)⁷⁹⁾

에게 바치고 수로왕에게 갔다고 하였다.(『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

70) 능현(綾峴): 김해 남쪽에 있는 고개. (“능현: 부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金海都護府 山川)

71) 이상의 기록은 『가락국기』(『삼국유사』 권2 기이)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가락국기』에는 파도의 신 이야기가 없을 뿐이다.

72) 수로왕이 즉위한 것이 42년이고 왕비를 맞은 것이 48년이다. 왕비가 먼저 189년에 죽었고, 왕은 199년에 죽었다. 함께 나라를 다스린 것은 142년이 되고, 수로왕의 재위 연수는 158년이 된다.

73) 원문의 본기(本記)는 『가락국기』를 말한다.

74) 여기에서 수로왕대의 허황후 불교전래 가능성은 자연히 부정된다. 『삼국유사』 고기에는 수로왕이 불교를 믿었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는 『관불삼매경』에 거한 이야기이다.

75) 질지왕(鎡知王): 가야 제8대왕 재위 450~492년.

76)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에는 질지왕이 시조모 허황후의 명복을 빌고자 하여 452년에 수로왕과 허황후가 결혼한 곳에 절을 세우고 왕후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본문의 글에서 “절을 지었다. 또 왕후사를 창건하였는데”라고 한 것은 하나의 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락국기』에는 또 질지왕이 사자를 보내어 절 근방의 평전(平田) 10결을 측량하고 삼보를 공양하는 비용으로 삼게 했다고 하였다.

77) 왕후사(王后寺): 김해 장유산(長遊山)에 있던 가야 때의 절. (“왕후사: 옛 터가 장유산에 있다. 수로왕 8대은 질지왕이, 그때에 장막치고 합흔하던 곳에다가 절을 세우고 왕후사라 하였는데, 뒤에 절은 파하고 장원으로 만들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金海都護府 古蹟)

의 시대이니 법흥왕(法興王)⁸⁰⁾ 이전의 일이다) 지금도 (허황후의) 복을 빌고 있다. 아울러 그림으로써 남쪽 왜구를 진압하였으니 본국(本國) 본기(本記)⁸¹⁾에 자세히

78) 아도(阿道) : 신라 미추왕 또는 눌지왕 때의 인물로 신라불교의 최초 전래자. 아도(阿度)·아두(阿頭)라고도 한다. 아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아도본비(我道本碑)』(『삼국유사』 권3 阿道基羅)에 의하면, 고구려인인 어머니 고도령(高道寧)과 고구려에 사신으로 온 조위인(曹魏人) 아굴마(我堀摩) 사이에서 태어났다. 5세 때 어머니의 권유로 출가하여 16세에 위나라로 가서 현창화상(玄彰和尚)에게서 공부한 뒤 19세에 귀국하였고 미추왕 2년(263)에 신라로 가서 왕성의 서리(西里)에 머물면서 대궐에 들어가서 불교를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꺼려하자 일선현(一善縣) 모례(毛禮)의 집에 숨어 살았다. 264년에 성국공주(成國公主)가 병이 들었는데 무당과 의원이 치료를 하였으나 효험이 없자 아도가 대궐로 들어가 병을 치료하였다. 왕이 소원을 묻자 천경림에 절을 세워 불교를 크게 일으켜 나라의 복을 비는 것이라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고 창건한 것이 흥륜사(興輪寺)이다. 그곳에서 불법을 강연하였으며, 모례의 누이인 사씨(史氏)도 출가하여 삼천기에 영흥사(永興寺)를 지었다. 미추왕이 죽자 사람들이 해치려 하였으므로 다시 모례의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무덤을 만든 다음 문을 닫고 들어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미추왕 때의 아도 이야기는 후일 신라 불교 수용 이후 생겨난 설화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아도가 신라 소지왕 때 시자 3인을 데리고 일선군 모례의 집에 와서 있다가 몇 년 뒤 병 없이 죽었고, 그의 시자 3인이 경물을 강도하여 가끔 믿는 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목호자와 이차돈 사이의 일이다. 그런데 372년에 고구려에 온 순도에 이어 374년에 아도가 고구려에 왔다고 하고 375년에 그를 위해 이불란사를 지어 주석하게 했다고 한다.(『삼국사기』 권18 소수림왕4년·5년 ; 『삼국유사』 권3 順道肇麗) 이를 고려하면 여러 시기에 여러 명의 아도가 고구려와 신라에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아도는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삭발한 승려의 형상이 아이의 머리(兒頭)와 같은 데서 불인 승려의 일반 지칭으로 보기도 한다.

79) 눌지왕(訥祗王) : 신라 제19대왕. 재위 417~458. 성은 김씨. 아버지는 내물마립간이고, 어머니는 미추이사금의 딸인 보반부인(保反夫人)이며, 비는 실성이사금의 딸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최초로 마립간(麻立干)이라는 왕호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마립간이 실제로는 내물왕 때 이미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눌지왕은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불교 정책을 변화할 꾀하였다. 438년 우차법(牛車法)을 제정하였고 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백제와 공수동맹(攻守同盟)을 맺어서 백제를 도왔으며, 재위 기간에 고구려의 목호자(墨胡子)가 선산 지역에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보인다.

탑은 사각 5층탑인데 그 조각이 매우 기이하다. 돌에 약간 붉은 얼룩 빛이 있고 그 재질이 매우 부드러운데,⁸²⁾ 이 지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본초(本草)』⁸³⁾에서 말하는 닭 벼슬의 피를 찍어서 증험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금관국은 가락국이라고도 한다. 『가락국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

찬한다.

탑 실은 붉은 돛대 깃발 가벼운데

해신에게 비노니 노한 파도 멈추소서.

어찌 언덕에 이르러 황옥만을 도왔으리

천고에 남쪽 왜구의 성낸 고래도 막으리라.

金官城婆娑石塔

80) 법흥왕(法興王) : 신라 제23대 왕. 514~540년 재위. 성 김(金)씨. 이름은 원종(原宗). 지증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연제부인(延帝夫人) 박씨(朴氏)이다. 비(妃)는 보도부인(保刀夫人) 박씨. 517년에 병부(兵部)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확립하고, 520년에 율령(律令)을 반포하여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으며 521년에 양(梁)나라와 국교를 열었다. 527년에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531년 상대등 벼슬을 새로 두어 국사(國事)를 총괄하여 맡도록 하였다. 532년에 본가야(本伽倻 : 金官國)를 병합하여 금관군(金官郡)을 설치하고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으며 536년에 연호를 건원(建元)이라 하였다.

81) 본국본기(本國本記) : 『가락국기』를 말함.

82) 파사석탑은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수로왕비릉 앞에 남아 있다. 4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높직한 궤대가 있어 그 위에 여러 개의 부재(현재는 6석임)를 받고 있는데, 각 부재의 측면과 하면 등에서 다양한 조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전체적으로 파손과 마멸이 심하여 원래의 형태를 짐작하기 어렵다. 석재가 붉은 반점이 많은 독특한 재질이다.

83) 『본초(本草)』 : 신농(神農)씨가 지었다고 하는 3권의 책. 『신농본초(神農本草)』라고도 한다. 약재(藥材) 365종을 상·중·하 삼품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양대에 당대에 계속 증보되었고, 명대에 이시진(李時珍)이 총정리하여 1871종을 52권의 책으로 묶어 『본초강목(本草綱目)』을 펴냈다.

金官虎溪寺婆婆石塔者，昔此邑爲金官國時，世祖首露王之妃，許皇后名黃玉，以東漢建武二十四年戊申，⁸⁴⁾自西域阿踰陀國所載來。初公主承二親之命，泛海將指東，阻波神之怒，不克而還，白父王，父王命載茲塔，乃獲利涉，來泊南涯。有緋帆茜旗珠玉之美，今云主浦，初解綾袴於岡上處曰綾峴，茜旗初入海涯曰旗出邊。首露王聘迎之，同御國一百五十餘年。然于時，海東未有創寺奉法之事。蓋像教未至，而土人不信伏，故本記無創寺之文。

逮第八代銓知王二年壬辰，置寺於其地。又創王后寺〈在阿道訥祇王之世，法興王之前〉，至今奉福焉。兼以鎮南倭，具見本國本記。

塔方四面五層，其彫鏤甚奇，石微赤斑色，其質良脆，非此方類也。本草所云，點鷄冠血爲驗者，是也。金官國，亦名駕洛國。具載本記。

讚曰 載厭緋帆茜旆輕，乞靈遮莫海濤驚。豈徒到岸扶黃玉，千古南倭遏怒鯨。

84) 원본의 ‘甲申’은 ‘戊申’의 잘못

4-4 고구려의 영탑사

[해제]

고구려 후기의 고승으로 열반학에 뛰어났던 보덕(普德)이 영탑사(靈塔寺)라는 절을 창건한 이야기이다. 보덕에 관한 기사는 권3 흥법「보장봉로보덕이암(寶藏奉老普德移庵)」편에 자세하다. 이 기사는 보덕이 고구려에서 활동할 때의 한 상황을 보여준다. 평양성에 살면서 산중의 법회에 초청되어 열반경을 강론하기도 하고 평양 인근의 산에서 선관(禪觀)을 수행했다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준다. 영탑사 창건에는 팔각칠층탑이 매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탑 외형은 고구려 특유의 형식이다.

[역주]

고구려의 영탑사

승전(僧傳)⁸⁵⁾에 이르기를, “보덕(普德)⁸⁶⁾ 스님은 자(字)는 지법(智法)이고 고구려 용강현(龍岡縣)⁸⁷⁾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상세한 것은 아래 본

85) 승전(僧傳): 본문의 승전(僧傳)이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삼국유사』 권3 흥법 보장봉로보덕이암(寶藏奉老普德移庵)에는 보덕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승전(僧傳)’과 ‘본전(本傳)’에 있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보덕전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도 보덕이 입전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전 『해동고승전』에는 보덕전이 보이지 않는다.

86) 보덕(普德): 고구려 보장왕 때의 승려. 고구려 말 열반학자로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집권 후 도교를 진흥하고 불교를 억압하자 백제 영역인 전

전⁸⁸⁾에 보인다.

항상 평양성(平壤城)⁸⁹⁾에 살았는데 산방(山房)⁹⁰⁾의 늙은 스님이 와서 경전을 강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사는 곧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가서 『열반경(涅槃經)』⁹¹⁾ 40여 권을 강론하였다. 자리가 파하고 평양성의 서쪽 대보산(大寶山)⁹²⁾에 가서 바위 굴⁹³⁾ 밑에서 선관(禪觀)을 닦았다. 신인(神

주의 고대산(孤大山)으로 망명하였다. 신라의 원효와 의상이 중국에 유학하려다 보덕에게 열반을 배웠다. (『삼국유사』 권3 흥법 寶藏奉老普德移庵; 『大覺國師文集』 권17 孤大山景福寺飛來方丈禮普德聖師影, 韓4 559a 참조)

87) 용강현(龍岡縣):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52 용강현 건치연혁에 의하면 용강현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보덕이 용강현인이라 한 것은 고려시대의 지명으로 지칭한 것이어서, 승전이 고려시대 찬술임을 알게 한다. 용강현은 지금의 평안남도 용강군이다.

88) 아래 본전이란 탑삼편 앞에 수록된 『삼국유사』 권3 흥법편의 보장봉로보덕이암(寶藏奉老普德移庵)편을 말한다.

89) 평양성(平壤城): 평양시 일원에 있는 고구려시대의 도성(都城). 둘레 약 23km. 현재 내성(內城)·북성(北城)·중성(中城)·외성(外城, 羅城) 등 네 개의 성과 문지(門址)·건물지 등이 남아 있다. 이 성은 대동강이 굴곡을 지어 흐르는 북쪽에 있으며, 고구려시대에 처음 쌓았고 고려 초에 다시 고쳐 쌓았으며, 조선시대에도 계속 고쳐 현재에 이른다.

90) 산방(山房): 원문에는 산방(山方)이라 하였으나 산방(山房)을 말한다.

91) 『열반경(涅槃經)』: 원래의 이름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으로 소승 경전과 대승 경전이 있다. 소승 『열반경』은 주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부처의 입멸(入滅)을 전후한 행적을 설하였다. 이에 대해 대승 『열반경』은 보다 철학적·종교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여기서는 부처의 최후 설법을 통해 불신(佛身)의 상주(常住), 열반의 의미,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성론(佛性論) 등을 밝히고 있다. 한역본(漢譯本)으로는 동진(東晉) 법현(法顯)의 『대반니원경(大般尼洹經)』 6권과 북량(北凉) 담무참(曇無讖)의 『대반열반경』 40권이 있고, 남송(南宋) 때 혜관(慧觀)·혜엄(慧嚴) 등이 담무참의 번역을 법현의 것과 대조·수정한 『대반열반경』 36권이 있는데 이것을 ‘남본’(南本)이라고 한다. 후세의 『열반경』에 대한 연구는 대개 남본을 기초로 했다. 본문에서 ‘40여 권’이라고 한 것은 40권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人)이 와서 청하기를, “이곳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지팡이를 앞에 놓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 밑에 8각 7층 석탑⁹⁴⁾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파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로 인해 절⁹⁵⁾을 세워 영탑사(靈塔寺)라고 하고 그곳에 살았다.

高麗 靈塔寺

僧傳云, “釋普德, 字智法, 前高麗龍岡縣人也.” 詳見下本傳.
常居平壤城, 有山方老僧, 來請講經. 師固辭不免, 赴講涅槃經四十餘卷. 罷席, 至城西大寶山, 穴下禪觀. 有神人來請, “宜住此地.” 乃置錫杖於前, 指其地曰, “此下有八面七級石塔.” 掘之果然. 因立精舍, 曰靈塔寺, 以居之.

-
- 92) 대보산(大寶山): 평양시에 있는 산. 평양 서쪽 37리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平壤府 山川) 대보산은 중국 남북조 시기의 명승으로 열반에 뛰어났던 영유(靈裕, 518~605)가 대주성굴(大住聖窟)을 파고 선을 닦았던 것과 연관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 93) 이 바위굴을 주92에서 말한 대주성굴(大住聖窟)과 연관짓는 경우가 있다. 영유가 조성한 대주성굴은 노사나불·미륵불·아미타불의 3존불과 35불·7불 및 세존 입적후 전법 정사(世尊去世傳法聖師) 24승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 94) 8각 7층 석탑: 삼국시대의 탑 중에서 고구려에서만 특히 8각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백제나 신라의 경우는 4각탑이 일반적이다. 금강사지(金剛寺址)나 정릉사(定陵寺)에서 확인되는 탑의 터는 모두 8각 형태를 하고 있다.
- 95) 원문의 정사(精舍)는 절을 말한다. 정사는 정려(精廬)라고도 하며 지혜와 덕성을 정련하는 집, 곧 사원을 말한다. 원어로는 여러 가지를 정사로 번역하여, 아라마(āraṃa, 阿藍摩)를 정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상가라마(saṃghārāma, 僧伽藍)를 정사로 번역하기도 한다.

4-5 황룡사의 장륙상

[해제]

신라에서 국가적으로 중시하던 신라삼보(新羅三寶)의 첫번째로 꼽히던 황룡사의 장륙존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황룡사의 창건과 완공 과정도 소개하고 끝부분에 다른 자료를 들어 황룡사의 역대 주지도 소개하고 있다. 황룡사가 가섭불이 좌선하던 과거불 시대까지 올라가는 유래가 오랜 사찰임을 표방하듯이 황룡사 장륙상 역시 그러했다. 인도의 아쇼카왕이 석가삼존상을 조성하기 위해 애썼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하자 인연 있는 곳에 가 당기를 서원하며 황철과 황금 등을 배에 실어 보냈다. 이 배가 울



경주 황룡사지 장륙상 대좌

주 앞바다에 닿았고, 진흥왕은 그 재료와 모본을 가져다가 단번에 조성해 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쇼카왕 때는 불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어서 실제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연은 아쇼카왕이 불멸 후 1백 년 만에 태어나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화를 곁들이고 있다. 조성 당시의 기록이 잘 전승된 듯 불상에 들어간 구리와 금의 양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도 이채롭다. 장륙상에서 눈물이 흘러 진흥왕이 돌아갈 조짐을 보였다는 표현에서는 왕실과 황룡사와의 깊은 연계를 읽을 수 있다. 일연은 실제 답사를 통해 황룡사의 현상을 확인하고 몽고의 침공으로 절이 불타고 불상도 녹아버린 사실까지 기록하고 있다.

[역주]

황룡사의 장륙상

신라 제24대 진흥왕(眞興王)⁹⁶⁾ 즉위 14년(553) 계유년 2월에 대궐⁹⁷⁾을 용궁(龍宮)⁹⁸⁾ 남쪽에 세우려는데 황룡(黃龍)이 그곳에 나타났으므로 고쳐서 절로 삼아 황룡사(皇龍寺)⁹⁹⁾라 하였다.¹⁰⁰⁾ 기축년(진흥왕 30, 569)에 이

96) 진흥왕(眞興王) : 신라 제24대 왕. 재위 540~576. 백제의 땅이었던 한강 유역의 요충지를 획득하고,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다. 이어 대가야를 평정하고, 창녕에서 북한산 마운령 황초령에 이르는 땅을 새로 개척하였다. 4-1 주8) 참조.

97) 원문의 자궁(紫宮)은 자미궁(紫微宮)을 말하는데, 자미(紫微)는 북두칠성의 북쪽에 있는 별자리로서 천제(天帝)가 거처하는 곳이다. 따라서 천자의 대궐을 의미한다.

98) 용궁(龍宮) : 『삼국사기』(권4 진흥왕 14년)에는 월성(月城)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했는데 황룡이 그 곳에 나타나 절로 만들어 황룡사라고 하였다 한다. 용궁과 월성이 같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황룡사가 그 남쪽과 동쪽이라고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99) 황룡사(皇龍寺)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있었던 절로 현재 터가 남아 있다.

르러 주위에 담을 둘렀으며, 17년 만에 마쳤다.¹⁰¹⁾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남쪽에 큰 배 한척이 와서 하곡현(河曲縣)¹⁰²⁾ 사포(絲浦)에 정박하였다.<지금의 울주(蔚州) 곡포(谷浦)이다.> 조사해보니 첩문(牒文)¹⁰³⁾ 이 있었는데 “서천축(西天竺)¹⁰⁴⁾의 아쇼카왕¹⁰⁵⁾이 황철(黃鐵)¹⁰⁶⁾ 5

월성(月城)의 동쪽 용궁의 남쪽에 있었던 이 절은 칠처가람지(七處伽藍址: 과거 7불이 주석했다는 경주 일원의 일곱 사찰의 유적지)의 하나로서 규모나 사격(寺格)에서 신라 제일의 사찰이며, 신라의 사상과 예술에서도 그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진흥왕 14년(553)에 새 궁궐을 월성 동쪽에 짓다가 거기에서 황룡(黃龍)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쳐 황룡사라 하고 17년 만인 569년에 완성하였다. 이어 574년에는 장륙상을 완성하고 584년에 금당이 이루어졌으며 645년에 구층목탑이 세워졌다. 장륙상과 구층탑이 신라 삼보로 꼽힐 만큼 신라불교의 상징이었다. 중문(中門)·목탑·금당(金堂) 등 주요 건물의 초석과, 금당 뒤쪽으로 강당자리와 회랑이 있었던 유지가 있다.

- 100) 『삼국사기』의 기록과 약간 다르다. “14년 봄2월에 왕이 담당 부서에 명하여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했는데 황룡이 그 곳에 나타났다. 왕이 의아하게 여겨 고쳐서 절로 삼고, 이름을 내려 황룡사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14년(553) 十四年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
- 101) 17년만인 569년에 마쳤다는 것은 황룡사의 담장을 두르는 일까지 마쳤다는 것을 말한다. 『삼국사기』에는 566년에 일이 끝났다고 하였다. “27년 황룡사를 짓는 일이 끝났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27년(566) 皇龍寺畢功) 그러나 실제 창건 불사는 계속되어 574년에 장륙상, 584년에야 금당이 완성되었다.
- 102) 하곡현(河曲縣): 지금의 울산광역시. 본래 신라의 굴아화촌(屈阿火村)이었는데, 파사왕 때 현을 두었고 경덕왕 때 하곡(河曲) 혹은 하서(河西)라 하였다.(“파사왕 때 굴아화촌(屈阿火村)을 빼앗아 현을 두었으며, 경덕왕이 (하곡(河曲)으로)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울주(蔚州)이다.” 『삼국사기』 권34 잡지 3 河曲一作西縣, 婆娑王時, 取屈阿火村, 置縣, 景德王改名, 今蔚州) 고려 태조 때 흥려부(興麗府)가 되었다가 뒤에 지울주사(知蔚州事)가 되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蔚州 建置沿革)
- 103) 첩문(牒文): 공문서의 일종으로 하급 관사에서 상급 관사로 보고하는 문서.
- 104) 서천축(西天竺): 인도를 동·서·남·북·중의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 오천축이라 한다. 서천축은 서부 인도를 말한다. 서천축의 아쇼카왕이라 하였는데, 아쇼카

만 7천근과 황금 3만푼(별전에 철 40만 7천근과 금 1천냥이라고 하였는데 잘못된 듯 하다. 혹은 3만 7천근이라고 하였다)을 모아서 석가삼존상을 주조하고자 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배에 실어서 바다에 띄우면서 빌기를 ‘인연이 있는 나라에 가서 장륙존의 모습을 이루소서.’ 라고 하고 또 1불 2보살¹⁰⁷⁾상의 모

왕은 동인도에 속하는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전 인도를 통일한 왕이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105) 아쇼카왕 Aśoka 왕. : 아유왕(阿育王)이라 음역하고 무우왕(無憂王)이라 의역한다. 서기전 268~232년경 재위. 인도 마우리아왕조의 제3대왕.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를 보호한 왕. 즉위 초에는 폭정을 일삼았으나 영역을 크게 넓히고 불교에 귀의하여 선정을 베풀었으며 진리를 애호하고 박애정신을 가진 이로써 인도 역사에서 번영의 시대를 연 왕이다. 불교계의 전승에는 왕의 재위 기간에 전국에 8만 4천 개의 절과 탑을 세웠고 제3차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통치 영역 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불법을 전도하였으며, 불적지 곳곳에 마애법칙을 새긴 석주(Aśoka's pillar)를 세우고 바위에 새겨 정법(正法)을 선포하였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어 불교 유적의 명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석주에는 특별 사면을 행하고 살생을 금하며 보시를 행하고 길 옆에는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는 등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한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 추앙되었다.

106) 황철(黃鐵) : 니켈로 이루어진 광물로 누런 빛의 금속성 광택이 나고 불투명하다. 여기에서는 구리를 말한다.

107) 보살 : ㉠ bodhi-sattva, 보리살타(菩提薩陀)로 음역하고, 줄여서 보살(菩薩)이라 하며 개사(開士) 등 여러 표현으로 한역한다. ㉡ bodhi는 부처님의 지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 sattva는 생명 있는 존재인 유정(有情)을 의미한다. 이런 뜻에서 유래하여 보살은 위로는 지혜로써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以智上求無上菩提, 以悲下化衆生] 유정으로 정의한다. 이를 도중생(度衆生), 각유정(覺有情) 등으로 번역한다. 성문(聲聞)·연각(緣覺)과 함께 삼승의 하나이다. 보살은 여섯 가지 바라밀(波羅蜜)을 수행하여 미래에 불교를 성취하는 수행자이다.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원만하게 갖추어 융합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대승의 이상적인 수행자이다. 대승불전에서 각 부처마다 그의 교화를 돕는 2인의 보살을 묶어 1불2보살을 구성하고, 조형적으로 이런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여기서도 이 불보살상의 구성을 말한다.

본도 실었다.”라고 쓰여 있었다.

고을의 관리가 문서를 갖추어 아뢰자 왕명으로 그 고을 성 동쪽에 탁 트인 밝은 곳¹⁰⁸⁾을 골라 동축사(東竺寺)¹⁰⁹⁾를 창건하고 삼존상을 모셔와 안치하게 하였다. 금과 철은 서울로 실어 날라서 대건(大建)¹¹⁰⁾ 6년(진흥왕 35, 574) 갑자년 3월[절의 기록에는 계사년(진흥왕 34, 573) 10월 17일이라 하였다]에 장륙존상(丈六尊像)¹¹¹⁾을 주조하였는데, 단번에¹¹²⁾ 이루어졌다. 무게가 3만 5천 7근이고 들어간 황금이 1만 198푼이었다.¹¹³⁾ 두 보살상에는 철 1만 2천근과 황금 1만 136푼이 들어갔다. 황룡사에 안치하였는데 다음 해 장륙존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을 한 자나 적셨으니, 왕이 돌아가실 조짐이었다.¹¹⁴⁾ 혹은 불상이 진평왕(眞平王)¹¹⁵⁾ 때에 조성되

108) 상개(爽塏): 앞이 탁 트여 밝은 땅. 고조(高燥), 높고 메마른 데란 말이니 높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109) 동축사(東竺寺): 경남 울산시 동부동 마골산 정상에 위치. 진흥왕 34년 창건. 원편에 미포(尾浦), 오른쪽에 염포(鹽浦)가 내려다 보인다.

110) 대건(大建): 남조(南朝) 진(陳) 선제(宣帝) 때의 연호. 569~581년. 신라 진흥왕 30~진평왕3년.

111) 장륙존상(丈六尊像): 1장 6척(一丈六尺)의 불상. 부처의 등신상(等身像)의 크기이다. 여러 경전에 의거하면, 부처시대에 보통 사람의 키는 약 8척이었는데 부처는 그 두 배였으므로 장륙(丈六)이라고 하였다. 보통 입상(立像)은 1장 6척의 장륙상으로, 좌상(坐像)은 8척으로 만든다.

112) 원문의 일고(一鼓)는 진군할 때 처음에 북을 한 번 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단번에’라는 뜻으로 쓰였다.

113) 『삼국사기』의 기록과 동일하다. “35년 봄 3월에 황룡사의 장륙상을 주조하여 이루었는데, 구리 무게가 3만 5천 7근이고, 도금한 무게는 1만 1백 98푼이었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35년 三十五年 春三月, 鑄成皇龍寺丈六像, 銅重三萬五千七斤, 鍍金重一萬一百九十八分.)

114) “36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는데 황룡사 장륙상에서 눈물이 나와 발꿈치까지 흘렀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36년(575) 三十六年 春夏旱, 皇龍寺丈六像 出淚至踵.)

115) 진평왕(眞平王): 신라 제26대 왕. 재위 579~632년. 휘 백정(白淨). 진흥왕(眞興

있다고도 하는데 잘못이다.¹¹⁶⁾

皇龍寺丈六

新羅第二十四眞興王 卽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皇¹¹⁷⁾龍寺. 至己丑年, 周圍墻宇, 至十七年, 方畢.

末幾, 海南有一巨舫 來泊於河曲縣之絲浦<今蔚州谷浦也.> 檢看有牒文云, “西竺阿育王, 聚黃鐵五萬七千斤, 黃金三萬分<傳云, 鐵四十萬七千斤, 金一千兩, 恐誤. 或云, 三萬七千斤.>, 將鑄釋迦三尊像, 未就, 載舫泛海而祝曰, ‘願到有緣國土, 成丈六尊容’, 并載

王)의 손자이며 동륜(銅輪)태자의 아들. 숙부 진지왕이 화백회의에서 폐위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5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재위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초기에 위화부(位和府)·선부서(船府署)·조부(調府)·승부(乘府)·예부(禮部) 등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관서를 설치하여 관청 체계를 조직화하고 부서간의 분업체제를 확립하고 말기에는 왕궁 업무를 맡는 내성(內省)을 두고 관원을 증원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독자적인 왕권을 확립하였다. 즉위 6년(584)에 건복(建福)으로 개원(改元)하여 독자적인 연호를 시용함으로써 대외적인 자주성을 과시하고 통일왕조 수와 당과 빈번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원광(圓光)·담육(曇育) 등의 명승을 중국에 보내어 수학하게 하는 등 불교를 진흥시키고 문물을 수용하였다. 진흥왕대의 영역 확장 이후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잘 막아냈다. 딸인 선덕왕(善德王)이 왕위를 계승하여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

- 116) 이곳 본문과 『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 35년(574)에 장륙존상이 완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일연은 이 부분에서는 진흥왕 다음의 진평왕 때 조성되었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오늘날 불상 양식으로 볼 때 아육왕상 양식이라고 부르는 불상이 조성되는 시기가 7세기 중반부터 라는 점을 들어 조성 시기를 늦추어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라의 보물로 불리던 황룡사장륙상의 조성을 절 창건 백년 이후로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황룡사 장륙상을 아쇼카왕의 연기에 연결시켜 미화하려는 데서 나온 설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17) 원본에는 ‘黃’이나 신라의 금석문 등 모든 관계 자료에는 ‘皇’이라고 나온다.

模樣一佛二菩薩像. 縣吏具狀上聞, 勅使卜其縣之城東爽塏之地, 創東竺寺, 邀安其三尊.”

輸其金鐵於京師. 以大建六年 甲午三月〈寺中記云, 癸巳十月十七日〉, 鑄成丈六尊像, 一鼓而就. 重三萬五千七斤, 入黃金一萬一百九十八分. 二菩薩入鐵一萬二千斤, 黃金一萬一百三十六分. 安於皇龍寺, 明年像淚流至踵, 沃地一尺, 大王升遐之兆. 或云, 像成在眞平之世者, 謬也.

다른 본에 이르기를, “아쇼카왕은 서천축 대향화국(大香華國)¹¹⁸⁾에서 부처가 세상을 떠난 후 100년 만에 태어나 부처의 진신에 공양할 수 없음을 한탄하여, 금과 철을 몇 근 모아서 세 번이나 불상을 조성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때 왕의 태자만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왕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태자가 아뢰기를, ‘혼자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벌써 안 될 줄 알고 있었습시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다. 남염부제(南閼浮提)¹¹⁹⁾의 열여섯 개의 대국(大國)과 오백

118) 대향화국(大香華國): 고대 인도의 대국이었던 마가다국(Ś Magadha, 摩揭陀國)의 별칭. 강가강 남쪽에 있는 성의 왕궁에 꽃이 많았기 때문에 쿠스마푸라성(Kusumapura, 拘蘇摩補羅城)이라 한 것을 번역하여 향화궁성(香花宮城)이라 불렀다. (『대당서역기』 권8) 마가다국의 왕성은 후에 파탈리푸트라성(Ś Pataliputra, 波吒釐子城)으로 이름을 고쳤다.

119) 남염부제(南閼浮提): 남염부주(南閼浮洲). 염부제는 Ś Jambu-dvīpa의 음역어. 수미산의 남쪽에 있는 대륙. 섬부제주(瞻部提洲)·염부제비바주(閼浮提鞞波洲)·예주(穢洲)·예수주(穢樹洲) 등으로도 쓴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인간 세상을 동·서·남·북의 넷으로 나눌 때 남쪽의 땅을 말한다. 여기에 16 대국, 500 중국, 10만 소국이 있다고 하며, 부처가 출현하는 것은 오직 이 남염부제뿐이라 한다. 원래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후에 인간 세계를 말하게 되었다.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흔히 남섬부주(南瞻部洲)라고도 한다.

개의 중국(中國)과 일만 개의 소국(小國)과 팔만 개의 취락(聚落)¹²⁰⁾을 두루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는데 모두 주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라에 이르러 진흥왕이 문잉림(文仍林)에서 주조하여 불상을 완성하니 상호(相好)¹²¹⁾가 모두 갖추어졌다. 아쇼카를 번역하여 무우(無憂)라고 한다. 나중에 대덕 자장(慈藏)¹²²⁾이 중국에 유학하여 오대산(五臺山)¹²³⁾에

120) 열여섯, 오백, 일만, 팔만은 경전에 나오는 엄부제에 있는 나라를 총칭하는 말이다.

121) 상호(相好) : 부처님의 32상(相)과 80호종(種好)의 모습을 말한다. 부처의 육신이 갖추고 있는 특수한 용모 중에서 크게 드러나 있어 쉽게 알 수 있는 모습을 32상이라 하고, 미세한 것이어서 알아보기 어려운 것을 80종호 또는 80수형호(隨形好)라 한다. 이 둘을 합쳐 상호라 부른다. 부처가 과거 백 대겁 동안의 오랜 기간에 수행하면서 좋은 일을 하였기에 금생에 32상 80종호를 성취하였다고 한다. 불교의 이상적인 군주인 전륜성왕도 32상은 갖추지만 80종호는 불보살만이 갖추 수 있다고 한다.

122) 자장(慈藏) : 신라시대의 승려. 성은 김씨. 속명은 선종랑(善宗郎). 진골 무림(茂林)의 아들이다. 638년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五臺山)을 순례하고 문수보살의 진신을 감응하여 가사와 사리를 받았다. 이어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에서 수행하고 도선(道宣)과 교유하였으며 643년 대장경과 여러 불구(佛具)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분황사 주지로 있으면서 궁중과 황룡사에서 『삼대승론』 『보살계본』 등을 강론하고 대국통(大國統)의 직책을 맡아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하여 계율의 엄정한 준수와 실천 그리고 지방 사찰의 검열과 장엄 법식의 제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황룡사 구층탑의 창건을 건의하여 645년에 완성하고,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하고 진신사리를 봉안하며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세웠다. 649년에는 왕에게 상주하여 중국의 제도를 따라 신라에서 처음으로 관복을 입게 했으며,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만년에는 서울을 떠나 강릉(江陵)에 수다사(水多寺)를 짓고, 뒤에 태백산에 석남원(石南院, 지금의淨岩寺)를 세웠다. 후대에 율종의 종조로 추앙되었다.

123) 오대산(五臺山) : 중국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 오대현(五臺縣)에 있는 오대산을 말한다. 오대산의 다섯 봉우리가 높이 솟았는데 뾰족하지 않고 평평하여 오대라고 이름하였고, 높고 서늘하여 청량산이라고 불렀는데, 『화엄경』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동북방에 청량산(淸涼山)이 있고 여기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한 구절에 따라 문수보살이 거처하는 성지로 신앙되었다. 중국 불교

이르러 문수(文殊)보살이 현신(現身)으로 감응하여 비결을 주며 부탁하기를, ‘그대의 나라의 황룡사는 석가불과 가섭불이 강연하던 곳으로 앉아 수행하던 돌이 아직도 있다. 그 때문에 인도의 무우왕(無憂王, 阿育王)이 구리 약간 근을 모아 바다에 띄웠는데, 천 3백여 년을 지난 후에 그대의 나라에 이르러 (불상을) 완성하여 그 절에 모신 것이니, 대개 위덕(威德)의 인연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별기(別記)의 기록과 부합된다.> 불상이 완성된 후에 동축사의 삼존상도 황룡사로 옮겨 모셨다.

절의 기록에 이르기를, “진평왕(眞平王)¹²⁴⁾ 6년(584) 갑진년에 금당(金堂)이 조성되었으며, 선덕왕(善德王)¹²⁵⁾ 대에 절의 초대 주지는 진골(眞

사상 사대영산(四大靈山)의 하나이다. 오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북대가 가장 손꼽히는 기도처이다. 후한 때부터 산악승배신앙의 성지로 여겨졌으며, 북위 때 이후 불교 성지로서 이름을 떨쳐 화엄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오대산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8세기 후반에 불공(不空)이 금각사를 창건하여 오대산을 밀교의 성지로 다듬었고, 이어 화엄종의 징관(澄觀)이 대화엄사에서 활동하며 오대산을 화엄성지로 재확인하였으며 이후 청대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신앙의 중심지가 되니 한국과 일본의 승려들도 순례가 이어졌다.

124) 진평왕(眞平王) : 신라 제26대 왕. 재위 579~632년. 5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재위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원광(圓光)·담육(曇育) 등의 명승을 중국에 보내어 수학하게 하는 등 불교를 진흥시키고 문물을 수용하였다. 4-5 주 115) 참조.

125) 선덕왕(善德王) : 신라 제27대 왕. 재위 632~647년. 성 김(金)씨, 이름은 덕만(德曼). 진평왕(眞平王)의 딸로 어머니는 마야부인(摩耶夫人) 김씨. 진평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화백회의에서 추대되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634년(선덕왕 3) 연호를 인평(仁平)이라 고치고 분황사(芬皇寺)를 창건하였고, 635년에는 영묘사(靈廟寺)를 세웠다. 구휼사업에 힘쓰는 등 선정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첨성대를 쌓고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였다. 김춘추와 김유신 등의 협력으로 통치를 수행하였으나 비담과 염종 등 구귀족의 반란 와중에 죽었다.

骨)¹²⁶⁾ 환희(歡喜) 스님이며, 제2대 주지는 자장(慈藏) 국통(國統)¹²⁷⁾이며, 다음은 국통 혜훈(惠訓)이며, 다음은 상률(相律) 스님이다.¹²⁸⁾” 라고 하였다. 이번 전쟁의 화재¹²⁹⁾가 있는 후 장륙존상과 두 보살상이 모두 녹아버렸고 작은 석가상만이 아직 남아 있다.

찬한다.

티끌세상 어딘들 참 고향 아니라만,

향화의 인연은 우리나라가 으뜸이라.

아쇼카왕이 손대기 어려웠음이 아니요,

월성의 엿터를 찾아왔을 뿐이라.

別本云, “阿育王在西竺大香華國, 生佛後一百年間, 恨不得供養眞身, 化金鐵若干斤, 三度鑄成無功. 時王之太子獨不預斯事, 王使詰之, 太子奏云, ‘獨力非功, 會知不就.’ 王然之, 乃

126) 진골(眞骨): 신라 귀족의 첫째가는 신분. 신라에서는 귀족을 처음에는 성골에서 1두품에 이르는 8 등급으로 구분하다가 진골·육두품(六頭品)·오두품·사두품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태어난 혈통에 따라 그 신분을 구분하고 정치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직, 사는 집의 크기, 장신구의 종류 등 여러 분야에 제한을 두었다. 진골은 왕족인 김씨와 전왕족, 왕비족 등이 속했으며 행정 부서의 장관직과 17관등체계에서 5등급 이상의 최고 관등에 오를 수 있었다.

127) 국통(國統): 신라시대의 최고 승관직. 일명 승통(僧統) 또는 사주(寺主)라고도 하였다. 국통의 직은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에서 망명해온 혜량(惠亮)을 임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국통 밑에는 대도유나(大都維那)와 대서성(大書省) 등의 승관이 있어 국통을 보조하여 승정을 집행하였으며, 각 주의 승정을 맡았던 주통과 군통 등도 국통의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28) 선덕왕대에는 진골출신이 황룡사 사주가 되었으며, 황룡사 사주가 신라 불교교단의 수장인 국통을 겸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9) 이번 전쟁이란 고려 고종 25년(1238)에 몽고 병란으로 황룡사가 화재를 입은 것을 말한다.

載舡泛海。南閩浮提十六大國 五百中國 十千小國 八萬聚落，靡不周旋，皆鑄不成，最後到新羅國。真興王鑄之於文仍林，像成，相好畢備。阿育 此翻無憂。後大德慈藏西學，到五臺山，感文殊現身授訣。仍囑云，“汝國皇龍寺，乃釋迦與迦葉佛 講演之地，宴坐石猶在，故天竺無憂王，聚黃鐵若干斤 泛海 歷一千三百餘年。然後乃到而國，成安其寺，蓋威緣使然也。”〈與別記所載不同〉。像成後，東竺寺三尊 亦移安寺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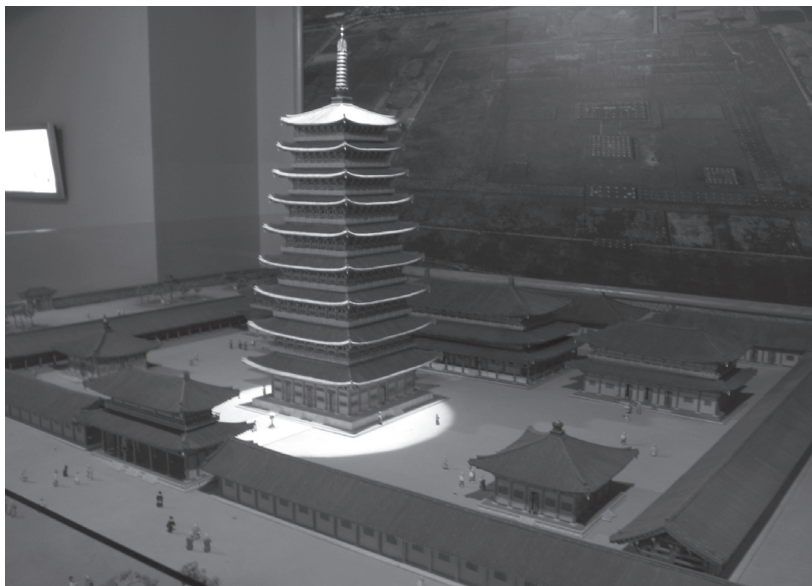
寺記云，真平六年甲辰，金堂造成，善德王代，寺初主真骨歡喜師，第二主慈藏國統，次國統惠訓，次廂律師云。今兵火已來，大像與二菩薩皆融沒，而小釋迦猶存焉。

讚曰 塵方何處匪真鄉，香火因緣最我邦，不是育王難下手，月城來訪舊行藏

4-6 황룡사의 구층탑

[해제]

황룡사 장륙상과 함께 신라 삼보의 하나인 황룡사 구층탑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장전」을 중심으로 사증 기록을 보충하여 구성하였다.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감응을 받고 신인(神人)을 만나 구층탑을 세우고 팔관회를 베풀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왕실이 평안하며 외적이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촉을 받아 신라에 돌아와 탑의 조성을 건의하고 백제의 공장을 초청하여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탑의 찰주기(刹柱



황룡사 모형(국립경주박물관 소장)

記)를 인용하여 규모를 기록하고, 구층탑의 조성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음을 말하였다. 아울러 고구려가 심라를 침공하려다 신라에 황룡사 장륙상과 구층탑과 천사옥대의 삼보가 있음을 알고 침공을 중지했다고 하였다. 또 『동도성립기』나 『삼국사기』 등을 인용하여 황룡사탑의 창건에 관련된 연유를 보완하여 제시하고 황룡사탑이 창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벼락으로 입은 피해를 보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마지막 몽고의 침공으로 불탄 사실까지 밝혔다. 국가적 노력을 들여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 뜻깊은 연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불력(佛力)이 깃든 이들 불상과 탑과 같은 장엄물, 곧 불법이 신라를 보호해 주었음을 말하고자 한 이야기이다.

[역주]

황룡사의 구층탑

신라 제27대 선덕왕(善德王)¹³⁰⁾이 즉위하여 5년인 정관(貞觀)¹³¹⁾ 10년(636) 병신년에 자장(慈藏)¹³²⁾ 법사가 중국에 유학가서¹³³⁾, 오대산(五臺

130) 선덕왕(善德王): 신라 제27대 왕. 재위 632~647년. 634년에 분황사(芬皇寺)를 창건하였고, 635년에는 영묘사(靈廟寺)를 세웠다. 첨성대를 쌓고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였다. 4-5 주125) 참조.

131) 정관(貞觀): 당(唐)태종 때의 연호. 627~649년. 진평왕49~진덕왕3년.

132) 자장(慈藏): 신라시대의 승려. 636년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만나보고 가사(袈裟)와 사리를 받았다.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에서 도를 닦고 화엄종의 두순(杜順)과 계율종(戒律宗)의 도선(道宣)에게 배운 뒤, 643년 장경(藏經) 1부와 불구(佛具)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하였고, 황룡사 9층탑 창건을 건의, 645년에 완성하였다. 4-5 주122) 참조.

133) 자장의 유학 시기를 636년으로 보는 견해는 『삼국사기』에서 비롯한다. 이는 신

山)¹³⁴⁾에서 문수보살(文殊菩薩)¹³⁵⁾에 감응하여 법을 받았다.〈자세한 것은 본전(本傳)¹³⁶⁾에 보인다.〉 문수보살이 또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 국왕은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의¹³⁷⁾ 왕으로서 이미 부처로부터 수기(授記)¹³⁸⁾를 받았으

덕왕 인평(仁平) 5년을 선덕왕 즉위 5년과 동일시한 데 따른 착오로 보인다. 가장 확실한 신라 당시 자료인 「황룡사구층목탑찰주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記)」와 『속고승전(續高僧傳)』 권24 자장전 등에 638년에 입당하였다고 한 기록이 확실하다.

- 134) 오대산(五臺山): 중국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 오대현(五臺縣)에 있는 오대산. 청량산이라고 한다. 중국 불교사상 사대영산(四大靈山)의 하나이다. 8세기 후반에 불공(不空)이 금각사를 창건하여 오대산을 밀교의 성지로 다듬었고, 이어 화엄종의 정관(澄觀)이 대화엄사에서 활동하며 오대산을 화엄성지로 재확인하였다. 4-5 주123) 참조.
- 135) 문수보살(文殊菩薩): ㉔ Mañjuśrī. 문수사리(文殊師利) 또는 만수실리(曼殊室利)로 음역하며, 묘덕(妙德), 묘길상(妙吉祥)으로 의역한다. 보현보살(普賢菩薩)과 함께 석가여래(釋迦如來)의 협시보살로서 지혜(智慧)를 담당하여 오른손에 지검(智劍), 왼손에 청연화(靑蓮華)를 가지고 사자(獅子)를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와 같이 32상(相) 80종호(種好)의 덕상(德相)을 갖추었다고도 하며(『문수반니원경(文殊般泥洹經)』), 동자(童子)로 지칭되어(『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 문수를 동자상(童子像)으로 조성 불안하는 경우도 많다.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거주한다는 것은 『화엄경』에 나온다. (60화엄 권29菩薩住處品. 大9 p.590a03~05. 東北方有菩薩住處, 名清涼山, 過去諸菩薩常於中住. 彼現有菩薩, 名文殊師利, 有一萬菩薩眷屬, 常為說法.)
- 136) 본전(本傳): 『삼국유사』 권4 자장정율(慈藏定律)편을 말한다.
- 137) 원문의 찰리(刹利)는 ㉔ ksatriya의 음역어인 찰제리(刹帝利)의 약어이다. 원래는 토지의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인도 고대의 사성제도(四姓制度) 가운데 두 번째 계급으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던 왕족과 무사층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카필라성의 왕족이었던 석가모니족을 뜻한다. 선덕왕의 부왕인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白淨), 어머니는 마야(摩耶)부인으로 그 사이에서 출생한 선덕왕이 석가족 왕족이라는 의미이다. 진평왕의 아우들도 정반왕의 아우들과 이름이 같다.
- 138) 수기(授記): ㉔ vyākaraṇa. 수결(授決)·기별(記別)·기별(記別)이라고도 한다. 본래 경전을 12가지로 구분할 때 교설을 분석하거나 문답 등의 방식으로 교리를 해설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의미가 바뀌어 제자에게 깨달은 것이나 다음 세상

므로, 특별한 인연이 있어 동이(東夷)¹³⁹⁾나 공공(共工)¹⁴⁰⁾의 오랑캐족과는 같지 않다. 그러나 산천이 험해서 사람들의 성품이 거칠고 어그러져서 사된 견해를 많이 믿어 때때로 천신(天神)이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나라에 다문(多聞)¹⁴¹⁾비구가 있기 때문에 군신들이 편안하고 백성들이 화평한 것이다.”라 하고는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자장은 이가 대성(大聖)의 변화임을 알고 피눈물을 흘리며 물러났다.

중국의 태화지(太和池)¹⁴²⁾ 가를 지나는데 갑자기 신인(神人)이 나와서 묻기를, “어찌하여 여기에 왔는가?” 하였다. 자장이 답하기를, “보리(菩提)¹⁴³⁾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하였다. 신인이 예배하며 다시 묻기를, “그

에서 태어날 곳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쓰였다. 후대에는 미래세의 깨달은 과보와 성불한 명호(名號)를 미리 알려주는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 139) 동이(東夷) : 중국이 옛부터 주변 국가를 인식하는 관점이 자신들만이 중화(中華)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랑캐라고 생각하여 동쪽은 이(夷), 서쪽은 융(戎), 남쪽은 만(蠻), 북쪽은 적(狄)이라는 말로 불렀다.
- 140) 공공(共工) : 중국 요순시대 사흉(四凶)이라 했던 공공(共工), 단주(丹朱), 곤(鯀), 삼묘(三苗)의 하나.
- 141) 다문비구(多聞比丘) : 경전과 교설을 많이 듣고 익혀 공부하는 비구. 비구를 두 종류로 나누어 말할 때 경전을 즐겨 외우고 널리 기록을 찾아 힘쓰지만 수행은 병행하지 않는 비구를 다문비구라 하고, 경전과 교학에는 능통하지 못하지만 전심으로 수행에 열중하는 비구를 과천(寡淺)비구라 한다. 석가의 십대제자 중에서는 석가의 설법 기간 중 후반 동안 항상 시봉하였던 아난존자를 다문 제일 제자로 꼽는다.
- 142) 태화지(太和池) : 자장이 구층탑 건립의 기별을 받았다는 뜻으로 중국 오대산 중대에 위치한 옥화지(玉花池)로 추정하기도 한다.
- 143) 보리(菩提) : bodhi의 음역어. 깨달음(覺)·지혜(智)·앎(知)·도(道) 등의 의미이다. 세간의 번뇌를 끊고 열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한다. 부처·연가·성문이 각각 얻은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보리 중에서 부처의 보리는 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하며,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무상정변지(無上正遍智) 등으로 한역한다.

대의 나라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하였다. 자장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靺鞨)과 남으로 왜인(倭人)과 인접하였고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여, 이웃의 노략질이 횡횡하니 이것이 백성들의 근심입니다.” 하였다. 신인이 이르기를, “지금 그대의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노리는 것이다.¹⁴⁴⁾ 마땅히 빨리 신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였다. 자장은 “고향에 돌아가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신이 말하기를, “황룡사(皇龍寺)의 호법룡(護法龍)은 나의 맏아들로 범왕(梵王)¹⁴⁵⁾의 명령을 받아 가서 그 절을 지키고 있다. 신라에 돌아가서 절에 구충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구한(九韓)¹⁴⁶⁾이 와서 조공하며 왕실이 영원히 편안할 것이다. 탑을 세운 뒤에 팔관회(八關會)¹⁴⁷⁾를 베풀고 죄인을 사면하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서울 근처¹⁴⁸⁾ 남쪽 해안에 절한 채를 만들어 나의 복을 빌어준다면 나 또한 은덕을 갚을 것이다.” 하고는

144) 『삼국사기』에는 당나라 황제가 여왕의 무력함을 지적한 말이 실려 있다. (『삼국사기』 권5, 선덕왕 12년 帝曰, …爾國以婦人爲主, 爲鄰國輕侮, 失主迎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支, 與爲爾國主, 而自不可獨王, 當遣兵營護, 待爾國安, 任爾自守, 此爲三策.)

145) 범왕(梵王): 범천왕(梵天王). 범어 𑖀 Brahma의 음역. 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의 천주(天主)로 제석천(帝釋天)과 함께 부처를 좌우에서 모시는 불법 수호의 신이다.

146) 구한(九韓): 구이(九夷). 즉 9개 다른 나라를 말한다.

147) 팔관회(八關會): 불교의식의 하나로서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팔계(八戒) 곧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不殺生], 남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않고[不偷盜], 음행하지 않고[不邪淫], 거짓말하지 않고[不妄語], 술을 마시지 않고[不飲酒], 꽃다발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不以華鬘裝飾自身],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不歌舞觀聽],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고[不坐臥高廣華麗床座], 때가 아닌 때 먹지 않는[不非時食] 것을 지키는 의식. 중국 남북조 이전부터 팔관회 의식이 있었으며, 당대에 들어와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고유의 습속 및 신앙과 합친 형태로 이루어졌다.

148) 원문에 경기(京畿)라 하였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주위의 땅을 말한다.

말을 마치고 옥을 바치고는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절의 기록¹⁴⁹⁾에 이르기를 종남산(終南山)¹⁵⁰⁾ 원향선사(圓香禪師)의 처소에서 탐을 세울 까닭을 받았다고 한다.>

정관(貞觀)¹⁵¹⁾ 17년(643) 계묘년 3월¹⁵²⁾ 16일에 당나라 황제¹⁵³⁾가 내려준 불경·불상·가사·예물을 가지고 귀국하여, 탐을 세울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선덕왕이 신하들에게 문의하니 신하들이 아뢰기를, “백제에 장인을 청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보물과 비단으로 백제에 청하였다. 장인은 아버지(阿非知)¹⁵⁴⁾라고 하는데 왕명을 받고 와서 나무와 돌

149) ‘절의 기록(寺中記)’에 나오는 내용이 「황룡사구층목탑찰주기」에 있어 이찰주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절의 기록일 수도 있다. “왕 12년 계묘에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남산의 원향선사(圓香禪師)에게 인사하자, 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관심(觀心)으로 공의 나라를 보니 황룡사에 구층탑을 지으면 해동의 모든 나라가 그대의 나라에 항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권3, p.367)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王之十二年癸卯歲，欲歸本國，頂辭南山圓香禪師。禪師謂曰，吾以觀心，觀公之國，皇龍寺建九層窣都波，海東諸國，渾降汝國。

150) 종남산(終南山) :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서안(西安) 곧 예전 장안(長安)의 남쪽 40km 거리에 있는 높이 2604m의 산으로 남산(南山)이라고도 한다. 진령산맥이 동서로 달리는 중에 있으며 일대의 취화산(翠華山), 남오대(南五臺), 규봉산(圭峰山), 여산(驪山) 등을 모두 포괄하여 말한다. 당대 불교의 중심지로 도선(道宣), 지엄(智嚴), 종밀(宗密)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하였고 많은 사원이 있어 계율종,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선종 등이 성행했던 수당대 중국불교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는 곳이 많다.

151) 정관(貞觀) : 당(唐) 태종(太宗) 때의 연호. 627~649년. 진평왕49~진덕왕3년.

152) 원문에는 3월이 없이 바로 날짜만 있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선덕왕 12년 3월에 자장이 귀국하였다고 하였다.

153) 당(唐) 황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태종(太宗, 재위 627~649)을 말한다.

154) 아버지(阿非知) : 황룡사구층탑을 건립한 백제의 건축 기술자.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에는 아비(阿非)라고 하였다.

을 다루었다. 이찬(伊漣)¹⁵⁵⁾ 용춘(龍春)¹⁵⁶⁾〈용수(龍樹)라고도 한다〉이 일을 주관하였는데¹⁵⁷⁾ 소장인(小匠人) 200인을 거느렸다. 처음 찰주(刹柱)¹⁵⁸⁾를 세우는 날에 아버지는 꿈에 본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의심이 생겨 일손을 멈추었더니,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한 노승과 한 장사(壯士)가 금당의 문에서 나와 찰주를 세우고는 승려와 장사 모두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에 뉘우치고 그 탑을 완성하였다.

皇龍寺九層塔

新羅第二十七善德王卽位五年，貞觀十年丙申，慈藏法師西學，乃於五臺感文殊授法〈詳見本傳〉。文殊又云，汝國王是天竺刹利種王，預受佛記，故別有因緣，不同東夷共工之族。然以山川崎嶇，故人性麤悖，多信邪見，而時或天神降禍。然有多聞比丘，在於國中，是以君臣安泰，萬庶和平矣。言已不現。藏知是大聖變化，泣血而退。

經由中國太和池邊，忽有神人出問，“胡爲至此？”藏答曰，“求菩提故。”神人禮拜，又問，“汝國有何留難？”藏曰，“我國北連靺鞨，南接倭人，麗濟二國，迭犯封陲，隣寇縱橫，是爲民梗。”神人云，“今汝國以女爲王，有德而無威，故隣國謀之，宜速歸本國。”藏問，“歸鄉，將何爲利益乎？”神曰，“皇龍寺護法龍，

155) 이찬(伊漣) : 신라 17관등 가운데 제2위. 이간(伊干)이라고도 한다.

156) 용춘(龍春) : 신라 태종(太宗)의 아버지.

157) 원문의 간고(幹蠱)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루어낸다는 뜻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역량을 말한다.

158) 찰주(刹柱) : 탑의 중심 기둥. 목탑을 세울 때 기단 중심의 심초석(心礎石) 위에 세워 탑의 중심을 유지하게 하는 중심기둥이다.

是吾長子，受梵王之命，來護是寺。歸本國，成九層塔於寺中，隣國降伏，九韓來貢，王祚永安矣。建塔之後，設八關會，赦罪人，則外賊不能爲害。更爲我於京畿南岸，置一精廬，共資予福，予亦報之德矣。”言已，遂奉玉而獻之，忽隱不現〈寺中記云，於終南山圓香禪師處，受建塔因由〉。

貞觀十七年癸卯十六日，將唐帝所賜經像袈裟幣帛而還國，以建塔之事聞於上。善德王議於群臣，群臣曰，“請工匠於百濟，然後方可。”乃以寶帛請於百濟。匠名阿非知，受命而來，經營木石，伊干龍春〈一作龍樹〉幹蠱，率小匠二百人。初立刹柱之日，匠夢本國百濟滅亡之狀，匠乃心疑停手，忽大地震動，晦冥之中，有一老僧一壯士，自金殿門出，乃立其柱，僧與壯士，皆隱不現。匠於是改悔，畢成其塔。

찰주기(刹柱記)¹⁵⁹⁾에 이르기를, “철반(鐵盤)¹⁶⁰⁾ 위의 높이는 42자이고 그 아래는 183자이다.”라고 하였다.¹⁶¹⁾ 자장은 오대산에서 받은 사리 백과를 찰주 안과 통도사(通度寺)¹⁶²⁾ 계단(戒壇)과 태화사(太和寺)¹⁶³⁾ 탑에 나누어

159) 찰주기(刹柱記): 탑을 세울 때 중심이 되는 찰주를 받치는 받침돌인 심초석(心礎石) 안에 공간을 만들어 탑의 조영과 관련된 기록을 넣어 둔다. 실제로 황룡사 탑 심초석 안에서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가 발견되어 이들 기록의 사실성을 확인해 주었다.

160) 철반(鐵盤): 탑의 상륜부의 노반(露盤). 노반은 탑 위에 있는 기둥 모양의 장식인 상륜(相輪)의 가장 아랫부분을 말한다.

161) 찰주기 원문과 내용은 같다.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권3, 368쪽, 鐵盤已上 高七步, 已下高卅步三尺.)

162) 통도사(通度寺):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영취산에 있는 절.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계단이 있는 불보(佛寶)사찰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이다. 자장(慈藏)이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선덕왕 15년(646)에 통도사를 창건하고

봉안하여 태화지(太和池) 용의 요청에 부응하였다.(태화사(太和寺)는 아곡현(阿曲縣) 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울주(蔚州)이며 역시 자장법사가 창건한 곳이다.)

탑을 세운 후에 천지가 태평하고 삼한이 통일되었으니, 어찌 탑의 영험한 도움이 아니겠는가.

뒤에 고구려왕이 신라를 정벌하고자 하였는데 (누군가) 아뢰기를,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였더니, “황룡사의 장륙존상과 구층탑과 진평왕(眞平王)¹⁶⁴의 천사옥대(天賜玉帶)¹⁶⁵입니다.”라고 하여, 마침내 계획을 중지하였다. 주(周) 나라에 구정(九鼎)¹⁶⁶이 있어서 초(楚)나라¹⁶⁷ 사람들이 감히

부처의 진신사리를 안치하고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아 많은 사람들을 득도케 하였다. 현재 계단이 남아 있고 여러 유적이 많은 대찰이다.

163) 태화사(太和寺):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반당골에 있었던 사찰. 여기에서 장대석 등이 발견되었다. 중국 태화지 용의 기별에 따라 자장이 친라 때 창건한 절로서 조선 초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주택지로 바뀌었으며, 현재의 태화사는 최근 사찰이다.

164) 진평왕(眞平王): 신라 제26대 왕. 재위 579~632년. 5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재위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원광(圓光)·담육(曇育) 등의 명승을 중국에 보내어 수학하게 하는 등 불교를 진흥시키고 문물을 수용하였다. 4-5 주115) 참조.

165) 천사옥대(天賜玉帶):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허리띠. 진평왕 즉위년에 천사(天使)가 궁전의 뜰에 내려와서 상제가 전해주라는 옥대(玉帶)를 가져와 받았다. 왕은 사직과 종묘에 지내는 국가 제사에 이 옥대를 매고 집전하였다.(『삼국유사』 권1 기이 天賜玉帶)

166) 구정(九鼎): 하(夏)나라 우(禹)임금이 구주(九州)에서 쇠를 거두어들여 구주를 상징하는 9개의 솥을 만들었는데, 두 개의 손잡이와 세 개의 발이 달렸다고 한다. 하(夏)·은(殷)·주(周) 삼대를 전하면서 천자의 보물로 여겨졌다.

167) 초(楚)나라: 중국 전국시대 큰 나라의 하나. 지금의 호북성 지방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나라로서 전국칠웅(戰國七雄)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강성하여 진나라와 쌍벽을 이룰 정도였으나 결국 진에게 멸망하였다.

북쪽을 엿보지 못하였다고 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찬한다.

귀신들이 삼가 도와서 서울을 진압하니,

눈부신 단청에 나는 듯한 기와로다.

높이 올라 굽어보니 어찌 구한만 항복하리오,

천지가 특별히 태평함을 비로소 알겠네.

刹柱記云, “鐵盤已上高四十二尺 已下一百八十三尺.” 慈藏以五臺所授舍利百粒, 分安於柱中, 并通度寺戒壇 及大和寺塔, 以副池龍之請.〈太和寺在阿曲縣南, 今蔚州, 亦藏師所創也.〉

樹塔之後, 天地開泰, 三韓爲一, 豈非塔之靈蔭乎.

後高麗王將謀伐羅, 乃曰, “新羅有三寶, 不可犯也.” “何謂也?” “皇龍丈六 并九層塔 與眞平王天賜玉帶.” 遂寢其謀. 周有九鼎, 楚人不敢北窺, 此之類也.

讚曰 鬼拱神扶壓帝京, 輝煌金碧動飛甍. 登臨何啻九韓伏, 始覺乾坤特地平.

또 해동의 이름난 현자인 안홍(安弘)¹⁶⁸⁾이 지은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¹⁶⁹⁾에 이르기를, “신라 제27대에 여왕이 군주가 되어 비록 도는 있으나

168) 안홍(安弘):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안함전에 실린 안함(安含, 579~640)과 동일인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안함은 이찬 시부(詩賦)의 손자로서 진평왕 23년에 수나라로 유학 가서 5년 만에 비마라진제·농가타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 저술에 참서(識書) 1권이 있는데 이를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로 보는 견해가 있다.

169)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 안홍(安弘)이 찬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다. 구한(九韓)의 명단에 고구려와 백제가 누락된 대신 당말 오대의 국명들이 보인다는 점과 고려 때 쓰인 동도(東都)라는 표현 때문에 나말

위엄이 없어 구한(九韓)이 침공하였다. 만약 용궁(龍宮)¹⁷⁰⁾ 남쪽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운다면 이웃 나라의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1층은 일본¹⁷¹⁾, 2층은 중화(中華), 3층은 오월(吳越), 4층은 탁라(托羅)¹⁷²⁾, 5층은 응유(鷹遊)¹⁷³⁾, 6층은 말갈(靺鞨), 7층은 단국(丹國)¹⁷⁴⁾, 8층은 여적(女狄)¹⁷⁵⁾, 9층은 예맥(穢貊)이다.”라고 하였다.

또 국사(國史)와 절에 전하는 옛 기록을 살펴보니, “진흥왕(眞興王)¹⁷⁶⁾ 계유년(553)에 절을 창건하였으며, 그 후 선덕왕대인 정관 19년(645) 을사년에 탑이 완성되었다. 32대 효소왕 즉위 7년인 성력(聖曆) 원년(698) 무술년 6월에 벼락을 맞아<절에 전하는 옛 기록에서는 성덕왕(聖德王)¹⁷⁷⁾대라고 하였으나

여초 시기에 지은 것을 안흥에게 가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구한의 구체적인 명단이 후대적 윤색이라는 점에서 안흥의 진찬으로 보기도 한다.

170) 용궁(龍宮): 『삼국사기』 권4 진흥왕 14년(553)에는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했는데 황룡이 나타나 왕이 고쳐서 절로 삼고 황룡사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말하는 용궁 남과 비교된다.

171) 일본(日本): 일본이라는 명칭은 7세기 후반부터 쓰였다. 『신당서(新唐書)』 권220 동이 일본조에는 왜(倭)가 함형(咸亨) 원년(670)에 사신을 중국에 보내어 국호를 왜(倭)에서 일본(日本)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왔다고 한다.

172) 탁라(托羅): 『삼국유사』 권1 마한조에 탁라(毛羅)라 나온다. 탁라는 탐라(耽羅)라고도 하였으니, 고려시대에 제주도를 지칭하였다.

173) 응유(鷹遊): 위치 미상. 백제의 별칭이라는 견해도 있다.

174) 단국(丹國): 거란(契丹)을 말한다.

175) 여적(女狄): 여진(女眞)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76) 진흥왕(眞興王): 신라 제24대 왕. 재위 540~576. 한강 유역의 요충지를 획득하고 대가야를 평정하였으며, 창녕에서 북한산 마운령 황초령에 이르는 영역을 새로 개척하였다. 4-1 주8) 참조.

177) 성덕왕(聖德王): 신라 제33대 왕. 재위 702~737년. 성은 김(金)씨. 이름은 본래 융기(隆基)였으나 뒤에 흥광(興光)으로 고쳤다. 신문왕의 둘째아들로 효소왕의 아우이다. 효소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화백회의에서 추대되었다. 처음 왕비는 성정왕후(成貞王后)였으나 성덕왕 15년에 왕궁에서 내보내고 소덕왕후(昭德王

잘못이다. 성덕왕대에는 무술년이 없다.) 33대 성덕왕대 경신년(720)년에 다시 완성하였다. 48대 경문왕(景文王)¹⁷⁸⁾대 무자년(868) 6월에 두 번째 벼락을 맞았으며, 같은 왕 때 세 번째로 중수하였다.¹⁷⁹⁾ 고려 광종(光宗)¹⁸⁰⁾ 즉위 5년 계축년(953) 10월에 세 번째 벼락을 맞았으며, 현종(顯宗)¹⁸¹⁾ 13년(1021) 신유년에 네 번째로 다시 완성하였다. 또 정종(靖宗)¹⁸²⁾ 2년 을해(乙亥, 1035)에 네 번째 벼락을 맞았으며, 다시 문종(文宗)¹⁸³⁾ 갑진년(1064)년에 다섯 번

后)를 새로 맞이하였다. 성덕왕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717년에 당나라에서 가져온 공자(孔子)와 제자들의 초상화를 대학에 두어 유학을 장려하고, 당나라와의 외교 문서를 전담하는 통문박사(通文博士)를 714년에 설치하였으며, 재위 기간동안 당나라에 사신을 약 43회 파견하였다. 722년에는 정전(丁田)제를 실시하였고, 732년에는 발해를 치려다 눈으로 길이 막혀 중단하였으나 이때 패강(溟江:大同江) 이남의 땅을 판도로 하였다.

178) 경문왕(景文王): 신라 제48대 왕. 재위 861~875. 성 김(金)씨. 이름은 응렴(膺廉). 아버지는 계명(啓明), 할아버지는 희강왕(僖康王)이다. 현안왕에게 아들이 없어 사위로서 즉위하였다. 신라 하대에 계속된 왕위 계승 분쟁에서 다소 소상 상태를 유지하며 이후 아들이 정강왕과 헌강왕, 딸이 진성여왕으로 즉위하여 왕위 계승의 안정을 가져왔다. 중앙귀족의 모반과 지방 반란을 평정하고 당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 안정을 꾀하였으나 재위 중 천재지변이 많아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웠다. 이때 중수한 황룡사탑의 기록이 심초석에서 발견되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179) 『삼국사기』에 실린 황룡사탑 피해 기록은 성덕왕 17년(718) 탑이 흔들리고, 경문왕 8년(868) 6월에 탑이 흔들려 11년에 탑을 개조하여(十一年 春正月 王命有司改造皇龍寺塔) 13년에 9층 22장 높이로 완성하였고(十三年 秋九月 皇龍寺塔成九層 高二十二丈), 경애왕 4년에 탑이 북쪽으로 기울었다는 것들이다.

180) 광종(光宗): 고려 제4대 왕. 재위 949~975. 『고려사』에는 정종 4년(949)에 화제(권53 五行志)

181) 현종(顯宗): 고려 제8대 왕. 재위 1010~1031. 『고려사』에는 현종 3년(1012) 개수(권4 世家 顯宗)

182) 정종(靖宗): 고려 제10대 왕. 재위 1034~1046.

183) 문종(文宗): 고려 제11대 왕. 재위 1046~1083.

째로 다시 완성하였다. 또 헌종(獻宗)¹⁸⁴⁾ 말인 을해년(1095)에 다섯 번째로
벼락을 맞았으며, 숙종(肅宗)¹⁸⁵⁾ 병자년(1096)에 여섯 번째로 다시 완성하
였다. 또 고종(高宗)¹⁸⁶⁾ 16년(1238) 무술년 겨울의 몽고병란¹⁸⁷⁾ 때 탑과 절
과 장륙존상과 건물이 모두 불탔다.”고 하였다.

又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 女王爲
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皇龍寺 建九層塔, 則隣
國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
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
層穢貊.”

又按國史及寺中古記, “眞興王癸酉 創寺, 後善德王代 貞觀
十九年乙巳, 塔初成. 三十二孝昭王卽位七年 聖曆元年戊戌
六月霹靂, 〈寺中古記云, 聖德王代, 誤也. 聖德王代 無戊戌.〉 第三十三
聖德王代庚申歲, 重成. 四十八景文王代戊子六月, 第二霹靂,
同代第三重修. 至本朝光宗卽位五年癸丑十月, 第三霹靂, 顯
宗十三年辛酉, 第四重成. 又靖宗二年乙亥, 第四霹靂, 又文
宗甲辰年, 第五重成. 又獻宗末年乙亥, 第五霹靂, 肅宗丙子,
第六重成. 又高宗二十六年戊戌冬月, 西山兵火, 塔寺丈六殿
宇皆災.”

184) 헌종(獻宗): 고려 제14대 왕. 재위 1094~1095. 『고려사』에는 헌종 원년(1095)에
화재, 보수(권10 世家 獻宗; 권53 五行志)

185) 숙종(肅宗): 고려 제15대 왕. 재위 1095~1105.

186) 고종(高宗): 고려 제23대 왕. 재위 1213~59.

187) 원문의 서산병화(西山兵火)는 몽고의 침공과 이에 대한 고려의 항쟁을 말한다.

4-7 황룡사의 종과 분황사의 약사상과 봉덕사의 종

[해제]

통일신라 변영기의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8세기 중반의 거대한 조영물인 황룡사 대종과 분황사의 약사상과 봉덕사의 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편이다. 현존하는 봉덕사종의 4배나 되는 크기인 황룡사종은 크기를 상세한 단위까지 기록하고 조성 주체인 경덕왕과 시주자와 제작 장인을 말하였다. 분황사 약사상 역시 정확한 규모와 제작자를 적었다. 봉덕사종은 경덕왕이 부왕 성덕왕을 위해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혜공왕 때 완성하여 성덕왕을 위한 사찰인 봉덕사에 봉안하였음을 적었다. 황룡사종과 분황사 약사상은 경덕왕이 조성하였고, 봉덕사종 역시 경덕왕의 의지로 혜공왕 때 이루어졌다. 이들 조영물의 조성 주체인 경덕왕(景德王)은 신라 중대 왕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왕권 강화를



봉덕사종

위해 관제정비와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들 조영물의 조성은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장엄물로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세 가지 조영물은 이 시기 왕실이 중시하던 불교의 중심 사찰이 이들 세 사찰임을 알려준다. 현존하는 봉덕사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뛰어난 예술적 및 과학적 역량으로 우수한 장엄물을 제작할 수 있었고 종명(鐘銘)에서 보듯이 수준 높은 문화적 역량이 이들 조영물에 모두 집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이다. 특히 제작자들을 명시함으로써 공장의 위상이 당대에 상당히 높았고 이런 여건에서 우수한 제작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알게 한다. 같은 경덕왕 대에 조영이 시작된 불국사와 석불사를 그 창건 연유에 따라 권5 효선(孝善)편에 따로 마련한 것과 합쳐 살펴 보면 신라 문화의 정수를 이 한편에 모두 모아 놓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역주]

황룡사의 종과 분황사의 약사상과 봉덕사의 종

신라 제35대 경덕왕(景德王)¹⁸⁸⁾이 천보(天寶)¹⁸⁹⁾ 13년(754) 갑오년에 황룡사(皇龍寺)의 종(鐘)¹⁹⁰⁾을 주조하였는데, 길이가 1길 3치이고 두께가 9치

188) 경덕왕(景德王): 신라 제35대 왕. 재위 742~765. 성 김(金). 이름 현영(愍英). 성덕왕(聖德王)의 아들이고, 효성왕(孝成王)의 아우이며, 어머니는 소덕태후(昭德太后)이다. 비(妃)는 삼모부인(三毛夫人) 김씨(金氏)와 경수왕후(景垂王后) 김씨(金氏)이다. 왕권 안정을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하여 757년에 녹읍을 부활하고 9주(州)·5소경(小京)·117군(郡)·293현(縣)을 정비하여 지명을 한식(漢式)으로 고쳤으며 이어 관청과 관직의 이름을 한식으로 고쳤다. 불교의 중흥에도 노력하여 754년에 황룡사종을 주조하고, 불국사(佛國寺)와 석불사(石佛寺, 石窟庵) 및 굴불사(掘佛寺) 등을 창건하였고, 각 사찰의 수축과 탑과 불상 등 불교 조영물의 제작에 힘썼다.

189) 천보(天寶): 당(唐) 현종(玄宗) 때의 연호. 742~756년. 경덕왕1~15년.

이며 무게는 497,581근이었다. 시주는 효정(孝貞)¹⁹¹⁾ 이찬(伊漣)¹⁹²⁾과 삼모부인(三毛夫人)¹⁹³⁾이고, 장인(匠人)은 이상택(里上宅)¹⁹⁴⁾ 하전(下典)¹⁹⁵⁾이었다. 숙종(肅宗)¹⁹⁶⁾때에 다시 새로운 종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6척 8촌이었다.

이듬해 을미년(755)에 분황사(芬皇寺)¹⁹⁷⁾에 약사여래동상(藥師如來銅像)을 주조하였는데 무게가 306,700근이었고 장인은 본피부(本彼部)¹⁹⁸⁾의

190) 이 종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기록에 따르면 50만 근에 가까운 대종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12만 근의 봉덕사종보다 4배 이상 큰 종이었다.

191) 효정(孝貞) : 생몰년 미상. 신라의 진골 귀족. 성덕왕 13년(714) 정월 위문(魏文)에 이어 이찬으로서 행정의 수반인 중시(中侍)가 되어 718년 퇴임할 때까지 4년간 역임하였다.

192) 이찬(伊漣) : 신라 17관등 중 제2관등.

193) 삼모부인(三毛夫人) : 이찬(伊漣) 김순정(金順貞)의 딸이며, 경덕왕의 첫째 왕비로서 후사가 없어 출궁당하였다. 경덕왕대 왕권강화에 따른 정치 세력간의 알력으로 인한 일로 추측된다.

194) 이상택(里上宅) : 『삼국유사』 권1 기이 진한편에 나오는 부유한 39개 금입택(金入宅) 중의 하나이다.

195) 하전(下典) : 신라시대의 관직으로 궁중 직속의 벽전(壁典)·자원전(蔞園典)의 하급 관직으로 간옹(看翁)을 보좌하였다. 이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귀족들의 사적인 직책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96) 숙종(肅宗) : 고려 제15대 왕. 재위 1095~1105.

197) 분황사(芬皇寺)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황룡사와 마주보고 있는 절.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되었다. 신라에 옛 부처 때의 인연 있는 일곱 절터 중의 하나로 꼽혔던 중요한 절이다. 자장이 귀국하자 머물게 했던 절이며, 7세기 중반에 원효가 활동하며 『화엄경소』를 지었던 절이다. 원효의 사후 아들 설총이 원효의 상을 빚어 분황사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현재 약사여래입상을 모신 보광전(普光殿)과 승당(僧堂)·종각(鍾閣) 등이 있으며, 국보 제30호인 분황사모전석탑 외에 원효의 비인 화쟁국사(和諍國師)비편, 석정(石井) 등이 있다. 경덕왕 때인 755년에 36만근의 거대한 동제 약사여래상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이름난 화가 솔거(率居)가 그린 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 등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유적이 있던 유서 깊은 절이다.

198) 본피부(本彼部) : 신라시대 경주의 중심 세력인 6부 중의 하나이다. 현재 경주시

강고(强古) 나마(奈麻)¹⁹⁹⁾였다.

또 황동 12만근을 희사하여 부왕인 성덕왕(聖德王)²⁰⁰⁾을 위하여 큰 종 하나를 주조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아들 혜공왕(惠恭王)²⁰¹⁾ 건운(乾運)²⁰²⁾이 대력(大曆)²⁰³⁾ 경술년(770) 12월에 담당 관청에 명하여 공인들을 모아 완성하여 봉덕사(奉德寺)²⁰⁴⁾에 봉안하였다.²⁰⁵⁾ 이 절은 효성왕(孝

인왕동 일대를 포함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199) 운문의 내말(乃末)은 나마(奈麻)이다. 신라 17관등 중의 제11 관등이다.

200) 성덕왕(聖德王) : 신라 제33대 왕. 재위 702~737.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유학을 장려하고, 재위 기간에 사신을 당나라에 약 43회 파견하였다. 정전(丁田)제를 실시하였고, 패강(溟江) 이남의 땅을 신라의 판도로 확정하였다. 4-6 주177) 참조.

201) 혜공왕(惠恭王) : 신라 제36대왕. 재위 765~780. 성 김씨, 이름은 건운(乾運). 경덕왕의 큰 아들로 어머니는 만월부인(滿月夫人) 김씨(金氏)이다. 경덕왕 사후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강력한 왕권의 견제 아래 있던 진골귀족 세력들이 정치 일선에 등장해 정권쟁탈전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였다. 그래서 혜공왕의 재위 16년 동안에 많은 정치적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그 속에서 혜공왕과 왕비는 시해되었다. 무열왕부터 혜공왕까지 이어온 무열왕계 직계의 왕위 계승 속에 안정된 왕권을 지속하던 중대(中代)가 끝나고 이후 하대(下代)가 시작되어 신라 사회는 혼란기에 접어들게 된다.

202) 건운(乾運) : 혜공왕(惠恭王)의 이름.

203) 대력(大曆) : 당(唐) 대종(代宗) 때의 연호. 766~779년. 혜공왕2~15년.

204) 봉덕사(奉德寺) : 신라 효성왕 2년(738)에 왕이 돌아간 아버지 성덕왕(聖德王)을 위하여 건립하였다. 왕실 사원의 관리를 위한 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이 설치되었다. 『삼국사기』 권37 직관지 奉德寺成典)

205) 이 성덕대왕신종은 원래 봉덕사에 있었으나, 이 절이 수몰된 후 1460년에 영묘사(靈妙寺)로 옮겼다.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봉덕사종은 신라 혜공왕이 주조한 종으로 구리 무게가 12만근인데 종 소리가 백여 리까지 들렸다. 후에 절이 복천에 잠기자 천순(天順) 4년(세조 6, 1460)에 영묘사로 옮겼다.” (“奉德寺鍾, 新羅惠恭王鑄鍾, 銅重十二萬斤, 撞之聲聞百餘里. 後寺淪於北川, 天順四年, 移懸于靈妙寺.”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 고적)

成王)²⁰⁶⁾이 개원(開元)²⁰⁷⁾ 26년 무인년(738)에 부왕인 성덕왕의 복을 받들기 위하여 창건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명(鐘銘)에 ‘성덕대왕신종지명(聖德大王神鐘之銘)’이라고 하였다. <성덕왕은 경덕왕(景德王)의 아버지인 흥광대왕(興光大王)이다. 종은 본래 경덕왕이 아버지를 위하여 시주한 금으로 만든 것이기에 성덕종(聖德鐘)이라고 부른다.> 조산대부(朝散大夫)²⁰⁸⁾ 겸 태자사의랑(太子司議郎)²⁰⁹⁾ 한림랑(翰林郎)²¹⁰⁾ 김필월(金弼輿)²¹¹⁾이 왕명을 받들어 종명을 지었는데

-
- 206) 효성왕(孝成王) : 신라 제34대 왕. 재위 737~742, 성 김씨, 이름은 승경(承慶). 성덕왕의 둘째아들. 어머니는 소덕왕후(昭德王后). 비는 혜명부인(惠明夫人) 김씨. 전 왕인 성덕왕 때에 정상화된 당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도덕경 등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였다. 아우 현영(憲英, 뒤의 경덕왕)을 태자로 책봉하여 왕실의 안정을 꾀하고 후궁의 아버지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도 하였다.
- 207) 개원(開元) : 당(唐) 현종(玄宗) 때의 연호. 713~741년. 성덕왕12~효성왕5년.
- 208) 조산대부(朝散大夫) : 당나라와 고려에서 사용하던 문산계이다. 당에서는 종오포하(從五品下)이고, 고려에서는 종5품 하계(下階)로서 전체 29등급 중 제13계였다.
- 209) 태자사의랑(太子司議郎) : 당나라 정육품상(正六品上)의 직관이다. 신라 시대에는 태자의 궁전과 관속(官屬)으로 752년(경덕왕 11)에 동궁아(東宮衙)에 상대사(上大舍) 1인, 차대사(次大舍) 1인을 두었다. 고려시대 문종 때 마련된 직제에 따르면 1068년(문종 22)에 종1품의 태사(大師)·태부(大傅)·태보(大保) 각 1인, 종2품의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 각 1인, 정3품의 빈객(賓客) 4인, 정4품의 좌·우서자(左右庶子) 각 1인, 정4품의 좌·우유덕(左右諭德) 각 1인, 종4품의 시강학사(侍講學士)·시독학사(侍讀學士) 각 1인, 정5품의 좌·우찬선(左右贊善) 각 1인, 정5품의 중사인(中舍人)·중윤(中允) 각 1인, 종5품의 세마(洗馬)·전내(典內) 각 1인, 정6품의 문학(文學)·사의랑(司議郎) 각 1인, 시독사 1인을 두었다. 이로 미루어 신라시대 태자궁의 직책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10) 한림랑(翰林郎) : 신라시대의 관직. 통일신라시대에 왕명을 문서로 작성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던 한림대(翰林臺)의 우두머리 관직이다. 신라의 한림대는 당나라의 한림원(翰林院)을 모방하여 경덕왕대에 종래의 통문박사(通文博士)를 개칭한 것으로, 한림랑·한림대조(翰林待詔)·한림서생(翰林書生) 등의 관원이 있었다. 이 관직에는 문장과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특히 한림대의 최고 관직인 한림랑은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당대의 문사(文士)들로써

글이 번거로워 기록하지 않는다.²¹²⁾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午, 鑄皇龍寺鐘, 長一丈三寸, 厚九寸, 入重四十九萬七千五百八十一斤. 施主孝貞伊滄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肅宗朝, 重成新鐘, 長六尺八寸.

又明年乙未, 鑄芬皇藥師銅像, 重三十萬六千七百斤, 匠人本彼部强古乃末.

又捨黃銅一十二萬斤, 爲先考聖德王, 欲鑄巨鐘一口, 未就而

충당하였고, 6두품 출신이 이 관직에 많이 진출하였다. 880년 경에 한림대가 서서원(瑞書院)으로 개명됨에 따라 한림랑은 서서원학사(學士)로 바뀌어 신라 하대 문한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 211) 김필월(金弼輿): 생몰년 미상. 신라 중대의 문인. 명문에서는 ‘김필오(金弼奧)’라고 판독된다. ‘김필해(金弼奚)’라고도 쓴다.
- 212) 봉덕사종은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고 실질적으로는 중대왕실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경덕왕대에 계획되었다가 혜공왕 7년에 완성되었다. 봉덕사는 성덕·효성·경덕·혜공왕대에 걸친 왕실의 원찰(願刹)이다. 명문의 내용을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소리아말로 일승(一乘)의 원음(圓音)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신기(神器)임을 역설하였다. 둘째는 성덕왕의 공덕을 찬양하고 그 공덕을 중에 담아 영원히 기리며 종소리와 더불어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발원을 담았다. 셋째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 성덕왕의 아들인 경덕왕의 효성과 덕을 찬양하였다. 넷째는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경덕왕이 돌아가자 그 아들인 혜공왕이 이어서 완성하였는데, 이는 혜공왕의 효성과 덕망의 소치라고 찬양하였다. 다섯째는 종이 완성되자 그 감격과 신비로움 및 종의 효용성을 서술하고 종소리와 함께 온 누리가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빌었다. 이어 4자구의 사(詞)가 있다. 끝으로 주조에 참여한 13인의 관직과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그중 김웅(金邕)과 김양상(金良相)은 왕권 반대 세력이었으며, 김양상은 혜공왕 13년 왕에게 당시 정치에 대하여 극론하고 780년에 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선덕왕(宣德王)이다.

崩。其子惠恭大王乾運，以大曆庚戌十二月，命有司鳩工徒，乃克成之，安於奉德寺。寺乃孝成王開元二十六年戊寅，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故鐘銘曰，聖德大王神鐘之銘。〈聖德乃景德之考，興光大王也。鐘本景德爲先考所施之金，故稱云，聖德鐘爾。〉朝散大夫兼太子司議郎翰林郎金弼粵奉教撰鐘銘，文煩不錄。

4-8 영묘사의 장륙상

[해제]

영묘사는 선덕왕 때 신라 제일의 예술가로 꼽히는 양지(良志)가 불상을 조성한 사찰이고, 이 이야기는 권4 의해 「양지사석」편에 수록되어 있다. 여 기서는 경덕왕 때 그 불상을 개금한 사실과 그 비용을 기록하였는데 전승 에 따라서는 그것이 처음 조성할 때의 비용이라고 전해움을 아울러 알려 준다. 일연이 기록을 중시하는 태도를 잘 살필 수 있는 편이다.

[역주]

영묘사의 장륙상

선덕왕(善德王)²¹³⁾이 영묘사(靈妙寺)²¹⁴⁾를 창건하고 불상을 조성한 인연

213) 선덕왕(善德王) : 신라 제27대 왕. 재위 632~647. 분황사(芬皇寺)와 영묘사(靈廟寺)를 창건하였고,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였다. 4-5 주 125) 참조.

214) 영묘사(靈妙寺) : 영묘사(靈廟寺)라고도 쓴다. 과거불 시대의 인연이 있는 일곱 절터의 하나로 꼽히는 절로서 신라 선덕왕 때 창건되었다. 현재 정확한 절터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주시 성진리 서천가에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곳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근래에 현 홍원사에서 ‘영묘(靈廟)’라고 새겨진 기와가 출토 되면서 현지의 향토사가들은 이곳을 영묘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영묘사는 신라 때 왕실에 의해 건립된 사원에 설치된 일반 관부로 불교계에 대한 승정기구로 서의 통제적 기능과 왕실의 원당(願堂)으로서의 봉사(奉祀) 기능을 하던 성전사 원(成典寺院)이 설치된 주요 사찰이었다.(『삼국사기』 권38 직관지 상 成典寺院)

은 양지(良志) 법사전²¹⁵⁾에 자세히 실려 있다. 경덕왕(景德王)²¹⁶⁾ 즉위 23년(759)에 장륙존상을 개금하였는데 비용으로 조(租) 23,700석이 들었다.<양지 전에는 불상을 처음 만들 때의 비용이라고 했다.²¹⁷⁾ 지금 둘 다 기록해 둔다.>

靈妙寺丈六

善德王創寺，塑像因緣，具載良志法師傳。景德王卽位二十三年，丈六改金，租二萬三千七百碩。〈良志傳，作像之初成之費。今兩存之。〉

-
- 215) 『삼국유사』 권4, 양지사석(良志使錫)편에 있다. “영묘사의 장륙삼존상·사천왕상·전각과 탑의 기와, 사천왕사탑 하부의 팔부신장상, 법림사의 주불 삼존상·좌우금강신상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영묘사와 법림사 두 절의 편액도 썼다. 또 일찍이 벽돌을 다듬어서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삼천불을 만들어 탑에 안치하고 절에 모셔 공경을 다하였다. 영묘사의 장륙존상을 만들 때 선정에 들어 삼매로써 대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삼았다. 그래서 온 성안의 남자와 여자들이 다투어서 진흙을 날랐다.”(靈廟丈六三尊 天王像 并殿塔之瓦, 天王寺塔下八部神將, 法林寺主佛三尊 左右金剛神等, 皆所塑也, 書靈廟 法林二寺額, 又嘗彫磚造一小塔, 竝造三千佛, 安其塔置於寺中, 致敬焉, 其塑靈廟之丈六也, 自入定, 以正受所對, 爲揉式, 故傾城士女爭運泥土.)
- 216) 경덕왕(景德王): 신라 제35대 왕. 재위 742~765. 왕권 안정을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시행하고 9주(州)·5소경(小京)·117군(郡)·293현(縣)을 정비하였다. 754년에 황룡사중을 주조하고, 불국사(佛國寺)와 석불사(石佛寺)와 굴불사(掘佛寺) 등을 창건하였다. 4-7 주188) 참조
- 217) 양지사석편에서는 이곳의 기록과는 거꾸로 조성비용이 개금 비용이라는 설을 세주로 소개하였다. “상을 만들 때 비용은 곡식 2만 3천 700석이 들었다.<혹은 개금 할 때의 조(租)라고도 한다.>” (『삼국유사』 권4, 양지사석 像初成之費, 入穀二萬三千七百碩.〈或云, 改金時租〉)

4-9 사불산과 굴불산과 만불산

[해제]

이 편은 신라 조형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 주고 있다. 대승사 창건의 연유가 된 사방불은 진평왕 때의 이야기이고 백률사 밑에서 파낸 굴불사 사방불은 경덕왕 때의 이야기이다.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왕이 이들 조영물의 확인자이며 발견자인 주체로 그려져 있다. 사방불은 부처의 관념을 공간적으로 확대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들이 신라 국토에 나타나고 땅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들 사방에 주재하는 부처가 신라에 살고 있다는 불국토(佛國土) 사상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불산(대승사) 사방불은 현재 남아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어떤 존상을 새겼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굴불사 사방불은 경전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사방불이 아닌 신라 특유의 사방불을 새긴 것으로 그 내용은 당시 신라에서 가장 성행하던 신앙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역시 신라 불국토 신앙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조형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이 편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이에 비해 만불산은 신라 조형 예술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만불산은 중국의 『두양잡편(杜陽雜編)』과 같은 여러 기록에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어 그 대체적인 사실성이 인정된다. 이는 불국 세계를 축소하여 한마당에 구현한 빼어난 조영물이었다. 불국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구상하고, 그대로 조형으로 이루어낸 역량이 당대 신라 조형 예술의 수준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한 길이나 되는 커다란 크기에 만불의 형상을 조성하고 바람에 따라 종이 울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적인 묘사가 인상적이다. 이 우수한 조영물



경주 굴불사지 사면불

은 중국에서도 화제의 대상이었다. 이를 통해 경덕왕 때인 8세기 중반에 신라와 당 사이에 활발한 불교문화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덕왕 때는 신라 조형 예술의 정수인 불국사와 석불사 그리고 봉덕사종 등이 만들어진 시기로서, 이런 역량이 중국에도 알려지고 찬탄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역주]

사불산과 굴불산과 만불산

죽령(竹嶺)²¹⁸⁾ 동쪽 100리쯤에 우뚝 솟은 산이 있다. 진평왕(眞平王)²¹⁹⁾ 9

218) 죽령(竹嶺):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大崗面)의 경계에 있는 소백산맥의 고개로 고대 교통로의 요충지이다. (『삼국사기』 권2 아달라 이사금 5년에 “봄 3월에 죽령을 열었다.[春三月 開竹嶺]”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

년(587) 정미년²²⁰⁾에 갑자기 커다란 돌이 있어 4면이 1길이나 되고 사방여래(四方如來)²²¹⁾가 새겨져 있었는데, 모두 붉은 비단에 싸여 하늘에서 이산의 정상에 떨어졌다. 왕이 이를 듣고 가서 우러러 보고는 예경하여 마침내 바위 곁에 절을 창건하고 편액을 대승사(大乘寺)라고 하였다. 『법화경(法華經)』²²²⁾을 외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비구에게 절을 맡아주기를 청하여, 깨끗이 하고 돌을 공양하며 향화(香火)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산을 역덕산(亦德山) 혹은 사불산(四佛山)이라고 한다. 비구가 죽어 장사지냈더니 무덤 위에 연꽃이 생겨났다.²²³⁾

람』에서는 충청도 단양과 경상도 풍기의 경계로 소개하고 있다. 권14 단양군 및 권25 풍기군)

- 219) 진평왕(眞平王) : 신라 제26대 왕. 재위 579~632년. 5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재위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원광(圓光)·담육(曇育) 등의 명승을 중국에 보내어 수학하게 하는 등 불교를 진흥시키고 문물을 수용하였다. 4-5 주 115) 참조.
- 220) 원문에는 진평왕 9년 갑신년이라 하였는데, 진평왕 9년은 정미년(587)이고 갑신년은 진평왕 46년(624)이 된다. 간지를 중시하던 옛 전통을 고려하면 '갑신년(624)'이 가능성이 있으나 주224)에 제시한 『호산록』의 기록도 588년이라 하고 있어 '9년(587)'에 의미를 두어 587년으로 한다.
- 221) 사방여래(四方如來) : 사방불(四方佛). 여기서 말하는 사방불은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사불산 정상에 현존하고 있다. 대승사(大乘寺) 윤필암(潤筆庵)에서 산을 올라가면 나온다. 높이 약 295cm, 너비 약 150cm로 동·서면에는 좌상(坐像)이, 남·북면에는 입상(立像)이 새겨져 있다. 마멸이 심하여 불상의 원래 모습은 거의 알아보기 어려우며 윤곽선만 겨우 남아 있다. 이 중 상태가 비교적 좋은 동면 불좌상의 양식을 8세기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이곳의 기록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
- 222) 원문의 연경(蓮經)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곧 『법화경(法華經)』을 말한다.
- 223) 일연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천책(天頤)은 사불산(四佛山)을 유람하고 『신라고기(新羅古記)』를 인용하여 사방불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상주 상양현 북쪽에 자못 높은 산이 있어 봉우리들이 중첩되었는데 동쪽으로는 죽령과 이어져 화장산을 대하고 있으니 이것이 사불산인데 공덕산이라고도 한다. 신라고기를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竹嶺東百許里，有山屹然高峙。眞平王九年丁未²²⁴⁾，忽有一大石，四面方丈，彫四方如來，皆以紅紗護之，自天墜其山頂。王聞之，命駕瞻敬，遂創寺崑側，額曰大乘寺。請比丘亡名誦蓮經者主寺，洒掃供石，香火不廢。號曰亦德山，或曰四佛山。比丘卒旣葬，塚上生蓮。

또 경덕왕(景德王)²²⁵⁾이 백률사(栢栗寺)²²⁶⁾에 행차하여 산 아래에 이르

살펴 보니 진평왕 건복(원문의 建元은 建福의 잘못) 5년, 수나라 개황 8년 무신년(588)에 갑자기 사방이 한 길쯤 되는 돌이 있어 네 면에 사불을 새겼는데 오색 구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날아와 다른 봉우리에 봉안되었다. 왕이 이를 듣고 매우 기이하다고 여겨 그 산에 가서 살펴보고는 예경하여 마치 않았다. 이에 그 곁에 절을 짓고 대승사라고 하고는 법화를 강경하는 이를 청하여 비구 망명스님이 향화를 만들었다. 망명스님은 이에 날마다 부지런히 향화를 만들어 불상에 정례하고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용맹정진으로 수련한 지 전후 몇 년이 지나 입적하니 제자들이 암석 간에 매장하였는데 뒤에 연꽃이 무덤 위에 피어났다. 이로부터 사방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누차 찾아 불상에 예경하고 신령한 자취를 찾는 자가 개미나 벌이 바빠 오가듯 하였다. (『湖山錄』卷下, 遊四佛山記, 韓6 p, 206c13~207a5. “尙州山陽縣北，有山頗高，重峯疊巘，東連竹嶺，挹華藏(山名)，是名曰四佛，或曰功德山，按新羅古記，眞平王建元五年 隋開皇八年戊申，忽有一石，方一丈許，四面刻四方佛，在五色雲中，自天飛來，安於別峰。王聞之，極以爲異，幸其山而驗之，珍敬不已。乃創寺其側，號曰大乘，請誦法華，比丘亡名典香火。亡名於是，日勤香火，頂禮尊像，口誦雄詮。猛進修鍊者，首尾凡若干年，比及泥洹，弟子輩窺于岩石間，後有蓮花，發於塚上。自此四方之人，披棒累爾，禮尊像尋靈迹者，蟻往蜂還。”)

224) 원문은 ‘甲申’이나 주224)의 자료에 견주어 ‘丁未’로 교감함

225) 경덕왕(景德王): 신라 제35대 왕. 재위 742~765. 왕권 안정을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시행하고 9주(州)·5소경(小京)·117군(郡)·293현(縣)을 정비하였다. 754년에 황룡사종을 주조하고, 불국사(佛國寺)와 석불사(石佛寺)와 굴불사(掘佛寺) 등을 창건하였다. 4-7 주188) 참조

226) 백률사(栢栗寺): 법흥왕 14년(527)에 불교의 전파를 위하여 순교한 이차돈(異次

자 땅속에서 엄불하는 소리가 들려 파보라고 명하였더니 커다란 돌이 있는데 사면에 사방불(四方佛)²²⁷⁾이 새겨져 있었다. 이로 인해서 절을 창건하고 굴불사(掘佛寺)²²⁸⁾라고 이름하였다. 지금 잘못 전하여 굴석사(掘石寺)²²⁹⁾라고 한다.

又景德王遊幸栢栗寺, 至山下, 聞地中有唱佛聲, 命掘之, 得大石, 四面刻四方佛. 因創寺, 以掘佛爲號. 今訛云掘石.

왕은 또 당(唐) 대종(代宗)²³⁰⁾ 황제가 불교를 매우 존중한다는 것을 듣고 장인에게 명하여 5색 모포를 만들고, 또 침단목(沈檀木)을 조각하고 맑

頓)의 목이 날아가 떨어진 곳에 세웠다고 하는 절. 헌덕왕 9년(817) 이차돈을 추모하여 세운 석당(石幢)이 국립경주박물관에 남아 있다. 4-12-2 주311) 참조.

227) 사방불은 온 세계에 부처가 두루한다는 생각에서 동 서 남 북 사방의 불국토에 각각 부처를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전에 따라 다른데 흔히 동방 아촉불(阿閼佛), 남방 보생불(寶生佛), 서방 아미타불, 북방 미묘성불(微妙聲佛)이나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을 들지만, 실제로 신라의 사방불로 조각된 된 예는 동방 약사불(藥師佛), 서방 아미타불, 남방 석가불(釋迦佛), 북방 미륵불(彌勒佛)을 새긴 경우가 많다. 굴불사 사방불은 경북 경주시 동천동 굴불사지에 현존하는데, 큰 바위가 대지에 우뚝 솟아 사면에 부처를 새긴 형태로서 높이는 약 3.5m이다. 동면에 약사여래좌상, 서면에 아미타여래입상과 관음보살 세지보살, 남면에 석가로 추정되는 여래입상과 두 보살입상, 북면에 미륵으로 추정되는 부조 보살입상과 선각 11면 6비(臂) 관음보살입상이 조각되어 있다. 양식상 편년은 이곳에서 말하는 경덕왕대와 부합된다.

228) 굴불사(掘佛寺): 이 절터에 대해서는 종합보고서가 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掘佛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86)

229) 굴석사(掘石寺): 굴불사지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청동 금고(金鼓)에 명문이 있는데, “고려 숙종 13년(1183)에 경주 북산 굴석사에 둔다(大定二十三年癸卯四月日東京北山屈石寺排入重七斤次知造前副戶長李伯俞棟梁道人孝英大匠義誠)”는 기록을 보아 고려시대에는 굴석사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연은 지금 잘못 전하여 굴석사라고 한다 하였다.

230) 대종(代宗): 당(唐)의 제8대 왕. 재위기간 762~779년.

은 구슬과 아름다운 옥으로 꾸며 높이가 1길 남짓 되는 가산(假山)을 만들게 하여 모포 위에 놓았다. 산에는 가파른 바위와 괴이한 돌과 개울과 동굴이 있고, 칸을 나눈 한 구역마다 노래하고 춤추며 음악을 연주하고 여러 나라의 산천의 형상이 있었다. 미풍이 창으로 들어오면 벌과 나비가 훨훨 날고 제비와 참새가 날아 춤추니 얼핏 보아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가운데에는 10,000개의 부처를 봉안했으니 큰 것은 사방 1치가 넘었고 작은 것은 8,9푼이었다. 그 머리는 어떤 것은 큰 기장만하고 어떤 것은 콩알 반쪽만했다. 나발(螺髮)과 육계(肉髻)²³¹⁾, 백호(白毫)²³²⁾, 눈썹과 눈이 선명하여 상호(相好)²³³⁾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단지 비슷하게는 가능해도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만불산(萬佛山)이라 불렀다.²³⁴⁾

231) 나발(螺髮)과 육계(肉髻): 부처의 머리. 머리카락이 소라 껍데기처럼 틀어 말린 모양이라 하여 나발(螺髮)이라 부르고, 머리 가운데 살이 솟은 부분을 육계(肉髻)라고 부른다. 육계는 머리 위에 높고 넓고 평평한 부분을 말하는데 이는 대인(大人)의 상이다. 보살일 때 지계와 보시 등 십선법 외에 중생을 교화하고 한없는 연민을 가슴에 담아 모든 중생들이 정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큰 서원을 내서 이루어졌기에 이런 좋은 모습을 받는다고 한다.

232) 원문의 백모(白毛)는 백호(白毫)를 말한다. 백호는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하나로 두 눈썹 사이에 희고 빛나는 가는 터럭이 오른쪽으로 말려 있는 것을 말한다. 백호는 죽 퍼면 한 길이 되나 놓으면 도르르 말려 하얀 진주와 같은 밝고 선명한 형태가 되는데, 마치 태양의 한 가운데와 같은 것으로 여기에서 광명이 모든 국토로 퍼져 나간다고 한다. 중생들이 이 광명을 만나면 업장을 없애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32상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상이라 한다.

233) 상호(相好): 상(相)은 圖 lakṣaṇa이다. 부처의 육신이 갖추고 있는 수려한 용모 중에 분명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32상이 있다. 호(好)는 圖 vyanjana이다. 부처의 육신의 모습 중 세세하여 보기 어려운 것으로 80종의 수형호(隨形好)라 부르는 80종호(種好)가 있다. 이 양자를 합친 말이 상호(相好)이다. 32상은 전륜성왕도 갖추고 있다고 하며, 80종호는 불보살이 갖추는 모습이라고 한다. 부처가 과거 백 대겁 동안 특히 상호업(相好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런 상호를 성취하였다고 한다.

다시 금과 옥을 새겨 수실이 달린 번(幡)과 천개(天蓋)²³⁵⁾와 망고²³⁶⁾와 치자²³⁷⁾와 꽃과 과일과 많은 구슬로 장엄한²³⁸⁾ 누각과 대(臺)와 전각과 승당과 정자를 만들었는데 모두 크기가 비록 작으나 기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하였다. 앞에는 둘러 있는 비구의 형상 1,000여 구가 있고 아래에는 자마금(紫摩金)²³⁹⁾으로 만든 중 3개가 있는데 모두 종각과 포뢰(蒲牢)²⁴⁰⁾가 있으며 고래모양으로 종치는 방망이를 삼았다. 바람이 불어 종이 울리면 둘러 있는 스님들은 모두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고 은은하게 염불하는 소리²⁴¹⁾가 있었으니 만불산의 형상의 중심²⁴²⁾이 종에 있었다. 비

234) 이 만불산 이야기는 당대 소악(蘇鶚)이 편찬한 『두양잡편(杜陽雜編)』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이후 뛰어난 공예품을 거명하는 데 소개되어 중국의 여러 책에 같은 내용이 실렸다.

235) 유소번개(流蘇幡蓋)는 수실이 달린 번과 천개를 말한다. 불전을 장식하는 장엄물들이다.

236) 암라(菴羅) : 𑖀 āmra, 망고를 말한다. 암몰라(菴沒羅), 암마라수(菴摩羅樹) 암라수(菴羅樹) 등으로 음역하고 나수(奈樹)라고 의역한다. 인도 각 지역에서 나는 과일로 겨울에 피는 작은 꽃은 많으나 5,6월에 익는 과일은 많이 맺히지 않는다. 인도 과일의 대표로 많이 거론된다.

237) 담복(蔞蔔) : 치자를 말하는데, 좋은 꽃의 비유로 많이 쓰인다. 현겁 천불의 부처의 이름 중에도 있다.

238) 원문에는 ‘백보(百步)’라 하였는데, 『두양잡편(杜陽雜編)』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백선(百旋)’이라고 해야 의미가 맞는다. 백 개의 구슬, 즉 많은 구슬로 장식한 누각을 말한다.

239) 원문의 자금(紫金)은 자마금(紫摩金)을 말한다. 자마금은 자색을 띤 순수한 황금으로 품질이 가장 좋은 황금을 이른다.

240) 포뢰(蒲牢) : 해변에 사는 짐승으로 고래를 두려워하여 고래에 물리면 크게 운다고 한다. 그래서 종이 잘 울리게끔 포뢰의 모양을 종 위에 만들어 놓고 고래모양을 한 방망이로 종을 치게 하였다.

241) 범패(梵唄) : 𑖀 bhāṣā, 곡조를 붙여 경전을 읽고 찬탄하여 읊고 부처의 덕을 노래로 칭송하는 것을 말하며, 성패(聲唄) · 경패(經唄) · 성명(聲明) 또는 범음(梵音)이라고도 한다. 패(唄)는 패닉(唄匿) 또는 바사(婆師)라고도 하는데, 찬탄 또는

록 만불(萬佛)이라 불렀으나 그 실상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완성되자 사신을 보내어 바쳤다. 대종이 이것을 보고 감탄하여, “신라 사람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인간의 기교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구광선(九光扇)²⁴³⁾을 바위 사이에 덧붙이고 이로 인하여 불광(佛光)이라 하였다. 4월 8일에 양가(兩街) 승도(僧徒)²⁴⁴⁾에게 칙명을 내려 내도량(內道場)²⁴⁵⁾에서 만불산에 예불하게 하고 불공삼장(不空三藏)²⁴⁶⁾에게 명하여 밀

그치게 한다는 의미이다. 범패는 주로 세 가지로 쓰였는데, 하나는 강경을 하는 전후에 강경의식으로서 쓰였고, 하나는 아침 저녁에 공부할 때 쓰였으며, 또 하나는 대중들을 교화하는 도량참법(道場懺法)에 쓰였다.

242) 원문의 관려(關捩)는 기축(機軸)과 같은 말로 어떤 활동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을 말한다.

243) 구광선(九光扇): 아홉 가지 빛을 내는 부채.

244) 양가(兩街) 승도(僧徒): 양가에 소속된 모든 승려를 말한다. 당대에는 국가에서 승려를 관리하는데 처음에 홍려시(鴻臚寺)에 속하게 하였고 다음에 숭현서(崇玄署)에 속하게 하였다가 측천무후 때(694) 전국의 승려를 사부(祠部)에 속하게 하였고 현종 때인 747년에는 양가공덕사(兩街功德使)에 소속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사부로 돌렸다. 현종 때는 양가공덕사 아래 승록(僧錄)을 두었고 788년에는 다시 좌우가 대공덕사가 승적을 관장하도록 하는 등 변화를 거듭하다 마지막에는 다시 양가공덕사에 맡겼다. 이 만불산이 이야기되는 대종(762~779) 때는 양가공덕사 시기이므로 여기서의 양가는 양가공덕사 아래에 소속된 승관과 승려를 말한다.

245) 내도량(內道場): 대내(大內) 곧 궁중 안에 설치된 도량이라는 뜻. 왕이 사적으로 만든 절로서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사를 담당하였다. 특히 당대 대종 때 성행하여 항상 백 여 명의 승려들이 궁중에 불상을 진설하고 경전을 염송하였다고 한다.

246) 불공삼장(不空三藏): 복인도 출신으로 중국의 밀교를 정립한 승려. 삼장(三藏)이란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의 삼장을 말하며 이에 정통한 사람을 삼장이라 한다. 불공은 금강지(金剛智)의 제자로서 『금강정경』 계통의 밀교를 전수받고 741년에 금강지가 죽자 743년 인도와 스리랑카에 가서 보현(普賢) 아사리를 만나 최신의 밀교를 전해 받았으며 범본 500부를 입수하여 746년 장안으로 돌아왔다. 이후 여러 번 궁중에 초대받아 현종(玄宗)과 백관에게 관정을

교 경전을 1,000번 외어서 경축하게 하니 보는 자가 모두 그 정교함에 탄복하였다.

찬한다.

하늘은 만월을 꾸며 사방불을 마련하고,

땅은 백호²⁴⁷⁾를 솟구쳐 하룻밤 사이에 열었네.

교묘한 솜씨로 번거롭게 만불을 새기니,

불법을 천지간²⁴⁸⁾에 두루 퍼지게 하리라.

王又聞唐代宗皇帝優崇釋氏，命工作五色氍毹，又彫沈檀木與明珠美玉，爲假山，高丈餘，置氍毹之上。山有巉崑，怪石澗穴，區隔每一區內，有歌舞伎樂列國山川之狀。微風入戶，蜂蝶翱翔，鶯雀飛舞，隱約視之，莫辨眞假。中安萬佛，大者逾方寸，小者八九分。其頭或巨黍者，或半菽者。螺髻白毛，眉目的，相好悉備。只可髣髴，莫得而詳。因號萬佛山。更鏤金玉爲流蘇幡蓋，菴羅蓂蔔花果，莊嚴百璇²⁴⁹⁾樓閣，臺殿堂榭，都大雖微，

주고, 비를 오게 하고 그치게 하는 법을 실행하였으며 현종으로부터 지장(智藏)이란 이름을 받았다. 755년 안녹산의 난 때 숙종(肅宗)을 위해 반적 진압의 수법을 행했고, 756년 장안의 대흥선사(大興善寺)에 들어가 호국 수법을 행했으며 760년에도 대흥선사에서 군흉복멸(群兇僕滅)을 위한 관정도량(灌頂道場)을 열었다. 또 763년 대종(代宗) 때 나라를 위해 관정도량을 설치하고 의식의 항구화를 청하는 등 일관되게 국가의 평안을 비는 데 힘을 다했다. 그리하여 대종 영태(永泰) 원년(765) 스승 금강지 삼장과 불공에게 각각 관위와 호가 수여되었다. 또 오대산에 금각사(金閣寺)를 조성하여 문수보살 신앙을 고양시키고, 771년 스스로 번역한 밀교 경전 77부 101권의 목록을 바쳐서 대장경에 편입하는 책명을 받았다. 같은 해 대흥선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247) 원문의 명호(明毫)는 백호(白毫)를 말하니, 사방불을 가리킨다.

248) 원문의 삼재(三才)는 천(天)·지(地)·인(人)을 말하므로, 천지간을 가리킨다.

249) 원문의 ‘步’는 의미상 ‘旋’으로 교감함.

勢皆活動。前有旋遶比丘像千餘軀，下列紫金鐘三簾，皆有閣有蒲牢，鯨魚爲撞。有風而鐘鳴，則旋遶僧皆仆，拜頭至地，隱隱有梵音，蓋關捩在乎鐘也。雖號萬佛，其實不可勝記。旣成，遣使獻之。代宗見之，嘆曰，“新羅之巧，天造非人巧也。”乃以九光扇，加置崑崙間，因謂之佛光。四月八日，詔兩街僧徒，於內道場，禮萬佛山，命三藏不空，念讚密部真詮千遍，以慶之，觀者，皆嘆伏其巧。

讚曰 天粧滿月四方裁，地湧明毫一夜開。妙手更煩彫萬佛，眞風要使遍三才。

4-10 생의사의 돌미륵상

[해제]

경주 남산 삼화령(三花嶺)에 봉안되었던 미륵상의 조성 연기 설화이다. 생의(生義)라는 승려가 꿈 속에서 알려주는 대로 땅 속에서 불상을 파 내어 봉안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불상 조성의 한 유형으로서 땅 속에서 파내 절을 창건하는 형태이다. 또 그렇게 창건한 절 이름을 승려의 이름을 따라 지어 불렀던 유형의 예도 함께 보여주는데, 이 역시 신라 불교 설화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석조 미륵삼존상이 이 삼화령 석조 미륵상이라고 추측되어 관심의 대상이 된 기록이다. 이 미륵상은 7세기 신라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빼어난 조형물로서 특징적인 짧은 외모를 지향하는 큰 얼굴과 온화한 미소 등으로 이름난 걸작품으로서, 이 설화는 그 유래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역주]

생의사의 돌미륵상

선덕왕(善德王)²⁵⁰⁾ 때 생의(生義)스님은 항상 도중사(道中寺)에 살았다. 꿈에 한 스님이 (그를) 끌고 남산²⁵¹⁾으로 올라가서 풀을 묶어 표시를 하게

250) 선덕왕(善德王): 신라 제27대 왕. 재위 632~647. 분황사(芬皇寺)와 영묘사(靈廟寺)를 창건하였고,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였다. 4-5 주125) 참조.

하고 산 남쪽 골짜기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묻혔으니 스님께 서는 꺼내어 고개 위에 안치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꿈을 깨어 도반²⁵²⁾들과 함께 표시해놓은 자리를 찾아 그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팠더니 돌로 만든 미륵²⁵³⁾이 나와서 삼화령(三花嶺)²⁵⁴⁾ 위에 안치하였다. 선덕왕 13년(644) 갑진년²⁵⁵⁾에 절을 짓고 살았는데, 뒤에 이름을 생의사(生義寺)라고

251) 남산: 경주시 남쪽에 있는 남산을 말한다. 경주시 남쪽에 금오산과 고위산의 두 봉우리를 잇는 산으로 남북 8km 동서 4km의 타원형을 하고 있다. 신라 4 영지의 하나로 곳곳에 유적이 많다. 동 남 서쪽에 모두 34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각각 수십 개씩의 절터와 석탑·석불·마애불 등이 산재해 있다. 신라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지로부터 불교 수용 이후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이 만들어져 이곳에 불국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52)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253) 현재 경주박물관에 보관된 석조삼존불로 알려져 있다. 미륵불(彌勒佛)은 ㉔ Maitreya, 미륵은 브라만 집안에서 출생하여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 보다 먼저 입멸하여 보살로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다고 한다. 미륵보살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처음 발심할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자씨(慈氏)보살로 부른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하였는데 그 수명이 4천 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만 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이런 경설에 따라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미륵상생 신앙과, 미륵이 부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미륵하생 신앙의 두 가지 신앙이 있게 된다. 미륵신앙은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의 세 경전이 중심이 된다.

254) 삼화령(三花嶺): 『삼국유사』 권2 기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편과 권5 효선 빈녀양모편에 삼화령이 보인다. 특히 빈녀양모에서 남산의 포성적을 삼화술(三花述)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이곳은 경주시 남산의 고개로 삼존석불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고개의 위치에 대해 남산 남쪽이라는 견해와 북쪽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확실치 않다.

255) 원문에는 12년이라 하였는데, 고려시대에 기록한 일연의 유년기원으로 치면 12

하였다. <지금 성의사(性義寺)라고 잘못 부른다. 충담(忠談)²⁵⁶⁾ 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 공양하는 것이 바로 이 부처이다.²⁵⁷⁾>

生義寺石彌勒

善德王時，釋生義，常住道中寺。夢有僧引上南山而行，令結草爲標，至山之南洞，謂曰，“我埋此處，請師出安嶺上。”既覺，與友人尋所標，至其洞掘地，有石彌勒出，置於三花嶺上。善德王十三年甲辰歲，創寺而居，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忠談師每歲重三重九，烹茶獻供者，是此尊也。〉

년이 되고, 신라시대의 즉위년기원으로 치면 13년이 된다.

256) 충담(忠談): 생몰년 미상.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 안민가(安民歌)와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를 지었다.(삼국유사』 권2 기이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257) 같은 내용이 『삼국유사』 권2 기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편에 있다. “스님은 매년 삼월삼짇날과 중구일에 차를 달여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에게 올렸다.(僧每重三重九之日,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4-11 홍륜사의 벽화 보현보살

[해제]

신라 최초의 절인 경주 홍륜사에 있던 보현보살 벽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라 말인 경명왕(景明王) 때 홍륜사의 남문과 회랑이 소실되어 921년에 이를 중건하였다. 그런데 이 보수 공사는 제석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10일 동안 머물며 이적을 보이자 사람들의 시주가 쌓이고 장인이 저절로 와서 완성하였다고 한다. 그 공덕을 기려 제석천의 모습을 벽화로 그려 이 세상을 지켜주기를 요청하자 제석천이 자신이 아니라 보현보살상을 그려 공양하면 좋으리라고 하여 보현상을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일연은 이 현장을 찾아보고 그때까지 보현보살상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라 말기의 혼란 상황 속에서 사찰을 보수하기 위한 어려움을 제석천의 도움을 빌려 이루었다고 설화화한 내용으로서 신라 말의 제석신앙과 보현신앙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 최초의 절로서 금당에 미륵을 모셨던 홍륜사가 제석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려 준다. 경루가 왼편에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금당 좌우에 경루와 고루를 배치한 가람 구조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른 편과는 달리 이 편에서는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역주]

홍륜사의 벽화 보현보살

신라 제 54대 경명왕(景明王)²⁵⁸⁾ 때 홍륜사(興輪寺)²⁵⁹⁾의 남문²⁶⁰⁾ 및 좌

우 회랑이 불에 탔는데 수리되지 않고 있어 정화(靖和)와 홍계(弘繼) 두 스

258) 경명왕(景明王): 신라 제 54대 왕. 재위 917~923.

259) 홍륜사(興輪寺):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에 있던 신라 최초의 절. 절터가 사적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라에 불법을 전한 아도(阿道)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져서, 경주에 있는 불교와 오랜 인연이 있던 일곱 개의 절 가운데 첫 번째로 꼽혔다. 서천교(西川橋)의 동쪽에 있는 천경림(天鏡林)이 그 자리였다고 한다. 실제로는 527년 이차돈의 순교 이후 법흥왕이 짓기 시작하여 진흥왕 5년(544)에 완성되었다.([삼국사기] 권4 眞興王 5년 2월 “홍륜사가 완성되었다(興輪寺成)”) 그리고 다음 달에 사람들이 출가하여 부처를 받드는 것을 허락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아도가 처음 천경림에 절터를 잡았는데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이차돈의 순교가 있던 법흥왕 정미년(527)에 처음으로 터를 닦고 을묘년(535)에 천경림을 크게 채벌하여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기둥과 들보의 재목은 모두 그 숲에서 가져다 썼고 주춧돌과 석감도 다 갖추어 진흥왕 때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삼국유사] 권3 홍법 阿道基羅 天鏡林 分註 및 原宗興法猷臈滅身) 이에 덧붙여 미추왕 3년(264)에 고구려에서 온 아도가 성국공주(成國公主)의 병을 고쳐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왕이 사찰 건립을 허락하여 홍륜사를 세웠고, 아도가 띠를 엮어 집을 짓고 이곳에 머물면서 불법을 강설하여 때때로 하늘에서 꽃이 떨어졌다고 하였다.([삼국유사] 권3 홍법 아도기라 我道本碑 인용). 이처럼 아도나 이차돈 등 신라 불교 전래자로부터 사찰 창건 연유가 시작되었기에 헌덕왕 9년(817)에 홍륜사의 영수(永秀)선사가 이차돈의 무덤에 예불할 향도(香徒)를 결성하고 그를 기리는 단을 만들어 법회를 열었다. 또 노장들이 이차돈이 죽은 날인 8월 5일에 사(社)를 만들어 홍륜사에 모였다고 한다. 이어 신라 불교의 전래와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열 분을 기리는 상을 홍륜사 금당에 만들어 봉안하였으니 아도(我道)·위축(猷臈)·혜숙(惠宿)·안함(安舍)·의상(義湘)·표훈(表訓)·사복(蛇巴)·원효(元曉)·혜공(惠空)·자장(慈藏)이 그들이다. 홍륜사는 경주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도 유명했으니 신라 풍속에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남자와 여자들이 홍륜사 전담을 돌면서 그것을 복회(福會)로 삼았다고 하고, 김현(金現)이 호랑이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절의 탐들이 복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삼국유사] 권5 감통 金現感虎).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한 김대성이 재상 집에 환생했다는 설화도 홍륜사에서 육륜회(六輪會)를 베풀려고 보시를 구하러 다니던 개사(開士) 점개(漸開)에게 시주하여 얻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삼국유사] 권5 효선 大城孝二世父母) 현재 사적 제15호로 지정된 절터에는 1980년대에 새로 세운 홍륜사가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영묘사(靈廟寺)라고 새겨진 기왓조

님이 인연을 모아 수리하려고 하였다. 정명(貞明)²⁶¹⁾ 7년(921) 신사년 5월 15일에 제석천(帝釋天)²⁶²⁾이 절의 왼쪽 경루(經樓)²⁶³⁾에 내려와 열흘 동안 머물자, 전각과 탑, 풀과 나무, 흙과 돌 등이 모두 기이한 향기를 풍기고 오색 구름이 절을 덮었으며 남쪽 연못에서는 물고기와 용이 기뻐 뛰어올랐다.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구슬과 비단과 곡식을 시주하니 산더미처럼 쌓이고, 장인이 스스로 와서 며칠 걸리지 않아 완성하였다. 공사가 끝나 천제(天帝)²⁶⁴⁾가 돌아가려 하자 두 스

각이 발굴되어 이 터는 선덕왕 때 창건한 영묘사터로 보아야 하며, 현재 경주공업고등학교 터가 흥륜사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60) 흥륜사 문은 몇 차례 재난을 당해 『삼국사기』에도 실려 있다. (권5 太宗 4년 “흥륜사 문이 저절로 무너졌다(興輪寺門自壞)” ; 권7 文武王 11년 4월 “흥륜사 남문이 흔들렸다(震興輪寺南門)”)

261) 정명(貞明) : 후량(後梁) 말제(末帝)의 연호. 915~921년. 신덕왕 4년~경명왕 5년에 해당.

262) 제석천(帝釋天) : Śakra-devānām indra, 석가제환인다라(釋迦提桓因陀羅)라고 음역하여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 줄여 부르기도 하며 천제석(天帝釋) 또는 천주(天主)라고 하기도 한다. 수미산 정상 도리천의 천주(天主)로서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면서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이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는 하늘의 임금이다. 본래 힌두교의 인드라신으로서 불교에 들어와 제석천이라 불렸다. 경설에 따르면 제석천은 원래 마가다국의 브라만으로서 보시와 같은 공덕을 쌓아 마침내 도리천(忉利天)에 태어나 도리천 곧 33천의 천주(天主)가 되었다고 한다. 불교에 들어와서는 범천(梵天)과 함께 불교를 지키는 주신이 되어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 선견성(善見城)에 거주하며 십대천자의 시위를 받는다고 한다. 한 달에 여섯 차례 육재일(六齋日)에 사천왕과 태자와 시자를 데리고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의 선악과 옳고 그름을 살펴 사람들이 효도나 보시나 재계행을 하지 않으면 수명을 줄이고 반대로 열심히 정진하면 수명을 늘린다고 한다. 석존이 성도한 다음에는 수호신이 되어 석존이 돌아가신 모친을 위해 도리천에 설법하러 올라가자 제석천은 보개를 들고 시중하였다 한다.

263) 경루(經樓) : 불경을 보관하던 누각. 대체로 절의 중심 전각 좌우에 북을 매다는 누각인 고루(鼓樓)와 대칭으로 세워 가람배치의 주요한 요소의 한 가지를 이룬다.

님이 말하기를, “제석천께서 만약 천궁으로 돌아가시려 한다면, 청컨데 성스러운 모습을 그려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여 제석천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진영(眞影)²⁶⁵을 남겨서 길이 인간 세상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제석천이 말하기를, “나의 원력은 저 보현보살(普賢菩薩)²⁶⁶이 두루 현묘한 교화를 내리는 것만 못하니, 이 보살상을 그려서 경건하게 공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스님이 가르침을 받들어 보현보살을 벽 사이에 경건하게 그렸는데, 지금도 그 보살상이 남아 있다.

興輪寺壁畫普賢

第五十四景明王時，興輪寺南門及左右廊廡，災焚未修，靖和弘繼二僧，募緣將修。貞明七年辛巳五月十五日，帝釋降于寺之左經樓，留旬日，殿塔及草樹土石，皆發異香，五雲覆寺，南池魚龍，喜躍跳擲。國人聚觀，嘆未曾有，玉帛梁稻施積丘山，工匠自來，不日成之。工既畢，天帝將還，二僧白曰，“天若欲

264) 천제(天帝): 앞서 말한 제석천(帝釋天)의 다른 말.

265) 원문의 영(影)은 얼굴을 그린 그림, 곧 진영(眞影)을 말한다.

266) 보현보살(普賢菩薩): ⑤ Samantabhadra, 부처의 행원(行願)을 대변하는 보살. 문수보살(文殊菩薩)과 함께 석가모니불을 협시(脇侍)하는 보살로서 많은 보살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중심되는 보살이다.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부처의 왼편에서 여러 부처의 지덕(智德)과 혜덕(慧德)과 증덕(證德)을 맡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부처의 오른쪽에서 이덕(理德)과 정덕(定德)과 행덕(行德)을 맡아, 이 둘이 합쳐 부처의 이지·정혜·행증을 원만하게 갖추게 된다. 이 때문에 문수와 보현보살은 일체 보살의 상수로서 부처의 교화를 돕고 선양한다. 보현보살은 신상과 공덕이 일체처에 두루 미쳐 순일하고 기묘하며 선하기 때문에 보현이라고 한다.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에는 보현보살이 육아백상(六牙白象)을 타고 법화의 행자를 수호한다고 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는 보현보살의 10가지 광대한 행원을 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

還宮，請圖寫聖容，至誠供養，以報天恩，亦乃因茲留影，永鎮下方焉。”帝曰，“我之願力，不如彼普賢菩薩遍垂玄化，畫此菩薩像，虔設供養，而不廢宜矣。”二僧奉教，敬畫普賢菩薩於壁間，至今猶存其像。

러 부처를 예경하고(禮敬諸佛), 여래를 칭찬하고(稱讚如來), 널리 공양을 닦고(廣修供養), 업장을 참회하고(懺悔業障), 공덕을 기쁘게 따르고(隨喜功德),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請轉法輪), 부처께서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고(請佛住世), 항상 부처를 따라 배우고(常隨佛學), 항상 중생에 따르며(恆順衆生), 멀리 모두 회향하는(普皆迴向)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임종시에 보현보살의 인도로 극락 세계에 왕생한다고 한다. 이 십대원이 모든 보살행의 표본이 되기에 보현보살을 대행(大行) 보현보살이라고 한다.

4-12-1 세 곳의 관음상·중생사

[해제]

세 곳의 관음상(三所觀音)이란 관음보살 신앙으로 이름난 세 절의 관음상 곧 중생사(衆生寺)와 백률사(栢栗寺)와 민장사(敏藏寺)의 관음상을 말한다. 관음신앙은 현세에서의 고난이나 바라는 바를 들어준다는 현세구원의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신앙의 하나이다. 따라서 ‘삼소관음(三所觀音)’이 제목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절의 관음상 모두를 그 내용으로 합쳐 모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소관음’의 제목 뒤에 「중생사」를 다시 제목으로 내세우고, 「백률사」와 「민장사」는 따로 각각의 제목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삼소관음 중생사」의 내용은 중생사에 관한 한 가지 내용뿐이다. 그러므로 이 편만의 제목은 「중생사」라고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본래대로 「삼소관음」을 제목으로 하려면 「중생사」「백률사」「민장사」를 소제목으로 하여 내용을 병렬시켜야 적절한 구성이 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삼소관음」에 의미를 두어 편제목은 12-1, 12-2, 12-3으로 하기로 한다.

삼소관음의 첫 번째 중생사편은 이 절에 관음상을 조성해 모신 연유와, 이 관음상이 영험이 많았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다. 중생사 관음상을 조성한 사람은 중국에서 뛰어난 영감으로 십이면관음 그림을 그렸던 이로서, 그가 신라에 와서 중생사 관음상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말여초의 역사적 인물로서 고려 초기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최승로(崔承老)의 부모가 이 관음상에 기도하여 낳았으며 또 난리 중에 관음

의 보호를 받았다는 설화를 실었다. 이어 고려 전기에 이 관음상이 김해에서 시주를 모아 왔다는 영험과, 절문에 불이 났는데 관음상이 저절로 법당에서 나와 난을 피했다는 영험, 그리고 고려 중기에 어떤 스님이 이 절의 주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자 신통력으로 이를 막아주었다는 설화를 계속해서 실었다. 관음상 조성 사실은 신라의 고전을 근거로 하였고, 신앙 영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오던 기록을 인용하였다. 이 중생사 관음상편은



관음보살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현실구제적인 관음신앙이 후삼국기의 신라 사회에서 환영받았고, 고려에 들어서도 이런 양상은 계속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신라 십일면관음의 양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기록은 중국 관음화가 십일면관음일 뿐이지 중생사 관음상이 십일면관음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일반 관음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반에 수록된 여러 신앙 사례도 일반 관음 신앙의 예를 잘 보여준다.

[역주]

세 곳의 관음상-1 중생사(衆生寺)

신라의 옛 전승에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의 천자에게 총애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에 짝할 만한

이가 없었다. 그래서 ‘고금의 그림에도 이와 같은 사람은 드물다’고 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명하여 진영을 그리도록 하였다. <화공은 전승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혹은 장승요(張僧繇)²⁶⁷⁾라고 하는데 그는 오(吳)나라 사람이다. 양(梁)나라 천감(天監)²⁶⁸⁾ 연간에 무릉왕국(武陵王國)²⁶⁹⁾의 시랑(侍郎)²⁷⁰⁾ 직비각(直秘閣) 지화사(知書事)²⁷¹⁾가 되고 우장군(右將軍)²⁷²⁾과 오흥태수(吳興太守)²⁷³⁾를 역임하

267) 장승요(張僧繇): 6세기 초에 활동한 중국 양(梁)나라의 오(吳)지방(지금의 강소성 소주) 출신의 이름난 화가. 도교와 불교의 인물화를 잘 그렸는데, 생각이 샘 솟는 듯하고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다. 특히 양 무제(武帝)가 많은 사원을 세울 때 그 벽화를 도맡아 그렸다. 금릉의 안락사(安樂寺)에 용을 그리고는 눈동자를 안 그려 왜 그러느냐고 묻자 이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믿지 않자 이내 눈동자를 그렸고 순식간에 용은 벽을 뚫고 날아갔다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의 고사를 남긴 인물이다. 서역에서 전래된 입체적 화법인 요철화(凹凸畵)와, 필묵(筆墨) 대신 청록(靑綠)으로 번지게 그리는 물골법(沒骨法)을 창시하였다고 전해지는 불화의 대가로 첫손 꼽히는 인물이다. 문수보살상(文殊菩薩像) 십육나한상(十六羅漢像) 천왕상(天王像) 등이 전해졌다고 하나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은 없다.

268) 천감(天監): 양(梁) 무제(武帝)의 연호, 502~519년. 지증왕 3년~법흥왕 6년.

269) 무릉왕국(武陵王國): 무릉왕(武陵王)은 양(梁) 무제(武帝)의 여덟째 아들 소기(蕭紀)이다. 천감(天監) 13년(514)에 무릉군왕(武陵郡王)으로 봉해졌으며, 익주 자사가 되어 촉(蜀)에 가서 부강하게 만들었다. 무제가 죽은 후 촉에서 자립하여 황제로 자칭하고 연호를 대정(大正)이라고 하였다. 태청(太淸) 5년(551) 형 원제(元帝)를 습격하였으나 그 사이에 촉 땅은 서위(西魏)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553년 원제의 군사에 패하여 죽었다. 이 기록이 실린 『역대명화기』에 따르면 천감 연간 곧 소기가 무릉군왕에 봉해진 뒤 5년 사이에 장승요가 그의 휘하에서 시랑직을 비롯한 관직을 역임한 것이 되는데 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승요가 무제의 불사에 참여하여 여러 사원에 불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270) 시랑(侍郎): 중앙 부서의 차관직.

271) 직비각(直秘閣) 지화사(知書事): 직비각은 비각(秘閣)의 담당 관직. 북송(北宋)대에 송문원에 비각을 설치하여 도서 문자 서화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고 그 관직으로 직비각과 비각교리를 두었던 예로 미루어 양대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였

였으니,²⁷⁴⁾ (이 천자는) 중국의 양나라 진(陳)나라²⁷⁵⁾ 시기의 천자일 것이다. 그런데 전해 지기를 당(唐)나라²⁷⁶⁾의 황제라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중국을 당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어느 때의 제왕인지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둘 다 기록해둔다.〉 그 화공이 칙명을 받들어 그림을 그렸는데 잘못하여 붓을 떨어뜨려 배꼽 아래에 붉은 점이 찍혔다. 고치려고 하였으나 고칠 수가 없어서 속으로 의심하기를, 붉은 사마귀²⁷⁷⁾는 틀림없이 날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일을 마치고 이를 바쳤다. 황제가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상은 실제와 아주 비슷한데, 배꼽 아래의 사마귀는 속에 감추어진 것인데 어떻게 알고 그것까지 그렸는가?’ 라고 하였다. 황제가 크게 노하여 감옥²⁷⁸⁾에 가두고 형벌을 주려 하는데 승상이 아뢰기를, ‘그 사람은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들 말하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는 ‘그가 현명하고 정직하여 내가 어제 꿈꾼 형상을 틀림 없이 그림으로 그려내면 용서하겠다.’고 하였다. 화공이 이에 십일면관음상(十一面觀音像)²⁷⁹⁾을 그려 바치니 꿈에 본 것과 들어맞

던 것으로 추측된다. 장승요가 그림에 뛰어났으므로 서화 등을 관장한 직책이 어울린다. 지화사 또한 그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직으로 생각된다.

272) 우장군(右將軍) : 좌장군과 함께 설치한 관직.

273) 오흥태수(吳興太守) : 지금의 중국 절강성(浙江省) 호주(湖州) 지방에 설치했던 오흥현(吳興縣)의 태수.

274) 원문의 “張僧繇, 則是吳人也. 梁天監中爲武陵王國侍郎 直秘閣 知書事, 歷右將軍 吳興太守.” 구절은 장언원(張彥遠)이 지은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 나오는 구절을 ‘吳中人也’를 ‘則是吳人也’로 한 글자 바꾸었을 뿐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75) 양진(梁陳) : 양(梁)나라는 502~557년, 진(陳)나라는 557~590년간 존속하였다.

276) 당(唐) : 618~906년까지 존속.

277) 원문의 지(誌)는 사마귀 지(痣)와 같다.

278) 원문의 원비(圓扉)는 주(周)나라 때의 감옥인 둥글게 만든 환토(圜土)의 문을 말한다. 따라서 감옥을 일컫게 되었다. 환비(圜扉)와 같이 쓰인다.

아서 황제는 이에 의심을 풀고 용서해주었다. 화공이 풀려나와 박사 분절(芬節)²⁸⁰⁾과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신라에서는 불법을 공경하고 신앙한다 하니 그대와 함께 바다로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함께 불사를 닦아 널리 신라를 이롭게 한다면 또한 이익되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함께 신라²⁸¹⁾에 이르러 이 절의 대비상(大悲像)²⁸²⁾을 만들었다.²⁸³⁾ 사람들이

279)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관음의 다양한 구제력을 형상화시킨 변화관음의 하나. 전면의 3면은 자비로운 모습으로 선한 중생을 보고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대자를, 좌측 3면은 성내는 모습으로 악한 중생이 보고 슬퍼하는 마음을 내는 대비를, 우측 3면은 흰 어금니(白牙)를 드러낸 모습으로 청정한 업을 보고 보기 드문 찬탄을 내서 불도에 나아가기를 권하는 것을, 후면 1면은 크게 웃는 모습으로 선악의 잡다한 중생이 보고 괴이한 웃음을 내서 악을 고쳐 도에 향하는 것을, 그리고 정상 1면은 여래의 모습으로 부처의 과보를 상징하도록 표현하기도 한다. 11면을 본면 위에 7면, 그 위에 3면, 다시 그 위에 불면 1면을 나타내기도 하고, 3중의 3면과 부처 모습의 4중으로 나타내기도 하여 일정한 표현법은 없다.

280) 분절(芬節): 그림 분야를 맡고 있던 관리로 생각되나 자세히는 알 수 없다.

281) 원문의 인방(仁邦)을 ‘군자의 나라’라고 풀이하기도 하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오방(五方)에 비정하여 인(仁)을 동방으로 보므로 여기에서는 ‘동쪽나라’ 신라를 가리킨다.

282) 대비상(大悲像): 관음상. 관음의 무한한 서원력을 대자대비(大慈大悲)로 표현한 것이다. 자비(慈悲)란 모든 불보살이 일체중생을 제도하려는 끝없이 크고 넓은 자비심을 말한다. 일체 중생을 자애롭게 여겨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慈)라 하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불쌍하게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을 비(悲)라 하여 중생을 거두어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비라 하였다. 그중에서도 무분별한 마음으로 일으키는 절대 평등의 자비를 대자대비라 하여 관음의 무한한 중생 구제력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283) 이 화공(畵工)이 앞서 중국에서 십일면관음상을 그려 바쳤다 하였으므로 흔히 십일면관음으로 여겨 왔으나, 본 기록에는 십일면관음을 조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최승로의 득남 설화와 같은 영험 사례들은 오히려 일반관음의 영험으로 생각되므로 일반관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대비상이 회화인지 조상인지도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삼국유사』 본 내용의 바로 다음인 「백률사」편에 영험이 자못 많은 백률사의 대비상도 혹은 중국의

우리러 공경하고 기도하여 복을 얻은 것이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고 하였다.

三所觀音 衆生寺

新羅古傳云. “中華天子有寵姬, 美艷無雙. 謂 ‘古今圖書, 尠有如此者.’ 乃命善畫者寫眞, 〈畫工傳失其名. 或云張僧繇, 則是吳人也. 梁天監中爲武陵王國侍郎直秘閣知畫事, 歷右將軍吳興太守, 則乃中國梁陳間之天子也. 而傳云唐帝者, 海東人凡諸中國爲唐爾. 其實未詳何代帝王, 兩存之.〉其人奉勅圖成, 誤落筆, 汚赤毀於臍下. 欲改之而不能, 心疑赤誌必自天生, 功畢獻之. 帝目之曰, ‘形則逼真矣, 其臍下之誌, 乃所內秘, 何得知之并寫?’ 帝乃震怒, 下圓扉, 將加刑. 丞相奏云, ‘所謂伊人其心且直, 願赦宥之.’ 帝曰, ‘彼旣賢直, 朕昨夢之像, 畫進不差則宥之.’ 其人乃畫十一面觀音像呈之, 協於所夢, 帝於是意解救之. 其人旣免, 乃與博士芬節約曰, ‘吾聞新羅國敬信佛法, 與子乘桴于海適彼, 同修佛事, 廣益仁邦, 不亦益乎.’ 遂相與到新羅國, 因成此寺大悲像. 國人瞻仰, 禳禱獲福, 不可勝紀.”

신라 말 천성(天成) 연간²⁸⁴⁾에 정보(正甫)²⁸⁵⁾ 최은함(崔殷誡)²⁸⁶⁾이 오래

신장(神匠)이 중생사 대비상을 만들[塑] 때 함께 만들었다고 한다고도 하였으므로 중생사의 관음상이 소상(塑像) 곧 조상(造像)인 것을 알 수 있다. 「중생사」에 나오는 ‘사자와 아래에 감추었다(藏諸獅座下)’라는 표현도 조상임을 알려준다.

284) 천성(天成): 후당(後唐) 명종(明宗)의 연호, 926~929년. 경덕왕3~경순왕3년.

285) 정보(正甫): 고려 초기에 쓰이던 관계. 성종 14년에 향직(鄉職) 5품의 위계로 됨. 『고려사』에는 최승로의 관계가 향직 4품인 원보(元甫)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 93 열전 제6 「崔承老」 “仕新羅至元甫”)

286) 최은함(崔殷誡): 최승로(崔承老)의 부친. 『고려사』에는 최은함(崔殷誡)으로 표

도록 자손이 없어 이 절의 관음상²⁸⁷⁾ 앞에 가서 기도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²⁸⁸⁾ 석 달이 채 못 되어 백제의 견훤(甄萱)²⁸⁹⁾이 서울을 습격하여 성안이 크게 혼란하였다. 최은함이 아이를 안고 와서 말하기를, “이웃나라의 군대가 잡자기 이르러서 일이 다급합니다. 어린 자식이 짐이 되어 모두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진실로 관음대성(觀音大聖)²⁹⁰⁾께서 주신 아이

기하고 있다. “신라에서 벼슬하여 원보(元甫)에 이르렀다. 오래도록 후사가 없어 기도하여 최승로를 낳았다”(『고려사』 권93 열전 제6 「崔承老」 “仕新羅至元甫, 久無嗣禱而生承老.”)

287) 원문의 대자(大慈)는 대자대비(大慈大悲)한 관음보살을 이르는 말. 자비(慈悲)란 관음 만이 아니라 모든 불보살이 일체중생을 제도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끝없이 크고 넓은 자비심을 말한다. 원래 자비란 일체 중생을 자애롭게 여겨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慈)라 하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불쌍하게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을 비(悲)라 하여 중생을 거두어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비라 하였다. 자비 중에서도 차별을 멀리 떠나 무분별한 마음으로 일으키는 절대 평등의 자비를 대자대비라 한다. 여러 불보살 중에서도 관음보살의 중생 구제력이 가장 두드러져 대지(大智) 문수보살, 대행(大行) 보현보살에 견주어 관음을 대자대비보살로 부른다.

288)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은 관음의 대표적인 구제력 중의 하나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따르면, 관음이 고뇌 받는 중생에게 해탈을 주는 내용으로 현실적인 7가지의 어려움이나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에서 구제와 더불어 생남생녀(生男生女)를 들고 있다.

289) 견훤(甄萱) : 후백제(後百濟)의 왕. ?~936. 신라 경애왕(景哀王) 4년 11월 신라 왕경을 침공하여 왕을 스스로 죽게 하고 왕의 족제(族弟)를 세워 경순왕(敬順王)으로 삼다.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애왕 4년 및 『삼국사기』 권50 열전 견훤)

290) 관음대성(觀音大聖) : 관음보살, ㉠ Avalokiteśvara. 관음은 관세음(觀世音)의 줄인 말로 또는 관자재(觀自在)보살이라고도 한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설한 것과 같이 고난에 처한 중생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고난에서 구제해준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어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신앙의 하나가 되었다. 경전에서는 물에 빠지거나 불이 났을 때 등등의 현실적 고난과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것과 함께 탐진치 삼독의 번뇌에서 해탈하게 해 주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화엄경』

라면 원컨대 큰 자비의 힘으로 감싸 길러주셔서 우리 부자가 다시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 한탄하며 세 번 울고 세 번 고하고는 포대기에 싸서 관음상 사자좌²⁹¹⁾ 아래에 감추고 머뭇거리며 갔다. 반 달이 지나 적들이 물러가서 와 찾아보니, 피부가 새로 목욕한 듯하고 몸이 어여쁘며 젖 냄새가 아직도 입에 남아 있었다. 안고 돌아와서 길렀더니 장성하여 총명함과 슬기로움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가 최승로(崔丞魯)²⁹²⁾로서 지위가 정광(正匡)²⁹³⁾에 이르렀다. 최승로는 낭

입법계품에는 선재동자가 순례 중에 관음이 사는 남방의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을 찾아 보살도를 묻고 있어 관음신앙이 성행한 나라마다 자신의 국토에 관음이 사는 보타락가산을 설정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낙산 등이 그것이다. 또한 관음은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을 돕는 협시보살의 역할로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밀교시대에 이르러 관음의 폭넓은 구제력을 상징하는 여러 변화관음들이 등장하였다. 손이나 팔 또는 눈이 천 개, 만 개에 이르는 다양한 관음 곧 천수천안관음이나 십일면관음 또는 준제관음·여의륜관음·불공견삭관음 등이 변화 관음이 나타나니 그 대표적인 것을 33관음으로 헤아리기도 한다.

291) 원문의 예좌(狻座)는 사자좌(獅子座)를 말한다. 곧 부처가 앉는 자리로서 불보살상을 봉안하고 올려 놓는 자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관음상이 봉안된 자리를 가리킨다.

292) 최승로(崔丞魯): 927~989. 『고려사』에는 최승로(崔承老)로 표기하고 있다. 고려 초기의 문신. 경주에서 출생해 935년(태조 18) 신라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고려에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충명해 12세에 태조 앞에서 『논어』를 읽어 태조는 원봉성학생(元鳳省學生)이 되게 하고 선물을 내렸다. 일찍부터 문장과 학문 계통의 관직 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982년(성종 1)에는 정광(正匡)으로 행정의 요직을 맡았다. 그 해 6월에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는 봉사를 올리도록 하자 고려 초기 다섯 왕의 치적평(治績評)을 비롯한 28조에 달하는 시무(時務)를 올려 북쪽 국경의 확정과 불교의 폐단 억제 및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정치사상을 제시하였다. 성종은 이에 공감하여 새로운 국가체제 정비에 반영하였다. 983년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가 되고 988년에는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이 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중(郎中)²⁹⁴⁾ 최숙(崔肅)을 낳고 최숙은 낭중 최제안(崔齊顔)²⁹⁵⁾을 낳아 이로부터 후손이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최은함은 경순왕(敬順王)²⁹⁶⁾을 따라 고려에 들어와서 명문(名門)이 되었다.

羅季天成中，正甫崔殷誠，久無胤息，詣茲寺大慈前祈禱，有娠而生男。未盈三朔，百濟甄萱襲犯京師，城中大潰。殷誠抱兒來告曰，“鄰兵奄至，事急矣。赤子累重，不能俱免。若誠大聖之所賜，願此大慈之力，覆養之，令我父子，再得相見。”涕泣悲惋，三泣而三告之，裹以襁褓，藏諸狔座下，眷眷而去。經半月寇退，

293) 정광(正匡): 고려 초기에 태봉의 관제를 따라 설치한 관등. 계위는 2품으로 재상에 해당하였다. 충선왕대에는 문산계 정2품의 계위였다.

294) 낭중(郎中): 고려 상서육부(尙書六部)의 정5품 관직.

295) 최제안(崔齊顔): 고려 초기의 문인. ?~1046. 최승로의 손자이며 최숙의 아들. 1020년(현종 11) 거란에 사신으로 다녀 오고 1030년에 중추사(中樞使), 1034년(덕종 3)에 호부상서에 이어 정종이 즉위하자 이부상서가 되었다. 1036년 상서좌복야중추사(尙書左僕射中樞使)가 되고 1043년(정종 9)에 문하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 판상서호부사(門下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判尙書戶部事)가 되고 뒤에 태사 문하시중(太師門下侍中)을 역임하였다. 고려 태조의 신서훈요(信書訓要)가 불에 타 없어졌는데, 최제안이 이를 최항(崔沆)의 집에서 찾아내 조정에 바쳤다고 한다.([『고려사』 권93 열전 「崔承老」 “初太祖信書訓要 失於兵燹 齊顔得於崔沆家藏以進 由是得傳于世.”])

296) 경순왕(敬順王): 신라의 마지막 제56대 왕. 재위 927~935년. 성은 김씨, 이름은 부(傅). 문성왕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신흥대왕(神興大王)으로 추봉된 효종이고, 어머니는 헌강왕의 딸인 계야태후(桂娥太后)이다. 왕비는 죽방부인(竹房夫人) 박씨이다. 고려에 항복한 뒤에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樂浪公主)와 다시 결혼하였다. 927년 포석정에서 놓고 있던 경애왕이 견훤의 습격을 받아 시해되고 난 다음,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다. 경순왕의 의중은 견훤보다 왕건 쪽으로 기울었다. 931년 왕건과 만났는데 왕건이 휘하 군병들에게 범법하지 못하게 하여 신라인들의 환심을 샀다. 935년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하는 국서를 전하게 하였다. 이 때 마의태자는 고려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했다. 왕건은 그를 태자보다 위인 정승공(正承公)으로 봉하고 녹(祿) 1,000석을 주어 우대하였다.

來尋之，肌膚如新浴，貌體孌好，乳香尚痕於口。抱持歸養，及壯聰惠過人，是爲丞魯，位至正匡。丞魯生郎中崔肅，肅生郎中齊顏焉。自此繼嗣不絕。殷誠隨敬順王，入本朝，爲大姓。

또 통화(統和)²⁹⁷⁾ 10년(992) 3월에 절의 주지인 성태(性泰)스님이 보살상 앞에 꿇어 앉아 혼자서 말하기를, “제가 이 절에 오래 머무르며 부지런히 향화를 올리기를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절에 토지에서 나는 것이 없어 향을 피우고 제사 지내는 것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장차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사직하려 합니다.” 하였다. 이날 졸다가 꿈을 꾸니 관음대성이 이르기를, “대사는 아직 머물러 있고 떠나가지 마시오. 내가 연화(緣化)²⁹⁸⁾를 하여 재의 비용을 충당하겠소.” 라고 하였다. 성태스님이 기뻐하며 감득하고 마침내 머물며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 13일이 지나서 갑자기 두 사람이 말과 소에 짐을 싣고 문 앞에 이르렀다. 절의 스님이 나가서 “어디서 왔는지요?” 하니, “우리는 금주(金州)²⁹⁹⁾ 사람들인데 전에 한 스님이 우리에게 와서 ‘나는 동경(東京)³⁰⁰⁾ 중생사에 머무른 지 오래 되었는데

297) 통화(統和): 요(遼) 성종(聖宗)의 연호. 983~1011년. 고려 성종2~현종2년.

298) 연화(緣化): 인연에 따라 사람들을 착한 일을 하고 불도에 들도록 권유하는 일. 특히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권하여 법의 인연을 맺도록 하는 동시에 절을 짓는 등 사찰의 불사에 시주하도록 주선하는 일 또는 그 사람.

299) 금주(金州):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金海). 가야의 수도로서 법흥왕 때 신라에 통합된 후 금관군(金官郡)이라 하다가 문무왕 때 금관소경, 경덕왕 때 김해소경으로 바뀌었다. 고려에 들어 태조 때 김해부(金海府)라 하고 성종 때 금주로 고쳤다. (『고려사』 권57 지리지 金州. “太祖二十三年改州府郡縣名爲金海府，後降爲臨海縣，又陞爲郡。成宗十四年改爲金州安東都護府，顯宗三年更今名。元宗十一年以防禦使金恒平密城之亂，又拒三別抄有功，陞爲金寧都護府，忠烈王十九年降爲縣，三十四年陞爲金州牧。忠宣王二年汰諸牧復爲金海府。)

300) 동경(東京):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 고려 때 경주를 동경, 평양을 서경이라 하

공양 올리기가³⁰¹⁾ 어려워 시주를 구하러 이곳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시주를 거두어 쌀 여섯 섬과 소금 닢 섬을 얻어서 신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이 절에는 시주 다닐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이 아마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스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신현정(神見井)가에 이르러 말하기를, ‘절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여 우리들이 뒤쫓아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절의 스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관음대성을 우러러 보고 절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시주 왔던 비구의 모습입니다.”하고 놀라 감탄해마지 않았다. 그래서 가져오는 쌀과 소금이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또 어느 날 저녁에 절문에 불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구하였다. 법당에 올라가 관음상을 보니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는데 다시 보니 벌써 뜰 가운데에 서 있었다. 밖으로 꺼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모두들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그제야 관음대성의 영험한 위력임을 알았다.

又統和十年三月，主寺釋性泰，跪於菩薩前，自言，“弟子久住茲寺，精勤香火，晝夜匪懈，然以寺無田出，香祀無繼。將移他所，故來辭爾。”是日，假寐夢，大聖謂曰，“師且住無遠離，我以緣化充齋費。”僧忻然感悟，遂留不行。後十三日，忽有二人，馬載牛馱，到於門前。寺僧出問，何所而來。曰“我等是金州界人，向有一比丘到我云，‘我住東京衆生寺久矣。欲以四事之

여 서울인 개경과 함께 삼경, 양주인 남경과 함께 사경이라 불렀다.『고려사』권 57 지리지 東京留守官慶州 “本新羅古都…太祖十八年敬順王金傳來降國除爲慶州。二十三年陞爲大都督府…成宗六年改爲東京留守.”)

301) 사사(四事): 공양의 네가지, 즉 의복·음식·침구(臥具)·의약(醫藥)을 말한다. 부처나 스님들 곧 승단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를 말한다. 혹은 의복·음식·탕약(湯藥)·방이나 집(房舍)를 말하기도 한다.

難，緣化到此.’是以斂施隣閭，得米六碩，塩四碩，負載以來。”僧曰，“此寺無人緣化者，爾輩恐聞之誤。”其人曰，“向之比丘，率我輩而來，到此神見井邊曰，‘距寺不遠，我先往待之，’我輩隨逐而來。”寺僧引入法堂前，其人瞻禮大聖，相謂曰，“此緣化比丘之像也，”驚嘆不已。故所納米塩。追年不廢。

又一夕，寺門有火災，閭里奔救。升堂見像，不知所在，視之已立在庭中矣。問其出者誰，皆曰不知，乃知大聖靈威也。

또 대정(大定)³⁰²⁾ 13년(1173) 계사년에 스님 점승(占崇)이 이 절의 주지가 되었다. 글자를 몰랐으나 성품이 순수하여 부지런히 향화를 올렸다. 한 스님이 그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춘의천사(襯衣天使)³⁰³⁾에게 호소하기를, “이 절은 나라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드는 곳이니 마땅히 글을 알고 읽을 수 있는 이를 가려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천사는 그렇다고 여겨 그 사람을 시험하고자 소문(疏文)을 거꾸로 주었다. 점승이 바로 손으로 펴며 물 흐르듯 읽어나가니 천사는 마음 속에 새겨두었다. 물러나와 방 가운데 앉아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니 점승은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스님³⁰⁴⁾은 진실로 관음대성이 보호하는 분입니다.”라 하고는 끝내 빼앗지 않았다. 그때 점승과 함께 머무르던 사람인 처사³⁰⁵⁾ 김인부(金仁夫)가

302) 대정(大定): 금(金) 세종(世宗)의 연호, 1161~1189년. 고려 의종 15~명종 19년.

303) 춘의천사(襯衣天使): 미상. 춘의는 내의로 춥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을 말한다. 승려들이 기본적으로 입는 삼의(三衣) 외에 두 겹드랑이를 덮고 가슴과 왼쪽 어깨 그리고 허리 아래까지 이르는 장방형의 내의를 승가지(僧祇支) 엄액의(掩腋衣) 또는 엄액춘의(掩腋襯衣)라고 한다. 그러나 춘의천사는 승기지를 갖추어 입은 천사인지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없다.

304) 원문의 상인(上人)은 덕이 높은 스님을 일컫는 말이다.

305) 처사(處士): 세상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사는 이, 거사(居士)라고도 한다. 곧 출

향리의 노장들에 전하여 글로 써서 전하였다.

又大定十三年癸巳間，有僧占崇，得住茲寺。不解文字，性本純粹，精勤火香。有一僧，欲奪其居，訴於襯衣天使曰，“茲寺，所以國家祈恩奉福之所，宜選會讀文疏者主之。”天使然之，欲試其人，乃倒授疏文。占崇應手披讀如流，天使服膺，退坐房中，俾之再讀，崇鉗口無言。天使曰，“上人良由大聖之所護也。終不奪之。當時與崇同住者，處士金仁夫，傳諸鄉老，筆之于傳。

가하지 않고 불도(佛道)에 힘쓰는 이를 말한다.

4-12-2 세 곳의 관음상·백률사

[해제]

이 백률사편은 바로 앞의 중생사(衆生寺)편과 다음의 민장사(敏藏寺)편과 함께 관음의 영험 내용을 담고 있는 「세 곳의 관음상(三所觀音)」 항목의 하나이다. 신라 불교 수용기에 이차돈의 순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백률사에 관음상이 있어 영험이 많았음을 소개한 내용이다. 백률사 관음상은 중국인이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도리천에 왕래했다는 설화가 전해질 만큼 이름난 관음상이었다. 효소왕 때 국선(國仙)인 부례랑(夫禮郎)이 강원도 북쪽 해안에 놀러갔다가 이민족에게 붙들려 가고 뒤따라 궁궐 창고에 보관하던 신적(神笛) 만파식적(萬波息笛)과 현금(玄琴)도 없어졌는데, 부례랑의 양친이 백률사 관음상에 빌어 잃어버린 보물과 함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통일신라 시대에 널리 알려졌던 현실구제적인 관음신앙의 모습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편의 기록은 관음 영험에 이어 국왕이 영험을 보인 백률사에 비단과 토지를 시주하였고 백성들의 조세를 면제해주고 국선과 부례랑 일가족에게 관작을 봉해 주었던 사실을 신고 있어 당시 사회에서 차지하던 국선의 비중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사원의 주지를 봉성사(奉聖寺)로 이적하고 국선을 수행하여 찾고자 애썼던 안상(安常)을 대통(大統)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있어 당시 승관(僧官)의 운용 실상을 살필 수 있는 단편적인 자료가 된다. 마지막에는 만파식적의 이적 사례를 부기하고 대표적인 화랑의 낭도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다. 특별한 자료는 명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전하기를’, ‘어떤 본에

는’, ‘별도의 전기’ 등을 들어 비교하고 있어 여러 기록을 토대로 새로 엮은 것으로 생각된다. 백률사에는 관음상 외에 신라시대의 우수한 대형 동조 약사여래입상이 제작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역주]

세 곳의 관음상-2 백률사

계림(鷄林)³⁰⁶⁾의 북쪽 산을 금강령(金剛嶺)³⁰⁷⁾이라 하는데, 산의 남쪽에 백률사(栢栗寺)³⁰⁸⁾가 있다. 절에는 관음상 하나가 있는데 언제 처음 만든

306) 계림(鷄林): 경주의 신라 왕성인 월성(月城) 가까이에 있는 숲으로 신라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성소이다. 본래 시림(始林)이었는데 이곳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나뭇가지에 걸린 금빛 함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가 태어났다는 설화를 간직한 곳이어서 시림이라는 이름을 계림(鷄林)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후에 신라의 국호로도 쓰이게 되었다.(『삼국사기』 권1 탈해니사금 9년 3월 “王夜聞, 金城西始林樹間, 有鷄鳴聲. 暹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櫝, 掛樹枝, 白雞鳴於其下. 瓠公還告, 王使人取櫝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容奇偉. 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遺我以令胤乎. 乃收養之. 及長聰明多智略, 乃名閼智, 以其出於金櫝, 姓金氏, 改始林名雞林, 因以爲國號.”)

307) 금강령(金剛嶺): 경주 북쪽의 금강산. 금강산은 신라의 영험한 곳 네 곳 중 하나로 중시되었다.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기 위한 이차돈의 순교 때 이차돈의 머리가 날아가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졌고, 이에 따라 머리가 떨어진 곳 혹은 금강산 서쪽 고개에 장례지냈으며 좋은 곳을 찾아 자추사(刺楸寺)를 지었다고 한다. 이 산의 기슭에는 굴불사(掘佛寺) 터와 사면석불이 있고 산 중턱에 백률사가 있다.

308) 백률사(栢栗寺): 경주시 동천동 금강산에 있는 절. 법흥왕 14년(527)에 불교의 전파를 위하여 이차돈(異次頓)이 순교했을 때, 그의 목을 베자 흰 유유가 솟았고, 잘린 목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목이 떨어진 곳이 금강산으로 지금의 백률사 자리였다고 한다. 그곳에 장사 지내고 터를 잡아 다음해인 법흥왕 15년(528)에 사람들이 절을 세우니, 그 절이 자추사(刺楸寺)로서 곧 백률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헌덕왕 9년(817)에 이차돈의 순교를 기리는 이들이 모여 만든 예불향도(禮佛香徒)들이 ‘이차돈순교비’라고도 하는 「백률사석당

것인지는 모르나 영이함이 자못 많았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중국의 뛰어난 장인이 중생사(衆生寺)³⁰⁹⁾ 관음상을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라고 한다. 민간에서 전해지기를 “이 관음대성이 일찍이 도리천(忉利天)³¹⁰⁾에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법당에 들어갈 때 밟았던 돌 위에 발자국이 남아 지금까지 닳지 않았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례랑(夫禮郎)을 구해 돌아올 때 보인 자취이다.”라고 한다.

栢栗寺

鷄林之北岳，曰金剛嶺．山之陽，有栢栗寺，寺有大悲之像一軀，不知作始，而靈異頗著．或云，“是中國之神匠，塑衆生寺像時竝造也．”諺云，“此大聖，曾上忉利天，還來入法堂時，所履石

(栢栗寺石幢)」을 건립하였다. 이 석당은 탑신이 남아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또한 백률사에는 8세기 중반의 우수한 약사여래입상(국보 제28호)이 만들어져 역시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전단관음상이 조선 초까지 전해져 1412년(태종 12)에 개경사(開慶寺)로 이안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 경주 부윤이 중수하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되었고, 1600년경에 경주 부윤(府尹) 윤승순(尹承順)이 중건하고 대웅전을 중창하였다. 현재는 대웅전 요사채 선원 등이 남아 있다.

309) 중생사(衆生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던 절. 이 글의 바로 앞 편인 『삼국유사』 권3 탑상 「삼소관음 중생사」편에 이 절에 얹힌 설화가 전해진다. 중국 오(吳)나라의 한 화공(畫工)이 이 절에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많은 영험이 있었고, 신라 말에 최은함이 이 보살상에 기도를 올린 후 최승로(崔承老)를 얻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에 이 절의 주지 성태(性泰)가 시주를 받지 못해 절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자, 이 보살상이 금주(金州) 사람들의 시주를 구해주었다고 하고, 또한 법당에 화재가 나자 보살상이 스스로 절 마당으로 옮겨와 재난을 피하는 영험을 보였다고 한다.

310) 도리천(忉利天): ㉸ Trāyastriṃśa, 육계 6천의 제2천. 33천으로 번역된다. 원래 인도 신화에 나오는 산이었는데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須彌山)이 우뚝 솟아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주위에 여덟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둘러 싸고 있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고 한다. 일곱 번째의 산 바깥으로 짙

上脚迹, 至今不利.” 或云, “救夫禮郎還來時之所親迹也.”

천수(天授)³¹¹⁾ 3년(692)³¹²⁾ 임진년 9월 7일에 효소왕(孝昭王)³¹³⁾이 대현(大玄) 살찬(薩漣)³¹⁴⁾의 아들 부레랑을 받들어 국선(國仙)³¹⁵⁾으로 삼았다. (부레랑은) 천 명의 낭도를³¹⁶⁾ 거느렸는데, 안상(安常)³¹⁷⁾과 특히 친하였다.

바다가 있고 그 바깥으로 철위산(鐵圍山)이 있어 수미산의 사대주를 이루는데 그 중의 남쪽인 염부제주(閻浮提洲)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위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 곧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다고 한다. 도리천은 제석천(帝釋天)이 주인이 되어 사방에 팔천을 거느리고 있어 삼십삼천이라고도 부른다.

311) 천수(天授): 당(唐) 무측천(武則天)의 연호. 690~691년, 신문왕 10~11년.

312) 천수(天授)연호는 691년까지 사용하였으므로 692년은 장수(長壽) 원년에 해당한다. 효소왕 원년.

313) 효소왕(孝昭王): 신라 제32대 왕. 재위 692~702년. 성 김, 이름은 이홍(理洪)·이공(理恭). 신문왕의 장자. 어머니는 흠운(欽運)의 딸인 신목왕후(神穆王后) 김씨. 691년(신문왕 11)에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692년에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즉위 초반에 의학교육기관인 의학(醫學)을 설립하여 의학박사를 두었으며, 695년에 서시전(西市典)과 남시전(南市典)을 둬으로써 이전의 동시전(東市典)과 함께 왕경의 물화 유통이 원활해졌다. 을 쉽게 하였다. 698년에 일본의 사신을 접견하고 699년에는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양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도 유지하였다. 700년에는 왕자가 없어 왕위계승과 연관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14) 살찬(薩漣): 사찬(沙漣)·살찬(薩漣)·사돌간(沙咄干)·사간(沙干)이라고도 한다. 신라 17관등의 제 8관등이다. 육두품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관등이다.

315) 국선(國仙): 화랑을 말한다. 『삼국사기』에서는 모두 화랑이라고 하였으나 『삼국유사』에서는 화랑(花娘)이라는 한번의 표기 외에는 모두 국선의 명칭을 썼다. (『彌勒仙花』등) 조선시대의 인식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준다. (安鼎福 『東史綱目』 권3상 진흥왕 37년 “花郎亦曰國仙”)

316) 원문의 주리(珠履)는 구슬로 만든 신으로 대개 상객(上客)이 신는다. 흔히 ‘주리 삼천’은 빈객이 많음을 말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주리천도’는 낭도가 많음을 말한다.

317) 안상(安常): 화랑 부레랑과 함께 활동한 승려. 화랑의 활동에는 승려가 함께 하

천수 4년(693) <곧 장수(長壽) 2년이다> 계사년 봄 3월에 낭도를 데리고 금란(金蘭)³¹⁸⁾에 놀러 갔는데 북쪽 바닷가³¹⁹⁾ 경계에 이르러 오랑캐³²⁰⁾에게 붙들려 갔다. 문객들이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아왔는데 안상만이 뒤쫓아 갔으니 이것이 3월 11일의 일이다. 효소대왕이 이를 듣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며 말하기를, “선왕³²¹⁾께서 신적(神笛)을 얻어 나에게 전해주어 지금 현금(玄琴)과 함께 내고(內庫)에 간직해 두었는데 무슨 연유로 국선이 갑자기 적의 포로가 되었는가. 어찌해야 좋은가?”라고 하였다. <현금(玄琴)과 신적(神笛)의 일은 다른 전에 갖추어 실었다.³²²⁾> 그때 상서로운 구름이 천존고(天尊庫)³²³⁾를 덮어 왕이 또 크게 놀라 검사해 보도록 하였더니 천존고 안의 현

여 지도적 역할을 맡았음을 알려주는 예이다.

- 318) 금란(金蘭): 강원도 통천(通川). 이곳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동해안 일대는 화랑들의 중요한 유람지 중의 하나였다. 진흥왕 때 설원랑(薛原郎)을 국선으로 봉하여 이가 화랑국선(花郎國仙)의 처음이었기에 명주(溟州)에 비를 세웠다는 것도 이런 사실을 알려준다. (『삼국유사』 권3 탐상「彌勒仙花」)
- 319) 원문의 북명(北溟)은 북쪽 바닷가로 볼 수도 있고, 실제 화랑들이 자주 유람하던 명주(강릉) 북쪽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내용상으로는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
- 320) 원문의 적적(狄賊)은 말갈을 가리킨다. 이 설화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기에(692년) 발해가 건국되었으므로 이 말갈은 발해와 연관을 갖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 321) 선왕은 효소왕의 부왕인 신문왕(神文王)을 말한다. 신문왕 2년에 신적을 얻었다. (『삼국유사』 권2 기이「萬波息笛」)
- 322) 신적(神笛)에 대해서는 권2 「만파식적」에 내력이 실려 있으나 현금(玄琴)은 관련 기록이 없다. 신적은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은사를 창건하고 참배하던 중에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대나무를 얻어 이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하리라는 용의 말에 따라 이것을 가지고 와서 피리를 만들어 천존고에 보관하였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 비가 오고 비가 개이며 바람이 멎고 파도가 가라앉는다 하여 만파식적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고 한다.
- 323) 천존고(天尊庫): 신이한 능력을 가진 만파식적을 만들어 보관한 신라 왕성 월성(月城)의 수장고. (『삼국유사』 권2 기이「萬波息笛」)

금과 신적 두 보물이 없어졌다. (왕이) 이르기를, “짐을 어찌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³²⁴⁾ 지난 번에는 국선을 잃고 또 현금과 신적을 잃었는가.” 하고는 천존고를 지키던 관리 김정고(金貞高) 등 5인을 감옥에 가두었다. 4월에 나라에 현상을 모집하기를, “현금과 신적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한 해의 조세를 상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5월 15일에 부레랑의 양친이 백률사의 관음상 앞에 가서 며칠 저녁에 걸쳐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향탁(香卓) 위에 현금과 신적 두 보물이 있고 부레랑과 안상 두 사람이 관음상 뒤에 와 있었다. 양친이 크게 기뻐하여 그 연유를 물었더니 부레랑이 말하기를, “제가 불들려가서 저 나라의 대도구라(大都仇羅) 집안의 목장지기가 되어 대오라니(大烏羅尼) 들판에서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본에는 도구(都仇) 집안의 노비가 되어 대마(大磨) 들판에서 방목하였다고 한다.> 갑자기 한 스님이 나타났는데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였습니다. 손에 현금과 신적을 들고 와서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고향을³²⁵⁾ 그리워합니까?’ 하기에 저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과 아버이를 그리워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스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나를 따라 오시오.’ 하여 마침내 데리고 바닷가에 이르러 또 안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적을 쪼개어 둘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주어 각각 한 쪽씩 타게 하고, 자신은 현금을 타고 둥둥 떠서 돌아오는데 잠깐 사이에 이곳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모든 사실을 왕에게 아뢰니 왕은 크게 놀라 부레랑을 맞이하게 하고 현금과 신적도 궁에 들여오게 하였다. (왕은) 각각 50냥짜리 금과 은 다섯 개의 그릇 두 벌과 마납(磨納)가사³²⁶⁾ 다섯 벌과 대초(大綯)³²⁷⁾ 3천 필과

324) 원문의 불적(不吊)은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325) 상재(桑梓): 뽕나무와 가래나무, 곧 고향집이나 고향을 이른다.

326) 마납가사(摩納袈裟): 마납은 법복(法服)의 한 가지로 금빛 나는 좋은 가사를 말

토지 만경을 절에 시주하여 (대비상의) 자애로운 은덕에 보답하였다. 나라 안에 크게 사면하고 사람들에게 관작(官爵) 3급을 주었으며 백성들의 조세를 3년간 면제하였다. 절의 주지는 봉성사(奉聖寺)³²⁸⁾에 옮겨 지내게 하였다. 부례랑을 대각간(大角干)³²⁹⁾에 봉하고 <신라의 제상 벼슬 이름이다.> 부친 대현 아찬을³³⁰⁾ 태대각간(太角干)³³¹⁾에, 모친 용보(龍寶)부인을 사랑부(沙梁部)³³²⁾ 경정궁주(鏡井宮主)에 봉하였으며, 안상대사는 대통(大統)³³³⁾

한다. 마(磨)는 금색 빛의 좋은 비단이다.

327) 대초(大綽): 비단의 한 종류.

328) 봉성사(奉聖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던 절. 『삼국유사』에는 경주의 봉성사 외에 밀양에도 보양(寶壤)에 의해 고려초에 봉성사가 창건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4 의해 「보양이목」). 경주 봉성사의 절의 창건에 대해서는 신문왕 5년(685)에 밀고고승 혜통(惠通)이 신문왕이 병이 난 것을 고쳐주면서, 왕의 진생에 제상으로서 양민인 신충(信忠)을 잘못하여 노예가 되게 하여 생긴 원망이라 하고 그를 풀려면 신충을 위해 절을 창건하도록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삼국유사』 권5 「혜통행릉」) 『삼국사기』에도 신문왕 5년 3월에 창건되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8 신문왕 5년 3월 “奉聖寺成”) 이 봉성사에는 성전(成典)이 설치되었는데, 7개 성전사원 중에서도 사천왕사 다음으로 꼽히는 중요한 사원이었다. (『삼국사기』 권38 직관 상)

329) 대각간(大角干): 17관등의 제1관등인 각간(角干) 위에 시설한 비상위직. 나마와 대나마 등의 관등에도 중위(重位)직을 두어 관등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대각간 관등은 최고위 세력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태종 7년(660)에 백제를 패망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김유신에 대각간을 수여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권38 직관지상 대각간)

330) 앞에서는 사찬(제8관등)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찬(제6관등)으로 나온다. 아찬은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등이다.

331) 태대각간(太角干): 17관등 위에 시설한 비상위직. 문무왕 8년(668)에 고구려를 패망시킨 김유신의 공로를 인정하여 태대각간을 수여하였다. (『삼국사기』 권38 직관지상 태대각간)

332) 사랑부(沙梁部): 삼국시대 신라 왕경(王京)을 구성하고 있던 6부의 하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유리이사금 9년(32년) 종래의 육촌(六村) 중의 하나이던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을 개명하여 이에 최씨(崔氏) (삼국유사에는 정씨(鄭氏)라 하

으로 삼았다. 천존고 관리 5인은 모두 방면하여 각각 관작 5급을 주었다.

天授三年壬辰九月七日，孝昭王奉大玄薩淦之子夫禮郎爲國仙，珠履千徒，親安常尤甚。天授四年（即長壽二年）癸巳暮春之月，領徒遊金蘭，到北溟之境，被狄賊所掠而去，門客皆失措而還，獨安常追迹之，是三月十一日也。大王聞之，驚駭不勝，曰“先君得神笛，傳于朕躬，今與玄琴，藏在內庫，因何國仙，忽爲賊俘，爲之奈何。”〈琴笛事，具載別傳。〉時有瑞雲覆天尊庫，王又震懼，使檢之，庫內失琴笛二寶。乃曰，“朕何不吊，昨失國仙，又亡琴笛。”乃因司庫吏金貞高等五人。四月募於國曰，“得琴笛者，賞之一歲租。”

五月十五日，郎二親就栢栗寺大悲像前，禱祈累夕，忽香卓上得琴笛二寶，而郎常二人，來到於像後。二親顚喜，問其所由來。郎曰，“予自被掠，爲彼國大都仇羅家之牧子，放牧於大烏羅尼野，〈一本作都仇家奴，牧於大磨之野。〉忽有一僧，容儀端正，手

였음) 성(姓)을 배정하였다고 한다. 6부는 연합하여 사로국(斯盧國)을 형성하였는데, 사랑부는 그 가운데 양부(梁部)와 더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6세기 초반 사랑부의 장은 갈문왕(葛文王)이 겸임하였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태조 23년(940)에 남산부(南山部)로 개칭되었다.

- 333) 대통(大統): 정법전(政法典)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신라 승관의 하나. 최고위 승직인 국통(國統)에 이은 상위 중앙 승관. 대통은 『삼국사기』의 직제에는 나오지 않는 직명이나 「황룡사목탑찰주기(皇龍寺木塔刹柱記)」에는 국통 다음에 대통이 열거되어 있고 정법화상과 겸직이 가능한 직책으로 나타나, 대통이 국통에 이은 상위직임을 알 수 있다. 정법전에는 국통을 정점으로 대통 판정법사(判政法事, 政法和尚) 대서성(大書省) 소서성(小書省) 대사(大舍) 사(史)의 중앙 승관과 주통(州統) 군통(郡統)의 지방담당 승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정법전의 기능은 왕실의 불교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승려들에 대한 예우나 초빙 등을 연계하는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携琴笛, 來慰曰, ‘憶桑梓乎,’ 予不覺跪于前曰, ‘眷戀君親, 何論其極,’ 僧曰, ‘然則宜從我來,’ 遂率至海孺, 又與安常會, 乃批笛爲兩分, 與二人, 各乘一隻, 自乘其琴, 泛泛歸來, 俄然至此矣.” 於是具事馳聞, 王大驚使迎, 郎隨琴笛入內. 施鑄金銀五器二副各重五十兩, 摩衲袈裟五領, 大綃三千疋, 田一萬頃, 納於寺, 用答慈麻焉. 大赦國內, 賜人爵三級, 復民租三年. 主寺僧, 移住奉聖. 封郎爲大角干, 〈羅之家宰爵名〉 父大玄阿漚爲太大角干, 母龍寶夫人爲沙梁部鏡井宮主. 安常師爲大統司庫五人皆免, 賜爵各五級.

6월 12일에 혜성(彗星)이 동쪽에 나타났다. 17일에는 다시 (혜성이) 서쪽에 나타났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현금과 신적의 상서에 대해 작위를 봉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적의 칭호를 책봉하여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 하였더니 혜성이 곧 없어졌다. 후에도 신령스러운 이적이 많으나 글이 번거로워 신지 않는다.

세상에서 안상을 영랑(永郎)³³⁴⁾의 뛰어난 낭도라 하나 자세히 알 수 없다. 영랑의 낭도로는 진재(眞才)나 번완(繁完) 등의 이름만 알려졌는데 이들 또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전기가 있다〉

334) 영랑(永郎): 술랑(述郎)·남석랑(南石郎)·안상랑(安祥郎)과 함께 신라 사선(四仙) 중의 하나로 꼽힌 대표적인 화랑이다. 금강산 등 동해안 방면의 유람을 많이 하여 그의 이름이 담긴 유적이 있기도 하다. 영랑호(永郎湖) 같은 것이 그 예이며 금강산 삼일포(三日浦)에는 ‘영랑도남석행(永郎徒南石行)’이라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있다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高城三日浦, 安軸, 「三日浦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서석(書石)의 명문에 ‘술년 6월 2일 영랑 성업(戊辰六月二日永郎成業)’이라 한 것이 보이고 있어, 영랑이 화랑으로서의 수련기간을 마친 것을 기념한 각문(刻文)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六月十二日，有彗星孛于東方，十七日，又孛于西方。日官奏曰，“不封爵於琴笛之瑞。”於是冊號，神笛爲萬萬波波息，彗乃滅。後多靈異，文煩不載。

世謂安常爲俊永郎徒，不之審也。永郎之徒，唯真才 繁完等知名，皆亦不測人也。〈詳見別傳〉

4-12-3 세 곳의 관음상·민장사

[해제]

이 민장사편은 앞의 중생사(衆生寺)편과 백률사(栢栗寺)편과 함께 관음의 영험 내용을 담고 있는 「세 곳의 관음상(三所觀音)」 항목의 마지막 편이다. 경덕왕 때 바다에서 장사하는 장춘(長春)이 풍랑으로 실종되자 그 모친이 민장사 관음상에 기도하여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이 신앙 사례는 관음신앙의 주 경전인 『법화경』 보문품에 나오는 현실구제 신앙의 전형적인 보기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절에 토지와 선물을 주었다는 기록을 부가하였는데, 이는 일반민들의 불교 신앙 영험에 대해 국왕이 관심을 갖고 대한 일면을 보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민장사는 귀족 민장이 집을 절로 만든 것이라는 기록에서 신라 사원 건립의 중요한 유형의 한 예를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며, 그렇게 건립된 사원은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널리 이용할 수 있었음을 알게 하는 자료이다. 인용 자료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역주]

세 곳의 관음상-3 민장사

우금리(禺金里)의 가난한 여인 보개(寶開)에게 장춘(長春)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바다 장사꾼을 따라 갔는데 오랫동안 소식³³⁵⁾이 없었다. 어머니가 민장사(敏藏寺)의 [이 절은 민장 각간(角干)³³⁶⁾이 집을 내놓아 절로 삼은

것이다.] 관음상 앞에 가서 7일 동안 정성으로 기도하였더니 장춘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 이유를 물으니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서 회오리바람이 불어 배가 부서져 동료들이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저는 널판 한쪽을 타고 오(吳)지방³³⁷⁾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오지방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 들판에서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고향에서 온 듯한 이상한 스님이 은근히 위로하고 저를 데리고 함께 가는데 앞에 큰 개천이 나오자 스님이 저를 겨드랑이에 끼고 뛰어 넘었습니다.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 우리말 소리와 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살펴보니 벌써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해 질 무렵 신시³³⁸⁾에 오지방을 떠났는데 이곳에 이르니 겨우 술시³³⁹⁾ 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곧 천보(天寶)³⁴⁰⁾ 4년(745) 을유년 4월 8일의 일이었다. 경덕왕(景德王)³⁴¹⁾이 이 말을 듣고 토지를 절에 시주하고 또 재물과 선

335) 원문의 음모(音耗)는 음신(音信)과 같은 말로 먼 곳에서 전하는 소식이나 편지를 말한다.

336) 각간(角干) : 이벌찬(伊伐漣) · 이벌간(伊伐干) · 우벌찬(于伐漣) · 각찬(角粦) 등이 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주다(酒多)라 하였다. 진골(眞骨)만이 하는 벼슬로, 신라 17관등제와는 별도로 제정되었다.

337) 오(吳)지방 : 중국 강소성 지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자강 일대의 중국 동남방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오라는 이름의 나라도 여럿 있어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십이 열국 가운데 주나라 문왕의 백부 태백(太伯)이 세운 오나라가 양자 강 하류 지역을 영유하였는데 서기전 473년에 월(越)나라의 구천(句踐)에게 멸망하였다. 삼국 시대 오나라는 222년에 손권이 건업(建業)에 도읍하고 강남에 세운 나라이다. 오대십국 가운데 902년에 양행밀(楊行密)이 양주에 도읍하고 회남(淮南) 강동(江東)에 세운 오나라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기에는 오나라가 없으므로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한다.

338) 포시(哺時) : 신시(申時)를 말함.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339) 술시(戌時) :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340) 천보(天寶) : 당 현종(玄宗)의 연호. 742~756년. 경덕왕1~15년.

341) 경덕왕(景德王) : 신라 제35대 왕. 재위 742~765. 왕권 안정을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시행하고 9주(州) · 5소경(小京) · 117군(郡) · 293현(縣)을 정비하였다.

물을 바쳤다.

敏藏寺

禺金里貧女寶開，有子名長春。從海賈而征，久無音耗。其母就敏藏寺[寺乃敏藏角干，捨家爲寺。]觀音前，克祈七日，而長春忽至。問其由緒曰，“海中風飄船壞，同侶皆不免，予乘隻板，歸泊吳涯。吳人收之，俾耕于野。有異僧如鄉里來，弔慰勤勤，率我同行，前有深渠，僧掖我跳之。昏昏間如聞鄉音與哭泣之聲，見之乃已屆此矣。日晡時離吳，至此纔戌初。”卽天寶四年乙酉四月八日也。景德王聞之，施田於寺，又納財幣焉。

754년에 황룡사종을 주조하고, 불국사(佛國寺)와 석불사(石佛寺)와 굴불사(掘佛寺) 등을 창건하였다. 4-7 주188) 참조

4-13 전후하여 가져온 사리

[해제]

석가모니에 대한 불교신앙의 주요한 대상인 진신 사리(舍利)의 수용과 신앙, 부처 어금니의 수용과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 불경을 들여온 이야기들을 모은 편이다. 중국에서 부처의 진신사리를 가져온 사실을 중심으로 엮었으므로 제목을 「전후하여 가져온 사리」라고 하였다. 진흥왕 때부터 사리가 중국에서 들어왔음을 기록하고, 선덕왕 때 자장이 가져온 통도사 진신사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 사리신앙 이야기의 핵심을 이룬다. 고려에 들어 여러 사람들이 사리와 연관된 행적을 남겼다. 광종 때 황룡사탑이 벼락에 맞았을 때 통도사 사리함에 얼룩이 생겨난 것을 시작으로, 몽고 침공기인 고종 때 직접 사리함을 열어 보고 사리가 4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불안하였는데 원 간섭기에 들어 원의 사신들이 참배하니 변신사리가 사리함 바깥에 생겨났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부처 어금니에 대한 신앙도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열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 의상대사가 도선에게 부탁하여 체석궁에서 어금니를 빌려왔고, 문성왕 때는 중국에 간 사신이, 그리고 고려 예종 때 역시 중국에 간 사신이 어금니를 가져와서 이것은 궁궐에 봉안해 두었다고 한다. 예종 때는 송에서 바다에 띄워 보낸 부처 어금니를 구해 와서 역시 궁궐 안에 전각을 세워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 어금니는 몽고 침공으로 강화로 조정을 옮길 때 챙기지 못하였다가, 담당 관리들을 조사하여 다시 찾아내고 겹겹이 쌓인 사리함을 확인한 후 불아전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이런 내용은 당시 궁궐 기도승인 각유(覺猷)로부터



통도사 계단

얻어 기록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불경은 진흥왕 때의 유사와 명관에서 시작하여 선덕왕 때의 자장, 흥덕왕 때의 구덕, 문성왕 때의 원흥, 신라말의 보요, 고려 태조 때의 목화상, 예종 때의 혜조, 선종 때의 대각국사 등이 차례로 가져온 사실을 기록하였다. 자료로는 『삼국사기』와 일반 전승 기록, 고기, 혜심의 시, 당시 상황을 직접 담당했던 승려의 기록, 팽조적의 시 등 다양한 여러 기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일연의 제자인 무극(無極)이 의상이 부처 제석궁에서 어금니를 빌려왔다는 사실을 고증하기 위해 부석본비(浮石本碑)의 단편적인 기록을 들어 대조하였는데, 여기에 제시한 의상의 생년을 비롯하여 입당을 시도한 해, 입당한 해, 신라에 돌아온 해, 입적년은 의상 전기를 구성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된다. 무극은 의상비와의 대조를 통해 의상이 빌려온 부처 어금니는 빌려온 기한이 차서 다시 천궁으로 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1284년에 부처 어금니와 낙산사 수정염주에 국왕과 여러 사람들이 예배하였다는 사실도 부가하였다. 무극

의 추기는 고려 후기의 사리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지금 보는 『삼국유사』가 무극의 일부 수정을 거쳐 간행되었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역주]

전후하여 가져온 사리

국사(國史)³⁴²⁾에 말하였다. “진흥왕(眞興王)³⁴³⁾ 태청(太淸)³⁴⁴⁾ 3년(549) 기사년에 양(梁)나라의 사신 심호(沈湖)가 사리 몇 과를 보내왔다.³⁴⁵⁾ 선덕왕(善德王)³⁴⁶⁾ 때인 정관(貞觀)³⁴⁷⁾ 17년(643) 계묘년에 자장(慈藏)³⁴⁸⁾ 법사

342) 국사(國史):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말하는데 여기 인용한 기록과 글자에 차이가 있다.

343) 진흥왕(眞興王): 신라 제24대 왕. 재위 540~576. 한강 유역의 요충지를 획득하고 대가야를 평정하였으며, 창녕에서 북한산 마운령 황초령에 이르는 영역을 새로 개척하였다. 4-1 주8) 참조.

344) 태청(太淸): 양(梁) 무제(武帝)의 연호. 547~549. 신라 진흥왕 8~10년.

345) “(진흥왕 10년) 봄, 양나라에서 사신과 입학승 각덱에게 불사리를 보냈다. 왕은 백관으로 하여금 흥륜사 앞길에서 맞이하게 하였다.(春 梁遣使與入學僧覺德 送佛舍利 王使百官 奉迎興輪寺前路)”(『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진흥왕(眞興王) 10년)

346) 선덕왕(善德王): 신라 제27대 왕. 재위 632~647. 분황사(芬皇寺)와 영묘사(靈廟寺)를 창건하였고,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였다. 4-5 주 125) 참조.

347) 정관(貞觀): 당 태종(太宗)의 연호. 627~649년. 신라 진평왕 49년~진덕왕 4년.

348) 자장(慈藏): 신라시대의 승려. 636년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만나보고 가사(袈裟)와 사리를 받았다.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에서 도를 닦고 화엄종의 두순(杜順)과 계율종(戒律宗)의 도선(道宣)에게 배운 뒤, 643년 장경(藏經) 1부와 불구(佛具)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하였고, 황룡사 9층탑 창건을 건

가 부처의 머리뼈와 부처의 어금니와 부처의 사리 백 과와 부처가 입었던 붉은 비단에 금박이 찍힌 가사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사리는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탑(皇龍寺塔)³⁴⁹⁾에, 다른 하나는 태화사(太和寺)³⁵⁰⁾ 탑에, 또 하나는 가사와 함께 통도사(通度寺)³⁵¹⁾ 계단(戒壇)³⁵²⁾에 두었는데 그 나머

의, 645년에 완성하였다. 4-5 주122) 참조.

349) 황룡사탑(皇龍寺塔): 선덕왕 12년(643)에 자장의 주청으로, 용춘(龍春)의 주선하에 백제의 장인 아비지(阿非知)를 초청해다 2년 뒤에 완성한 목조 구층탑이다. 탑 높이 183자에 상륜부 42자에 이르는 대탑으로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얻었다는 사리를 봉안하였다. 이웃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인연에 따라 건립된 신라 호국의 상징이다. 황룡사 장륙상(丈六像)과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와 함께 신라 삼보(三寶)의 하나로 존송되었다. 창건 이후 여러 차례 파손된 것을 중수하였으며 고려 고종 25년(1238)에 몽고군의 방화로 소실되어 지금은 그 기단만 남아 있다. 『삼국유사』 권3 탑상 「皇龍寺九層塔」

350) 태화사(太和寺): 경남 울산시 태화동 반달굴에 있던 절. 자장(慈藏)이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감응을 얻고 다시 태화지(太和池) 주변을 지나는데 신인(神人)이 나타나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는 감응을 받고, 이어 탑을 세운 후 팔관회를 열어 죄인을 사면하고 신인 자신을 위해 서울 남쪽에 절을 세워줄 것을 말하였다. 자장이 이에 따라 세운 절로서 태화지(太和池)의 이름을 따서 태화사라 하였다. 9세기경에 조성된 종형(鐘形) 12지신상부도가 출토되었다. 고려말 충숙왕대까지 남아 있었으나 그 후 조선 전기 이전에 폐사되었다.

351) 통도사(通度寺):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영취산(靈鷲山)에 있는 절. 646년(선덕왕 15)에 자장(慈藏)이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사리(舍利)·가사(袈裟)·대장경(大藏經) 등을 금강계단(金剛戒壇)에 봉안하고 창건하였다. 이에 따라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계단(戒壇)이 있는 불보(佛寶)사찰로서 한국 불교의 첫손 꼽히는 종찰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이다. 계단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계단 앞에 세운 불상이 없는 대웅전을 비롯한 대광명전 등 넓은 사역에 수많은 전당이 세워져 있는 대찰로서 문화재도 많다.

352) 계단(戒壇): 수계(授戒) 의식을 거행하고 계를 설하기 위해 마련한 단(壇). 계장(戒場)에 평지의 조금 높은 곳에 토단(土壇)을 쌓아 만든 것으로 건물을 만들지 않고 야외에 만들어 결계(結界)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석씨요람(釋氏要覽)』에 따르면 인도에서 기원정사에 처음으로 계단을 건립했다고 하며, 나란타

지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계단은 2단으로 상단의 가운데에 얹어놓은 가마솔과 같은 덮개돌을 두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예전에 우리나라³⁵³⁾에 차례로 두 안렴사(按廉使)³⁵⁴⁾가 있어 계단에 예배하고 돌뚜껑을 들어 경배하였다. 먼저는 긴 이 무기가 함 속에 있었고, 나중에는 큰 두꺼비가 돌의 배부분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로부터 함부로 (돌을) 들지 못하였다.”

근래에 들어 상장군(上將軍)³⁵⁵⁾ 김이생(金利生)³⁵⁶⁾과 시랑(侍郎)³⁵⁷⁾ 유

사의 계단은 평지에 사방 1장 정도에 높이 2자 되는 담장을 쌓고 담장 안에 좌기(坐基)를 마련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삼국시대에 처음 계단이 건립된 후 많은 계단이 만들어졌는데, 667년에 도선(道宣)이 장안 교외의 종남산 정업사(淨業寺)에 정식으로 제정한 계단을 설립하였다. 이 계단은 3층으로 하층 2장 9척 8촌, 중층 2장 3척, 상층 7척 너비에 높이는 하층 3척, 중층 4척 5촌, 상층 2촌으로 총 7척 7촌이었다 하는데 도선은 이를 『계단도경(戒壇圖經)』에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이 제도에 따라 전국에 계단이 건립되었다. 765년에는 임단대덕(臨壇大德) 10인을 두어 수계할 때 주재하는 삼사칠증(三師七證)의 제도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장이 처음 통도사에 건립하였고, 이후 신라 말에는 부석사 화엄사 등에 관단(官壇) 즉 국가의 공적인 계단이 설치되어 승려들의 수계 의식을 시행하였다.

353) 여기서의 우리나라는 고려를 말함.

354) 안렴사(按廉使): 고려시대 각 도(道)에 파견된 지방관. 고려 전기부터 두었던 안찰사(按察使)를 충렬왕 2년(1276) 관제개정에 따라 안렴사(按廉使)로 바꾸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변화가 있었고, 1388년(창왕 즉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개정되면서 도(道)의 장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록을 보면 이미 1276년 이전에 안렴사라는 명칭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355) 상장군(上將軍): 고려시대 중앙군의 최고지휘관. 2군6위(二軍六衛)에 1명씩 두어 모두 8명이었으며, 품계는 무관의 최고직인 정3품이다.

356) 김이생(金利生): 고려 고종 때의 무신. 고종 13년(1226) 금(金)의 우가하(于哥下)가 의주 정주 등지를 침범하자 압록강을 건너 적의 석성을 공파하고 이듬해에는 동진(東眞)의 군대가 침입하자 화주성(和州城)을 수성하여 낭장(郎將)에서 자문지유(紫門指諭)가 되었다. 1235년 안동인(安東人)이 동경(東京)으로 진격할

석(庾碩)³⁵⁸⁾이 고종(高宗) 때에 왕명을 받들어 강동(江東)³⁵⁹⁾을 지휘하였는데, 장절(仗節)³⁶⁰⁾을 가지고 절에 이르러 돌을 들고 예배하고자 하였다. 절의 스님들은 지난 일을 들어 난감해 하였으나 두 사람이 군사를 시켜 억지로 들어냈다. 안에는 작은 돌함이 있고 함 속에는 유리통을 두었는데, 통 속에는 사리가 다만 네 과만 있었다. 서로 돌려보며 침례하고 예경하였는데 통에는 조금 상하여 금이 간 곳이 있었다. 이에 유공이 마침 가지고 있던 수정함 하나를 시주하여 함께 간직하게 하고 이 일을 기록해두니, 강화도로 서울을 옮긴 지³⁶¹⁾ 4년째인 을미년(1235)이었다.

고기(古記)에 “(사리) 백 과를 세 곳에 나누어 두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네 개 뿐이라 한다. (사리가) 숨고 나타남이 사람에 따라 많고 적으니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또 사람들이 “황룡사람이 불타던 날 돌뚜껑의 동쪽면에 처음으로 큰 얼룩이 생겨나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한다. 곧 요나라 응력(應曆)³⁶²⁾ 3년

때 상장군으로 동남도지휘사(東南道指揮使)에 임명되어 이를 저지하였다.

357) 시랑(侍郎) : 고려시대 상서육부(尙書六部)의 차관직인 정4품 관직. 이부(吏部)·예부(禮部)·공부(工部)에는 각 1명씩 있었고, 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刑部)에는 각 2명씩 두었다.

358) 유석(庾碩) : 고려 고종대의 강직한 청백리. 고종 3년(1216) 급제하여 내시에 적을 두어 함문통사(閤門通事) 사인(舍人)을 지내고 충청 전라의 안찰사를 지냈으며 고종 22년(1235) 9월에 안동인이 몽고병을 끌어들여 동경을 공략하려 할때 김이생을 따라 동남도지휘부사가 되어 막아냈다.

359) 강동(江東) : 낙동강의 동쪽을 말함.

360) 장절(仗節) : 왕명을 받은 장군이나 외국에 가는 사신에게 신표로 주는 깃발을 가리킨다.

361) 강화도로 서울을 옮긴 지 : 1231년(고려 고종 18년)에 시작된 몽고의 침공에 대하여 1232년(고종 19)에 고려 조정이 수도를 강화(江華)로 옮긴 것을 말한다.

362) 응력(應曆) : 요(遼) 목종(穆宗)의 연호. 951~968년. 고려 광종 2~19년.

(953) 계축년이고 우리나라³⁶³⁾ 광종(光宗)³⁶⁴⁾ 5년으로 탑의 세 번째 재난이었다.³⁶⁵⁾

조계산(曹溪山)³⁶⁶⁾의 무의자(無衣子)³⁶⁷⁾가 시를 지어 남기기를 “황룡사 탑 재난 당했다고 듣던 날, 한 면 연이어 타버려 틈도 보이지 않았다.”³⁶⁸⁾고

363) 우리나라 : 일연이 살았던 고려시대를 말한다.

364) 광종(光宗) : 고려 제4대 왕. 재위 949~975년.

365) 『삼국유사』 권3 탑상 「황룡사구층탑」에는 황룡사탑이 선덕왕 12년(643)에 착수하여 645년에 완성되었고, 효소왕 7년(698)에 벼락을 맞아 성덕왕 19년(720)에 중수하였으며, 경문왕 8년(868)에 두 번째 벼락을 맞아 세 번째 수리하였으며, 고려시대 들어와 광종 5년(954)에 세 번째 벼락을 맞아 현종 12년(1021)에 수리하였으며, 정종 1년(1035)에 벼락으로 파손된 것을 문종 18년(1064)에 다섯번째로 수리하였으며, 현종 1년(1064)에 다섯 번째 벼락을 맞아 숙종 1년(1096)에 여섯 번째 수리 한 후, 고종 25년(1238) 몽고병의 침입으로 황룡사 가람 전체가 불타 버렸을 때 함께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의 일은 세 번째 맞은 벼락이다.

366) 조계산(曹溪山)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송주읍·주암면에 걸쳐 있는 산. 송광산(松廣山)이라고도 한다. 1200년(신종 3)에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수행결사(修行結社)인 정혜사(定慧社)를 이곳으로 옮겨와 수선사(修禪社)라 불렀다. 1205년에 희종이 새로운 선종을 제창하던 지눌을 위해 송광산을 조계산으로 고쳤다. 여기서는 무의자 혜심이 주석하던 조계산에 있는 송광사를 가리킨다.

367) 무의자(無衣子) :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 성은 최씨, 나주 출신. 신종 4년(120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갔으나 모친의 사망 이후 조계산 수선사의 지눌(知訥)에게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었다. 1210년 지눌을 이어 수선사의 제2세 사주(社主)가 되어 수선사를 크게 확장하고 간화선법을 계승·진작시켰다. 저술로는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30권, 『심요(心要)』 1편,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 1편,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2권, 『금강경찬(金剛經贊)』 1권, 『선문강요(禪門綱要)』 1권,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1권 등이 있다.

368) 혜심의 시는 「제통도사계단(題通度寺戒壇)」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것으로 여기 인용한 구절 앞에 “석존의 사리는 높은 계단을 진정하고, 엮어진 숲 가운데엔 불 자욱이 있구나.(釋尊舍利鎮高壇 覆釜腰邊有火瘳)”이라는 구절이 있어 절구를

한 것이 이것이다.

지원(至元)³⁶⁹⁾ 갑자년(1264) 이래로 원나라의 사신과 본국의 사신들이³⁷⁰⁾ 다투어 와서 보고 예배하고 사망에서 스님들이³⁷¹⁾ 모여들어 참배하는데 혹은 (돌뚜경을) 들어 보고 혹은 들어 보지 않았다. 진신사리 4과 이외에 변신(變身) 사리³⁷²⁾가 부서져 모래처럼 되어 돌함 바깥에 드러났는데 이상한 향기가 짙게 풍기며 며칠을 그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었으니 이것은 말세(末世)³⁷³⁾에 한 지방에서 생겨난 기이한 일이었다.

前後所將舍利

國史云, “眞興王太清三年己巳, 梁使沈湖送舍利若干粒. 善德王代貞觀十七年癸卯, 慈藏法師所將佛頭骨 佛牙 佛舍利百粒 佛所著緋羅金點袈裟一領, 其舍利分爲三, 一分在皇龍塔, 一

이룬다. (『無衣子詩集』 권상 韓 6 p.54하)

369) 지원(至元): 원 세조(世祖)의 연호. 1264~1294년 사용. 고려 원종 5년~충렬왕 20년.

370) 원문의 황화(皇華)는 사신을 말한다

371) 원문의 운수(雲水)는 스님을 말한다. 스님들이 구도하기 위해 홀륭한 스승을 찾아 일정한 곳을 정하지 않고 구름 가듯이 물 흐르듯이(行雲流水) 인연을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데서 나온 말이다.

372) 변신(變身) 사리: 원래의 사리인 진신사리가 여러 개의 사리로 나누어 나타나는 분신(分身) 사리를 가리킨다.

373) 말세(末世): 말법(末法) 시대, 곧 정법이 끊어져서 불법이 쇠퇴한 시대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교법(敎法)과 수행과 증과(證果)가 갖추어졌으나 그렇지 않으나에 따라 정법(正法)·상법(像法)·말법(末法)의 삼시(三時)로 나누는데, 석가가 입멸한 뒤 불법이 유지되어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그래서 불과를 증득할 수 있는 시대를 정법시대라 하고, 가르침과 수행자는 있으나 대부분 불과를 증득하지 못하는 시대를 상법시대라 하며, 가르침은 있으나 수행할 수도 불과를 증득할 수도 없는 시대를 말법시대라 한다. 시간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은데 대체로 석가입멸 후 500년을 정법 시대라, 그 다음 1000년을 상법 시대, 그 뒤의 1만 년을 말법의 시대라 구분한다.

分在太和塔，一分竝袈裟在通度寺戒壇，其餘未詳所在。”壇有二級，上級之中，安石蓋如覆鉢。

諺云，“昔在本朝，相次有二廉使，禮壇舉石鉢而敬之。前感脩蟒在函中，後見巨蟾蹲石腹。自此不敢舉之。”

近有上將軍金公利生，庾侍郎碩，以高廟朝受旨，指揮江東，仗節到寺，擬欲舉石瞻禮。寺僧以往事難之，二公令軍士固舉之。內有小石函，函襲之中，貯以瑠璃筒，筒中舍利只四粒。傳示瞻敬，筒有小傷裂處。於是庾公適蓄一水精函子，遂奉施兼藏焉，識之以記，移御江都四年乙未歲也。

古記稱，“百枚分藏三處”，今唯四爾。旣隱現，隨人多小，不足怪也。又諺云，“其皇龍寺塔災之日，石鉢之東面，始有大斑，至今猶然。”卽大遼應曆三年癸丑歲也，本朝光廟五載也，塔之第三災也。曹溪無衣子留詩云，“聞道皇龍災塔日，連燒一面示無間，”是也。自至元甲子已來，大朝使佐，本國皇華，爭來瞻禮，四方雲水，輻湊來參，或舉不舉。眞身四枚外，變身舍利碎如砂礫，現於鉢外，而異香郁烈，弥日不歇者，比比有之，此末季一方之奇事也。

당나라 대중(大中)³⁷⁴⁾ 5년(851) 신미년에 중국에 간 사신 원홍(元弘)이 부처 어금니를 가져왔다.³⁷⁵⁾ <지금은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신라 문성왕 때이다.> 후당 동광(同光)³⁷⁶⁾ 원년(923) 계미년이고 우리나라 태조(太祖)³⁷⁷⁾ 즉위 6

374) 대중(大中): 당 선종(宣宗)의 연호. 847~859년. 신라 문성왕 9년~현안왕 3년.

375)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그대로 나온다.(권11 문성왕 13년 “入唐使阿浪元弘，費佛經并佛牙來，王出郊迎之.”)

376) 동광(同光): 오대 후당 장종(莊宗)의 연호. 923~925년. 고려 태조 6년~8년.

년에 중국에 갔던 사신 윤질(尹質)이 가져온 오백나한상(五百羅漢像)³⁷⁸⁾ 지금 북송산(北崇山) 신평사(神光寺)³⁷⁹⁾에 있다. 송나라 선화(宣和)³⁸⁰⁾ 원년(1119) 기해년³⁸¹⁾〈예종(睿宗) 15년〉에 조공하러 간 사신 정극영(鄭克永)³⁸²⁾과 이지미(李之美)³⁸³⁾ 등이 가져온 부처 어금니는 지금 내전(內殿)에 모셔

377) 우리나라 태조(太祖): 고려 태조 왕건(王建). 고려 제1대 왕. 재위 918~943. 후삼국시대에 궁예(弓裔) 하에서 세력을 키워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935년 투항해 온 신라를 합병한 후에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378) 『고려사(高麗史)』에는 923년에 “6월 계미일에 북부경 윤질이 양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오백나한상을 바치자, 명하여 해주 숭산사에 두게 하였다.(夏六月癸未, 福府卿尹質, 使梁還獻五百羅漢畫像, 命置于海州嵩山寺.)”(『고려사』 권1 세가 태조 5년)고 한다. 숭산사는 숭산에 있는 절이라는 뜻으로 신평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백나한은 부처의 대표적인 제자 5백인을 말한다. 나한은 아라한(阿羅漢)으로서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여 세간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이를 말한다. 석가가 입멸한 후 수제자인 대가섭이 석가의 제자들을 모아 경전을 편찬하려 할 때 모인 5백인에서 비롯되어, 오백나한상을 그림이나 조상으로 봉안하고 이를 숭배하는 신앙이 나한신앙이다.

379) 신평사(神光寺): 황해도 벽성군 북송산(北崇山)에 있던 절. 고려 태조 6년(923)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해에 중국 후량에서 오백나한상을 가져와 봉안한 이래 나한신앙의 중심도량이 되었다. 문종 7년(1053)에 나한재(羅漢齋)를 열었고, 숙종 7년(1102)에 오백나한재(五百羅漢齋)를 열었다. 충숙왕 복위3년(1334) 원 순제(順帝)가 원찰로 중건하여 대찰이 되었다. 1677년 화재로 전소되었으나 다음해 중건하였고 1705년에 나한전을 세웠다.

380) 선화(宣和): 북송 휘종(徽宗)의 연호. 1119~1125년. 고려 예종 14년~인종 3년.

381) 기해년: 원문에는 기묘로 되어 있으나 예종 15년은 기해년이므로 기해가 맞다.

382) 정극영(鄭克永): 1067~1127. 고려시대 문신. 최유청(崔惟清)의 매부이며, 한안인(韓安仁)의 외종제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예종 13년(1118) 이지미(李之美)와 함께 송에 사신으로 가서 문명을 떨쳤으며(『고려사』 권14 예종 13년 6월 무인 “御宴親殿置酒, 餞入宋使鄭克永李之美, 召諸王宰樞侍宴.”), 1122년 인종 즉위 후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어 『예종실록』 편수관(編修官)이 되었다. 한안인 사후 유배되었다가 이자겸이 몰락한 후 동경유수사(東京留守使) 위위시판사(衛尉寺判事) 한림학사 지제고(知制誥)를 지냈다.

둔 것이 이것이다.³⁸⁴⁾

唐大中五年辛未，入朝使元弘所將佛牙。〈今未詳所在。新羅文聖王代〉後唐同光元年癸未，本朝太祖卽位六年，入朝使尹質所將五百羅漢像，今在北崇山神光寺。大宋宣和元年己亥³⁸⁵⁾〈睿廟十五年〉，入貢使鄭克永李之美等所將佛牙，今內殿置奉者，是也。

이렇게들 전해 온다. “옛날에 의상(義相)³⁸⁶⁾ 법사가 당나라에 가서 종남

383) 이지미(李之美) : 고려 문신. 이자겸(李資謙)의 아들. 예종 13년(1118) 정극영(鄭克永)과 함께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권적(權適) 등을 제과(制科)에 합격시켜 준 것과 조서(詔書)를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고려사』 권14 예종 13년 8월 무오 “遣鄭克永李之美如宋，謝賜權適等制科，還國御筆詔書。王親製表文手書。” 인종 2년(1124) 이자겸이 공신호(功臣號)를 받을 때 비서감 추밀원부사로 임명되었다. 인종 4년(1126) 판추밀원사로 척준경(拓俊京)의 거사에 이자겸 일파와 함께 붙잡혀 함주(陝州)에 유배되었다가 1129년 왕의 사면령에 따라 형제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 살도록 허락되었다.

384)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정극영 등이 송에 사신으로 간 것은 예종 13년(즉위년 기원으로는 14년, 1118) 8월로서 이곳의 1119년이라는 기록과 1년의 차이가 있다. 송의 황제가 보내준 불아(佛牙)와 불두골(佛頭骨)을 외제석원에 두었다가 예종 15년 5월에 불골(佛骨)을 궁중에 들여와 산호정(山呼亭)에 두었다고 한다.

385) 정덕본에는 ‘己卯’로 되어 있으나 예종 15년은 기해년이므로 ‘己亥’로 교감한다.

386) 의상(義相) : 625~702.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 이곳을 비롯한 『삼국유사』에서는 주로 ‘의상(義湘)’의 표기를 썼지만 ‘의상(義相)’의 표기가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황복사에서 출가한 후 당에 유학하여 지엄에게서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지어 일(一)과 다(多)가 결립 없이 거듭 전개되는 법계연기 사상을 정립하였다. 귀국한 후 부석사(浮石寺)를 비롯한 여러 절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과 화엄사상을 연마하고 정진하며 화엄종을 펴 나갔다. 한편으로 교단에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선도하여 사람들이 불교 신앙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들이 확장하여 창건하고 운영한 화엄십찰은 통일신라 불교계의 중추를 이루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일승법계도』

산(終南山)³⁸⁷⁾ 지상사(至相寺)³⁸⁸⁾의 지엄(智嚴)³⁸⁹⁾존자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인근에 도선(道宣)³⁹⁰⁾ 율사가 있어 항상 하늘의 공양을 받아 매번 공양

외에 『아미타경의기』가 저술로 알려졌고, 「백화도량발원문」 등 의상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저술이 몇 개 있지만 저술은 많지 않다. 제자로는 지통(智通)·진정(眞定)·도신(道身)·표훈(表訓) 등 여러 뛰어난 제자가 있다.

387) 종남산(終南山):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서안(西安) 남쪽에 있는 높이 2604m의 산. 당대 불교의 중심지로 도선(道宣)·지엄(智嚴)·종밀(宗密)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하였고 계율종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선종 등이 성행했던 수당대 중국 불교의 중심지였다. 4~6 주150) 참조.

388) 지상사(至相寺): 중국 섬서성 서안시 장안구 남쪽의 종남산에 있던 절로 수대에 정연이 창건하였다 한다. 지엄(智嚴)이 이곳에 주석하여 법림(法琳)과 지정(智正)을 따라 화엄을 배워 화엄종의 토대를 닦은 곳이며, 이 때문에 지엄을 지상대사(至相大師)로 부르기도 한다. 의상과 법장이 이곳에서 지엄에게 화엄을 배웠다. 근래에 복원하여 사찰 규모를 갖추었다.

389) 지엄(智嚴): 602~668.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 지상대사(至相大師) 또는 운화존자(雲華尊者)로 불린다. 신라의 의상과 중국의 법장의 스승으로서 화엄종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두순(杜順)을 따라 두순의 제자인 달(達)법사에게 배우고 법상(法常)과 지정(智正)에게 교학을 연마하였다. 화엄경을 차례대로 해석한 『수현기(搜玄記)』,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은 『공목장(孔目章)』 『오십요문답(五十要問答)』 등을 저술하여 중국 화엄종의 기반을 이루고 그를 이어 법장이 대성하도록 하였다.

390) 도선(道宣): 596~667. 남산율종(南山律宗)의 창시자이자 불교사학(佛敎史學)의 대가. 15세 때 일엄사(日嚴寺)의 율사 혜균(慧顓)을 사사하여 출가하고 20세에 대선정사(大禪定寺)의 지수(智首)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계율 연구에 매진하여 일엄사에서 송의사(崇義寺)를 거쳐 종남산 방장곡(倣掌谷)에 은거하였다.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鈔)』와 『사분율갈마(四分律羯磨)』 등을 저술하여 계율의 권위자가 되었다. 645년 현장(玄奘)의 번역사업에 필수(筆受)·윤문(潤文)으로 참가하였고, 이해에 『속고승전(續高僧傳)』의 초고를 저술하고 이어 『사분비구니초(四分比丘尼鈔)』, 『계본(戒本)』, 『석가방지(釋迦方志)』 등을 저술하였다. 658년에 서명사(西明寺)가 창건되자 상좌(上座)로서 교단을 지도하고 664년에 종남산 정업사(淨業寺)에 들어가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집고금불도논형(集古今佛道論衡)』, 『광홍명집(廣弘明集)』 등

할 때마다 하늘의 부엌에서 음식을 날라왔다. 하루는 도선율사가 의상대사를 공양에 초청하여, 의상이 가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으나 하늘의 공양이 때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고 의상이 빈 발우채로 돌아간 다음에야 천사(天使)가 이르렀다. 도선율사가 묻기를 ‘오늘은 무슨 일로 늦었습니까?’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온 골짜기에 신병(神兵)이 가득 차서 막아 지키고 있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율사는 의상대사가 신(神)의 호위를 받고 있음을 알고 그 도력(道力)이 뛰어난에 승복하였다. 그 공양구를 남겨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지엄과 의상 두 사람을 공양에 초청하여 그 까닭을 말하였다. 의상대사가 조용히 도선에게 말하기를, ‘율사께서는 이미 천제(天帝)의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들으니 제석궁(帝釋宮)³⁹¹⁾에 부처의 40개 치아 중에 어금니 하나가 있다 하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 주기를 요청하여 복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율사는 후에 천사와 함께 그 뜻을 상제(上帝)에게 전하니 상제는 7일 기한으로 보내주었다. 의상대사가 예경을 마치고 나서 대궐에 모셨다.”

뒤에 송 휘종(徽宗)³⁹²⁾ 때에 이르러 좌도(左道)³⁹³⁾를 숭상하였는데 그때

의 저술에 전념하고 667년에 계단(戒壇)을 창설하고 『계단도경(戒壇圖經)』을 지어 후세 계단의 모범을 이루었다.

391) 제석궁(帝釋宮): 제석천(帝釋天)이 머무는 도리천(忉利天)의 천궁(天宮)으로 욕계(欲界) 6천(天) 중의 두 번째이다. 도리천은 삼십삼천이라는 뜻인데,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데 중앙의 선견성(善見城)에 제석천(帝釋天)이 있고 사방에 8성씩이 있어 모두 33이 되므로 삼십삼천(三十三天)이라 한다. 제석천은 32천과 바로 아래에 있는 사천왕을 통솔하여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이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고 한다.

392) 휘종(徽宗): 중국 북송의 8대 황제. 재위 1100~1125. 6대 신종의 아들, 7대 철종의 아우. 처음에는 신종의 황후였던 향태후(向太后)의 섭정하에 신법당과 구법당을 조화시킨 정치가 시행되었으나, 태후가 죽고 친정을 시작하자 채경(蔡京) 등 충신을 임용하여 국정을 떠맡기고 궁정과 정원 등 토목사업을 크게 일으켜

나라 사람들이 도참(圖讖)³⁹⁴⁾을 퍼뜨려 말하기를, “금인(金人)이 나라를 패망시킨다”고 하였다. 황건(黃巾)의 무리³⁹⁵⁾들이 일관(日官)을 움직여 간하자, (일관이) 아뢰기를, “금인이란 불교를 말하니 장차 나라에 이롭지 못함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의론하여 장차 불교를 파멸하고 승려를 파문으며 경전을 불태우고, 따로 작은 배를 만들어 부처 어금니를 실어 바다에 띄워 인연 있는 곳에 흘러가 닿게 하려고 하였다. 이때 마침 우리나라 사신이 송나라에 도착해 이 이야기를 듣고 천화용(天花茸)³⁹⁶⁾ 50령(領)과

호사스러운 경제 운영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사 하북 절강 등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1120년에 금(金)과 동맹을 맺고 요(遼)를 함께 공략하였으나 군정이 부패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1125년에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공격해 오자 도교를 깊이 신봉하여 자신을 도군황제(道君皇帝)라 하고 흠종(欽宗)에게 양위한 뒤 남쪽으로 도망갔다가 1127년에 서운인 변경이 함락되어 황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북방에 끌려가 유배지에서 죽었다. 재위 기간 동안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하고 화가들을 모아 한림 도화원(圖畫院)을 확충하고 『선화화보(宣和畫譜)』 『선화서보(宣和書譜)』 등을 편찬해 냈다. 자신이 시와 문장과 글씨와 그림에 뛰어난 예술가로서 특히 그림은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렀고 글씨는 수금서(瘦金書)라는 독보적인 서체를 이루었다.

- 393) 좌도(左道): 본래 유교에서 그 중지에 어긋나는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도교(道敎)를 말한다.
- 394) 도참(圖讖): 미래의 일, 특히 인간생활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등에 대한 징조 또는 예언,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놓은 예언서. ‘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나 암시를 말하며, ‘참’은 상징적 언어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다. 일정한 기호나 대상물 또는 은밀하고 상징적인 언어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어떤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에 따라 앞날의 좋고 나쁨을 예언하는 것을 말한다.
- 395) 황건(黃巾)의 무리: 도교의 신도. 도교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후한대에 장각(張角)이 황건적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참여한 태평도(太平道)들이 황색으로 표시하였고 태평도가 훗날 도교의 모체가 되었다.
- 396) 천화용(天花茸): 용은 뛰어난 품질의 버섯을 말하는 것으로 송화(松花)와 같고 생기고 흰색의 향기가 많이 나는 버섯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눈과 같은 아

저포(紵布) 300필로 배를 호송하던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몰래 부처 어금니를 받고 빈 배만 띄워 보냈다. 사신 등이 부처 어금니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아뢰니 이에 예종(睿宗)³⁹⁷⁾은 크게 기뻐하여 시원전(十員殿) 원편의 작은 전각에 봉안하고 항상 전각 문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밖에는 향등을 달았는데, 매번 친히 행차하는 날에는 전각을 열고 예경하였다.

相傳云, “昔義湘法師入唐, 到終南山至相寺智儼尊者處. 隣有宣律師, 常受天供, 每齋時天廚送食. 一日律師請湘公齋, 湘至坐定既久, 天供過時不至, 湘乃空鉢而歸, 天使乃至. 律師問, 今日何故遲. 天使曰, 滿洞有神兵遮擁, 不能得入. 於是律師知湘公有神衛, 乃服其道勝. 仍留其供具, 翌日又邀儼湘二師齋, 具陳其由. 湘公從容謂宣曰, ‘師旣被天帝所敬. 嘗聞帝釋宮有佛四十齒之一牙, 爲我等輩, 請下人間, 爲福如何?’ 律師後與天使, 傳其意於上帝, 帝限七日送與. 湘公致敬訖, 邀安大內.” 後至大宋徽宗朝, 崇奉左道, 時國人傳圖讖曰, “金人敗國.” 黃巾之徒, 諷日官, 奏曰, “金人者, 佛教之謂也, 將不利於國家.” 議將破滅釋氏, 坑諸沙門, 焚燒經典, 而別造小舡, 載佛牙, 泛於大海, 任隨緣流泊. 于時適有本朝使者至宋, 聞其事, 以天花

름다운 하늘의 꽃인 천화를 수놓은 옷을 말한다.

- 397) 예종(睿宗): 고려 제16대 왕. 재위 1105~1122. 숙종의 장자이며, 어머니는 명의 태후(明懿太后) 유씨(柳氏). 일찍부터 뜻이 깊고 침착하며 도량이 넓고 학문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즉위한 뒤 군벌을 정비하고 윤관(尹瓘) 등이 여진을 정벌하게 하고 함흥평야 일대에 9성을 설치하였다가 1년만에 여진에게 되돌려주었다. 국학(國學)에 전문 강좌인 칠재(七齋)를 설치하고 양현고(養賢庫)를 두어 관학의 진흥을 꾀하고, 청연각(淸淵閣)과 보문각(寶文閣)을 짓고 유학을 크게 일으켰다.惠民국(惠民局)을 설치하여 빈민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를 설치하고 송에서 음악을 들여와 궁중음악 아악(雅樂)을 이루었다.

革五十領 紵布三百疋, 行賂於押舡內史, 密授佛牙, 但流空舡.
使臣等旣得佛牙來奏, 於是睿宗大喜, 奉安于十員殿左掖小殿,
常鑰匙殿門, 施香燈于外, 每親幸日, 開殿瞻敬.

임진년(1232)³⁹⁸ 서울을 옮길 때³⁹⁹ 내관(內官)들이 바쁘게 허둥대다가
잊어버리고 거두어 챙기지 못하였다. 병신년(1236) 4월에 이르러 왕실 원
당인 신희사(神孝寺)⁴⁰⁰의 온광(蘊光)스님이 부처의 어금니에 경례하고
자 하여 왕에게 아뢰니 왕이 내신(內臣)에게 두루 궁중을 찾아보게 하였으
나 찾지 못하였다. 그때 어사대(御史臺)⁴⁰¹ 시어사(侍御史)⁴⁰²인 최충(崔
沖)⁴⁰³이 설신(薛伸)⁴⁰⁴에게 명하여 급히 여러 알자방(謁者房)⁴⁰⁵에 불렀

398) 임진년 : 고종 20년(1232). 전해에 시작된 몽고의 침입에 대하여 강화도로 수
도를 옮겼다.

399) 1232년에 강화로 서울을 옮긴 것을 말함.

400) 신희사(神孝寺) : 경기도 개풍군 중서면 토성리에 있던 절. 묵사(墨寺)라고도 한
다. 여기의 기록에 의해 1236년 이전에 창건된 왕실의 원당임을 알 수 있다. 이
후 충렬왕이 중창하고 1282년부터 1308년까지 18차례 방문하고, 이 절에서 선
제(先帝)와 공주(公主) 등의 제사를 지내고 우란분재를 열었으며 왕이 이곳에서
죽었다. 이후 충선왕·충해왕·충정왕·공민왕 등이 대대로 선왕을 위한 도량을
열었다.

401) 원문의 백대(栢臺)는 어사대(御史臺)의 별칭. 한나라 때 어사부(御史府)에 백수
(栢樹)를 심던 것에서 유래한다.

402) 시어사(侍御史) :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종5품 관직. 감찰사시승(監察司侍
丞)의 전신. 대관(臺官)으로 시정의 잘잘못과 풍속의 교정, 규찰 및 탄핵의 임무
를 맡은 벼슬.

403) 최충(崔沖) : 고려 문종조의 문신인 최충(984~1068)과는 다른 인물. 여기서는 미상.

404) 설신(薛伸) : 『고려사』에 설신(薛愼)이 나오는데 비슷한 시기로 같은 인물이 아
닌가 한다. 설신(薛愼, ?~1251)은 고려의 문신. 설공검(薛公儉)의 아버지로 1232
년 시어사(侍御史)로서 몽고에 사신으로 가서 과중한 공물 요구에 대한 고려측
의 입장을 전하였으나 고려에 침공한 살리타이(撒禮塔)를 따라 몽고 지도부에

으나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신(內臣) 김승로(金承老)가 아뢰기를, “임진년에 서울을 옮길 때의 자문일기(紫門日記)⁴⁰⁶⁾를 살펴보십시오.” 하니 이에 따랐다. 기록에 “입내시(入內侍)⁴⁰⁷⁾ 대부시경(大府寺卿)⁴⁰⁸⁾ 이백전(李白全)⁴⁰⁹⁾이 불아함(佛牙函)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다. 이백전을 불러 추궁하니 대답하기를, “집에 돌아가서 제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집에 가서 살펴보고 “좌번 알자(左番謁者)⁴¹⁰⁾ 김서룡(金瑞龍)이 불

억류되었다가 처인성(處仁城)에서 살리타이가 죽자 풀려났다. 훗날 관직이 추밀원부사 형부상서에 이르렀다.

405) 알자방(謁者房): 알자들이 모이는 기관. 알자(謁者)는 고려시대 내알사(內謁司)·내시부(內侍府)에 두었던 관직으로 내알사는 종5품, 내시부는 종7품이었다. 알현을 청하는 사람, 또는 빈객을 주인에게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왕명의 전달과 궁중 음식물의 감독, 왕이 사용하는 문필의 공급, 대궐문과 전각의 수직과 열쇠의 관리, 궁궐 뜰의 청소와 포설 등에 관한 일을 하였다.

406) 자문일기(紫門日記): 궐내일기(闕內日記). 자문은 고려시대 궁궐문을 말하며, 궁궐의 뜻으로 쓰인다.

407) 내시(內侍): 고려의 내시는 국왕을 측근에서 시종하는 문관. 문종 때는 국가에 공로가 있고 재능을 겸한 권문세가의 자제나 유사가 등용되었다. 내시의 직능은 근시로서의 원래 직분인 제반의식의 집행과 어가를 수행하는 일과 함께 유학자적 자질을 바탕으로 왕에게 경서를 강의하거나 왕의 명령을 기초하고 국가기무를 관장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국왕의 근시직으로 문무관과 더불어 고려지배 관료층의 중핵을 이루었다. 고려 후기 원간섭에 따른 관제의 변동으로 천민출신자나 군공을 세운 자들도 내시에 속하게 함으로써 질적인 저하와 양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공민왕대에 내시부라는 환관의 공식기구가 생겨나면서 궁내직과 함께 궁궐수비를 담당하는 성종관 관인층으로 흡수되었다.

408) 대부시경(大府寺卿): 고려시대 대부시(大府寺)의 종3품 관직. 대부시는 고려시대 궁중에 필요한 재화를 저장하고 공급하던 관청으로 재화의 저장과 상세의 징수도 맡았다.

409) 이백전(李白全): 고려 무신집권기 내시(內侍)를 지낸 문신.

410) 좌번 알자(左番謁者): 내시부(內侍府) 소속 관원 중에 좌번(左番)에 속한 내시.

아함을 받았다.”는 기록을 가져다 바쳤다. 김서룡을 불러 물어보니 대답이 없었다. 또 김승로가 상주한 대로 임진년부터 지금 병신년까지 5년 동안 어불당(御佛堂)과 경령전(景靈殿)⁴¹¹⁾의 상수(上守)들을 잡아 가두어 심문하였으나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았다. 3일이 지난 밤중에 김서룡의 집 담장 안에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밝혀 살펴보니 불아함이었다. 함은 본래 안쪽 한겹은 침향함(沈香函)이고 다음 겹은 순금함이며 그 다음 겹은 백은함이고 그 다음 겹은 유리함이며 그 다음 겹은 나전함으로 각각의 폭이 맞았는데 지금은 다만 유리함 뿐이었다. 기빠하여 가지고 궁궐에 들어가 전하였다. 관리들이 논의하여 김서룡과 어불당과 경령전의 상수를 모두 죽이고자 하니, 진양부(晉陽府)⁴¹²⁾에서 아뢰기를, “불사(佛事)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여 모두 (죽임을) 면하였다. 다시 왕명을 내려 시원전(十員殿) 안 뜰에 특별히 불아전(佛牙殿)을 만들어 안치하도록 하고 장사(將士)들에게 지키도록 하였다.

길일을 택하고 신흥사(神孝寺)의 상방(上房)⁴¹³⁾ 온광(溫光)을 청하여 일행 30인을 거느리고 궁궐에 들어와 재(齋)를 설하여 경례하게 하였다. 그날 입직(入直)한 승선(承宣)⁴¹⁴⁾인 최홍(崔弘)⁴¹⁵⁾과 상장군 최공연(崔公衍) 및

411) 경령전(景靈殿): 고려시대 정궁(正宮)인 연경궁(延慶宮) 내에 있던 전각. 구정(毬庭) 근처에 있었다. 태조 및 사조(四祖: 임금이 4대 선왕)의 어진(御眞) 및 신위(神位)을 좌소우목(左昭右穆)의 원칙에 따라 봉안한 궐내의 진전(眞殿)으로, 이 곳의 제사는 대사(大祀)로 분류된다.

412) 진양부(晉陽府): 고려시대 최씨무신정권의 최우(崔瑀)가 신종 6년(1234)에 천도의 공으로 진양후(晉陽侯)에 봉해지면서 얻게 된 부(府)로 당시 정권담당자이던 최우의 집정부를 말한다.

413) 상방(上房): 위쪽에 있는 절, 절 안에서 가장 높은 주지를 말한다.

414) 승선(承宣): 고려 때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정3품 관직. 백관(百官)이 국왕에게 올리는 모든 문서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왕에게 전달하고, 왕명을 받아 하달하였으며, 이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승지(承

이영장(李令長)과 내시(內侍)와 다방(茶房)⁴¹⁶⁾ 등이 시원전(十員殿) 뜰에 시립하여 차례대로 머리에 이고 공경하였다. 불아함의 구멍 사이에 사리가 수도 없이 많았다. 진양부에서 백은함에 넣어서 봉안하였다. 그때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아를 잃어버린 이래 스스로 네 가지 의문이 생겼소. 첫째 의문은 천궁(天宮)의 7일 기한이 다 차서 하늘로 올라갔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 의문은 나라가 이처럼 어지러운데 불아는 신성한 물건이니 인연 있는 평온한 나라로 옮겨 갔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 의문은 재물을 탐낸 소인배가 함을 훔쳐내고 (불아는) 도랑에다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고, 넷째 의문은 진귀한 물건을 훔쳤으나 스스로 내놓을 계책이 없어 집안에 숨겨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넷째 의문이 맞았소.” 하고는 소리 내어 크게 우니 뜰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헌수(獻壽)⁴¹⁷⁾하고 이마를 태우며 팔을 태우는 자⁴¹⁸⁾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이 사실 기록을 당시의 내전(內殿) 분수승(焚修僧)⁴¹⁹⁾이던 전의 기림사(祇林寺)⁴²⁰⁾ 대선사(大禪師)⁴²¹⁾인 각유(覺猷)⁴²²⁾에게서 얻은 것인데, 직접

함)로 개편되었다.

415) 최홍(崔弘): 고려 후기의 관리. 1220년(고종 7) 의주별장 한순(韓恂) 등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러 출동한 김취려(金就礪)의 휘하에서 민심을 진정시키지 위해 활동한 기록이 있다. (『고려사』 권103 열전 金就礪 “就礪遣判官崔弘錄事朴文挺, 諭以禍福, 繼遣大將軍趙廉卿將軍朴文賁, 以兵五千討之.”)

416) 다방(茶房): 고려시대에 차와 술·소채·과일·약 등의 일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로 국가적 행사에 거행된 진다의식(進茶儀式)을 다방의 관원들이 맡았다.

417) 헌수(獻壽):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는 것.

418) 이마를 태우며 팔을 태우는 자: 참회 의식으로 이마나 팔에 촛농에 불을 붙여 태우는 의식을 말한다.

419) 분수승(焚修僧): 궁궐에서 향을 사르며 기도하는 승려.

420) 기림사(祇林寺):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함월산(含月山)에 있는 절. 643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하며 내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 경오년(1270)⁴²³⁾에 강도(江都)를 떠나던 난리가 혼란이 극심하여 (피난 오던) 임진년보다도 더하였는데 시원전(十員殿) 감주(監主)인 선사 심감(心鑑)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아를) 가지고 나와서 도적의 난⁴²⁴⁾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궁궐에 알려져 그 공을 크게 상 주고 이름난 절로 옮겨 주었으니 지금은 빙산사(氷山寺)⁴²⁵⁾에서 살고 있다. 이것 역시 그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년(선덕왕 12) 천축국(天竺國) 승려 광유(光有)가 창건, 임정사(林井寺)라고 하다가 원효(元曉)가 확장, 중수하고 기림사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부처님 생존 때에 세워졌던 인도의 대표적인 사원인 기원정사(祈園精舍)에서 따온 말이다. 일제치하의 31본산시대에는 월성군 일대를 관장하는 본사였으나 지금은 본사 불국사의 말사로 되어 있다. 대적광전(大寂光殿)을 중심으로 약사전과 응진전 그리고 앞쪽에 진남루(鎭南樓)가 있다. 대적광전 구역과 조금 떨어져 명부전과 관음전 등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문왕이 문무왕을 기력 위해 감은사에 행차하여 기림사 근처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권2 기이 「萬波息笛」 “王宿感恩寺. 十七日, 到祇林寺西溪邊, 留駕晝膳.”)

421) 대선사(大禪師): 고려시대 선종 승려의 최고 법계(法階). 선종의 승과에 합격한 자는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의 품계를 거쳐 대선사가 되었다.

422) 각유(覺猷): 『삼국유사』 「낙산이대성」에도 1258년 기림사 주지로서 선종 노숙(老宿) 대선사로 나온다. (권4 답상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至戊午十月, 本業老宿 祇林寺住持大禪師覺猷奏曰.”)

423) 경오년: 원종 11년(1270) 원과 강화를 맺으면서 무신정권이 끝나고, 왕정이 복귀되면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나온 해이다.

424) 도적의 난: 1270년 고려가 몽고에 대해 복속관계(服屬關係)에 들어갈 때 출륙한도(出陸還都)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말한다.

425) 빙산사(氷山寺):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있던 절. 신라 때 선덕여왕이 비구니들을 위해 창건하였다고 한다. 고려 때 사적은 이곳의 기록 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1407년(태종 7) 사찰 정리 때 88개 자복사찰(資福寺刹)의 하나로 꼽혔다. 임진왜란 때 불타고 폐사가 되어 서원이 절터에 들어서기도 하였다.

至壬辰歲移御次，內官息遽中，忘不收檢。至丙申四月，御願堂神孝寺釋蘊光，請致敬佛牙，聞于上，勅令內臣遍檢宮中，無得也。時栢臺侍御史崔沖，命薛仲，急徵于諸謁者房，皆未知所措。內臣金承老奏曰，“壬辰年移御時，紫門日記推看。”從之。記云，“入內侍大府卿李白全受佛牙函”云。召李詰之，對曰，“請歸家更尋私記。”到家檢看，得“左番謁者金瑞龍佛牙函准受”記來呈。召問瑞龍，無辭以對，又以金承老所奏云，壬辰至今丙申五年間，御佛堂及景靈殿上守等，囚禁問當，依違未決。隔三日，夜中，瑞龍家園牆裏，有投擲物聲，以火檢看，乃佛牙函也。函本內一重沈香合，次重純金合，次外重白銀函，次外重琉璃函，次外重螺鈿函，各幅子如之，今但琉璃函爾。喜得之，入達于內。有司議，金瑞龍及兩殿上守皆誅，晉陽府奏云，“因佛事，不合多傷。”人皆免之。更勅十員殿中庭，特造佛牙殿，安之，令將士守之。

擇吉日，請神孝寺上房蘊光，領徒三十人，入內設齋敬之。其日入直承宣崔弘，上將軍崔公衍行李令長，內侍茶房等，侍立于殿庭，依次頂戴敬之。佛牙區穴間，舍利不知數。晉陽府，以白銀合貯而安之。時主上謂臣下曰，“朕自亡佛牙已來，自生四疑，一疑，天宮七日限滿而上天矣，二疑，國亂如此，牙旣神物，且移有緣無事之邦矣，三疑，貪財小人，盜取函幅，棄之溝壑矣，四疑，盜取珍利，而無計自露，匿藏家中矣，今第四疑當之矣。”乃放聲大哭，滿庭皆洒涕獻壽，至有煉頂燒臂者，不可勝計。得

현재 절터에 나팔여초의 조성으로 보이는 보물 제327호 빙산사지 오층모전석탑이 남아 있다. 절터의 북쪽 기슭에 옛부터 유명한 빙혈이 있어 빙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此實錄，於當時內殿焚修前祇林寺大禪師覺猷，言親所眼見，使予錄之。

又至庚午出都之亂，顛沛之甚，過於壬辰，十員殿監主禪師心鑑，亡身佩持，獲免於賊難。達於大內，大賞其功，移授名刹，今住氷山寺。是亦親聞於彼。

진흥왕 때인 천가(天嘉)⁴²⁶⁾ 6년(565) 을유년에 진(陳)나라의 사신 유사(劉思)와 명관(明觀)스님이 불교 경전과 논서 1700여 권을 가져왔다.⁴²⁷⁾ 정관(貞觀) 17년(643)에 자장법사가 삼장(三藏)⁴²⁸⁾ 4백여 함을 실어 와서 통도사에 안치하였다. 흥덕왕 때인 태화(太和)⁴²⁹⁾ 원년(827) 정미년에 유학승인 고구려(계통의) 구덕(丘德)스님이 불경 몇 함을 가져와서 국왕과 여러 절의 스님들이 흥륜사(興輪寺)⁴³⁰⁾ 앞길에 나가 맞이하였다.⁴³¹⁾ 대중(大

426) 천가(天嘉): 진(陳) 문제(文帝)의 연호. 560~565년. 신라 진흥왕 21~26년.

427) 『삼국사기』 권4 진흥왕 26년에 같은 기록이 나온다. (“陳遣使劉思與僧明觀來聘，送釋氏經論千七百餘卷.”)

428) 삼장(三藏): Ṭrī-piṭaka. 불교의 모든 전적을 합쳐 부르는 말. 부처가 설한 경전을 모은 경장(經藏), 부처가 제정한 교단 생활 규정인 율의(律儀)를 모은 율장(律藏), 불전의 뜻을 풀이하고 논의하여 후인들이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해석을 모은 논장(論藏)으로 구성되었다.

429) 태화(太和): 당 문종(文宗)의 연호. 827~835년. 신라 헌덕왕 2~10년.

430) 흥륜사(興輪寺):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에 있던 신라 최초의 절. 신라에 불법을 전한 아도(阿道)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경주에 세운 오래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던 일곱 개의 절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며 천경림(天鏡林)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527년 이차돈의 순교 이후 법흥왕이 짓기 시작하여 진흥왕 5년(544)에 완성되었다. 신라 불교의 전래와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열 분을 기리는 상을 흥륜사 금당에 만들어 봉안하였다. 4-11 주260) 참조.

431) 『삼국사기』 권10 흥덕왕 2년에 같은 기록이 나온다. (“三月 高句麗僧丘德入唐，貴經至。王集諸寺僧徒，出迎之.”)

中)⁴³²⁾ 5년(851, 문성왕 13)에 중국에 간 사신 원홍(元弘)이 불경 몇 축을 가져왔다.

신라 말에 보요선사(普耀禪師)가 두 번 오월(吳越)에 가서 대장경을 가져왔으니 (그는) 곧 해룡왕사(海龍王寺)의 개산조(開山祖)이다. 송 원우(元祐)⁴³³⁾ 갑술년(1094)에 어떤 사람이 진영에 찬을 붙였다.

“위대하다 초조시여, 드높다 그 모습이어.

두 차례나 오월에 가서, 대장경의 공을 이루셨네.

보요라 호를 내리고, 왕명이 네 번이나 내렸네.

만일 그 덕을 묻는다면, 밝은 달에 맑은 바람이로다.”

또 대정(大定)⁴³⁴⁾ 중에 한남(漢南) 관기(管記)⁴³⁵⁾ 팽조적(彭祖狄)이 시를 남겼다.

“수운 난야(蘭若)⁴³⁶⁾에 부처님 계시니, 더구나 신룡(神龍)이 한 지경을 보호하네.

마침내 명찰은 누가 이와같이 얻을까, 처음 전한 불교[像敎]⁴³⁷⁾가 남방

432) 대중(大中): 당 선종(宣宗)의 연호. 847~859년. 신라 문성왕 9년~헌안왕 3년.

433) 원우(元祐): 북송 철종(哲宗)의 연호. 1086~1093년. 고려 선종 3~10년. 원우는 8년(1093)으로 끝나고 이듬해 갑술년에 소성(紹聖)으로 개원하여, 원우 갑술년은 소성 원년이 되어야 한다.

434) 대정(大定): 금(金) 세종(世宗)의 연호. 1161~1189년. 고려 의종 15년~명종 17년.

435) 관기(管記): 기록을 담당하는 관직, 서기(書記). 아취가 있고 식견이 있으며 문장에 뛰어난 이를 뽑아 발탁하였다고 한다.

436) 난야(蘭若): 아란야(阿蘭若). ㉠ aranya를 음역한 말. 산림(山林) 또는 황야(荒野)로 번역한다. 출가한 사람이 수행하고 거주하기에 적합한 고요한 장소를 말하므로 원리처(遠離處) 또는 적정처(寂靜處)라고도 번역하였다. 마을에서 떨어져 조용한 곳에 있는 작은 절을 주로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437) 불교[像敎]: 불교를 정법·상법·말법의 3시기로 구분할 때 부처가 입적한지 5백년 후에 전개되는 상법(像法)의 시대에 알려진 불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곧

에서 왔구나.”

발문에 이렇게 적었다. “옛날 보요(普耀)선사가 처음 남월(南越)⁴³⁸⁾에서 대장경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 해풍이 갑자기 일어나 작은 배가 파도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선사가 말하기를, ‘생각컨대 신룡이 경전을 머물게하려 함인가’ 하고는 마침내 주문을 외며 정성스레 빌어 용까지 함께 받들어 돌아오니 이에 바람이 멎고 파도가 고요해졌다. (경전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와 산천을 두루 다니며 안치할 곳을 찾았는데, 이 산에 이르러 갑자기 상서로운 구름이 산 위에서 일어남을 보고 제자인 홍경(弘慶)과 함께 절을⁴³⁹⁾ 세웠다. 그런즉 불교가 동쪽으로 전래된 것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한남 관기 팽조적이 적는다.”

절에는 용왕당이 있어서 자못 영이(靈異)가 많은데 (이 용은) 그때 경전을 따라 와 머문 것으로서 지금도 남아 있다.

眞興王代天嘉六年乙酉，陳使劉思與釋明觀，載送佛經論一千七百餘卷。貞觀十七年，慈藏法師載三藏四百餘函來，安于通度寺。興德王代大和元年丁未，入學僧高麗釋丘德，賁佛經若干函來，王與諸寺僧徒，出迎于興輪寺前路。大中五年，入

불법, 불교로 때로는 불상과 교법을 함께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438) 남월(南越): 옛 백월(百越)이 있던 지금의 광둥 광서성 지역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남쪽의 오월(吳越)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오월(895~978)은 오대십국 시대의 십국의 하나로 항주에 도읍하고 절강성 일대를 영역으로 장기간 존속하였는데, 특히 5대왕인 전숙(錢俶, 錢弘俶)은 수많은 사원을 건립하고 천태 등 고승들을 우대하여 교학을 진흥하였으며, 8만4천 동탑(錢弘俶塔)을 만들어 곳곳에 널리 퍼지게 하여 해외에까지 전파되었다.

439) 원문의 연사(蓮社)는 절을 말한다. 중국 동진 때 고승 혜원(慧遠)이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에서 많은 승려와 일반 사람을 모아 염불 수행을 이끌었는데, 이 절에 있는 연못에 흰 연꽃이 많이 피어 백련사(白蓮社)라고도 하였다. 이후 승속의 수행 모임을 백련결사(白蓮結社) 또는 연사(蓮社)라고 부르기도 한다.

朝使元弘，貴佛經若干軸來。

羅末普耀禪師，再至吳越，載大藏經來，卽海龍王寺開山祖也。大宋元祐甲戌，有人眞讚云，偉哉初祖，巍乎眞容。再至吳越，大藏成功。賜銜普耀，鳳詔四封。若問其德，白月清風。

又大定中，漢南管記彭祖逖留詩云，“水雲蘭若住空王，況是神龍穩一場。畢竟名藍誰得似，初傳像教自南方。”有跋云，“昔普耀禪師，始求大藏於南越，洎旋返次，海風忽起，扁舟出沒於波間。師卽言曰，‘意者神龍欲留經耶’，遂呪願乃誠，兼奉龍歸焉，於是風靜波息。旣得還國，遍賞山川，求可以安遨處，至此山，忽見瑞雲，起於山上，乃與高弟弘慶，經營蓮社。然則像教之東漸，實始乎此。漢南管記彭祖逖題。”寺有龍王堂，頗多靈異，乃當時隨經而來止者也，至今猶存。

또한 천성(天成)⁴⁴⁰⁾ 3년(928) 무자년에 묵화상(默和尚)이 후당(後唐)⁴⁴¹⁾에 가서 역시 대장경을 가져 왔다.⁴⁴²⁾ 우리나라 예종(睿宗, 1105~1122) 때에 혜조(慧照)국사가 왕명을 받들어 중국에 공부하러 가서 요본(遼本) 대장경(大藏經)⁴⁴³⁾ 3부를 사 왔는데⁴⁴⁴⁾, 한 본은 지금 정혜사(定惠寺)⁴⁴⁵⁾에 있

440) 천성(天成): 후당 명종(明宗)의 연호. 926~930년. 고려 태조 9~13년.

441) 후당(後唐): 중국 당 이후 오대십국 시대의 나라. 923~936년. 후량(後梁)에 이어 건국하여 강북을 통일하고 4대 14년 동안 있다가 후진(後晉)에 멸망당하였다.

442) 『고려사(高麗史)』에 “신라 승려 홍경이 당나라 민(閩)지방에서 배를 타고 대장경 한부를 싣고 예성강에 도착했다. 왕은 친히 그를 맞이하고, 제석원에 두었다.(新羅僧洪慶, 自唐閩附航, 載大藏經一部, 至禮成江, 王親迎之, 置于帝釋院.)”고 하였다.(『고려사』(권1 태조 11년 8월.) 이를 에 의하면 고려사에서 말한 홍경(洪慶)이 묵화상(默和尚)이 아닌가 한다.

다.[해인사(海印寺)⁴⁴⁶⁾에 한 본이 있고 허참정(許參政) 덕에 한 본이 있다.]

대안(大安)⁴⁴⁷⁾ 2년(1086, 선종 3년) 우리나라 선종(宣宗) 때에 우세(祐世) 승통(僧統)⁴⁴⁸⁾ 의천(義天)⁴⁴⁹⁾이 송나라에 가서 천대(天台)의 교관(敎觀)을

443) 요본(遼本) 대장경(大藏經): 거란(契丹) 대장경을 말한다. 983년에 완성된 송의 개보판(開寶版) 대장경을 범본(範本)으로 흥종(興宗, 1031~1055)대에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여 도종(道宗) 청녕(淸寧) 5년(1059)에 완성하였다. 정확성이 뛰어나 당시 조판되고 있던 고려 초조대장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444) 『고려사』에는 예종 2년(1107)에 고려에서 거란에 대장경을 보낸 기록이 있다.([『고려사』 권12 예종 2년 정월 경인 “遼遣高存壽, 來賀生辰, 仍賜大藏經.”)

445) 정혜사(定惠寺): 충지(沖止)가 1278년에 선원사(禪源寺)에서 수선사(修禪社)로 거란본대장경을 옮긴 일이 있는데, 이 시기는 『삼국유사』의 편찬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여기의 정혜사(定惠寺)는 정혜사(定慧社)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혜사(定慧社)는 수선사(修禪社, 지금의 송광사)이다.

446) 해인사(海印寺): 경상남도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에 있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이며 조계종의 총림이며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을 봉안한 법보사찰(法寶寺刹)이다. 신라 애장왕 3년(802)에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 대규모로 중창하여 현재의 규모를 이룬 화엄십찰의 하나이다. 고려 태조의 복전(福田)이었던 희랑(希朗)이 이곳에서 화엄의 사상을 펼쳤다. 고려 후기에 재조(再雕)하여 강화 선원사(禪源社)에 보관하던 대장경을 조선 정종 때(1398) 해인사로 옮겨 지금까지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다. 세조 때 장경각(藏經閣)을 개수하는 등 역대로 중건을 거듭하여 말사 75개와 부속 암자 14개를 거느린 법보총림으로서 한국불교의 큰 맥을 이루고 있다. 경내에는 대적광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응진전 구광루 등 많은 건물이 있고, 주요 문화재는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대장경판과 장경판전, 보물인 석조여래입상과 원당암 다층석탑, 반야사 원경왕사비, 목조희랑대사상, 사간 장경 등이 있다.

447) 대안(大安): 태안(太安)이라고도 한다. 요 도종(道宗)의 연호. 1085~1094년 사용. 고려 선종 2년~11년에 해당.

448) 승통(僧統): 승려의 관직[僧官] 및 지위(法階)의 하나. 고려시대에는 승통이 교종(敎宗)의 최고 법계로 사용되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승과(僧科)인 교종선(敎宗選)의 대선(大選)에 합격하면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에 이르게 된다.

449) 의천(義天): 1055~1101. 고려시대 고승. 문종(文宗)의 제4왕자로 11세에 영통사

많이 가져 왔다. 이밖에 책에 실리지는 않았으나 고승이나 신자⁴⁵⁰⁾들이 왕래하며 가져온 것이 자세히 적지 못할 정도이다.⁴⁵¹⁾ 불법의 동방 전래가 양양하였으니 경사로운 일이다.

찬한다.

중국의 달과 동이(東夷)의 바람은 서로 떨어져 아득한데,

전법하고⁴⁵²⁾ 입멸한 지⁴⁵³⁾는 이천 년이 되었네.

(靈通寺)에서 경덕국사 난원(爛圓)에게 출가하여 불교와 유교 및 역사와 제자백가를 두루 배웠다. 13세에 승통이 되고, 1085년에 송에 가서 1년 남짓 동안 60여명의 제종의 고승을 만나 여러 교학을 논의하고 전적을 구하였다. 귀국 후 홍왕사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고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3권을 펴내 1,010부 4,740권의 목록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수집한 경서를 간행하여 대장경을 잇는 교장(敎藏) 편찬사업을 이름으로써 고려불교 교학의 수준을 드높였다. 1097년 국청사(國淸寺)가 완성되자 초대 주지가 되어 천태교학을 강의하여 천태종(天台宗)이 개창되었다. 의천은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제창하여 화엄종을 기반으로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시도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천태종의 창립을 통한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는 교단 개편운동을 추진하였다.

450) 원문의 신사(信士)는 신자를 말함. 출가하지 않고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애쓰는 이를 말한다.

451) 위의 『삼국유사』 기록 외에 『고려사』에 실린 대장경 유통 기록은 성종 10년(991)에 한언공이 송판 대장경을 수입한 기록(『고려사』 권3 成宗 10년 4월 경인 “韓彦恭還自宋, 獻大藏經. 王迎入內殿, 邀僧開讀, 下敎敍.”), 문종 17년(1063)에 거란이 대장경을 보내온 기록(『고려사』 권8 文宗 17년 3월 병오 “契丹送大藏經, 王備法駕, 迎于西郊.”), 문종 37년(1083)에 송에서 대장경을 보내온 기록(『고려사』 권9 文宗 37년 3월 기축 “命太子, 迎宋朝大藏經, 置于開國寺, 仍設道場.”), 예종 2년(1107) 거란에 대장경을 보낸 기록이 있다.(『고려사』 권12 예종 2년 정월 경인 “遼遣高存壽, 來賀生辰, 仍賜大藏經.”)

452) 전법하고: 원문의 녹원(鹿園)은 석가가 성도 후 처음 설법한 녹야원(鹿野苑, Mrgadāva)을 말한다. 부다가야에서 성도 후 그동안 함께 수행하던 5비구를 찾아 사르나트에 가서 그들을 위해 처음으로 설법한 곳이 사슴 동산(鹿野苑)이었다. 그래서 녹야원을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라 한다.

453) 입멸한 지: 원문의 학수(鶴樹)는 석가가 입적한 쿠시나가라(拘尸那揭羅, Kusinara)를 가리킨다.

해외에 흘러 전해가니 진정 경하로운 일일세,

동국⁴⁵⁴⁾과 인도⁴⁵⁵⁾가 모두 한 하늘 아래라.

又天成三年戊子，默和尚入唐，亦載大藏經來。本朝睿廟時，慧照國師奉詔西學，市遼本大藏三部而來，一本今在定惠寺。[海印寺有一本，許參政宅有一本。] 大安二年，本朝宣宗代，祐世僧統義天入宋，多將天台教觀而來。此外方冊所不載，高僧信士，往來所貴，不可詳記，大教東漸，洋洋乎慶矣哉。

讚曰 華月夷風尚隔烟，鹿園鶴樹二千年。流傳海外真堪賀，東震西乾共一天。

이 책에 기록된 의상전(義湘傳)⁴⁵⁶⁾을 살펴 보면⁴⁵⁷⁾ “영휘(永徽)⁴⁵⁸⁾ 초에 당 나라에 들어가 지엄을 배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부석본비(浮石本碑)⁴⁵⁹⁾

nagara)를 말한다. 석가가 쿠시나가라의 나이란자나강가에 있던 사라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娑羅雙樹) 곳에서 입적하였는데, 그때 이 숲의 나무가 모두 말라 흰색으로 변해 마치 흰 학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하여 이를 학림(鶴林)이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석가의 열반지(涅槃地)를 학림이라 한다.

454) 동국: 원문의 동진(東震)에서 진(震)은 동방을 나타내는 괘를 말하는 것으로 동국(東國) 곧 우리나라를 말한다.

455) 인도: 원문의 서건(西乾)에서 건(乾)은 북서(北西)방을 나타내는 괘로서 서천축(西天竺) 곧 인도를 말한다.

456) 의상전(義湘傳): 영휘 초년에 당나라에 가서 지엄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 의상전은 『삼국유사』 권4의 「의상전교(義湘傳敎)」를 말한다.

457) 이 이하는 일연의 제자 무극(無極)이 추가로 기록한 부분이다. 『삼국유사』에 무극이 추록한 부분은 이밖에 권4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蘊石記)」에 한 군데 더 있다.

458) 영휘(永徽): 당 고종(高宗)의 연호. 650~655년. 신라 진덕왕 4년~무열왕 2년.

459) 부석본비(浮石本碑): 의상의 전기를 기록한 비로 의상이 세운 신라 화엄(華嚴)종찰(宗刹)인 부석사(浮石寺)에 세워졌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9세기

에 의하면 “의상은 무덕(武德)⁴⁶⁰⁾ 8년(625)에 태어나 어린 나이⁴⁶¹⁾에 출가하였다. 영휘(永徽) 원년(650) 경술년에 원효(元曉)⁴⁶²⁾와 함께 중국에 들어가자 하였으나 고구려에 이르러 어려움이 있어 돌아왔다. 용삭(龍朔)⁴⁶³⁾ 원년(661) 신유년에 당나라에 가서 지엄에게 배웠다. 총장(總章)⁴⁶⁴⁾ 원년(668)에 지엄이 세상을 떠나자 함형(咸亨)⁴⁶⁵⁾ 2년(671)에 의상은 신라에 돌아왔다. 장안(長安)⁴⁶⁶⁾ 2년(702) 임인년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 78세였다.”

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곳에 인용된 단편적인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의상의 전기를 기록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였으나 일찍이 망실되어 현재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460) 무덕(武德): 당 고종(高宗)의 연호. 618~626년. 신라 진평왕 40~48년.

461) 원문의 관세(非歲)는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땅아 늘어뜨린 어린애의 머리, 곧 어린 나이를 말한다.

462) 원효(元曉): 617~686. 신라의 고승. 속성은 설씨. 경산에서 태어나 여러 스승을 찾아 배웠고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그만 두었다. 당시 신라에 소개된 대부분의 경론을 탐구하여 하나하나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를 평가한 중요(宗要)류의 저술을 펴내고, 더욱 관심이 가는 경론에 대해서는 상세한 주석서를 썼다. 이들 경론을 총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상호 대립적이지 아닌 화합의 새로운 불교관을 펼쳤다. 여러 저술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체계화한 일심(一心) 사상이로서, 이는 신라불교의 가장 탁월한 성과로 평가된다. 요석궁주와 결혼하여 설총(薛聰)을 낳고 이후 직접 사람들을 만나 아미타불을 알려 주는 등 대중 교화에 매진하였다. 9세기 초에 그를 기리는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가 세워졌고, 고려 숙종 때 화정(和靜)국사로 추앙되기도 하였다. 주요 저서에는 앞의 세 저술 외에 『화엄경소(華嚴經疏)』·『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법화종요(法華宗要)』·『이장의(二障義)』·『판비량론(判比量論)』 등 80여 종이 있다.

463) 용삭(龍朔): 당 고종(高宗)의 연호. 661~663년. 신라 문무왕 1~3년.

464) 총장(總章): 당 고종(高宗)의 연호. 668~669년. 신라 문무왕 8~9년.

465) 함형(咸亨): 당 고종의 연호. 670~673년. 신라 문무왕 10~13년.

466) 장안(長安): 당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연호. 701~704년. 신라 효성왕 10년~성덕왕 3년.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상이) 지엄(智嚴)과 함께 도선(道宣)을 사 처소에
서 공양을 받고 천궁(天宮)의 불아(佛牙)를 요청한 것은 신유년(661)에서
무진년(668)까지의⁴⁶⁷⁾ 7, 8년 사이의 일이다. 우리 나라 고종(高宗)이 강
도(江都)에 들어간 임진년⁴⁶⁸⁾ (1232)에 천궁의 7일 기한이 찬 것인지 의심
한 것은 잘못이다. 도리천(忉利天)⁴⁶⁹⁾의 하루 밤낮은 인간 세상의 1백 년에
해당하니⁴⁷⁰⁾ 의상대사가 처음 당에 간 신유년(661)으로부터 고종 임진년
(1232)에 이르기까지는 693년⁴⁷¹⁾이 된다. 경자년⁴⁷²⁾ (1240)에 이르러 비로소
700년⁴⁷³⁾이 차니 7일 기한은 이미 차버렸다. 강도에서 나온 지원(至元)⁴⁷⁴⁾ 7

467) 신유년에서 무진년까지의 : 의상이 중국에 가 있던 661년부터 668년 사이.

468) 임진년 : 고종이 몽고의 침공을 피해 강화에 천도한 고종 19년(1232).

469) 도리천(忉利天) : ⑤ Trāyastriṃśa. 육계 6천의 제2천. 원래 인도 신화에 나오는 산
이었는데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須彌山)이 우뚝 솟아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주위에 여덟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둘러 싸고 있어 하
나의 세계를 이룬다고 한다. 일곱 번째의 산 바깥으로 짙은 바다가 있고 그 바깥으
로 철위산(鐵圍山)이 있어 수미산의 사대주를 이루는데 그 중의 남쪽인 염부제
주(閼浮提洲)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위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 곧 수미
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다고 한다. 도리천은 제석천(帝釋天)이 주인이 되어 사방
에 팔천을 거느리고 있어 삼십삼천이라고도 부른다.

470) 도리천(忉利天)에서는 수명이 1천 세인데 인간 세상(人世)의 1백 년이 도리천의
하루 낮밤[一晝夜]에 해당한다. 사천왕천(四天王天)은 나이 5백 세~인간세상 50
년이 1일, 야마천(夜摩天)은 나이 2천 세~2백 년이 1일, 도솔천(兜率天)은 나이 4
천 세~4백 년이 1일, 낙변화천(樂變化天)은 나이 8천 세~8백 년이 1일 ; 타화자
재천(他化自在天)은 나이 1만6천 세~1천6 백년이 1일이라고 한다.

471) 693년 : 의상이 입당한 661년부터 고종이 강화로 천도한 1232년까지는 572년(만
571년)이지 693년이 아니다. 120년 곧 두 주갑(周甲)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472) 경자년 : 고려 고종(高宗) 24년.

473) 700년 : 앞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고종 경자년(1249)까지는 589년이 되며 지원
(至元) 경오년(1270)까지는 610년이 되어 역시 두 주갑(120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474) 지원(至元) : 원 세조(世祖)의 연호. 1264~1294. 고려 원종 5년~충렬왕 20년.

년(1270) 경오년까지는 730년⁴⁷⁵⁾이 된다. 만일 천제(天帝)의 말과 같다면 7일 후에 천궁에 돌아갔어야 하니, 선사 심감(心鑑)이 강도(江都)를 나올 때 갖고 나와 바친 것은 아마 진짜 불아가 아닐 것이다. 이해 봄 강도 출륙 전에 궁궐에 여러 종파의 고승들을 모아 놓고 불아와 사리를 빌고자 정근을 간절히 하였는데 한 매도 얻지 못하였으니 7일 기한이 차서 천궁으로 올라가버린 것 같다. (지원) 21년(1284) 갑신년⁴⁷⁶⁾에 국청사(國淸寺)⁴⁷⁷⁾ 금탑(金塔)⁴⁷⁸⁾을 보수하고 왕과 장목왕후(莊穆王后)⁴⁷⁹⁾가 묘각사(妙覺寺)⁴⁸⁰⁾에 행

475) 의상이 입당한 661년부터 강도(江都)에서 출륙(出陸)한 1270년까지는 610년(만 609년)이다.

476) 21년(1284) 갑신년 : 지원(至元) 21년, 충렬왕 10년.

477) 국청사(國淸寺) : 개성 교외인 개풍군 중서면 여릉리에 있던 절. 선종 6년(1089)에 의천(義天)이 주도하여 인예태후(仁睿太后)의 지원을 받아 착공하였는데 중간에 일시 중지되었다가 숙종 2년(1097)에 낙성을 보았다. 낙성되자 의천이 이곳에서 천대를 강설하여 천태종을 개창하고 천태종의 근본 사찰이 되었다. 인예태후의 영정을 모신 원찰로서 태후의 발원으로 조성된 황금 13층석탑이 1104년(숙종 9)에 봉안되었다. 몽고의 침공으로 불탄 후 충선왕 원년(1309)에 무외국통(無畏國統)을 보내 금당을 중수하고 석가여래삼존을 봉안하도록 하여 1315년에 낙성하였다.

478) 금탑(金塔) : 국청사를 완성하고 숙종 10년(1105)에 인예태후가 발원하였던 황금 13층탑을 만들어 봉안하였다.([『고려사』 권12 숙종 10년 3월 계묘 “王如國淸寺, 置仁睿太后願成金塔.”) 그런데 이 즈음의 금탑에 대한 기사는 충렬왕 11년에 왕이 흥왕사의 금탑을 찾아 예배하였다는 기사가 있어 이를 잘못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려사』 권30 충렬왕 11년 12월 병진 “王及公主幸興王寺, 拜金塔, 遂幸妙蓮寺.”) 이곳의 기록에 따르면 국청사 금탑을 보수하고, 묘각사에 가서 부처 어금니와 낙산사 보주를 금탑 안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 묘각사에도 금탑이 있는 것이 된다.

479) 장목왕후(莊穆王后) : 고려 제25대 충렬왕의 비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원 세조(世祖)의 공주로 충선왕(忠宣王)의 어머니.

480) 묘각사(妙覺寺) : 경기도 개성시 영평문 밖에 있었던 절. 태조 4년(921)에 창건되었으며, 고려 말에 국왕이 자주 행차하고 원에 간 상왕의 환국을 비는 기도가 이

차하여 대중을 모아 낙성을 경찬하였다. 위의 불아는 낙산사(洛山寺)⁴⁸¹⁾의 수정염주와 여의주와 함께 왕과 신하 및 대중이 모두 침례하고 받들어 예배한 뒤에 함께 금탑 안에 넣었다. 나 또한 이 모임에 참여하여 이른바 부처 어금니라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길이가 세 치 쯤 되며 사리는 없었다. 무극(無極)⁴⁸²⁾이 적는다.

按此錄義湘傳云, “永徽初入唐, 謁智儼”. 然據浮石本碑, “湘武德八年生, 卅歲出家. 永徽元年庚戌, 與元曉同伴欲西入, 至高麗, 有難而迴. 至龍朔元年辛酉, 入唐就學於智儼. 總章元年, 儼遷化, 咸亨二年, 湘來還新羅. 長安二年壬寅, 示滅, 年七十八.” 則疑與儼公, 齋於宣律師處, 請天宮佛牙, 在辛酉至戊辰七八年間也. 本朝高廟入江都壬辰年, 疑天宮七日限滿者, 誤矣. 忉利天一日夜, 當人間一百歲, 且從湘公初入唐辛酉, 計

루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고려말 조선초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481) 낙산사(洛山寺): 오대산 동쪽 바닷가 오봉산(五峰山)에 있는 절. 신라 의상이 이곳에 관음진신(觀音眞身)이 상주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7일 동안의 기도 끝에 수정염주를 얻고 다시 7일간의 기도 끝에 여의보주를 얻은 후 진신을 친견(親見)한 이래 관음 근본도량이 되었다. 본래 『화엄경(華嚴經)』에서 관음보살이 보타락가산(普陀洛迦山)에 상주한다는 내용에 따라 ‘낙산(洛山)’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 기록에 이어 등장하는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는 이때 의상이 기도하여 함께 얻었다는 유물로서, 이것이 고려 말기에 실제로 궁중에 전승되었던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이다.

482) 무극(無極): 고려후기 승려. 1251~1322. 이름은 혼구(混丘), 또 청분(淸玢). 호는 무극노인(無極老人), 시호는 보감국사(寶鑑國師). 10세에 무위사로 출가하고 후에 일연의 제자가 되었다. 1289년 이후 운문사 내원당 연곡사 보경사의 주지를 역임하고 충렬왕 때 대선사(大禪師), 충선왕 때 양가도승통(兩街都僧統), 충숙왕 때(1313) 왕사(王師)가 되었다. 그후 은퇴하여 영원사(瑩原寺)에 머무르다 말년에 송림사(松林寺)로 옮겨 입적하였다. 영원사에 탑비가 세워졌으나 지금은 무너지고 일부만 남아 있다.

至高廟壬辰，六百九十三歲也。至庚子年，始滿七百年，而七日限，已滿矣。至出都至元七年庚午，則七百三十年。若如天言，而七日後還天宮，則禪師心鑑出都時，佩持出獻者，恐非眞佛牙也。於是年春出都前，於大內集諸宗名德，乞佛牙舍利，精勤雖切，而不得一枚，則七日限滿，上天者幾矣。二十一年甲申，修補國清寺金塔，國主與莊穆王后，幸妙覺寺，集衆慶讚訖。右佛牙，與洛山水精念珠如意珠，君臣與大衆，皆瞻奉頂戴，後并納金塔內。予亦預斯會，而親見所謂佛牙者，長三寸許，而無舍利焉。無極記。

4-14 미륵선화와 미시랑과 진자스님

[해제]

신라 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화랑과 승려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미륵선화(彌勒仙花) 이야기를 싣고 있는 편이다. 화랑은 진흥왕 때 여자 원화(原花)로 시작하였으나 둘 사이의 질투로 폐지하였고, 얼마 후에 남자 화랑국선(花郎國仙)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진지왕 때 이르러 흥륜사의 진자(眞慈) 스님이 미륵불이 화랑으로 세상에 태어나기를 빌었더니 웅천 수원사에 가면 미륵선화를 만날 수 있으리라 하여 한 소년을 만나고, 서울에 돌아와 미시(未尸)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찾아 미륵선화임을 확신하고 국왕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삼존상(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에게 추천하여 국선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다. 화랑이 미륵신앙과 관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풍부한 자료를 알려 주는 기록이다. 화랑과 미륵이 결합된 미륵선화를 말하기 위해 전반부에서는 신라 화랑의 변화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공경하며 오상 육예 등을 행하던 역할을 설명하였다. 후반부에서는 화랑이 미륵의 현신이라고 믿었던 당시의 경향을 미시랑을 통해 확인하고 국선이 예의와 교화에 뛰어나 풍류가 세상에 빛났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시와 미르의 발음상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고려 때 사람들이 신선을 미륵선화라고 하고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라고 하는 것들이 미륵보살의 유풍이라고 하여, 고려 때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미륵의 여러 신앙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인용 자료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삼국사기』와 같은 자료를 대조하며 설명하였다.

[역주]

미륵선화와 미시랑과 진자스님

제24대 진흥왕(眞興王)⁴⁸³⁾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삼맥중(叡麥宗)이며, 〈혹은 심맥중(深麥宗)⁴⁸⁴⁾이라고도 한다.〉 양(梁) 대동(大同)⁴⁸⁵⁾ 6년(540) 경신

483) 진흥왕(眞興王) : 신라 제24대 왕. 재위 540~576. 백제의 땅이었던 한강 유역의 요충지를 획득하고,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다. 이어 대가야를 평정하고, 창녕에서 북한산 마운령 황초령에 이르는 땅을 새로 개척하였다. 4-1 주8) 참조.

484) 중(宗)은 존칭어미이다. 삼맥은 사미(沙彌)의 음역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권3 흥법 「아도기라」 항목의 주에 승려를 가리켜 우리말로 삼마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삼마 또한 삼맥과 통한다. 이때 삼마는 불교 이전의 종교전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울주 천전리(川前里)서석(書石) 기미년 추각명(539)에 진흥왕은 심맥부지(深麥夫知)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485) 대동(大同) : 양(梁) 무제(武帝)의 연호. 535~546년. 법흥왕 22~진흥왕 7년.

년에 즉위하였다. 큰아버지 법흥왕(法興王)⁴⁸⁶⁾의 뜻을 흠모하여 한 마음으로 불교를 받들어 널리 절을 세우고 사람들을 출가시켜 스님이 되게 하였다.⁴⁸⁷⁾

또 천성이 고상하고⁴⁸⁸⁾ 신선(神仙)⁴⁸⁹⁾을 매우 숭상하여 민가의 낭자(娘子) 중에 아름답고 고운 사람을 뽑아서 원화(原花)⁴⁹⁰⁾로 삼았다. 이는 무리

486) 법흥왕(法興王): 신라 제23대 왕. 514~540년 재위. 병부(兵部)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확립하고, 율령(律令)을 반포하여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다. 527년에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본가야(本伽倻)를 병합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4-3 주80) 참조.

487)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조제, 5년에 홍륜사를 완성하고 사람들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여 부처를 받들도록 하였으며(許人出家爲僧尼奉佛), 14년에 황룡사를 건립하기 시작하고 27년에는 기원사와 실제사를 건립하였으며,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한 마음으로 불법을 받들어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려 옷을 입고 스스로 백운이라 부르며 생애를 마쳤고 왕비 또한 이를 따라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서 지냈다(王幼年卽位, 一心奉佛, 至末年祝髮, 被僧衣, 自號法雲, 以終其身. 王妃亦効之爲尼, 住永興寺.)라고 하였다.

488) 원문의 풍미(風味)는 느긋하고 고상하며 풍류적인 사람을 말한다.

489) 신선(神仙): 신선은 원래 도가(道家)에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의 기술을 얻어 변화자재(變化自在)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선은 도가의 신선의 의미보다는 산천에서 유람하고 가무를 통해 종교적 행사를 하는 신라 고유의 수행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화랑을 국선(國仙), 화랑도를 풍월도(風月道), 풍류도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90) 원화(原花): 『삼국사기』에는 원화(源花)로 되어 있다. 처음에 무리를 모아 유람하며 행의를 보아 천거하여 등용하고자 남모와 준정의 미녀 두 사람을 뽑아 무리 3백명을 모았는데 서로 투기하여 죽이기에 이르러 후에 미모의 남자를 꾸며 화랑이라 하였다고 하였다.(“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羣遊, 以觀其行義, 然後舉而用之. 遂簡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徒三百餘人. 二女爭媚相妬, 俊貞引南毛於私第, 強勸酒至醉, 曳而投河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後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삼국사기』 권4 진흥왕 37년 봄)

를 모아 인물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효도와 우애, 충성과 신의를 가르치려 한 것으로 이는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요제였다. 이에 남모랑(南毛娘)과 교정랑(姣貞娘)⁴⁹¹⁾의 두 원화를 뽑아 무리 3,4백 명을 모았다.⁴⁹²⁾ 교정랑은 남모랑을 질투하여 술 자리를 크게 열어 남모랑에게 마시게 하고 취하게 되자 몰래 북천(北川)⁴⁹³⁾으로 메고 가서 돌을 들어 묻어 죽이니 남모랑의 무리들이 그가 간 곳을 몰라 슬피 울며 흩어졌다. 그 음모를 아는 사람이 있어 노래를 지어 마을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거리에서 노래 부르게 하니, 그 무리들이 듣고서 그의 시체를 북천에서 찾고 교정랑을 죽였다. 이에 왕은 명을 내려 원화를 폐지하였다.

몇 년이 지나 왕은 또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風月道)⁴⁹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명을 내려 좋은 가문의 남자 중에 덕행

491) 교정랑(姣貞娘): 『삼국사기』에는 준정(俊貞)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권4 진흥왕 37년)

492) 이 기사는 화랑도가 처음에는 두 개의 조직과 두 명의 화랑으로 이끌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 명의 여인들이 이끄는 화랑조직은 6부를 둘로 나누어 왕녀 2인으로 하여금 길쌈놀이를 이끌게 하였던 가배풍습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493) 북천(北川): 신라 왕경의 북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지금의 경주 보문단지 쪽에서 중심가 북부를 돌아 흘러 형산강(西川)으로 들어간다. 알천(關川)이라고도 하였다.

494) 풍월도(風月道): 화랑도(花郎道)를 말한다. 신라에서 화랑도를 말할 때 풍류(風流), 풍월(風月)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 화랑도를 말하면서 “나라에 깊고 오묘한 도가 있어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의 연원을 말하는 것은 선가 사서에 자세히 실려 있다.”(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說教之源, 備詳仙史.)라 한 것이라든지, 화랑 죽지랑(竹旨郎)에 관한 기사에서 ‘풍류황권(風流黃卷)’이라는 말을 쓴 것이라든지(『삼국유사』 권2 기이 효소왕), 『삼국사기』 검군(劍君)전에서 ‘풍월지정(風月之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삼국사기』 권48 열전 검군) 등이 그렇다. 원래 풍류는 산수 문학과 신선 취미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화랑도가 산수를 유람하고 가무를 하며 도를 닦는 행위를 이에 비교하여 사용하였던 말로 생각된다.

(德行)이 있는 자를 뽑아 고쳐서 화랑(花郎)⁴⁹⁵⁾이라 하였다. 처음으로 설원랑(薛原郎)⁴⁹⁶⁾을 받들어 국선(國仙)⁴⁹⁷⁾을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花郎國仙)⁴⁹⁸⁾의 시초이다.⁴⁹⁹⁾ 그래서 명주에 비를 세웠다.⁵⁰⁰⁾ 이로부터 사람들로

495) 원본의 랑(娘)은 랑(郎)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바로 다음 줄에는 화랑(花郎)이라 하였다. 화랑은 신라시대의 청소년 조직으로서 군사집단으로서의 기능과 교육집단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조직은 진골귀족 출신의 화랑 1명과 지도 역할을 맡는 승려와 일반귀족과 평민 출신의 다수의 낭도로 구성되어, 신라 사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496) 설원랑(薛原郎): 진흥왕 때 활동한 최초의 화랑. 설을 성씨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설씨는 진골이 아니기 때문에 화랑이 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화랑을 부르는 명칭이 죽지랑처럼 이름 두 자를 쓰고 있으므로 화랑 설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내기물악은 원랑의 무리가 만들었다.”(思內奇物樂, 原郎徒作也. 『삼국사기』 권32 악지 會樂 이하)는 기록의 원랑은 설원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97) 국선(國仙): 화랑에 대해 『삼국사기』에서는 화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삼국유사』에서는 화랑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국선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김유신(金庾信)에 대해 각기 화랑과 국선으로 표현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8세기 초 성덕왕 때 김대문(金大問)이 지은 『화랑세기(花郎世記)』나 8세기 후반 혜공왕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당 고음(顧愔)의 『신라국기(新羅國記)』에는 화랑이라고 쓰고 있어 신라 당시에는 화랑이라는 표현이 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화랑의 유풍을 언급하면서 선랑(仙郎)이나 국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신라말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화랑과 신선 사상이 윤색되어 국선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하지만, 『삼국유사』에 보이는 국선의 표현이 신라의 화랑이라는 표현을 모두 바꾸어 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라 때부터 국선의 표현이 있었을 가능성도 많다.

498) 화랑국선(花郎國仙): ‘화랑국선’이라고 합쳐 부른 말이라기보다는 화랑 또는 국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499) 『삼국유사』에서는 화랑의 제정을 진흥왕대라고 하고 있으나 『삼국사기』는 이를 진흥왕 37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이보다 먼저인 진흥왕 23년에 이미 이전에 벌써 화랑으로 봉해졌던 사다함(斯陀含)이 가야정벌에 종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삼국사기절요』와 『동국통감』에는 진흥왕 27년에 국선에 봉해진 백운(白雲)의 이야기가 나온다. 『삼국유사』는 진흥왕 때 원화와 화랑의 제정 사실을 차례로 서술하고 그 정확한 시기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끝에서

하여금 악을 고쳐 선을 행하게 하고, 윗 사람을 공경하고 아랫 사람에게 온화하게 하니 오상(五常)⁵⁰¹⁾·육예(六藝)⁵⁰²⁾·삼사(三師)⁵⁰³⁾·육정(六正)⁵⁰⁴⁾이 그때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국사(國史)』에는 진지왕(眞智王)⁵⁰⁵⁾ 대건

일연은 주를 달아 진지왕 즉위년(576년, 진흥왕 37년)에 화랑이 시작되었다는 사전(史傳)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500) 명주(溟州): 지금의 강원도 강릉지방. 화랑과 명주 지방과의 관계는 상당히 깊다. 『삼국유사』 권3 답사 백률사 항목에 화랑 부레랑이 안상과 함께 금란(金蘭)에서 노닐다 북명(北溟)에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려말의 문인인 이색(李穡)은 『동유기(東遊記)』에서 충석정의 사선봉(四仙峯), 금란굴, 삼일포의 석굴과 사선정(四仙亭), 영랑호, 경포대, 한송정, 월송정 등의 땅이 화랑의 유람지라는 전설이 있다고 소개하고, 이 지역에 있었던 비(碑)들이 신라 때 화랑들이 세운 것이 아닐까 추측하였다. 이 외에도 『동국여지승람』, 『지봉유설(芝峰類說)』 등에 화랑과 명주지방과의 깊은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화랑의 유람지로서 알려지고 있는 곳은 명주지방을 비롯한 동해안 각지(특히 금란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 금강산, 경주의 남산, 울주군 천전리 등이 있다. 화랑의 유람은 전사로서의 단련일 뿐 아니라 수호신을 만난다든지 하는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화랑의 유람지로 알려져 있는 금란굴과 삼일포 등은 그 지역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곳, 또는 불보살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듯이 화랑의 유람지는 신령스러운 명승지라 할 수 있다.

501) 오상(五常): 유교 윤리의 근본을 이루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말한다.

502) 육예(六藝): 고대 중국의 기본 교육 과목으로 예의(禮)·음악(樂)·궁술(射)·마술(御)·서도(書)·수학(數)을 말한다.

503) 삼사(三師): 제왕을 보좌하는 최고 관직인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가리킨다.

504) 육정(六正): 신하로서 지켜야 하는 6가지의 올바른 도리 또는 그것을 갖춘 바른 신하로 성신(聖臣)·양신(良臣)·충신(忠臣)·지신(智臣)·정신(貞臣)·직신(直臣)을 말한다.

505) 진지왕(眞智王): 신라의 제25대 왕. 재위 576~579. 성 김씨, 이름은 사륜(舍輪) 또는 금륜(金輪). 진흥왕의 둘째 아들. 어머니는 사도부인(思道夫人). 비(妃)는 오공(烏公)의 딸 지도부인(知道夫人). 진흥왕의 태자 동륜(銅輪)이 572년(진흥왕 33)에 죽었기 때문에 진흥왕에 이어서 즉위하였다. 즉위하던 해(576년)에 거

(大建)⁵⁰⁶⁾ 8년(576) 병신년에 처음으로 화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전(史傳)의 잘못일 것이다.]⁵⁰⁷⁾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第二十四眞興王, 姓金氏, 名多麥宗<一作深麥宗>, 以梁大同六年庚申卽位. 慕伯父法興之志, 一心奉佛, 廣興佛寺, 度人爲僧尼.

又天性風味, 多尙神仙, 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 要聚徒選士, 教之以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 乃取南毛娘姣貞娘兩花, 聚徒三四百人. 姣貞者嫉妬毛娘, 多置酒飲毛娘, 至醉潛昇去北川中, 攀石埋殺之, 其徒罔知去處, 悲泣而散. 有人知其謀者, 作歌誘街巷小童, 唱於街, 其徒聞之, 尋得其尸於北川中, 乃殺姣貞娘. 於是大王下令, 廢原花.

累年,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 更下令, 選良家男子有德行者, 改爲花郎. 始奉薛原娘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 故豎碑

칠부를 상대등에 임명하여 국정을 맡겼고, 재위 4년 만에 정사가 어지럽고 주색에 빠졌다(政亂荒淫)는 이유로 화백회의의 결정에 따라 폐위되었다. 이후 동륜태자의 아들인 진평왕이 즉위하여 선덕왕과 진덕왕까지 이어갔으나 그 다음에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하여 이후 왕계를 이어감으로써 무열왕계(武烈王系)의 시조가 되었다.

506) 대건(大建): 진(陳) 선제(宣帝)의 연호, 569~582년. 진흥왕 30~진평왕 4년.

507) 『삼국사기』에는 진지왕 즉위년이기도 한 진흥왕 37년 봄 함목에서 원화 제도에서 시작하여 중간의 폐지 그리고 막연히 그후(其後) 화랑을 창설하였다고 하였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37년 봄) 그리고 김대문의 『화랑세기』, 최치원의 「난랑비서」, 영호정의 『신라국기』에 나오는 화랑 기사를 열거한 후에 안흥의 귀국 사실을 수록하고 이어 8월에 왕이 돌아갔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따라서 진지왕 즉위년에 화랑을 창설했다는 이 기록이 『삼국사기』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於溟州。自此使人悛惡更善，上敬下順，五常六藝，三師六正，
廣行於代。[國史 眞智王 大建八年庚申始奉花郎，恐史傳乃誤.]

진지왕대가 되어 흥륜사(興輪寺)⁵⁰⁸⁾의 진자(眞慈)스님(혹은 정자(貞慈)라고 한다)이 매번 금당 주존인 미륵상⁵⁰⁹⁾ 앞에 나가 소원을 빌며 맹세하기를 “원컨대 우리 부처님께서⁵¹⁰⁾ 화랑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시어 제가 항상 얼굴을 가까이에서 뵈고 받들어 모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⁵¹¹⁾ 그 정성스

508) 흥륜사(興輪寺):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에 있던 신라 최초의 절. 신라에 불법을 전한 아도(阿道)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경주에 세워진 오래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던 일곱 개의 절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고 천경림(天鏡林)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527년 이차돈의 순교 이후 범흥왕이 짓기 시작하여 진흥왕 5년(544)에 완성되었다. 신라 불교의 전래와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열 분을 기리는 상을 흥륜사 금당에 만들어 봉안하였다. 4-11 주260) 참조.

509) 미륵상: 미륵불상. 미륵은 브라만 집안에서 출생하여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여 보살로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다고 한다. 미륵보살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처음 발심할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자씨(慈氏)보살로 부른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하였는데 그 수명이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만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이런 경설에 따라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미륵상생 신앙과, 미륵이 부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미륵하생 신앙의 두 가지 신앙이 있게 된다. 미륵신앙은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의 세 경전이 중심이 된다.

510) 원문의 대성(大聖)은 흔히 부처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미륵불을 가리킨다.

511) 미륵불이 화랑으로 나타날 것을 기원하는 이 내용은 화랑과 불교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김유신이 화랑 시절 자신의 낭도를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불렀던 것과(『삼국사기』 권41 열전 金庾信) 함께 화랑과 미륵신앙과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럽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날로 더욱 독실해졌다. 어느날 저녁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말하기를, “그대가 웅천(熊川)⁵¹²⁾〈지금의 공주(公州)〉의 수원사(水源寺)⁵¹³⁾에 가면 미륵선화(彌勒仙花)⁵¹⁴⁾를 볼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⁵¹⁵⁾ 진자가 꿈에서 깨어 놀랍고도 기뻐서 그 절을 찾아 열흘 걸리는 길을 가는데 한 걸음에 한번 씩 예를 올리며 갔다. 그 절에 당도하자 문 밖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매우 곱고 어그리짐이 없고 어여쁜 눈매를 하고는 맞이하였다. 작은 문으로 인도하여 맞이하여 객실에 다다르니 진자가 한편으

512) 웅천(熊川) :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한성(漢城)에 이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다. 백제가 망한 뒤 당나라가 이 곳에 한때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는데 신라가 이를 빼앗았고, 신문왕 6년(686)에 웅천주(熊川州)를 처음 설치하였다. 그 뒤 경덕왕 16년(757)에 지명을 모두 고칠 때 웅주(熊州)로 되었으나, 그 뒤에도 웅천주의 명칭은 계속 사용되었다. 757년 개편 당시 웅주는 1소경과 13개군, 29개현을 관장하였으며 주에 직속되는 현이 2개 있었다. 이곳은 백제의 중심 지역 중 하나이므로 양국이 대립 상태에 있던 진지왕 때 신라 승려가 백제 사찰에 다녀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다.

513) 수원사(水源寺) : 충청남도 공주시 동쪽인 월성산에 있던 절.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원사(水源寺)라고 한 절이 이 수원사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公州牧 佛宇 이곳에는 절터가 남아 있지만 이 절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 말기 이전의 유물이 없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수원사의 자취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514) 미륵선화(彌勒仙花) : 미륵은 미륵불 또는 미륵보살을 말한다. 선화는 화랑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이 미륵선화라는 명칭은 화랑이 불교와 도교의 복합적 사상 배경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화랑과 미륵과의 관계는 특히 밀접하여 많은 사례들을 남기고 있다. 죽지랑은 그 부모가 죽지령의 북쪽 봉우리에 석미륵을 봉안하여 생겨났으며, 화랑에서 활동하던 월명이 미륵에게 도술가를 지어 이변을 사라지게 했으며, 김유신의 화랑도 이름이 미륵이 성불한다는 나무인 용화수(龍華樹)에서 딴 용화향도라고 하였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515) 신라 승려가 미륵의 화랑 현신을 백제 영역인 공주에서 찾았다는 이 이야기는 백제의 미륵신앙이 성행하여 신라에까지 그 영향이 전해지자 신라인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로 올라가고 한편으로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평소에 잘 모르는데 어찌하여 이같이 은근하게 대접합니까?” 하니 소년이 말하기를 “저도 서울 사람으로 스님이 먼 길을 걸어 오심을 보고 위로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문을 나갔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진자는 그저 우연한 일일 뿐이라고 하여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절의 스님에게 지난 밤의 꿈과 이곳에 온 뜻을 이야기하였다.

또 말하기를 “잠시 말석에⁵¹⁶⁾ 앉아 미륵선화를 기다리고 싶은데 어떻게 습니까?” 하였다. 절의 스님이 진자가 뜻은 제멋대로이나 그 은근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가면 천산(千山)이 있는데, 예로부터 현인과 철인이 머물러 살아서 감응이 많은데 어찌 그 곳에 가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진자가 그의 말을 따라 산 아래까지 갔더니 산신령이 노인으로 변하여 나와 맞으며 말하기를,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니 진자가 “미륵선화를 뵙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저번에 수원사(水源寺) 문 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뵈었는데 다시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라고 하였다. 진자가 듣고는 땀이 나도록 놀라서 빨리 본 절로 돌아왔다.

한 달 남짓 있다가 진지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진자를 불러 그 연유를 물어 말하기를, “낭(郎)이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고 하였다니 성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텐데 어찌 성 안에서 찾지 않소?” 하였다. 진자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무리들을 모아 두루 마을을 다니면서 그를 찾았다. 한 남자 아이가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갖추고 용모가 수려하였는데⁵¹⁷⁾ 영묘사(靈妙寺)⁵¹⁸⁾

516) 원문의 하답(下榻)은 말석(末席)이라는 뜻이다.

517) 남자 화랑이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다는 등 여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 기사는 화랑이 사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의 동북쪽 길가의 나무 아래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⁵¹⁹⁾ 놀고 있었다.⁵²⁰⁾ 진자가 그를 만나 보고 놀라 말하기를 “이가 미륵선화입니다” 하였다. 다가가서 묻기를 “낭(郎)의 집은 어디에 있으며 성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낭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이름은 미시(未尸)인데,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가마에 태우고 들어와서 왕에게 뵈니 왕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다.⁵²¹⁾

그가 자제들을 화목하게 하고 예의와 덕행으로 가르침이 보통과 달랐고 풍류(風流)가 세상에 빛났다. 거의 7년 쯤 되어 갑자기 간 곳이 없었다. 진

518) 영묘사(靈妙寺) : 영묘사(零妙寺)라고도 한다. 신라에 있었다는 과거불 시대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로 꼽히는 절로서, 신라 선덕왕 때 창건되었다. 조선시대에 봉덕사가 폐사되자 봉덕사에 있던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을 1460년에 이 절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현재 정확한 절터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주시 성진리 서천가에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곳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근래에 현재 흥륜사라고 재건한 절터에서 ‘영묘(靈廟)’라고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면서 현재의 향토사가들은 이곳을 영묘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영묘사는 신라 때 왕실에 의해 건립된 사원에 설치된 일반 관부로 불교계에 대한 승정기구로서의 통제적 기능과 왕실의 원당(願堂)으로서의 봉사(奉祀) 기능을 하던 성전사원(成典寺院)이 설치된 주요 사찰이었다.([『삼국사기』 권38 잡지 職官 상 成典寺院])

519) 원문의 파사(婆娑)는 이리저리 거닌다는 뜻이다.

520) 이는 미륵보살이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정각(正覺)을 이룬다는 설화와 연관을 보이며, 고유의 수목신앙과의 연관도 생각된다. 세계의 중심이며 신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세계수(Cosmic Tree)에 대한 신앙은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혁거세와 알지의 탄생이 나무와 관련이 있는 데서 이런 연관성을 볼 수 있다.

521) 화랑의 개편 제정이 진흥왕대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화랑과 미륵신앙의 결합을 의미하는 설화가 여럿 알려진 것이 주목된다. 진흥왕과 진지왕대 왕실은 전륜성왕설화를 수용하여 왕권을 수식하고, 귀족의 자제들인 화랑은 미륵을 상징하여 신라 불국토설을 이루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지왕은 귀족들에 의해 폐위당하고, 이어 즉위한 진평왕은 왕실을 석가족으로 수식하게 된다.

자가 슬퍼하여 그를 생각함이 매우 심했으나 그의 자비로운 혜택을 입었고 그의 맑은 교화를 친히 받들었기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수 있어서 정성껏 도를 닦았다. 만년에 그 또한 세상을 마친 곳을 알지 못하였다.

及眞智王代，有興輪寺僧眞慈（一作貞慈也），每就堂主彌勒像前，發願誓言，“願我大聖化作花郎，出現於世，我常親近睟容，奉以周旋。”其誠懇至禱之情，日益彌篤，一夕夢有僧，謂曰，“汝往熊川（今公州）水源寺，得見彌勒仙花也。”慈覺而驚喜，尋其寺，行十日程，一步一禮。及到其寺，門外有一郎，濃纖不爽，盼倩而迎。引入小門，邀致賓軒，慈且升且揖曰，“郎君素昧平昔，何見待殷勤如此？”郎曰，“我亦京師人也。見師高蹈遠屆，勞來之爾。”俄而出門，不知所在。慈謂偶爾，不甚異之，但與寺僧，叙曩昔之夢興來之意。

且曰，“暫寓下榻，欲待彌勒仙花，何如？”寺僧欺其情蕩然，而見其慙恪，乃曰，“此去南隣有千山，自古賢哲寓止，多有冥感，盍歸彼居？”慈從之，至於山下，山靈變老人出迎曰，“到此奚爲？”答曰，“願見彌勒仙花爾。”老人曰，“向於水源寺之門外，已見彌勒仙花，更來何求？”慈聞卽驚汗，驟還本寺。

居月餘，眞智王聞之，徵詔問其由，曰，“郎旣自稱京師人，聖不虛言，盍覓城中乎？”慈奉宸旨，會徒衆，遍於閭閻間，物色求之。有一小郎子，斷紅齊具，眉彩秀麗，靈妙寺之東北路傍樹下，婆娑而遊。慈迓之驚曰，“此彌勒仙花也。”乃就而問曰，“郎家何在？願聞芳氏。”郎答曰，“我名未尸，兒孩時爺孃俱歿，未知何姓。”於時肩輿而入見於王，王敬愛之，奉爲國仙。

其和睦子弟，禮義風教，不類於常，風流耀世。幾七年，忽亡所在，慈哀懷殆甚，然飲沐慈澤，昵承清化，能自悔改，精修爲道。

晩年亦不知所終.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미(未)는 미(彌)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고 시(尸)는 역(力)과 모양이 비슷하므로 이에 그 비슷한 것을 빌어서 수수께끼처럼 한 것이다.”고 하였다. 부처님이 진자의 정성에 감동된 것만이 아니라 이 땅과 인연이 있었으므로 때때로 나타나 보인 것이다. 지금 나라사람들이 신선(神仙)을 미륵선화라고 하며 무릇 사람들을 중매하는 사람⁵²²⁾을 미시(未尸)라고 하는 것은 모두 미륵보살⁵²³⁾의 유풍이다. 길 가의 나무는 지금 견랑(見郎)이라 하고 또 우리 말로는 사여수(似如樹)라 한다. [인여수(印如樹)라고도 한다.]

찬한다.

아름다운 자취 찾아 걸음마다 모습 우러르니

도처에 심은 것이 한결같은 공덕일세.

문득 봄이 가고 찾을 곳 없더니

누가 알았으랴 잠깐 사이 상림⁵²⁴⁾이 봄을 줄을.

522) 사람 사이의 중매자로 보기도 하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매개하는 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523) 자씨(慈氏)는 미륵보살을 말함. 미륵은 브라만 집안에서 출생하여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여 보살로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다고 한다. 미륵보살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처음 발심할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자씨(慈氏)보살로 부른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하였는데 그 수명이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만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이런 경설에 따라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미륵상생 신앙과, 미륵이 부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미륵하생 신앙의 두 가지 신앙이 있게 된다.

說者曰,“未與彌聲相近,尸與力形相類,乃託其近似而相謎也.”大聖不獨感慈之誠款也.抑有緣于茲土,故比比示現焉.至今國人稱神仙曰彌勒仙花,凡有媒係於人者曰未尸,皆慈氏之遺風也.路傍樹,至今名見郎,又俚言似如樹[一作印如樹].讚曰 尋芳一步一瞻風,到處栽培一樣功.羃地春歸無覓處,誰知頃刻上林紅.

-
- 524) 상림(上林):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西安市) 서쪽에 있던 중국 진한(秦漢)시대의 궁궐. 진 시황제가 처음 만들고 한 무제가 증축한 것으로 그 안에 정원 36개, 궁궐 12개, 관(觀) 25개 등을 만들어 천하의 진귀한 동식물을 모아 두었다고 한다. 이를 따라 천자의 정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여기서는 신라의 궁궐을 말한다.

4-15 남백월산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해제]

창원 지역에 있는 백월산에서 수도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두 성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백월산은 바다 건너 중국의 연못에 비친 사자바위가 있다는 특별한 산이라고 전해져왔다. 근처 마을에 살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두 사람은 성인이 되자 출가하여 수련하였다. 두 사람은 각각 처자를 데리고 절에서 살면서 일하며 수련하고 지내다가 마침내 세상을 버리고 백월산에 들어가 판잣집과 돌무더기집을 지어 살면서 각각 미륵불과 미타불을 구하여 수행하였다. 그러기를 3년만에 아름다운 남자로 화현한 관음의 시험을 거쳐 청정한 수행을 강조한 달달박박보다 대중의 뜻을 따랐던 노힐부득이 관음의 도움으로 먼저 미륵불로 현신성도하였고 달달박박도 뒤따라 미타불로 현신성불하였다. 성불한 두 현인은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법요를 설하고 하늘로 갔다. 709년 성덕왕 때 일어났던 이 일을 기리기 위해 경덕왕이 757년부터 766년에 백월산남사를 창건하여 금당에는 미륵불상을, 강당에는 미타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여 현신성도를 길이 기념하도록 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라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현신성불에 관한 구체적인 신앙 시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일찍이 신라불교 초전부터 강조해 온 신라불국토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 두 사람의 수행자가 출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처자를 데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표현은 신라사회에 생활불교가 자연스럽게 수용되

있던 상황을 말해준다. 엄격한 출가생활이 아닌 또 다른 출가자의 삶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리고 미륵과 미타를 구하여 수행하고 성불하였고 후일 금당과 강당에 미륵과 미타를 각각 봉안하였다는 것은 신라 법상종의 신앙 경향과 같은 것이다. 720년 경의 감산사(甘山寺) 조상 사례와 8세기 중반의 진표(眞表)의 신행 활동과 비교하면 이들보다 먼저 709년에 성불 설화가 이루어지고 8세기 중반에 절이 창건되고 불상이 봉안되어 감산사와 진표의 신앙 사례를 종합하여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시점이 된다. 다만 이 자료는 미륵과 미타의 현신성불에 관음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이 달라서 여러 신앙의 복합적인 양상을 확인해준다.

자료는 「백월산 양성 성도기」를 들고 있으며 곳곳에서 향전과 대비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연은 끝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관음이 두 사람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상황 설정으로 내보인 실마리를 미묘한 뜻이라고 의미 깊게 해석하고 있다. 신라에서 미륵과 미타와 관음이라는 대표적인 신앙의 복합 양상과 현실성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역주]

남백월산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백월산양성성도기(白月山兩聖成道記)」에는 “백월산(白月山)⁵²⁵⁾은 신라

525) 백월산(白月山):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과 동읍의 경계에 있는 산. 3개의 봉우리가 있어 삼산(三山) 또는 화산(花山)이라고 부르는데, 그중 동쪽 봉우리에 사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한 사자암(獅子岩)이 있다. 백월산은 창원도호부 북쪽 25리 지점에 있고, 사자암은 백월산 남쪽에 있는데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수도하던 곳이라고 전해 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昌原都護府 山川 白月山 및 古蹟 獅子巖)

구사군(仇史郡)⁵²⁶⁾〈옛날의 굴자군(屈自郡)이며 지금의 의안군(義安郡)이다〉의 북쪽에 있다. 산봉우리가 기이하고 빼어났으며, 그 길이가 수백 리에 뻗었으니 참으로 큰 진산(鎭山)이다.”라고 하였다.

옛 노인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당나라 황제가 일찍이 못을 하나 뚫는데, 매월 보름 전날이면 달빛이 밝아지면서 못 가운데에 산이 하나 생겨났다. 바위가 사자와 같고 은은하게 꽃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가 못 가운데에 나타났다. 황제가 화공에게 그 형상을 그리게 하고, 사신을 보내 천하에서 두루 찾게 하였다. (사신이) 해동(海東)에 이르러 이 산을 보니, 큰 사자바위(獅子岩)⁵²⁷⁾가 있었다. 산의 서남쪽 2보쯤 되는 곳에 삼산(三山)이 있는데, 그 이름이 화산(花山)〈그 산은 몸체는 하나지만 봉우리가 셋이므로 삼산이라 한다〉으로 그림과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신 한 짝을 사자바위의 꼭대기에 걸어놓고 사신이 돌아와서 아뢰었더니 신발의 그림자가 역시 연못에 나타났다. 황제는 이를 이상히 여겨 산 이름을 백월산이라 지어서 내렸더니〈보름 전에 흰 달의 그림자가 나타나므로 그렇게 이름지은 것이다〉그 후에는 연못 가운데에 그림자가 없었다.”고 하였다.

526) 구사군(仇史郡):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 금관가야 지역이었으나 신라에 병합되어 구사군 또는 굴자군(屈自郡)이 설치되었다. 통일신라 때는 757년(경덕왕 16)에 양주(良州) 관할 내의 의안군(義安郡)으로 이름을 바꾸어 칠제현(漆隄縣, 漆吐縣)과 합포현(合浦縣, 骨浦縣)과 웅신현(熊神縣, 熊只縣)의 3개 영현으로 구성되었다가 고려에 들어 1018년(현종 9)에 의안군과 3개의 영현이 모두 금주(金州, 지금의 김해)의 속군·속현이 되었고, 조선에 들어 1408년(태종 8)에 의안현이 이름을 바꾼 의창현과 회원현을 합쳐 창원부(昌原府)가 되었다.(『삼국사기』 권34 지리지 義安郡; 『고려사』 권57 지리지 金州;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昌原都護府)

527) 사자바위(獅子岩): 창원도호부 북쪽 25리 지점에 있는 백월산의 남쪽에 있는 바위.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수도하던 곳이라고 전해왔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昌原都護府 古蹟 獅子巖)

南白月二聖人 努盼不得 恒恒朴朴

白月山兩聖成道記云, “白月山, 在新羅仇史郡之北〈古之屈自郡, 今義安郡〉. 峰巒奇秀, 延袤數百里, 眞巨鎮也.”

古老相傳云, “昔唐皇帝嘗鑿一池, 每月望前, 月色滉朗, 中有一山, 崑石如師子, 隱映花間之影, 現於池中. 上命畫工圖其狀, 遣使搜訪天下. 至海東見此山, 有大師子崑. 山之西南二步許有三山, 其名花山〈其山一體三首, 故云三山〉, 與圖相近. 然未知眞僞, 以隻履懸於師子崑之頂, 使還奏聞, 履影亦現池. 帝乃異之, 賜名曰白月山〈望前白月影現, 故以名之〉, 然後池中無影.”

이 산의 동남쪽 3천 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仙川村)이 있는데,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노힐부득(努盼夫得)〈득(得)은 등(等)이라고도 쓴다〉이니 그의 아버지는 월장(月藏)이요, 어머니는 미승(味勝)이었다. 한 사람은 달달박박(怛怛朴朴)인데 그의 아버지는 수범(修梵)이요, 어머니는 범마(梵摩)였다.⁵²⁸⁾ 〈향전(鄉傳)에 치산촌(雉山村)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두 사람의 이름은 신라말⁵²⁹⁾인데, 두 집에서 각각 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높고 절개가 굳으라는 두 가지 뜻에서 지은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풍채와 골격이 범상하지 않았고 속세를 초월하는 높은 생각이 있어 서로 벗으로서 잘 지냈다. 나이 모두 스물이

528) 여기서는 미륵불을 구하여 수도한 부득의 부모 이름은 월장(月藏)과 미승(味勝)이고, 아미타불을 구하여 수도한 박박의 부모 이름은 수범(修梵)과 범마(梵摩)라고 하였다. 경전에 의하면 미륵의 부모는 수범마(修梵摩)와 범마발제(梵摩拔提)이고(『彌勒大成佛經』), 미타의 부모는 월산전륜성왕(月山轉輪聖王)과 수승묘안(殊勝妙顏)이다(『鼓音聖王陀羅尼經』). 여기에는 경전과 반대로 되어 있다. 이 편에 인용된 마을에 전하는 기록에는 이들이 수도하기 위해 거처하던 곳을 반대로 전하고 있어 기록이 전해 내려오면서 뒤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529) 원문에 방언(方言)이라고 한 것은 당시 신라말을 의미한다.

되자 마을 동북쪽의 고개 밖 법적방(法積房)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얼마 후 서남쪽의 치산촌 법종곡(法宗谷) 승도촌(僧道村)에 옛 절이 있는데 정신을 수련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가서 대불전(大佛田)과 소불전(小佛田) 두 마을에서 각자 살았다. 부득은 회진암(懷眞庵)에서 살았는데, 혹은 양사(壤寺)〈지금의 회진동(懷眞洞)에 옛 절터가 있으니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박박은 유리광사(琉璃光寺)⁵³⁰⁾〈지금 이산(梨山) 위에 절터가 있으니 이것이다〉에 살았다. 모두 처자를 데리고 와서 살면서, 산업을 경영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정신을 수련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속세를 떠날 생각은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육신과 세상의 무상함을 관조하고는 서로 말했다. “기름진 땅과 풍년 든 해는 참으로 좋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을 따라 생겨서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고, 부녀와 집이 참으로 좋지만, 연화장세계(蓮花藏世界)⁵³¹⁾에서 많은 성인들과 함께 놀고 앵무새, 공작새와

530) 유리광사(琉璃光寺): 경상남도 창원시 백월산(白月山)에 있었던 절.

531) 연화장세계(蓮花藏世界): ㉠ padmagarbha-lokadhātu, 화장세계(華藏世界), 화장계(華藏界)라고도 한다. 비로자나불이 과거에 발원하고 보살행을 닦아 성취한 청정장엄세계로서 공덕이 무량하고 광대장엄한 세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커다란 연꽃으로 되었는데, 그 속에 모든 국토와 만물을 간직하였기에 연화장세계라 한다. 『화엄경』 화장세계품에 의하면, 수미산 맨 위의 풍륜(風輪)에 향수해(香水海)가 있고 그 속에 커다란 연꽃이 있는데, 연화장세계가 그 연꽃 안에 있다고 한다. 주위로는 금강륜산(金剛輪山)이 둘러싸고 대지는 금강으로 이루어져 견고하고 청정하며 평평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있다고 한다. 연화장세계의 중앙 향수해에서 나는 대연화는十方세계를 널리 비치는 중심이며 부처가 그 안에서 나고 중생이 그 사이를 가득 채워 그 장엄한 구조는 크고 넓어 끝이 없다고 하였다. 또 『법망경』에 의하면 노사나불이 천개의 것으로 된 연화대에 앉아 있는데, 천 잎 하나하나가 한 세계이며, 거기에 노사나불로부터 화현한 천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고, 다시 하나의 세계마다 백

서로 즐기는 것만 못하다. 하물며 불도를 배우면 마땅히 부처가 되어야 하고 참된 것을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함에 있어서라. 지금 우리들은 이미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마땅히 엷히고 맺힌 번뇌⁵³²⁾를 벗어나 버리고 위 없는 도(無上道)⁵³³⁾를 이루어야 한다. 어찌 풍진(風塵)⁵³⁴⁾에 빠져서 세속의 무리들과 다름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드디어 인간 세상을 버리고, 장차 깊은 골짜기에 숨으려고 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백호(白毫)⁵³⁵⁾의 빛이 서쪽에서부터 비추고, 빛 가운데서 금색의 팔이 드리워 두 사람의 이마를 만져주었다. 잠을 깨어 꿈을 이야기하니 두 사람이 서로 꼭 같으므로 함께 오랫동안 감탄하였다.

드디어 백월산 무등곡(無等谷)(지금의 남동(南洞)이다)으로 들어갔다. 박박(朴朴)스님은 북쪽 고개의 사자암을 차지하고 판잣집 여덟자 방을 지어 살았으므로 판방(板房)이라 하였다. 부득(夫得)스님은 동쪽 고개의 돌무더기 아래 물 있는 곳을 차지하고 역시 사방 여덟자 방을 만들어 살았으므로 뇌방(磊房)이라 하였다.(마을에 전하는 기록에는 부득이 산 북쪽 유리동(瑠璃洞)에 살았는데 지금의 판방이고, 박박은 산 남쪽 법정동(法精洞)의 뇌방에 살았다 하니 이 기록과는 서로 반대된다. 지금 살펴보면 마을에 전하는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각각 다른 암자

역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

532) 몸에 엷매인 것 : 전결(纏結)은 엷히고 맺힌 것 곧 번뇌를 말한다.

533) 위 없는 도(無上道) : 최상의 비할 데 없는 큰 도인 불도(佛道)를 말한다.

534) 풍진(風塵) : 바람과 티끌, 곧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을 말한다.

535) 백호(白毫) : 毖 ūṇa-lakṣaṇa. 부처님의 상서로운 형상을 상징하는 32상 중의 하나로 두 눈썹 사이에 있는 빛나는 가는 털을 가리킨다. 펴면 길이가 한 길이나 되며 놓으면 오른쪽으로 돌아 말려 소라모양처럼 되는데, 빛깔이 선명한 흰색으로 빛나고 깨끗하여 진주와 같다고 한다. 태양의 정중앙과 같이 광명을 발산하여 이를 백호광(白毫光)이라 부른다. 중생들이 이 빛을 만나면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몸과 마음이 안락해진다고 한다.

에 살면서, 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彌勒佛)⁵³⁶을 구하였고, 박박은 아미타불(阿彌陀佛)⁵³⁷을 예배하고 염송(念誦)하였다.

山之東南三千步許，有仙川村，村有二人。其一曰努勝夫得(一作等)，父名月藏，母味勝。其一曰怛怛朴朴，父名修梵，母名梵摩(鄉傳云雉山村，誤矣。二士之名方言，二家各以二士，心行騰騰苦節二義名之爾)。皆風骨不凡，有域外遐想，而相與友善。年皆弱冠，往依村之東北嶺外法積房，剃髮爲僧。

536) 미륵불(彌勒佛) : ㉠ Maitreya, 미륵은 브라만 집안에서 출생하여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여 보살로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다고 한다. 미륵보살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처음 발심할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자씨(慈氏)보살로 부른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하였는데 그 수명이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만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이런 경설에 따라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미륵상생 신앙과, 미륵이 부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미륵하생 신앙의 두 가지 신앙이 있게 된다. 미륵신앙은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의 세 경전이 중심이 된다.

537) 아미타불(阿彌陀佛) : ㉠ Amita-buddha, 무량수불(無量壽佛), 서방 정토(西方淨土)에 있으면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들은 모두 서방정토에 태어나게 한다는 부처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어에 두 가지가 있어 ㉠ Amitāyus는 무한한 수명이라는 뜻으로 무량수(無量壽)로 번역되고, ㉠ Amitābha는 한량없는 빛이라는 뜻으로 무량광(無量光)으로 번역된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과거 오랜 옛날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 시대에 한 국왕이 위없는 도심을 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법장(法藏)비구라 하고 부처 아래서 수행하여 48원을 내고 공덕을 쌓아 아미타불이 되어, 여기서 10만억 불토 떨어진 서방에서 극락정토(極樂淨土)을 이루었다. 지금도 설법하고 있으면서 염불하는 이들을 서방정토로 왕생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토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 중심 경전은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아미타경(阿彌陀經)』의 미타삼부경(彌陀三部經)이 있다.

未幾聞西南雉山村法宗谷僧道村有古寺，可以栖眞，同往大佛田小佛田二洞，各居焉。夫得寓懷眞庵，一云壤寺（今懷眞洞有古寺基，是也）。朴朴居瑠璃光寺（今梨山上有寺基，是也）。皆挈妻子而居，經營產業，交相來往，棲神安養，方外之志，未常暫廢。觀身世無常，因相謂曰，“腴田美歲良利也，不如衣食之應念而至，自然得飽煖也。婦女屋宅情好也，不如蓮池華藏千聖共遊，鸚鵡孔雀以相娛也。況學佛當成佛，修真必得眞。今我等旣落彩爲僧，當脫略纏結，成無上道。豈宜汨沒風塵，與俗輩無異也？”

遂唾謝人間世，將隱於深谷。夜夢白毫光自西而至，光中垂金色臂，摩二人頂。及覺說夢，與之符同，皆感嘆久之。

遂入白月山無等谷（今南洞也）。朴朴師占北嶺師子崑，作板屋八尺房而居，故云板房。夫得師占東嶺磊石下有水處，亦成方丈而居焉，故云磊房（鄉傳云，夫得處山北瑠璃洞，今板房。朴朴居山南法精洞磊房，與此相反。以今驗之，鄉傳誤矣）。各庵而居，夫得勤求彌勒，朴朴禮念彌陀。

3년이 채 못된 경룡(景龍)⁵³⁸⁾ 3년(709) 기유년 4월 8일은 성덕왕(聖德王)⁵³⁹⁾ 즉위 8년이였다. 날이 저물려고 하는데, 나이 스무 살쯤 되고 아름다운 자태를 한 낭자가 난(蘭) 향기와 사향(麝香)을 풍기면서 갑자기 북암(北

538) 경룡(景龍): 당나라 중종(中宗)의 연호. 707~709년. 신라 성덕왕 6~8년.

539) 성덕왕(聖德王): 신라 제33대 왕. 재위 702~737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유학을 장려하고, 재위 기간에 약 43회의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였다. 정전(丁田)제를 실시하였고, 패강(溟江) 이남의 땅을 신라의 판도로 확정하였다. 4-6 주177) 참조.

庵)〈향전에는 남암이라고 하였다〉에 와서 자고 가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시를 지었다.

가는 길에 해가 지니 첩첩 산이 저물고

길은 막히고 마을은 멀어 이웃도 없네

오늘 암자에서 자고 가려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박박은 “난야(蘭若)⁵⁴⁰⁾는 청정함을 지키는 것을 일로 삼으니, 그대가 가까이 올 곳이 아니요. 갈 길을 이곳에서 지체하지 마시오.” 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기록에서는 “나는 모든 잡념이 재처럼 식었으니, 혈낭(血囊)⁵⁴¹⁾으로 나를 시험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낭자는 남암(南庵)〈향전에서는 북암이라고 하였다〉으로 가서 또 앞서와 같이 청했다. 부득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디에서 이 밤중에 왔소?” 라고 하였다. 낭자가 대답하기를, “맑고 고요하기가⁵⁴²⁾ 태허(太虛)⁵⁴³⁾와 같은데, 어찌 오고 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진 대사께서 뜻과 서원이 깊고 장중하며 덕행이 높고 굳다는 것을 듣고 장차 보리(菩提)⁵⁴⁴⁾를 이루는 것을 돕고자

540) 난야(蘭若) : ㉠ aranya, 아란야(阿蘭若)의 약칭. 출가한 사람이 수행하면서 거처하기에 적당한 궁벽하고 조용한 장소를 뜻하는 말로, 뜻에 따라 원리처(遠離處) 또는 적정처(寂靜處)로 번역하기도 한다. 마을에서 1크로샤(㉡ krośa, 俱盧舍, 큰 소의 울음이나 북 소리가 들리는 거리를 말함. 대략 약3600자 정도의 거리) 떨어져 수행에 적합한 공간을 말한다. 곧 출가인과 재가인이 출입하기에 편한 한적한 교외에 있는 사원을 말한다. 후대에는 일반적인 사원이나 정사를 아란야라고 하기도 하였다.

541) 혈낭(血囊) : 여자의 음문.

542) 원문의 잠연(湛然)은 맑고 고요한 모양을 가리킨다.

543) 태허(太虛) : 공허하고 정적인 경지, 곧 우주의 근원을 말한다.

544) 보리(菩提) : ㉢ bodhi, 각(覺)·지(智)·지(知)·도(道)라고 번역한다. 세상의 번뇌를 끊고 열반의 지체를 성취하는 것으로, 부처와 연각(緣覺)·성문(聲聞) 등이

합니다.” 하고는 계송(偈頌)⁵⁴⁵⁾ 한 수를 지었다.

해는 저물고 산길은 첩첩인데
가도가도 인가는 보이지 않네
소나무 대나무 그들은 더 깊고
시냇물 소리는 오히려 새롭네
묵기를 청함은 길을 잃음이 아니라
높으신 스님께 길을 알려주려 할 뿐
원컨대 제 청만 들어주시고
또 누구냐고는 묻지 마소서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놀라 말하기를, “이곳은 부녀가 더럽힐 곳이 아님니다만 그러나 중생을 따르는 것도 또한 보살행(菩薩行)⁵⁴⁶⁾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깊은 산골짜기에 밤이 어두우니 어찌 모른 체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는 이에 읊하여⁵⁴⁷⁾ 맞아들이고 암자 안에 머물게 하였다.

과보에 따라 얻은 깨달음의 지혜이다.

545) 계송(偈頌) : ṣ gāthā. 부처가 설한 법문을 서술 형식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9부교(九部敎) 또는 12부경(十二部經)의 하나인 가타(伽陀)를 번역하여 계(偈)라 하고, 풍송(諷誦)·계송(偈頌) 또는 고기송(孤起頌) 등으로도 번역한다. 넓은 의미로는 노래나 성가(聖歌)를 뜻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교설의 단락이나 경문(經文)의 끝에 앞뒤 글과 관련있게 시로 읊어 매듭짓는 것을 말한다. 곧 운문(韻文) 형태의 글을 말한다. 같은 운문이지만 중송(重頌, 祇夜)이 긴 문장의 내용을 거듭 운문으로 설한 것인데 비해 계송은 앞 문장을 그대로 다시 운문으로 읊는 것이 아니므로 고기송이라고 구분한다.

546) 보살행(菩薩行) : 위 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대승 수행자인 보살이 위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자비로 중생을 교화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6바라밀을 비롯한 여러 바라밀을 수행하여 미래에 불과(佛果)를 성취하려는 수행자가 행하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가 원만한 행이다.

547) 읊(拈) : 손을 맞잡고 예의를 갖추는 인사를 말함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행동을 가다듬으며 희미한 등불이 비치는 방에서 편안하게 엽불하고 있었다.⁵⁴⁸⁾ 이윽고 밤이 끝나 가는데 남자가 불려 말하기를, “제가 불행히도 마침 해산 기운이 있으니, 스님께 서 좌자리를 좀 준비해주시시오.” 라고 하였다. 부득은 불쌍히 여겨 거절하지 못하고 불을 밝혀 은은하게 하였더니 남자가 벌써 해산하고 또 목욕하기를 청하였다. 부득은 마음 속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였으나 가엾은 마음이 더욱 커져서 또 목욕통을 준비하여 남자를 그 안에 앉히고 물을 끓여 목욕시켰다. 얼마 후에 통 안의 물에서 향기가 강하게 풍기고 물이 금빛 물로 변하였다. 부득이 크게 놀라니, 남자가 말하기를, “우리 스님께서도 여기에서 목욕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부득이 마지못해 그 말에 따랐더니, 문득 정신이 상쾌해지고 살결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깨달았다. 옆을 보니 문득 한 연화대(蓮花臺)⁵⁴⁹⁾가 생겨났고, 남자는 거기에 앉기를 권하며 말하기를, “나는 관음보살(觀音菩薩)⁵⁵⁰⁾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大師)가 대보리(大菩提)를 이루도록 도운 것입니다.” 하고는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박박은 생각하기를, “부득이 오늘 밤에 반드시 계를 더럽혔을 것이니 내

548) 원문의 엽엽(厭厭)은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549) 연화대(蓮花臺): 부처나 보살이 앉는 자리. 연꽃이 더러운 데서 나왔으나 더러운데 물들지 않고 청정한 덕을 상징하여 부처나 보살이 혼탁한 중생 세상에 살지만 청정한 것을 비유하여 그 자리를 말한다. 『법망경』 같은 경전에서 부처가 연화대에 앉아 공덕이 한 없이 크고 장엄한 세상을 열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550) 관음보살(觀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고난에 처한 중생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고난에서 구제해 준다는 데서 유래하여 관음 신앙을 형성하였다. 『화엄경』의 내용에 따라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낙산처럼 자신의 국토에 관음이 사는 보타락가산을 설정하였다. 4-12-1 주290) 참조.

가 가서 그를 비웃어주리라.” 하고 이르렀더니 부득이 연화대에 앉아 미륵 존상(彌勒尊像)이 되어 광명을 발하고 몸은 금빛⁵⁵¹⁾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고 예를 드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 부득이 그 연유를 자세히 말하였다. 박박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는 업장(業障)이 무거워 다행히 대성(大聖)을 만나고도 도리어 만나지 못한 것이 되었네. 대덕(大德)은 지극히 인자하여 나보다 먼저 뜻을 이루었으니, 부디 옛날의 약속을 잊지 말고 일을 부디 함께 했으면 하네.” 하니 노힐이 말하기를, “통에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할 수 있네.” 하였다. 박박도 목욕을 하였더니 또한 앞서처럼 무량수불(無量壽佛)⁵⁵²⁾이 되었고, 두 존상이 서로 엄숙하게 마주 대하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투어 와서 우러러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참 드물고 드문 일이다” 라고 하였다. 두 성인은 법요를 설해주고 온몸으로 구름을 타고 갔다.

未盈三載，景龍三年己酉四月八日，聖德王卽位八年也。日將夕，有一娘子年幾二十，姿儀殊妙，氣襲蘭麝，俄然到北庵(鄉傳云南庵)，請寄宿焉。因投詞曰，“行逢日落千山暮，路隔城遙絕四隣。今日欲投庵下宿，慈悲和尚莫生嗔。”朴朴曰，“蘭若護淨爲務，非爾所取近。行矣無滯此處。”閉門而入(記云，我百念灰

551) 단금(檀金)은 염부단금(閼浮檀金)의 약칭으로 금빛을 말한다. 염부단금(ṣambhūnada-suvarṇa)은 향취산(香醉山)과 설산(雪山) 사이를 흘러 염부나무 사이를 지나는 강물에서 나는 사금(砂金)인데 이 사금은 윤택하고 적황색을 띠어 금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 인도 신화에서 염부강은 강가강의 7개의 지류 중의 하나라고 했으나 실제로 이 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염부단금은 수미산 사대주 설화와 함께 상상 속의 이야기로 말해진다.

552) 무량수불(無量壽佛):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번역하여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 한다.

冷, 無以血囊見試》. 娘歸南庵(傳曰北庵), 又請如前. 夫得曰, “汝從何處, 犯夜而來?” 娘答曰, “湛然與太虛同體, 何有往來? 但聞賢士志願深重, 德行高堅, 將欲助成菩提.” 因投一偈曰, “日暮千山路, 行行絕四隣. 竹松陰轉邃, 溪洞響猶新. 乞宿非迷路, 尊師欲指津. 願惟從我請, 且莫問何人.” 師聞之驚駭, 謂曰, “此地非婦女相污, 然隨順衆生, 亦菩薩行之一也. 況窮谷夜暗, 其可忽視歟?” 乃迎揖庵中而置之.

至夜清心礪操, 微燈半壁, 誦念厭厭. 及夜將艾, 娘呼曰, “予不幸適有產憂, 乞和尚排備苦草.” 夫得悲矜莫逆, 燭火殷勤. 娘既產, 又請浴. 弩盼慚懼交心, 然哀憫之情有加無已, 又備盆槽, 坐娘於中, 薪湯以浴之. 既而槽中之水, 香氣郁烈, 變成金液. 弩盼大駭, 娘曰, “吾師亦宜浴此.” 盼勉強從之, 忽覺精神爽涼, 肌膚金色. 視其傍忽生一蓮臺, 娘勸之坐, 因謂曰, “我是觀音菩薩, 來助大師, 成大菩提矣.” 言訖不現. 朴朴謂, “盼今夜必染戒, 將歸听之.” 既至, 見盼坐蓮臺, 作彌勒尊像, 放光明, 身彩檀金. 不覺扣頭而禮曰, “何得至於此乎?” 盼具叙其由, 朴朴嘆曰, “我乃障重, 幸逢大聖, 而反不遇. 大德至仁, 先吾著鞭. 願無忘昔日之契, 事須同攝.” 盼曰, “槽有餘液, 但可浴之.” 朴朴又浴, 亦如前成無量壽, 二尊相對儼然. 山下村民聞之, 競來瞻仰, 嘆曰, “希有希有.” 二聖爲說法要, 全身躡雲而逝.

천보(天寶)⁵⁵³⁾ 14년(755)⁵⁵⁴⁾ 을미년에 신라 경덕왕(景德王)⁵⁵⁵⁾이 즉위하

553) 천보(天寶):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 742~756년. 신라 경덕왕 원년~15년.

여⁵⁵⁶⁾〈고기(古記)에는 천감(天鑑)⁵⁵⁷⁾ 24년 을미년에 법흥왕(法興王)⁵⁵⁸⁾이 즉위하였다고 했는데, 어찌 앞뒤의 뒤바뀜이 이보다 심할 수 있을까?〉이 사실을 듣고 정유년(757)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⁵⁵⁹⁾라고 하였다. 광덕(廣德)⁵⁶⁰⁾ 2년(764)⁵⁶¹⁾〈고기에는 대력(大曆)⁵⁶²⁾ 원년(766)이라 하였는데 또한 잘못이다〉갑진년 7월 15일에 절이 완성되었다. 다시 미륵존상을 빚어 금당에 모시고, 편액을 ‘현신성도미륵지전(現身成道彌勒之殿)’이라고 하였다. 또 미타상을 빚어 강당에 모셨는데 남은 금물이 모자라서 두루 바르지

554) 천보 14년 곧 755년은 신라 경덕왕 14년

555) 경덕왕(景德王): 신라 제35대 왕. 재위 742~765. 왕권 안정을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시행하고 9주(州)·5소경(小京)·117군(郡)·293현(縣)을 정비하였다. 754년에 황룡사종을 주조하고, 불국사(佛國寺)와 석불사(石佛寺)와 굴불사(掘佛寺) 등을 창건하였다. 4-7 주188) 참조

556) 천보 14년(755)은 경덕왕 14년이 된다. 그러므로 “천보 14년 을미년인 신라 경덕왕 14년”이라고 하여 14년을 보완하거나 “천보 14년 을미년에 신라 경덕왕이”라고 하여 즉위를 빼거나 해야 바른 표현이 된다.

557) 천감(天鑑): 이 연호는 없는 연호이다. 양 무제가 사용한 천감(天監, 502~519) 연호를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경우 천감 24년이 아니고 14년이어야 한다. 법흥왕(法興王)이 즉위한 해는 천감 13년인 514년이므로 천감 14년인 515년과 1년의 차이가 있지만,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없어진다.

558) 법흥왕(法興王): 신라 제23대 왕. 재위 514~540년. 병부(兵部)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확립하고, 율령(律令)을 반포하여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다. 527년에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본가야(本伽倻)를 병합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4-3 주80) 참조.

559)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 지금은 남백사(南白寺) 유적으로 불린다. 경남 창원시 북면 북계리 백월산 북쪽 기슭에 있는데 삼층석탑과 마애불상 등 유적과 건물터가 남아 있다.

560) 광덕(廣德): 당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763~764년. 신라 경덕왕 22~23년.

561) 광덕 2년 곧 764년은 신라 경덕왕 23년

562) 대력(大曆): 당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766~779년. 신라 혜공왕 2~15년.

못했기 때문에 미타상에는 역시 얼룩진 흔적이 있다. 그 편액은 ‘현신성도 무량수전(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고 하였다.⁵⁶³⁾

天寶十四年乙未, 新羅景德王卽位〈古記云, 天鑑二十四年乙未法興卽位, 何先後倒錯之甚如此?〉, 聞斯事, 以丁酉歲遣使, 創大伽藍, 號白月山南寺. 廣德二年〈古記云, 大曆元年, 亦誤.〉甲辰七月十五日, 寺成. 更塑彌勒尊像, 安於金堂, 額曰, 現身成道彌勒之殿. 又塑彌陀像安於講堂, 餘液不足, 塗浴未周, 故彌陀像亦有斑駁之痕. 額曰, 現身成道無量壽殿.

논의하여 말한다. 남자는 부녀의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였⁵⁶⁴⁾고 할 수 있다. 『화엄경(華嚴經)』⁵⁶⁵⁾에 보면, “마야부인(摩耶夫人)⁵⁶⁶⁾

563) 신라시대에 법상종 사찰에서는 미륵불을 금당(金堂)에 모시고, 아미타불을 강당(講堂)에 모시는 것을 전통으로 하였다. 이후 고려시대 법상종 사찰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현종(顯宗) 대 창건한 현화사(玄化寺) 등에서도 같은 가람배치를 보인다.

564) 원문의 섭화(攝化)는 중생을 섭수(攝受)하여 교화(教化)한다는 말이고 섭수는 부처가 자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565) 『화엄경(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㉔ Buddhāvataṃsaka-mahāvaiṣṭya-sūtra, 잡화경(雜花經)이라고도 한다.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석존이 깨달은 지 이칠일째에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자나불을 설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이라 한다. 내용은 부처가 되는 인행(因行)과 과덕(果德)을 설한 것으로 십지(十地)를 비롯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수행 계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부인 입법계품은 선재동자 보살행을 묻고자 53 선지식을 찾아 구도 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거듭되며 끝없이 전개되는(重重無盡) 결림 없는 연기(緣起)의 세계를 드러낸다. 이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엄과 법장과 정관을 거치며 중국 화엄종이 형성되고 발전하여 화엄사상은 중국 교학불교의 가장 빼어난 사상이 되었다. 현재 산스크리트어본은 전체가 알려지지 않고 십지품과 입법계품 등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전체

선지식(善知識)⁵⁶⁷⁾이 십일지(十一地)⁵⁶⁸⁾에 살면서 부처를 낳은 것이 환해탈문(幻解脫門)⁵⁶⁹⁾과 같다”⁵⁷⁰⁾고 하였다. 이제 남자가 순산한 그 미묘한 뜻

적인 경전의 구성은 대체로 서역지방에서 종합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본은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동진시대에 번역한 60화엄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당대에 번역한 80화엄, 반야(般若)가 당대 후반에 번역한 40화엄 등 세 가지가 있다.

566) 마야부인(摩耶夫人) : ㉔ Mahāmāyā. 석가모니의 모친. 카필라국 정반왕(Śuddhodana)의 비로 해산하기 위해 친정인 천비성으로 가던 중 부친 수보리의 별궁인 룸비니(Lumbini) 동산에서 휴식하다 왕자 싯달타를 낳고 7일 만에 죽었다. 죽은 후에 도리천에 태어나서 석존은 훗날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하였다고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60화엄 권57, 80화엄 권76)에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순례하는 도중에 41번째로 만난 이가 바로 마야부인이다.

567) 선지식(善知識) : ㉔ kalyāṇamitra. 정직하게 가르치고 덕행을 가졌으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지식(知識)·선우(善友)·승우(勝友)라고도 한다. 『반야경』에서는 공이나 무상 등의 법을 설하여 사람들이 기쁘고 믿음을 내게 하는 이를 말한다.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가 구도행을 하는 도중에 만나는 53 선지식을 말하는데, 위로는 불보살에서부터 아래로는 천이나 인간에 이르기까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중생이 악을 버리고 선을 닦도록 하여 불도에 이끄는 사람을 말한다.

568) 십일지(十一地) : 등각(等覺)을 말한다.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階位)를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의 52위로 나눌 때(『보살영락경』에 따름. 『화엄경』에서는 십신과 이 없고 등각과 묘각을 불지 하나로 말하여 41위가 됨.) 등각이 십지 다음이므로 이렇게 말한다. 등각(等覺)은 보살의 수행이 부처의 깨달음과 같다 하여 등정각(等正覺)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부처보다 한 단계 낮추어서 등각이라 한다. 여기서는 『화엄경』에서 마야부인이 53선지식의 41번째에 등장하는 것과 연관시켜 말할 것이다.

569) 환해탈문(幻解脫門) : 마야부인(摩耶夫人)이 성취한 법문. 『화엄경』에는 53선지식이 각자 해탈문을 성취하여 이를 선재동자에게 설하고 있는데, 입법계품(80화엄 권76)에는 마야부인이 대서원과 지혜가 환술과 같은 해탈문(大願智幻解脫門)을 성취하여 일체 보살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다.

570) “불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환술과 같은 해탈문을 성취하였으

도 여기에 있다.⁵⁷¹⁾ (그녀가) 지은 글을 보면 애절하고 부드러우며 사랑스러워 완전히 하늘 신선의 취향이 있다. 아! 남자가 중생에 따르는 것과 다라니(陀羅尼)⁵⁷²⁾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끝 구절은 마땅히 ‘맑은 바람이 한 자리함을 꾸짖지 마소서’ 라고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세속의 말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찬한다.

푸른빛 바위 앞에 문 두드리는 소리
누가 날 저문데 구름 사립문 두드리나
남암이 가까우니 그곳으로 갈 것이지
푸른 이끼 났아서 내 뜰 더럽히지 마오
이것은 복암을 기린 것이다.

글짜기는 어두운데 어디로 가리

므로 항상 여러 보살의 어머니가 되노라.”(佛子 我已成就菩薩大願智解脫門, 是故常爲諸菩薩母. 『華嚴經』 권76, 大 10-415c16. 60화엄에서는 智幻法門이라 함. 『華嚴經』 권57, 大 10-764a19)

- 571) 남자의 도움으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미륵불과 미타불이 된 것을 마야부인이 제불의 어머니가 된다고 한 것에 비긴 것이다.
- 572) 다라니(陀羅尼): 𑖀𑖔 dhāraṇī. 총지(總持)·능지(能持)·능차(能遮)로 번역된다. 무량한 불법을 모두 거두어 기억하여 지니므로 총지(總持)라고 하고, 악한 법을 모두 막아주어서 능차(能遮)라고 한다. 법문의 한 글 한 뜻을 기억하여 일체법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무량한 불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라니는 여러 가지 좋은 법을 지녀 악법을 막아주므로 보살이 중생을 위하고 교화할 때 반드시 이 다라니를 얻어야 대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법을 설할 수 있다고 한다. 후대에 들어 다라니의 형식이 주문과 비슷해져 혼동하므로 주문(呪)도 다라니로 함께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구가 한 두자인 것을 종자(種子), 짧은 것을 진언(眞言)이라 하고 긴 것을 다라니라고 한다.

남창(南窓) 자리에 머물다 가오
 깊은 밤에 백팔염주⁵⁷³⁾ 부지런히 굴리니
 다만 소란하여 길손 잠 못 들까 하노라
 이것은 남암을 기린 것이다.

십리 소나무 그늘에 오솔길 헤매어
 스님 찾아 시험하러 밤 절간⁵⁷⁴⁾에 왔네
 세 통에 목욕 끝나 날 밝으려 하니
 두 아이 낳아 놓고 서쪽으로 갔구나
 이것은 성인 낭자를 기린 것이다.

議曰, 娘可謂應以婦女身攝化者也. 華嚴經摩耶夫人善知識,
 寄十一地生佛如幻解脫門. 今娘之桷產, 微意在此. 觀其投詞,
 哀婉可愛, 宛轉有天仙之趣. 嗚呼! 使娘婆不解隨順衆生語言
 陀羅尼, 其能若是乎! 其末聯宜云, ‘清風一榻莫予嗔.’ 然不
 爾云者, 蓋不欲同乎流俗語爾.

讚曰, 滴翠崑前剝啄聲. 何人日暮扣雲扃. 南庵且近宜尋去, 莫
 踏蒼苔汚我庭. 右北庵.

谷暗何歸已暝煙, 南窓有簟且流連. 夜闌百八深深轉, 只恐成

573) 원문의 백팔(百八)은 염주 중에 긴 것으로 백팔번뇌를 상징하는 108개의 구슬로 구성된 염주를 말한다.

574) 원문의 초제(招提, 𠬞 catur-diśā)는 자투제사(柘門提舍) 또는 초투제사(招門提舍)라고 음역한 말의 줄임말이다. 사방(四方)·사방승(四方僧)·사방승방(四方僧房) 등으로 의역한다. 사방에서 모여든 각 방의 여러 승려들이 고루 머물 수 있는 처치를 뜻한다. 그래서 승단(僧團)이 공유하는 물건을 대중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양한다는 의미에서 초제승물(招提僧物)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유하여 승려들이 머무는 곳, 곧 사원을 말한다.

喧惱客眠. 右南庵.

十里松陰一徑迷, 訪僧來試夜招提. 三槽浴罷天將曉, 生下雙
兒擲向西. 右聖娘.

4-16 분황사 천수관음상으로 눈먼 아이가 눈을 뜨다

[해제]

선덕여왕 때 지은 분황사는 신라의 유래 깊은 칠처가람 중의 하나인 중요 사찰이다. 이 편은 이곳에 봉안된 천수관음상의 영험 설화 이야기이다. 경덕왕 때 경주 6부의 하나인 한기부에 사는 여인의 아이가 5살 때 눈이 멀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 천수관음에게 가서 아이에게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를 노래하며 빌도록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현실적인 고난의 현장에서 관음을 찾으면 갖가지 형상으로 나타나 중생들의 바람을 들어준다는 관음신앙은 신라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신앙의 하나였다. 사람들이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갖가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해주며 삼독의 무명에서 해탈하도록 해주는 관음신앙에 더하여 천수관음과 십일면관음 등의 변화관음이 등장하면서 관음신앙의 면모는 더욱 다양해졌다. 이 분황사편은 그런 변화관음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천수관음은 손이 천 개이고 손마다 눈 하나를 가졌으니 눈도 천 개여서 특히 그 자비로운 구제력을 갈구하는 눈먼 이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 희명(希明)의 이름도 광명을 회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편에 실린 도천수대비가는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14수 중에서도 종교적 기원가로서의 구조를 두드러지게 갖추고 있는 대표작으로 평가되어 기도의 경건한 자세, 신격에 대한 청명, 청원, 예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삼국유사』에는 이곳의 천수관음 외에도 경흥이 병을 나았다는 십일면관음 등 변화관음에 대한 다른 신앙 사례

를 찾을 수 있다.

[역주]

분황사⁵⁷⁵⁾ 천수관음상⁵⁷⁶⁾으로 눈먼 아이가 눈을 뜨다

경덕왕(景德王)⁵⁷⁷⁾ 때 한기리(漢歧里)⁵⁷⁸⁾에 사는 여인 희명(希明)의 아이

575) 분황사(芬皇寺):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절.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되었다. 신라에 옛 부처 때의 인연 있는 일곱 절터 중의 하나로 꼽혔던 중요한 절이다. 자장이 귀국하자 머물게 했던 절이며, 7세기 중반에 원효가 활동하며 『화엄경소』를 지었다. 경덕왕 때인 755년에 36만근의 거대한 동제 약사여래상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명화가 솔거(率居)가 그린 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 등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유적이 있던 유서 깊은 절이다. 4-7 주197) 참조.

576) 천수관음상: 천수관음(千手觀音)은 변화관음의 하나. 천수천안관세음보살(千手千眼觀世音菩薩)의 줄임말. 관음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설한 것과 같이 고난에 처한 중생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고난에서 구제해 준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어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신앙의 하나가 되었다. 밀교시대에 이르러 관음의 폭넓은 구제력을 상징하는 여러 변화관음들이 등장하여 손이나 팔 또는 눈이 천 개, 만 개에 이르는 다양한 관음 곧 천수천안관음이나 십일면관음 또는 준제관음·여의륜관음·불공견삭관음 등이 변화 관음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십일면관음이나 천수관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환영을 받아 많은 조상 예가 확인된다. 그림과 조각 등 조상으로는 40개의 팔을 갖고 한 팔마다 한 개의 눈과 상징물을 들고 있으며, 이 한 개의 팔마다 25계를 갖추어 천 개를 이룬다고 한다. 이곳 희명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천 개의 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눈먼 이들의 구도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다.

577) 경덕왕(景德王): 신라 제35대 왕. 재위 742~765 왕권 안정을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시행하고 9주(州)·5소경(小京)·117군(郡)·293현(縣)을 정비하였다. 754년에 황룡사종을 주조하고, 불국사(佛國寺)와 석불사(石佛寺)와 굴불사(掘佛寺) 등을 창건하였다. 4-7 주188) 참조

578) 한기리(漢歧里): 신라의 초기 중심 세력인 진한(辰韓) 6부의 하나인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 신라 유리왕 8년(31) 한기부(漢歧部)로, 고려 태조때 가덕부(加德

가 태어난 지 5년⁵⁷⁹⁾ 되던 해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芬皇寺) 좌전(左殿) 북쪽 벽에 그려져 있는⁵⁸⁰⁾ 천수관음(千手觀音) 앞에 가서 아이에게 노래하며 빌도록 하였더니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⁵⁸¹⁾

무릎을 대며
두 손바닥 모아들여
천수관음(千手觀音) 앞에
빌어 말씀도 드리노라
천 개의 손의 천 개의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
둘 없어진 나라
하나만은 줄까 하고 드리는도다
아아, 나에게 끼치어 준다면
어디에 쓸 자비의 뿌리일까

部)로 고쳤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동천리(東川里)설과 내동면 보문리(普門里) 설등이 있는데, 대체로 천북면 서부에서 현곡면으로 추정되고 있다.

579) 원문의 임(稔)은 벼가 익는 기간 곧 한 해를 뜻한다.

580) 『삼국사기』열전 술거(率居)전(권48)에는 신라의 가장 이름난 화가 술거가 그린 그림으로 황룡사 벽화와 함께 분황사 관음상을 들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하는 영험으로 이름난 천수관음이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술거의 관음상으로 생각된다.

581) 이 향가를 「천수관음에게 비는 노래[禱千手觀音歌]」라고 한다. 그런데 이 노래의 지은이에 대해서 눈먼 5세 아이, 아이의 어머니인 희명, 또는 어느 승려 등이 지은 기도문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곳의 기록을 우선 중시하고, 기원가로서의 일반성과 눈먼 아이가 관음상을 보고 있는 듯한 어법 등을 고려하여 어머니 희명이 널리 전승되던 기도가의 틀을 수용하여 고쳐 아이에게 노래로 부르게 했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노래는 생활에서 우리란 소박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가장 절실하고 경건한 마음을 담은 기원의 노래라고 평가된다.

찬한다.

죽마 타고 파피리 불며 거리에서 놀더니

하루 아침에 두 눈이 멀어버렸네

관음대사께서 자비로운 눈 돌리지 않았다면

버들가지 날리는 봄날⁵⁸²⁾을 몇 번이나 헛되이 지냈으리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景德王代, 漢歧里女希明之兒, 生五稔而忽盲. 一日其母抱兒,
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其詞曰

膝盼古召祢

二尸掌音毛乎支内良

千手觀音叱前良中

祈以支白屋尸置内乎多

千隱手叱千隱目盼

一等下叱放一等盼除惡支

二于萬隱吾羅

一等沙隱賜以古只内乎叱等邪阿邪也

吾良遺知支賜尸等焉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讚曰 竹馬葱笙戲陌塵, 一朝雙碧失瞳人. 不因大士迴慈眼, 虛
度楊花幾社春.

582) 원문의 사춘(社春)은 춘사(春社), 곧 입춘 후 5번째 무일(戊日)을 말하는 것으로, 봄날을 뜻한다.

4-17 낙산의 두 성인-관음보살과 정취보살 그리고 조신

【해제】

관음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낙산에 얹힌 이야기를 모은 편이다. 낙산이라는 이름은 의상이 중국에서 돌아와 관음 진신이 해변 굴 안에 산다는 말을 듣고 이름 붙인 것이라 하였다. 의상은 동해변 굴 안에서 진신을 친견하기 위한 기도를 한 끝에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받고 관음 진용을 친견하여 절을 지으라는 부촉을 받아 낙산사를 창건하였다. 이어 원효가 관음의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왔으나 관음의 변화신을 알아차리지 못해 친견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실었다. 다음에 굴산사를 창건한 신라말의 선사 범일이 중국의 연기 설화와 연관된 정취보살상을 강에서 얻어 낙산 위에 봉안하였다는 이야기를 실었다. 그리고 고려 때의 신앙 사례를 이어 들볼 때도 두 성전이 화를 면했고, 몽고군의 침공 때는 땅 속에 파묻었다가 몽고군이 물러간 후 명주성에 두었다가 서울 궁중으로 옮겨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어 조신의 꿈 이야기를 실었다. 신라 때 영월에 있는 세달사의 장전이 명주에 있었다. 그 관리자로 파견된 조신(調信)이 지방 태수의 딸을 좋아하여 낙산 관음에게 행운을 빌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관음을 원망하며 잠깐 졸게 되었다. 그는 꿈 속에서 그리던 낭자를 만나 부부가 되어 자식 다섯을 낳고 살았으나 살림이 곤궁해져 아이가 굶주려 죽고 고통을 당하였다. 이에 즐거움은 곧 걱정거리의 디딤돌임을 깨닫고 헤어지는 순간에 꿈을 깨고 보니 세상일에 탐내는 마음이 사라졌다. 조신은 직책을 그만두고



낙산 관음굴과 홍련암

자신의 재산으로 정토사를 창건하여 선업을 닦았다고 한다. 일연은 이에 대해 논평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줄만 알고 애쓰는데 이는 꿈을 깨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하며 노래를 읊어 경계하였다. 내용으로 보면 제목의 두 성인은 관음과 정취보살을 말하며, 조신은 그에 부가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편은 관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라 불국토 신앙의 일환으로 낙산에 관음진신 설화를 정착시킨 의상의 이야기를 실었다. 신라통일기에 미타신앙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신앙이 되었던 관음신앙의 왕성한 형세를 담은 이 설화는 『법화경』 보문품에 따른 현실구제의 일반적 관음에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바탕한 관음주처를 확정한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어 신라말에는 선사 범일에 의해 정취보살 신앙이 추가되었는데, 정취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순례하는 53선지식 가운데 관음에 이어 등장하는 보살이다. 이는 정취보살에 대한 유일한 신앙 자

료이다. 그리고 관음진신 친견에 의상과 원효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종파적인 개념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조신 설화에서는 관음의 현실구제적인 신앙이 이루어지 않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한 현실에서의 바람이 꿈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냄으로써 진정한 수행의 길을 열어 보인 데 이 편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조신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그가 사원 장원의 관리자를 지냈다는 점에서 신라 토지 운영 실상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료는 따로 전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고본(古本)과 비교한 대목이 있어 낙산관음에 대한 몇 가지 전승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낙산의 관음도량 설정에 대한 기록은 이 편 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고려 익장(益莊)의 기록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주]

낙산의 두 성인⁵⁸³⁾ - 관음⁵⁸⁴⁾ 보살과 정취⁵⁸⁵⁾ 보살 그리고 조신

예전에 의상(義湘)⁵⁸⁶⁾ 법사(法師)가 처음 당나라에서 돌아와⁵⁸⁷⁾ 관음보

583) 이대성(二大聖): 관음(觀音)보살과 정취(正趣)보살을 말한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보살행을 구하러 순력하는 중에 관음은 28번째, 정취는 바로 다음인 29번째 보살로 등장하여 보살행에 대해 이야기한다.

584) 관음(觀音):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고난에 처한 중생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고난에서 구제해준다는 데서 관음신앙이 이루어졌다. 『화엄경』의 내용에 따라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낙산처럼 자신의 국토에 관음이 사는 보타락가산을 설정하였다. 4-12-1 주290) 참조.

585) 정취(正趣):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에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순방하며 보살행과 보살도를 묻고 설법을 듣는 중에 관음보살에 이어 29번째로 정취보살을 찾는다. 동방(東方)의 정취보살이 이 땅의 금강산(金剛山) 꼭 대기에 와서 관음의 처소에 이르렀는데, 선재가 관음의 법문을 듣고 나서 정취

살⁵⁸⁸⁾의 진신(眞身)이 이 해변 굴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때문에 낙산(洛山)이라고 이름하였다. 대개 서역의 보타락가산(寶陁洛伽山)⁵⁸⁹⁾을 여

보살을 찾아 보문속행법문(普門速行法門)을 듣는다. (『화엄경』 권51 입법계품, 大 9 pp.718c5~719a18)

586) 의상의 이름은 의상(義相)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625~702.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 황복사에서 출가한 후 당에 유학하여 지엄에게서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지어 일(一)과 다(多)가 걸림 없이 거듭 전개되는 법계연기사상을 정립하였다. 귀국한 후 부석사(浮石寺)를 비롯한 여러 절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과 화엄사상을 연마하고 정진하며 화엄종을 펴 나갔다. 한편으로 교단에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선도하여 사람들이 불교 신앙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들이 확장하여 창건하고 운영한 화엄십찰은 통일신라 불교계의 중추를 이루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일승법계도』 외에 『아미타경의기』가 저술로 알려졌고, 「백화도량발원문」 등 의상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저술이 몇 개 있지만 저술은 많지 않다. 제자로는 지통(智通)·진정(眞定)·도신(道身)·표훈(表訓) 등 여러 뛰어난 제자가 있다.

587) 의상이 당에서 귀국한 것은 『삼국유사』 권4 의해 의상전교편에 의하면 함형(咸亨) 원년 경오년인 670년에 당 고종(高宗)이 신라를 치려고 하는 것을 김흠순이 의상에게 알리고 신라에 귀국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88) 대비(大悲): 관세음보살. 중생의 고뇌를 구제해 주므로 대비로 일컫는다.

589) 보타락가산(寶陁洛伽山): ㉮ Potalaka. 관세음보살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산. 의미로는 작은 꽃나무(小花樹)·작고 흰 꽃(小白華)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에 관음이 보타락가라고 하는 해안의 아름다운 산에서 상주하고 있어 선재동자가 이곳을 순력하고 대자비의 설법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음의 상주처를 보타락가라고 해 왔는데, 인도에서는 남부 코모린 갑 근처의 말라야산 동쪽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절강성 Ningbo(寧波) 정해현(定海縣) 해중에 보타산(普陀山)과 낙가산(洛迦山)을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낙산이 이것이다. 60화엄에서는 광명산(光明山)이라 하고 80화엄에서 보달락가산(補怛洛迦山)이라 표기하였으며,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포달락가(布咀洛迦)라 표기하였고 혜원의 『신화엄경음의(新華嚴經音義)』에 소백화수산(小白花樹山)이라 하였다. 정관의 『화엄경소(華嚴經疏)』에서 보달락가산(補怛洛迦山)을 소백화수(小白華樹)라고 옮긴 이래 소백화(小白華) 또는 백화(白花)란 표현이 많이 쓰였다.

기서는 소백화(小白華)라고 하는데⁵⁹⁰⁾, 백의대사(白衣大士)⁵⁹¹⁾의 진신이 사는 곳이므로 이를 빌려 이름한 것이다.

(의상법사가) 7일 동안 재계(齋戒)⁵⁹²⁾하여 새벽에 좌구(座具)를 물 위에 띄우자 천룡팔부(天龍八部)⁵⁹³⁾가 시종하여 굴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참례하게 하였다. 공중에서 수정염주 한 벌을 내어주므로 의상이 받아가지고 물러났고, 또 동해 용이 여의보주 한 개를 주어서 법사가 받들고 나왔다. 다시 7일을 재계하여 (관음의) 진용을 보았다. (관음이) 말하기를, “자리 위의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하였다. 법사가 말을 듣고 굴을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나서 금당을 짓고 상을 빚어 모시니, 원만한 모습과 고운 자질이 하늘이 낸 듯하였다. 대나무는 다시 없어져서 이곳에 바로 진신이 머물고 있음을 알았다. 그로 인해 절 이름을 낙산사(洛山寺)라 하고 법사가 받은 두 개의 구슬을 성전(聖殿)에 안치하고 떠났다.⁵⁹⁴⁾

590) 소백화(小白華) : 보타락가산(寶陀洛伽山, ㉮ Potalaka)의 의역. 소백화(小白花)라고도 한다.

591) 백의대사(白衣大士) : 백의관음(白衣觀音). 관음의 변화 형태인 33관음의 하나이다. 흰 옷을 입고 입은 모습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592) 재계(齋戒)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금기(禁忌)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팔관재계(八關齋戒)에서 비롯된 말로서 원래는 재가자가 하루 밤낮 동안 승단에 가서 출가 생활을 배우는 것을 가리킨다. 이후 매월 6일 동안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거나 보지 않고, 크고 화려한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8가지 조목을 지키는 것을 말하였다.

593) 원문의 용천팔부(龍天八部)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인 천룡팔부(天龍八部) 곧 팔부중(八部衆)을 말한다. 팔부중은 천(天, ㉮ deva) · 용(龍, ㉮ nāga) · 야차(夜叉, ㉮ yakṣa) · 간다르바(乾闥婆, ㉮ gandharva) · 아수라(阿修羅, ㉮ asura) · 가루다(迦樓羅, ㉮ garuḍa) · 긴나라(緊那羅, ㉮ kiṃnara) · 마호라가(摩睺羅迦, ㉮ mahoraga)이다.

594) 이 사실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한 다른 전승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襄

뒤에 원효(元曉)⁵⁹⁵⁾ 법사가 뒤이어 와서 (관음 진신을) 우리러 예배⁵⁹⁶⁾ 하고자 하였다. 처음에 남쪽 근교에 이르니 논에서 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가 장난삼아 그 벼를 달라고 하니 여인이 벼가 흥년이라고 장난으로 대답하였다. 또 가다가 다리 아래 이르니 한 여인이 월

陽 佛宇 洛山寺) 여기에 인용된 고려 익장(益莊)의 기록 중에 이 기사와 비교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양주 동북쪽 강선역의 남쪽 마을에 낙산사가 있다. 절의 동쪽 몇 리 쯤 되는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높이가 백 척이 넘으며 만 섬을 실은 배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아래로는 파도가 들고 나서 헤아리기 어려운 골짜기인데 세상에서 관음대사의 사는 곳이라 한다. 굴 앞에 50보 쯤 떨어져 바다 가운데 돌이 있어 위는 한 자리를 펼 만한데 수면으로 오르내린다. 옛날에 의상법사가 관음의 모습을 직접 보려고 돌 위에서 자리를 펴고 예배하였다. 정근한 지 이철일이 지났으나 친견하지 못해 바다 가운데 몸을 던졌더니 동해용이 불뿔어서 돌 위에 올려 놓았다. 관음대성은 굴 안에서 팔을 뻗어 수정염주를 주면서, ‘내 몸은 친견할 수 없다. 다만 굴 위에 가다가 쌍죽이 솟아나는 곳이 내 머리이니 이곳에 불전을 짓고 불상을 봉안하면 좋을 것이다.’고 하였다. 용이 또 여의보주와 옥을 바치므로 법사가 받아오니 쌍죽이 솟아났다. 그곳에 불전을 짓고 용이 바친 옥으로 불상을 만들어 봉안하였으니 곧 이 절이다.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 절에 간직하여 보배로 전하도록 하였다.(襄州東北降仙驛之南里, 有洛山寺. 寺之東數里許巨海邊有窟, 其高可百尺, 其大可容萬斛之舟, 其下海濤常出入, 爲不測之壑, 世稱觀音大士所住處也. 窟前距五十許步, 海中有石, 上可鋪一席, 出沒水面. 昔新羅義相法師, 欲親觀聖容, 乃於石上, 展坐拜稽. 精勤至二七日, 尚未獲觀, 便投身海中, 東海龍扶出石上, 大聖卽於窟中, 伸臂手授水精念珠曰, “我身未可親觀, 但從窟上, 行至雙竹湧出處, 是吾頂上, 於此可營一殿, 安排像設也.” 龍亦獻如意珠及玉, 師受珠而來, 有雙竹湧立. 乃於其地創殿, 以龍所獻玉, 造像安之, 卽玆寺也. …水晶念珠及如意珠, 藏於是寺, 傳寶之.)

595) 원효(元曉): 617~686. 중국에 가지 않고 신라에 소개된 대부분의 경론을 탐구하여 하나하나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를 평가한 종요(宗要)류의 저술을 펴내고, 더욱 관심이 가는 경론에 대해서는 상세한 주석서를 썼다. 『심문화쟁론』으로 화합의 새로운 불교관을 펼쳤고,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일심(一心)사상을 체계화하여 신라불교의 가장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후에는 대중 교화에 매진하였다. 5-7 주 273) 참조.

596) 원문의 첨례(瞻禮)는 우리러보며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대⁵⁹⁷⁾를 빨고 있었다. 법사가 물을 청하니 여인이 그 더러운 물을 떠주어, 법사가 옆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그때 들판의 소나무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있다가 “그만 두어라 제호화상(醍醐和尚)⁵⁹⁸⁾이여!” 하고 부르고는 갑자기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소나무 밑에 벗은 신 한 짝만 있었다. 법사가 절에 이르니 관음상 대좌 밑에 앉서 본 벗은 신 한 짝이 있어 그 제서야 전에 만난 성녀(聖女)가 진신임을 알았다.⁵⁹⁹⁾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 불렀다. 대사가 성굴(聖窟)에 들어가서 다시 진용을 보려 하자 풍랑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昔義湘法師，始自唐來還，聞大悲真身住此海邊窟內，故因名洛山。蓋西域寶陀洛伽山，此云小白華，乃白衣大士真身住處，故借此名之。

齋戒七日，浮座具晨水上，龍天八部侍從，引入崛內參禮。空中出水精念珠一貫給之，湘領受而退，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師捧出。更齋七日，乃見真容。謂曰“於座上山頂，雙竹湧生，

597) 원문의 월수백(月水帛)은 월경대를 말한다. 월수는 월경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고, 월수백은 월경 시 사용하는 천을 말한다.

598) 제호화상(醍醐和尚): 우유를 정제하면 유(乳), 낙(酪), 생소(生酥), 숙소(熟酥), 제호(醍醐)의 5가지 단계의 제품이 나오는데, 이 중 가장 맛이 좋은 최상의 제품을 제호라고 한다. 제호는 𑖀 maṇḍa, 또는 sarpir-maṇḍa. 그래서 경전에서 열반이나 불성(佛性) 또는 진실한 가르침 등 최상의 진리를 말할 때 제호에 비유하였다. 중국 천태종(天台宗)에서는 천태 오교의 구분에서 최상의 가르침인 법화열반을 제호에 비유하였다. 이에 연유하여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맛, 곧 가장 숭고한 부처의 경지를 의미하거나 또는 불설(佛說)의 심원(深遠)함을 말한다.

599) 관음은 중생들의 바람에 따라 33신 등의 여러 응신(應身)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관음 응현(應現)이 여기서 말하는 남자의 출현과 비슷한 모습을 말해 준다.

當其地作殿，宜矣。”師聞之出嶮，果有竹從地湧出，乃作金堂，塑像而安之，圓容麗質，儼若天生。其竹還沒，方知正是真身住也。因名其寺曰洛山，師以所受二珠，鎮安于聖殿而去。

後有元曉法師，繼踵而來，欲求瞻禮。初至於南郊，水田中有一白衣女人刈稻。師戲請其禾，女以稻荒戲答之。又行至橋下，一女洗月水帛。師乞水，女酌其穢水獻之，師覆棄之，更酌川水而飲之。時野中松上有一青鳥，呼曰“休醍醐和尚!”忽隱不現，其松下有一隻脫鞋。師既到寺，觀音座下，又有前所見脫鞋一隻，方知前所遇聖女乃真身也。故時人謂之觀音松。師欲入聖嶮，更覩真容，風浪大作，不得入而去。

후에 굴산조사(崛山祖師) 범일(梵日)⁶⁰⁰이 태화(太和)⁶⁰¹ 연중(827~836)

600) 범일(梵日): 810~889. 신라 말에 강릉 지방을 중심으로 선종의 문호를 연 사굴산문(閻崛山門)의 개창조. 일명 품일(品日). 속성은 김(金)씨. 조부는 명주도독(溟州都督) 술원(述元). 헌덕왕 16년(824)에 출가하여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흥덕왕 6년(831)에 왕자 김의종(金義宗)을 따라 당나라에 가서 염관제안(鹽官齊安)의 법을 잇고 약산유엄(藥山惟儼)에게도 불법을 물었다. 회창 폐불을 만나 상산(商山)에 가서 육조탑(六祖塔)에 참배한 뒤 문성왕 8년(847)에 귀국하여 문성왕 12년(850) 백달산(白達山)에서 정진하다 명주도독 김공의 요청으로 굴산사에서 종풍을 떨쳤다. 이후 경문왕·헌강왕·정강왕들의 후대하겠다는 요청을 듣지 않고 40여년 동안 이 절에만 머물며 교화하다 진성왕 3년(889)에 입적하였다. 시호는 통효(通曉)대사. 『조당집(祖堂集)』 권17 참조. 문하에 낭원개청(朗圓開淸)과 낭공행적(朗空行寂) 등이 있다. 고려 후반에 나온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 부처가 깨달은 다음에 조사를 찾아 미진한 부분을 마저 깨우쳤다는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이 그의 설로 전하고 있다. 사굴산문은 신라 말의 불교계를 선도한 선문 구산 중에서도 성주산문(聖住山門)과 함께 가장 형세가 컸던 대표적인 산문으로서, 고려에서도 선종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여러 고승들을 배출하였다.

601) 태화(太和): 태화(太和)로도 쓴다. 당(唐) 문종(文宗)의 연호. 827~836년. 흥덕왕

에 당나라에 들어가 명주(明州)⁶⁰²⁾ 개국사(開國寺)에 이르렀다. 왼쪽 귀가 잘린 한 사미(沙彌)⁶⁰³⁾가 여러 스님들의 말석에 있다가 범일에게 말하기를, “저도 고향 사람입니다. 집이 명주(溟州)⁶⁰⁴⁾ 경내 익령현(翼嶺縣)의⁶⁰⁵⁾ 덕기방(德耆坊)에 있으니 대사께서 훗날 본국에 돌아가시거든 부디 저의 집을 이루어주소서.” 하였다. 두루 총림법석⁶⁰⁶⁾을 돌아다니고 염관(鹽

2~희강왕 1년.

- 602) 명주(明州): 당대(738년)에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영파(寧波)에 설치한 지명인데 경내에 있는 사명산(四明山)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 603) 사미(沙彌): ① śrāmaṇera, 출가하여 20세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비구가 되기 전에 십계 곧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높고 넓은 상을 멀리 하고, 꽃 장식 등을 멀리 하고, 춤과 노래를 멀리 하고, 보물을 멀리 하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계행을 수행하는 7세부터 20세 사이의 남자 출가자를 말한다. 같은 단계의 여자인 사미니, 구족계를 받은 비구·비구니, 그리고 4 근본계와 6법을 배워 도심의 견고함을 평가받는 비구니되기 2년 전의 식차마나(式叉摩那, śikṣamāṇā)와 함께 출가오중(出家五衆)을 이룬다.
- 604) 명주(溟州):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 일대로 신라 구주(九州)의 하나. 본래 고구려의 하슬라(何瑟羅)였던 것이 신라 영역이 되어 선덕왕 때 소경(小京)을 설치하였다가 태종 때 말갈 땅과 연결한 중요 지역이라 하여 주(州)를 설치하고 군주(軍主)를 두었다. 경덕왕 16년에 명주로 고쳤으며 정선·동제·지산·동산 등 4개의 영현이 있었다. 명주도독 관할 하에 1주 9군이 있었고, 익령현(翼嶺縣)은 그 중 수성군(守城郡)의 영현이었다.([삼국사기] 권35 지리지 溟州)
- 605) 익령현(翼嶺縣): 지금의 강원도 양양군.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이던 것을 경덕왕 16년에 익령현으로 개칭하였다.([삼국사기] 권35 지리지 溟州) 명주 관내 수성군(守城郡)의 영현인데 1221년에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가 파견되었고,([고려사] 권58 지리지 翼嶺縣) 1416년에 양양(襄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606) 원문의 총석(叢石)은 총림의 법석을 이른다. 총림(叢林)은 ① piṇḍa-vana, 여러 승려들이 함께 배우며安居(安居)하는 곳으로 주로 선종의 사원을 말하였다. 인도에서 도성의 교외에 조용한 숲에 정사를 짓고 승려들이 머물도록 하여 난야나 총림이라고 불렀다. 총림은 승려들이 화합하여 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나무가 모여 있는 총림과 같다고 비유한 데서 유래하였다. 후에는 교종 등의 사원에 서도 선종을 본받아 총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총림에서는 절의 모든 재산

官)⁶⁰⁷⁾에게서 법을 얻었다.이 〈일은 본전(本傳)에 자세히 실려 있다.⁶⁰⁸⁾ 회창(會昌)⁶⁰⁹⁾ 7년(847) 정묘년에 본국에 돌아와 먼저 굴산사(崛山寺)⁶¹⁰⁾를 창건하여 가르침을 전하였다. 대중(大中)⁶¹¹⁾ 12년(858) 무인년 2월 15일 밤 꿈에 예전에 보았던 사미가 창 아래에 와서 말하기를, “예전에 명주 개국사에 있을 때 조사와 약속하여 승낙을 받았는데 어찌 그리 늦어집니까?” 하였다. 조사가 놀라 깨어 수십 명을 데리고 익령 땅에 가서 그 (사미가) 살던 곳을 찾았다. 한 여인이 낙산 아랫마을에 사는데 그 이름을 묻자 덕기(德耆)⁶¹²⁾라고 하였다. 여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는 겨우 여덟 살로 항상 마

은 공적인 것이 되며 일정한 규정에 따라 사방에서 오는 승려를 받아들이고 직접도 승려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다.

607) 염관(鹽官): 염관제안(鹽官齊安, ?~842). 당나라 말기의 선승. 항주(杭州)의 염관(鹽官) 해창원(海昌院)에 주석하여 염관이라는 호를 얻었다. 어려서 출가하여 운종(雲琮)에게 머리를 깎고 지엄(智嚴)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계율을 수학하였다. 후에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문하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법을 이었다. 원화(元和) 말년 절강성(浙江省) 월주(越州) 소산(蕭山) 법락사(法樂寺)를 중수하여 교화하였고, 해창원에 주석하자 사방에서 승려들이 모여 들어 이들에게 마조의 선풍을 고양하다 90여 세에 죽었다. 무종의 폐불 이후 불교를 부흥한 선종(宣宗)이 일찍이 제안의 법을 듣고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608) 범일의 본전은 『조당집(祖堂集)』 범일전을 말한다. 『조당집』 권17 명주굴산고통효대사(溟州崛山故通曉大師)전에 범일이 여러 지식을 만난 후 염관제안을 찾아 제안이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어 6년 동안 부지런히 수학하였다고 하였다.

609) 회창(會昌): 당(唐) 무종(武宗)의 연호, 841~847년. 문성왕 3~9년.

610) 굴산사(崛山寺):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일대에 있던 신라 말의 선종 사원. 사굴산문(闍崛山門)의 본찰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이면서 보령 성주산문(聖住山門)의 성주사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사원으로 신라 말에 범일(梵日)이 문성왕 12년(850)에 창건하였다. 광범위한 유역에 거대한 당간지주와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승탑, 석불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사굴산문은 고려에 들어서도 큰 활동을 한 승려를 배출한 대표적인 산문이었다.

611) 대중(大中): 당(唐) 무종(武宗)의 연호, 847~859. 문성왕 9~현안왕 3년.

을 남쪽 돌다리 가에 가서 놀았다.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함께 놀던 아이 중에 금빛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여 어머니가 조사에게 이를 말하였다. 조사가 놀라고 기뻐하며 그 아들과 함께 놀던 다리 밑에 가서 찾아보니 물 속에 석불이 하나 있었다. 꺼내 보니 왼쪽 귀가 잘려 있었는데 전에 보았던 사미와 비슷하니 정취보살(正趣菩薩) 상이었다. 이에 점치는 씨를 만들어 집 지을 터를 점치니 낙산의 위쪽이 길하다 하므로 전각 3칸을 짓고 그 상을 모셨다. <고본(古本)에는 범일의 일이 앞에 있고 의상과 원효대사의 일을 뒤에 실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의상과 원효 두 대사의 일은 당 고종(高宗)⁶¹³⁾ 때이고 범일은 회창(會昌) 이후에 있으니 서로 170여 년이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앞의 것을 뒤로 하여 차례를 편집한다. 혹은 범일이 의상의 문인이라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後有崛山祖師梵日, 大和年中入唐, 到明州開國寺. 有一沙彌截左耳, 在衆僧之末, 與師言曰, “吾亦鄉人也. 家在溟州界翼嶺縣德耆坊, 師他日若還本國, 須成吾舍.” 旣而遍遊叢席, 得法於鹽官(事具在本傳). 以會昌七年丁卯還國, 先創崛山寺而傳教. 大中十二年戊寅二月十五日, 夜夢昔所見沙彌到窓下, 曰 “昔在明州開國寺, 與師有約, 旣蒙見諾, 何其晚也?” 祖師驚覺, 押數十人, 到翼嶺境, 尋訪其居. 有一女居洛山下村, 問其名, 曰德耆. 女有一子, 年才八歲, 常出遊於村南石橋邊. 告其母曰, “吾所與遊者, 有金色童子.” 母以告于師. 師驚喜, 與其子尋所遊橋下, 水中有一石佛, 鼻出之, 截左耳, 類前所見沙彌, 卽正趣菩薩之像也. 乃作簡子, 卜其營構之地, 洛山上方

612) 낙산사 인근에 있던 마을 이름.

613) 고종(高宗): 당(唐) 제3대 왕. 재위 649~683.

吉, 乃作殿三間安其像.〈古本載梵日事在前, 相曉二師在後. 然按相曉二師在在於高宗之代, 梵日在於會昌之後, 相去一百七十餘歲. 故今前却而編次之. 或云, 梵日爲相之門人, 謬妄也.〉

후에 백 여 년이 지나 들불이 연이어 이 산에까지 이르렀는데 두 성전만 이 화재를 면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타버렸다.

몽고대군⁶¹⁴⁾ 침공한 이후 계속 갑인 연간(1253~1254)⁶¹⁵⁾에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주를 양주(襄州)⁶¹⁶⁾성에 옮겨 들여왔다. 몽고군의 공격이 매우 급하여 성이 함락되려 할 때 주지인 선사 아행(阿行)〈옛 이름은 희현(希玄)이다〉이 은합에 두 구슬을 담아서 몸에 지니고 도망하려 하니 곽승(乞升)이라는 절의 노비가 빼앗아 땅속에 깊이 묻으며 맹세하기를, “내가 만일 적군에게 죽음을 면치 못하면 이 두 보주는 끝내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여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죽지 않으면 마땅히 두 보주를 나라에 바치리라.”라고 하였다. 갑인년 10월 22일에 성이 함락되어⁶¹⁷⁾ 아행

614) 원문의 서산대병(西山大兵)은 고려를 침공한 몽고군을 말한다. 고종 18년(1231)에 제1차 침공이 있던 뒤 1235년에 있었던 제3차 침공에 전국적인 피해를 당하고 1238년의 제4차 침공에 황룡사탑이 소실되었으며 제7차 침공까지 계속되었다.

615) 고종 40년(1253)과 그 이듬해, 이때 몽고군의 제5차 침공이 있었다. 금천 영흥철원을 함락하고 충주를 공격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

616) 양주(襄州): 지금의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신라 익령현(翼嶺縣)을 1221년에 거란군을 격퇴한 공으로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시켰는데, 1257년에 몽고의 침공에 항복하여 덕녕감무(德寧監務)로 격하되었다가 1260년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복귀되었다. 양산(襄山)이라고도 하였으며 조선에 들어 1416년에 양양으로 고쳤다. (『고려사』 권58 지리지 翼嶺縣)

617) 양주의 함락은 『고려사』 기록에서 1년의 차이가 있다. 세가(世家)에서는 고종 40년 10월에 “몽고군이 양주성을 함락하였다”(『고려사』 권24)고 하였고, 지리지(地理志) 익령현(翼嶺縣)에서는 “고종 41년에 강등하여 현령을 삼았고, 44년에 적에게 항복하여 다시 덕녕감무(德寧監務)로 강등하였다”(『고려사』 권58)고 하

은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나 결승은 면하였다. 적병이 물러간 후 파내어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⁶¹⁸⁾에게 바쳤다. 그때 낭중(郎中)⁶¹⁹⁾ 이녹수(李祿綏)⁶²⁰⁾ 감창사였는데 받아서 감창고(監倉庫)에 간직하고 교대할 때마다 전해 받았다. 무오년(1258) 11월에 이르러 조계종(曹溪宗)⁶²¹⁾ 노숙(老宿)⁶²²⁾으로 기림사(祇林寺)⁶²³⁾ 주지인 대선사 각유(覺猷)⁶²⁴⁾가 아뢰기를,

였다. 이곳의 기록은 지리지의 것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 618) 감창사(監倉使) : 고려시대 양계지방에 두었던 6품 내지 7품의 관직.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파견되어 주로 창고와 조세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임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창사는 동서북면에 둔다. 명종 3년에 5도 감창사를 두어 모두 권농사를 겸하게 하였다. 監倉使, 東西北面置之. 明宗三年, 五道監倉使, 皆兼勸農使.” 『고려사』 권77 百官志)
- 619) 낭중(郎中) : 고려 시대에 중앙 관부인 상서성(尙書省)과 상서 6부 등에 설치한 정5품의 관직. 상서, 시찰 다음의 세 번째 관직이었다. 1257년에 정랑(正郎)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 620) 이녹수(李祿綏) : 원외랑(員外郎)의 직책으로 고종 45년에 고려 가주(嘉州) 등에 주둔한 여추달을 만나 교섭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다.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 45년 7월 을묘; 경신)
- 621) 원문의 본업(本業)은 조계업(曹溪業), 곧 조계종을 말한다. 고려 때는 종파를 ‘업(業)’으로 불렀는데 일연 자신이 소속된 조계종을 이른 것이다.
- 622) 노숙(老宿) : 나이가 많아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수행하여 덕이 높은 스님을 말한다.
- 623) 기림사(祇林寺) :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함월산(含月山)에 있는 절. 682년에 신라 신문왕이 즉위한 다음해에 부왕인 문무왕을 위해 지은 감은사에 다녀 오다 용으로부터 옥대(玉帶)를 받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림사 근처에서 점심을 들었다고 한 기사가 있어(『삼국유사』 권2 기이 萬波息笛) 신문왕 이전에 창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북 동부 일대의 대찰로서 일제 시기에는 불국사를 말사로 두었던 본사였다. 건칠보살좌상을 비롯한 소조삼존불상과 삼층석탑 등 많은 유물이 있고 대적광전의 소조 삼존불에서 출토된 많은 양의 오래된 전적과 유물 등 매우 풍부한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 624) 각유(覺猷) : 고려 정부의 강화전도(1232) 당시에 내전(內殿)의 기도승으로 있던 스님.

“낙산의 두 보주는 나라의 신령스러운 보배인데 양주성이 함락될 때 절의 노비 곽승이 성 안에 묻었다가 적병이 물러가자 감창사에 바쳐서 명주영(溟州營)의 창고 안에 간직하였습니다. 지금 명주성도 위태로워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부(御府)⁶²⁵에 옮겨 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좋다고 윤허하였다. 야별초(夜別抄)⁶²⁶ 10명을 뽑아 곽승을 데리고 가서 명주성에서 가져와 내부(內府)⁶²⁷에 들여 모셔 두도록 하였다. 그때 일한 10명에게 각각 은 1근과 쌀 5섬을 주었다.

後百餘年，野火連延到此山，唯二聖殿獨免其災，餘皆煨燼。
及西山大兵已來，癸丑甲寅年間，二聖眞容及二寶珠，移入襄州城。大兵來攻甚急，城將陷時，住持禪師阿行(古名希玄)，以銀合盛二珠，佩持將逃逸，寺奴名乞升奪取，深埋於地。誓曰，“我若不免死於兵，則二寶珠終不現於人間，人無知者。我若不死，當奉二寶獻於邦家矣。”甲寅十月二十二日城陷，阿行不免而乞升獲免。兵退後掘出，納於溟州道監倉使。時郎中李祿綏爲監倉使，受而藏於監倉庫中，每交代傳受。至戊午十一月，本業老宿祇林寺住持大禪師覺猷奏曰，“洛山二珠，國家神寶。襄州城陷時，寺奴乞升埋於城中，兵退，取納監倉使，藏在溟州營庫中，今溟州城殆不能守矣，宜輸安御府。”主上允可。發夜別抄十人，率乞升，取於溟州城，入安於內府。時使介十人，各賜銀一斤，米五石。

625) 어부(御府): 임금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626) 야별초(夜別抄): 무신정권 이후 개경과 지방의 주요 주현에 두어 야간 경비를 담당하게 하던 군대. 후에 좌우(左右) 이별초(二別抄)와 신의군(神義軍)의 삼별초(三別抄)로 확대되었다.

627) 내부(內府): 궁중의 창고

옛날에 신라시대에 세달사(世達寺)⁶²⁸⁾〈지금의 흥교사(興敎寺)⁶²⁹⁾〉의 장사(莊舍)⁶³⁰⁾가 명주 나리군(浬李郡)⁶³¹⁾에 있었는데, 〈지리지를 살펴 보니 명주에는 나리군(浬李郡)이 없고 나성군(浬城郡)⁶³²⁾만 있는데, (나성군은) 본래 나생군(浬生郡)으로 지

628) 세달사(世達寺) : 강원도 영월군 남면 홍월리 태화산(太華山)에 있던 절. 신라 말에 궁예(弓裔)가 태봉(泰封)을 건국하기 전에 신라 왕실에서 쫓겨나 출가하여 머물렀던 절이다. 『삼국사기』 권50 열전 궁예)

629) 흥교사(興敎寺) : 강원도 영월군 남면 홍월리 태화산(太華山)에 있던 절. 개성의 흥교사와는 다르다. 인종의 아들인 원경(元敬)국사 충희(沖曦)의 비가 세워져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흥교사는 태화산의 서쪽에 있다. 고려 승충희의 비가 있는데, 충희는 인종의 아들이다. 비문이 떨어져 나가 구절을 읽을 수 없고 단지 비 음기에 대사의 문인을 기록해 두었다. 보문각학사 최선이 왕명으로 비문을 지었다. (在大華山西, 有高麗僧沖曦碑. 曦仁宗之子, 碑文剝落, 讀不能句, 唯碑陰, 誌師之門人. 而寶文閣學士崔詵, 奉宣爲之文, 曰……故書國師門人凡二百二十一人于左云”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寧越 佛宇) 전면과 음기의 일부본이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수록되어 전한다.

630) 장사(莊舍) : 고려시대에 귀족이나 사찰 등에서 소유하던 농장.

631) 나리군(浬李郡) : 지금의 강원도 나이군(浬已郡)으로도 쓰며, 나령군(奈靈郡)이라고도 하였다. 고려 때는 강주(剛州)로 불렸다. 『삼국사기』에는 “나령군은 본래 백제의 나이군인데 파사왕이 취하였고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니 지금의 강주이다. (奈靈郡, 本百濟奈已郡, 婆娑王取之, 景德王改名, 今剛州.)”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35 지리지 朔州 奈靈郡) 『고려사』에는 “순안현은 본래 고구려의 나이군인데 파사왕이 취하였고 경덕왕이 나령군이라 고쳤다. 성종 14년에 강주도단련사라고 불렀고 현종 9년에 내속하였으며 인종 21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현령관을 삼았다. (本高句麗奈已郡, 新羅婆娑王取之, 景德王改稱奈靈郡. 成宗十四年稱剛州都團練使, 顯宗九年來屬, 仁宗二十一年更今名, 爲縣令官.)” (『고려사』 권57 지리지 경상도 順安縣)

632) 나성군(浬城郡) : 지금의 강원도 영월군. 『삼국사기』에 “나성군은 본래 고구려의 나생군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니 지금의 영월군이다. (奈城郡, 本高句麗奈生郡, 景德王改名, 今寧越郡)”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35 지리지 溟州 奈城郡) 여기의 기록과 ‘나’자 표기가 다르다. (『고려사』 권56 楊廣道 寧越郡 참조. “寧越郡 本高句麗奈生郡, 新羅景德王改奈城郡, 至高麗更今名.”)

금의 영월(寧越)⁶³³이다. 또 우수주(牛首州)⁶³⁴의 영현에 나령군(柵靈郡)⁶³⁵이 있는데 본래 나이군(柵己郡)이며 지금의 강주(剛州)⁶³⁶이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春州)⁶³⁷이다. 지금 나리군이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본사에서 조신(調信) 스님을 보내 지장(知莊)⁶³⁸으로 삼았다. 조신이 장사(莊舍)에 와 있는 동안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여 깊이 매혹되었다. 여러 차례 낙산 관음 앞에 나아가 몰래 기도하며 행운을 빌었으나 몇 년 사이에 그녀는 배필이 생겼다. 다시 법당 앞에 가서 관음이 이루어주지 않음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그리운 생각에 지쳐 잠깐 졸았다. 갑자기 꿈에 김씨 남자가 기뻐하는 얼굴로 문을 들어서서 활짝 웃으며⁶³⁹ 말하기를, “제가 일찍이 당신을 얼핏 보고 마음으로 사랑하여 잠시도 잊지 않았으나 부모님의 명에 쫓기어 억지로 다른 사람을 따랐습니다. 이제 부부가⁶⁴⁰ 되고자 왔습니다.” 하였다. 조신이 미칠 듯이 기뻐하며 함께 고향에 돌아왔다.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이 다섯 명 있었다. 집은 단지 네 벽 뿐이고⁶⁴¹ 나

633) 영월(寧越): 지금의 강원도 영월군

634) 우수주(牛首州): 지금의 강원도 춘천. 통일신라 때는 삭주(朔州), 고려 때는 춘주(春州)라고 불렀다. 『삼국사기』에 “삭주는 선덕왕 6년 당 정관 11년에 우수주가 되어 군주를 두었다. 혹은 문무왕 13년 당 함형 4년에 수약주를 두었다고 한다. 경덕왕이 삭주로 고쳤으니 지금의 춘주이다.(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 置軍主, [一云 文武王十三年 唐咸亨四年, 置首若州.] 景德王改爲朔州, 今春州.)”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35 지리지 溟州. 『고려사』 권58 지리지 春州 참조. “本狹國, 新羅善德王六年, 爲牛首州.”)

635) 나령군(柵靈郡): 주 631) 나리군 참조.

636) 강주(剛州): 주 631) 나리군 참조.

637) 춘주(春州): 주 634) 우수주 참조.

638) 지장(知莊): 귀족이나 사찰이 소유하던 농장인 장사(莊舍)를 관리하던 사람.

639) 원문의 찬연계치(粲然啓齒)는 환하게 이가 드러나게 웃는 모양을 말한다.

640) 원문의 동혈지우(同穴之友)는 한 구덩이에 묻히는 친구로서 부부를 말한다.

641) 집이 네 벽 뿐[家徒四壁]이라는 것은 가난한 집을 말한다.

물로도⁶⁴²⁾ 끼니를 잊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곤궁⁶⁴³⁾에 빠져 서로 잡고 이끌면서 사망으로 입에 풀칠하러 다녔다. 이렇게 하기를 10년만에 들판을 두루 다니느라 옷이 갈갈이 찢어져⁶⁴⁴⁾ 몸을 가리지 못하였다. 마침 명주 해현령(蟹懸嶺)을 지나다가 열다섯살 난 큰 아이가 갑자기 굶주려 죽어 통곡하면서 길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우곡현(羽曲縣)⁶⁴⁵⁾〈지금의 우현(羽縣)이다〉으로 가서 길가에 띠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나지도 못하니 열 살 난 여자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동네 개에게 물려 고통을 호소하며 앞에 누우니 부모가 슬퍼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부인이 어려워하여 머뭇거리며 눈물을 씻고 급히 말하기를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으며 옷도 많고 깨끗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고 몇 자 안되는 옷도 당신과 함께 한지 50년이 되어 정은 더없이 깊어졌고 사랑도 얹힐대로 얹혔으니 정녕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까. 근년에 와서 늙고 쇠약해서 병은 해가 갈수록 깊고 배고픔과 추위는 날로 심합니다. 결방살이에 마실 것 한 병도 남이 주지 않으니 수많은 문간에서 당하는 수모는 산더미처럼 크고 아이들이 굶고 굶주려도 보살필 겨를도 없었으니 어느 여가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은 풀잎의 이

642) 원문의 여곽(藜藿)은 명아주와 콩잎으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친 식사를 가리킨다.

643) 원문의 낙탁(落魄, 영락할 탁)은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인 것을 말한다.

644) 원문의 현순백결(懸鵠百結)은 매추라기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떨어진 곳을 기운 누더기 옷을 말한다.

645) 우곡현(羽曲縣): 우곡현(羽谷縣)이라고도 쓴다. 지금의 강원도 삼척군. 『삼국사기』에 “우계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곡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쓴다.(羽谿縣, 本高句麗羽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35 명주 三陟郡 羽谿縣. 『고려사』 권58 지리지 양광도 羽溪縣 참조. “羽溪縣, 本高句麗羽谷縣, 新羅景德王改今名, 爲三陟郡領縣. 顯宗九年來屬, 別號玉堂.”)

슬과 같고 아름답던⁶⁴⁶⁾ 약속도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 잠이 되고 나는 당신이 있어 근심이 많습니다. 옛날의 즐거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우환이 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못새가 함께 굶주리는데 어찌 짝 잃은 난새가 거울에서 짝을 부르는 지를⁶⁴⁷⁾ 알겠습니까? 어려울 때 버리고 좋을 때 따르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일은 아니나 하고 안 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헤어짐도 운수에 달린 것이니 이제 헤어지기로 합시다.” 라고 하였다. 조신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고향⁶⁴⁸⁾으로 가겠으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하며 손을 놓고 나아가려 할 때 꿈을 깨었다.

쇠잔한 등이 어스름하게 비치고 밤은 장차 새려 하였다. 아침에 보니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정신이 멍하여 세상 일에 생각이 없고 힘든 삶에 염증이 나서 마치 백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 하여 탐내는 마음이 얼음 녹듯 사라졌다. 이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관음보살을 대하여 참회하여 마지 않았다. 해현(蟹峴)에 가서 아이 묻은 자리를 파내 보니 돌미륵이었다. 깨끗이 씻어 이웃 절에 봉안하였다. 서울에 돌아와 지장 일을 사임하고 사재를 기울여 정토사(淨土寺)를 짓고 착한 일⁶⁴⁹⁾을 부지런히 닦았다. 그 후에

646) 원문의 지란(芝蘭)은 지초와 난초를 말하는데, 향기가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그래서 지란을 약속했다는 것은 아름답던 약속을 뜻한다.

647) 원문의 척란지유경(隻鸞之有鏡)은 짝 잃은 난새가 제 그림자가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고 제 짝을 생각해 울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것을 말한다.

648) 상재(桑梓): 고향이나 고향집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 집 담 밑에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은 데서 유래한다.

649) 본문의 백업(白業)은 착한 일, 즉 선업(善業)을 말하는데 악업(惡業), 무기업(無記業)과 함께 삼성업(三性業)의 하나이다.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 모른다.

昔新羅爲京師時，有世達⁶⁵⁰⁾寺〈今與教寺也。〉之莊舍，在溟州捺李郡。〈按地理志，溟州無捺李郡，唯有捺城郡，本捺生郡，今寧越。又牛首州領縣有捺靈郡，本捺已郡，今剛州。牛首州今春州。今言捺李郡，未知孰是。〉本寺遣僧調信爲知莊。信到莊上，悅太守金昕公之女，惑之深。屢就洛山大悲前，潛祈得幸，方數年間，其女已有配矣。又往堂前，怨大悲之不遂已，哀泣至日暮，情思倦憊，俄成假寢。忽夢金氏娘，容豫入門，粲然啓齒而謂曰，“兒早識上人於半面，心乎愛矣。未嘗暫忘，迫於父母之命，強從人矣。今願爲同穴之友，故來爾。”信乃顛喜，同歸鄉里。

計活四十餘霜，有兒息五。家徒四壁，藜藿不給，遂乃落魄，扶攜糊其口於四方。如是十年，周流草野，懸鶉百結，亦不掩體。適過溟州蟹縣嶺，大兒十五歲者忽餒死，痛哭收瘞於道。從率餘四口，到羽曲縣〈今羽縣也〉，結茅於路傍而舍。夫婦老且病，飢不能興，十歲女兒巡乞，乃爲里嫗所噬，號痛臥於前，父母爲之歔歔，泣下數行。婦乃難澁拭涕，倉卒而語曰，“予之始遇君也，色美年芳，衣袴稠鮮。一味之甘，得與子分之，數尺之煖，得與子共之，出處五十年，情鍾莫逆，恩愛綢繆，可謂厚緣。自比年來，衰病歲益深，飢寒日益迫。傍舍壺漿，人不容乞，千門之恥，重似丘山，兒寒兒飢，未遑計補，何暇有愛悅夫婦之心哉？紅顏巧笑，草上之露，約束芝蘭，柳絮飄風。君有我而爲累，我爲君而足憂。細思昔日之歡，適爲憂患所階。君乎予乎，奚至此極？與其衆鳥之同餒，焉知隻鸞之有鏡。寒棄

650) 원문의 ‘達’는 ‘達’의 오자

炎附，情所不堪，然而行止非人，離合有數，請從此辭。”信聞之大喜，各分二兒將行，女曰，“我向桑梓，君其南矣。”方分手進途而形開。

殘燈翳吐，夜色將闌，及旦鬢髮盡白。惘惘然殊無人世意，已厭勞生，如飫百年辛苦，貪染之心，洒然氷釋。於是慚對聖容，懺滌無已。歸撥蟹峴所埋兒塚，乃石彌勒也。灌洗奉安于隣寺。還京師，免莊任，傾私財，創淨土寺，懃修白業，後莫知所終。

논의하여 말한다. 이 전기를 읽고 책을 덮어 놓고 미루어 생각하니 어찌 반드시 조신대사의 꿈만이 그러하겠는가? 지금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이 즐거운 줄만 알고 기뻐하며 애쓰지만 다만 깨닫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에 사(詞)를 지어 경계한다.

즐거움은 잠깐이라 마음은 벌써 한가롭고
어느덧 근심 속에 얼굴 늙어 파리하구나.
다시 조밥 익기를⁶⁵¹⁾ 기다리지 말라
힘든 삶이 한바탕 꿈인줄 깨달으라.
몸 다스리는 잘잘못은 먼저 마음을 참되게 하는 것
홀아비는 미녀⁶⁵²⁾ 꿈꾸고 도적은 창고 꿈꾼다.
어찌하면 가을의 맑은 밤 꿈과 같을까
때때로 눈 감고 청량세계 이르리.

651) 원문의 황粱숙(黃粱熟)은 인생의 부귀공명이 덧없음을 비유하는 말로 황粱몽(黃粱夢) 또는 한단몽(邯鄲夢)이라고도 한다. 당나라 때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한단(邯鄲)의 주막에서 도사 여옹(呂翁)으로부터 베개를 빌려 잠이 들었다. 꿈 속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80까지 잘 살았는데, 깨어 보니 주인이 짓던 메조밥이 채 익지 않았더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652) 원문의 아미(蛾眉)는 나방의 눈썹처럼 아름다운 미인을 말한다.

議曰 讀此傳，掩卷而追繹之，何必信師之夢爲然。今皆知其人世之爲樂，欣欣然役役然，特未覺爾。乃作詞誡之曰

快滴須臾意已閑，暗從愁裏老倉顏。不須更待黃粱熟，方悟勞生一夢間。

治身臧否先誠意，鰥夢蛾眉賊夢藏。何似秋來清夜夢，時時合眼到清涼。

4-18 어산의 부처 그림자

[해제]

밀양의 만어산이 북인도 야건가라국에 있다는 부처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관련 기록과 견주어 살펴본 편이다. 만어산에 살고 있던 나찰녀가 인근의 가야 연못에 살던 독룡과 사귀어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곡식이 익지 않게 하자 가야 왕이 부처에게 청하여 나찰녀의 해악을 그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실렸다. 이어 고려 중기에 이곳에 만어사를 창건하였는데, 이곳의 부처 그림자가 인도의 것과 같다는 글을 보고 직접 찾아 보니 골짜기의 돌들이 첫소리와 옥소리를 낸다는 것 등은 전하는 이야기 일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어 이 설화의 전거로 『관불삼매경』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였다. 동굴의 나찰들이 독룡과 어울려 난폭한 행동을 그치지 않자 왕의 부탁으로 부처가 용왕과 나찰들에게 삼귀오계를 설하였다. 용왕은 이를 듣고 나서 부처가 항상 머물기를 청하니 부처는 이에 석굴 안에 들어가 좌정하여 천 오백년을 지내겠다고 하였다. 부처는 돌 속으로 들어가 밖으로 형상을 비쳐 보였는데,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가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처가 바위를 밟으면 금과 옥 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리고 『고승전』과 법현의 『불국기』와 같은 대표적인 인도 여행기, 특히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나갈가라국에 있다는 부처의 그림자 설화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만어산의 부처 그림자가 인도에 있다는 유적과 상통성을 강조하며 신라 땅이 부처와 인연이 있다는 불연국토설(佛緣國土說)을 강조한 설화 중의 하나이다. 자

료로는 『고기』와 고려 승려 보림의 견해 그리고 전거가 되는 불경과 구법 여행기를 들었다.

[역주]

어산의 부처 그림자

고기(古記)에 말하였다.

“만어산(萬魚山)⁶⁵³⁾은 옛날의 자성산(慈成山)인데, 또는 아야사산(阿耶斯山)⁶⁵⁴⁾〈당연히 마야사(摩耶斯)라고 해야 한다. 한자로는 물고기이다.〉이라고 한다. 그 옆에 가라국(呵囉國)⁶⁵⁵⁾이 있었는데, 옛날에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곧 수로왕(首露王)이다.⁶⁵⁶⁾ 그때 경

653) 만어산(萬魚山)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丹場面)과 삼랑진읍(三浪津邑)의 경계에 있는 높이 670m의 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6 밀양의 산천(山川)조에 “만어산은 부(府)의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고 하였고, 다시 불우(佛宇)조에 만어사는 만어산에 있다고 하였다. 또 만어산에 바로 이어 자씨산(慈氏山)이 부의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 편에 나오는 자성산이 이와 관련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654) 아야사산(阿耶斯山) : 이 편의 다음에 나오는 『관불삼매해경』과 연관을 지으려면 아나사(阿那斯)가 되어야 한다. 그 뜻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阿那斯[譯曰無食處也], 『翻梵語』 권9, 大54-1043c19)

655) 가라국(呵囉國) : 가라(加羅) 또는 가락(駕洛)으로도 썼던 가야(加耶)를 말한다.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와 함께 각축을 벌이며 남해안과 낙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고대 국가로 서기 전후 무렵부터 김해지방과 고령지방이 중심이었으며 562년에 신라에 멸망하였다. 『삼국유사』 권2 기이 「가락국기(駕洛國記)」에 고려 때 정리한 가야의 역사가 실려 있다.

656) 김해에 전하는 수로왕신화(首露王神話)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수록되어 있다. 김해 지방을 다스리던 구간(九干)이 서기 42년에 구지봉에서 천신을 맞이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 6개에서 태어난 동자들이 6가야의 왕이 되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수로로서 그를 왕위에 추대하여 대가락 또는 가

내에 옥지(玉池)가 있었는데, 그 연못에 독룡이 살았다. 만어산에는 다섯의 나찰녀(羅刹女)⁶⁵⁷⁾가 있어서 (용과) 왕래하며 사귀었기 때문에 때때로 번개와 비를 내려 4년이 지나도록 오곡이 익질 않았다. 왕이 주술로 막으려 했으나 할 수 없어서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에게 설법해주기를 청하여 그후 나찰녀가 오계(五戒)⁶⁵⁸⁾를 받아 이후로는 해악이 없었다. 이 때문에 동해의 물고기와 용이 변하여 골짜기를 가득 채운 돌이 되어 각기 종(鍾)과 경쇠(磬)의 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상은 고기이다>⁶⁵⁹⁾

야국이라 불렀다 한다.

657) 나찰녀(羅刹女): ㉠ rākṣasī 여성 나찰. 나찰(羅刹, ㉡ rākṣasa)은 본래 인도 토착 민족의 이름이었는데 아리아인이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 악귀(惡鬼)를 모두 일컫는 이름이 되었다. 나찰은 검은 몸에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모습이지만 나찰녀는 절세미인의 매력적인 여인으로 오직 사람의 피와 살만을 먹는다고 한다. 스리랑카에는 나찰녀 나라가 있다고 전해 왔다. 나찰은 공중을 날고 땅 위를 빨리 가는 등 신통력을 가져 포악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불교 경전에서는 수호신이 되어 나찰천은 12천의 하나가 되고 나찰녀도 수호신으로 등장하게 된다.

658) 오계(五戒): 불교에 귀의하는 재가(在家) 신도가 지키는 다섯 가지의 계율. ① 생명있는 것을 죽이지 말 것(不殺生), ②남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말 것(不偷盜), ③음행하지 말 것(不邪淫), ④거짓말하지 말 것(不妄語), ⑤술을 마시지 말 것(不飲酒).

659) 현재 만어산 안쪽 만어사 아래 골짜기에 크고 작은 돌이 가득 차 있는 돌너덜이 있는데, 돌들의 모양이 마치 물고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만어석(萬魚石)이라 하였으며, 이 돌을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서 종석(鍾石)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전해오는 설화가 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이 수명이 다한 것을 알고 낙동강 건너 무척산의 스님에게 새로 살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스님은 가다가 멈추는 곳이 인연 있는 곳이라고 일러주었는데, 왕자가 길을 떠나자 수많은 고기떼가 뒤를 따랐다. 왕자가 머물러 섰던 곳이 이곳 만어사였고 왕자는 돌로 변해 미륵석이 되었으며 고기들은 크고 작은 고기 모양의 돌이 되었다. 만어사 미륵전 안에 있는 커다란 돌이 미륵석이며, 만어사 아래 겹겹으로 깔린 돌너덜이 고기가 변한 만어석이라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밀양 古蹟) 조선 세

또 살펴보면 대정(大定)⁶⁶⁰ 20년(1180) 경자년은 명종 11년⁶⁶¹인데, 처음으로 만어사(萬魚寺)⁶⁶²를 창건하였다. 동량(棟梁)⁶⁶³인 보림(寶林)이 글을 올려 아뢰었다.

“산 속의 기이한 자취와 북천축(北天竺)⁶⁶⁴ 가라국(訶羅國)⁶⁶⁵의 부처님 그림자에 관한 일은 서로 맞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산 옆의 가까운 곳에 양주(梁州)⁶⁶⁶ 경계에 옥지(玉池)가 있는데, 이곳에 독룡이

종(世宗) 때 이 돌로 경쇠를 만들었으나 음률에 맞지 않아 폐기하였다고 한다.

660) 대정(大定): 금(金) 세종(世宗)의 연호. 1161~1189년 사용. 고려 의종 15~명종 19년. 그 대정 12년(1172)의 간지는 임진(壬辰)이고, 대정 연간의 경자년은 20년(1180)으로 고려 명종 11년에 해당한다. 명종 11년은 대정 20년 경자년과 일치한다. 따라서 원문의 대정 12년은 20년의 잘못이다.

661) 명종 11년: 현재 고려시대 연표로 사용하는 유년칭원법에 따르면 명종 11년은 1181년이다. 그러나 고려 당시에 사용하던 즉위년칭원법에 따르면 명종 11년이 경자년이고 1180년이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한 11년은 고려시대의 즉위년칭원법에 따른 것이다.

662) 만어사(萬魚寺):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丹場面)과 삼랑진읍(三浪津邑)의 경계에 있는 높이 670m의 만어산 서쪽 기슭에 있는 절로 3층석탑(보물 466) 등의 유물이 있다. 절 아래에 돌너덜이 있는데, 동해 용왕의 아들이 고기떼와 함께 이곳에 이르러 왕자는 큰 미륵돌로 변하였고 수많은 고기들은 크고 작은 돌이 되어 만어석이 되었다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밀양 古蹟)

663) 동량(棟梁): 마룻대(棟)와 들보(梁)가 될만한 훌륭한 인물, 즉 동량지재(棟梁之材)의 준말로 일가(一家) 또는 일국(一國)의 중임(重任)을 맡을 만한 사람을 말한다. 불법(佛法)을 바르게 이끌 인재를 뜻하는 말인데, 주로 사찰의 임무를 맡은 이를 일컫는 이름으로 쓰였다.

664) 북천축(北天竺): 천축(天竺)은 한자문화권에서 인도를 부르는 명칭이다. 북천축은 북인도인데, 현장(玄奘)은 남파국(南波國)에서 설다도려국(設多圖廬國)까지의 영역을 북천축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북쪽으로는 힌두쿠시산맥을 넘은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인더스강 상류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665) 가라국(訶羅國): 『관불삼매해경』에 나오는 야건가라국(耶乾訶羅國). 우리나라 가야와 같은 음으로 비유되어 쓰였다.

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둘째는 가끔 강변에서 구름이 일어나 산꼭대기까지 이르는데, 구름 속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셋째는 부처 그림자의 서북쪽에 반석이 있는데 항상 물이 고여 끓이지가 않는데 이를 부처님이 가사(袈裟)를 빨던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상은 모두 보림의 이야기이다.⁶⁶⁷⁾

지금 친히 와서 보고 예를 드리니 역시 분명하여 믿을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골짜기 안의 돌의 삼분의 이가 모두 금옥(金玉)의 소리를 내는 것이 그 하나요, 멀리서 바라보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않아 혹은 보이고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하나이다. 북천축의 글은 뒤에 자세히 기록했다.

魚山佛影

古記云. “萬魚山⁶⁶⁸⁾者, 古之慈成山也, 又阿耶斯山〈當作摩耶斯, 此云魚也〉. 傍有呵囉國, 昔天卵下于海邊, 作人御國, 卽首露王. 當此時, 境內有玉池, 池有毒龍焉. 萬魚山有五羅刹女, 往來交通, 故時降電雨, 歷四年, 五穀不成. 王呪禁不能, 稽首請佛說法, 然後羅刹女受五戒, 而無後害. 故東海魚龍, 遂化爲滿洞之石, 各有鍾磬之聲.”〈已上古記〉

又按, 大定十二年庚子, 卽明宗十一年也, 始創萬魚寺. 棟梁寶林狀奏所稱. “山中奇異之迹, 與北天竺訶羅國佛影事, 符

666) 양주(梁州):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시(梁山市). 낙동강 하류의 넓은 분지에 있어 신라 초기 가야와 교섭이 잦았던 곳으로, 신라의 외곽을 방어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667) 보림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일치점 중에서 『대당서역기』 나갈라갈국의 기사에서는 연못에 사는 용과 불영굴 근처의 부처님이 가사를 빨던 곳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강변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과 그 속에서 들리는 음악소리는 없다.

668) 원문의 ‘山’은 ‘寺’의 오자

同者有三. 一山之側近地梁州界玉池, 亦毒龍所蝨是也. 二有時自江邊雲氣始出, 來到山頂, 雲中有音樂之聲是也. 三影之西北有盤石, 常貯水不絕, 云是佛浣濯袈裟之地是也.” 已上皆寶林之說.

今親來瞻禮, 亦乃彰彰, 可敬信者有二. 洞中之石, 凡三分之二, 皆有金玉之聲, 是一也. 遠瞻卽現, 近瞻不見, 或見不見等, 是一也. 北天之文, 具錄於後.

가함(可函)⁶⁶⁹⁾의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⁶⁷⁰⁾ 제7권에 이런 글이 있다.
“부처가 나건가라국(那乾訶羅國)⁶⁷¹⁾ 고선산(古仙山)⁶⁷²⁾ 담복화(蔞菴花)⁶⁷³⁾ 숲의 독룡 곁에 푸른 연꽃이 핀 샘의 북쪽에 나찰 동굴 가운데의 아

669) 가함(可函):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은 몇 개의 경을 모아 함에 수납하였는데, 이때 천자문의 글자 순서대로 함에 이름을 붙였다. 가함은 187번째 함이다.

670)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 ㉔ Buddha-dhyāna-samādhisāgara-sūtra, 『불설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의 줄임말로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 또는 『관불경(觀佛經)』이라고 부른다. 모두 10권으로 동진(東晉) 불타발타라(佛駄跋陀羅)가 398년에서 421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부처가 카필라국[伽毗羅國]의 니그로다[尼拘樓陀] 숲에서 부왕과 이모를 위해 관불삼매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설한 내용으로서 12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신화 등이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다. 관불삼매란 한 마음으로 부처의 상호(相好)와 공덕을 생각하고 관찰하는 선정(禪定)을 말한다.

671) 나건가라국(那乾訶羅國): 뒤에 인용한 『서역전』에는 나갈국, 『대당서역기』에는 나갈가라국으로 표기하였다. 『관불삼매경』에 나건가라국으로 되어있다. 같은 인용문에서 이 나라의 왕을 ‘나건가라왕’이라 하였으므로, 원문의 야건가라국은 ‘나(那)’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672) 고선산(古仙山): 『대당서역기』나 『서역전』 등의 불영(佛影)에 관한 묘사에서 그 굴이 있는 산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고승전(高僧傳)』 혜원전에는 고선인(古仙人) 석실(石室) 중에 독룡을 교화하기 위해 남긴 불영(佛影)이 있다고 하여 비슷한 서술을 보인다.

나사산(阿那斯山) 남쪽에 이르렀다. 이때 그 동굴에 다섯 나찰이 있어 여룡(女龍)으로 변화하여 독룡과 서로 통하고 있었다. 용(龍)은 다시 우박을 내리고 나찰은 난폭한 행동을 하여 굶주림과 질병이 4년이나 계속되었다. 왕이 놀라고 두려워 천지신⁶⁷⁴⁾에 빌며 제사드려도 아무런 도움됨이 없었다. 이때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한 브라만⁶⁷⁵⁾이 있어 대왕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카필라국[伽毗羅國]⁶⁷⁶⁾ 정반왕(淨飯王)⁶⁷⁷⁾의 아들이 지금 도를 이루어 석가모니(釋迦牟尼)⁶⁷⁸⁾라고 부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부처를 향해 예배를 올리며 말하기를, ‘오늘날 부

673) 담복화(蔞蔔花) : 치자나무 꽃. 『관불삼매해경』에는 담복화(蔞蔔花).

674) 원문의 신기(神祇)는 천신(天神)과 지기(地祇) 곧 천지신을 말한다.

675) 원문의 범지(梵志)는 브라만(Ṛ brāhmaṇa) 곧 바라문(婆羅門)을 말한다. 범지는 범천(梵天)의 범을 구하여 청정무구한 곳에 머물고 범천에 남기를 바라므로 범지라 한역한다. 또 일체 외도(外道)의 출가(出家)한 자를 범지라고도 한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권56에 “범지는 일체 출가한 외도를 말한다. 그 범을 받들어 쓰는 자가 있으면 또한 범지라고 한다.(大 25-461b2~3. 梵志者, 是一切出家外道. 若有承用其法者, 亦名梵志.)”라고 하였다.

676) 카필라국[伽毗羅國] : ㉠ Kapila-vastu, 석가의 탄생국. 현재 인도와 네팔에 각각 카필라국이라는 유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더 알려진 네팔 카필라는 지금의 타라이(Tarai)의 킬라우라 코트(Tilaurakot) 지방에 해당한다. 석가모니 생존시에 슈라바스티[舍衛城, ㉠ Śrāvastī]가 서울인 코살라국[橋薩羅, ㉠ Kośalā]에 멸망하였다.

677) 정반왕(淨飯王) : ㉠ Suddhodana, 카필라국의 왕, 석가의 아버지. 백정왕(白淨王)이라고도 한다. 사자협왕(師子頻王, ㉠ Simhahanu)의 큰아들로 인근 천비성(天臂城, ㉠ Devadaha) 성주의 딸인 마야(摩耶, ㉠ Māyā)과 마하파사파제(摩訶波闍波提, ㉠ Mahāpajāpati)를 왕비로 맞아 부처가되는 싯달타[悉達多, ㉠ Siddhārtha] 태자를 낳았다. 만년에 경건하게 부처에 귀의하여 불타와 제자들을 외호하는 자가 되었다.

678) 석가모니(釋迦牟尼) : ㉠ Śākya-muni, 석가문(釋迦文)이라고도 한다. 줄여서 석가(釋迦), 혹은 모니(牟尼)라고도 한다. 능인(能仁), 능인(能忍) 등으로 번역하고, 높여서 석가세존(釋迦世尊) 혹은 석존(釋尊)이라고도 부른다. 사카(㉠ sakya)는 종족(種族)의 이름으로 능(能)의 뜻이고, 무니(㉠ muni)는 존칭으로 현인(賢人)의 뜻이어서,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현인이라는 뜻이 된다.

처의 빛⁶⁷⁹⁾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나라에는 오시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때 여래가 여러 비구들에게 명하여 육신통(六神通)⁶⁸⁰⁾을 얻은 자는 부처의 뒤를 따르게 하고 나건가라왕 불파부제(弗巴浮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때 세존의 정수리에서 광명이 나더니 일만의 대화불(大化佛)⁶⁸¹⁾로 변화하여 그 나라로 갔다. 이때 용왕과 나찰녀가 오체투지(五體投地)⁶⁸²⁾하며 부처에게 계를 받기를 구하고, 부처는 곧 (그들을) 위하여 삼귀(三歸)⁶⁸³⁾ 오계(五戒)를 설하였다.

용왕이 다 듣고 나자 꿇어 앉아 합장하고 세존이 이곳에 항상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부처께서 만약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나쁜 마음이 생겨 아복보리(阿耨菩提)⁶⁸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때 범천왕(梵天王)⁶⁸⁵⁾이 다시

679) 부처의 빛: 부처의 예지와 덕행과 자비가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는 것이 태양이 어둠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부처를 태양에 비유하는 말이다.

680) 육신통(六神通):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6가지의 신통력. 천안통(天眼通: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통), 천이통(天耳通: 보통 귀로는 듣지 못할 음성을 듣는 신통), 타심통(他心通: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유롭게 아는 신통),宿命통(宿命通: 지나간 세상의 생사를 아는 신통), 신족통(神足通: 어떤 장소에나 뜻대로 갈 수 있는 신통), 누진통(漏盡通: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힘).

681) 대화불(大化佛): 응신(應身), 변화신(變化身). 중생의 근기(根氣)에 따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는 불신(佛身)을 말한다.

682) 오체투지(五體投地): 불교에서 예배하는 법의 하나로 인도에서는 가장 공경하는 예법이다. 오체는 두 팔과 두 무릎, 그리고 머리를 말한다. 먼저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대고 그 다음에 머리를 땅에 닿도록 하는 절.

683) 삼귀(三歸): 삼귀의(三歸依) 또는 삼귀계(三歸戒), 불(佛)·법(法)·승(僧) 3보(寶)에 귀의함을 말한다. 불교도가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으로 귀의에는 구호한다는 뜻과 향하여 간다는 뜻이 있어, 삼보에 의지하고 구호를 청하여 영원히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684) 아노보리(阿耨菩提): 아노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 anuttara-samyak-sambodhi의 줄임말. 무상정변지(無上正遍知),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

와서 부처에게 예를 올려 청하기를, ‘바가바(婆伽婆)⁶⁸⁶⁾께서는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이 작은 용 하나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백천(百千)의 범왕⁶⁸⁷⁾이 모두 이와 같이 청하였다. 이때 용왕이 칠보대(七寶臺)를 내어 여래에게 바치니 부처가 용왕에게 말하기를, ‘이 자리는 필요 없으니, 그대는 지금 나찰의 석굴만을 가져다가 나에게 시주하라.’라고 하니 용이 기뻐하였다.〈고 한다.〉이때 여래가 와서 용왕을 위로하며 ‘내가 너의 청을 받아들여 네 굴 속에 앉아서 천오백년을 지내겠다’라고 하고는 부처는 몸을 솟구쳐 돌 속에 들어갔다. (돌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져서 사람들이 얼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모든 용들이 나타났다며, 부처는 돌 속에 있으면서 밖으로 비쳐 나타났다. 이때 모든 용들이 합장⁶⁸⁸⁾하고 기뻐하며, 그 곳을 나오지 않고 항상 부처를 볼 수 있었다. 이

覺), 또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고 번역한다. 부처 깨달은 지혜를 말한다. 이는 평등하고 원만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깨달은 도가 더 없이 높으므로 무상(無上)이라 하고, 두루 미쳐 포함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정변지(正遍知)라고 한다. 대승의 보살행은 모두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어서 보살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완성한 이를 아녹다라삼막삼불타(阿耨多羅三藐三佛陀) 곧 무상정등각자(無上正等覺者)라 한다.

685) 범천왕(梵天王) : ⑤ Brahmā, 범천(梵天). 인도 신화의 창조신으로 브라만교 3대 신의 하나. 불교에 수용되어 색계 초선천이 범천에 속하는데 범중천(梵衆天)·범보천(梵輔天)·대범천(大梵天)의 셋으로 나뉘며 통칭하여 범천이라 한다. 범왕(梵王)이라고도 하며 사바세계의 주인이라고도 한다. 제석천(帝釋天)과 함께 정법(正法)을 옹호하는 신이 되어 부처에게 제일 먼저 설법하기를 청한다. 항상 부처를 오른편에서 모시며, 손에는 흰 먼지털이(拂子)를 들고 있다고 한다.

686) 바가바(婆伽婆) : ⑤ Bhagavat, 부처를 부르는 호칭의 하나. 박가범(薄伽梵)이라고도 음역하며, 유덕(有德)·유대공덕(有大功德)·중우(衆祐)·세존(世尊) 등으로 번역한다. 모든 덕을 갖추어 세상의 존중과 공덕을 받는 자라는 뜻이니 곧 부처의 존칭이다.

687) 범왕 : 범천왕. 주 685) 참조

때 세존은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석벽(石壁) 속에 앉아 있었는데, 중생들이 볼 때는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천인이 부처의 그림자에 공양하면 그림자도 또한 설법을 하였다.”⁶⁸⁹⁾

또 말하기를, “부처가 바위 위를 밟으면 금과 옥의 소리가 났다”고 한다.

可函觀佛三昧經第七卷云. “佛到那⁶⁹⁰⁾乾訶羅國古仙山, 蒼蒿花林毒龍之側, 青蓮華泉北, 羅刹穴中, 阿那斯山南. 爾時彼穴有五羅刹, 化作女龍, 與毒龍通. 龍復降雹, 羅刹亂行, 飢饉疾疫, 已歷四年. 王驚懼, 禱祀神祇, 於事無益. 時有梵志, 聰明多智, 白言大王, ‘伽毗羅淨飯王子, 今者成道號釋迦文’. 王聞是語, 心大歡喜, 向佛作禮曰, ‘云何今日佛日已興, 不到此國?’ 爾時如來勅諸比丘, 得六神通者, 隨從佛後, 受那乾訶羅王弗巴浮提請. 爾時世尊頂放光明, 化作一萬諸大化佛, 往至彼國. 爾時龍王及羅刹女, 五體投地, 求佛受戒. 佛即爲說三歸五戒.

龍王聞已, 長跪合掌, 勸請世尊常住此間. ‘佛若不在, 我發惡心, 無由得成阿耨菩提.’ 時梵天王復來禮佛請, ‘婆伽婆爲未來世諸衆生, 故莫獨偏爲此一小龍.’ 百千梵王皆作是請. 時龍

688) 합장: 두 손을 합쳐 마음을 집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뜻을 갖는 것. 본래 인도의 예법 중의 하나로 9단계 중의 4번째였는데, 불교에서 수용하여 사용하였다. 두 손을 합친다는 것은 신성한 오른손과 부정한 왼손을 합침으로써 진실한 면목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불교에서의 합장은 마음 속으로부터의 경의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사리에 들어맞는 뜻을 나타낸다.

689) 경전의 중간 중간에서 인용하였고, 경전 원문과 인용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불설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 권7 大15 p.679b7~12; b14~23; b29~c1; c24~27; 680c3~5; c17~23; c26~28; 681a23~b4.

690) 원문의 ‘耶’는 ‘那’의 오자

王出七寶臺，奉上如來，佛告龍王。‘不須此臺，汝今但以羅刹石窟持以施我。’龍歎喜。〈云云〉爾時如來安慰龍王，‘我受汝請，坐汝窟中，經千五百歲。’佛湧身入石。猶如明鏡，人見面像，諸龍皆見，佛在石內，映現於外。爾時諸龍合掌歡喜，不出其地，常見佛日。爾時世尊結伽趺坐在石壁內，衆生見時，遠望卽現，近則不現。諸天供養佛影，影亦說法。”又云，“佛蹴崑石之上，卽便成金玉之聲。”

『고승전(高僧傳)』⁶⁹¹⁾에는 이런 말이 있다. “혜원(惠遠)⁶⁹²⁾이 천축에 부처의 그림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용을 위해 남긴 그림자로 북천축 월지국(月支國)⁶⁹³⁾ 나갈가성(那竭呵城) 남쪽의 옛 선인(仙人)의 석실 안에 있

691) 『고승전(高僧傳)』: 중국 양(梁)나라의 혜교(慧皎)가 지은 고승들의 전기. 14권.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후한(後漢) 영평(永平) 10년(67)부터 양(梁) 천감(天監) 18년(519)까지 453년 동안에 있었던 257명의 고승에 대한 전기와, 이름만 남은 500명의 승려를 수록하였다.

692) 혜원(惠遠): 혜원(慧遠, 335~417). 중국 동진(東晉)의 스님으로 정토종의 초조이자 염불결사의 시작인 여산(廬山) 백련사(白蓮社)의 창시자이다. 중국불교를 확립한 도안(道安)의 반야 강의를 듣고 출가하여 반야공관을 익히고 여산 동림사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였다. 관중에 들어온 구마라집과 서신으로 토의하는 등 반야학 선양에 열중하고 402년에 승려는 물론 일반인도 참여하는 백련사를 창립하여 정토염불 수행을 제창하였다. 출가 사문은 국왕에 경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지어 국가 권력에 대한 불교의 독자성을 주장하였다. 구마라집이 주도한 장안과 더불어 혜원은 여산에서 남방불교의 중심을 이루며 활발한 종교활동을 하였다.

693) 월지국(月支國): 서역에 있던 나라. 대월지국(大月氏國)으로 불렸는데, 인도 북부와 힌두쿠시산맥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와 중국의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하여 지루가참(支婁迦讖) 등이 지겸(支謙) 등이 중국에 와서 역경승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축법호(竺法護)는 월지족의 후예로서 월지보살(月支菩薩) 또는 돈황보살이라

다<고 한다.>⁶⁹⁴⁾

또 법현(法顯)⁶⁹⁵⁾ 『서역전(西域傳)』⁶⁹⁶⁾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나갈국(那竭國)⁶⁹⁷⁾의 경계에 이르렀다. 나갈성(那竭城) 남쪽으로 반 유순(由旬)⁶⁹⁸⁾되는 곳에 석실이 있는데, 박산(博山)⁶⁹⁹⁾의 서남쪽이며, 부처가 이 가운데에 그림자를 남겨 두었다. 십여 보쯤 떨어져서 그것을 보면 부처의 참

불리기도 하였다.

694) 『고승전(高僧傳)』 권 6 의해 석혜원(釋慧遠)전에 있는 내용이다.(大50 p.385b8~11. “遠聞, 天竺有佛影, 是佛昔化毒龍所留之影, 在北天竺月氏國那竭呵城南古仙人石室中, 經道取流沙, 西一萬五千八百五十里, 每欣感交懷志欲瞻視.”)

695) 법현(法現)은 법현(法顯, 337~422). 동진(東晉) 때의 승려. 장안에서 돈황과 호탄을 거쳐 인도에 가서 6년 동안 머물면서 불적(佛蹟)을 두루 찾아보고, 계율과 범어를 배우고 스리랑카로 건너가 상선을 타고 해로로 귀국길에 올라 412년에 산동성에 도착하였다. 뒤에 장안의 도량사(道場寺)에서 인도에서 가져온 많은 경(經)과 율(律)을 번역한 뒤 입적하였다. 파미르고원을 넘은 최초의 중국 승려로서, 그가 저술한 여행기인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은 『불국기(佛國記)』라고도 하는데,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더불어 인도와 서역 여러 나라의 실정을 전하고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696) 서역전(西域傳):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 또는 『불국기(佛國記)』의 다른 이름.

697) 나갈국(那竭國): ☐ Nagarahāra, 나갈라갈(那揭羅曷), 나건가라(那乾訶羅) 등으로도 부른다. 북인도에 있던 나라 이름으로 이 나라 안에 석존이 과거세에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는 곳에 세운 아쇼카왕의 석주가 있었고, 성 동남쪽에는 석존의 정골(頂骨)을 봉안한 7층탑이 있었다고 한다. 현장의 『대당서역기』 권2 나갈라갈국(那揭羅曷國)에 “람파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백여 리를 가면 큰 고개를 넘고 큰 강을 건너 나갈라갈국에 이른다”고 하였다.(大51 p.878b25~26) 이 곳의 위치는 현재의 아프카니스탄의 동북부에 해당하고, Jalahabad를 중심으로 하는 카불강 유역 남부의 땅으로 추정된다.

698) 유순(由旬): ☐ yojana. 유사나(踰闍那)·유선나(踰繕那)·유연(由延) 등으로도 번역한다. 인도에서 거리를 재는 단위이다. 소가 멩에를 걸고 하루 가는 거리를 말하는데,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는 제왕이 하루 행군하는 거리로서 40리라고 하였다. 실제 길이에 대해서는 19.5km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699) 박산(博山): 나갈라갈의 불영굴 근처 지명

모습과 같이 광명이 찬란하나 가까이 갈수록⁷⁰⁰⁾ 점점 희미해진다.⁷⁰¹⁾ 여러 나라의 왕들이 화공(畵工)을 보내어 모사(模寫)하도록 하였으나 비슷하게 그릴 수 없었다. 나라 사람들이 전하기를 ‘현겁(賢劫)⁷⁰²⁾의 천불(千佛)이 모두 이곳에 그림자를 남길 것이다’고 하였다. 그림자의 서쪽으로 백보쫂 떨어진 곳에 부처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머리를 깎고 손톱을 자른 곳이 있다.⁷⁰³⁾”〈고 한다〉

성함(星函)⁷⁰⁴⁾의 『서역기(西域記)』⁷⁰⁵⁾ 제2권에는 이런 글이 있다.⁷⁰⁶⁾ “옛

700) 원문에는 ‘멀수록(遠)이라 하였으나 다른 기록이나 의미상 ‘가까이 갈수록(近)’의 오자로 생각된다.

701) 『법현전』에는 ‘가까이 갈수록 희미해진다(轉近轉微)’이고, 『관불삼매경』이나 『대당서역기』 모두 가까이서 보면 안보이고 멀리서 보면 보인다고 기록하였으므로, 원문의 ‘전원전미(轉遠轉微)’는 ‘전근전미(轉近轉微)’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702) 현겁(賢劫): 과거의 대겁 장엄겁(莊嚴劫), 현재의 대겁 현겁, 미래의 대겁 성수겁(星宿劫)을 말하는 삼겁(三劫)의 하나이다. 겁은 ‘극대(極大)의 시한(時限)’을 가리키며, 경전에 따라 다르나 『구사론』에 의하면 1680만년이라 한다. 현겁은 현재주겁(現在住劫)으로 현겁(現劫)이라고도 하며, 천불현성(千佛賢聖)의 많은 현인이 출현하므로 현겁(賢劫)이라고 한다. 4-1 주15) 참조.

703) 『고승법현전』 大51 p.858c25 ; p.859a3~8.

704) 성함(星函): 『고려대장경』의 464번째 함을 가리킨다.

705) 『서역기(西域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당(唐) 현장(玄奘)이 저술하고 제자인 변기(辯機)가 정리하여 646년에 완성한 12권의 책. 현장이 16년간에 걸쳐 구법여행(求法旅行)하는 동안에 서역의 여러 나라 곧 지금의 중국 서부와 투르크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등의 110여 나라를 직접 보고 또 28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견문한 것을 귀국하고 나서 태종(太宗)의 명으로 저술한 것이다. 불교의 대승과 소승의 각 부파의 전파와 신앙 실정을 비롯하여 지리·풍속·언어·전설·산업 등 다양한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다른 책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자료적 기술은 근대에 들어 인도 등지의 불교 유적으르 발굴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706) 『대당서역기』 권2 나갈라갈국(那揭羅曷國)조에 보인다. (大51 p.879a5~16) 이곳 『삼국유사』의 인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 내용은 거의 같다. 그러나

날에 여래가 세상에 계실 때 이 용이 소를 치는 사람이 되어 왕에게 젓(乳)과 낙(酪)⁷⁰⁷⁾을 공급하였는데, 진상하다가 잘못하여 꾸지람을 들었다. 마음 속에 노여움과 원한을 품고는 금전으로 꽃을 사서 공양하며 솔도파(率堵婆)⁷⁰⁸⁾에 수기(授記)⁷⁰⁹⁾하기를, ‘나쁜 용이 되어 나라를 파괴하고 왕을 해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석벽(石壁)으로 가서 몸을 던져 죽었다. 마침내 이 굴에 살면서 대용왕(大龍王)이 되어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 여래가 이것을 알고는 신통력으로 이곳에 이르니, 용이 부처를 보고 드디어 악독한 마음을 그쳐서 살생하지 않겠다는 계[不殺戒]⁷¹⁰⁾를 받고 청하기를, ‘여래께서 항상 이 굴에 계셔서 항상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부처가 말하기를, ‘나는 장차 적멸(寂滅)⁷¹¹⁾할 것이므로, 너를 위해 그림자를 남기

이곳에 마지막 구절로 인용된 “정신을 집중시켜 홀로 석실에 들어갔는데,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돌 위의 발자취를 칠보로 삼았다(攝神獨入室, 遠望即現, 近則不現. 又令石上蹴爲七寶.)”는 부분은 『대당서역기』에는 없다.

707) 낙(酪): 소젖이나 양젖을 끓여 만든 음료.

708) 솔도파(率堵婆): ṣṭūpa, 솔도파(率堵波) 등으로도 음역하고, 탑파(塔婆)·탑(塔)이라고도 한다. 고대 인도에서는 반원을 엮어 놓은 형태의 무덤을 말했는데, 석존이 입멸한 후 기념물의 의미가 더해져 쿠산왕조 때 벽돌로 만든 많은 탑이 만들어져 석존의 유골이나 소지품 또는 머리카락 등이 함께 묻혔다. 이후 탑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운동이 일어나 대승불교가 시작되었다. 여기 인용한 『대당서역기』에는 이 탑이 석존이 수기를 받은 연등불의 탑이라고 하였다.

709) 수기(授記): ṣyākaraṇa, 수결(授決)·기별(記別)·기별(記別)이라고도 한다. 본래 경전을 12가지로 구분할 때 교설을 분석하거나 문답 등의 방식으로 교리를 해설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의미가 바뀌어 제자에게 깨달은 것이나 다음 세상에서 태어날 곳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쓰였다. 후대에는 미래세의 깨달은 과보와 성불한 명호(名號)를 미리 알려주는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710) 살생하지 않겠다는 계[不殺戒]: 5계의 하나로 모든 중생의 생명을 없애지 말라는 계율이다.

711) 적멸(寂滅): ṣyupaśama, 생사를 벗어나 적멸한 무위의 경지에 들어감을 말한

겠다. 네가 만약 악독하고 분한 마음이 생기면 항상 내 그림자를 보고 악독한 마음을 그치도록 하라.’고 하였다. (부처는) 정신을 집중시켜 홀로 석실(石室)에 들어갔는데,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돌 위의 발자취를 칠보(七寶)⁷¹²⁾로 삼았다.” <고 한다.> 이상은 모두 경문(經文)인데 대략 이와 같다.

해동(海東)의 사람들은 이 산을 아나사(阿那斯)⁷¹³⁾라 불렀는데 마나사(摩那斯)⁷¹⁴⁾라 해야 한다. 이는 번역하면 물고기이다. 대개 저 북천축의 일을 가져다 이렇게 부른 것이다.

高僧傳云, “惠遠聞, 天竺有佛影, 昔爲龍所留之影, 在北天竺月支國那竭呵城南古仙人石室中.” <云云> 又法現西域傳云,

다. 이 경지에서는 미혹한 세계를 멀리 떠나 쾌락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소승에서는 열반을 가리키며, 승려들이 죽는 것을 적(寂)이라 하여 입적(入寂), 시적(示寂), 원적(圓寂)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멸의 줄임말로 쓰인 것이다. 열반(涅槃, ㄷ nirvāṇa)은 적멸(寂滅)·멸도(滅度) 등으로도 번역한다. 열반은 원래 불어 끄는(吹滅) 것이나 그 상태를 의미하였는데 후에는 번뇌의 불을 다 태워 없애서 깨달음을 완성한 경지를 뜻하게 되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게 되었다. 여기서의 뜻은 부처의 죽음을 가리킨다.

712) 칠보(七寶): 세상에서 진귀하게 여기는 일곱 가지의 보물. 경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금·은·유리·마노·수정·산호·진주 등을 말한다.

713) 아나사(阿那斯): 『관불삼매경』에도 아나사라고 하였다. 그 뜻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阿那斯[譯曰無食處也], 『翻梵語』 권9, 大54 p.1043c19) 그러나 일연은 경전과 우리나라의 전승을 모두 따르지 않고 물고기라는 뜻의 ‘마나사’라고 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다.

714) 마나사(摩那斯): ㄷ manasvin, 마나사용왕은 『법화경』을 설법하는 회좌에 청중으로 참여한 8대 용왕(龍王)의 하나이고, 『화엄경』에서는 비를 내리는 용왕이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慈心], 높은 뜻[高意]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一切經音義』 권27, 大54 p.447a5 摩那斯龍王[摩那意也, 斯慈也, 流出也, 言此龍王凡興雲, 再皆從慈心出也,]) 총명하고 지혜로운(聰慧) 또는 위엄을 갖춘(具威)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翻譯名義集』 권2 大54 p.1078c11. 摩那斯, 此云大身, 或云大意, 或云大力.)

“至那竭國界，那竭城南半由旬有石室，博山西南面，佛留影此中。去十餘步觀之，如佛真形，光明炳著，轉近⁷¹⁵⁾。轉微。諸國王遣工摹寫，莫能髣髴。國人傳云，‘賢劫千佛，皆當於此留影。’影之西百步許，有佛在時剃髮剪爪之地。”〈云云〉

星函西域記第二卷云，“昔如來在世之時，此龍爲牧牛之士，供王乳酪，進奉失宜，旣獲譴責。心懷恚恨，以金錢買花供養，授記宰堵婆，‘願爲惡龍，破國害王。’卽趣石壁，投身而死。遂居此窟爲大龍王，適起惡心。如來鑑此，變神通力而來至此，龍見佛，毒心遂止，受不殺戒，因請‘如來常居此穴，常受我供。’佛言，‘吾將寂滅，爲汝留影。汝若毒忿，常觀吾影，毒心當止。’攝神獨入石室，遠望卽現，近則不現。又令石上蹴爲七寶。”〈云云〉已上皆經文，大略如此。

海東人名此山爲阿那斯，當作摩那斯。此翻爲魚，蓋取彼北天竺事而稱之爾。

715) 원문의 ‘遠’은 ‘近’의 오자로 생각됨.

4-19 오대산의 오만 진신

[해제]

평창 오대산에 불보살의 진신이 상주한다는 설화를 담은 편이다. 『삼국유사』에는 이 「오대산의 오만 진신」편과 나란히 「오대산 보길도태자의 전기(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편을 두어 오대산 진신신앙의 근거로 세우고 있다. 이 두 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오만진신」편은 태자들의 설화 이전에 오대산 진신신앙이 비롯되었다는 자장의 이야기를 실었다. 자장이 중국에서 문수를 친견한 설화와 귀국 후 원녕사에서의 문수 친견과 정암사 창건 이야기를 싣고 신의가 자장이 머물던 곳에 암자를 지은 것이 월정사임을 말하였다.

다음에 이 편의 주인공인 보천과 효명 두 왕자의 이야기를 자장 시대인 듯 시작하였다. 두 왕자가 하서부 지역을 유람하다가 은밀히 오대산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두 왕자는 각각 암자를 짓고 수행하면서 함께 다섯 봉우리에 올라 중대 비로자나불과 1만 문수를 비롯하여 동대 1만 관음, 남대 팔대보살과 1만 지장, 서대 미타와 1만 세지, 북대 석가와 오백나한의 오만 진신이 현신하여 예배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문수보살이 36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두 왕자는 차를 올리고 수도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왕을 폐위시키고 왕자들을 모시려 하였으나 보천은 사양하여 효명이 왕으로 즉위하였다. 705년에는 진여원을 짓고 화엄사를 결성하여 인근 고을에서 비용을 보조하게 하고 장원을 만들었다. 보천은 50년 동안 수행하여 하늘에서 와서 법을 듣고 차를 올릴 만큼 많은 이적을 보였으며 문수보살은 성도할 것이라



오대산 월정사

는 기별을 주었다. 보천은 죽기 전에 나라에 오대는 진신이 상주하는 곳이니 동대에 관음방과 원통사, 남대에 지장방과 금강사, 서대에 미타방과 수정사, 북대에 나한당과 백련사, 중대에 진여원과 화엄사를 두고, 자신이 수행하던 보천암은 화장사와 법륜사로 고쳐 오대의 본사로 삼고 하원에 문수갑사를 두어 도회소로 삼아 향화를 받들면 온 나라가 평안할 것임을 말하고 대대로 잊지 않고 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비해 「태자전기」편은 앞머리의 자장 이야기가 없고 곧바로 보질도(寶叱徒, 寶川)와 효명 두 왕자가 하서부에서 놀다가 오대산에 들어가 각각 암자를 짓고 살며 오대의 오만 진신과 문수 36변신에 예배 공양하였다고 하였다. 나랏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 하였더니 보천은 울며 사양하여 효명을 데려다 왕위에 올렸고, 효명은 즉위 10년만에 진여원을 창건하였으며 보천은 50년 동안 수도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태자전기」에 있는 내용은 「오만진신」편에 보다 상세하게 모든 내용이 들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두 편이 보천을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자료에 의거하여 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판단에 따라 이 책에서는 「오대산 보길도태자의 전기」편은 다시 신지 않고 「오대산의 오만진신」편만 신고, 관련 내용은 각주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자료로는 자장 관련 기사는 산중의 고전(古傳)을 들었고 보천과 효명 왕자의 기사는 전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신라역사와 직접 관련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관련 대목에서는 『삼국사기』를 이끌어 상세한 주석을 달아 고증하였다.

이 오대산 진신 설화는 신라 불국토 신앙의 첫머리를 이루는 자장과 문수보살 상주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화엄신앙에서 그 토대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오만진신 설화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관음·미타 지장·석가의 오방신앙을 절과 결사(結社), 불보살과 독송 경전 그리고 예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구성한 오방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앙 형태는 밀교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오대산 오만진신 설화는 화엄신앙에서 시작하여 밀교 신앙으로 변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 오대산 신앙의 단초를 제공했던 중국의 오대산 신앙도 남북조시대의 화엄에서 시작하여 당대의 징관이 이를 드높였고, 이어 불공이 밀교적으로 크게 확장시켜 왕성한 신앙 성지를 이룩하여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 편은 또한 역사적 사실인 태자의 왕위 계승과 연관이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신대왕의 태자 보천과 효명이라는 설화의 구성은 신문왕과 두 아들인 효소왕과 성덕왕으로 보고 그 즉위과정에서 나타났던 상황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오만진신의 출현 및 예배와 오대 사원의 건립은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705년 진여원의 창건은 명확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머지 오대 각 사원의 창건은 보천이 죽기 전에 당부한 사실을 적

은 것이므로 실제로 사원이 건립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위치	절	봉안 불보살	주간독송	야간예참	결사
동대	관음방	관음상, 1만관음	금광명경, 인왕경, 천수다라니	관음예참	원통사
남대	지장방	지장상, 8대보살 1만지장	지장경, 금강경	점찰예참	금강사
서대	미타방	무량수상, 무량수 1만세지	법화경	미타예참	수정사
북대	나한당	석가상, 석가 5백나한	불보은경, 열반경	열반예참	백연사
중대	진여원	문수상, 비로자나 36문수	화엄경, 대반야경	문수예참	화엄사
본사	보천암→화장사	비로자나삼존상	대장경	화엄신중	법륜사
도회소	하원 문수갑사		화엄신중예참		

보천이 제안한 오대산의 사원 구성과 결사

[역주]

오대산⁷¹⁶⁾의 오만 진신

산중의 옛 전승[古傳]⁷¹⁷⁾을 살펴보면 이 산이 부처님⁷¹⁸⁾이 머무는 곳이

716) 오대산(五臺山): 강원도 평창군과 홍천군 일대에 걸쳐 있는 높이 1563m의 산. 백두대간 중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우뚝 솟아 주봉우리인 비로봉을 비롯하여 상왕봉, 호령봉, 두로봉, 동대산 등 고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산과 같이 뾰족한 봉우리가 솟은 느낌보다는 토산으로 이루어진 평평한 느낌의 봉우리가 만들어진 다섯개의 대가 솟아 오대산으로 불린다. 중국의 오대산에 비겨 신라 시대 자장에 의해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성지로 자리매김되었다. 중심 사찰인 월정사(月精寺)와 상원사(上院寺), 석가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고 하는 적멸보궁(寂滅寶宮) 외에, 북대 미륵암,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서대 수정암, 중대 사자암의 암자들이 있다.

717) 고전(古傳): 『삼국유사』의 이 다음 편인 「대산월정사오류성중(臺山月精寺五類

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자장법사(慈藏法師)⁷¹⁹⁾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한다. 처음에 법사가 중국 오대산(五臺山)⁷²⁰⁾의 문수보살(文殊菩薩)⁷²¹⁾의 진

聖衆)』편에는 ‘절에 전해오는 고기[寺中所傳古記]’를 인용하고 있는데 양자는 같은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718) 원문의 진성(眞聖)은 참된 성자라는 뜻으로 진신(眞身) 곧 부처를 말한다. 『대지도론』에는 “불신(佛身)에 진신과 화신(化身)이 있는데, 진신은 허공에 가득 차서 시방에 광명을 두루 비추며 시방의 한없는 세계에 음성으로 설법하여 대승들이 모두 함께 듣게 하고 어느 때 각자 들은 대로 알아 깨닫는다.”(『大智度論』 권30 大25 p.278a18~23. 佛眞身者, 遍於虛空, 光明遍照十方, 說法音聲亦遍十方無量恆河沙等世界, 滿中大衆皆共聽法, 說法不息, 一時之頃各隨所聞而得解悟.)고 하였다.

719) 자장법사(慈藏法師): 자장은 신라시대의 승려. 636년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만나보고 가사(袈裟)와 사리를 받았다.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에서 도를 닦고 화엄종의 두순(杜順)과 계율종(戒律宗)의 도선(道宣)에게 배운 뒤, 643년 장경(藏經) 1부와 불구(佛具)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하였고, 황룡사 9층탑 창건을 건의, 645년에 완성하였다. 4-5 주122) 참조.

720) 오대산(五臺山): 중국 산서성(山西省) 오대현(五臺縣)에 있는 오대산으로 청량산이라고 불렀는데, 『화엄경』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의 내용에 따라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성지로 신앙되었다. 중국 불교사상 사대영산(四大靈山)의 하나로 북위 이후 화엄경을 연구자들이 많이 수행하였고 8세기 후반에 불공(不空)이 밀교의 성지로 다듬었으며 이어 정관(澄觀)이 화엄성지로 재확인하였다. 4-5 주123) 참조.

721) 문수보살(文殊菩薩): ㉔ Mañjuśrī. 문수사리(文殊師利) 또는 만수실리(曼殊室利)로 음역하며, 묘덕(妙德), 묘길상(妙吉祥)으로 의역한다. 보현보살(普賢菩薩)과 함께 석가여래(釋迦如來)의 협시보살로서 지혜(智慧)를 담당하여 오른손에 지검(智劍), 왼손에 청연화(靑蓮華)를 가지고 사자(獅子)를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와 같이 32상(相) 80종호(種好)의 덕상(德相)을 갖추었다고도 하며(『문수반니원경(文殊般泥洹經)』),童子(童子)로 지칭되어(『화엄경(華嚴經)』입법계품(入法界品)) 문수를 동자상(童子像)으로 조성 봉안하는 경우도 많다.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거주한다는 것은 『화엄경』에 나온다.(60화엄 권29 菩薩住處品. 大9 p.590a3~5. 東北方有菩薩住處, 名清涼山, 過去諸菩薩常於中住. 彼現有菩薩, 名文殊師利, 有一萬菩薩眷屬, 常為說法.)

신(眞身)을 보려고 선덕왕(善德王)⁷²²⁾ 때인 정관(貞觀)⁷²³⁾ 10년(636) 병신년『당고승전(唐高僧傳)』⁷²⁴⁾에는 12년이라고 하였으나⁷²⁵⁾ 여기서는 『삼국본사(三國本史)』에 따른다⁷²⁶⁾에 당나라로 들어갔다. 처음 중국 태화지(太和池)⁷²⁷⁾ 가의 문수보살의 석상(石像)이 있는 곳에 이르러 7일 동안 경건하게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꿈에 대성(大聖)⁷²⁸⁾이 네 구절의 계송을 주었다. 깨어나 기억해 보니 모두 범어(梵語)⁷²⁹⁾였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문

722) 선덕왕(善德王): 신라 제27대 왕. 재위 632~647년. 634년에 분황사(芬皇寺)를 창건하였고, 635년에는 영묘사(靈廟寺)를 세웠다. 첨성대를 쌓고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였다. 4~5 주125) 참조.

723) 정관(貞觀): 당나라 태종(太宗)의 연호. 627~649년. 신라 진평왕 49~진덕왕 3년.

724) 『당고승전(唐高僧傳)』: 『속고승전(續高僧傳)』을 말하며 당전(唐傳)이라고도 한다. 당(唐) 정관 19년(645)에 도선(道宣, 596~667)이 찬술한 것으로 『고승전(高僧傳)』 곧 『양고승전(梁高僧傳)』에 수록된 이후의 남북조에서 초당에 이르는 승려들의 전기를 모아 엮은 책이다. 실제로는 665년까지 증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 30권에 10개 항목으로 본전(本傳) 414인, 부전(附傳) 201인의 전기를 엮었다.

725) 12년이라고 하였으나: “정관 12년(638)에 문인 승실 등 10여인을 이끌고 동쪽으로 서울에 이르렀다.”(『속고승전(續高僧傳)』 권24 釋慈藏. 大50 p.639b13~14. 以貞觀十二年, 將領門人僧實等十有餘人, 東辭至京.)

726) 여기서 말하는 『삼국본사』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말한다. “자장법사가 당에 법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삼국사기』 권5 선덕왕 5년. 慈藏法師, 入唐求法.)

727) 태화지(太和池): 중국 오대산 중대(中臺) 정상 서북쪽에 태화천(太華泉)이 있다. “중대의 조금 가까운 서북쪽에 태화천이 있는데 둘레는 38보이다. 그 물은 맑고 투명하게 비치는데 줄어들어 말라 붙은 적이 없으니 모두들 성인이 씻은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옥 가는 사람들은 향이나 꽃이나 재물로 공양한다.”(『古清凉傳』 권1 大51 p.1093b21~25. 中臺, 高四十里, 頂上地平, 周迴六里零二百步. 稍近西北, 有太華泉(亦名口池也), 周迴三十八步. 水深一尺四寸, 前後惑者, 或深或淺不同. 其水清澈凝映, 未嘗減竭, 皆以為聖人盥漱之處. 故往還者, 多以香花財賄投之供養.)

728) 대성(大聖): 위대한 성자(聖者), 부처나 보살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서는 문수보살을 가리킨다.

729) 범어(梵語): 산스크리트어. 한자로 번역되지 않은 본래 인도의 경전에 쓰인 말.

득 한 스님이 붉은 비단에 금색 점무늬가 있는 가사(袈裟) 1벌과 바리 1구(具)와 부처의 머리뼈 1조각을 가지고 범사 곁으로 와서 묻기를, “무슨 근심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범사가 대답하기를, “꿈에 받은 네 구절의 계승이 범음(梵音)이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은 그것을 번역하여 말해주기를, “가라과좌낭(呵囉婆佐囊)은 일체법(一切法)을 다 안다는 뜻이고, 달예치구야(達嘑哆佉野)는 자성(自性)은 무소유라는 뜻이고, 낭가희가낭(囊伽呬伽囊)은 이와 같이 법성(法性)을 알았다는 것이고, 달예로사나(達嘑盧舍那)는 곧 노사나불(盧舍那佛)를 뵈는다는 뜻이다⁷³⁰⁾”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사(袈裟) 등을 주며⁷³¹⁾ 부탁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은 본사(本師)이신 석가세존(釋伽世尊)의 도구(道具)이니 그대는 잘 간직하시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동북방⁷³²⁾ 명주(溟州)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고 있으니 그대는 가서 뵈도록 하시오.”라고 하고는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범사는) 영험한 자취들을 두루 찾아 보고 장차 신라로 돌아오려 하는데

730) 이 계(偈)의 내용인 “일체법을 모두 알아 자신의 성품이 무소유임을 알고 이와 같이 법성을 알면 곧 노사나를 본다(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卽見盧舍那.)”는 구절은 80권 『화엄경(華嚴經)』 권16 수미정상계찬품(須彌頂上偈讚品)에 나오는 구절이다.(大10 p.82a6~7) 정관(澄觀, 738~839)이나 종밀(宗密, 780~839)도 이 구절을 인용한 중요한 내용이다. 80화엄의 이 구절이 인용된 것은 이 편의 내용이 적어도 699년에 한역된 80화엄이 소개된 8세기 이후의 사정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731) 『삼국유사』의 이 편보다 앞에 수록된 권3 「전후하여 가져온 사리[前後所將舍利]」편에서는 자장이 643년에 부처의 두골(佛頭骨), 부처의 어금니(佛牙), 부처의 사리(佛舍利) 1백과와 붉은 비단에 금점이 있는 가사(袈裟)를 받아와서, 그중에 사리는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탑에, 하나는 태화사탑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戒壇)에 안치하였다고 하였다.

732) 동북방: 원문의 간방(艮方)은 팔괘(八卦) 가운데 하나로, 방위로 동북방을 가리킨다.

태화지의 용이 몸을 나타내어 재(齎)를 올려줄 것을 청하였다. (법사가) 7일 동안 공양(供養)하였더니 (용이) 말하기를, “옛날 계송을 전한 노승(老僧)이 문수보살의 진신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절을 짓고 탑을 세울 것을 간곡히 부탁한 일은 별전(別傳)에 자세히 실려 있다. 법사는 정관(貞觀) 17년(643)⁷³³⁾에 이 산에 와서 진신(眞身)을 보려고 하였으나 3일 동안이나 날이 흐리고 어두웠으므로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시 원녕사(元寧寺)⁷³⁴⁾에서 머물면서 이에 문수보살을 뵈니, (문수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최녕굴이 우거진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정암사(淨巖寺)⁷³⁵⁾가 이곳이다(역시 별전(別傳)에 실려있다).⁷³⁶⁾ 뒤에 두타승(頭陀僧)⁷³⁷⁾ 신의(信義)는 범일(梵日)⁷³⁸⁾의 제자인데 와서 자장법사가 쉬었던 곳을 찾아 암자를 세우고

733) 정관(貞觀) 17년: 신라 선덕왕(善德王) 12년. 자장이 당에서 귀국한 해임.

734) 원녕사(元寧寺): 자장이 자신이 태어난 집을 회사하여 만든 절.([삼국유사] 권4 의해 「자장정율」)

735) 정암사(淨巖寺): 강원도 정선군 고한면 고한리 태백산에 있는 절. 자장이 창건하였다는 적멸보궁을 비롯한 여러 건물이 있다. 보물 제410호인 수마노탑이 적멸보궁 뒤 산비탈에 세워져 있는데 자장이 당에서 가져온 마노로 만든 탑이어서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 한다. 자장은 갈반지(葛蟠地)라 한 이곳에 석남원(石南院)을 세우고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삼국유사] 권4 의해 「자장정율」) 「대산월정사오류성중」조에서는 월정사로 말하고 있다.

736) 「대산월정사오류성중」편에서는 자장과 신의 사이에 신표거사(信孝居士)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였다.

737) 두타승(頭陀僧): 두타행(頭陀行)을 하는 승려. 두타란 ㉠ dhūta의 음역으로 두다(杜多)라고도 쓰며, 기제(棄除)·수치(修治)·두수(抖擻) 등으로 번역한다. 의식주 등 인간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승려들의 수행을 말한다. 보통 12두타라 하여 아란야에 살고, 걸식하여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헤진 옷을 입는 등의 조항을 두었다.

738) 범일(梵日): 810~889. 신라 말에 강릉 지방을 중심으로 선종의 문호를 연 사굴산문(閻崛山門)의 개창조. 일명 품일(品日). 속성은 김(金)씨. 조부는 명주도독(溟州都督) 술원(述元). 헌덕왕 16년(824)에 출가하여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흥

살았다. 신의가 죽자 암자도 오랫동안 버려져 있다가 수다사(水多寺)⁷³⁹⁾의 장로(長老)⁷⁴⁰⁾ 유연(有緣)이 중창(重創)하고 살았으니 지금의 월정사(月精寺)가 이곳이다.⁷⁴¹⁾

臺山五萬眞身

按山中古傳, 此山之署名, 眞聖住處者, 始自慈藏法師. 初法師

덕왕 6년(831)에 왕자 김의종(金義琮)을 따라 당나라에 가서 염관제안(鹽官齊安)의 법을 잇고 약산유엄(藥山惟儼)에게도 불법을 물었다. 회창 폐불을 만나 상산(商山)에 가서 육조탑(六祖塔)에 참배한 뒤 문성왕 8년(847)에 귀국하여 문성왕 12년(850) 백달산(白達山)에서 정진하다 명주도독 김공의 요청으로 굴산사에서 종풍을 떨쳤다. 이후 경문왕·헌강왕·정강왕들의 후대하겠다는 요청을 듣지 않고 40여년 동안 이 절에만 머물며 교화하다 진성왕 3년(889)에 입적하였다. 시호는 통효(通曉)대사. 『조당집(祖堂集)』 권17 참조) 문하에 낭원개청(朗圓開淸)과 낭공행적(朗空行寂) 등이 있다. 고려 후반에 나온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 부처가 깨달은 다음에 조사를 찾아 미진한 부분을 마저 깨우쳤다는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이 그의 설로 전하고 있다. 사굴산문은 신라 말의 불교계를 선도한 선문 구산 중에서도 성주산문(聖住山門)과 함께 가장 형세가 컸던 대표적인 산문으로서, 고려에서도 선종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여러 고승들을 배출하였다.

- 739) 수다사(水多寺): 강원도 강릉에 자장이 세웠던 절. 고려 때 수다사라는 절이 선산과 해주에도 있었는데, 중국의 명화승인 오도자(吳道子)가 그렸다는 백의관음상이 있었다는 이승휴(李承休)의 기록도 있고(李承休, 『動安居士集』行錄 권1), 이규보(李奎報)나 김부희(金富儀) 같은 이들이 시를 지어 남기기도 하였다.
- 740) 장로(長老): ①sthavira. 지혜와 덕행이 높고 출가한 지 오래된 나이가 많은 비구(比丘)를 부르는 말. 선종(禪宗)에서는 배우는 이들을 맞아 가르치는 스승을 장로라고 하기도 한다.
- 741) 월정사(月精寺):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에 있는 절. 643년에 자장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초암(草庵)으로 시작하여 이후 여러 차례 중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높이 15.2m의 화강암으로 만든 고려시대의 국보 제48호 8각9층석탑이 본당 앞 뜰에 서 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오대산 관련 기록은 모두 자장이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정암사로 갔고, 그후 범일의 제자 신의가 암자를 창건하고 유연이 중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以善德王代，貞觀十年丙申〈唐僧傳云十二年，今從三國本史〉，入唐。初至中國太和池邊石文殊處，虔祈七日，忽夢大聖授四句偈。覺而記憶，然皆梵語，罔然不解。明旦忽有一僧，將緋羅金點袈裟一領，佛鉢一具，佛頭骨一片。到于師邊問，“何以無聊？”師答，“以夢所受四句偈，梵音不解爲辭。”僧譯之云，“呵囉婆佐曩，是曰了知一切法，達隸哆佉野，云自性無所有，曩伽吡伽曩，云如是解法性，達隸盧舍那，云卽見盧舍那。”仍以所將袈裟等，付而囑云，“此是本師釋伽尊之道具也，汝善護持。”又曰，“汝本國良方溟州界有五臺山，一萬文殊常住在彼，汝往見之。”言已不現。

遍尋靈迹，將欲東還，太和池龍現身請齋。供養七日，乃告云，“昔之傳偈老僧，是眞文殊也。”亦有叮囑創寺立塔之事，具載別傳。師以貞觀十七年，來到此山，欲覩眞身，三日晦陰，不果而還。復住元寧寺，乃見文殊云，“至葛蟠處。”今淨崑寺是〈亦載別傳〉。後有頭陀信義，乃梵日之門人也，來尋藏師憩息之地，創庵而居。信義旣卒，庵亦久廢。有水多寺長老有緣，重創而居，今月精寺是也。

자장법사가 신라로 돌아왔을 때 정신대왕(淨神大王)의 태자(太子) 보천(寶川)⁷⁴²⁾과 효명(孝明) 두 형제가⁷⁴³⁾ 〈국사(國史)를 살펴보면 신라에는 정신(淨

742) 보천(寶川): 「명주오대산보길도태자전기」에서는 ‘보길도(寶叱徒)’라고 하였다.

743) 이 부분부터 『삼국유사』의 다음 편인 「명주오대산보길도태자전기(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이하 「태자전기」로 줄여 말함) 편의 내용과 중복된다. 「태자전기」는 간략하게 두 태자가 오대산에 들어가 수도하며 오만진신에 예배하였고, 효명태자가 왕에 즉위하였으며 705년에 진여원을 개창하고 보길도태자는 우통수를 마시며 50년을 수도하였다는 내용이다. 후반부 세 군데에 ‘운운(云云)’

神)과 보천(寶川)과 효명(孝明) 3부자의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 기록의 아래 글에는 “신룡(神龍) 원년(705)에 터를 닦고 절을 세웠다(神龍元年開土立寺)”고 쓰여 있으니 신룡(神龍)은 성덕왕(聖德王)⁷⁴⁴⁾ 즉위 4년 을사년이다. 왕의 이름은 흥광(興光)이고 본명은 융기(隆基)이니 신문왕(神文王)⁷⁴⁵⁾의 둘째아들이다. 성덕왕의 형 효조왕(孝昭王)⁷⁴⁶⁾은 이름이 이공(理恭)(또는 이홍(理洪)이라고도 한다)인데 역시 신문왕의 아들이다. 신문왕 정명(政明)은 자(字)가 일조(日照)이니 정신(淨神)은 아마 정명신문(政明神文)의 잘못된 것 같다. 효명(孝明)은 효조(孝昭)(또는 효소(孝昭)라고도 한다.)의 잘못이다. 기록에 “효명(孝明)이

이라 하여 줄여 수록하였음을 밝혔다.

744) 성덕왕(聖德王) : 신라 제33대 왕. 재위 702~737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유학을 장려하고, 재위 기간에 약 43회의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였다. 정전(丁田)제를 실시하였고, 패강(溟江) 이남의 땅을 신라의 판도로 확정하였다. 4~6 주17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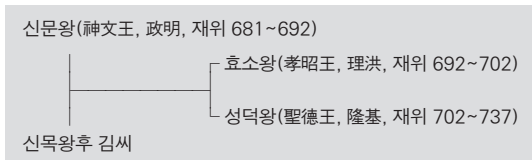
745) 신문왕(神文王) : 신라 제31대 왕. 재위 681~692년. 성은 김씨, 이름은 정명(政明), 자는 일초(日招)이다. 문무왕의 장자이며 어머니는 자의왕후(慈義王后)이고 첫 왕비 김씨는 흙돌(欽突)의 딸인데 아버지의 반란에 연좌되어 쫓겨나고 김흠운(金欽運)의 딸을 둘째 왕비로 삼았다. 신문왕대는 무열왕대부터 시작된 신라 중대 왕실의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시기로서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인재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국학(國學)을 설립하고, 봉성사(奉聖寺)와 망덕사(望德寺)를 세우기도 하였다. 중앙관서의 업무와 영역이 확대된 지방통치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9주 5소경제도가 확립되었으며, 관료들의 녹읍(祿邑)을 폐지하고 세조(歲租)를 지급하여 관리들의 경제력 확대를 억제시키고 오묘제를 시행하여 왕실의 위상을 드높였다. 두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 정명과 관련하여 오대산태자설화의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746) 효조왕(孝昭王) : 효소왕(孝昭王). 신라 제32대 왕. 재위 692~702년. 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이홍(理洪) 또는 이공(理恭). 신문왕의 태자이며, 어머니는 김흠운(金欽運)의 딸 신목왕후(神穆王后)이다. 일반적으로 효소왕이라고 하지만 효조왕이라고도 썼음을 황복사탑(皇福寺塔)에서 나온 사리함 명문에서 확인할 있다. (“신문대왕께서 오제로 세상에 응하고 십천으로 백성을 다스리어 통치가 안정되고 공이 이루어져 천수 3년 임진년 7월 2일에 승천하셨다. 신목태후와 효조대왕이 받들어 종묘의 성스러운 명령들을 위하여 선원가람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神文大王, 五戒應世, 十善御民, 治定功成, 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 所以神睦太后 孝昭大王,

즉위하고 신룡 연간에 땅을 골라 절을 세웠다”고 한 것은 역시 자세하게 말한 것이 아니다. 신룡 연간에 절을 세운 사람은 성덕왕이다. <하서부(河西府)⁷⁴⁷⁾에 이르러 <지금의 명주(溟州)에 역시 하서군(河西郡)이 있는데 이곳이다. 또는 하곡현(河曲縣)⁷⁴⁸⁾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울주(蔚州)는 이곳이 아니다. > 세헌(世獻) 각간(角干)⁷⁴⁹⁾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큰 고개를 지나 각기 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성오평(省烏坪)에 이르러 여러 날 유람(遊覽)하였다. 갑자기 어느날 저녁에 형제 두 사람이 세속을 떠날 것을 은밀히 약속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오대산으로 들어가 숨었다.⁷⁵⁰⁾ <고기(古記)에는 “태화(太和)⁷⁵¹⁾ 원년 무신년 8월초에 왕이 산 속으로 숨

奉爲宗厝聖靈, 禪院伽藍, 建立三層石塔.) 이 설화에서는 효명의 이름과 유사한 이유로 신문-효소-성덕의 왕계에 연계되어 언급되고 있다.



747) 하서부(河西府):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 원래 고구려의 하서량(河西良) 또는 하슬라(何瑟羅)였던 것이 신라에 편입되어 하서주(河西州)로 불리다가 경덕왕 때 명주(溟州)가 되었다. 고려 때도 명주라 하였으나 성종 2년부터 5년까지 하서부라 하였다가 다시 명주도독부가 되고 충렬왕 때 강릉부(江陵府)가 되었다.

748) 하곡현(河曲縣): 지금의 울산광역시인 울주(蔚州)를 말한다. 울주는 본래 굴아화촌(屈阿火村)이었는데 경덕왕 때 하곡현으로 바꾸었다. 하곡현은 강릉의 하서부와는 다른 지명이지만 『고려사』에서도 하곡현을 혹은 하서현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서(권57 지리지 蔚州, “蔚州本屈阿火村, 新羅婆娑王取之置縣. 景德王改名河曲[一作河西], 爲臨關郡領縣. 高麗初更今名.”) 일연이 붙인 주석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49) 각간(角干): 신라의 제1관등 이벌찬(伊伐漣)의 별칭. 최고위의 이 관등은 진골만이 받을 수 있다. 세헌이 지방 귀족으로서 이런 관등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진골 귀족이 지방에 갖고 있는 집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다.

750) 「태자전기」에는 “태화 원년 8월 5일에 형제가 함께 오대산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었다”고 하는데 이 글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살피건대 효조왕(孝昭王)(효소왕(孝昭王)이라고도 한다)은 천수(天授)⁷⁵²⁾ 3년(692) 임진년에 즉위하였는데 그때 나이 16세였고, 장안(長安)⁷⁵³⁾ 2년(702) 임인년에 죽으니 나이 26세였다. 성덕왕이 이해에 즉위하였는데 나이는 22세였다. 만약 ‘태화(太和) 원년 무신년(648)’이라고 한다면 효조왕이 즉위한 임진년(692)⁷⁵⁴⁾보다 45년이 더 앞서게 되며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⁷⁵⁵⁾ 때가 된다. 이로써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시위(侍衛)하는 자들이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두 태자가 산 속에 이르니 푸른 연꽃이 갑자기 땅 위로 피어났다.⁷⁵⁶⁾ 형 태자가 암자를 짓고 머무르니 이곳을 보천암(寶川庵)이라고 하였다. 동북 쪽으로 향하여 6백 여 걸음을 가니 북대(北臺)의 남쪽 기슭에서 역시 푸른 연꽃이 핀 곳이 있어 아우 태자 효명(孝明)도 암자를 짓고 머무르며 각기

751)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태화(太和) 연호 중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고려할 만한 것은 당(唐) 문종(文宗) 때인 827~835년의 것과 신라 진덕왕 때인 647~650년의 것이다. 당 문종때의 경우나 진덕왕 때의 경우 모두 실제로는 그 원년은 정미년(丁未年)으로 무신년(戊申年)보다 일년 앞서지만, 계산법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일 수 있다. 일연(一然)은 진덕왕 때인 648년으로 보고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752) 천수(天授): 주(周)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연호. 690년 7월~692년 4월 사용. 신라 신문왕 10~효소왕 원년.

753) 장안(長安): 주(周)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연호. 701~704년 사용. 신라 효소왕 10~성덕왕 3년.

754) 원문에는 갑진년(甲辰年)으로 되어 있으나 임진년(壬辰年)이 옳다. 효소왕(孝昭王)이 즉위한 해는 임진년(692)이다.

755) 원문의 태종문무왕(太宗文武王)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잘못이다. 그런데 효소왕(孝昭王) 즉위년에서 45년 전은 647년 진덕왕(眞德王) 원년인데, 전통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648년 곧 태화 원년 무신년이 된다.

756) 「태자전기」에서는 “형 태자가 중대 남쪽 아래 진여원 터 아래쪽의 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초암을 짓고 살았다”고 하였다.

부지런히 불법을 닦았다. 하루는 함께 다섯 봉우리에 올라가 우리러 예배 하려고 하니 동대(東臺) 만월산(滿月山)에는 1만 관음보살(觀音菩薩)⁷⁵⁷⁾의 진신(眞身)이 나타나 있고, 남대(南臺) 기린산(麒麟山)에는 팔대보살(八大菩薩)⁷⁵⁸⁾이 으뜸이 된 1만 지장보살(地藏菩薩)⁷⁵⁹⁾이, 서대(西臺) 장령산(長嶺山)에는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⁷⁶⁰⁾가 으뜸이 된 1만 대세지보살(大勢

757) 관음보살(觀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고난에 처한 중생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고난에서 구제해 준다는 데서 유래하여 관음 신앙이 생겨났다. 『화엄경』의 내용에 따라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낙산처럼 자신의 국토에 관음이 사는 보타락가산을 설정하였다. 4-12-1 주292) 참조.

758) 팔대보살(八大菩薩): 8보살이라고도 한다. 정법(正法)을 지키고 중생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여덟 보살을 말한다. 경전에 따라 보살의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 일정하지 않은데, 『팔대보살경(八大菩薩經)』에 따르면 문수(文殊)·보현(普賢)·관음(觀音)·지장(地藏)·미륵(彌勒)·허공장(虛空藏)·금강수(金剛手)·제개장(除蓋障)보살을 들고 있다.

759) 지장보살(地藏菩薩): ㉔ Kṣitigarbha. 석가여래의 부축을 받아 석존이 입멸한 후 미륵보살이 이 땅에 내려와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기까지의 무불(無佛)시대에 지옥을 포함한 육도의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서원한 자비와 연민의 보살이다.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에 조용히 참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대지와 같고 고요하게 생각함이 깊은 것이 신비하게 감추고 있는 것과 같아 지장이라 한다고 하였다.(安忍不動, 猶如大地. 靜慮深密, 猶如祕藏. 故稱地藏.) 지장보살은 과거 먼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온갖 악한 짓을 많이 하므로 중생들의 죄를 모두 없애 깨달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내었다고 한다. 이 지장신앙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그때서야 깨달음을 이루겠다(衆生度盡, 方證菩提.)”거나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地獄未空, 誓不成佛.)”라는 말이 생겨났다. 다른 보살들과는 달리 지장보살은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에 따라 머리를 깎은 승려의 형상으로 만들어 모신다. 대체로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육도를 상징하는 석장(錫杖)을 들고 있다.

760)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㉔ Amitāyus, Amitābha. 아미타불(阿彌陀佛). 서방 정토(西方淨土)에 있으면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들은 모두 서방정토

至菩薩)⁷⁶¹⁾이, 북대(北臺) 상왕산(象王山)에는 석가여래(釋迦如來)가 으뜸이 된 5백 대아라한(大阿羅漢)⁷⁶²⁾이, 중대(中臺) 풍로산(風盧山)〈지로산(地盧山)이라고도 한다)에는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⁷⁶³⁾이 으뜸이 된 1만 문수보살

에 태어나게 한다는 부처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어에 두 가지가 있어 Amitāyus는 무한한 수명이라는 뜻으로 무량수(無量壽)로 번역되고, Amitābha는 한량없는 빛이라는 뜻으로 무량광(無量光)으로 번역된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과거 오랜 옛날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 시대에 한 국왕이 위 없는 도심을 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법장(法藏)비구라 하고 부처 아래서 수행하여 48원을 내고 공덕을 쌓아 아미타불이 되어, 여기서 10만억 불토 떨어진 서방에서 극락정토(極樂淨土)을 이루어 지금도 설법하고 있으면서 염불하는 이들을 서방 정토로 왕생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토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 중심 경전은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아미타경(阿彌陀經)』의 미타삼부경(彌陀三部經)이 있다.

761)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 ㉠ Mahā-ssthāma-prāpta, 득대세(得大勢)·대정진(大精進)의 뜻. 아미타불의 오른쪽 보처(補處) 보살이다. 아미타불은 왼쪽의 관세음보살이 자비(慈悲)를 오른쪽의 대세지보살은 지혜(智慧)를 상징하며 돕는다.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를 널리 비추어 중생들이 지옥 등의 삼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위없는 힘을 얻게 한다. 이 보살은 걸어갈 때 시방세계가 모두 진동하므로 대세지라고 이름한다.

762) 대아라한(大阿羅漢) : 아라한(阿羅漢)은 나한(羅漢)이라고도 한다. ㉠ arhat,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을 지닌 열반(涅槃) 또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라 하여 응공(應供)·응진(應眞) 등의 이름으로 번역된다. 특히 소승의 성문(聲聞)이 수행하여 이르게 되는 수다원(須陀洹, 預流)·사다함(斯陀含, 一來)·아나함(阿那含, 不還)·아라한의 4과(果)의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즉 수행하여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말한다. 이런 뜻에서 석존의 뛰어난 제자를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여 16나한, 500나한 등을 헤아리기도 한다.

763)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 : ㉠ Vairocana, 모든 부처의 진신(眞身)·육신이 아닌 진리의 상징인 법신불(法身佛). 본래 태양의 뜻으로서 부처의 지혜가 끝이 없이 크고 넓어 한없는 세월 동안 공덕을 닦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법신이라 한다. 이런 뜻에 따라 변일체처(遍一切處)·변조(遍照)·광명변조(光明遍照)·대일변조(大日遍照)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특히 밀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 대일여래(大日如來)와 같다고 여겨 어둠을 없애고 두루 밝게 하는 뜻을 부

(文殊菩薩)이 나타나 있었다. 이와 같은 5만 진신에게 일일이 우리러 예배하였다.

매일 이른 새벽⁷⁶⁴⁾에 문수대성(文殊大聖)은 진여원(眞如院)〈지금의 상원사(上院寺)⁷⁶⁵⁾이다〉에 이르러 36가지 모양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다.⁷⁶⁶⁾ 혹은 부처의 얼굴 모양으로, 혹은 보주(寶珠) 모양으로, 혹은 부처의 눈 모양으로, 혹은 부처의 손 모양으로, 혹은 보탑(寶塔) 모양으로, 혹은 만개의 부처 머리[佛頭] 모양으로, 혹은 만개의 등(燈) 모양으로, 혹은 금 다리[金橋] 모양으로, 혹은 금 북[金鼓] 모양으로, 혹은 금종(金鐘) 모양으로, 혹은神通(神通) 모양으로, 혹은 금 누각[金樓] 모양으로, 혹은 금수레[金輪] 모양으로, 혹은 금강저(金剛杵)⁷⁶⁷⁾ 모양으로, 혹은 금 항아리 모양으로, 혹은 금비녀 모양으로, 혹은 오색광명(五色光明) 모양으로, 혹은 오색원광(五色圓光) 모

여하여 중시한다.

764) 원문의 인조(寅朝)는 인시(寅時) 곧 새벽 3시~5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른 새벽을 뜻한다.

765) 상원사(上院寺):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에 있는 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라 때 진여원으로 창건되었다가 이름이 바뀌었다. 보다 아래쪽에 자리잡은 지금의 월정사인 하원 문수갑사와 건주어 상원으로 이름하였다.

766) 「태자전기」에는 “진여원 땅에는 문수대성이 매일 인시에 36 모양으로 변화하여 나타났고, 양 태자는 함께 예배하고 매일 이른 아침에 우통수를 길어다 차를 끓여 1만 문수 진신에 공양하였다”고 하였다.

767) 금강저(金剛杵): ㉠ vajra. 원래 고대 인도의 무기였는데 재질이 견고하여 각종 물건을 격파할 수 있으므로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밀교에서 금강저를 번뇌를 없애는 보리심을 상징하는 도구로 상징하게 되면서 여러 존상들이 가지는 지물이나 중요한 수행 도구가 되었다. 밀교의 수행자들은 금강저를 항상 갖고 다니며 이 금강저가 어리석음과 번뇌 망상 같은 내적 문제나 외도와 같은 외적 장애를 없애는 상징으로 삼았다. 그 형태가 몇 갈래로 나뉘었느냐에 따라 한 갈래인 독고저(獨股杵), 두 갈래(二股杵), 세 갈래(三股杵), 네 갈래(四股杵), 다섯 갈래(五股杵) 등이 있다.

양으로, 혹은 길상초(吉祥草) 모양으로, 혹은 푸른 연꽃 모양으로, 혹은 금전(金田)⁷⁶⁸⁾ 모양으로, 혹은 은전(銀田)⁷⁶⁹⁾ 모양으로, 혹은 부처의 발 모양으로, 혹은 번개나 천둥 모양으로, 혹은 여래가 솟아나오는 모양으로, 혹은 지신(地神)이 솟아 나오는 모양으로, 혹은 금 봉황[金鳳] 모양으로, 혹은 금 까마귀[金烏] 모양으로, 혹은 말이 사자를 낚는 모양으로, 혹은 닭이 봉황을 낚는 모양으로, 혹은 청룡(靑龍) 모양으로, 혹은 흰 코끼리 모양으로, 혹은 까치 모양으로, 혹은 소가 사자를 낚는 모양으로, 혹은 노는 돼지[遊猪] 모양으로, 혹은 푸른 뱀 모양으로 나타났다. 두 태자는 매번 골짜기 물을 떠서 차를 달여서 공양하였고 밤에는 각자의 암자에서 도를 닦았다.

정신왕(淨神王)의 아우가 왕과 왕위를 다투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키고⁷⁷⁰⁾ 장군 네 사람을 보내 산에 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먼저 효명암(孝明庵) 앞에 이르러 만세를 부르니 오색 구름이 7일 동안이나 드리워 덮였다. 나라사람들이 구름을 찾아 모여들어 의장⁷⁷¹⁾을 배열하고 두 태자를 모셔 돌아가려 하였으나 보천(寶川)은 울며 사양하므로 이에 효명(孝明)을 모시고 돌아가 즉위하여 여러 해 동안 다스렸다. <기록⁷⁷²⁾에 “20여 년간 재위하였다”라고 한 것은 대개 돌아갈 때 나이가 26세인 것을 잘못 말한 것이다. 재위한 것은 다

768) 금전(金田): 금지(金地). 절 또는 절을 지을 땅을 말한다. 석존이 살아 있을 당시 슈라바스티(舍衛國)의 수닷타(須達)장자가 석존을 위해 절을 지을 땅을 구하려 하자 땅 주인인 제타(祇陀)태자가 금을 깔면 땅을 팔겠다 하여 정말 금을 깔았더니 태자가 그 연유를 듣고 땅을 기부하여 장자가 절 기원정사(祇園精舍)를 지어 석존에게 공양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769) 은전(銀田): 은지(銀地). 금지와 마찬가지로 절을 짓는 땅을 말한다.

770) 「태자전기」에서는 정신태자의 아우가 신라에서 왕위를 다투다가 죽자 나라 사람들이 장군 4인을 보내서 효명태자를 모셔가 왕위에 오르게 했다고 하였다.

771) 원문의 노부(鹵簿)는 천자가 거동할 때의 행렬에 쓰이는 의장을 말한다.

772) 기록: 「명주오대산보절도태자전기」를 말한다. 여기에서 효명태자가 왕위에 있는 것이 20여 년이라고 하였다.

만 10년뿐이다. 또 신문왕(神文王)의 아우가 왕위를 다툰 사실은 국사(國史)에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藏師之返新羅，淨神大王太子寶川孝明二昆弟〈按國史，新羅無淨神寶川孝明三父子明文。然此記下文云，神龍元年開土立寺，則神龍乃聖德王卽位四年乙巳也。王名興光，本名隆基，神文之第二子也。聖德之兄孝照，名理恭，一作洪，亦神文之子。神文政明字日照，則淨神恐政明神文之訛也。孝明乃孝照，一作昭，之訛也。記云“孝明卽位，而神龍年開土立寺”云者，亦不細詳言之爾。神龍年立寺者，乃聖德王也。〉，到河西府〈今溟州亦有河西郡，是也。一作河曲縣，今蔚州，非是也。〉，世獻角干之家。留一宿。翌日過大嶺，各領千徒，到省烏坪，遊覽累日。忽一夕昆弟二人，密約方外之志，不令人知，逃隱入五臺山〈古記云，“太和元年戊申八月初，王隱山中，”恐此文大誤。按孝照一作昭，以天授三年壬辰卽位，時年十六，長安二年壬寅崩，壽二十六。聖德以是年卽位，年二十二。若曰“太和元年戊申”，則先於孝照卽位壬⁷⁷³⁾辰已過四十五歲，乃太宗武烈王⁷⁷⁴⁾之世也。以此知此文爲誤，故不取之。〉侍衛不知所歸，於是還國。

二太子到山中，青蓮忽開地上。兄太子結庵而止住，是曰寶川庵。向東北行六百餘步，北臺南麓，亦有青蓮開處。弟太子孝明，又結庵而止，各懃修業。一日同上五峯瞻禮次，東臺滿月山，有一萬觀音眞身現在。南臺騏驎山，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西臺長嶺山，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北臺象王山釋迦如來爲首，五百大阿羅漢。中臺風廬山亦名地廬山，毗盧遮那爲首，一萬文殊。如是五萬眞身，一一瞻禮。

773) 원문의 ‘甲’은 ‘壬’의 잘못

774) 원문의 ‘文武王’은 ‘武烈王’의 잘못

每日寅朝，文殊大聖到眞如院〈今上院〉，變現三十六種形。或時現佛面形，或作寶珠形，或作佛眼形，或作佛手形，或作寶塔形，或萬佛頭形，或作萬燈形，或作金橋形，或作金鼓形，或作金鍾形，或作神通形，或作金樓形，或作金輪形，或作金剛杵形，或作金甕形，或作金鈿形，或五色光明形，或五色圓光形，或吉祥草形，或青蓮花形，或作金田形，或作銀田形，或作佛足形，或作雷電形，或如來湧出形，或地神湧出形，或作金鳳形，或作金鳥形，或馬產師子形，或鷄產鳳形，或作青龍形，或作白象形，或作鵲鳥形，或牛產師子形，或作遊猪形，或作青蛇形。二公每汲洞中水，煎茶獻供，至夜各庵修道。

淨神王之弟與王爭位，國人廢之，遣將軍四人，到山迎之。先到孝明庵前呼萬歲，時有五色雲，七日垂覆。國人尋雲而畢至，排列鹵簿，將邀兩太子而歸，寶川哭泣以辭，乃奉孝明歸卽位，理國有年〈記云，在位二十餘年，蓋崩年壽二十六之訛也。在位但十年爾。又神文之弟爭位事，國史無文，未詳〉。

신룡 원년(즉 당나라 중종(中宗)이 복위(復位)한 해이고 성덕왕이 즉위한지 4년이다) 을사년(705) 3월 초 나흘날에 처음으로 진여원(眞如院)을 지었다.⁷⁷⁵⁾ 대왕(大王)이 친히 여러 관료들을 거느리고 산에 이르러 전각을 짓고 아울러 문수대성(文殊大聖)의 소상(塑像)을 만들어 불당 안에 모시고 지식(知識)⁷⁷⁶⁾ 영번(靈卞) 등 다섯명에게 『화엄경(華嚴經)』⁷⁷⁷⁾을 오랫동안 읽도록

775) 「태자전기」에서는 “효명태자가 귀국하여 즉위하여 왕위에 있는 것이 20여 년이고, 신룡 원년(705) 3월 8일에 진여원을 세웠다”고 하였다.

776) 지식(知識): 벗. 아는 것이 많다는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평소에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말한다.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을 선지식(善

하여 화엄사(華嚴社)를 결성하였다. 길이 공양할 비용으로 매년 봄가을로 각각 산 근처 주현(州縣)에서 창조(倉租) 1백석과 정유(淨油) 1석(石)을 공급하는 것을 항규(恒規)⁷⁷⁸⁾로 하였다. 진여원에서 서쪽으로 6천 걸음을 가서 모니점(牟尼岾) 고이현(古伊峴)의 바깥에 이르는 시지(柴地)⁷⁷⁹⁾ 15결(結)과 밤나무 숲⁷⁸⁰⁾ 6결과 위토전(位土田)⁷⁸¹⁾ 2결에 장사(莊舍)⁷⁸²⁾를 만들어 두었다.

보전은 항상 신령한 계곡의 물⁷⁸³⁾을 길어다 마셔서 만년에 육신이 공중

知識)이라 하는데, 이 선지식을 그냥 지식이라고도 한다.

777) 『화엄경(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㉟ Buddhāvataṃsaka-mahāvaiṣṭya-sūtra, 잡화경(雜花經)이라고도 한다.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석존이 깨달은 지 이칠일제에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자나불을 설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이라 한다. 내용은 부처가 되는 인행(因行)과 과덕(果德)을 설한 것으로 십지(十地)를 비롯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 수행 계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부인 입법계품은 선재동자 보살행을 묻고자 53선지식을 찾아 구도 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거듭되며 끝없이 전개되는(重重無盡) 걸림 없는 연기(緣起)의 세계를 드러낸다. 이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엄과 법장과 징관을 거치며 중국 화엄종이 형성되고 발전하여 화엄사상은 중국 교학불교의 가장 빼어난 사상이 되었다. 현재 산스크리트어본은 전체가 알려지지 않고 십지품과 입법계품 등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전체적인 경전의 구성은 대체로 서역지방에서 종합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본은 불타발타라(佛駄跋陀羅)가 동진시대에 번역한 60화엄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당대에 번역한 80화엄, 반야(般若)가 당대 후반에 번역한 40화엄 등 세 가지가 있다.

778) 항규(恒規): 일상의 규칙, 상례(常例).

779) 시지(柴地): 땔나무를 채취하는 땅.

780) 원문의 ‘율지(栗枝)’는 ‘율림(栗林)’ 곧 밤나무 숲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781) 좌위(坐位): 위토전(位土田). 그 땅에서 수확한 곡물을 제사를 지내는 등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마련한 토지.

782) 장사(莊舍):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세운 집.

으로 날아 유사강(流沙江) 바깥 울진국(蔚珍國)의 장천굴(掌天窟)⁷⁸⁴⁾에 이르러 머물며 수구다라니(隨求陀羅尼)⁷⁸⁵⁾를 외우는 것을 밤낮의 과업으로 삼았다. 굴의 신(神)이 몸을 나타내어 말하기를, “내가 굴의 신이 된 지 이미 2천년이 지났는데 오늘 비로소 수구다라니의 참된 도리를 들었습니다. 보살계(菩薩戒)⁷⁸⁶⁾ 받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계를 받고 난 다음날

783) 여기서는 ‘신령한 계곡의 물을 길어다 마셨다(汲服其靈洞之水)’라고 하였는데, 「태자전기」에서는 ‘우통수를 길어(汲于洞水)’, ‘항상 우통의 신령한 물을 마셨다(常服于洞靈水)’라고 하였다. 조선초에 들어 오대산의 서대 아래 샘에서 솟는 물을 우통수(于筒水)라고 한다고 하고 그 우통수가 흘러 한강이 되었다고 하여(權近, 『五臺山西臺水精菴重創記』 『東文選』 권90) 지금까지도 한강의 발원수로서 알려져 있다. 여기서 汲服其靈洞之水→汲(服)于洞(靈)水→于筒水로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784) 장천굴(掌天窟):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백련산(白蓮山)에 있는 성류굴(聖留窟). 탕천굴(撐天窟)이라고도 하였다. 굴 안에 종유석이 불상 같은 여러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성류굴이라는 이름이 생긴 듯하다.

785) 수구다라니(隨求陀羅尼): ㉔ Mahā-pratisāraṇīya-dhāraṇī. 대수구다라니(大隨求陀羅尼), 수구즉득대자재다라니(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라고도 한다. 일체의 죄장을 없애주고 악취(惡趣)를 제거하며 구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복덕을 얻게 한다는 다라니이다. 경전은 당의 불공(不空, 705~774)이 번역한 『보편광명청정지성여의보인심무능승대명왕대수구다라니경(普遍光明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 보사유(寶思惟)가 번역한 『수구즉득대자재다라니신주경(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神咒經)』이 있다.

786) 보살계(菩薩戒): 대승의 보살들이 지키는 계율로서 십중(十重)·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실한 『범망경(梵網經)』 율장품(律藏品)이 근거가 된다. 이는 종래의 교단이 출가자를 위한 비구계와 재가자를 위한 팔관계(八關戒)를 둔 것과 달리 출가와 재가를 포괄하는 새로운 대승의 계율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계에서는 출가자를 위한 계율로서는 종래의 비구계를 사용하면서 『범망경』의 보살계를 재가신자를 위한 계율로 하였다. 보살계 10중계는 살생하지 말라(不殺戒),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不偷盜戒), 음행하지 말라(不淫戒),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戒), 술을 사지 말라(不酤酒戒),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不說過戒),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不自讚毀他戒), 아끼

굴 또한 형체가 없어졌다. 보전은 놀라고 이상히 여겨 20일을 머문 후 오대산 신성굴(神聖窟)로 돌아왔다. 또 50년 동안 도를 닦으니,⁷⁸⁷⁾ 도리천(初利天)⁷⁸⁸⁾의 신이 하루 세 번 법을 듣고, 정거천(淨居天)⁷⁸⁹⁾의 무리가 차를 달여 공양하며, 40명의 성중(聖衆)이 공중에 10자나 떠올라 항상 호위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하루에 세 번 소리를 내며 방을 세 바퀴 돌아서, 이것을 종(鐘)과 경쇠로 삼아 때에 따라 불도를 닦았다. 문수보살은 때로는 보전의 머리에 물을 부어 성도(成道)하리라는 기별(記別)⁷⁹⁰⁾을 주었다.

以神龍元年〈乃唐中宗復位之年，聖德王卽位四年也。〉乙巳三月初四

자 말라(不慳戒), 성내지 말라(不瞋戒),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不謗三寶戒) 이다.

787) 「태자전기」에는 “보질도태자가 항상 우통의 신령한 물을 마시고 육신이 하늘에 올라 유사강에 이르러 울진대국의 장천굴에 들어가 수도하였다. 다시 오대산 신성굴에 돌아와 50년을 수도하였다”고 하였다.

788) 도리천(初利天) : ㉔ Trāyastriṃśa, 욕계(欲界) 6천(天)의 제2천, 33천으로 번역된다. 원래 인도 신화에 나오는 산이었는데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須彌山)이 우뚝 솟아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주위에 여덟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둘러 싸고 있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고 한다. 일곱 번째의 산 바깥으로 짠 바다가 있고 그 바깥으로 철위산(鐵圍山)이 있어 수미산의 사대주를 이루는데 그 중의 남쪽인 염부제주(閼浮提洲)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위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 곧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다고 한다. 도리천은 제석천(帝釋天)이 주인이 되어 사방에 팔천을 거느리고 있어 33천이라고도 부른다.

789) 정거천(淨居天) : ㉕ Suddhāvāsa, 색계(色界) 제4선천(第四禪天)에 욕계의 번뇌를 다 끊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문 제3과인 아나함과(阿那含果, 不還果)를 얻은 성자가 나는 곳이다. 무번천(無煩天)·무열천(無熱天)·선현천(善現天)·선견천(善見天)·색구경천(色究竟天)의 5천이 있으며, 색계천(色界天)의 가장 뛰어난 곳이다.

790) 기별(記別) : 제자가 증득한 것 또는 죽은 뒤에 날 곳을 가리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후에 미래세에 증과를 얻어 성불할 것을 예언하는 것만을 말하게 되었다. 그 조건은 국토(國土)의 이름·부처 이름(佛名)·시절(時節)·겁의 이름(劫名)·권속(眷屬)·정법이 존속하는 기간(正法存續期間) 등의 여섯 가지를 말하는데, 경전에 따라 차이가 있다.

日, 始開⁷⁹¹⁾創眞如院. 大王親率百寮到山, 營構殿堂, 并塑泥像文殊大聖, 安于堂中, 以知識靈卞等五員, 長轉華嚴經, 仍結爲華嚴社. 長年供費, 每歲春秋, 各給近山州縣倉租一百石, 淨油一石, 以爲恒規. 自院西行六千步, 至牟尼岾古伊峴外, 柴地十五結, 栗林⁷⁹²⁾六結, 坐位二結, 創置莊舍焉.

寶川常汲服其靈洞之水, 故晚年肉身飛空, 到流沙江外蔚珍國掌天窟停止, 誦隨求陀羅尼, 日夕爲課. 窟神現身白云, “我爲窟神已二千年, 今日始聞隨求真詮. 請受菩薩戒.” 旣受已, 翌日窟亦無形. 寶川驚異, 留二十日乃還五臺山神聖窟. 又修真五十年, 忉利天神三時聽法, 淨居天衆烹茶供獻, 四十聖騰空十尺, 常時護衛, 所持錫杖一日三時作聲, 遶房三匝, 用此爲鐘磬, 隨時修業. 文殊或灌水寶川頂, 爲授成道記莚.

보천은 입적(入寂)하려는 날 후일 산 속에서 행하여 나라에 도움이 될 일에 대한 글을 남겨 두었다. 다음과 같다.

“이 산은 백두산(白頭山)의 큰 줄기로서 각 대(臺)는 진신(眞身)이 상주(常住)하는 곳이다. 청색(靑色)은 동대(東臺) 북쪽 모퉁이 아래와 북대(北臺) 남쪽 기슭의 끝에 있으니 관음방(觀音房)을 두어 원상(圓像)⁷⁹³⁾의 관음보살(觀音菩薩)과 푸른 바탕에 1만 관음상(觀音像)을 그려서 봉안하고, 복전(福田)⁷⁹⁴⁾ 5인이 낮에는 8권 『금광명경(金光明經)』⁷⁹⁵⁾과 『인왕반야경

791) 원문에는 ‘改’인데 처음으로 다시 지었다[始改創]는 말이 맞지 않고, 보질도때 자전기와 견주어 보아도(始開眞如院) 처음으로 지었다는 ‘開’가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792) 원문의 ‘技’는 ‘林’의 잘못임.

793) 원상(圓像): 여러 가지 좋은 상호를 두루 갖춘 불보살의 원만한 모습.

(仁王般若經)』⁷⁹⁶)과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⁷⁹⁷)를 독송하고 밤에는 관음예참(觀音禮懺)을 염송하여 원통사(圓通社)라고 이름하라. 적색(赤色)은 남대(南臺)의 남쪽을 말으니 지장방(地藏房)을 두고 원상(圓像)의 지장보살(地藏菩薩)과 붉은 바탕에 팔대보살(八大菩薩)을 으뜸으로 한 1만 지장상(地藏像)을 그려서 봉안하고, 복전(福田) 5인이 낮에는 『지장경(地藏經)』⁷⁹⁸)과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⁷⁹⁹)을 독송하고 밤에는 점찰예참(占察

794) 복전(福田) : 田 Punya-Kṣetra. 복덕을 낳을 수 있는 밭이라는 뜻. 부처나 승가 또는 부모를 공경하여 모시는 일이 복덕이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치 농부가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물을 얻는 것과 같다 하여 밭에 비유하여 복전이라 한다. 곧 공양 또는 공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는 승려가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여 복덕을 받는 것을 비유하여 복전승을 가리킨다.

795) 『금광명경(金光明經)』 : 田 Suvarṇaprabhāsottama-sūtra. 참회행의 실천과 함께 호국안민과 왕도를 강조한 경전. 호국경전의 하나로 기우(祈雨) 등의 국가적 범회에 자주 강경되었다. 북량의 담무참이 번역한 4권본 『금광명경』, 수의 보귀(寶貴) 등이 편집한 8권본(597 경) 『합부금광명경』, 당 의정(義淨)이 번역한(703) 10권본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등이 있다. 이 경전을 읽으면 국가가 사천왕(四天王)의 수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화경(法華經)』·『인왕경(仁王經)』과 함께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으로 불린다.

796)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 『인왕반야바라밀경(仁王般若波羅蜜經)』, 『인왕경(仁王經)』이라고도 한다. 부처가 16대 국왕에게 나라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수호하고 반야바라밀을 수지(受持)해야 한다고 설한 경으로서, 이 경을 강설하면 재앙을 그치게 하고 복을 얻는다고 하여 국가적인 범회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를 인왕회(仁王會) 또는 인왕도량(仁王道場)이라고 한다. 축법호(竺法護)와 구마라집(鳩摩羅什)과 불공(不空)의 세 가지 번역이 있다. 『법화경(法華經)』·『금광명경(金光明經)』과 함께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으로 불린다.

797)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 田 Mahākāraṇikacitta-dhāraṇī.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천수경(千手經)』,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 대비주(大悲呪)라고도 한다. 천수관음의 공덕을 설하는 82구의 다라니로 이 다라니를 외우면 모든 죄업이 소멸한다고 하여 오랫동안 널리 활용된 다라니이다.

798) 『지장경(地藏經)』 : 지장보살(地藏菩薩)의 근본 서원 공덕을 설한 경전. 당의 현

禮懺)⁸⁰⁰을 하여 금강사(金剛社)라고 이름하라. 백색(白色)은 서대(西臺)의 남쪽 방향이니 미타방(彌陀房)을 두고 원상(圓像)의 무량수불(無量壽佛)과 흰 바탕에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를 으뜸으로 한 1만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그려서 봉안하고, 복전(福田) 5인이 낮에는 8권 『법화경(法華經)』⁸⁰¹을 독송하고 밤에는 미타예참(彌陀禮懺)을 엄송하여 수정사(水精社)⁸⁰²라고 이름하라. 흑색(黑色)은 북대(北臺)의 남쪽 땅이니 나한당(羅漢

장(玄奘)이 번역한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보리등(菩提燈)이 한역했다고 하는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의 지장삼부경(地藏三部經)을 주로 말한다. 여기서는 점찰법회(占察法會)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지장경 가운데 『점찰선악업보경』으로 여겨진다.

799)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 ㉔ 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sūtra,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금강경(金剛經)』이라고도 한다. 인도에서 2세기에 성립된 공(空)사상의 기초가 되는 반야경전으로 대승불교의 근본을 이루는 경전이다. 육조 혜능 이래 선종에서도 매우 중시되었다. 구마라집(鳩摩羅什)을 비롯하여 보리류지(菩提流支)·진제(眞諦)·달마급다(達磨及多)·현장(玄奘)·의정(義淨) 등의 번역본이 있다.

800) 점찰예참(占察禮懺):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 의해 행하는 예참(禮懺).

801) 『법화경(法華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㉔ Saddharma-puṇḍarīka sūtra, 대승 운동이 시작되어 부처의 참된 정신을 알기 위해 시나 비유 또는 상징 등의 문학적 형식을 사용하여 영원한 부처(久遠實成之佛)를 찬탄하고 석가의 성불 이래 한없는 수명으로 갖가지 화신을 나타내 여러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궁극의 목표가 삼승(三乘)을 한데 모아 일승(一乘)의 큰 수레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존중되어 대승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널리 읽혀온 경전의 하나이다. 축법호(竺法護) 번역의 『정법화경(正法華經)』10권, 구마라집(鳩摩羅什) 번역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7권, 사나굴다(闍那崛多)와 달마급다(達磨笈多) 공역의 『점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7권 등의 한역본이 있다.

802) 고려 때에도 오대산 서대의 수정암(水精菴)은 계속 암자의 형세를 유지하여 조선 초(1404년)에 중수되기도 하였다.(權近, 「五臺山西臺水精菴重創記」 『東文選』 권90)

堂)을 두고 원상(圓像)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과 검은 바탕에 석가여래(釋迦如來)를 으뜸으로 한 5백 나한(羅漢)을 그려서 봉안하고, 복전 5인이 낮에는 『불보은경(佛報恩經)』⁸⁰³⁾과 『열반경(涅槃經)』⁸⁰⁴⁾을 독송하고 밤에는 열반예참(涅槃禮懺)을 염송하여 백련사(白蓮社)라고 이름하랴. 황색(黃色)은 중대(中臺)의 진여원(眞如院)에 자리하니 소조(塑造)의 문수보살(文殊菩薩) 부동상(不動像)⁸⁰⁵⁾을 봉안하고 뒷벽에는 노란 바탕에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을 으뜸으로 한 36가지의 변화하는 모양⁸⁰⁶⁾을 그려서 모시고, 복전 5인이 낮에는 『화엄경(華嚴經)』과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⁸⁰⁷⁾을 독

803) 『불보은경(佛報恩經)』: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7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설한 경전. 부처가 영취산에 있을 때 외도들이 부처를 부모를 버리고 출가한 불효자라고 희롱하자 부처가 불교의 은덕의 의미를 설한 경전이다. 부처는 여래는 무량한 생사 사이에 일체중생의 부모가 되며 일체중생은 또한 여래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여래가 일체중생을 위하여 출가하여 수도하는 것은 일체의 부모를 위한 보은의 행동이라고 설한다. 진정한 보은을 위해서는 대비심으로 일체중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몸으로 부모의 재난을 구한 수사제(須闍提)태자 시절의 이야기나 부친의 병을 치료하였던 인육태자 시절의 이야기 등 여러 본생담을 설하였다.

804) 『열반경(涅槃經)』: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㉔ Mahā-parinirvāṇa-sūtra. 소승 경전과 대승 경전이 있는데 소승 『열반경』은 주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부처의 입멸(入滅)을 전후한 행적을 설하였고 대승 『열반경』은 보다 철학적·종교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여기서는 부처의 최후 설법을 통해 불신(佛身)의 상주(常住), 열반의 의미,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성론(佛性論) 등을 밝히고 있다. 한역본으로는 동진(東晉) 법현(法顯)의 『대반니원경(大般尼洹經)』 6권과 북량(北凉) 담무참(曇無讖)의 『대반열반경』 40권이 있다.

805) 부동상(不動像): 부동(不動)은 여러 가지 번뇌에 미혹되지 않는 부동의 경지를 말하며, 곧 보리심(菩提心)과 대적정(大寂定)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 보살을 부동지보살(不動地菩薩)이라고 하는데, 문수보살은 동방금색세계(東方金色世界)의 부동지불(不動智佛)의 제자였다.

806) 36가지의 변화하는 모양: 문수보살이 36가지 모양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을 말한다.

송하고 밤에는 문수예찬(文殊禮懺)을 염송하여 화엄사(華嚴社)라고 이름 하라.

보천암(寶川庵)은 화장사(華藏寺)로 고치고 원상(圓像)의 비로자나(毗盧遮那) 삼존과 대장경(大藏經)⁸⁰⁸⁾을 봉안하고, 복전 5인이 대장경을 늘 열람하고 밤에는 화엄신중(華嚴神衆)⁸⁰⁹⁾을 염송하여, 매년 화엄회(華嚴會)를 백일 동안 베풀고 법륜사(法輪社)라고 이름하라. 이 화장사(華藏寺)를 오대사(五臺社)의 본사(本寺)로 삼아서 견고하게 지키고 행실이 깨끗한 복전에게 명하여 오래도록 향화(香火)⁸¹⁰⁾를 받들게 하면 국왕(國王)이 장수하

807)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 『마하반야바라밀다경(摩訶般若波羅蜜多經)』. 최초로 대승(大乘)을 선언한 대승불교 초기에 성립된 경전이다. 한역(漢譯)된 경전만 해도 42종에 이르는데, 당나라 현장이 일부분을 새로 번역하고 여러 종류의 『반야경』을 한데 모아 600권의 『마하반야바라밀다경』으로 집성하였다. 이중에 서 『대반야경』이 4백권을 차지하며 나머지를 대품반야·소품반야·금강반야 등이 차지한다.

808) 대장경(大藏經): 불교의 서적을 모두 한데 합쳐 이르는 말. 석가여래의 설교를 기록한 경장(經藏), 모든 계율(戒律)을 모은 율장(律藏), 불제자들의 논설(論說)을 모은 논장(論藏)의 삼장(三藏)을 총망라한 불전. 중국 남북조시대까지는 일체경장(一切經藏) 등으로 불리다가 수당 이후 대장경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인도에서 이루어진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의 대장경 외에 한역(漢譯)과 티벳어 그리고 서하어(西夏語), 몽고어, 만주어 대장경 등이 있다. 한역 대장경은 가장 방대한 규모의 것으로서 송대에 처음 판각되기 시작하여 요·금·원·명·청에서 각각 대장경이 판각되었다. 고려 때 두 차례 판각된 고려대장경은 그 정확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그 81258매의 경판이 해인사에 보존되어 전하고 있다.

809) 화엄신중(華嚴神衆): 『화엄경』의 주불(主佛)인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을 수호하고 보좌하는 신중(神衆)이다. 『화엄경』 60권본에는 34종류의 신중, 80권본에는 40종류의 신중이 등장한다. 9세기 중반 이후 신라 화엄종단 내에서 선종의 대두에 대응하여 화엄종의 교리와 신앙을 강화하면서 화엄신중신앙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810) 향화(香火): 향을 피운다는 뜻으로, 사찰에서 향을 피워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

고 백성이 편안하며 문무(文武)⁸¹¹⁾가 화평하고 온갖 곡식이 풍년이 들 것이다. 또 하원(下院)에 문수갑사(文殊岬寺)⁸¹²⁾를 더 두어서 오대사(五臺社)의 도회소(都會所)⁸¹³⁾로 삼아 복전 7인이 밤낮으로 항상 화엄신중예참(華嚴神衆禮懺)을 행하게 하라. 위의 37인의 재(齋)에 드는 경비와 의복의 비용은 하서부(河西府) 도내 8주(州)의 세(稅)로써 4가지 공양[四事]⁸¹⁴⁾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대대로 군왕(君王)들이 잊지 않고 좇아서 행하면 다행이겠다.”⁸¹⁵⁾

川將圓寂之日，留記後來山中所行輔益邦家之事。云，“此山乃白頭山之大脉，各臺眞身常住之地。青，在東臺北角下，北臺南麓之末，宜置觀音房，安圓像觀音，及青地畫一萬觀音像，福田五員，晝讀八卷金經，仁王般若，千手呪，夜念觀音禮懺，稱名圓通社。赤，任南臺南面，置地藏房，安圓像地藏，及赤地畫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像，福田五員，晝讀地藏經，金剛般若，夜占察禮懺，稱金剛社。白，方西臺南面，置彌陀房，安圓像無量

는 것을 말한다.

811) 문무(文武) : 문관과 무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나라의 정치를 뜻한다. 원문의 ‘문호(文虎)’는 고려 혜종(惠宗)의 이름인 ‘무(武)’를 피휘(避諱)해서 쓴 것이다.

812) 문수갑사(文殊岬寺) : 지금의 월정사(月精寺). 『삼국유사』탑상편의 끝 편인 「오대산문수사석탑기(五臺山文殊寺石塔記)」에 현재도 월정사 대웅전 앞 뜰에 남아 있는 8각9층석탑에 대한 이야기를 실으면서 절 이름을 문수사라고 하였다.

813) 도회소(都會所) : 모임의 중심이 되는 으뜸가는 곳.

814) 4가지 공양 : 부처와 승려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4가지를 공양하는 것, 곧 의복(衣服) · 음식(飮食) · 와구(臥具) · 탕약(湯藥)을 말함. 혹은 와구 대신 방사(房舍)를 말하기도 한다. 『무량수경』에는 일체 제불에게 항상 사사를 공양해야 한다고 하였고, 『우란분경소(盂蘭盆經疏)』에는 매년 승려들이 하안거 마지막 날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자자일(自恣日)에 불 법 승 삼보에 사사를 공양한다고 하였다.

壽, 及白地畫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 福田五員, 畫讀八卷法華, 夜念彌陀禮懺, 稱水精社. 黑, 地北臺南面, 置羅漢堂, 安圓像釋迦, 及黑地畫釋迦如來爲首五百羅漢. 福田五員, 畫讀佛報恩經, 涅槃經, 夜念涅槃禮懺, 稱白蓮社. 黃, 處中臺眞如院, 中安泥像文殊不動, 後壁安黃地畫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 福田五員, 畫讀華嚴經, 六百般若, 夜念文殊禮懺, 稱華嚴社. 寶川庵改創華藏寺, 安圓像毗盧遮那三尊及大藏經, 福田五員, 長閱藏經, 夜念華嚴神衆, 每年設華嚴會一百日, 稱名法輪社. 以此華藏寺爲五臺社之本寺, 堅固護持, 命淨行福田, 鎮長香火, 則國王千秋, 人民安泰, 文虎和平, 百穀豐穰矣. 又加排下院文殊岬寺爲社之都會, 福田七員, 晝夜常行華嚴神衆禮懺. 上件三十七員, 齋料衣費, 以河西府道內八州之稅, 充爲四事之資. 代代君王, 不忘遵行, 幸矣.

815) 위 내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	寺名	봉안한 불보살	晝	夜	結社
東臺北角下 北臺南麓末	觀音房	圓像觀音, 青地畫一萬觀音像	八卷金經, 仁王般若, 千手呪	觀音禮懺	圓通社
南臺南面	地藏房	圓像地藏, 赤地畫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像	地藏經, 金剛般若	占察禮懺	金剛社
西臺南面	彌陀房	圓像無量壽, 白地畫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	八卷法華	彌陀禮懺	水精社
北臺南面	羅漢堂	圓像釋迦, 黑地畫釋迦如來爲首五百羅漢	佛報恩經, 涅槃經	涅槃禮懺	白連社
中臺	眞如院	泥像文殊不動, 後壁安黃地畫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	華嚴經, 六百般若	文殊禮懺	華嚴社
本寺	寶川庵-華藏寺	圓像毗盧遮那三尊及大藏經	大藏經	華嚴神衆	法輪社
下院	文殊岬寺		華嚴神衆禮懺	華嚴神衆禮懺	(都會所)

4-20 오대산 월정사의 다섯 성중

[해제]

오대산 월정사가 다섯 부류의 성중들이 머물고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모은 편이다. 오대산의 다섯 성중에 대해서는 앞 편인 「오대산의 오만 진신」편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다섯 성중이란 오대산의 오대에 각각 1만씩 상주하는 관음·지장·세지·나한·문수를 말한다. 이중 나한만 5백이고 나머지는 모두 1만 성중이다. 이 편의 이야기는 오대산 신앙을 개설한 자장의 행적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자장은 오대산에서 진신을 친견하고 자 기도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묘범산에 옮겨가 정암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어 효성이 지극한 신흥거사가 자장이 머물던 곳에서 살며 다섯 성중의 화신을 만났으며, 다음에 신라말 사굴산문의 조사인 범일의 제자 신의가 암자를 짓고 살았고, 그 후에 수다사의 유연 장로가 살면서 큰 절이 되었다고 하여 월정사의 개창과 발전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자료는 절에 전해 오는 고기(古記)라고 밝혔다. 이 편의 제목은 오대산의 다섯 성중이지만 내용은 성중의 구체적인 이름조차 제시하지 않을 만큼 성중 이야기는 소략하다. 대신 월정사의 개창과 이어 주석한 사람들의 연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으며 특히 자장 다음에 주석한 신흥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월정사의 유래를 조명하기 위한 이야기이므로 마지막에 풍수가의 말을 인용하여 나라 안에서도 가장 뛰어난 곳으로 불법을 오래 일으킬 곳이라고 부언하는 데서 고려 후기 사람들이 가졌던 절의 입지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역주]

오대산 월정사(月精寺)⁸¹⁶⁾의 다섯 성중⁸¹⁷⁾

절에 전해오는 고기(古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장법사(慈藏法師)⁸¹⁸⁾가 처음 오대산에 와서 진신을 뵈고자 하여 산기슭에 띠집을 짓고 머물렀으나 7일 동안 진신을 뵈지 못하므로 묘범산(妙梵山)⁸¹⁹⁾에 가서 정암사(淨岩寺)⁸²⁰⁾를 창건하였다. 뒤에 신희(信孝) 거사(居士)⁸²¹⁾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은 유동보살(幼童菩薩)⁸²²⁾의 화신(化身)⁸²³⁾이라고도

816) 월정사(月精寺):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에 있는 절. 643년에 자장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자장이 창건할 때는 초암(草庵)을 얹어 머물렀으나 이후 여러 차례 규모가 커져 점차 큰 사찰로 자리잡았다. 높이 15.2m의 화강암으로 만든 국보 제48호 팔각구층석탑이 본당 앞 뜰에 서 있다.

817) 다섯 성중: 다섯 가지 부류의 성중, 곧 오대산의 동·남·서·북·중의 오대에 상주한다는 관음·지장·세지·나한·문수보살의 진신을 말한다.

818) 자장(慈藏): 신라시대의 승려. 636년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만나보고 가사(袈裟)와 사리를 받았다.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에서 도를 닦고 화엄종의 두순(杜順)과 계율종(戒律宗)의 도선(道宣)에게 배운 뒤, 643년 장경(藏經) 1부와 불구(佛具)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하였고, 황룡사 9층탑 창건을 건의, 645년에 완성하였다. 4-5 주122) 참조.

819) 묘범산(妙梵山):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정선군조를 보면 정암사(淨巖寺)가 정암산(淨巖山)에 소재한다고 되어 있다.

820) 정암사(淨岩寺):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태백산(太白山)에 있는 절. 자장이 창건하였다는 적멸보궁을 비롯한 여러 건물이 있다. 보물 제410호인 수마노탑이 적멸보궁 뒤 산비탈에 세워져 있는데 자장이 당에서 가져온 마노로 만든 탑이어서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 한다. 자장은 갈반지(葛蟠地)라 한 이곳에 석남원(石南院)을 세우고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삼국유사』 권4 의해 「자장정율」)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편에는 ‘정암사(淨巖寺)’라 하였다.

821) 거사(居士): 출가하지 않고 불도(佛道)에 힘쓰는 이.

822) 유동보살(幼童菩薩): 유동보살(儒童菩薩)이라고도 쓰며 석가가 전생에 연등불

한다. 집이 공주(公州)⁸²⁴⁾에 있었는데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지성으로 효성스럽게 하였다. 어머니가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았으므로 거사는 산으로 들로 고기를 구하러 나다니다가 길에서 다섯 마리의 학을 보고 활을 쏘았는데 학 한마리가 깃털 하나를 떨어뜨리고 가버렸다. 거사가 그 깃털을 집어서 눈을 가리고 사람을 보니 사람이 모두 짐승으로 보였다. 그래서 고기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넙적다리 살을 베어 어머니에게 드렸다. 뒤에 출가하여 자기 집을 내놓아 절로 만들었는데 지금의 효가원(孝家院)⁸²⁵⁾이다.

거사는 경주 경계지역에서 하슬(河率)⁸²⁶⁾에 이르러 사람을 보니 모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머물러 살 뜻이 있어서, 길에서 나이든 부인을 보고 살만한 곳을 물었다. 부인이 말하기를, ‘서쪽 고개를 넘으면 북향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이 살만합니다.’ 하고는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거사는 관음보살(觀音菩薩)⁸²⁷⁾이 가르친 것임을 알고⁸²⁸⁾ 성오평(省烏坪)을

(燃燈佛)을 공양하던 때의 보살이다. 연등불에게 연꽃을 공양하고 머리를 풀어 연등불의 발이 진흙에 닿지 않게 한 공덕으로 미래세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

823) 화신(化身) : ㉔ nirmāṇa-kāya. 부처나 보살이 아직 수행 단계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 갖가지 형태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824) 공주(公州) :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

825) 효가원(孝家院) : 충남 공주시에 있던 절. 공주목에 효가리원(孝家里院)이라는 역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공주목 역원 효가리원)

826) 하슬(河率) : 하슬라(河瑟羅), 즉 강원도 강릉시의 옛 이름.

827) 관음보살(觀音菩薩) :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고난에 처한 중생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고난에서 구제해 준다는 데서 유래하여 관음 신앙을 형성하였다. 『화엄경』의 내용에 따라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낙산처럼 자신의 국토에 관음이 사는 보타락가산을 설정하였다. 4-12-1 주 292) 참조.

828) 이것은 문수신앙의 근거지인 오대산의 월정사 창건에 관음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

지나 자장이 집을 만든 곳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잠시 후 다섯 스님이 와서 말하기를, ‘그대가 가져온 가사(袈裟) 1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 거사는 어리둥절해 하였다. 비구가 말하기를, ‘그대가 집어서 사람을 본 것털이 그것입니다.’ 라고 하자 거사는 이에 꺼내어 주었다. 스님이 것털을 가사의 빠진 폭 안에 놓으니 꼭 맞았다. 그것은 것털이 아니라 베[布]였다. 거사는 다섯 스님과 헤어진 후 비로소 이들이 다섯 성중(五類聖衆)의 화신임을 알았다.”

이 월정사는 자장이 처음 띠집을 짓고 다음에 신희거사가 와서 살았으며, 다음에 범일(梵日)⁸²⁹⁾의 제자인 신의(信義)⁸³⁰⁾ 두타(頭陀)⁸³¹⁾가 와서 암자를 짓고 살았다. 뒤에 수다사(水多寺)⁸³²⁾의 장로(長老)⁸³³⁾ 유연(有緣)이 와서 살면서 점차 큰 절이 되었다. 절의 다섯 성중과 9층석탑⁸³⁴⁾은 모두 성

여준다. 월정사를 중심으로 오대산신앙에 관음신앙이 함께 섞여 있음을 의미한다.

829) 범일(梵日): 810~889. 신라 말에 강릉 지방을 중심으로 신라 선문구산 중에서 성주산문과 함께 가장 형세가 컸던 사굴산문(閻崛山門)의 개창조. 일명 품일(品日). 헌덕왕 16년(824)에 출가하여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흥덕왕 6년(831)에 당나라에 가서 염관제안(鹽官齊安)의 법을 이었다. 문성왕 8년(847)에 귀국하여 명주도독 김공의 요청으로 굴산사에서 종풍을 떨치며 40여년 동안 이 절에만 머물며 교화하다 진성왕 3년(889)에 입적하였다. 4-19 주739) 참조.

830) 신의(信義): 신라 말에 활동한 범일(梵日)의 제자.

831) 두타(頭陀): ① dhūta, 두타행(頭陀行)을 하는 승려. 두다(杜多)라고도 쓰며, 기제(棄除)·수치(修治)·두수(抖擻) 등으로 번역한다. 의 식 주 등 인간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승려들의 수행을 말한다. 보통 12두타라 하여 아란야에 살고, 결식하여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헤진 옷을 입는 등의 조항을 두었다.

832) 수다사(水多寺): 강원도 강릉에 자장(慈藏)이 창건했던 절.

833) 장로(長老): ① sthavira, 지혜와 덕행이 높고 출가한 지 오래된 나이가 많은 비구(比丘)를 부르는 말. 선종(禪宗)에서는 배우는 이들을 맞아 가르치는 스승을 장로라고 하기도 한다.

834) 9층석탑: 현재 월정사 대웅전 앞에 있는 8각9층탑. 국보 제48호로 높이 15.2m의

인의 자취이다. 지세를 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국내의 명산 중에 이 땅이 가장 뛰어나서 불법이 오래 흥성할 곳이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臺山月精寺 五類聖衆

按寺中所傳古記云, “慈藏法師初至五臺, 欲觀真身, 於山麓結茅而住, 七日不見, 而到妙梵山, 創淨岩寺. 後有信孝居士者, 或云幼童菩薩化身. 家在公州, 養母純孝. 母非肉不食, 士求肉出行山野, 路見五鶴射之, 有一鶴落一羽而去. 士執其羽, 遮眼而見人, 人皆是畜生. 故不得肉, 而因割股肉進母. 後乃出家, 捨其家爲寺, 今爲孝家院.

士自慶州界至河率, 見人多是人形. 因有居住之志, 路見老婦, 問可住處. 婦云, ‘過西嶺有北向洞, 可居.’ 言訖不現. 士知觀音所教, 因過省烏坪, 入慈藏初結茅處而住. 俄有五比丘到云, ‘汝之持來袈裟一幅, 今何在?’ 士茫然. 比丘云, ‘汝所執見人之羽是也.’ 士乃出呈. 比丘乃置羽於袈裟闊幅中相合. 而非羽乃布也. 士與五比丘別, 後方知是五類聖衆化身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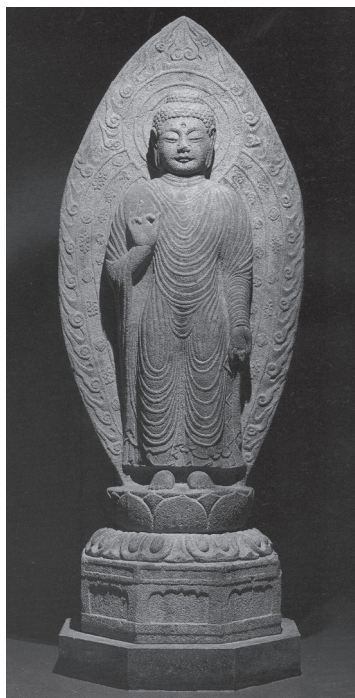
此月精寺, 慈藏初結茅, 次信孝居士來住, 次梵日門人信義頭陀來, 創庵而住. 後有水多寺長老有緣來住, 而漸成大寺. 寺之五類聖衆, 九層石塔皆聖跡也. 相地者云, “國內名山, 此地最勝, 佛法長興之處.” 云云.

이 탑은 고려시대의 탑 양식을 보인다. 이 탑상편의 마지막 편인 「오대산문수사 석탑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탑이 대웅전 등 다른 건물과 건주어 중심전상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4-21 남월산[감산사]

[해제]

성덕왕 때 김지성이 시주하여 개창한 감산사의 석조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조상기를 소개한 편이다. 김지성은 통일신라가 가장 번영을 누리던 성덕왕 때 중아찬 관등으로 집사시랑을 지낸 인물이다. 육두품의 신분적 한계로 관직이 제한되었지만 한도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상기에는 김지성이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고 노장사상과 무착의 유식을 흠모하고 바랐는데 67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도덕경과 유식을 깊이 연구하고 감산에 있던 땅을 희사하여 절을 만들고 719년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미륵보살상을, 720년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아미타불상을 조성하였다. 불상을 조성하고 부모 외에도 친척으로 생각되는 무열왕의 여섯째 왕자 개원(愷元)을 비롯하여 형과 아우와 누이들, 전처와 후처, 법사 등 여러 사람과 국왕과 일체중생의 보리 증득을 기원하였다. 신라 법상종의 특징적인 가람 구성은 금당에 미



감산사 아미타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특불, 강당에 미타불을 함께 봉안하는 것인데, 이 감산사 불상은 금당에 미륵보살상을 봉안하고 동시에 아미타불상을 조성하여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명확한 조성 기록이다. 이 편은 불상 뒷면에 새긴 조성기를 인용하여 구성하였는데, 조상기의 서두에 나오는 김지성의 활동과 지적 경향은 인용하지 않고 불상 조성과 관련 인원만 간추려 실었다. 이 두 불상은 현재 남아 있어 설총이 지은 것으로 생각되는 불상 조성기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편에 실린 구절은 판독상의 몇 글자가 차이는 있으나 불상 조성기와 거의 일치한다. 두 불상은 1916년 경주 지방의 고적 조사를 실시할 때 경주 내동면 신계리의 논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조각실에 전시되고 있다. 미륵보살상은 높이 189.4cm, 너비 107.6cm이며, 아미타불상은 높이 206cm, 너비 109.1cm이다. 불상의 뒷면 광배에 새겨진 조상기는 글자 크기 2.4cm의 행서체이다. 이 편을 통해 신라의 귀족들이 부모의 명복을 비는 것과 같은 목적에서 토지를 희사하여 절을 창건하였던 사실과 함께 관직에서 은퇴한 후에는 『도덕경』이나 유가 법문을 깊이 연구하고 했던 지식인의 말년 생활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모두 동해에서 유골을 뿌려 장례지내고, 망자를 위한 공덕으로 절을 창건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첫손 꼽는 일이었음도 알 수 있다.

[역주]

남월산<감산사라고도 한다>

절은 서울⁸³⁵⁾의 동남쪽 20여리쯤 되는 곳에 있다.⁸³⁶⁾ 금당(金堂)의 주불

835) 서울: 신라시대 수도인 경주를 말한다.

836) 감산사지에는 발견된 「감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과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甘山寺石造阿彌陀佛立像)」은 7세기 중엽 신라에서 직

인 미륵존상(彌勒尊像)⁸³⁷⁾의 화염무늬 광배(光背)⁸³⁸⁾ 뒤에 이렇게 기록⁸³⁹⁾ 하였다. “개원(開元)⁸⁴⁰⁾ 7년(719) 기미년⁸⁴¹⁾ 2월 15일 중아찬(重阿嚕)⁸⁴²⁾ 김

접 인도의 영향을 받고 수(隋)·당(唐)의 수법과 조화시켜 이상적 사실주의라는 신라 특유의 불상 미술을 성립시킨 대표적인 양식으로 손꼽힌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화염무늬로 처리된 광배에 장문의 기록이 새겨져 있어 불상을 만든 유래와 연대를 명시하여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837) 미륵존상(彌勒尊像): 감산사 미륵상은 미륵보살상이다. 미륵은 브라만 집안에서 출생하여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여 보살로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다고 한다. 미륵보살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처음 발심할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자씨(慈氏)보살로 부른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할 때 그 수명이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만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이런 경설에 따라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미륵상생 신앙과, 미륵이 부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미륵하생 신앙의 두 가지 신앙이 있게 된다. 이 감산사미륵보살상은 전체 크기 257cm, 불상 크기 183cm이며 국보 제81호이다.

838) 광배(光背): 회화나 조각에서 인물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머리나 등 뒤에 광명을 표현한 것. 원형이나 배 모양 등 여러 형태가 있고, 역할에 따라 머리 뒤편에만 있는 두광(頭光), 몸 부분에 만든 만든 신광(身光), 전신을 둘러 표현한 거신광(舉身光) 등이 있다.

839) 「감산사미륵보살조상기(甘山寺彌勒菩薩像造像記)」를 보면, 미륵보살상은 719년(성덕왕 18) 김지성이 부모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국왕과 당시 실력자였던 개원(開元) 및 자신의 가족, 모든 중생들의 복을 빌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조상기의 전체 내용은 앞 부분이 김지성이 관직에서 물러나 장자(莊子)·노자(老子)를 사모해서 『도덕경(道德經)』을 즐겨 읽고, 진종(眞宗: 불교)을 중히 여겨 유가 법문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왕명을 받아 감산사를 창건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뒷부분은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과 같다. 「조성기」의 찬(演)을 찬(嚕)으로 쓰는 등 몇 글자가 다르거나 있고 없는 등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가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은 아니다.

840) 개원(開元): 당(唐) 현종(玄宗)의 연호. 713~741년. 신라 성덕왕 12~효성왕 5년.

지성(金志誠)⁸⁴³⁾이 돌아가신 아버지 인장(仁章) 일길간(一吉干)⁸⁴⁴⁾과 돌아가신 어머니 관초리(觀肖里)⁸⁴⁵⁾부인(觀肖里夫人)을 위하여 삼가 감산사(甘山寺)⁸⁴⁶⁾한 절과 돌 미륵 1구를 조성하고, 겸하여 개원(愷元)⁸⁴⁷⁾ 이찬(伊嚙)⁸⁴⁸⁾과 아

841) 개원(開元) 7년(719) 기미년 : 성덕왕 18년

842) 중아찬(重阿嚙) : 아찬은 신라 제6위의 관등으로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다. 6두품은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으로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중아찬에서 사중아찬(四重阿嚙)까지 첨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 관등을 가진 사람들은 6두품이라고 볼 수 있다.

843) 김지성(金志誠) : 감산사와 두 불상을 조성한 발원자. 미타상 조상기에는 김지전(金志全)으로 되어 있다. 신라 성덕왕 때의 관리로 중아찬의 관등에 올랐으며 67세에 집사부 시랑직에서 물러난 뒤, 감산사를 창건하고 아미타불과 미륵보살을 조성해서 봉안하고, 감산사에서 『유가론(瑜伽論)』과 『장자(莊子)』 등 을 읽으면서 만년을 보냈다.

844) 일길간(一吉干) : 신라 17관등 중 제7관등. 일길찬(一吉漣)이라고도 함.

845) 리(里) : 감산사의 두 조상기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끝에 리자가 붙어있는데, 이것은 후대의 태호(宅號)처럼 생가의 마을 이름이나 출가한 집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846) 감산사(甘山寺)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패룡리에 있던 절. 719년(성덕왕 18) 2월 중아찬(重阿嚙) 김지성(金志誠)이 감산에 있는 장전(莊田)을 회사하여 아버지 인장(仁章) 일길간(一吉干)과 어머니 관초리(觀肖里) 부인의 명복을 빌고, 국왕과 그 일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창건 후 어머니를 위해서 미륵보살상 1구를, 아버지를 위해서 아미타불상 1구를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1916년에 경주지방 고적을 조사할 때 경주 내동면 신계리의 논에 박혀 있던 미륵과 미타불상을 발견하여 감산사지임이 밝혀졌다. 현재 절터에는 감산사지삼층석탑이 남아 있다.

847) 개원(愷元) : 이 편의 끝에 붙인 주석과 같이 김개원은 태종 김춘추의 제6자이자 문명왕후 문희의 소생으로 나온다. 무열왕 2년(655)에 이찬, 문무왕 7년(667)에 고종의 명으로 요동 전쟁에 나가 대아찬이 되었으며 668년에는 김인문 등과 함께 대당총관으로 대총관 김유신을 따라 고구려 전쟁에 나섰다. 신문왕 3년(683)에 이찬, 효소왕 4년(695)에 상대등이 되었다. 불상 조성의 발원자 김지성은 당대 최고위 왕실 귀족인 김개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848) 이찬(伊嚙) : 신라 17관등 중의 제2관등. 이척찬(伊尺漣) · 이간(伊干)이라고도 한다.

우인 양성(良誠) 소사(小舍)⁸⁴⁹⁾, 현도(玄度)스님과 누나 고파리(古巴里)⁸⁵⁰⁾, 전처 고로리(古老里)⁸⁵¹⁾, 후처 아호리(阿好里)와 서형 급한(及漢) 일길찬(一吉喰), 일당(一幢)⁸⁵²⁾ 살찬(薩喰)⁸⁵³⁾, 총경(聰敬) 대사(大舍)⁸⁵⁴⁾와 여동생 수힐매리(首盼買里)를 위하여 함께 이 좋은 일을 지었다. 돌아가신 어머니 관초리 부인은 고인이 되어 동해 혼지(欣支)가에 (유골을) 흘었다⁸⁵⁵⁾. ‘〈고인이 되어(古人成之)’ 이하 글은 그 뜻을 잘 알 수 없으나 다만 옛글 그대로 적어둔다. 아래도 같다.〉

南月山 〈亦名甘山寺〉

寺在京城東南二十許里. 金堂主彌勒尊像火光後記云. “開元七年己未二月十五日, 重阿喰金志誠, 爲亡考仁章一吉干, 亡妣觀肖里夫人, 敬造甘山寺一所, 石彌勒一軀, 兼及愷元伊喰, 弟良誠小舍, 玄度師, 姊古巴里, 前妻古老里, 後妻阿好里, 兼庶兄及漢⁸⁵⁶⁾一吉喰, 一幢薩喰, 聰敬大舍, 妹首盼買里, 同營

849) 소사(小舍): 신라 17관등 중의 제13관등. 사지(舍知)라고도 한다.

850) 고파리(古巴里): 「감산사아미타불상조상기」에는 고보리(古寶里)로 되어있다.

851) 고로리(古老里): 위 아미타불상 조상기에는 고로리(古路里)로 되어있다.

852) 일당(一幢): 「감산사미륵보살상조상기」에는 일동(一幢)으로 되어있다.

853) 살찬(薩喰): 신라 17관등 중의 제8관등. 사찬(沙喰)·사간(沙干)이라고도 한다.

854) 대사(大舍): 신라 17관등 중의 제12 관등. 한사(韓舍)라고도 한다. 4두품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등이다.

855) 古人 - 散之: 이 부분은 이두식 표기이다. 攸友는 향찰로 바우 곧 바위라고 하며 고인이 되자 동해 바윗가에 뼈를 흘뿌렸다는 뜻이라고 한다. 「감산사미륵보살상조상기(甘山寺彌勒菩薩像造像記)」에서는 ‘東海欣支邊散之’로 판독하였는데, 「감산사아미타불상조상기(甘山寺阿彌陀佛像造像記)」에서는 이곳과 같이 ‘東海欣支邊散也’로 판독하였다. ‘동해 혼지 가에 (뼈를) 흘었다’로 해석된다.

856) 원문의 ‘漢’은 ‘漢’의 오기로 생각된다. 「감산사아미타불상조상기」와 「감산사미륵보살상조상기」에는 급한(及漢)으로 되어 있다.

茲善。亡妣官肖里夫人，古人成之，東海欣支邊散也。”〈古人成之
以下，文未詳其意，但存古文而已。下同。〉

아미타불⁸⁵⁷⁾의 화염무늬 광배 뒤의 기록⁸⁵⁸⁾은 이렇다. “중아찬 김지전(金
志全)⁸⁵⁹⁾은 일찍이 상의(尙衣)⁸⁶⁰⁾로서 임금을 받들었고 또 집사시랑(執事

857) 아미타불: 圖 Amitāyus. 무량수불(無量壽佛). 서방 정토(西方淨土)에 있으면서 그
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들은 모두 서방정토에 태어나게 한다는 부처
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어에 두 가지가 있어 Amitāyus는 무한한 수명이라는 뜻으
로 무량수(無量壽)로 번역되고, Amitābha는 한량없는 빛이라는 뜻으로 무량광
(無量光)으로 번역된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과거 오랜 옛날 세자재왕불(世自
在王佛) 시대에 한 국왕이 위 없는 도심을 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법장(法藏)비구라 하고 부처 아래서 수행하여 48원을 내고 공덕을 쌓아 아미타
불이 되었다. 그는 여기서 10만억 불토 떨어진 서방에서 극락정토(極樂淨土)을
이루어 지금도 설법하고 있으면서 염불하는 이들을 서방 정토로 왕생하도록 이
끌어 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토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 중심 경전은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아미타경(阿彌陀經)』의 미타
삼부경(彌陀三部經)이 있다. 감산사 아미타불상은 불상 높이 174cm로서 국보
제82호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상기에는 720년에 만든 것으
로 되어 있지만 747년에 이름을 고친 ‘집사시랑(執事侍郎)’이라는 관직이 나오
는 것으로 보아 약 30년이 지나 발원자 김지성의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
된다. 불상의 양식도 미륵보살상보다 후대의 것이라고 한다.

858) 「감산사아미타불상조상기(甘山寺阿彌陀佛像造像記)」를 살펴보면, 미타상의 조
성 연대는 720년(성덕왕 19, 경신)이다. 조상기의 내용은 미륵보살조상기와 비슷
하며 중아찬 김지전(金志全)이 부모의 은덕과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절
을 세우고 미타불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마(奈麻)인 총(聰)이 왕명을
받들어 조상기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 이 총은 설총(薛聰)으로 추정된다. 글자가
마모되어 확인되지는 않지만 글씨는 승려인 경융(京融)과 대사(大舍)인 김취원
(金驟源)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보살상조상기와 마찬가지로 몇 글자가 있
고 없거나 다른 등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상의 변화까지 보이는 것은 아니다.

859) 김지전(金志全): 미륵보살 조상기에 나오는 김지성의 다른 이름.

860) 상의(尙衣): 「감산사아미타불상조상기」에는 상사(尙舍)로 되어 있다. 상사는 궁

侍郎)⁸⁶¹이 되었는데 나이 67세에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냈다. 국주 대왕(國主大王)과 이찬(伊嚙) 개원과 돌아가신 아버지 인장 일길간, 돌아가신 어머니, 죽은 아우인 소사 양성, 현도스님, 죽은 아내 고로리(古路里), 죽은 누이 고파리(古巴里)를 위하고, 또 아내 아호리(阿好里) 등을 위하여 감산의 장전(莊田)⁸⁶²을 회사하여 절을 세우고, 또 석조 미타상 1구를 조성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 인장 일길간을 받들어 위하였다. 고인이 되어 동해 혼지가에 (유골을) 흘렸다.”〈왕실의 계보를 살펴보면 김개원(金愷元)은 태종(太宗) 김춘추(金春秋)의 여섯째 아들인 개원 각간이니 문희(文姬)⁸⁶³의 소생이다. 김지전은 인장일길간의 아들이다. 동해 혼지는 법민(法敏)⁸⁶⁴을 동해⁸⁶⁵에 장사 지낸 것인 듯하다.〉

중에서 음식, 의복 등을 관장하는 직책이다.

- 861) 집사시랑(執事侍郎) : 집사성의 장관인 중시에 이은 차관급 관리. 집사성은 국가 기밀과 서정을 맡은 최고의 행정기관인데 651년(진덕여왕 5) 품주(稟主)를 개편한 것이다. 중시 밑에 전대등(典大等) 2인을 두었다가 747년(경덕왕 6)에 시랑(侍郎)으로 고쳤다(『삼국사기』 권38, 잡지 7, 직관 상). 따라서 집사시랑의 관직명은 김지성의 생존 기간과 어긋난다. 그래서 김지성은 719년 아미타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얼마 후 돌아가고 30여년 뒤(747 이후)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 양식으로 보아도 719년의 미륵상보다 얼마간 후대의 것이라고 한다.
- 862) 장전(莊田) : 전지(田地)와 그에 부속된 건물. 왕실 귀족 사원 등이 소유한 대규모의 토지와 그 경영에 필요한 부속건물을 전장(田莊)이라고 하는데 여기의 장전도 같은 의미의 용어로 생각된다.
- 863) 문희(文姬) : 문명왕후(文明王后).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의 비. 소판(蘇判) 김서현(金舒玄)의 딸이며, 김유신(金庾信)의 누이이다. 무열왕과의 사이에 문무왕인 태자 법민(法敏), 각간(角干) 인문(仁問)·문왕(文王)·노차(老且)·지경(智鏡)·개원(愷元) 등을 낳았다.
- 864) 법민(法敏) :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이름.
- 865) 『삼국유사』 권2 문호왕법민 및 『삼국사기』 권7 문무왕 21년 7월 조 등에 의하면 681년 문무왕이 죽으면서 불교법식에 따라 화장한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동해의 입구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

彌陀佛火光後記云，重阿噯金志全，曾以尚衣奉御，又執事侍郎，年六十七，致仕閑居，奉爲國主大王，伊噯愷元，亡考仁章一吉干，亡妃，亡弟小舍梁誠，沙門玄度，亡妻古路里，亡妹古巴里，又爲妻阿好里等，捨甘山莊田，建伽藍，仍造石彌陀一軀，奉爲亡考仁章一吉干，古人成之，東海欣支邊散也。〈按帝系，金愷元乃太宗春秋之第六子愷元角干也，乃文姬之所生也。金志全乃仁章一吉干之子。東海欣支，恐法敏葬東海也。〉

길리에 있는 대왕암(大王岩)이 수중릉(水中陵)으로 생각되는 이것이다.

4-22 천룡사

[해제]

경주 남산에 있던 천룡사의 연혁에 대해 설명한 편이다. 한 신도가 두 딸을 위하여 이름을 따서 절을 지은 창건 유래를 소개하고, 『토론삼한집(討論三韓集)』과 같은 지리서를 인용하여 이 절의 지리적 우상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여기에 중국 사신의 말을 빌려 강조한 것은 고려 시기의 사상적 경향을 짐작하게 한다. 이어서 고려초의 중신인 최승로의 손자 최제안(崔齊顔)이 폐허가 된 절을 중창하고 당시의 상례대로 조정에서 주지를 임명하는 대신에 절의 대중 중에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자를 뽑아 대대로 주지를 맡도록 할 것을 조정의 허락을 받아 지방관의 공문으로 확인한 1040년 작성의 문서를 인용하였다. 최제안은 이 문서와 원문을 절에 남기고, 죽어서도 절을 보호하는 신이 되어 영험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할 만큼 절의 중창주이자 수호신으로 추앙되었다고 한다. 이 문서에서는 천룡사 이전에 지장사나 도선사 그리고 서경의 네 절 등 토지를 시주받아 자립한 사원에서 이미 이와 같은 주지 자체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근거도 들고 있다. 고려 전기 귀족들이 사찰을 건립하고 그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자료이다. 동시에 일반 사원은 조정의 통제 속에 운영되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사원의 기본 구조가 전당과 회랑과 승방·부엌·창고 등이며 불상은 석조와 소조를 아울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많지 않은 고려 전기의 고문서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최제안의 문서 외에 이 편의 자료로서는 『토론삼한집』과 사람들이 전해 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는 중국 사신의 언급도 들어 있다.

[역주]

천룡사

동도(東都)⁸⁶⁶⁾의 남산(南山) 남쪽에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사람들은 ‘고위산(高位山)’⁸⁶⁷⁾이라고 부른다. 이 산의 남쪽에 절이 있는데⁸⁶⁸⁾ 우리말로 고사(高寺)라고 하며 혹은 천룡사(天龍寺)⁸⁶⁹⁾라고도 한다. 『토론삼

866) 동도(東都): 고려시대의 경주에 대한 호칭. 신라가 고려에 귀부한 이후 신라의 수도는 경주(慶州)가 되었고 성종(成宗) 대부터 동경(東京)으로 칭해지고 유수(留守)가 파견되었다. 이후 몇 차례 읍호의 강등이 있기는 하였지만 고려 전 시기를 통하여 개경(開京), 서경(西京)과 함께 삼경(三京)을 이루는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813년에 작성된 「단속사 신행선사비(斷俗寺 信行禪師碑)」에도 경주(慶州)를 가리키는 말로 동경(東京)이 사용되고 있어(“禪師 俗姓金氏, 東京御里人也.”) 신라시대에도 비공식적으로는 경주를 동경(東京)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867) 고위산(高位山):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의 일부로서 가장 남쪽 봉우리. 해발 494m.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주부 산천(山川) 항목에 부(府)의 남쪽 25리 지점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경주 남산 남쪽의 성부산(星浮山) 아래에 있는 별도의 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리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고위(高位)’는 ‘수리’의 한역이라고 여겨진다.

868) 산의 남쪽에 절이 있는데: 천룡사의 위치는 고위산(高位山)의 서남쪽이 된다.

869) 천룡사(天龍寺):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고위산(高位山) 천룡곡(天龍谷)에 있는 절. 『동국여지승람』의 경주부 불우(佛宇) 항목에도 고위산(高位山)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0년 동국대박물관에서 시행한 발굴조사에서 가정(嘉靖) 27년(1548, 조선 명종 3) 명(銘)의 기와 조각을 발굴하였으며 강희(康熙) 27년(1688, 조선 숙종 14)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에 ‘경주 부남 고위산 천룡사개간’란 간기(干記)가 나타나고 있어 조선시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를 유지한 채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도 절터에 삼층석탑의 탑

한집(討論三韓集)⁸⁷⁰⁾에서는 “계림(鷄林)⁸⁷¹⁾의 땅에는 객수(客水)⁸⁷²⁾ 두 줄기와 역수(逆水)⁸⁷³⁾ 한 줄기가 있다. 그 역수와 객수의 두 근원에서 천재(天災)를 잘 진압하지 못하면 천룡사(天龍寺)가 뒤집혀 무너지는 재앙이 올 것이다”고 하였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로는 “역수(逆水)는 주(州)의 남쪽에 있는 마등오촌(馬等烏村)⁸⁷⁴⁾의 남쪽을 흐르는 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재와 비의 대좌로 추정되는 머리가 잘린 귀부, 석조(石槽), 석등 대석, 맷돌, 불상 대좌, 주춧돌 등이 남아 있었는데 1990년의 발굴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소여래입상 3점을 비롯하여 금동대좌, 금동소불두, 은제유희보살좌상, 팔면감실석조불좌상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최근에 옛터 북쪽에 범당과 요사채를 중건하고, 폐탑의 석재를 중심으로 복원한 3층석탑이 남아있다.

870) 『토론삼한집(討論三韓集)』: 어떤 책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글에 인용된 내용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한 풍수(風水)에 관련된 책으로 추정된다.

871) 계림(鷄林): 경주의 다른 이름. 『삼국유사』 기이편 「혁거세왕」편에 계림이 신라의 다른 이름임을 기록하고, 그 이름에 대한 유래로서 혁거세가 태어날 때 계룡(鷄龍)이 출현하였다는 것과 탈해왕대에 김알지가 출현할 때 숲(始林)에서 닭이 울었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의 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삼국유사』 권1 기이 「新羅始祖 赫居世王」)

872) 객수(客水):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 온 물 줄기

873) 역수(逆水): 지세의 방향과 거꾸로 흐르는 물. 천룡사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물의 방향이 우리나라 하천의 일반적 흐름 방향인 북쪽(또는 동쪽)→남쪽(또는 서쪽)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흔히 이런 하천이 지나는 곳은 역향(逆鄉)이라고 하여 반역자가 나타난다고 하기도 하였다.

874) 마등오촌(馬等烏村): 『삼국유사』 기이 「혁거세왕」편에 의하면 원래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인 육부의 사랑부(沙梁部)에 속하며 이는 고려시대에 남산부(南山部)로 바뀌었다고 한다. 마등오촌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남산부라는 이름에 주목하여 반월성에서 남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보는 설, 남천(南川)의 북쪽·서천(西川)의 동쪽·북천(北川)의 남쪽 지역으로 보는 설 등 서로 다른 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 물의 근원이 천룡사(天龍寺)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⁸⁷⁵⁾ 중국에서 온 사신 악봉귀(樂鵬龜)⁸⁷⁶⁾가 와서 보고는 말하기를, “이 절을 파괴하면 며칠 안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서로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옛날에 단월(檀越)⁸⁷⁷⁾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천녀(天女)와 용녀(龍女)라고 하였다. 부모가 두 딸을 위하여 절을 짓고 딸의 이름으로 절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다. 땅이 특이하여 불도를 돕는 터전이었는데 신라말에 부서진 지 오래되었다.

중생사(衆生寺)⁸⁷⁸⁾의 관음대성(觀音大聖)⁸⁷⁹⁾이 젓을 먹인 최은함(崔殷

875) 천룡사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옆의 와룡계와 틈수골과 합하여 기린내(麟川)로 흘러드는데 이 기린내는 북쪽으로 흘러 경주의 서천(西川)에 합류한다.

876) 악봉귀(樂鵬龜): 중국 당나라의 관료, 활대(滑臺) 출신으로 당 희종(僖宗) 때인 881년에 한림학사 승지제고(翰林學士承旨知制誥)가 되었고 뒤에 태자소보(太子小保)로 치사(致仕)하였다. 『신·구당서』나 『삼국사기』에는 그가 신라에 사신으로 왔다는 기록이 없지만 『삼국유사』 기이 「문화왕법민」에는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지어 당군(唐軍)을 물리친 후 당 고종에게 황제의 축수(祝壽)를 위해 사찰을 건립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예부시랑(禮部侍郎) 악봉귀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전기의 학자 김종직(金宗直)의 문집에도 악봉귀가 우리나라의 좋은 지역에 진압지술(鎮壓之術)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佔畢齋文集』 권2 「皇華集序」)

877) 단월(檀越): ①Dānapati, 시주(施主), 곧 보시를 행하는 사람. 보시는 육바라밀의 하나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행위로, 단월은 불교에 귀의한 신자로 절의 후원자를 뜻한다. 단월(旦越), 단나(檀那) 등으로 쓰기도 한다.

878) 중생사(衆生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던 절. 중국의 이름난 화공이 신라에 와서 만든 관음상이 있어 그 영험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3 탑상 「三所觀音衆生寺」)

879) 관음대성(觀音大聖):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고난에 처한 중생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고난에서 구제해 준다는 데서 유래하여 관음 신앙이 형성되었다. 『화엄경』의 내용에 따라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낙산처럼 자신의 국토에 관음이 사는 보타락가산을 설정하였다. 4-12-1 주292) 참조.

誠)⁸⁸⁰⁾의 아들이 최승로(崔承魯)⁸⁸¹⁾이고, 최승로가 최숙(崔肅)⁸⁸²⁾을 낳았고, 최숙(崔肅)은 시중(侍中)⁸⁸³⁾ 최제안(崔齊顔)⁸⁸⁴⁾을 낳았다.⁸⁸⁵⁾ 최제안이

880) 최은함(崔殷諫) : 최승로(崔承老)의 부친. 『고려사(高麗史)』에는 최은함(崔殷舍)으로 표기하였다. 경주인으로 천성(天成) 연간인 926~929년에 고려에서 정보(正甫)를 지냈다.

881) 최승로(崔承魯) : 927~989. 『고려사』에는 최승로(崔承老)로 되어 있다. 고려전기의 문신. 경주에서 출생해 935년(태조 18) 신라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고려에 들어왔다. 어려서부터 태조의 총애를 받아 일찍부터 문장과 학문 계통의 관직 생활을 하였고, 982년(성종 1)에는 정광 행선관어사 상주국(正匡行選官御事上柱國)으로 행정의 요직을 맡았다. 이 해에 오조치적평(五朝治績評)과 시무28조를 올려서 당시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내용이 고려전기 국가체제 정비에 반영됨으로써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로 평가되었다. 983년 문하시랑평장사가 되고 988년에 문하수시중이 되었다. 『삼국유사』 권3 탐상 「삼소관음 중생사」편에는 최승로의 부친 최은함이 중생사 관음상에게 빌어 늦은 나이에 최승로를 낳게 된 기사가 실려 있다.

882) 최숙(崔肅) : 고려 전기의 문신. 대광 내사령(大匡內史令) 최승로(崔承老)의 아들이며, 태사 문하시중(太師門下侍中) 최제안(崔齊顔)의 아버지이다. 관직은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883) 시중(侍中) : 고려시대 중1품 수상직. 중서문하성의 최고 관직이다. 재상직의 통칭이며 관료로서는 유일한 중1품 실직으로서 명실상부한 수상직이었다. 판이부사(判吏部事) 등의 관직을 겸직하는 것이 상례였다.

884) 최제안(崔齊顔) : ?~1046. 고려 전기의 문신. 최승로(崔承老)의 손자이며 최숙(崔肅)의 아들이다. 1020년(현종 11)에 거란에 사신으로 다녀 오고 1030년에 중추사(中樞使), 1034년에 호부상서가 되었다. 1036년에 상서좌복야 중추사(尙書左僕射中樞使)가 되고 이듬해에 참지정사를 겸하였다. 1043년에 문하시랑이 되고 뒤에 태사 문하시중(太師門下侍中)을 역임하였다. 거란의 침입으로 없어졌던 고려 태조의 신서(信書)와 훈요십조(訓要十條)를 최항(崔沆)의 집에서 발견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885) 여기에 기록된 최승로 가계는 『고려사』 최승로열전과 일치한다. 열전에는 최제안의 아들로 계훈(繼勳)이 있었고, 아버지의 공로로 특별히 8품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권93 열전 崔承老) 그 이후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지금까지 묘지명 등에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이 폐허가 된 절을 중수하고, 석가만일도량(釋迦萬日道場)⁸⁸⁶⁾을 열고는 조정의 허가서[朝旨]를 받았고, 신서(信書)와 원문(願文)을 절에 남겨 두었다. (그는) 죽어서 이 절을 보호하는 신이 되어 영험한 이적을 여러 번 보였다. 그 신서(信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단월(檀越)인 내사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⁸⁸⁷⁾ 주국(柱國)⁸⁸⁸⁾ 최제안(崔齊顔)이 씀.

동경(東京) 고위산(高位山)의 천룡사가 파손된지 여러 해가 되어 제자(弟子: 제안 자신)가 특별히 임금의 수명이 하늘처럼 길고 백성과 나라가 평안하기를 발원하여 전당(殿堂)과 회랑, 승방과 부엌, 창고 등을 짓는 것이 완성되었다. 이에 석조와 소조의 불상 몇 구를 갖추고 석가만일도량을 열었다. 이미 나라를 위하여 세운 것이므로 관가에서 (이 절의) 주지(住持)⁸⁸⁹⁾을 임명하는 것이 옳겠지만 (주지가) 바뀌어 교대할 때에 도량의 스

886) 석가만일도량(釋迦萬日道場): 만일도량(萬日道場)은 만일(萬日) 즉 약 30년에 가까운 기간을 정하여 기도 혹은 설법을 행하는 법회로서, 석가만일도량은 석가불 신앙을 위한 법회를 만일 동안 계속하는 법회를 말한다.

887) 내사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 고려시대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의 정2품 벼슬. 문하시중(門下侍中)의 다음 관직으로 성종 때 처음 두었으며 문종 때 내사문하성이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바뀌면서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되었다.

888) 주국(柱國): 고려시대 관리에 대한 포상제도인 훈계(勳階). 고려초에 상주국(上柱國)과 주국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계(官階)나 관직의 높고 낮음과는 무관하게 수여되었다. 문종 때에 종2품으로 정하였고 충렬왕 이후에 없어졌다.

889) 주지(住持): 원문의 주인(主人)은 주지를 뜻한다. 주지는 10세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직제로서 원래 각 사찰의 자립적 행정기구였던 삼강(三剛)의 위에 자리 잡고 그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의 경우 주지는 승과(僧科)를 거쳐 승계(僧階)를 가진 사람들로 임명되었고 국가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문도(門徒) 내에서의 계승을 인정한 ‘부동사원(不動寺院)’ 등이 있기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서(信書)도 천룡사(天龍寺)가 그

님들이 안심하기 어렵다. 그런데 토지를 시주받아 넉넉한 사원들을 살펴보니, 공산(公山)⁸⁹⁰⁾ 지장사(地藏寺)⁸⁹¹⁾와 같은 곳은 납입전(納入田)⁸⁹²⁾이 2백결이고, 비슬산(毗瑟山)⁸⁹³⁾ 도선사(道仙寺)⁸⁹⁴⁾는 납입전이 20결이며, 서경(西京) 사방의 산사도 각각 납입전 20결씩의 예가 있다. 모두 승직(僧職)⁸⁹⁵⁾

러한 예외적 사찰로서 자체 문도 내에서 주지가 임명되도록 특혜받은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890) 공산(公山): 팔공산(八公山). 대구광역시 북쪽과 경상북도 군위군, 영천군, 칠곡군, 경산군의 경계에 걸쳐있는 높이 1193m의 산으로 부악(父岳)이라고도 한다. 신라시대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오악(五岳)의 중악(中岳)으로 중시되었다.

891) 지장사(地藏寺):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현재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인 수성현(壽城縣)에 지장사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절에는 고려의 김황원(金黃元)이 쓴 기문이 있었다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대구도호부 佛宇) 수성현은 대구도호부의 남쪽에 12리에 있고 공산은 북쪽 17리에 있으므로 지장사는 실제로는 공산과 떨어져 있는 셈이다.

892) 납입전(納入田): 사찰에 납입한 토지.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사람들이 기부한 토지 곧 사원전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이처럼 면세의 혜택을 누리는 사원전이 크게 확대되어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893) 비슬산(毗瑟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옥포면·유가면과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에 걸쳐 있는 높이 1084m의 산으로 용연사와 유가사 소재 등의 많은 사찰이 있다. 이 비슬산은 『삼국유사』 권5 피은 「포산이성(包山二聖)」에 나오는 포산(包山)이기도 하며, 『삼국유사』의 찬자 일연이 22년 동안 지내면서 공부한 곳이기도 하다.

894) 도선사(道仙寺): 경상북도 비슬산에 있던 절.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의 비슬산에 도성사(道成寺)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도선사와 같은 절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성사는 『삼국유사』에 관기(觀機)와 도성(道成)이라는 두 수도자가 수행했던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유서 깊은 절이다.(『삼국유사』 권5 피은 「包山二聖」)

895) 승직(僧職): 고려시대 승과(僧科)에 합격한 승려들에게 주는 승계(僧階). 각 사찰의 주지(住持) 이상의 승직은 승계를 가진 승려들만이 담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승직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유직(有職)과 무직(無職)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다. 고려시대에 승과를 합격한 자에게 주는 승계는 교종(敎宗)은 승통(僧統) - 수좌(首座) - 삼중대사(三重大師) - 중대사

의 있고 없음을 논하지 않고 계율(戒律)을 갖추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절의 대중의 여망에 따라 차례대로 주지(住持)가 되어 분향(焚香)⁸⁹⁶하고 수도(修道)함을 정해진 규칙으로 하였다. 제자(弟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우리 천룡사도 또한 절의 대중 가운데서 재능과 덕행이 함께 뛰어난 승려를 골라 뽑아 동량(棟梁)⁸⁹⁷을 겸하게 하고 주지(住持)로 임명하여 길이⁸⁹⁸ 분향하고 수도하게 한다. 문서로 자세히 기록하여 강사(剛司)⁸⁹⁹에게 맡기니 지금의 주지부터 시작한다. 유수관(留守官)⁹⁰⁰의 공문을 받아서 도량의 여러 대중에게 보일 것이니, 각자 자세히 알아야 한다.

(重大師) - 대사(大師) - 대덕(大德)의 순이었고, 선종(禪宗)은 대선사(大禪師) - 선사(禪師) - 삼중대사 - 중대사 - 대사 - 대덕의 순이었다. 그런데 문종 30년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규정에는 대덕(大德)에게 전시(田柴)를 지급하고 대통(大統)과 부통(副統)에게도 대덕에 못 미치는 전시를 지급하도록 하여 대통과 부통도 승계였을 가능성이 있다.

896) 분향(焚香) : 제사나 예불(禮佛) 의식에서 향로에 불을 붙인 향을 넣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는 일을 말한다.

897) 동량(棟梁) : 동량(棟梁 : 마룻대와 들보)이 될만한 훌륭한 인물, 즉 동량지재(棟梁之材)의 준말. 일가(一家) 또는 일국(一國)의 중임(重任)을 맡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절에서 행하는 일들의 주요 담당자를 말한다.

898) 원문의 ‘진장(鎭長)’은 ‘오래도록’이라는 의미를 갖는 말로 고려, 조선시대의 토지와 노비 상속문서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899) 강사(剛司) : 신라와 고려시대 사찰의 자치적 행정기관. 중국의 삼강(三綱)제에서 시작하였으나 신라와 고려에서는 명칭도 ‘삼강(三綱)’으로 표기하고 직책도 3이 아닌 4 직책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원주(院主)·전좌(典座)·유나(維那)·직세(直歲)의 직책이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임명한 승직 직책이 아니라 사원 운영을 위해 사원 스스로 설치한 사직(寺職)이었다. 강사(剛司)는 삼강(三綱)의 집무소를 의미하는 삼강사(三綱司)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된다.

900) 유수관(留守官) : 고려시대 동경(東京), 서경(西京), 남경(南京)의 삼경(三京)에 파견한 외관직. 유수는 3품 이상관으로 유수사(留守事)·유수사(留守使)·유수관(留守官) 등으로 불렸다.

중희(重熙)⁹⁰¹⁾ 9년 6월 일. 관직을 갖추어 앞과 같이 서명했다.

중희(重熙)는 거란 흥종(興宗)⁹⁰²⁾의 연호로 이때는 우리나라⁹⁰³⁾ 정종(靖宗)⁹⁰⁴⁾ 7년(1040) 경진년⁹⁰⁵⁾이다.

天龍寺

東都南山之南，有一峯屹起，俗云高位山。山之陽有寺，俚云高寺，或云天龍寺。

討論三韓集云，“鷄林土内有客水二條，逆水一條。其逆水客水二源，不鎮天災，則致天龍覆沒之災。”俗傳云，“逆水者，州之南，馬等烏村南流川是。”又“是水之源致天龍寺。”中國來使樂鵬龜來見云，“破此寺則國亡無日矣。”又相傳云，“昔有檀越有二女，曰天女龍女。二親爲二女創寺，因名之。”

境地異常助道之場，羅季殘破久矣。衆生寺大聖所乳崔殷誠之子承魯，魯生肅，肅生侍中齊顏。顏乃重修其廢，仍置釋迦萬日道場，受朝旨，兼有信書願文，留于寺。其卒爲護伽藍神，頗著靈異。

其信書略曰。“檀越內史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柱國崔齊顏狀，東京高位山天龍寺殘破有年，弟子特爲聖壽天長民國安泰之願，殿堂廊閣房舍廚庫已來興構畢，具石造泥塑佛聖數軀，開置釋迦萬日道場。旣爲國修營，官家差定主人亦可，然當遞換

901) 중희(重熙): 요(遼)나라 흥종(興宗)의 연호. 1032~1055년. 고려 덕종 1~문종 9년.

902) 흥종(興宗): 요나라 제7대 왕. 재위 1031~1055.

903) 우리나라: 일연의 시대인 고려시대를 말한다.

904) 정종(靖宗): 고려의 제10대 왕. 재위 1035~1046.

905) 경진년(1040)은 유년칭원법(膺年稱元法)을 사용한 『고려사』를 따르면 정종 6년이 되지만, 즉위년 칭원법(卽位年稱元法)을 썼던 고려시대 당시의 기록으로는 정종 7년이 된다.

交代之時，道場僧衆不得安心。側觀入田稠足寺院，如公山地藏寺入田二百結，毗瑟山道仙寺入田二十結，西京之四面山寺各田二十結例。皆勿論有職無職，須擇戒備才高者，社中衆望，連次住持焚修，以爲恒規。弟子聞風而悅，我此天龍寺，亦於社衆之中，擇選才德雙高大德，兼爲棟梁，差主人，鎮長焚修。具錄文字，付在剛司，自當時主人爲始，受留守官文通，示道場諸衆，各宜知悉。重熙九年六月日。具銜如前署。”

按重熙乃契丹興宗年號，本朝靖宗七年庚辰歲也。

4-23 무장사의 미타전

[해제]

경주에 있던 절인 무장사의 창건 연기와 미타전의 건립 과정과 무장사의 지형에 관한이야기를 모은 편이다. 무장사는 원성왕의 부친이 숙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절이다. 소성왕의 왕비 계화왕후가 원성왕의 손자인 죽은 소성왕을 위하여 재산을 내어 미타상을 봉안하였다. 불법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는 다른 신라 절과 마찬가지로 무장사도 절을 창건할 때 부처가 탑이 있는 동남쪽 언덕에서 대중에게 설법하는 꿈을 꾸고 불법이 머물 곳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험준한 지형임에도 땅을 골라 훌륭한 자리를 얻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원성왕의 부친이 창건했다는 기록과 달리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병기와 투구를 이 절의 골짜기에 감추어 무장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다른 창건 연대의 민간 전승을 부기하고 있다.

이 무장사의 아미타상은 그 조상비가 일부 발견되어 이 편에 인용된 기록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무장사 아미타불상 조상비는 1760년(영조 38)에 당시 경주부윤으로 금석문에 밝았던 홍양호(洪良浩)가 내동면 암곡리 무장사 절터에서 비 조각을 발견하여 처음 알려졌다. 그후 금석학자로 이름난 김정희(金正喜)가 1817년에 다시 이 지역을 조사하여 비편 2개를 더 찾아내 이를 『해동금석원』에 소개하였다. 다음에 일제시대에 무장사지를 발굴 조사하여 귀부와 이수와 함께 몇 개의 비편이 더 발견되었다. 이 무장사 아미타불상 조상비는 김육진(金陸珍)이 비문을 짓고 왕희지체 글씨를 집자하여 세웠는데, 이 「무장사 미타전」의 내용 일부가 비의 내용과 일치하

고 있어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 비문을 참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무장사 기록에는 ‘옛비(古碑)가 있다’고 되어 있어(권21 慶州府 佛宇) 조선전기까지는 비가 온전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무장사지에는 비의 대좌와 삼층석탑이 남아 있다.

[역주]

무장사의 미타전

서울⁹⁰⁶⁾ 동북쪽 20리쯤에⁹⁰⁷⁾ 있는 암곡촌(暗谷村)⁹⁰⁸⁾의 북쪽에 무장사(鑿藏寺)⁹⁰⁹⁾가 있다. 제38대 원성대왕(元聖大王)⁹¹⁰⁾의 아버지인 대아간(大

906)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가리킨다.

907)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무장사 기사에는 경주에서 동북쪽 30리 떨어진 암곡촌에 있다고 하였다.

908) 암곡촌(暗谷村):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동(暗谷洞).

909) 무장사(鑿藏寺):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동에 있던 절. 원성왕 때 세운 절이라 하나 이보다 훨씬 앞선 무열왕 때 삼국통일을 이루고 투구와 무기를 버려 절 이름을 무장사로 하였다는 일화를 결부시켜 전해 왔다. 현재 절터에는 아미타상을 조성한 인연을 적은 비문인 보물 제125호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의 이수과 귀부가 있고, 비신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보관되어 있다. 아미타불조상비는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모아 새긴 것인데, 1915년 파편 가운데 세 조각이 발견되어 절터가 무장사였음이 확인되었다. 또 절터에는 숲 사이에 방치되었던 탑재를 1963년에 복원한 보물 제126호 무장사지삼층석탑이 있으며, 석등의 옥개석과 미타전 자리의 초석도 남아 있다.

910) 원성왕(元聖王): 신라 제38대 왕. 재위 785~798. 성은 김씨, 이름은 경신(敬信). 내물왕의 12세손으로 아버지는 효양(孝讓), 비(妃)는 숙정부인(淑貞夫人) 김씨로 각간 신술(神述)의 딸이다. 왕위에 오르기 전인 780년에 후에 선덕왕이 된 양상(良相)과 더불어 지정(志貞)의 난을 진압하고 해공왕을 살해하여 양상이 왕위에 올라 하대(下代)사회를 여는데 기여하였다. 선덕왕이 즉위하자 상대등이 되었고 선덕왕 사후 무열왕계를 대표하는 김주원(金周元)과의 왕위다툼에서 승리

阿干)⁹¹¹ 효양(孝讓)⁹¹² 곧 추봉明德대왕(明德大王)이 숙부인 파진찬(波珍滄)을⁹¹³ 추송하기 위하여 세운 절이다. 깊은 계곡이 아득하고 험준하여 마치 깎아 세운 듯하고, 그윽한 곳에 있어 저절로 맑은 마음⁹¹⁴을 생기게 하니 마음을 쉬고 도(道)를 즐길 수 있는 신령스러운 곳이다.

절의 위쪽에 옛날 미타전(彌陀殿)이 있었다. 소성(昭成)〈소성(昭聖)이라고도 한다〉대왕⁹¹⁵의 왕비 계화왕후(桂花王后)⁹¹⁶가 대왕이 먼저 돌아가시므로 왕비는 근심스럽고 불안하여⁹¹⁷ 지극한 슬픔에 피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상하였다. 가만히 밝고 경사스런 일을 돕고 크게 명복을 빌고자 생각

하여 785년에 즉위하였다.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여 유교에 능통한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고 왕과 태자를 중심으로 한 왕실 친족집단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이후의 왕위계승 역시 원성왕계 직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 911) 대아간(大阿干) : 신라 17관등의 제5 관등. 대아찬(大阿滄)이라고도 한다. 이 대아찬 이상의 관등은 진골 신분만이 받을 수 있다.
- 912) 효양(孝讓) : 원성왕의 아버지. 부인은 계오부인(繼烏夫人). 『삼국유사』기이 「원성대왕」편에서는 대각간(大角干)이라고 하였고,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원성왕조에는 일길찬(一吉滄)이라고 하였다.
- 913) 파진찬(波珍滄) : 신라 17관등 중의 제4관등. 해간(海干)·파미간(波彌干)이라고도 한다.
- 914) 원문의 허백(虛白)은 허실생백(虛室生白)의 줄임말. 방이 비면 저절로 밝아진다는 뜻으로 마음이 비어 맑게 되면 도를 깨닫는다는 뜻으로서 맑은 마음을 말한다.
- 915) 소성대왕(昭成大王) : 소성왕(昭聖王, 또는 昭成王). 신라 제39대 왕. 재위 799~800. 성은 김씨, 이름은 준웅(俊邕)이다. 원성왕의 큰아들인 인겸(仁謙)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김씨 성목태후(聖穆太后)이고 비(妃)는 계화부인(桂花夫人)으로 숙명(叔明)의 딸이다. 원성왕의 장손으로서 790년에는 파진찬으로 재상이 되었으며 791년에 시중에 임명되었다. 태자에 책봉된 아버지와 뒤이어 태자가 된 숙부 의영(義英)이 죽자 795년에 태자로 책봉되어 798년에 원성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재위 2년째인 800년에 죽었다.
- 916) 계화부인(桂花王后) : 소성왕(昭聖王)의 왕비. 대아찬(大阿滄) 숙명(叔明)의 딸이고 신라 제40대왕인 애장왕(哀莊王)의 어머니이다.
- 917) 원문의 황황(皇皇)은 불안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하였는데, 서방에 아미타(阿彌陀)⁹¹⁸⁾라는 대성인(大聖人)이 있어 지성으로 귀의하면 잘 구원하여 와서 맞아 준다는 말을 듣고서, “이것은 진실된 말이니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하고는 곧 6가지 화려한 예복을⁹¹⁹⁾ 바치고 구부(九府)⁹²⁰⁾에 모아둔 재물을 다 내어 이름난 장인을 불러 아미타상(阿彌陀像) 1구를 만들게 하고⁹²¹⁾ 아울러 신중상(神衆像)⁹²²⁾을 함께 만들어 모셨다.⁹²³⁾

918) 아미타(阿彌陀) : ㉔ Amitāyus, Amitābha. 무량수불(無量壽佛). 서방 정토(西方淨土)에 있으면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들은 모두 서방정토에 태어나게 한다는 부처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어에 두 가지가 있어 Amitāyus는 무한한 수명이라는 뜻으로 무량수(無量壽)로 번역되고, Amitābha는 한량없는 빛이라는 뜻으로 무량광(無量光)으로 번역된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과거 오랜 옛날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 시대에 한 국왕이 위 없는 도심을 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법장(法藏)비구라 하고 부처 아래서 수행하여 48원을 내고 공덕을 쌓아 아미타불이 되었다. 여기서 10만억 불토 떨어진 서방에서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이루어 지금도 설법하고 있으면서 염불하는 이들을 서방 정토로 왕생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토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 중심 경전은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아미타경(阿彌陀經)』의 미타삼부경(彌陀三部經)이 있다.

919) 왕비가 입는 6가지 옷 : 육의(六衣)는 왕후가 입는 여섯 가지의 예복(禮服)이다.

920) 구부(九府) : 주(周)나라 때에 재물을 관리하던 9개의 관청. 왕실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청, 혹은 창고를 의미한다.

921) 비문에는 “구부의 정갈한 재물을 (다 내어) 이름난 장인을 불러 각각의 담당 관서에게 이 절에 오게 하여 받들어 아미타상 1구를(…九府之淨財, 召彼名匠, 各有司存就於此寺, 奉造彌陀像一…)”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는 내용을 대체로 따랐지만 일부는 줄여서 실었음을 알 수 있다.

922) 신중상(神衆像) : 신중(神衆)은 불교를 수호하고 모든 재난을 막아주는 신들로, 불보살상 이외의 사천왕(四天王)이나 금강역사(金剛力士) 팔부중(八部衆) 등을 가리킨다.

923) 이 아미타불상을 만들고 그 사정을 기록한 것이 「무장사아미타불조상비(鑒藏寺阿彌陀如來造像碑)」이다. 이 비는 조선 영조 38년(1760)에 홍양호(洪良浩)가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있을 때 경주(慶州) 내동면(內東面) 암곡리(暗谷里)에서

그 전에 절에 한 노스님이 있었는데 한번은 어떤 진인(眞人)⁹²⁴이 석탑(石塔) 동남쪽에 있는 언덕 위에 앉아서 서쪽을 바라보면서⁹²⁵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이곳은 틀림없이 불법이 머물 곳이구나’라고 하고는 마음 속에 감추어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곳은) 바위가 깎아지른 듯 험준하고 계곡의 물이 급하게 흘러서 장인(匠人)들은 돌아볼 것도 없이 다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하였다.⁹²⁶ 그러나 땅을 개간하여 평탄한 곳을 얻으니 건물을 세울 만하여 마치 신(神)이 마련해준 터 같아서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면서 좋다고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근래에 이 미타전은 허물어지고 절만 남아 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로는 태종(太宗)⁹²⁷이 삼국을 통일한 후에 병기와

발견하였다가 다시 그 소재를 잃은 것을 순조(純祖) 17년(1817)에 김정희(金正喜)가 경주 일대를 뒤져 깨진 비석 두 부분을 다시 찾은 것으로, 청(淸)나라 사람 유승간(劉承幹)이 편찬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부록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의 자료 조사 과정 중 무장사 터 부근에서 귀부와 이수 그리고 『해동금석원』에 소개되지 않았던 다른 비 조각이 다시 발견되어 소개되었다.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중이다. 김육진(金陸珍)이 문장을 짓고, 왕희지(王羲之)의 글자를 집자(集字)한 것으로, 빠진 곳이 많지만 이 기록과 일치하는 곳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편의 기술이 비문을 일부 줄여 실었음을 알 수 있다.

924) 진인(眞人) :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란 뜻으로 부처를 가리키는 말.

925) 서방극락은 미타가 상주하는 곳이라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서방을 향하여 설법하였다는 것은 이 진인이 아미타불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926) 비문에는 “(바위가) 깎아지른듯 험준하고 계곡의 물이 급하게 흘러서 오직 바위가 가파르고 산은 썩은 땅이어서 장인들은 돌아볼 것도 없이 다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하였다.(巉峯, 溪澗激迅, 維石巖巖, 山有朽壤, 匠者不顧 咸謂不祥.)”라고 하여 이 부분에서 일부 생략하여 실었음을 알 수 있다.

927) 태종(太宗) :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신라 제29대 왕. 재위 654~661년. 생존기간은 603~661년이다. 아버지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金龍春)이고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天明)부인이다. 왕비는 김서현(金舒玄)의 딸로서 김유신(金

투구를 이 골짜기에 감추어서 무장사(鑿藏寺)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⁹²⁸⁾

鑿藏寺 彌陀殿

京城之東北二十許里，暗谷村之北有鑿藏寺。第三十八元聖大王之考，大阿干孝讓，追封明德大王之爲叔父波珍淦追崇所創也。幽谷迥絕，類似⁹²⁹⁾削成，所寄冥奧，自生虛白，乃息心樂道之靈境也。寺之上方有彌陀古殿。乃昭成〈一作聖〉大王之妃桂花王后，爲大王先逝，中宮乃充充焉皇皇焉，哀戚之至，泣血棘心。思所以幽贊明休光啓玄福者，聞西方有大聖曰彌陀，至誠歸仰，則善救來迎，“是真語者，豈欺我哉。”乃捨六衣之盛服，罄九府之貯財，召彼名匠，教造彌陀像一軀，并造神衆以安之。先是寺有一老僧，忽夢真人坐於石塔東南岡上，向西爲大衆說法。意謂‘此地必佛法所住也，’心秘之而不向人說。崑石巉峩，流⁹³⁰⁾澗激迅，匠者不顧，咸謂不藏。及乎辟地，乃得平坦之地，

庚信)의 누이인 문명(文明)왕후이고, 그 사이에 문무왕과 김인문(金仁問) 등 여러 아들을 낳았다. 신라 사회가 무열왕에서부터 ‘상대(上代)’에서 ‘중대(中代)’로 바뀐다. 무열왕대에 백제를, 그리고 이어 문무왕대에 고구려를 패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이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후 대체로 무열왕의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중대의 번영기를 누리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928)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무기와 투구를 골짜기 속에 감추었으므로 무장사라 이름지었다고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佛宇 鑿藏寺)

929) 「무장사미타상조상비」에는 ‘類似’를 ‘累以’라고 판독하였다.

930) ‘流’는 비문에는 ‘溪’이다.

931) 현재 남아 있는 비 조각에서 확인되는 글자 중 이곳에 실린 것과 비교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迥絕 累以削成 所寄冥奧 自生虛白 碧澗千尋 □□□塵勞而滌 蕩寒……(이하 3행 중략)…

…密藏 鬱陶研精 寤寐求之 思所以幽贊冥休 光啓玄福者 西方……

可容堂宇，宛似神基，見者莫不愕然稱善。近古來殿則壞已，而寺獨在。諺傳太宗統三已後，藏兵鑿於谷中，因名之。⁹³¹⁾

…府之淨財 召彼名匠 各有司存就於此寺 奉造阿彌陀佛像一……
…見真人於石塔東南崗上之樹下 西面而坐 爲大眾說法 既覺……
…巉峯 溪澗激迅 維石巖巖 山有朽壤 匠者不顧 咸謂不祥 及……

4-24 백엄사의 석탑과 사리

[해제]

진주지방에 있던 백엄사에 5층석탑을 세우고 진신사리 42과를 봉안한 유래를 말한 편이다. 백엄사는 신라 때 귀족이 북택(北宅)을 회사하여 세운 절인데 중간에 폐사가 되었다가 효공왕 때인 906년에 중수하여 회양산문의 개창조 봉암사 도현의 제자였던 양부(陽孚)화상이 주지를 지내고, 이어 925년에는 양부의 제자인 공양(兢讓)이 10년을 주지로 머물렀으며, 다음에는 남원 백암수의 신탁(神卓)이 차례로 주지가 되어 살았다.

1065년에는 주지인 수립(秀立)이 절의 상규(常規) 10조를 정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오층석탑을 새로 세워 사리를 봉안하고 보(寶)를 세워 해마다 공양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 밖에 이절의 창건주인 명신(明神) 엄흔과 백흔 두 사람과 근약의 세 사람을 위해 보를 세워 공양할 것, 그리고 금당의 약사여래 앞에 있는 나무 발우에 초하루마다 공양미를 바꾸어 올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고 한다. 첫머리 부분에는 946년의 지방관이 작성한 문서를 인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찰의 소재지와 주지, 주지의 나이, 창건 연대 등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주어, 고려 초기 사원 관리의 일면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어서 제시한 옛 전승에 따른 이야기들은 신라말에 기존의 폐사된 절을 중건하고 대대로 주지를 지냈던 기록을 알려 주며, 고려 초에 42과나 되는 많은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을 세웠던 사실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원의 장엄물 조성과 창건주를 위한 기념 활동 그리고 사찰의 유지 등을 세세하

게 밝힌 규정이 각 사원에 따라 제정되어 사찰 생활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기록의 의의는 크다.

[역주]

백엄사⁹³²⁾의 석탑과 사리

개운(開運)⁹³³⁾ 3년(946) 병오년 10월 29일에 강주(康州)⁹³⁴⁾ 지역의 임도(任道) 대감(大監)⁹³⁵⁾의 주첩(柱貼)⁹³⁶⁾에 이르기를, “백엄선사(伯嚴禪寺)는

932) 백엄사(伯嚴寺): 경상남도 함천군 대양면 백암리에 있던 절. 현재 이곳에는 신라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381호 함천백암리석등과 석조여래좌상만이 남아 있다.

933) 개운(開運): 후진(後晉) 출제(出帝)의 연호. 944~946년. 고려 혜종 즉위~정종 원년.

934) 강주(康州):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晋州). 본래 백제의 거열성(居列城, 또는 居陁)이었는데 신라 문무왕이 정복하여 주(州)를 설치하였고 신문왕은 거타주를 분할하여 진주총관(晋州總管)을 설치하였으며 경덕왕이 강주(康州)로 고쳤다. 혜공왕이 청주(靑州)라 고쳤다가 고려 태조가 다시 강주로 고쳤다.

935) 대감(大監): 대감(大監)은 신라 때는 지방관서인 패강진전에 설치된 차관직으로 사지 이상 중아찬까지 임명하였던 직책이다. 고려 때는 촌락행정 담당자를 가리킨다. 성종 6년(987)에 이루어진 군현 내부의 행정단위인 촌락에 대한 구조 개편에서 이전 시기에 촌락행정 담당자인 촌주층이 배제되고, 대감(大監)·제감(弟監)을 촌장(村長)·촌정(村正)으로 바꾸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다. 946년의 문서인 여기서는 지방 촌락의 행정담당자를 말한다.

936) 주첩(柱貼): 고려초 주첩(柱貼)은 호적(戶籍)과 관련된 공문서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권4 의해「보양이목」 및 권5 신주「명랑신인」) 여기에는 사원의 현황 즉 사원 창건 연대와 승려의 인적사항을 기본으로 토지와 노비 및 건물 규모 등을 포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의 주첩은 백엄사 간유(侃遊) 상좌가 절의 현황을 강주(康州) 대감(大監)에게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공문서로서, 당연히 절이 창건된 연대가 언급되어야 하는데 간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자료는 고려 초에도 국가가 촌락의 행정담당자에게 사원의

초팔현(草八縣)〈지금의 초계(草溪)〉에 있는데, 그 절의 스님 간유(侃遊) 상좌(上座)⁹³⁷⁾는 나이가 39세라고 하였고, 절이 처음 세워진 때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다만 옛 전승[古傳]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앞 나라인 신라 때 북택청(北宅廳)⁹³⁸⁾ 터를 희사하여 이 절을 지었는데 중간에 오랫동안 폐사로 있다가 지난 병인년(906, 효공왕 10) 중에 사목곡(沙木谷)의 양부화상(陽孚和尚)⁹³⁹⁾이 고쳐 지어 주지로 있다가 정축년(917, 경명왕 1)에 세상을 떠났다. 을유년(925, 경애왕 2)에 희양산(曦陽山)⁹⁴⁰⁾의 공양화상(兢讓和尚)⁹⁴¹⁾이 와서 10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준다. 고려는 국가행정체계 속에 사원을 포함시켰으며 지방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937) 상좌(上座) : 원래는 삼강(三綱)의 가장 상위직으로 절을 대표하는 직책이었다. 신라 후기에는 상좌가 절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나오지만 고려초의 삼강직에서는 상좌가 나오지 않는다. 원주(院主)와 함께 주지직을 나타내던 직책으로 생각된다.

938) 북택청(北宅廳) : 북택(北宅)은 신라의 귀족을 나타내는 35 금입택(金入宅) 중의 두 번째에 등장한다(『삼국유사』 권1 기이 진한). 북택청은 북택에 딸린 건물의 일부분 또는 북택 전체로 생각된다.

939) 양부화상(陽孚和尚) : ?~917.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문을 개창한 지증대사(智證大師) 도헌(道憲, 824~882)의 문인으로 강주 백암사에 주석하였으며 봉암사의 정진 대사의 스승이 되었다.

940) 희양산(曦陽山)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봉암사가 있는 산. 신라시대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희양산문의 봉암사가 있는 산이다.

941) 공양화상(兢讓和尚) : 878~956. 속성은 왕(王)씨, 본관은 공주. 시호는 정진(靜眞), 탑호는 원오(圓悟)이며 백암화상(伯巖和尚)이라고도 한다. 어려서 출가하여 남혈원(南穴院) 여해(如解)의 제자가 되었고, 또 서혈원(西穴院) 양부(陽孚) 밑에서도 수행하였다. 899년(효공왕 3)에 당(唐)의 곡산(谷山)에 가서 도연(道緣)에게 진성(眞性)의 이치를 배우고 삼매(三昧)를 닦았다. 924년에 귀국하여 광주(廣州) 백암사(伯巖寺)에 머물면서 승려들을 지도했는데, 경애왕으로부터 봉종대사(奉宗大師)라는 호를 받았다. 그후 고려 태조와 광종에게 법요(法要)를 가르쳐 존경을 받았고, 951년(광종 2)에 광종의 요청으로 개경의 사나선원(舍那

년을 머물다가⁹⁴²⁾ 또 을미년(935, 고려 태조 18)에 회양산으로 돌아갔다.⁹⁴³⁾ 그때 신탁화상(神卓和尚)이 남원(南原) 백암수(白巖藪)에서 이 절⁹⁴⁴⁾에 들어와 정해진 법에 따라 주지가 되었다.

또 함옹(咸雍)⁹⁴⁵⁾ 원년(1065) 11월에 이 절의 주지인 득오미정대사(得奧微定大師) 수립(秀立)스님이 절의 상규(常規) 10조를 정하였다. 새로 5층 석탑을 세우고 부처 진신사리(眞身舍利) 42과를 맞아서 봉안하고, 사재로 보(寶)⁹⁴⁶⁾를 세워 해마다 공양할 것이 제 1조였다⁹⁴⁷⁾. 이 절에서 불법을 지

禪院)에 있으면서 왕으로부터 증공대사(證空大師)라는 존호를 받았다. 봉암사에 「정진대사탑비」가 남아 있다.

942) 공양이 백암사에 온 해가 정진대사의 비에는 927년이라 하였다.

943) 도현은 현계산(賢溪山) 안락사(安樂寺), 양부는 백암사가 주 활동사찰이고, 공양에게는 바로 봉암사가 그곳이다. 공양에 이르러 지증대사비에서 보이는 북종선 계통의 계보(도신-법람-신행-준법-혜은-도현-양부)와는 전혀 다른 남종선 계통의 새로운 계보가 봉암사에서 만들어졌다(육조혜능-남악회양-강서도일-창주신감-쌍계혜소-도현-양부-공양). 즉 도현 이전의 계보가 북종계에서 남종계로 바뀌었다. 이는 계보의 수정과 함께 선사상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944) 고려시대에 사(寺) 안에 여러 개의 원(院)이 있기도 하였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원도 있었다. 여기서 원(院)이라고 한 것은 절에 처음 주지로 들어갈 경우 ‘입원(入院)’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945) 함옹(咸雍): 요(遼) 도종(道宗)의 연호, 1065~1074년. 고려 문종 19~28년.

946) 보(寶): 신라나 고려 때 사찰에서 공익적인 여러 일을 하기 위해 기본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활용한 돈이나 곡식 등을 사람들에게 빌려 주고 그 이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기관이다. 신라 때에는 진평왕(眞平王) 35년(613)에 원광(圓光) 법사가 설립했던 점찰보(占察寶) 등이 있고, 고려 때에는 장학 사업을 위한 학보(學寶), 승려들의 면학을 위한 광학보(廣學寶), 팔관회를 거행하기 위한 팔관보(八關寶), 빈민 구제를 위한 제위보(濟危寶) 등 다양한 형태의 보가 많이 운영되었다. 대부분 불교적인 목적에서 세워졌지만 점차 일반에까지 확산되기도 하였다.

947)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탑이다. 그곳에 불사리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탑에 대한 공양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寶)를 세운

키던 공경하는 스님인 엄흔(嚴欣)과 백흔(伯欣) 두 명신(明神)⁹⁴⁸⁾과 근악(近岳) 등 세 분 앞으로 보(寶)를 세워 공양할 것(사람들에게 전해오기를, “엄흔과 백흔 두 사람이 집을 회사하여 절을 만들어 그로 인해 이름을 백엄(伯嚴)이라 하고 이에 호법신(護法神)이 되었다”라고 하였다)과, 금당(金堂)의 약사여래(藥師如來) 앞 나무발우에 매달 초하루마다 쌀을 갈아드릴 것 등의 조목이 있었다. 나머지의 조목은 기록하지 않는다.

伯嚴寺石塔舍利

開運三年丙午十月二十九日, 康州界任道大監柱貼云, “伯嚴禪寺坐草八縣(今草溪), 寺僧侃遊上座, 年三十九云, 寺之經始則不知.” 但古傳云, “前代新羅時, 北宅廳基捨置茲寺,” 中間久廢, 去丙寅年中, 沙木谷陽孚和尚, 改造住持, 丁丑遷化. 乙酉年, 曦陽山兢讓和尚, 來住十年, 又乙未年, 却返曦陽. 時有神卓和尚, 自南原白嵒藪, 來入當院, 如法住持.

又咸雍元年十一月, 當院住持得奧微定大師釋秀立, 定院中常規十條. 新堅五層石塔, 眞身佛舍利四十二粒安邀, 以私財立寶, 追年供養條, 第一. 當寺護法敬僧嚴欣伯欣兩明神, 及近岳等三位前, 立寶供養條(諺傳, 嚴欣伯欣二人, 捨家爲寺, 因名曰伯嚴, 仍爲護法神), 金堂藥師前木鉢, 月朔遞米條等. 已下不錄.

다는 조목이 제 1조에 나옴은 당연한 것이다.

948) 명신(明神): 사람이 신이 되어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

4-25 영취사

[해제]

울산 지방에 있던 사찰인 영취사의 창건 설화를 담고 있는 편이다. 영취사는 신문왕대 초인 683년에 재상 충원공이 동래 온천에서 목욕하고 돌아오다 매가 꿩을 쫓는 것을 보고 찾아갔더니 꿩이 새끼 두 마리를 감싸느라 우물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있자 매도 측은한 듯 잡지 않았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에게 그 땅에 대해서 물어보니 절을 세울만하다고 하여 왕이 관아를 옮기고 영취사를 짓도록 하였다고 한다. 재상의 판단과 왕에의 건의에 의해 관청을 옮기고 절을 지을 수 있었던 사정을 알려주는 설화이다. 통일 이후 중앙 중심에서 점차 지방으로 사찰이 확산되어 가는데, 이 영취사 역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찰을 창건해 가는 한 양상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료는 절에 전하는 고기를 인용하였는데, 신문왕을 ‘진골 제31주 신문왕’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중대 왕조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역주]

영취사⁹⁴⁹⁾

절에 전해오는 고기(古記)⁹⁵⁰⁾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라(新羅) 진

949) 영취사(靈鷲寺):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울리에 있던 절. 현재 절터에 삼층석탑이 무너진 채로 남아 있다.

950) 고기(古記): 사찰의 창건 유래와 역사를 중심으로 사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

굴(眞骨) 제31대 신문왕(神文王)⁹⁵¹⁾ 대 영순(永淳)⁹⁵²⁾ 2년(683) 계미년(본문에 원년(元年)이라 함은 잘못이다)에 재상(宰相) 충원공(忠元公)이 장산국(菴山國)⁹⁵³⁾〈곧 동래현(東萊縣)이니 내산국(萊山國)이라고도 한다〉에 있는 온천에서 목욕하고 성(城)으로 돌아오다가 굴정역(屈井驛)⁹⁵⁴⁾ 동지(桐旨) 들판에 이르

항을 기록한 문건.

951) 신문왕(神文王): 신라 제31대 왕. 재위 681~692. 성은 김씨, 이름은 정명(政明), 자는 일초(日招)이다. 문무왕의 장자이며 어머니는 자의왕후(慈義王后)이고 첫 왕비 김씨는 흘믄(欽突)의 딸인데 아버지의 반란에 연좌되어 쫓겨나고 김흠운(金欽運)의 딸을 둘째 왕비로 삼았다. 신문왕대는 무열왕대부터 시작된 신라 중대 왕실의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시기로서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인재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국학(國學)을 설립하고, 봉성사(奉聖寺)와 망덕사(望德寺)를 세우기도 하였다. 중앙관서의 업무와 영역이 확대된 지방통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9주 5소경제도가 확립되었으며, 관료들의 녹읍(祿邑)을 폐지하고 세조(歲租)를 지급하여 관리들의 경제력 확대를 억제시키고 오묘제를 시행하여 왕실의 위상을 드높였다.

952) 영순(永淳): 당 고종(高宗)의 연호. 682년 2월부터 683년 12월까지 사용되었다. 683년 12월에 중종(中宗)이 즉위하여 홍도(弘道) 원년이 되었다. 따라서 영순 2년은 683년 계미(癸未)년이다.

953) 장산국(菴山國): 옛날의 장산국(菴山國, 萊山國이라고도 함)을 신라가 차지하여 거칠산군(居漆山郡)을 두었는데, 경덕왕이 동래(東萊)로 고쳤다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東萊縣) 이는 『삼국사기』에서도 확인된다.(『삼국사기』 권34 지리지 양주 東萊郡. “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장산(菴山), 장산사(菴山寺), 장산초등학교 등의 이름이 보인다.

954) 굴정역(屈井驛):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본래 신라의 굴아화촌(屈阿火村)인데, 파사왕(婆娑王)이 처음으로 현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이 하곡(河曲)이라 이름을 고쳐서 임관군(臨關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本新羅屈阿火村, 婆娑王始置縣, 景德王改名河曲, 爲臨關郡領縣.)”라고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울산군 건치 연혁) 그리고 굴아화촌의 세주에서 신라의 지명에 화(火)라고 부르는 것이 많은데, 화는 불(弗)이 바뀐 것이고 불은 또 벌(伐)이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굴아화촌은 굴불현(屈弗縣)이다. 또 옛날 하곡현 터에 굴화역(堀火驛)이 있다고 하였으니, (같은 책, 울산군 역원) 굴화역은 굴불역(堀弗驛), 또는 굴불역(屈弗驛)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굴정역(屈井驛)은 굴불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러 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꿩이 날아서 금악(金岳)을 넘어 갔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공이) 방울소리를 듣고서 찾아가 굴정현(屈井縣) 관아 북쪽 우물가에 이르니 매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꿩은 우물 가운데에 있는데, 물빛이 온통 핏빛이었다. 꿩은 두 날개를 벌려 두 마리의 새끼를 감싸 안고 있었으며 매도 그 모습이 측은한 듯 잡으려 하지 않았다. 공이 보고 측은한 느낌이 들어 그 땅을 점쳐 물으니, “절을 세울 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서울로 돌아와 왕에게 아뢰어 그 현의 관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땅에 절을 세우고 영취사라고 하였다.

靈鷲寺

寺中古記云, “新羅眞骨第三十一主神文王代, 永淳二年癸未
〈本文云元年, 誤〉, 宰相忠元公, 菴山國〈卽東萊縣, 亦名萊山國〉溫井沐浴, 還城次, 到屈井驛桐旨野駐歇, 忽見一人放鷹而逐雉. 雉飛過金岳, 杳無蹤迹. 聞鈴尋之, 到屈井縣官北井邊, 鷹坐樹上, 雉在井中, 水渾血色. 雉開兩翅, 抱二雛焉, 鷹亦如相惻隱, 而不敢攫也. 公見之惻然有感, 卜問此地, 云“可立寺.”歸京啓於王, 移其縣於他所, 創寺於其地, 名靈鷲寺焉.

4-26 유덕사

[해제]

유덕사의 창건 유래를 말하고 있는 편이다. 유덕사는 태대각간의 직위로 보아 문무왕 8년(668) 이후 어느 시기에 세워진 절로 보인다. 귀족이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사찰로 만드는 것은 흔히 보는 일인데, 창건자의 이름을 따라 절 이름을 붙였다. 이와 같은 다른 사례도 찾을 수 있다. 나말여초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최연위의 선조이기 때문에 비를 세워 역사를 남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간략한 내용으로 보아 이 비는 일연 당시에 이미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태대각간의 비상 고위직을 최씨에게도 수여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특이한 자료이다.

[역주]

유덕사

신라시대 태대각간(太太角干)⁹⁵⁵⁾ 최유덕(崔有德)이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절을 만들고 유덕사(有德寺)라고 이름하였다. 먼 후손인 삼한공신(三韓功臣)⁹⁵⁶⁾ 최연위(崔彦擣)⁹⁵⁷⁾는 최유덕(崔有德)의 진영(眞影)⁹⁵⁸⁾을 걸어 모

955) 태대각간(太太角干): 17관등 위에 시설한 비상위직. 문무왕 8년(668)에 고구려를 패망시킨 김유신의 공로를 인정하여 태대각간을 수여한 적이 있다.(『삼국사기』 권38 직관지상 태대각간)

956) 삼한공신(三韓功臣):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에 참가한 공신에게 준 칭호. 940

시고, 이어 비(碑)를 세웠다고 한다.

有德寺

新羅大大⁹⁵⁹角干崔有德, 捨私第爲寺, 以有德名之. 遠孫三韓功臣崔彦攜, 掛安眞影, 仍有碑云.

년에 신흥사(新興寺)에 공신당(功臣堂)을 두어 동쪽과 서쪽 벽에 삼한공신을 그려 넣었는데 특히 공신당에 그려진 이를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라 한다. 태조 대의 공신은 3천 명이 넘는 정도로 생각되며, 이들은 통일전쟁에 직접 참여한 태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협력한 각 지방의 호족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직첩이 내려지고 후손에게 전승되어 특전을 받고 역분전(役分田) 등의 경제적 혜택도 주어졌다.

- 957) 최언위(崔彦攜) : 868~944. 신라·고려의 문신. 신지(愼之)·인연(仁漣)으로도 쓴다. 885년(헌강왕 11)에 당에 유학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909년 귀국하여 집사성시랑 서서원학사(執事省侍郎瑞書院學士)에 이어 병부시랑(兵部侍郎)이 되었다. 신라가 멸망하자 고려에 귀부하여 태자사부(太子師傅)가 되고, 문장에 대한 일을 맡았으며, 관직이 대상 원봉성대학사 한림원령 평장사(大相元鳳省大學士翰林院令平章事)에 이르렀다. 최치원(崔致遠)·최승우(崔承佑)와 함께 '일대삼최(一代三崔)'로 불리었고, 그가 지은 선승(禪僧)들의 비문이 여럿 남아 있다.
- 958) 진영(眞影) : 조사(祖師)나 고승대덕(高僧大德)의 초상화.
- 959) 원문의 '夫'는 '大'의 잘못

4-27 오대산 문수사의 석탑기

[해제]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석탑과 관련된 영험 설화를 모은 편이다. 생김새가 순박한 이 석탑은 동해에서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자 탑 그림자를 드리워 물고기들을 쫓아 방해하였고 어부는 화를 참지 못해 도끼로 석탑의 훼손하였다. 이 탑은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본래 뜰 한가운데 두었더니 영험이 없어 일관의 제안에 따라 위치를 옮긴 것이라 하였다. 기록은 은자였던 오정석(吳廷碩)이 1156년에 지은 석탑기를 인용하였다. 이 편의 기록은 중앙에서 빗겨난 탑의 위치와 모서리가 깨져 나간 점에 착안하여 현재 남아 있는 월정사 팔각구층탑이 치우쳐 있는데 대한 관심을 탑의 영험 설화로 엮은 것으로 파악한다. 일연은 고려시대 조성으로 보아야 할 이 석탑을 신라시대 조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런 영험 설화가 부처의 위신력으로 만물을 이롭게 함을 드러내는 것이니 이를 널리 알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여 영험 신앙에 의의를 부여하는 관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역주]

오대산 문수사⁹⁶⁰⁾의 석탑기

뜰 가장자리의 석탑은 아마 신라 사람이 세운 것 같다. 만든 솜씨가 비록

960) 문수사(文殊寺): 현재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삼국유사』 탑상

순박하고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영험이 있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중 한 가지 일을 여러 노인들로부터 들었는데 다음과 같다.

“옛날 연곡현(連谷縣)⁹⁶¹⁾ 사람이 배를 타고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갑자기 탐 하나가 배를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 바다 동물들이 그 그림자를 보고 모두 반대방향으로 흩어져 사방으로 달아나니 이 때문에 어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림자를 찾아가 이르러보니 바로 이 탐이었다. 그래서 도끼를 휘둘러 탐을 부수고 가버렸다. 지금 이 탐의 네 귀통이가 모두 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놀라고 탄식해 마지않았으니 그 탐을 둔 것이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가운데에 놓이지 않은 것이 이상하였다. 이에 한 현판을 올려다 보니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비구 처현(處玄)이 일찍이 이 절에 살면서 문득 뜰 한 가운데로 옮겨 두었더니 20여 년 동안 잠잠하여 아무런 영험이 없었다. 그러다가 일관(日官)⁹⁶²⁾이 터를 구하러 이곳에 와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뜰 가운데는 탐을 둘 자리가 못 되는데 왜 동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스님들이 곧 깨닫고 다시 옛 자리로 옮겼으니 지금 서 있는 곳이 그곳이다. 나는 괴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편에는 오대와 보천암에 각각 결사를 설치하고 그 도회소로 삼으라는 문수갑사(文殊岬寺)로 나온다. 『삼국유사』 탐상 「대산월정사오류성중(臺山月精寺五類聖衆)」편에는 자장(慈藏)이 처음 초암을 만들어 지냈고, 신표(信孝)와 신라말의 신의(信義)와 유연(有緣)이 이어 살며 점차 큰 절로 되었다고 하였다.

961) 연곡현(連谷縣):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連谷面). 본래 고구려의 지산현(支山縣)이었는데 고려 현종 때 연곡현으로 고쳤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屬縣 連谷縣)

962) 일관(日官): 천문을 관측하여 변이(變異)를 가리는 일을 담당한 관직.

건대 자취를 나타내어 만물을 이롭게 함이 이와 같이 빠르다. 불자로서 어떻게 침묵하고 말하지 않겠는가? 때는 정풍(正豐)⁹⁶³⁾ 원년(1156) 병자년 10월 일에 백운자(白雲子)⁹⁶⁴⁾가 쓴다.”

五臺山文殊寺石塔記

庭畔石塔, 蓋新羅人所立也. 制作雖淳朴不巧, 然甚有靈響, 不可勝記. 就中一事, 聞之諸古老云. “昔連谷縣人具船沿海而漁, 忽見一塔隨逐舟楫, 凡水族見其影者, 皆逆散四走, 以故漁人一無所得. 不堪憤恚, 尋影而至, 蓋此塔也. 於是共揮斤斫之而去. 今此搭四隅皆缺者, 以此也.”

予驚嘆無已, 然怪其置塔, 稍東而不中. 於是仰見一懸板云, “比丘處玄曾住此院, 輒移置庭心, 則二十餘年間寂無靈應. 及日者求基抵此, 乃嘆曰, ‘是中庭地, 非安塔之所, 胡不移東乎?’ 於是衆僧乃悟, 復移舊處, 今所立者是也. 余非好怪者, 然見其佛之威神, 其急於現迹利物如此, 爲佛子者, 詎可默而無言耶! 時正豐元年丙子十月 日. 白雲子記.”

963) 정풍(正豐): 원래 정릉(正隆)인데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아버지의 휘(諱)인 융(隆)을 피한 것이다. 정릉은 금(金) 나라 해릉왕(海陵王)의 연호. 1156년 2월~1161년 10월. 고려 의종 10~15년. 정릉 원년은 의종 10년, 1156년.

964) 백운자(白雲子): 오정석(吳廷碩). 정확한 생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무신집권기에 문인으로 활동한 이인로(李仁老, 1152~1220)나 최자(崔滋, 1188~1260)보다 연배가 앞선 인물이다. 그는 무인정권이 들어서자 관직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 후 ‘백운자(白雲子)’라고 자처하고 ‘신준(神駿)’이라는 이름으로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시를 읊는 생활을 보냈다.



一然 일연

【三國遺事「義解」삼국유사「의해」】



5-1 원광이 중국에 유학하다

[해제]

이 글은 신라에 본격적으로 중국 불교사상을 소개하기 시작한 원광(圓光)에 관한 기록이다. 본래 『삼국유사』에는 당 초기에 도선(道宣)이 편찬한 『속고승전』의 「원광전(圓光傳)」과 『삼국유사』를 편찬하던 고려 후기에 경주지방에 전해지고 있던 『수이전(殊異傳)』에 실린 「원광전(圓光傳)」의 내용을 모두 싣고, 『삼국사기』의 열전 「귀산전(貴山傳)」의 내용 중에서 세속



운문사 전경(관조스님 사진)

오계와 관련된 부분과 또 다른 기록에서 백고좌법회와 점찰보 활동을 모아 엮었다. 이중 우리나라의 저술인 『수이전』의 기록을 통해 우선적으로 원광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원광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도선(道宣)의 기록도 자료적 가치는 높지만 중국에서의 활동을 주로 기술한 『속고승전』 부분은 제외하여 이 책을 편집하였다. 『속고승전』의 내용은 각주에서 대비 설명하였다.

원광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고려 전기에 각훈(覺訓)이 편찬한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도 온전한 전기가 실려 있다. 이들 전기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중국에 유학한 해와 신라에 귀국한 해에 대한 기록은 『수이전』과 『해동고승전』 그리고 『삼국사기』가 모두 같다. 그러나 죽은 해와 산 나이 등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이전』의 기록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다른 기록은 각주에서 함께 검토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원광은 출가하여 삼기산에서 혼자 수행하다가 신인의 권유로 중국에 가서 불법과 유학을 익혔다. 11년 만에 귀국하여 대승 경전을 강의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와의 싸움에 중국의 군대가 신라를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글을 짓기도 하였다. 귀산과 추항이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자 세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오계를 알려주었고, 일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가서사(嘉西寺)에 점찰보(占察寶)를 설치 운영하였다. 덕와 의가 높다고 이름났으며 문장도 뛰어나, 신라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역주]

원광¹⁾이 중국에 유학하다

경주²⁾ 안일호장(安逸戶長)³⁾ 정효(貞孝)의 집에 있는 고본(古本) 『수이전(殊異傳)』⁴⁾에 실려 있는 「원광법사전(圓光法師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사의 속성(俗姓)은 설씨(薛氏)⁵⁾이고 왕경(王京) 사람이다. 처음에 승려가 되어⁶⁾ 불법을 공부하였는데, 나이 30세에 고요한 곳에 살면서 수도하려는 생각을 하여 홀로 삼기산(三岐山)⁷⁾에 거주하였다. 4년 후 한 비구가 그곳

- 1) 원광(圓光): 신라의 고승. 전기에 따라 생몰년과 출가한 곳과 나이 등이 다르다. 『속고승전』에 따르면 532~630년, 『수이전』에 따르면 554~637년이 된다. 원광은 출가하여 삼기산에서 혼자 수행하다가 신인의 권유로 589년에 중국에 가서 불법과 유학을 익혔다. 성실, 열반, 반야, 섭론을 주로 수학하였다. 600년에 귀국하여 경론을 강의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와의 싸움에 중국의 군대가 신라를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글을 짓기도 하는 등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였다. 청도의 가서사(嘉西寺)에서 지내며 귀산과 추항이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자 세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오계를 알려주었고, 일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점찰보(占察寶)를 설치 운영하였다. 불교사상의 발전과 점찰 수행의 보급 그리고 지방사회에 불교를 전파하는 등 신라불교 발전에 큰 자취를 남겼다.
- 2) 원문의 동경(東京)은 경주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경에 견주어 평양을 서경(西京), 경주를 동경이라고 하였다.
- 3) 안일호장(安逸戶長): 호장(戶長)은 고려·조선시대 향직(鄉職)의 우두머리였다. 이들은 해당 고을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목종(穆宗) 1년(998)에는 70세가 되어 호장으로서 은퇴한 이들을 안일호장이라고 하고 퇴역전(退役田)으로 그 직전(職田)의 반을 주었다. 안일호장은 일종의 명예직인 셈이다.
- 4) 『수이전(殊異傳)』: 작자 미상. 통일신라 후기에 쓰여진 한문 설화집. 본래 이름은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이다.
- 5) 설씨(薛氏)는 신라 육부의 한 성씨이다. 왕성인 김씨나 박씨보다 신분이 아래로 생각되어 육두품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속고승전』에는 박씨(朴氏)이고 삼한의 진한(辰韓)인이라 하였다. 이처럼 신라 귀족 출신 인사의 성씨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다른 경우가 더러 있다.
- 6) 『속고승전』에는 처음에 노장(老莊)과 유학(儒學)을 공부하고 제자(諸子)와 역사를 배워 문명을 떨쳤는데 박학함이 중국에 못 미쳐 25세에 배를 타고 진(陳)나라 금릉(金陵)에 가서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 7) 삼기산(三岐山):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있는 산. 금곡산(金谷山)이라고도 불리는데 3줄기의 시냇물(溪流)이 합쳐져서 삼기산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곳에는 현재 금곡사의 터로 생각되는 폐사지가 남아 있다.

에 와서 (원광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암자⁸⁾를 짓고 2년을 거주하였다. 그는 사람됨이 사납고 주술을 수련하기를 좋아하였다.

(하루는) 법사가 밤에 혼자 앉아 경(經)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신(神)의 소리가 나더니 (법사의) 이름을 불렀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대의 수행이여.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법(法)에 맞게 수행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금 근처에 있는 비구를 보니 재빠르게 주술만 닦고, 얻는 바가 없이 시끄러운 소리로 다른 사람의 고요한 마음을 흠뻑릴 뿐입니다. 또 (그가) 머무는 곳은 나의 갈 길을 막고 있어서 매번 오고 갈 때마다 나쁜 마음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법사는 나를 위해 그에게 말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해주십시오. 만일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아마도 나는 죄업을 짓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법사가 가서 “내가 어젯밤에 신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비구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यो.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게 될 것ियो.”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구는 “지극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악마에게 현혹되는가 봅니다. 법사는 어찌 여우 귀신의 말을 걱정하십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날 밤 신이 다시 와서 “어제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비구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하고 물었다. 법사는 신이 화를 낼까 걱정하

8) 원문에는 난야(蘭若)라 하였다. 난야는 ㉠ aranya의 음을 번역한 말로 비구들의 수행처를 말한다. 는 발음에 의해 아란나(阿蘭那), 아란야(阿蘭若), 아란야가(阿蘭若迦), 아련야(阿練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뜻에 따라 무쟁성(無諍聲), 한적(閑寂), 원리처(遠離處)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난야는 아란야의 약칭이다. 원래 수행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러한 장소에서 출가자들은 세속과 떨어진 채 두타행을 실천하여야 했다. 그러한 실천 수행을 아란야행(阿蘭若行)이라고 하며, 초기 대승이후 그러한 실천행이 강조되었다. 후에는 사찰에 대한 충청으로 사용되었지만 본래적 의미로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이 문장에서의 난야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암자와 통하는 것이다.

여 “끝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강하게 말한다면 어찌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신은 “나는 이미 다 들었는데, 법사는 어찌 말을 조금 보탬니까? 단지 가만히 내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인사하고 가버렸다. 밤중에 벼락치는 것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산이 무너져 비구가 머물던 암자를 묻어버렸다.

신이 다시 와서 말하였다. “법사가 이것을 보니 어떻습니까?” 법사가 “보니 대단히 놀랍고 두렵습니다.”고 대답하자 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나이는 거의 3천살이고, 신술(神術)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인데 어찌 놀랄 일이겠습니까? 또한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천하의 일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법사가 오직 이곳에서 머무르기만 한다면 비록 자리(自利)의 수행은 있어도 이타(利他)의 공(功)은 없고, 현재에 이름을 높이 떨칠 수 없으니 미래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중국에서 불법(佛法)을 배워서 이 나라의 미혹한 사람들을 인도하려하지 않습니까?” 법사는 “중국에서 도(道)를 공부하는 것은 본래 바라는 바이지만 바다는 멀고 육지는 막혀 있어 스스로 지나지 못할 뿐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신이 중국에 가도록 행할 계책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법사는 그 말대로 하여 중국에 들어가⁹⁾ 11년을 머물며 삼장(三藏)¹⁰⁾을 두루 공부하고 유학(儒學)까지 함께 익혔다.¹¹⁾

9) 『속고승전』에는 출가 전에 도가, 유교, 제자백가와 역사를 공부하고 몇십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였다. 『속고승전』의 생몰년(532~630)으로 계산하면 556년이 된다. 『삼국사기』에는 원광의 입진(入陳)년이 589년, 귀국년이 600년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원광에 대해 589년 입중, 600년 귀국, 608년 결사표 작성, 613년 백고좌회 설법 등 여러 연대 기록이 있다.) 여기의 『수이전』에 따르면 30세에 삼기산에 들어가 4년 수도하고 다시 2년 뒤에 산신의 권유로 유학하였다 하였으니 36세가 된다. 11년 동안의 중국 유학 기간이 『삼국사기』와 같다. 84세를 살았다 하였으니 이에 따르면 생몰년은 554년~637년이 된다.

圓光西學¹²⁾

東京安逸戶長貞孝家, 在古本殊異傳, 載圓光法師傳曰.

法師俗姓薛氏, 王京人也. 初爲僧學佛法, 年三十歲, 思靜居修道, 獨居三岐山. 後四年有一比丘來, 所居不遠, 別作蘭若, 居二年, 爲人強猛好修呪術. 法師夜獨坐誦經, 忽有神聲呼其名. “善哉善哉, 汝之修行, 凡修者雖衆, 如法者稀有. 今見隣有比丘, 徑修呪術而無所得, 喧聲惱他靜念. 住處礙我行路, 每有去來幾發惡心. 法師爲我語告, 而使移遷. 若久住者, 恐我忽作罪業”. 明日法師往而告曰, “吾於昨夜有聽神言, 比丘可移別處, 不然應有餘殃.” 比丘對曰, “至行者爲魔所眩, 法師何憂狐鬼之言乎?” 其夜神又來曰, “向我告事, 比丘有何答乎?” 法師恐神瞋怒而對曰, “終未了說, 若強語者, 何敢不聽?” 神曰, “吾

-
- 10) 삼장(三藏): 부처가 설한 경전인 경장(經藏),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 율장(律藏), 경에 대한 뜻을 밝힌 논장(論藏). 곧 불교의 모든 전적을 말한다.
- 11) 『속고승전』에는 중국 생활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처음에 장엄사(莊嚴寺) 승민(僧徒) 제자의 강의를 듣고 진왕에게 출가를 요청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강석(講席)을 두루 찾아 배우니 성실(成實)과 열반(涅槃)을 비롯하여 삼장(三藏)과 석론(釋論)을 두루 공부하였다. 뒤에 오나라의 호구산(虎丘山)에 가서 관법을 수행하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4아함과 팔정(八定)을 수련하며 평생을 마치고자 하여 인사(人事)를 끊고, 성인의 자취를 유람하면서 속세를 멀리하였다. 한 신도의 요청에 따라 강의하기 시작하여 『성실론(成實論)』과 『반야경(般若經)』을 강설하고 널리 중생들을 인도하였다. 외국에서의 전교활동이 있었지만 명망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나라 문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진나라에 들어오자 원광은 군대에 붙잡혀 죽게될 처지가 되었는데, 수나라 대장이 절답이 불타는 것을 보고 뛰어갔더니 불은 없고 원광만 탑 앞에 걸박되어 있어 그 이상함을 알고 풀어 놓아주었다. 589년에 수의 서월에 가서 섭론(攝論)을 공부하여 명망을 떨쳤다. 공부가 다 이루어지자 신라에 돌아가고자 하였다.
- 12) 『삼국유사』 의해편 원문 대본은 韓6 p.340a1~354c9.

已具聞，法師何須補說？但可默然見我所爲。”遂辭而去。夜中有聲如雷震，明日視之，山頽填比丘所在蘭若。亦來曰，“師見如何？”法師對曰，“見甚驚懼。”神曰，“我歲幾於三千年，神術最壯。此是小事，何足爲驚。但復將來之事，無所不知，天下之事，無所不達。今思，法師唯居此處，雖有自利之行，而無利他之功，現在不揚高名，未來不取勝果。盍採佛法於中國，導群迷於東海？”對曰，“學道中國，是本所願，海陸迢阻，不能自通而已。”神詳誘歸中國所行之計。法師依其言歸中國，留十一年，博通三藏兼學儒術。

진평왕(眞平王)¹³⁾ 22년(600) 경신년에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다음 해인 신유년에 돌아 왔다고 하였다.¹⁴⁾> 법사는 행장을 차려 동쪽으로 돌아가려 하였

13) 진평왕(眞平王) : 신라 제26대 왕. 재위 579~632. 휘는 백정(白淨). 진흥왕(眞興王)의 손자이며 동륜(銅輪)태자의 아들로서 숙부 진지왕이 화백회의에서 폐위되어 즉위하였다. 5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재위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초기에 위화부(位和府)·선부서(船府署)·조부(調府)·승부(乘府)·예부(禮部) 등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관서를 설치하여 관청 체계를 조직화하고 부서간의 분업체제를 확립하고 말기에는 왕궁 업무를 맡는 내성(內省)을 두고 관원을 증원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독자적인 왕권을 확립하였다. 즉위 6년(584)에 건복(建福)으로 개원(改元)하여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인 자주성을 과시하였다. 한편 통일왕조 수·당과 빈번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원광(圓光)·담육(曇育) 등의 명승을 중국에 보내어 수학하게 하는 등 불교 진흥과 문물 수용에도 앞장섰다. 진흥왕대의 영역 확장 이후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잘 막아냈다. 딸인 덕만이 왕위를 계승하여 최초의 여왕 선덕왕(善德王)이 되었다.

14)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평왕 22년 경신(庚申)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 신유년이라 한 것이 이 세주의 내용을 고본 『수이전』의 찬자가 『구삼국사』를 보고서 붙인 때문인지, 아니면 일연이 잘못 세주를 붙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는데, 마침 중국(에 와 있던) 사신을 따라¹⁵⁾ 귀국하였다.¹⁶⁾ 법사는 신에게 감사하려고 전에 머물던 삼기산의 절¹⁷⁾에 갔다. 밤이 되자 신이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바다와 육지 먼길을 가고 돌아옴이 어떠하였습니까?” 법사가 대답했다. “신의 큰 은혜를 입어 편안히 다녀왔습니다.” 신이 말했다. “나 또한 신에게서 계(戒)를 받아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서로 도와 주는 약속을 맺고자 합니다.” (법사가) 다시 청하여 말했다. “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말했다. “법사가 나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내일 동이 틀 때¹⁸⁾ 동쪽 하늘의 끝을 보십시오.” 법사가 다음날 그곳을 바라보니 커다란 팔이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닿아 있었다. 그날 밤에 신이 다시 와서 물었다. “법사는 나의 팔을 보았습니까?” 법사는 대답했다. “보았는데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비장산(臂長山)이라고 부른다¹⁹⁾ > 이에 신이 말했다. “비록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만은²⁰⁾ 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느 달 어느 날에 그 고개에서 몸을 버릴 것입니다. 법사는 와서 멀리 떠나는 영혼을 전송해 주십시오.” (법사가) 약속한 날을 기다려

15)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22년에는 조빙사(朝聘使) 나마(奈麻) 제문(諸文)과 대사(大舍) 횡천(橫川)을 따라 귀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6) 『속고승전』에는 신라에서 원광의 소식을 듣고 수나라에 돌려보내줄 것을 여러 차례 청하여 칙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였다. 원광이 갔다가 돌아온 것이 수십 년만이었고, 신라 진평왕은 직접 만나보고 성인처럼 공경했다고 하였다.

17) 금곡사(金谷寺)를 가리킨다. 금곡사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비장산에 있던 절이다. 금곡사는 선덕왕과 김양도(金良圖)의 병을 낫는 등 많은 이적을 보였던 밀교 교승 밀본(密本)이 주석했던 절이다. (『삼국유사』 권5 密本摧邪 참조)

18) 원문에서 평단(平坦)이라 하였다. 평단은 동이 틀 때를 말한다.

19) 금곡산에서 북쪽 무릉산까지 이어진 산줄기를 긴 팔뚝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비장산(臂長山)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20) 원문의 무상지해(無常之害)는 죽음을 말한다.

서 가서 보니 옷칠처럼 새까만 늙은 여우 한 마리가 헉헉거리며 숨을 쉬지 못하다가 곧 죽었다.

법사가 처음 중국에서 귀국하자 우리나라의 국왕과 신료들은 지극히 공경하여 스승으로 삼았고,²¹⁾ (법사는) 늘 대승경전(大乘經典)을 강의하였다. 이때 고구려와 백제가 항상 변경을 침입하여 왕이 이를 매우 걱정하고 수(隋)나라에 〈당(唐)이 맞다²²⁾〉 군사를 요청하고자 법사에게 결병표(乞兵表)를 지어줄 것을 청하였다.²³⁾ (그 글을) 황제가 보고서 30만 군사로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이 일로 인해 법사가 유학에도 통한 것을 알게 되었다.²⁴⁾ 향년 84세로 입적(入寂)하여²⁵⁾ 명활성(明活城)²⁶⁾ 서쪽에 장사 지냈다.²⁷⁾

-
- 21) 『속고승전』에는 원광이 성격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널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말할 때 늘 미소를 머금으며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왕이 의복과 약과 음식 등을 손수 마련하여 복을 독차지하려 하였다 하고, 원광이 죽기 전에 왕이 위문하며 백성을 구제할 것을 여러 번 부탁했다고 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원광에 대한 존경 또한 대단했다고 하였다.
- 22)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진평왕 30년(608)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하여 원광에게 결사표를 짓게 하였다 하였으니 당(618~907)이 아닌 수가 맞다.
- 2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진평왕 30년(608)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하여 원광에게 결사표를 짓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광은 승려의 직분에는 어긋나지만 백성으로서 다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 24) 『속고승전』에는 오가는 국서(國書)가 모두 원광의 가슴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 25) 『속고승전』에는 630년에 99세로 황룡사(皇隆寺)에서 입적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은 『속고승전』의 바로 앞 기록인 건복 58년(641)에 몸이 불편하여 7일만에 입적하였다는 기사와 배치된다. 이에 따라 원광의 생몰년을 각각의 기록을 따라 532~630년 또는 542~640년, 543~641년 등 여러 가지로 추정한다.
- 26) 명활성(明活城):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과 보문동에 걸쳐 있는 명활산 정상에 쌓은 성. 둘레 약 6000m로 정확한 축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본기 실성왕 4년(405)조에 명활성에 관한 기사가 있으므로 실성왕 이전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축성 형식도 신라 초기 형식을 보이고 있다. 명활산은 경주의 동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眞平王二十二年庚申,〈三國史云明年辛酉來〉師將理策東還,乃隨中國朝聘使還國.法師欲謝神,至前往三岐山寺,夜中神亦來.呼其名曰,“海陸途間 往還如何.”對曰,“蒙神鴻恩 平安到訖.”神曰,“吾亦授戒於神,仍結生生相濟之約.”又請曰,“神之眞容,可得見耶?”神曰,“法師若欲見我形,平坦可望東天之際.”法師明日望之,有大臂貫雲 接於天際.其夜神亦來曰,“法師見我臂耶?”對曰,“見已甚奇絕異.”〈因此俗號臂長山.〉神曰,“雖有此身,不免無常之害.故吾無月日捨身其嶺,法師來送長逝之魂.”待約日往看,有一老狐黑如漆,但吸吸無息,俄然而死.法師始自中國來,本朝君臣敬重爲師,常講大乘經典.此時,高麗百濟常侵邊鄙,王甚患之,欲請兵於隋(宣作唐),請法師作乞兵表.皇帝見,以三十萬兵 親征高麗.自此知法師旁通儒術也.享年八十四入寂,葬明活城西.

또『삼국사(三國史)』열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진선비인 귀산(貴山)²⁸⁾이란 사람은 사랑부(沙梁部)²⁹⁾ 사람인데 같은

27) 『속고승전』에는 원광의 신이를 사후 일화를 덧붙여 적고 있다. 아이가 태아 상 태로 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무덤에 아이를 묻으면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원광의 무덤 옆에 죽은 태아를 묻었더니 바로 그날 그 태아의 시체에 벼락이 쳐서 밖으로 내던져졌다. 그래서 전에 원광을 공경하지 않던 사람들도 모두 우러러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광의 제자 원안(圓安)의 간단한 전기를 싣고, 원안이 기록한 원광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왕이 병환이 나서 낫지 않자 원광을 궁중에 청해서 밤마다 법을 설하고 계를 받아 참회하게 했더니 얼마 후에 병이 나았다. 원광은 정법을 널리 퍼 해마다 두 번 강론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보시로 받은 재물은 모두 절 짓는 데 충당하여 남은 것은 가사와 발우뿐이었다는 것이다.

28) 귀산(貴山, ?~602): 신라 진평왕 때 인물. 아찬(阿飡) 무은(武殷)의 아들로 추향

마을의 추항(籌項)³⁰⁾과 벗이 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하기를 “우리들은 선비와 군자와 함께 교류하려고 하는데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올바로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모욕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찌 어진 사람 곁에 나아가 도(道)를 묻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때 원광법사가 수(隋)나라³¹⁾에 유학하고 돌아와 가슬갑(嘉瑟岬)³²⁾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혹은 가서(加西), 또는 가서(嘉栖)라고도 하는데 모두 방언이다. 갑(岬)은 세속에서 고시(古尸)라고 하므로 혹 고시사(古尸寺)라고도 하는데 갑사(岬寺)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운문사(雲門寺) 동쪽 9천보 정도에 가서현(加西峴), 혹은 가슬현(嘉瑟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고개의 북쪽 골짜기에 절터가 있으니 이것이다.>

두 사람이 그 문하에 나아가 말하기를, “세속의 선비가 어리석어 아는 바가 없으니 한 마디를 내려주시어 평생의 교훈으로 삼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籌項)과 함께 원광에게 세속오계의 가르침을 받았다. 진평왕 19년 백제와의 아막성(阿莫城) 전투에 추항과 함께 소감(小監) 직책으로 출전하였다가 전사하였고 이후 나마(奈麻)의 관등을 추증 받았다. 『삼국사기』 권45 열전 貴山)

- 29) 사랑부(沙梁部) : 신라 6부의 하나. 양부와 더불어 육부체제의 중심을 이루었다.
- 30) 추항(籌項, ?~602) : 신라 진평왕때 인물. 귀산과 함께 원광에게 세속오계를 받았다. 백제와의 아막성 전투에 귀산과 함께 소감(小監) 직책으로 출전하였다가 전사하였고 이후 대사(大舍)의 관등을 추증받았다.
- 31) 수(隋) : 581~618. 중국 남북조를 통일하여 세운 나라. 북주의 황실과 인척이던 양견(楊堅, 文帝 재위 581~604)이 581년에 북주로부터 선양을 받아 수 왕조를 열고, 589년에 남조 진을 멸망시켜 300년간의 분열을 끝내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문제의 둘째 아들인 양제(楊帝, 재위 604~617)가 604년에 부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돌궐을 쳐 판도를 넓혔으나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고구려를 침공하려다 실패하는 등 실정이 계속되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618년에 멸망하였다.
- 32) 『삼국사기』 권45 열전 귀산(貴山) 항목에는 귀산이 가실사(加悉寺)에 머물고 있는 원광을 찾아 세속오계를 들었다 하였다. 가슬갑은 가슬사, 가서사(嘉栖寺)와 같은 절로 운문사 영역에 있던 절이다.

다.” 원광이 말하기를, “불교에는 보살계(菩薩戒)³³⁾가 있는데 그 조항이 10가지이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의 신하로서 아마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속오계(世俗五戒)가 있으니 첫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길 것, 둘째 부모를 효도로 섬길 것, 셋째 벼를 신의로 사귄 것, 넷째 전쟁에 임해서 물러나지 말 것, 다섯째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할 것 등이다. 그대들은 이것을 지키고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귀산 등이 말하기를, “다른 것은 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하라는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원광은 “육재일(六齋日)³⁴⁾과 봄·여름에는 죽이지 않으니 이것은 시기를 가리는 것이다. 가축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과 소와 닭과 개를 이름이고, 작은 생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고기가 한 점도 안 되는 것을 이름이니 이는 산 것을 가리는 것이다. 이 또한 필요한 만큼만 하고 많이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속의 좋은 계율이다.”라고 하

33) 보살계(菩薩戒): 원래는 대승의 보살들이 지키는 계율로서 나타난 것인데 십중(十重)·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설한 『범망경(梵網經)』 율장품(律藏品)과 소승의 비구계와 같은 250계를 설한 『선계경(善戒經)』이 근거가 된다. 전자는 종래의 교단이 출가자를 위한 비구계와 재가자를 위한 팔관계(八關戒)를 둔 것과 달리 출가와 재가를 포괄하는 새로운 대승의 계율을 제시한 것이고, 후자는 종래의 출가자를 위한 계율을 대승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계에서는 출가자를 위한 계율로서는 종래의 비구계를 사용하면서 『범망경』의 보살계를 재가신자를 위한 계율로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보살계 10가지는 10중계를 가리킨다. 10중계는 살생하지 말라(不殺戒), 주지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不偷盜戒), 음행하지 말라(不淫戒),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戒), 술을 사지 말라(不酤酒戒),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不說過戒),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不自讚毀他戒), 아끼지 말라(不慳戒), 성내지 말라(不瞋戒),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不謗三寶戒) 이다.

34) 육재일(六齋日): 불교에서 특별히 몸가짐을 조심하며 마음을 단정히 하는 여섯 낫날로 매월의 8·14·15·23·29·30일이다. 인도불교에서는 원래 이 날에 재가신자들은 사원에서 생활하며 재가자들이 지켜야 할 8가지 계율(八關)을 실천하였다.

였다. 귀산 등은 말하기를, “지금 이후로 이를 받들어 실천하고 어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뒷날 두 사람은 전쟁에 나아가 모두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³⁵⁾

또 건복(建福) 30년(613) 계유년 가을에 <곧 진평왕이 즉위한 35년이다> 수(隋)나라 사신 왕세의(王世儀)가 (신라에) 왔다. 황룡사(皇龍寺)³⁶⁾에서 백좌도량(百座道場)³⁷⁾을 개최하고 여러 고덕(高德)들을 초청하여 경전을 강의하게 하였는데 원광이 가장 위에 자리하였다.³⁸⁾

又三國史列傳云. 賢士貴山者, 沙梁部人也. 與同里箒項爲友. 二人相謂曰, “我等期, 與士君子遊, 而不先正心持身, 則恐不

35) 『삼국사기』에 의하면 귀산과 추항은 진평왕 24년(602) 8월에 백제가 아막성(阿莫城)을 공격하였을 때 맞아 싸우다 전사하였다.

36) 황룡사(皇龍寺):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있던 절. 월성(月城)의 동쪽 용궁의 남쪽에 있었던 이 절은 칠처가람지(七處伽藍址: 과거 7불이 주석했다는 경주 일원의 일곱 사찰의 유적지)의 하나로서 규모나 사격(寺格)에서 신라 제일의 사찰이며, 신라의 사상과 예술에서도 그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진흥왕 14년(553)에 새 궁궐을 월성 동쪽에 짓다가 거기에서 황룡(黃龍)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쳐 황룡사라 하고 17년 만인 569년에 완성하였다. 이어 574년에는 3만 5천근의 장륙상을 완성하고 584년에 금당이 이루어졌으며 645년에 높이 225척의 장대한 구층목탑이 세워졌다. 49만근의 거대한 황룡사종이 있었고, 장륙상과 구층탑이 신라 삼보로 꼽힐 만큼 신라불교의 상징이었다. 고려 고종때 몽고 침공시에 소실되어, 지금은 중문(中門)·목탑·금당(金堂) 등 주요 건물의 초석과, 금당 뒤쪽으로 강당 자리와 회랑이 있었던 유지가 남아 있다.

37) 백좌도량(百座道場): 백 명의 고승을 초청하여 여는 도량. 대개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婆羅蜜多經)』을 강설하며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과 기후가 순조롭기를 비는 법회를 말한다. 이는 이 경에 국가가 혼란해지려 하거나 재난이 있고 적이 침공하여 파괴하려 할 때 국왕이 이 경을 독송하고 도량을 장엄하고 백 개의 불상과 백 개의 보살상과 백 개의 사자좌를 안치하고 백 명의 법사를 초빙하여 이 경을 해설하도록 하며 향과 꽃과 갖가지를 크게 공양하여 국왕과 대신과 사부대중이 법대로 수행하면 재난이 없어진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38)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免於招辱. 盍問道於賢者之側乎.” 時聞圓光法師入隋回, 寓止嘉瑟岬〈或作加西 又嘉栖 皆方言也. 岬俗云古尸 故或云古尸寺 猶言岬寺也. 今雲門寺東九千步許 有加西岬, 或云嘉瑟岬. 岬之北洞有寺基, 是也.〉. 二人詣門進告曰, “俗士顛蒙, 無所知識, 願賜一言, 以爲終身之誠.” 光曰, “佛教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 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 事君以忠, 二曰 事親以孝, 三曰 交友有信, 四曰 臨戰無退, 五曰 殺生有擇. 若等行之無忽. 貴山等曰, “他則旣受命矣. 所謂殺生有擇, 特未曉也.” 光曰 “六齋日春夏月不殺, 是擇時也. 不殺使畜, 謂馬牛雞犬, 不殺細物, 謂肉不足一臠, 是擇物也. 此亦唯其所用, 不求多殺. 此是世俗之善戒也.” 貴山等曰, “自今以後, 奉以周旋, 不敢失墜. 後二人從軍事, 皆有奇功於國家.

又建福三十年癸酉〈卽眞平王卽位三十五年也〉秋, 隋使王世儀至, 於皇龍寺設百座道場, 請諸高德說經, 光最居上首.

논의하여 말한다.

법흥왕(法興王)³⁹⁾이 불법(佛法)을 전파한 이래 다리⁴⁰⁾는 놓였지만 그 깊

39) 원문의 원종(原宗)은 신라에서 불교를 처음 공인한 법흥왕(法興王)을 말한다. 법흥왕은 신라 제23대 왕. 재위 514~540년. 성 김(金)씨, 이름은 원종(原宗)이다. 지증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연제부인(延帝夫人) 박씨(朴氏)이고 비(妃)는 보도부인(保刀夫人) 박씨이다. 517년에 병부(兵部)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확립하고, 520년에 율령(律令)을 반포하여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으며 521년에 양(梁)나라와 국교를 열었다. 527년에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531년에는 상대등 벼슬을 새로 두어 국사(國事)를 총괄하여 맡도록 하였다. 532년에 본가야(本伽倻: 金官國)를 병합하여 금관군(金官郡)을 설치하고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으며 536년에 연호를 건원(建元)이라 하였다.

은 사상은 전해질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 마땅히 귀계(歸戒) 멸참(滅讎)⁴¹⁾의 법으로 어리석은 대중들을 깨우쳐 주어야 했다. 그래서 원광은 자신이 머물던 가서사(嘉栖寺)에 점찰보(占察寶)⁴²⁾를 설치하고 항상적인 규칙으로 삼았다. 당시에 비구니 단월(檀越)⁴³⁾이 있어 그 점찰보에 토지를 시납하였는데 지금 동평군(東平郡)의⁴⁴⁾ 토지 1백결이 그것으로서 옛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다.

원광은 성격이 고요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였고, 말할 때 늘 미소를 머금으며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⁴⁵⁾ 나이가 많아지자 수레를 타고 대궐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의 여러 선비들 중에 덕과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으며 문장의 뛰어난도 한 나라가 그에게 쓸릴 정도였다. 나이 80여세로 정관(貞觀)⁴⁶⁾연간에 입적하였는데 승탑이 삼기산 금곡사(金谷寺)에 있다.⁴⁷⁾ <지금 안강(安康)의⁴⁸⁾ 서남쪽 골짜기로 또한 명활산

40) 진량(津梁)은 나루터의 다리와 뗏목으로 강을 건너는 수단을 말한다. 즉 부처가 이 세상의 괴로움을 구제하여 깨달음의 경지로 이끄는 것을 뜻한다.

41) 귀계(歸戒) 멸참(滅讎): 불법에 귀의하여 잘못을 참회하고 수행하는 것.

42) 점찰보(占察寶): 점찰회를 열기 위한 재원. 점찰회는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 의거하여 자신의 전생의 업과 후생의 과보를 점친 후 그에 맞게 참회와 수행을 행하는 법회 의식이다. 신라에서는 진평왕대부터 이 점찰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광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3) 단월(檀越): 檀(dānapati, 사찰이나 승려에게 재물을 베푸는 불교 신자를 말한다.

44) 동평군(東平郡): 부산 부산진구 지역. 원래 신라의 대증현(大甞縣)으로 경덕왕대에 동평현으로 개명되어 동래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울주(蔚州)에 예속되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으며 조선시대에도 동래와 울주에 번갈아 소속되었다.

45) 이 부분은 『속고승전』의 구절을 거의 그대로 옮겨 묘사한 것이다.

46) 정관(貞觀)은 당 태종(太宗)의 연호. 627~649년.

47) 금곡사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비장산에 있던 절이다. 금곡사지에는 통일신라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탑 일부와 기타 유적이 남아 있지만 별도의 부도

의 서쪽이다.)

『속고승전』⁴⁹⁾에서는 황룡사(皇龍寺)⁵⁰⁾에서 입적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황룡사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분황사(芬皇寺)⁵¹⁾를 왕분사(王芬寺)라고 한 것과 같은 예이다.

위에 언급한 중국과 우리나라 두 전기의 기록에 의하면 성씨를 박씨(朴氏)와 설씨(薛氏)라고 하고 출가한 곳을 중국과 신라라고 하는 등 마치 다른 두 사람을 얘기한 것 같아서 감히 분명하게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둘 다 수록하였다.

그러나 여러 전기들에서 모두 작갑(鵲岬)⁵²⁾과 이목(璃目)⁵³⁾과 운문사(雲

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광의 부도(僧塔)을 건립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승탑이 된다.

48) 안강(安康): 경북 경주시 안강읍. 원래 비화현(比火縣)이었는데 경덕왕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의창군(義昌郡)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말에 갑무를 두었으나 조선 초에 다시 경주에 예속시켰다.

49) 원문의 당전(唐傳) 곧 『당고승전』은 『속고승전』의 잘못이다.

50) 황룡사(皇龍寺): 일연이 지적하고 있듯이 황룡사(皇龍寺)의 다른 표기로 생각된다. 황룡사는 경주시에 있었던 절로 규모와 사격에서 신라 제일의 위상을 가졌던 신라불교의 중심 사찰이었다.

51) 분황사(芬皇寺):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황룡사와 마주보고 있는 절.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되었다. 신라에 옛 부처 때의 인연 있는 일곱 절터 중의 하나로 꼽혔던 중요한 절이다. 자장이 귀국하자 머물게 했던 절이며, 7세기 중반에 원효가 활동하며 『화엄경소』를 지었던 절이다. 원효의 사후 아들 설총이 원효의 상을 빚어 분황사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현재 약사여래입상을 모신 보광전(普光殿)과 승당(僧堂)·종각(鍾閣) 등이 있으며, 국보 제30호인 분황사모전석탑 외에 원효의 비인 화쟁국사(和諍國師)비편, 석정(石井) 등이 있다. 경덕왕 때인 755년에 30만근이 넘는 거대한 동제 약사여래상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명화가 술거(率居)가 그린 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 등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유적이 있던 유서 깊은 절이다.

52) 작갑(鵲岬): 청도 호거산에 있던 5개의 절. 대작갑사를 비롯하여 소작갑사·소

門寺) 등의 일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 김척명(金陟明)이 함부로 향간의 이야기를 운문하여 「원광법사전」을 지으면서 운문사(雲門寺)⁵⁴⁾ 개산조인 보양(寶壤)스님의 사적을 잘못 기록하고 (두 스님의 사적을) 합하여 한 사람의 전기를 만들었다. 뒤에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⁵⁵⁾을 편찬한 사람이 이 잘못을 이어서 그대로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다. 여기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한 자도 더하고 빼지 않고 두 전기의 기록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진(陳)⁵⁶⁾나라와 수(隋)나라 때에 해동 사람으로 바다를 건너 가서 도를 묻은 사람이 드물었고, 비록 있었다 해도 크게 떨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광 이후에는 뒤를 이어 중국에 유학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니⁵⁷⁾ 원광이

보갑사·천문갑사·가서갑사의 다섯 갑사(岬寺)가 있었다. 신라 말에 이들이 통합되어 운문사(雲門寺)로 되어 현재에 이른다.

53) 이목(瑠目): 신라말에 활동했던 보양(寶壤)이 중국에서 귀국할 때 용왕을 만나 데려와 교화에 활용하였다고 하는 용왕의 아들이다.

54) 운문사(雲門寺):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호거산에 있는 절. 신라 진흥왕 21년(560)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운문사 경역에 다섯 개의 절(五岬寺)가 있었는데 신라말에 통합되어 운문사로 되었다. 원광(圓光)이 점찰법을 시행했던 가슬갑사(嘉瑟岬)도 그중의 하나였다.

55) 해동승전(海東僧傳)은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을 말한다. 『해동고승전』은 고려 1215년 경에 각훈(覺訓)이 편찬한 우리나라 고승들의 전기를 모은 책으로 현재는 앞 부분인 유통(流通)편 2권만 남아 있는데, 불교의 전래와 수용, 구법고승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권에는 삼국과 외국의 불교를 전래한 승려의 행적이, 2권에는 중국과 인도로 구법의 길을 갔던 승려들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56) 진(陳): 중국 남북조시대에 남조에 속했던 나라로 남조 최후의 왕조(557~589). 진패선(陳霸先,武帝 557~559)이 557년 양(梁)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하였다. 선제(宣帝, 568~582) 때에는 북제(北齊)를 공략하여 북쪽으로 진출했으나, 다음 후주(後主, 582~589)는 측근을 중용하고 무장을 억압하여 점차 국력이 쇠퇴해져서 마침내 589년에 수(隋)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57) 동동(懂懂): 왕래가 끊어지지 않는 모양을 표현한 말.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찬한다.

바다 건너 처음 중국 땅의 구름을 뚫으니

몇 사람이나 오고 가며 맑은 향기 품었을까.

옛날의 자취는 청산에 남아 있고

금곡사와 가서사의 일은 들을 수 있네.

議曰 原宗興法已來，津梁始置，而未遑堂奧，故宜以歸戒滅讎之法，開曉愚迷，故光於所住嘉栖岬，置占察寶，以爲恒規。時有檀越尼，納田於占察寶，今東平郡之田一百結是也，古籍猶存。光性好虛靜，言常含笑，形無慍色。年臘旣邁，乘輿入內，當時群彥，德義攸屬，無敢出其右者，文藻之膽，一隅所傾。年八十餘，卒於貞觀間，浮圖在三岐山金谷寺。〈今安康之西南洞也 亦明活之西也。〉

唐傳云，告寂皇隆寺，未詳其地，疑皇龍之訛也。如芬皇作王芬寺之例也。據如上唐鄉二傳之文，但姓氏之朴薛，出家之東西，如二人焉，不敢詳定。故兩存之。然彼諸傳記，皆無鵲岬璃目與雲門之事。而鄉人金陟明，謬以街巷之說，潤文作光師傳。濫記雲門開山祖寶壤師之事迹，合爲一傳。後撰海東僧傳者，承誤而錄之。故時人多惑之。因辨於此，不加減一字。載二傳之文詳矣。陳隋之世，海東人鮮有航海問道者。設有，猶未大振。及光之後，繼踵西學者憧憧焉。光乃啓途矣。

讚曰 航海初穿漢地雲，幾人來往挹清芬。昔年蹤迹青山在，金谷嘉西事可聞。

5-2 보양과 배나무

[해제]

신라 말기에 운문사에서 활동하던 보양에 대한 전기이다. 운문사에 대한 기록은 운문사가 위치해 있는 청도군(淸道郡)의 주첩공문(柱貼公文)과 장생표(長生標) 공문 및 고적비보기(古籍裨補記) 등의 고려시대 고문서를 인용하여 기록한 특징이 있다. 『삼국유사』 의해편은 대체로 시기순으로 구성되었는데, 신라 말에 활동한 보양이 이처럼 앞 부분에 들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일연이 작갑사와 이목의 일을 다른 기록에서 원광의 전기에 잘못 넣은 것을 지적하고, 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삼국유사』에서는 원광의 바로 다음에 보양의 전기를 수록한 것이다.

보양은 운문사에서 활동하며 중국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귀국하던 도중에 용궁에 들어가 용왕의 아들 이목(璃目)과 함께 신라에 돌아와서 작갑사(鵲岬寺)의 옛터를 찾아 중창하였다. 작갑사에는 다섯 절이 있었는데 후삼국 혼란기에 모두 없어지고 대작갑사만 남았는데,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합하여 운문선사(雲門禪寺)라고 이름을 내렸다. 용왕의 아들은 항상 곁에서 보양의 교화를 도왔는데,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다가 천제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였다. 보양은 운문사에 오기 전에 밀양의 봉성사(奉聖寺)에서 지냈는데, 고려 태조의 원정에 전술적인 도움을 주어 태조로부터 토지를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운문사의 토지는 그후 작성된 고려 지방문서에서 장생표가 11개나 되는 등의 기록으로 확인되며, 943년의 기록에는 보양이 삼강전(三綱典) 주인(主人)의 직책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역주]

보양과 배나무⁵⁸⁾

보양스님의 전기에는 고향 마을과 성씨나 가족이 실려 있지 않다.

청도군(淸道郡)⁵⁹⁾의 관청 장적⁶⁰⁾을 살펴보니, “천복(天福)⁶¹⁾ 8년(943) 계묘년⁶²⁾〈태조 즉위 제26년이다〉 정월 어느날 청도군 지역의 이심사(里審使)⁶³⁾ 순영(順英)과 대나마(大奈麻)⁶⁴⁾ 수문(水文) 등의 주첩공문(柱貼公文). 운문산선원(雲門山禪院)⁶⁵⁾ 장생(長生)⁶⁶⁾. 남쪽은 아니점(阿尼帖), 동쪽은 가서

58) 원문의 이목(梨木)이라는 제목은 용왕의 아들 이목(璵目)과 같은 발음의 배나무에서 따온 것이다. 이목(璵目)은 용이 되지 못한 큰 구렁이를 말하는 이무기와 음이 유사하여 따온 표현으로서, 여기에서 확장된 연상이 이후 본문에서 이목을 상징하는 배나무(梨木)에 대신 벼락이 내리게 했다는 이야기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59) 청도군(淸道郡): 현재의 경북 청도군. 본래 이서국(伊西國)으로서 신라에 편입되어 이서군(伊西郡)이 되었다. 신라 때 이서군에서 나뉘었던 오악현 향산현 소산현을 고려 태조 때 다시 통합하여 청도군을 형성하였다.

60) 원문의 사적(司籍)은 군(郡)내의 사원이나 전답(田畓)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61) 천복(天福): 후진(後晉) 고조의 연호. 936~943년. 고려 태조 19~26년에 해당한다.

62) 원문의 계유(癸酉)는 계묘(癸卯, 943년)의 잘못이다.

63) 이심사(里審使): 마을과 장원 등의 경계를 심사하는 관리로 추정된다.

64) 원문의 대나마(大乃末)은 신라 17관등 중의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고려 초 지방호족이 스스로 불렀던 관등으로 보인다.

65) 운문산선원(雲門山禪院): 운문사(雲門寺)를 말한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호거산에 있는 절이다. 신라 진흥왕 21년(560)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진평왕대에 원광(圓光)이 점찰법을 시행했던 가슬갑사(嘉瑟岬寺)도 운문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 지역에는 대작갑사 소작갑사 소보갑사 천문갑사 가서갑사의 다섯 갑사가 있었는데 신라말에 모두 폐사되었다. 보양이 대작갑사를 중창하여 작갑사로 삼았는데, 고려 태조가 다섯 갑사의 토지 500결을 모두 합쳐 작갑사에 주고 운문선사라는 사액을 내렸다.

66) 장생(長生): 장생표(長生標). 사찰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수조권(收租權)을 행사하던 토지와 그 밖의 토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역에 세웠던 경계표

현(嘉西峴).〈운운〉이라 하였고, 이 절의 삼강(三剛典)⁶⁷⁾ 주인(主人)⁶⁸⁾은 보양(寶壤)화상(和尚). 원주(院主)⁶⁹⁾는 현회(玄會)장로(長老). 정좌(貞座)⁷⁰⁾는 현량(玄兩)상좌(上座)⁷¹⁾. 직세(直歲)⁷²⁾는 신원(信元)선사(禪師).”라고 하였다. 〈위 공문은 청도군 도전장(都田帳)⁷³⁾에서 전하는 것에 준했다.〉

지이다.

- 67) 삼강전(三剛典) : 삼강(三剛)은 중국에서는 삼강(三綱)으로 표기하였으나 고려에서는 대체로 삼강(三剛)으로 표기하였다. 삼강은 사원의 운영을 위해 설치한 직제로서 중국 북위시대에 지방 승관제로 시작된 상좌(上座)·사주(寺主)·도유나(都維那)를 말한다. 당 중기 이후 상좌는 도사(都寺), 사주는 감사(監寺)·부사(副寺)로 분화되고, 도유나는 유나(維那)·전좌(典坐)·직세(直歲)로 분화되어 삼강 직제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는 상좌와 유나의 직책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려초에 선종 중심 산문에서 독자적인 직제로 삼강전을 설치하고 원주·전좌·유나·직세 등의 직책을 두었다. 명칭은 삼강인데 직책은 고려초 자적선사비(941)까지는 원주·전좌·유나의 셋이었다가 대경대사비(942) 이후부터 원종대사비(975)까지는 대체로 직세가 더해져 네 직책으로 정리된다. 이 운문사의 삼강전은 다른 예와는 달리 유나가 없는 대신 원주 위에 주인(主人)이 있어 네가지 직책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예이다.
- 68) 주인(主人) : 절의 운영을 책임지는 승려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강직의 가장 위에 거명되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예로는 대경대사비(942)나 범경대사경유비(944)의 제일좌승(第一座僧)이나 정효대사비(944)의 원지주인(院持主人)이 있다.
- 69) 원주(院主) : 고려 초 사원 직책인 삼강전에 설치한 승관. 대체로 가장 먼저 거명되는 직책으로 선원을 대표하는 직책이다.
- 70) 정좌(貞座) : 고려 초 사원 직책인 삼강전에 설치한 승관으로 전좌(典座)의 다른 표기. 사원이 내적 운영에 필요한 일인 법상과 좌구[床坐]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직책이다.
- 71) 상좌(上座) : 본래 승관제에서 사원을 대표하는 승려의 직책으로 쓰였으나 덕이 높은 승려를 지칭하는 경칭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4명의 승려에게 화상 장로 상좌 선사의 각각 다른 경칭을 사용하고 있다.
- 72) 직세(直歲) : 고려 초 사원 직책인 삼강전에 설치한 승관. 한 해 동안 일을 맡아본다는 데서 시작된 이름이다.

또 개운(開運) 3년(946) 병오년⁷⁴⁾의 운문산선원 장생표탑(長生標塔) 공문 1건에, “장생 11기. 니점·가서현·무현(畝峴). 서북은 매현(買峴 <혹은 면지촌(面知村)이라고도 한다>). 북은 저족문(豬足門) 등.”이라고 하였다.

또 경인년(1230) 진양부첩(晉陽府貼)⁷⁵⁾에 “오도안찰사(五道按察使)⁷⁶⁾가 각 도의 선종과 교종 사원이 창건된 연월과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서 문서를 만들. 당시 차사원(差使員)인 동경(東京)⁷⁷⁾의 장서기(掌書記) 이선(李僊)이 자세히 조사하여 기재함. 정풍(正豐) 6년(1161)⁷⁸⁾ 신사년<금(金)의 연호이니 고려 의종 즉위 16년이다⁷⁹⁾> 9월 군내의 옛 전적인 비보기(裨補記)⁸⁰⁾에

73) 청도군 도전장(淸道郡都田帳): 청도군의 도전정장적(都田丁帳籍), 곧 청도군에 있는 토지대장을 말한다.

74) 원문의 병진년은 병오년의 잘못이다.

75) 진양부첩(晉陽府貼): 진양부의 문서. 진양부는 고려 후기 최씨정권의 집정자인 최이(崔怡)가 만든 관부인데, 최이는 1205년 진주 전체를 식읍(食邑)으로 하여 지배하였다.

76) 오도안찰사(五道按察使): 오도는 고려시대의 지방 구획인 양광도(楊廣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교주도(交州道)·서해도(西海道)이다. 안찰사는 고려 시대 관직으로 임금의 특명을 받은 일종의 사신이다. 고려 초에는 절도사(節度使)가 그 임무를 맡다가 현종 때 안찰사로 바뀌었으며 중간에 변동은 거쳐 예종 때 다시 안찰사가 되었다가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안렴사(按廉使)로 바뀌었다. 안찰사는 각 도를 순력(巡歷)하면서 수령을 비롯한 모든 외관에 대한 성적을 평가·보고하는 한편, 농사에 대한 감찰과 기아 및 빈민 구제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군사를 장악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77) 동경(東京): 지금의 경주를 고려 때 부르는 이름.

78) 정풍(正豐): 본래 정릉(正隆)인데 고려 태조의 아버지 왕룡(王隆)의 이름자를 피하기 위해 풍을 대신 사용하였다. 정릉은 금(金) 해릉왕(海陵王) 제량(帝亮)의 연호로 1156~1161년間に 쓰였다. 정릉 6년은 고려 의종 15년인 1161년이다.

79) 고려시대에는 해를 세는데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세는 즉위년칭원법(即位年稱元法)을 썼는데, 조선시대에는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하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썼으므로 1161년이 고려시대에 쓴 일연의 이『삼국유사』 기록에서

준함. 청도군 전 부호장(副戶長)⁸¹⁾ 어모부위(禦侮副尉)⁸²⁾ 이척정(李則禎)의 집에 있는 옛 사람의 기록과 사람들에게 전해온 것을 기록한 것. 상호장(上戶長)⁸³⁾을 지내고 물러난 김양신(金亮辛), 호장(戶長)⁸⁴⁾을 지내고 물러난 민육(旻育), 호장동정(戶長同正)⁸⁵⁾ 윤응(尹應), 전의 기인(其人)⁸⁶⁾ 진기(珍奇) 등과 당시 상호장 용성(用成) 등의 말. 그때 태수(太守)는 이사로(李思老)이며, 호장 김양신은 나이가 89세, 나머지는 모두 70세 이상, 용성은 나이가 60세 이상.”〈윤윤. 그 다음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寶壤梨木

釋寶壤傳，不載鄉井氏族。

謹按清道郡司籍載，“天福八年癸酉(太祖即位第二十六年也)正月

는 의종 16년이여야 하지만 현재 의거하는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기록한 것이므로 의종 15년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주 21)의 의종 15년은 『고려사』 기록에 따른 계산이며, 이곳의 일연의 의종 16년 기록은 고려의 기록으로 맞는 것이 된다.

80) 비보기(裨補記): 풍수지리설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기록한 책.

81) 부호장(副戶長): 고려시대 향리직(鄉吏職)의 고위 관직. 가장 높은 관직인 호장(戶長) 다음의 관직이다.

82) 어모부위(禦侮副尉): 고려시대에 지방 실력자인 향리나 노병(老兵) 등 여러 세력을 중앙의 지배기구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되었던 모두 29단계로 된 무산계(武散階)의 제25단계인 중8품 하(下)의 관등이다.

83) 상호장(上戶長): 고려 시대 각 고을의 실무행정을 총괄하던 호장(戶長)들을 포함한 향리(鄉吏)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직.

84) 호장(戶長): 고려시대 향리직의 가장 높은 관직. 지방에 독립된 읍사(邑司)를 구성하여 향리들이 일정한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향리직은 최상위의 호장·부호장을 비롯하여 호정(戶正)·부호정·사(史)·병정(兵正)·부병정·병사(兵史)·창정(倉正) 등의 직책이 있었다.

85) 호장동정(戶長同正): 동정직은 검교직(檢校職)과 함께 고려시대에 정원이 제한된 실직(實職)의 한계를 넘어 많은 사람을 관료체제에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직제인 산직(散職)이다. 산직인 동정직으로 제수된 호장을 말한다.

86) 기인(其人): 고려시대에 지방 호족 세력을 중앙의 왕권 아래 두기 위해 실시했

日, 淸道郡界里審使順英大乃末水文等柱貼公文. 雲門山禪院長生, 南阿尼岾, 東嘉西峴〈云云〉. 同藪三剛典主人寶壤和尚, 院主玄會長老, 貞座玄兩上座, 直歲信元禪師.”〈右公文 淸道郡都田帳傳准.〉又開運三年丙辰, 雲門山禪院長生標塔公文一道. “長生十一, 阿尼岾·嘉西峴·畝峴, 西北買峴〈一作面知村.〉, 北猪足門等.” 又庚寅年 晉陽府貼. “五道按察使, 各道禪敎寺院始創年月形止. 審檢成籍時, 差使員東京掌書記李儼, 審檢記載. 正豐六年辛巳〈大金年號, 本朝 毅宗卽位十六年也.〉九月 郡中古籍裨補記准. 淸道郡前副戶長禦侮副尉李則禎戶在古人消息, 及諺傳記載. 致仕上戶長金亮辛·致仕戶長旻育·戶長同正尹應·前其人珍奇等, 與時上戶長用成等言語. 時太守李思老, 戶長亮辛年八十九, 餘輩皆七十已上, 用成年六十已上.”〈云云. 次不准〉

신라시대 이래로 청도군의 사원에 작갑사(鵲岬寺)⁸⁷⁾ 이하 중소사원들이 있었는데 후삼국의 난리통에 대작갑사·소작갑사·소보갑사(所寶岬寺)·천문갑사(天門岬寺)·가서갑사(嘉西岬寺) 등 다섯 개의 갑사가 모두 무너져 없어져서 다섯 갑사의 기둥만 대작갑사에 모아 두었다.

조사(祖師) 지식(知識)〈윗글에서는 보양(寶壤)이라 했다〉이 중국에서 법을 전해 받고 돌아오다가 서해 가운데 이르자, 용이 용궁으로 맞아들여 불경을 염송하게 하고, 금빛 비단 가사 한 벌을 보시하였으며 아울러 첫째 아들 이목(璃目)을 내주어 모시고 따라가게 하였다.

던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로서, 향리의 자제를 교대로 서울로 불러들여 입역(立役)하게 한 것을 말한다.(『고려사』 권75 選舉志 3 其人)

87) 작갑사(鵲岬寺): 5 작갑사에서는 대작갑사를 말한다. 경상북도 청도군 가서현 운문산에 있었던 절로 지금의 운문사이다.

부탁하여 말하기를, “지금 삼국이 어지러워 아직은 불법(佛法)에 귀의하는 임금이 없지만, 만약 내 아들과 함께 신라로 돌아가서 작갑(鵲岬)에 절을 짓고 지내면 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몇 년 안에 반드시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 나타나 삼국을 평정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 서로 작별하고 돌아왔다. 이 골짜기에 이르자, 갑자기 노승이 나타나 스스로 원광(圓光)⁸⁸⁾이라고 하면서 도장 상자를 안고 나와서 조사에게 주고는 사라졌다. <생각해보면 원광은 진(陳)⁸⁹⁾의 말기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개황(開皇)⁹⁰⁾ 연간에 돌아왔으며, 가서갑(嘉西岬)에서 살다가 황룡사(皇龍寺)⁹¹⁾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연수를 계산하면 청태(淸泰)⁹²⁾ 초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년이 된다. 지금 여러 갑사가 모두 없어졌음을 슬피 탄식하였는데, 보양이 와서 장차 일으킬 것을 보고 기

88) 원광(圓光) : 신라의 고승. 532~630년, 또는 554~637년. 589년에 중국에 가서 유학과 성실과 열반 반야 섭론 등의 불법을 수학하고 600년에 귀국하였다. 중국의 군대가 신라를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글과 같은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고, 청도의 가서사(嘉西寺)에서 지내다 귀산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자 세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오계를 알려주었고, 지방사회에 불교를 전파에도 큰 자취를 남겼다. 5-1 주1) 참조.

89) 진(陳) : 중국 남북조시대에 남조에 속했던 나라로 남조 최후의 왕조(557~589). 진패선(陳霸先,武帝 557~559)이 557년 양(梁)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하였다. 선제(宣帝, 568~582) 때에는 북제(北齊)를 공략하여 남쪽으로 진출했으나 다음 후주(後主, 582~589)는 측근을 중용하고 무장을 억압하여 전차 국력이 쇠퇴해지고 마침내 589년에 수(隋)나라에게 멸망하였다.

90) 개황(開皇) : 중국 수(隋) 문제(文帝)의 연호, 581~600년. 신라 진평왕3~22년에 해당한다.

91) 황룡사(皇龍寺) : 『속고승전』에 원광이 황룡사에서 입적하였다고 하였는데, 황룡사는 알려진 기록이 없다. 이는 황룡사의 잘못된 표기로 생각된다. 이 부분의 기록도 『속고승전』의 표기를 따른 데서 온 것이다. 일연이 지적하고 있듯이 황룡사(皇龍寺)의 다른 표기로 생각된다. 황룡사는 경주시에 있었던 절로 규모와 사격에서 신라 제일의 위상을 가졌던 신라불교의 중심 사찰이었다.

92) 청태(淸泰) : 중국 후당(後唐) 폐제(廢帝)의 연호, 934~935년. 신라 경순왕 8~9년.

빠하여 이를 알린 것이다.)

이때 보양 조사가 폐사를 일으키려고 북쪽 고개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뜰에 5층의 황색 탑이 있었다. 내려와서 찾아보니 자취가 없어, 다시 올라가서 바라보니 까치떼가 땅을 쪼고 있었다. 그제야 바다의 용이 까치 골짜기[鵲岬]를 말한 것이 생각나서 그곳을 찾아가서 파보니 과연 버려진 벽돌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 이것들을 모아 쌓아올리니 탑이 완성되었는데 남은 벽돌이 없었으므로 이곳이 예전의 절터임을 알았다. 절을 다 세우고(거기에) 살았고 그로 인해 작갑사(鵲岬寺)라고 하였다.

羅代已來，當郡寺院，鵲岬已下中小寺院，三韓亂亡間，大鵲岬・小鵲岬・所實岬・天門岬・嘉西岬等五岬 皆亡壤，五岬柱，合在大鵲岬。

祖師知識(上文云實壤) 大國傳法來還，次西海中，龍邀入宮中念經，施金羅袈裟一領，兼施一子璃目，爲侍奉而追之。囑曰，“于時三國擾動，未有歸依佛法之君主，若與吾子歸本國，鵲岬創寺而居，可以避賊。抑亦不數年內，必有護法賢君出，定三國矣。”言訖，相別而來還，及至茲洞，忽有老僧，自稱圓光，抱印櫃而出，授之而沒。(按圓光以陳末入中國，開皇間東還，住嘉西岬，而沒於皇隆，計至清泰之初，無慮三百年矣。今悲嘆諸岬皆廢，而喜見壤來而將興，故告之爾。) 於是壤師將興廢寺，而登北嶺望之，庭有五層黃塔。下來尋之則無跡，再陟望之，有群鵲啄地。乃思海龍鵲岬之言，尋掘之，果有遺磚無數。聚而蘊崇之，塔成而無遺磚，知是前代伽藍墟也。畢創寺而住焉，因名鵲岬寺。

얼마 후 태조(太祖)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스님이 이곳에 와서 절을 짓고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오갑사의 토지 500결을 합쳐 절에 바쳤다.⁹³⁾

청태 4년(937) 정유년에 사액(賜額)⁹⁴⁾하여 운문선사(雲門禪寺)라 하고 가사의 신비한 음덕(靈蔭)을 받들게 했다.⁹⁵⁾

이목은 항상 절 곁의 작은 못에 살면서 불법의 교화를 드러나지 않게 도왔다. 어느 해 가물어 밭의 채소가 타고 말라서, 보양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했더니 온 경내에 (비가) 넉넉했다. 천제(天帝)는 (이목이 자기 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죽이려 하였다. 이목이 급하게 되었음을 보양 스님에게 알리자 스님은 그를 마루 밑에 숨겼다. 조금 후 천제의 사신이 뜰에 와서 이목을 내놓기를 청했다. 스님이 뜰 앞에 있는 배나무를 가리키자 곧 그곳에 벼락이 쳤고 (사신은) 하늘로 올라갔다. 배나무가 시들어 꺾였는데 용[이목]이 어루만지니 곧 살아났다. <스님이 주문을 외워서 살아났다고도 한다> 그 나무가 근년에 땅에 넘어지니 어떤 사람이 빗장 못치로 만들어서 선법당(善法堂)과 식당에 두었는데, 못치의 손잡이에 명문이 있었다.

未幾太祖統一三國，聞師至此創院而居，乃合五岬田束五百結納寺。以清泰四年丁酉，賜額曰雲門禪寺，以奉袈裟之靈蔭。璃目常在寺側小潭，陰鸞法化。忽一年亢旱，田蔬焦槁。壤勅璃目行雨，一境告足。天帝將誅不識，璃目告急於師，師藏於床下。俄有天使到庭，請出璃目，師指庭前梨木，乃震之而上天。梨木萎摧，龍撫之即蘇。〈云師呪之而生〉其木近年倒地，有人作榱椎，安置善法堂及食堂，其椎柄有銘。

93) 폐허가 된 5개 작갑사의 땅을 모아서 대작갑사에 몰아 준 것이다.

94) 사액(賜額): 임금이 사당(祠堂), 사찰, 서원(書院), 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 서 새긴 편액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95) 가사(袈裟)는 스님들이 입는 법의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스님인 보양을 말한다. 따라서 가사의 신비한 음덕을 받들게 했다는 것은 보양의 훌륭한 행적을 받들게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스님이 당(唐)나라⁹⁶⁾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먼저 추화(推火)⁹⁷⁾의 봉성사(奉聖寺)⁹⁸⁾에 머물렀다. 때마침 태조가 동쪽으로 정벌하여 청도 경계에 이르렀는데, 산적이 견성(犬城)〈산봉우리가 물에 다다라서 가파르게 서 있는데, 요즘 민간에서 그 이름을 싫어하여 견성이라고 하였다.〉에 모여 교만을 부리며 항복하지 않았다. 태조가 산 아래에 이르러 스님에게 쉽게 제어할 방법을 물으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대개 개라는 짐승은 밤만 말고 낮은 말지 않으며, 앞만 지키고 뒤는 잊고 있으니, 마땅히 낮에 북쪽을 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그 말을 따랐더니 과연 (산적이) 패하여 항복하였다.⁹⁹⁾ 태조는 신통한 계책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가까운 고을의 세금 50 석을 주어 향화(香火)¹⁰⁰⁾를 받들게 하였다. 이로써 절에 두 성인¹⁰¹⁾의 진

96) 당(唐)나라: 618년 이연(李淵)이 건국하여 907년에 멸망한 중국의 왕조. 290년간 20대의 황제가 왕위를 이어 지속되었다. 남북조의 오랜 분열시대를 통일한 수나라가 39여 년만에 멸망하고 뒤이은 왕조로서 세계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중국의 성세를 이루었다. 당이 이룩한 문물과 제도는 동아시아 문화의 전형이 되어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97) 추화(推火): 경남 밀양군(密陽郡)의 옛 이름이다. 신라의 추화군(推火郡)을 경덕왕 때 밀성군(密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성종 때 밀주(密州)로 고쳤으며, 고려 말에 밀양부가 되었다.

98) 봉성사(奉聖寺): 밀양에 있던 절. 고려 태조와 보양스님의 진용을 봉안하여 봉성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봉성사는 신라 왕성인 경주에도 있었는데, 685년(신문왕 5년)에 창건된 경주 봉성사는 7개 성전사원 중에서도 사천왕사 다음으로 꼽히는 중요한 사원이었다. 『삼국사기』 권38 직관 상) 또 밀교고승 혜통(惠通)이 신문왕이 병이 난 것을 고쳐주었는데, 왕이 전생에 재상으로서 양민인 신충(信忠)을 잘못하여 노예가 되게 하였다. 신충이 원한을 품어 왕이 병이 생기자 신충을 위해 절을 지어 명복을 빌도록 하였다. 이절이 곧 봉성사라고 한다. 『삼국유사』 권5 惠通降龍)

99) 견성 싸움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후백제 견훤(甄萱) 사이에 전개된 것으로 견훤의 경주 침공(927년)과 왕건이 우세를 확보한 고창군 전투(930년) 사이에 전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眞容)¹⁰²⁾을 봉안하고 이 때문에 절 이름을 봉성사(奉聖寺)라고 하였다. (스님은) 후에 작갑사로 옮겨 가서 절을 크게 짓고 세상을 마쳤다.

스님의 행장은 옛 전기에는 실리지 않았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석굴사(石窟寺)의 비허(備虛)〈혹은 비허(毗虛)라고도 한다〉 스님과 형제로서, 봉성사·석굴사·운문사의 세 절이 봉우리가 연결되어 나란히 하고 있으므로 서로 왕래하였다.”고 한다.

뒷날 사람이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¹⁰³⁾을 고쳐 지으면서 작갑사의 탑과 이목의 일을 원광전에 잘못 기록하고,¹⁰⁴⁾ 견성의 일을 비허전에 넣었으니 이미 잘못된 것이다. 또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¹⁰⁵⁾을 지은 이도 이에

100) 향화(香火): 향을 피우고 등에 불을 켜는 것을 가리킨다.

101) 두 성인은 태조와 보양스님을 말한다.

102) 진용(眞容): 모습을 그린 초상화나 빗어 만든 상(像).

103) 원문의 신라이전(新羅異傳)은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전하지 않고, 수록되었던 설화 가운데 10편이 『삼국유사』를 비롯한 후대의 다른 여러 책들에 각각 실려 전해진다. 저자는 박인량(朴寅亮) 이라는 의견등이 있다.

104)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에 관련된 대목이 있다. “여러 전기에 작갑사와 이목과 운문사의 일이 없다. 지방 사람 김척명(金陟明)이 잘못 향간의 설을 운문하여 원광법사전을 지으면서 운문사 개산조인 보양선사의 사적을 함부로 기록하고 합쳐서 하나의 전기로 만들었다. 뒤에 해동고승전을 지은 이도 이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였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 가리고자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두 전기의 기록을 자세히 수록하였다”라고 하였다.

105)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고려 전기 1215년 경에 각훈(覺薰)이 편찬한 우리나라 고승들의 전기를 모은 책. 현재는 앞 부분인 유통(流通)편 2권만 남아 있는데, 불교의 전래와 수용, 구법고승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권에는 삼국과 외국의 불교를 전래한 승려의 행적이, 2권에는 중국과 인도로 구법의 길을 갔던 승려들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며 우리 나라 불교의 의의와 승려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따라 글을 윤색하여, 보양의 전기가 없게 하여 후대 사람들이 의심나고 잘못 알게 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初師入唐廻，先止于推火之奉聖寺。適太祖東征至清道境，山賊嘯聚于犬城（有山岑臨水峭立，今俗惡其名，改云犬城），驕傲不格。太祖至于山下，問師以易制之述，師答曰，“夫犬之爲物，司夜而不司晝，守前而忘其後，宜以晝擊其北。”太祖從之，果敗降。太祖嘉乃神謀，歲給近縣租五十碩，以供香火。是以寺安二聖眞容，因名奉聖寺。後遷至鵲岬，而大創終焉。

師之行狀，古傳不載。諺云，“與石崛備虛師（一作毗虛）爲昆弟，奉聖·石崛·雲門三寺，連峯櫛比，交相往還爾”。後人改作新羅異傳，濫記鵲塔瑠目之事于圓光傳中，系犬城事於毗虛傳，旣謬矣。又作海東僧傳者，從而潤文，使寶壤無傳，而疑誤後人，誣妄幾何。

5-3 양지가 석장을 부리다

[해제]

신라시대의 가장 이름난 예술가인 양지의 전기이다. 양지는 이 전기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영묘사(靈廟寺)의 장륙존상·천왕상·전탑의 기와, 사천왕사(四天王寺) 탑의 신장상, 법림사(法林寺)의 삼존불과 금강상 등을 제작하였다. 벽돌에 불상을 새겨 탑을 만들고, 영묘사와 법림사의 편액을 쓸 만큼 글씨를 잘 쓴 종합예술가였다. 통일기에 여러 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천왕사지 신장상(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이 확대되면서 불교 사상의 이해가 심화되고 대중들의 신앙이 진전되는 상황과 어울려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 전기에서는 양지의 예술가적 면모보다 기이한 능력의 소유자였음을 더 강조하여 제목으로 삼았다. 석장(錫杖)에 포대를 걸고 다니다가 석장이 저절로 날아가 신도의 집에 이르러 소리를 내면 그 집에서 재에 쓸 비용을 포대에 담아냈고 포대가 가득차면 날아서 절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찬자 일연은 양지가 재주가 많고 덕이 넉넉한 대가로서 예술 활동만 했던 사람이라고 평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예술가 양지의 특이한 능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영묘사를 만드는데 성 안의 사람들이 일을 도왔음을 서술하여 불사(佛事)가 이루어지던 정경을 알리고자 하였다.

양지에 관해서는 『삼국유사』 권3 탑상 영묘사장록(靈廟寺丈六)에도 간단한 기록이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상세하다.

[역주]

양지가 석장을 부리다

양지(良志)스님은 조상과 고향이 분명하지 않다. 오직 선덕왕(善德王)¹⁰⁶⁾ 때에만 자취를 나타냈다.¹⁰⁷⁾

106) 선덕왕(善德王) : 신라 제27대 왕. 재위 632~647. 성은 김(金)씨, 이름은 덕만(德曼). 진평왕(眞平王)의 맏딸로 어머니는 마야부인(摩耶夫人) 김씨이다. 진평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화백회의에서 추대되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634년(선덕여왕 3) 연호를 인평(仁平)이라 고치고 분황사(芬皇寺)를 창건하였으며, 635년에는 영묘사(靈廟寺)를 세웠다. 구휼사업에 힘쓰는 등 선정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는 등 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첨성대를 쌓고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였다. 김춘추와 김유신 등의 협력으로 통치를 수행

석장(錫杖)¹⁰⁸⁾ 끝에 포대 하나를 걸어 두면 석장이 저절로 날아가 단월(檀越)¹⁰⁹⁾의 집에 이르러 흔들면서 소리를 냈다. 그 집에서 알고서 재의 비용을 포대에 담았는데, 포대가 가득차면 날아 돌아왔다. 그러므로 그가 있는 곳을 석장사(錫杖寺)¹¹⁰⁾라 하였다. 그 신이함을 헤아릴 수 없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한편으로 여러 가지 기예에 통달하여 신묘함이 비할 데 없었다. 또 글씨도 잘 썼다. 영묘사(靈廟寺)¹¹¹⁾의 장륙삼존상·사천왕상¹¹²⁾·전각과 탑의

하였으나 비담과 염종 등 구귀족의 반란 와중에 죽었다.

107) 양지는 선덕여왕대(632~646)~문무왕대(661~680)의 인물로 추정된다. 그가 제작에 참여한 사천왕사가 679년에 창건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양지가 제작하였다고 추정되는 작품들을 비교 검토하여 그의 활동 연대를 문무왕대~신문왕대(681~691)로 보기도 한다. 이는 양지가 주석한 석장사에 대한 발굴 결과에서 삼국시대의 유구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양지의 사천왕상 조각을 분석하여 외래(外來) 계열로 보기도 한다.

108) 석장(錫杖): 승려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의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09) 단월(檀越): ㉠dānapati, 사찰이나 승려에게 재물을 베푸는 불교 신자를 말한다.

110) 석장사(錫杖寺): 경북 경주시 석장동에 있던 절. 지금은 폐사지로 남아 있다.

111) 영묘(靈廟)는 영묘사(靈廟寺), 영묘사(靈妙寺), 또는 영묘사(零妙寺)라고도 한다. 이른바 전불(前佛) 시대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로 꼽히는 절인데, 신라 선덕왕 때 창건되었다. 조선시대에 봉덕사가 폐사되자 봉덕사에 있던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을 1460년에 이 절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현재 정확한 절터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주시 성진리 서천가에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곳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근래에 현 홍륜사에서 ‘영묘(靈廟)’라고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면서 현지의 향토사가들은 이곳을 영묘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영묘사는 신라 때 왕실에 의해 건립된 사원에 설치된 일반 관부로 불교계에 대한 승정기구로서 의 통제적 기능과 왕실의 원당(願堂)으로서의 봉사(奉祀) 기능을 하던 성전사원(成典寺院)이 설치된 주요 사찰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8 잡지 직관(職官) 상에 성전사원 기사가 실려 있다.

112) 천왕상은 사천왕상을 말한다. 사천왕(四天王)은 ㉡Caturmahārājika-deva, 욕계(欲界)에 여섯 천(天)이 있는데 그중의 첫 번째 하늘로서 인간 세상 바로 위에

기와, 사천왕사(四天王寺)¹¹³⁾ 탑 하부의 팔부신장상(八部神將像)¹¹⁴⁾, 법림사(法林寺)의 주불 삼존상·좌우금강신상¹¹⁵⁾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영묘사와 법림사¹¹⁶⁾ 두 절의 편액¹¹⁷⁾도 썼다. 또 일찍이 벽돌을 다듬어서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삼천불을 만들어 탑에 안치하고 절에 모셔 공경을 다하였다.

영묘사의 장륙존상을 만들 때 선정에 들어 삼매(三昧)¹¹⁸⁾로써 대하는 것

있는 사천왕천(四天王天)의 사방 하나씩의 하늘을 맡아 주재하며 그 위에 있는 도리천의 제석천(帝釋天)을 도와 사천왕천 아래의 인간 세상을 지켜주는 역할을 동방은 지국천(持國天, ☉ Dhṛtarāṣṭra), 남방은 증장천(增長天, ☉ Virūdhaka), 서방은 광목천(廣目天, ☉ Virupakṣa), 북방은 다문천(多聞天, ☉ Vaiśravaṇa)이다.

- 113) 천왕사(天王寺)는 사천왕사(四天王寺)를 말한다. 경북 경주시 배반동 낭산(狼山) 기슭에 있던 절로 목탑과 금당터를 비롯한 절터 구조가 남아 있다. 신라 문무왕 19년(679)에 창건되었는데 명랑법사가 문두루(文豆婁)비밀법을 설하여 당의 군대를 막아내려는 의도로 창건된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사천왕사는 신라 때 왕실에 의해 건립된 사원에 설치된 일반 관부이며 불교계에 대한 승정기구로서의 통제적 기능과 왕실의 원당(願堂)으로서의 봉사(奉祀) 기능을 하던 성전사원(成典寺院)이 설치된 주요 사찰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8 직관(職官) 상에는 7개의 성전사원 중 사천왕사를 첫머리에 들고 있어, 이 기사가 정리되던 신라 중대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관직도 영(令)·경(卿)·감(監)·주부(主簿)·사(史)의 가장 잘 갖추어진 체제였다.
- 114) 팔부신장은 팔부중(八部衆)을 말한다. 부처와 불법을 수호하는 천룡팔부(天龍八部)는 천(天)·용(龍)·야차(夜叉)·건달바(乾闥婆)·아수라(阿修羅)·가루라(迦樓羅)·긴나라(緊那羅)·마후라가(摩睺羅伽)를 말한다. 또 사천왕의 권속 팔부중도 있는데 이들은 간달바(乾闥婆)·비사사(毘舍舍)·구반다(鳩槃荼)·벽려다(薛荔多)·용(龍)·부단나(富單那)·야차(夜叉)·나찰(羅刹)을 말한다.
- 115) 좌우금강신상은 금강역사(金剛力士) 또는 인왕(仁王)이라고 부른다. 좌우로 두 개의 상을 나란히 세워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 116) 법림사(法林寺): 위치와 창건 시기를 알 수 없다.
- 117) 편액(扁額): 나무나 종이 등에 쓴 글씨나 그림을 말하는데 흔히 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사이에 붙여서 이름을 쓴 것을 말한다.
- 118) 원문의 정수(正受)는 삼매(三昧)를 말한다. 삼매는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을 만드는 방법으로 삼았다. 그래서 온 성안의 남자와 여자들이 다투어서
진흙을 날랐다. 그때 읍은 풍요(風謠)¹¹⁹⁾는 이렇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서러운 이 많아라.

서러운 중생의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온다.”

지금도 그곳 사람들이 방아를 찧거나 함께 일할 때에 모두 이 노래를 부
르니 대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영묘사 장륙존상을 만들 때의 비용은 곡식 23,700석이다(혹은 금을 다시 칠
했을 때의 비용이라고도 한다).

논평하여 말한다. 스님은 재주가 많고 덕이 충만했으며 대가(大家)¹²⁰⁾로
서 하찮은 재주에 숨은 자라고 하겠다.

찬한다.

재가 끝난 불당 앞에 석장 한가롭고,

고요한 오리향로에 전단향 피어오르네.

남은 경전 읽고 나니 다른 일 없어,

불상 만들고 합장하며 우리러 보누나.

良志使錫

釋良志，未詳祖考鄉邑。唯現迹於善德王朝。錫杖頭掛一布袋，

움직이지 않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망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119) 풍요(風謠)는 민간에 유행하는 속요를 의미한다. 이 노래는 양지사석가(良志使錫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신라 향가(鄉歌) 25수 중의 하나이다. 사찰을 지을 때 불렀다는 데서 노동요로 보기도 하고, 불교적 주제의 향가로 보기도 한다.

120) 원문에서 대방(大方)이라고 한 것은 대가(大家)를 말한다.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錫自飛至檀越家，振拂而鳴。戶知之納齋費，帑滿則飛還。故名其所住，曰錫杖寺。其神異莫測，皆類此。旁通雜藝，神妙絕比。又善筆札。靈廟丈六三尊 天王像 并殿塔之瓦，天王寺塔下八部神將，法林寺主佛三尊 左右金剛神等，皆所塑也。書靈廟 法林二寺額。又嘗彫磚造一小塔，竝造三千佛。安其塔置於寺中，致敬焉。其塑靈廟之丈六也，自入定，以正受所對，爲揉式。故傾城士女爭運泥土。風謠云，“來如 來如 來如 來如哀反多羅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良來如”至今土人舂相役作，皆用之，蓋始于此。像成之費，入穀二萬三千七百碩。〈或云改金時租〉議曰，師可謂才全德充，而以大方隱於末技者也。讚曰 齋罷堂前錫杖閑，靜裝爐鴨自焚檀。殘經讀了無餘事，聊塑圓容合掌看。

5-4 인도에 간 여러 스님들

[해제]

신라의 승려로서 인도에 불교를 구하러 간 승려들에 관한 기록인데 모두 당나라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의 내용을 인용하여 엮은 것이다. 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모두 옮기지 않고 일연이 나름대로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정리한 것이어서 글자가 서로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로 행적을 기술한 이는 아리아발마(阿離耶跋摩)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승려들의 행적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삼국유사』 이전에 편찬된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은 『구법고승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오히려 없는 내용까지 추가하였다. 이점은 구체적 행적보다 전체적인 구법승들의 구법행의 어려움을 강조한 『삼국유사』의 편찬 태도와 크게 비교된다. 이는 인도 구법 승려들의 전기를 자세히 기록하려는 것보다는 삼국과 신라의 불교사를 각각의 특징을 간추려 간략하게 정리하려 한 일연의 편찬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

인도에 간 여러 스님들

광함(廣函)¹²¹⁾에 들어 있는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¹²²⁾에 다음과 같은

121) 광함(廣函):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의 함의 순서이다. 『고려대장경』을 천자

내용이 있다.

아리나<혹은 야(耶)>발마<혹은 마(磨)>(阿離那跋摩)¹²³⁾ 스님은 신라 사람이 다. 처음에 불교¹²⁴⁾를 구하려고 어려서 중국에 들어갔다. 성인의 자취를 참배하고자 용기를 더욱 내어, 정관(貞觀)연간¹²⁵⁾에 장안(長安)을 떠나 인도¹²⁶⁾에 이르렀다. 나란타사(那蘭陀寺)¹²⁷⁾에 머물며 율장과 논장을 많이

문의 글자 차례로 정리했는데, 여기에서의 함은 광(廣)자 차례에 해당되는 함으로 467번째이다.

- 122)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 당나라 승려 의정(義淨, 635~713)이 691년에 지은 인도에 구법한 승려들의 전기. 원래의 이름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이다. 상·하 2권이며 의정 자신이 보고 들은 중국과 동아시아 승려들의 인도구법 행적을 기록하였다. 원래는 56명을 기록하였는데 뒤에 의정을 도와 불경을 번역한 정고(貞固) 등 4사람의 승려 전기가 추가되었다. 의정은 671년에 광주(廣州)에서 바닷길로 불서국(佛逝國)을 경유하여 인도에 들어간 뒤 나란타사에서 10년간 공부한 후 범본(梵本) 삼장(三藏)을 구하여 687년부터 693년까지 불서국에 머물며 정고 등 4명의 중국승려와 함께 정리·번역하였다. 따라서 의정이 인도에 있었던 7세기 후반 당시 중국으로부터 인도에 들어가는 교통로와 인도에서의 불교학 연구, 신앙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123) 아리나발마(阿離那跋摩):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는 목차에서는 아리나발마(阿離那跋摩)라 하고 본문에서는 아리야발마(阿離耶跋摩)라 하였다. 이를 구분하여 일연은 주를 달았다. 그런데 ‘마(摩)’에도 ‘혹은(一作)’ 하고 주를 달았으나 정작 제시한 글자는 없다. 마(磨)자를 쓰려 한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 124) 원문의 정교(正敎)는 사교(邪教)가 아닌 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를 말한다.
- 125) 정관(貞觀): 당(唐) 태종(太宗)의 연호, 627년~649년.
- 126) 오천(五天)은 오천축(五天竺)과 같은 말로서 인도를 말한다. 인도를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동천축·서천축·남천축·북천축·중천축이라고 불렀다. 현장의 인도구법여행 기록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대표적으로 인도를 오천축으로 분류 소개하였다.
- 127) 나란타사(那蘭陀寺): ㉔ Nālandā 승원. 인도 비하르주 파르나 남서쪽의 옛 마가다왕국의 수도 왕사성(Rājagṛha)의 북방 7km 지점에 있다. 5세기경에 세워진 최초의 불교대학으로 아리야데바(㉔ Aryadeva 堤婆)·아상가(㉔ Asaṅga 無着)·비수

보고 패협(貝莢)¹²⁸⁾에 베껴 썼다. 몹시 고향에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그) 절에서 입적하니¹²⁹⁾ 나이 70여 세였다.

이를 이어 혜업(惠業)과 현태(玄泰)¹³⁰⁾ · 구본(求本)¹³¹⁾ · 현각(玄恪)¹³²⁾ ·

반두(㉔ Vasubandhu 世親) 등이 이곳에서 공부했으며, 신라의 여러 스님들도 이 절에 유학하였다. 현장(玄奘)이 인도를 여행하던 7세기에 인도의 가장 큰 사원으로서 1만명 이상의 승려가 생활하며 대승과 소승 외에 베다·인명·성명·의학·술수 등을 배우던 종합대학이었다. 유식학의 중심이었으며 후에 밀교의 중심이 되었다. 호법(護法)·덕혜(德慧)·견혜(堅慧)·계현(戒賢)·지광(智光) 등이 이름난 논사들이 이곳에서 수학하고 가르쳤으며 중국 등에서 인도에 유학한 승려들도 대개 이곳을 거쳤다. 현장·의정(義淨) 외에 신라의 혜업(惠業)·아리야발마(阿離耶跋摩) 등이 이곳을 찾아 수학했다. 8세기에 굽타왕조가 몰락한 이후 점차 쇠미해져 12세기에 이슬람이 침입하여 사원을 불태움으로써 크게 파괴되었으나 14세기까지 명맥은 이어 갔다.

128) 원문의 패협(貝莢)은 패엽(貝葉)을 말한다. 패엽은 패다라수(貝多羅樹, ㉔ patra)의 잎으로, 잎이 크고 두꺼워 옛날 인도에서 종이가 많이 쓰이기 이전에 불경을 새기는데 쓰였다. 또 서사(書寫)하기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다라수(多羅樹, ㉔ tala)라 한다. 다라수의 잎은 길고 재질이 조밀하여 사용에 적합하다. 잎을 잘 말려 적절한 크기로 잘라 침이나 칼, 철필 등 날카로운 것으로 잎의 면에 경전 글을 새기고 그을린 다음 그 위에 먹을 묻혀 닦아 내면 잎 면에 새겨낸 자국이 남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만든 경전을 패엽경(貝葉經)이라 한다.

129) 원문의 무상(無常)은 죽는다는 뜻이다.

130) 현태(玄泰) :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에는 현태(玄太)라고 표기되어 있다. 범명(梵名)은 살파신야제바(薩婆愼若提婆)로 한역하면 일체지천(一切智天)이다. 티벳을 거쳐 중인도에 들어가 불적을 순례하고 경론(經論)을 검토한 후 귀국하다 토곡혼(土谷渾)에서 도희(道希)를 만나 다시 대각사(大覺寺)에 갔다가 중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의 행적은 알 수 없다.

131) 구본(求本) :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의 목록에는 들어 있지만, 현존 본에는 그의 전기가 빠져 있다. 후대에 결락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법고승전』을 참조했다고 밝힌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의 제2권에도 그만이 빠진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결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32) 현각(玄恪) : 정관 중에 중국의 현조(玄照) 법사와 함께 인도에 들어가 대각사(大覺寺)를 참배하고 그곳에서 병이 들어 40세를 조금 넘은 나이에 입적하였다.

혜륜(惠輪)¹³³⁾·현유(玄遊)¹³⁴⁾ 스님이 있다. 또 2명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 스님들이 있었다. 모두 자신을 잊고 불법을 따라 석가의 교화를 보려고 인도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중도에서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그곳의 절에 머물렀지만, 끝내 신라¹³⁵⁾와 중국에 돌아온 자는 없었다. 오직 현대 법사만이 당(唐)에 돌아왔지만 또한 어디서 입적했는지 알지 못한다.

천축사람들이 해동(海東)을 ‘구구타예설라(矩矩吒唎說羅)’라고 부르는데, 구구타(矩矩吒)는 닭이라는 말이고, 예설라(唎說羅)는 귀하다는 말이다. 그곳에서 전하기를, “그 나라에서는 닭신을 공경하여 높이므로 깃을 꽂아 장식한다”고 하였다.¹³⁶⁾

찬한다.

천축 하늘 멀고 멀어 만겁 산 넘어인데

가련한 나그네 힘써 오르네.

몇 번이나 달은 외로운 배를 보냈건만,

구름 따라 돌아오는 이 아직 보지 못했네.

133) 혜륜(惠輪):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에는 혜륜(慧輪)으로 표기하였는데, 범명(梵名)이 반야발마(般若跋摩)로 한역하면 혜갑(慧甲)이다. 불적을 순례하고자 하여 신라에서 배로 민월(閩越)에 이르렀다가 다시 장안으로 들어가 현조(玄照) 법사가 인도에 들어갈 때 시자로서 함께 갔다. 암마라파국(菴摩羅跋國)의 신자사(信者寺)에 10년간 머물다 의정(義淨)이 귀국할 무렵에는 그 동북방의 도화라(覩貨羅) 사람들이 자기나라 승려들을 위하여 건립한 건타라산다사(健陀羅山茶寺)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40세가 채 안되었다.

134) 현유(玄遊):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에 의하면 고구려 사람으로 승철(僧哲) 선사의 제자이다. 스승과 함께 인도에 들어갔다가 사자국(師者國)에서 출가한 후 스승을 따라 불교가 융성한 삼마달타국(三摩呬吒國)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다.

135) 원문의 계귀(雞貴)는 닭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곧 신라를 말한다.

136) 이 구절을 통하여 신라의 닭 숭배가 인도에까지 알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계림(鷄林)이라는 이름도 이와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인들이 모자에 깃을 꽂는 모습은 신라 특유의 의복풍속이다.

歸竺諸師

廣函求法高僧傳云，釋阿離那（一作耶）跋摩（一作磨¹³⁷⁾新羅人也。初希正教，早入中華。思覲聖蹤，勇銳彌增，以貞觀年中，離長安，到五天。住那蘭陀寺，多閱律論，抄寫貝英。痛矣歸心，所期不遂，忽於寺中無常，齡七十餘。

繼此有惠業·玄泰·求本·玄恪·惠輪·玄遊，復有二亡名法師等。皆忘身順法，觀化中天，而或夭於中途，或生存住彼寺者，竟未有能復雞貴與唐室者。唯玄泰師，克返歸唐，亦莫知所終。天竺人呼海東云 矩矩吒毘說羅，矩矩吒 言雞也，毘說羅 言貴也。彼土相傳云，其國敬雞神而取尊，故戴翎羽而表飾也。讚曰 天竺天遙萬疊山，可憐遊士力登攀。幾回月送孤帆去，未見雲隨一杖還。

137) 磨자로 추정됨

5-5 혜숙과 혜공이 세상과 어울리다

[해제]

이 편은 혜숙과 혜공이 세속에서 어울린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교단의 상층부 승려들이 지배층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한 데 반해서, 이들은 일반민에 대한 종교적 관심을 표방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불교 대중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혜숙은 화랑(花郎)에서 활동하다 은거하였는데, 날카로운 안목으로 국선(國仙)과 같은 지도층 인사들의 방만한 행동을 비판하고, 다른 곳에 동시에 몸을 나타내거나 죽은 몸이 구름을 타고 사라지는 등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뛰어 넘는 이적(異蹟)을 보였다. 혜공은 귀족의 집에 고용살이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영험을 보이고, 출가하였으나 거리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이적을 보여 사람들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원효와 어울리기도 했던 혜공은 역시 국가적 활동을 하던 명랑이 주재하는 금강사 낙성회에서 유별난 행적을 보였고, 임종할 때도 허공에 떠서 죽음을 알리는 등 이적을 보였다.

혜숙과 혜공은 신라 불교 대중화의 토대를 다진 원효에 앞서 활동하며 선구를 이루었다. 이들이 사회 지도층과 가깝게 지내며 일반민들과의 연결을 꾀했던 행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편의 기록은 이 시기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화랑들이 자주 벌였던 사냥 활동의 실상, 하층민들이 귀족들의 생활을 돕는 모습, 사찰이 새로 만들어지면 치르던 행사 등이 그런 자료가 된다.

[역주]

혜숙과 혜공이 세상과 어울리다

혜숙(惠宿)스님은¹³⁸⁾ 호세랑(好世郎)¹³⁹⁾의 무리 속에서 조용히 지냈는데,¹⁴⁰⁾ 호세랑이 화랑 명부¹⁴¹⁾에서 이름을 물리게 되자, 스님도 적선촌(赤善村)¹⁴²⁾〈지금 안강현(安康縣)¹⁴³⁾에 적곡촌(赤谷村)이 있다.〉에 은거한 지가 20여년이 되었다.

당시의 국선(國仙)¹⁴⁴⁾인 구참공(瞿叅公)¹⁴⁵⁾이 일찍이 교외로 나가서 온

138) 혜숙(惠宿): 진평왕 때의 승려. 출신성분은 알 수 없다. 호세(好世)가 이끄는 화랑도에 승려나도로 참여한바 있으며 600년(진평왕 22)에 안함(安含 579~640)과 함께 중국유학을 시도하였으나 풍랑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안강현 적선촌에 은거하였는데, 국선(國仙)인 구참공(瞿叅公)을 감화시킨 인연으로 진평왕의 부름을 받지만 이를 거부하였다. 동시에 다른 두 장소에서 출몰한다든가, 입적 후에 이른바 ‘적리귀서(隻履歸西)’와 같은 여러 이적을 보여주었다. 신라 십성(十聖)의 한 사람으로 홍륜사 금당에 모셔져 추앙받았다. 고려의 일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승탑이 안강현 혜숙사에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알 수 없다.

139) 호세랑(好世郎): 진평왕대의 화랑. 울주 천전리서석(川前里書石)에 ‘수품(水晶)’과 함께 나오는 ‘호세(好世)’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譯註韓國古代金石文』 권2, 172쪽)

140) 침광(沈光)은 자취 또는 이름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141) 원문의 황권(黃卷)은 화랑도의 명부이다. 화랑도에 들어가는 것을 풍류황권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였다.

142) 적선촌(赤善村):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부근에 있던 지역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안강현에 적곡촌(赤谷村)이 있었다.

143) 안강현(安康縣):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본래 신라의 비화현(比火縣)인데, 경덕왕 때 안강현으로 이름을 고치고 의창군(義昌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경주에 예속되었다.

144) 국선(國仙): 화랑의 다른 이름. 또는 국선을 화랑의 상위조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145) 구참공(瞿叅公): 신라 진평왕대의 화랑.

종일 마음대로 사냥을 하였다. 혜숙이 길 가에 나와서 고삐를 잡고 부탁하기를, “소승도¹⁴⁶⁾ 따라가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하였다. 구참공이 허락하자 이리저리 치달리며 옷을 걷어 부치고 서로 앞을 다투니 구참공이 기뻐하였다. 힘든 일을 쉬고 앉게 되자 자주 고기를 굽고 삶아서 서로 먹는데, 혜숙도 같이 먹으며 조금도 꺼려하는 기색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이보다 더 맛있고 싱싱한 고기가 있는데 더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구참공이 “좋다”고 하니 혜숙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그릇에 담아 올렸다. 혜숙의 옷에 피가 뚝뚝 흘러 내리는 것을 보고 구참공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데?” 하였다. 혜숙이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공이 어진 사람이어서 자신을 헤아림이 사물에 미칠 수 있다고 여겼기에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 공이 좋아하는 것을 살펴보니, 오직 살육에만 폭 빠져 남을 해쳐서 자신을 기를 뿐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과 군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저의 무리가 아닙니다.” 하고는 마침내 옷을 털고 가버렸다. 구참공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혜숙이) 먹던 것을 보니 그릇 안에 살점이 그대로 있었다.¹⁴⁷⁾

구참공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서 돌아와 조정에 보고하였다. 진평왕(眞平王)¹⁴⁸⁾이 이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맞아 오게 하였다. 혜숙이 여자와 침

146) 원문의 용승(庸僧)은 소승(小僧)과 같은 뜻으로 스님이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147) 이 부분은 신체단련으로서 사냥을 즐기던 화랑에 대하여, 군자(君子)로서의 인(仁)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랑도 정신에 불교와 유교의 가치관이 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仁)과 상통하는 불교식 표현이 불살생(不殺生)인데,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서 살생을 일삼는 상대방을 감화시켰다는 이야기는 『사분율(四分律)』 권52에 보인다.

148) 진평왕(眞平王): 신라 제26대 왕. 재위 579~632년. 5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재위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원광(圓光)·담육(曇育) 등의 명승을 중국에 보내어 수학하게 하는 등 불교를 진흥시키고 문물을 수용하였다. 5-1 주

상에 누워 자는 척하였더니, 중사(中使)¹⁴⁹⁾는 천하다고 여겨 돌아가는데 7, 8리쯤 가다가 도중에서 혜숙을 만났다. (중사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성안 신도의 집에 칠일재(七日齋)¹⁵⁰⁾에 갔다가 법석이 끝나서 돌아오는 길입니다.”라고 하였다. 중사가 그 말을 왕에게 보고하여 다시 사람을 보내어 신도의 집을 조사하게 하였더니 이 일 또한 사실이었다.¹⁵¹⁾ 얼마 지나지 않아 혜숙이 갑자기 죽자, 마을 사람들이 이현(耳峴)¹⁵²⁾ 〈형현(硜峴)이라고도 한다.〉 동쪽에 장사를 지냈다. 그 마을 사람 중에 고개 너머 서쪽에서 오던 자가 있었는데, 도중에 혜숙을 만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 곳에 오래 살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져 반 리쯤 가더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그 사람이 고개 동쪽에 이르러 장례 치르던 사람들이 아직 흠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하여, 무덤을 열고 보니 췌신 한 짝만 있을 뿐이었다. 지금 안강현의 북쪽에 절이 있어 혜숙사라 하는데, 혜숙이 살던 곳이라고 하며 또한 승탑이 있다.¹⁵³⁾

13) 참조.

149) 중사(中使): 궁중에서 파견하거나 왕이 보내는 사자(使者).

150) 칠일재(七日齋): 사람이 죽은 지 7일이 되는 날에 부처 앞에 드리는 불공.

151) 이 부분은 불교도의 윤리의식이 남녀의 유별을 강조하는 『사분율(四分律)』에서 상(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려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152) 이현(耳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의하면, 안강현 서쪽에 마이현(馬耳峴)이 있다.

153) 이 대목은 남북조시기의 전설적 고승인 배도(杯度)나 달마(達磨)의 입적 후 이적(異蹟)들을 연상시킨다. 『양고승전(梁高僧傳)』 권10 배도전에 의하면 배도가 입적하자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며칠 후 북쪽에서 온 어떤 사람이 갈대 바구니를 지고 팽성(彭城)으로 가는 배도를 만났는데, 그의 관을 열어 보니 가죽신만 있었다고 한다. 선종 사서에서는 달마와 관련하여 ‘척리귀서(隻履歸西)’ 설화를 수록하였다. 달마가 입적하자 웅이산(熊耳山)에 안장하였는데 서역에서

二惠同塵

釋惠宿 沉光於好世郎徒. 郎旣讓名黃卷, 師亦隱居赤善村(今安康縣有赤谷村)二十餘年. 時國仙瞿昂公, 嘗往其郊, 縱獵一日. 宿出於道左, 攬轡而請, 曰“庸僧亦願隨從, 可乎?”公許之. 於是縱橫馳突, 裸袒相先, 公旣悅. 及休勞坐, 數炮烹相餉, 宿亦與啖嚙, 略無忤色. 旣而進於前曰, “今有美鮮於此, 益薦之何?”公曰, “善.”宿屏人割其股, 寘盤以薦. 衣血淋漓, 公愕然曰, “何至此耶?”宿曰, “始吾謂公仁人也, 能恕己通物也, 故從之爾. 今察公所好, 唯殺戮之耽篤? 害彼自養而已. 豈仁人君子之所爲. 非吾徒也.”遂拂衣而行. 公大慚, 視其所食, 盤中鮮馘不減. 公甚異之, 歸奏於朝. 眞平王聞之, 遣使徵迎. 宿示臥婦床而寢, 中使陋焉, 返行七八里, 逢師於途. 問其所從來, 曰“城中檀越家, 赴七日齋, 席罷而來矣.”中使以其語, 達於上. 又遣人, 檢檀越家, 其事亦實. 未幾宿忽死, 村人舉葬於耳峴(一作礪峴)東. 其村人有自峴西來者, 逢宿於途中, 問其何往. 曰“久居此地, 欲遊他方爾.”相揖而別, 行半許里, 躡雲而逝. 其人至峴東, 見葬者未散, 具說其由, 開塚視之, 唯芒鞋一隻而已. 今安康縣之北, 有寺名惠宿, 乃其所居云, 亦有浮圖焉.

혜공스님은 천진공(天真公)¹⁵⁴⁾의 집에서 고용살이 하는 여자의 아들로, 어릴 때 이름은 우조(憂助)〈방언이다〉였다. 천진공이 일찍이 중기를 앓아

돌아오던 북위의 사신 송운(宋雲)이 총령(葱嶺, 파미르고원)에서 손에 짚신 한 짚만을 들고 서쪽으로 가는 달마를 만났다. 그런데 돌아와 무덤을 열어보니 관 속에는 짚신 한 짚만 있었다는 것이다.

154) 천진공(天真公): 당시 신라의 귀족.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서 거의 죽게 되자 문병하는 사람들이 길을 메웠다. 우조가 나이 일곱살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묻기를, “집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손님이 많습니까?” 하였다. 어머니가 “나리께서 나쁜 병으로 돌아가시려 하는데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느냐?” 하였다. 우조가 말하기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였다. 어머니가 그 말을 이상히 여겨 천진공에게 알리자 천진공은 (그를) 불러 오게 하였다. 침상 아래 앉아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 안있어 종기가 터졌다. 천진공은 우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윽고 장성해서는 천진공을 위해 매를 길렀는데, 공이 매우 마음에 들어하였다. 전에 공의 아우로서 벼슬을 얻어 지방으로 부임하는 자가 있었는데, 천진공이 골라준 매를 얻어 임지로 갔다. 하루는 천진공이 갑자기 그 매가 생각나서 이튿날 새벽에 우조를 보내어 매를 가져오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우조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잠깐 사이에 매를 가져와서 새벽녘에 바쳤다. 천진공은 크게 놀라고 깨달아 비로소 예전에 종기를 치료해준 일들이 모두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었음을 알았다. 말하기를, “제가 훌륭한 성인이 저의 집에 오신 것도 모르고 막말과 무례함으로 욕을 보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스승이 되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마침내 자리에서 내려가 절하였다.

영험과 기이함이 드러난 뒤 마침내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이름을 혜공(惠空)이라고 바꾸었다. 항상 조그만 절에 살며 매년 미친 듯이 크게 취해서 삼태기를 지고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어서 부궐(負簣)화상이라고 불렸으며, 머무르는 절은 이로 인해 부개사(夫蓋寺)¹⁵⁵⁾라고 하였다. 부개는 삼태기의 사투리이다. 매년 절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 여러 달이 되도록 나

155) 부개사(夫蓋寺): 삼태기를 진다는 부궐(負簣)과 부개(夫蓋)의 발음이 비슷하여 생긴 이름인데, 일연은 부개가 삼태기의 사투리라고 풀이하였다.

오지 않아서 스님 이름으로 우물 이름을 삼았다. 나올 때마다 푸른 옷을 입은 신동(神童)이 먼저 솟아 나와서 절의 스님들은 이것으로 (혜공이 나오는데) 조짐으로 삼았으며, 막상 나왔는데도 옷이 젖지 않았다.

만년에 향사사(恒沙寺)¹⁵⁶⁾〈지금 영일현¹⁵⁷⁾의 오어사(吾魚寺)¹⁵⁸⁾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래알처럼 많은¹⁵⁹⁾ 사람들이 출세하였기 때문에 향사동(恒沙洞)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로 옮겨 살았다. 그때 원효(元曉)¹⁶⁰⁾가 여러 경전의 주해를 찬술하면서 매번 스님에게 가서 의심나는 것을 물었는데, 혹 서로 농담도 하였다.¹⁶¹⁾ 하루는 두 사람이 냇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 먹고는 바위 위에 대변을 보았다. 혜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놀리기를, “그대의 똥이 내 물고기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오어사라고 이름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원효스님의 말이라고도 하는데, 잘못이다.¹⁶²⁾ 그 지방에서는 그 개울을

156) 향사사(恒沙寺): 오어사(吾魚寺)가 있는 마을이 향사리이다.

157) 영일현(迎日縣): 지금의 경상북도 영일군. 본래는 신라의 근오지현(斤烏支縣 또는 오랑우현(烏良友縣))으로 경덕왕 때 임정현(臨汀縣)이라 개칭하여 의창군(義昌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으며, 고려 때 영일현으로 고쳤고, 현종 때 경주에 속하게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영일현(迎日縣) 건치연혁(建置沿革)).

158) 오어사(吾魚寺):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면 향사리 운제산 동쪽 향사동에 위치한 신라 이래의 고찰. 절에는 원효성사의 것이라고 전하는 풀뿌리로 섬세하게 짠 삿갓(높이 1자, 폭 1.2자 가량)이 보존되고 있다. 부근에 자장암과 원효암이 있다.

159) 향사(恒沙): 향하사(恒河沙)의 준말. 인도 향하(갠지스강)의 모래알을 말한다. 즉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비유한다.

160) 원효(元曉, 617~686): 중국에 가지 않고 신라에 소개된 대부분의 경론을 탐구하여 하나하나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를 평가한 중요(宗要)류의 저술을 펴내고, 더욱 관심이 가는 경론에 대해서는 상세한 주석서를 썼다. 『십문화쟁론』으로 새로운 화합의 불교관을 펼쳤고,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의 일심(一心)사상을 체계화하여 신라불교의 가장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후에는 대중 교화에 매진하였다. 5-7 주273) 참조.

161) 조희(調戲): 언어로 서로 희롱함을 뜻한다.

잘못 불러 모의천(茅矣川)¹⁶³⁾이라고 한다.

구참공이 일찍이 산에 놀러갔다가 산길 가운데서 혜공이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시신이 부어터지고 문드러져서 구더기가 생겨 있었다. 한 참을 슬퍼하다가 말고땀을 돌려 성으로 들어갔는데, 혜공이 크게 취해서 시장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또 하루는 풀로 새끼줄을 꼬아서 영묘사(靈廟寺)¹⁶⁴⁾에 들어가 금당과 좌우의 경루(經樓)¹⁶⁵⁾와 남문과 회랑을 둘러싸고는 강사(剛司)¹⁶⁶⁾에 알리기를, “이 새끼줄은 3일 후에 풀어야 됩니다.”라고 하였다. 강사가 이상히 여겼으나 그 말을 따랐다. 과연 3일 후에 선덕왕(善德王)이 행차하여 절에 들어오자 지귀(志鬼)¹⁶⁷⁾의 심중(心中)에서

16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영일현(迎日縣) 불우조(佛宇條)에 서는 원효의 말이라고 하였다.

163) 모의천(茅矣川) : 기계현(杞溪縣)을 본래 모혜현(茅兮縣)이라 하였으므로(『삼국사기』 권34 지리지 艮州 義昌郡 杞溪縣) 경주시 안강읍 북쪽에 있던 모혜현을 흐르는 시내로 생각된다.

164) 영묘사(靈廟寺) : 영묘사(靈妙寺), 영묘사(零妙寺)라고도 한다. 신라에 있었다는 과거불 시대의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로, 신라 선덕왕 4년(635)에 창건되었다. 문무왕 2년(662)과 6년(666), 8년(668), 성덕왕 2년(703) 등 여러 차례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 중대 왕실에 의해 건립된 사원에 설치되어, 불교를 통제하고 왕실의 원당(願堂)으로서의 봉사(奉祀) 기능을 하던 승정기구인 성전사원(成典寺院)이었다. 상당(上堂) 1인과 청위(靑位) 1인, 사(史) 2인을 두어 성전사원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기구였다.(『三國史記』 권38 職官 上) 봉덕사가 폐사되자 1460년에 성덕대왕신종을 이 절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현재 정확한 절터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주시 성진리 서천가의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곳을 영묘사 터로 비정하고 있는데, 근래에 현재 흥륜사라고 알려진 터에서 ‘영묘(靈廟)’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어 이곳을 영묘사지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165) 경루(經樓) : 불경과 서적을 넣어둔 누각.

166) 강사(剛司) : 사찰의 운영을 담당하던 기구인 삼강전(三剛典)과 관련된 이름으로 생각되어, 삼강전을 맡은 운영 담당 승려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67) 지귀(志鬼) : 신라 선덕 여왕 때 활리(活里)에 살았던 역인(驛人)이 선덕왕을 사

불이 나와 그 탑을 태웠는데 오직 새끼줄로 묶었던 곳만 모면하였다.¹⁶⁸⁾

또 신인종(神印宗)¹⁶⁹⁾의 조사인 명랑(明朗)¹⁷⁰⁾이 새로 금강사(金剛寺)¹⁷¹⁾를 창건하여 낙성회¹⁷²⁾를 베풀었을 때 훌륭한 스님들이 다 모였으나 오직

모하다 죽어서 지귀가 되었다고 한다. 선덕왕이 불공을 드리는 절에 따라오게 하였는데, 불공을 드리는 동안 잠들어 버린 지귀에게 선덕왕이 금팔찌를 가슴에 놓고 갔다. 그런데 잠에서 깬 지귀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기쁨이 불씨가 되어 가슴 속에서 활활 불타올라 거리에까지 그 기운이 미쳤다. 그러자 선덕왕은 불귀신을 쫓는 주문을 내놓았고, 백성들이 이것을 대문에 붙이면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168) 지귀심화(志鬼心火)의 설화는 용수(龍樹)가 찬술한 『대지도론(大智度論)』 권14 석초품중찬제바라밀의(釋初品中屢提波羅蜜義)에 나오는 술파가설화(術波伽說話)에서 유래하는데, 술파가설화의 주제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즉 술파가설화가 여자의 음욕(淫欲)을 경계하는 데 비해서, 『삼국유사』의 지귀심화는 해공의 신통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권문해(權文海)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권20 심화소탑조(心火燒塔條)에서는 최치원의 「수이전(殊異傳)」을 인용하여 더 자세한 설화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해공이 빠진 채 화재를 예방하는 주문의 성립연기설화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169) 신인(神印)은 신인종(神印宗)으로 신라 중대에 크게 활동했던 밀교 종파이다. 신인은 범어 문두루(文豆婁 ᄃᆞᆫ müdra)의 의역이다. 개창조는 선덕왕대에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명랑(明朗) 스님이다.

170) 명랑(明朗) : 생몰년 미상. 7세기 신라의 신인종 승려. 자(字)는 국육(國育)이며, 사찬 재량(才良)의 아들이고 자장 스님의 외조카이다. 선덕왕 원년(632)에 당나라에 유학했다가 3년 만에 귀국하였는데, 귀국하는 길에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용왕으로부터 황금 1천냥을 시주받았다고 한다. 귀국 후 시주 받은 황금으로 절을 창건하여 금광사(金光寺)라고 하였다. 문무왕 때인 670년과 671년에 『관정경』과 『금광명경』을 근거로 유가명승 12명과 함께 문두루비밀법을 설행하여 신라를 공격해 오는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데 공헌하였다는 설화를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창건된 절이 사천왕사이다.

171) 금강사(金剛寺) : 금강사(金崗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었다.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조에 나오는 금광사(金光寺) 또는 금우사(金羽寺)와 같은 사찰로 추정된다.

172) 낙성회 : 절을 새로 만들고 이를 기념하여 베푸는 잔치.

혜공 스님만이 가지 않았다. 명랑이 향을 사르고 경건히 기도하고 조금 지나서 스님이 도착하였다. 그 때 막 큰 비가 내렸는데 옷이 젖지 않고 발에 진흙도 묻지 않았다. 명랑에게 말하기를, “외람되게도 은근히 부르시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였다. 영험스런 자취가 자못 많다. 죽을 때는 허공에 떠서 입적을 알렸으며, 사리는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일찍이 『조론(肇論)』¹⁷³⁾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예전에 지은 것이다.”고 하였다. 그가 승조(僧肇)의 후신임을 알겠다.

찬한다.

초원에서 멋대로 사냥하고 침상머리에 놓고,

술집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우물 속에서 자네.

신 한 짝으로 허공에 떠서 어디로 가는가,

한 쌍의 진중한 불 속의 연꽃¹⁷⁴⁾이로다.

釋惠空 天真公之家傭姬之子，小名憂助。〈蓋方言也〉公嘗患瘡，濱於死而候慰墳街。憂助年七歲，謂其母曰，“家有何事，賓客之多也？”母曰，“家公發惡疾，將死矣。爾何不知？”助曰，“吾能右之。”母異其言，告於公，公使喚來。至坐床下，無一語，須臾瘡潰。公謂偶爾，不甚異之。旣壯，爲公養鷹，甚愜公意。初

173) 『조론(肇論)』: 승조(僧肇 374~414)의 저술. 인식 대상의 현상과 본질을 각각 다룬 「물불천론(物不遷論)」·「불진공론(不眞空論)」, 인식 주체를 다룬 「반야무지론(般若無知論)」, 수행의 결과 도달하게 되는 열반을 다룬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열반무명론」은 후대에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조론』은 격의불교(格義佛教)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찬술되었다. 그 기본 입장은 공(空)과 가(假)의 두 극단을 중도(中道)로 지양하려는 데 있다. 승조는 반야공관사상(般若空觀思想)을 내세워 이를 불교의 바른 이치로 선양하려고 하였다.

174) 화중련(火中蓮): 불속에 연꽃이 피었다는 말로서 아주 드문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중생제도를 찬양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유마경』 권중 불도품(佛道品) 8(大14 p.550b4~5. 火中生蓮華, 是可謂希有. 在欲而行禪, 希有亦如是.)

公之弟，有得官赴外者，請公之選鷹，歸治所。一夕公忽憶其鷹，明晨擬遣助取之。助已先知之，俄頃取鷹，昧爽獻之。公大驚悟，方知昔日救瘡之事，皆叵測也。謂曰，“僕不知至聖之托吾家，狂言非禮污辱之，厥罪何雪？而後乃今願爲導師，導我也。”遂下拜。

靈異旣著，遂出家爲僧，易名惠空。常住一小寺，每猖狂大醉，負簣歌舞於街巷，號負簣和尚，所居寺因名夫蓋寺。乃簣之鄉言也。每入寺之井中，數月不出，因以師名名其井。每出有碧衣神童先湧，故寺僧以此爲候。旣出衣裳不濕。晚年移止恒沙寺。〈今迎日縣吾魚寺。諺云，“恒沙人出世 故名恒沙洞。”〉時元曉撰諸經疏，每就師質疑，或相調戲。一日二公沿溪，掇魚蝦而啖之，放便於石上。公指之戲曰，“汝屎吾魚。”故因名吾魚寺。或人以此爲曉師之語，濫也。鄉俗訛呼其溪曰 芑矣川。瞿叟公嘗遊山，見公死僵於山路中，其屍臃脹，爛生虫蛆。悲嘆久之，及廻轡入城，見公大醉歌舞於市中。又一日將草索絢，入靈廟寺，圍結於金堂與左右經樓及南門廊廡，告剛司，“此索須三日後取之”。剛司異焉而從之。果三日，善德王駕幸入寺，志鬼心火，出燒其塔，唯結索處獲免。

又神印祖師明朗，新創金剛寺，設落成會，龍象畢集，唯師不赴。朗卽焚香虔禱，小選公至。時方大雨，衣袴不濕，足不沾泥。謂明朗曰，“辱召勤懃 故茲來矣。”靈迹頗多。及終，浮空告寂，舍利莫知其數。嘗見肇論曰，“是吾昔所撰也。”乃知僧肇之後有也。讚曰，草原縱獵床頭臥，酒肆狂歌井底眠。隻履浮空何處去，一雙珍重火中蓮。

5-6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

[해제]

삼국시대 후반 신라불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계율과 여러 교학을 널리 펴던 자장의 생애를 엮은 편이다. 진골 출신의 가문 좋은 자장은 재상과 같은 관직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수행에 전념하다가 왕의 허락을 얻어 출가하였다. 문인들과 함께 당에 가서 불교를 익히고, 특히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기별을 받았으며 종남산 계곡에서도 수행하였다. 신라에 돌아올 때 경전과 번당 등 장엄물을 가지고 왔으며 분황사와 황룡사에서 지내면서 경론과 보살계본을 강의하였다. 교단이 비대해지자 조정에서는 대국통(大國統)의 직책을 맡겨 승려들의 규범을 주관하도록 하였고, 자장은 이에 계율의 엄정한 준수와 실천 그리고 지방 사찰의 검열과 장엄 법식의 제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승관직 설명에 붙인 각주에서 부수적으로 신라시대 승관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많은 일반 사람들이 계를 받고 출가자가 늘어



태백산 정암사 수마노탑

났다고 한다. 특히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하고 계단을 쌓아 계율의 중심도량으로 만들고, 만년에는 강릉의 수다사와 태백산의 석남원을 창건하는 등 10여 곳에 절과 탑을 세웠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문수보살의 현신을 알아보지 못하여 죽었다는 기록은 당시 불교계를 이끌던 최상위 승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장의 전기는 같은 시대를 살던 도선이 편찬한 『속고승전(續高僧傳)』(645년)에도 실려 있다. 『속고승전』에는 귀국후 만년의 일인 수다사 창건 이후의 기록이 없는 대신 그 이전의 기록은 더 상세하다. 같은 내용을 기술한 부분은 『삼국유사』와 『속고승전』의 두 기록에 큰 차이가 없다. 도세(道世)가 편찬한 『법원주림(法苑珠林)』(660년)에도 실려 있다. 신라 말기에 황룡사탑을 수리하고 넣은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에는 황룡사탑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했던 자장의 간단한 기록이 있으며, 『삼국유사』보다 조금 늦게 편찬된 민지(閔漬)의 『오대산월정사사적(五臺山月精寺事蹟)』(1307년)에도 자장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어 비교된다.

[역주]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

대덕¹⁷⁵⁾ 자장(慈藏)¹⁷⁶⁾은 김씨이니, 본래 진한(辰韓)¹⁷⁷⁾의 진골(眞骨)¹⁷⁸⁾

175) 대덕(大德): 중국 오나라의 손권(孫權) 때 처음 등장하였으며, 수·당 때에는 변역 승려에게 붙여졌다. (최치원,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東文選』 권64) 신라에서 대덕에 관한 최초의 임명기사는 『삼국사기』 진평왕 24년에 지명(智明)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에서는 선덕왕 때 지영(智穎)·승고(乘固)의 두 비구를 최초의 대덕으로 선발했다고 한다. 신라에서는 승직(僧職)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소판(蘇判)¹⁷⁹⁾〈3등급의 관등 이름〉 무림(茂林)¹⁸⁰⁾의 아들이다.¹⁸¹⁾ 그 아버지

수 있으며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에 의하면, 50세가 되어야 대덕의 임명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임기는 7년이라고 하였다.

- 176) 자장(慈藏): 신라시대의 승려. 성은 김씨. 속명은 선종랑(善宗郎). 진골 무림(茂林)의 아들이다. 638년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五臺山)을 순례하고 문수보살의 진신을 감응하여 가사와 사리를 받았다. 이어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에서 수행하고 도선(道宣)과 교유하였으며 643년 대장경과 여러 불구(佛具)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분황사 주지로 있으면서 궁중과 황룡사에서 『법대승론』 『보살계본』 등을 강론하고 대국통(大國統)의 직책을 맡아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하여 계율의 엄정한 준수와 실천 그리고 지방 사찰의 검열과 장엄 법식의 제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황룡사 구층탑의 창건을 건의하여 645년에 완성하였다. 또한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하고 진신사리를 봉안하며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세웠다. 649년에는 왕에게 상주하여 중국의 제도를 따라 신라에서 처음으로 관복을 입게 했으며,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만년에는 서울을 떠나 강릉(江陵)에 수다사(水多寺)를 짓고, 뒤에 태백산에 석남원(石南院, 지금의 淨岩寺)을 세웠다. 후에 계율종의 종조로 추앙되었다.
- 177) 진한(辰韓): 백제로 발전한 마한, 가야로 발전한 변한과 함께 삼한(三韓) 중의 하나. 낙동강 동쪽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여러 나라 중의 하나인 경주지역의 사로국(斯盧國)이 점차 다른 나라를 통합하여 신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라를 말한다.
- 178) 진골(眞骨): 골품제도의 한 등급으로 성골 다음의 계급이다. 골품제도는 혈통에 따라 정치활동에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성골(聖骨)·진골 및 6~1두품까지 모두 8개의 신분층으로 구성되었다. 진골은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의 최고 관등에 오를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관직을 독점한 계층으로 신라 귀족의 중심을 이루었다.
- 179) 소판(蘇判): 신라 17관등 가운데 제3위. 잡찬(逆瀋)이라고도 한다.
- 180) 무림(茂林): 자장의 부친 이름을 『속고승전(續高僧傳)』 권24 자장전(慈藏傳)에 서는 ‘무림(武林)’이라 한데 비하여, 『삼국유사』 권1 기이2 진덕왕(眞德王)조에 서는 ‘호림(虎林)’이라 하였으며, 『삼국유사』 권4 이곳과 권5 명랑신인(明朗神印)조에서는 ‘무림(茂林)’이라 하였다. 이는 원래 이름이 무림(武林)이었는데, 고려 혜종의 휘가 ‘무(武)’였기 때문에 일연이 이를 피휘하고자 ‘호(虎)’ 또는 ‘무(茂)’로 바꾸어 쓴 것이다. 김무림은 진덕왕 때 알천, 유신 등 5인과 함께 남산 우지암 회의를 참석한 당시 최고 귀족이었다.

는 높은 관직을 지냈는데 늙도록 후손이 없었으므로,¹⁸²⁾ 불교에 귀의하여 천부관음(千部觀音)¹⁸³⁾을 만들어 자식 하나 낳기를 희망하며 축원하기를, “만일 아들을 낳으면 출가시켜 불가의 동량을 삼겠습니다.” 하였다. 어머니가 문득 별이 떨어져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그로 인하여 임신하였다. 태어나니 석존(釋尊)과 같은 날이었으며,¹⁸⁴⁾ 선종랑(善宗郎)¹⁸⁵⁾이라고 이름 하였다. 정신과 뜻이 맑고 슬기로웠으며 문장과 생각이 날로 풍부해졌으나, 세상의 취미에 몰들지 않았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자 더욱 세상의 시끄러움이 싫어져서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전원(田園)을 회사하여¹⁸⁶⁾ 원녕사(元寧寺)로 만들었다. 그윽하고 험한 곳에 홀로 자리를 잡고, 이리와 호랑이를 피하지 않았으며, 고골관(枯骨觀)¹⁸⁷⁾을 닦는 데 조금도 게을리 하

181) 민지(閔漬)의 기록에는 자장이 무림의 둘째 아들이며 선덕왕의 친족으로, 『두타산삼화사사적(頭陀山三和寺事蹟)』에는 신라 왕손으로 각각 나온다.

182) 원문의 무윤(無胤)은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뜻이다.

183) 천부관음(千部觀音): ‘1천 개의 관음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천수천안 관음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시기는 아직 변화관음 신앙이 활발해진 때가 아니므로 천수관음으로 볼 이유가 없다.

184) 불탄일은 4월 8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북주 송림(宋懷)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화북에서는 2월 8일을 불하생(佛下生)의 날, 성도일(成道日)이라 해서 4월 8일과 함께 채식(齋食)을 베푸는 지방도 있었다고 한다. 또 수 두태경(杜台卿)의 『옥촉보전(玉燭寶典)』에는 수나라에서 2월 8일과 4월 8일에 모두 행상(行像)을 행하였다고 한다. 당나라 때에는 4월 8일을 주류로 하는 것이 주류가 되었다. 『당고승전』자장전에는 4월 8일이라 하였다.

185) 선종랑(善宗郎):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에는 ‘선종(善宗)’이라 하였다. ‘랑(郎)’은 신라시대 귀족 자제의 이름 뒤에 붙는 접미사이다.

186) 여기서는 전원(田園)을 회사하였다고 하였고, 뒤에서는 태어난 집(生緣里第)를 절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187) 고골관(枯骨觀): 백골관(白骨觀)이라고도 한다. 『열반경(涅槃經)』에 의하면, 석가모니가 가섭보살에게 가르친 사념처(四念處)의 일종이다. 사념처란 우리의 심신을 구성하는 네 가지 기능, 즉 육체[身]·감각작용[受]·마음[心]·대상[法]

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작은 방을 짓고 주위를 가시나무로 둘러막고 그 속에 맨몸으로 앉아, 움직일 때마다 경계하여 찢리게 하고, 머리는 들보에 매달아 정신이 혼미함을 쫓았다.¹⁸⁸⁾

마침 재상¹⁸⁹⁾ 자리가 비어 문벌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여러 번 부름을 받고서도 나아가지 않았다. 왕¹⁹⁰⁾이 이에 명하기를, “(관직에)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리라”고 하였다. 자장이 이를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하루라도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백년토록 계를 어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이 일을 듣고 왕이 출가를 허락하였다.¹⁹¹⁾ 이에 바위 사이에 깊이 숨어 사니, 양식 한 톨도 얻지 못했다. 그 때 이상한 새가 과일 을 물어 바치니 손으로 받아 먹었다. 얼마 후 꿈에 천인(天人)이 와서 오계(五戒)¹⁹²⁾를 주자 비로소 골짜기에서 나왔고,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이 부정(不淨)하고, 괴롭고[苦], 무상(無常)하고, 무아(無我)임을 관찰하여 높은 단계의 공관(空觀)으로 들어가는 수행법이다. 특히 백골관은 다분히 엄격적이며 부정적인 수행법으로서 소승 계통의 선 수행인데, 『열반경』에서는 사성제(四聖諦)와 십이연기(十二緣起)를 관찰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남북조 말기의 승조(僧稠 480~560)를 비롯한 상당수의 승려들이 화북지방에서 이러한 사념처관을 수행하였다.

188) 이때 자장의 수행은 초기불교에서 강조하던 것과 같은 엄격한 수행이었음을 말해 준다.

189) 태보(台輔)는 재상을 말한다.

190) 이때의 왕은 선덕왕(善德王, 재위 632~647년)을 말한다.

191) 민지(閔漬)가 1307년에 찬술한 『오대산월정사사적(五臺山月精寺事蹟)』 가운데 있는 「봉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에 따르면 자장이 선덕왕의 출사령을 거부한 때의 나이가 25세라고 한다.

192) 오계(五戒): 재가불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①생명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②남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不偷盜), ③음행하지 말라(不邪淫), ④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⑤술을 마시지 말라(不飲酒) 이다. 여기서는 자장이 출가하였는데도 오계를 받았다고 하였다.

계를 받았다.

慈藏定律

大德慈藏金氏, 本辰韓眞骨蘇判〈三級爵名〉茂林之子. 其父歷官清要, 絕無後胤, 乃歸心三寶, 造于千部觀音, 希生一息. 祝曰, “若生男子, 捨作法海津梁.” 母忽夢星墜入懷, 因有娠. 及誕, 與釋尊同日, 名善宗郎. 神志澄睿, 文思日瞻, 而無染世趣. 早喪二親, 轉厭塵譁, 捐妻息, 捨田園爲元寧寺. 獨處幽險, 不避狼虎, 修枯骨觀, 微或倦弊. 乃作小室, 周障荊棘, 裸坐其中, 動輒箴刺, 頭懸在梁, 以祛昏暝. 適台輔有闕, 門閥當議, 累徵不赴. 王乃勅曰, “不就斬之.” 藏聞之曰, “吾寧一日持戒而死, 不願百年破戒而生.” 事聞, 上許令出家. 乃深隱岩叢, 糧粒不恤. 時有異禽, 含菓來供, 就手以喰. 俄夢天人, 來授五戒, 方始出谷, 鄉邑士女, 爭來受戒.

자장은 스스로 변방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중국¹⁹³⁾에서 크게 교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인평(仁平)¹⁹⁴⁾ 3년(636) 병신년(즉 정관(貞觀)¹⁹⁵⁾ 10년)에¹⁹⁶⁾ 왕명으로 문인인 승실(僧實) 등 10여 명과 함께 서쪽으로 당나라로

193) 서쪽은 신라의 서쪽인 중국을 말하므로 여기에서는 당나라를 가리킨다.

194) 인평(仁平)은 신라 선덕왕의 연호로서, 인평 3년은 선덕왕 5년, 당 정관 10년으로 636년이다.

195) 정관(貞觀): 당 태종(太宗)의 연호. 627~649년.

196) 당나라에 들어간 연대에 대해서 『속고승전(續高僧傳)』 자장전에서는 정관 12년(638)이라 하였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선덕왕 5년(636)이라고 하였다. 이곳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같이 636년이라 하였다. 638년은 선덕왕의 연호로는 인평(仁平) 5년이다. 그런데 인평 원년은 선덕왕 즉위 3년에 해당하므로 2년의 차이가 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인평 5년을 선덕왕 5년으로 착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장의 황룡사탑 건립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이른 기

들어갔다. 청량산(淸涼山)¹⁹⁷⁾을 찾아가니 산에 문수(文殊)대성¹⁹⁸⁾의 소상(塑相)¹⁹⁹⁾이 있었다. 그 나라에서 서로 전해오기를, “제석천(帝釋天)²⁰⁰⁾이 장인을 거느리고 와서 조각하였다”고 한다. 자장이 상 앞에서 그윽히 감응하기를 기도하니, 꿈에 문수대성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범어(梵語)로 된 계송을 주었는데 깨어나 보니 해석을 할 수 없었다. 아침에 이상한 승려가 와서 해석하여 주고 <이미 황룡사탑(皇龍寺塔)편²⁰¹⁾에서 나왔다> 또 말하기를, “비

록인 「황룡사구층목탑찰주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記)」에서는 “선덕대왕 즉위 7년 대당 정관 12년 우리나라 인평 5년 무술년(大王卽位七年 大唐貞觀十二年 我國仁平五年 戊戌歲)”라고 하여 선덕왕 7년(638), 인평 5년으로 간지 무술세를 포함하여 확실히 말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종합해 보면 자장의 입당년은 선덕왕 7년(638)이 맞다.

- 197) 청량산(淸涼山): 중국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 오대현(五臺縣)에 있는 오대산을 말한다. 문수보살이 거처하는 성지로 신앙되는 산으로 『화엄경』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동북방에 청량산이 있고 여기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하였다. 다섯 봉우리가 높이 솟았는데 뽕죽하지 않고 평평하여 오대라고 이름하였고, 높고 서늘하여 청량산이란 이름이 붙었다. 오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북대가 가장 손꼽히는 기도처이다.
- 198) 만수대성(曼殊大聖)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말한다. 문수의 산스크리트어가 𑖦𑖃𑖫𑖞𑖟𑖯 *mañjuśrī*이므로 문수사리(文殊師利) 또는 만수실리(曼殊室利)라고 음역하였다.
- 199) 소상(塑相): 진흙으로 만든 불상.
- 200) 제석천(帝釋天): 𑖦𑖃𑖫𑖞𑖟𑖯 *Śakra Devānām indra*, 석가제환인다라(釋迦提桓因陀羅)라고 음역하며 천제석(天帝釋)이라고도 한다. 원래 인도 고유의 신인 인드라인데 불교에 수용되어 제석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가다국의 바라문으로 보시 공덕을 쌓고 도리천에 나서 삼십삼천의 주인이 되었다. 범천(梵天)과 함께 호법신의 대표이며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선견성(善見城)에서 살면서 사천왕을 거느리고 매달 두 차례 육재일마다 사람들의 잘잘못을 살펴 보호한다고 한다.
- 201) 『삼국유사』 권3 탑상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편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감응하고 난 후 신인으로부터 황룡사에 탑을 세울 것을 부촉받은 것을 말했다. 그런데 신인이 계송을 풀이해 준 일은 『삼국유사』 권3 탑상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편에 나온다.

록 만 가지 가르침을 배워도 이 글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 하고, 가사와 사리 등을 주고 사라졌다.<자장이 애초에 이를 숨겼기 때문에 『당고승전(唐高僧傳)』에는 실리지 않았다.> 자장은 꿈에 이미 대성의 기별(記別)²⁰²⁾을 받았음을 알고는 북대(北臺)²⁰³⁾에서 내려가 태화지(太和池)에 다다랐다. 서울로 들어가니 태종(太宗)이 사신을 보내 위로하고 승광별원(勝光別院)²⁰⁴⁾에 모시게 하였으며, 총애하여 내리는 선물이 빈번하고 후하였다. 자장은 그 번잡함을 싫어하여, 천자에게 올리는 글을 보내고 종남산(終南山)²⁰⁵⁾ 운제

202) 원문의 성별(聖別)은 문수대성의 기별(記別). 기별은 부처가 수행하는 사람에게 성불할 수 있음을 예언하는 것을 말한다.

203) 북대(北臺): 오대산 다섯 봉우리의 북쪽 봉우리. 오대산은 『화엄경』에 따라 문수보살이 거처하는 성지로 신앙되는 산으로 청량산(淸涼山)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 오대현(五臺縣)에 있는 산인데, 오대 중에서도 북대가 가장 높고 기도처로 손꼽힌다. 우리나라에도 문수가 상주한다는 신앙이 생겨나서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이 그 성지가 되었다. 『삼국유사』 권3 탐상 「대산오만진신」에는 동대(東臺)인 만월산(滿月山)에 관음보살이, 남대(南臺)인 기린산(麒麟山)에 8대보살을 수위로 한 지장보살이, 서대(西臺)인 장령산(長嶺山)에 무량수여래를 수위로 한 대세지보살, 북대(北臺)인 상왕산(象王山)에 석가여래를 수위로 한 아라한이, 중대(中臺)인 풍로산(風廬山)에는 비로자나를 수위로 한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하였다.

204) 승광별원(勝光別院): 장안 승광사의 별원을 가리킨다. 승광사는 원래 수나라 문제가 넷째 왕자인 촉왕(蜀王) 수(秀)를 위하여 창건한 사찰로서, 담천(曇遷, 542~607)이 여기에 머물면서 북지섭론학(北地攝論學)을 개척하였으며, 당 초기에도 여전히 섭론 연구의 중심지였다.

205) 종남산(終南山):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서안(西安) 곧 예전 장안(長安)의 남쪽 40km 거리에 있는 높이 2604m의 산으로 남산(南山)이라고도 한다. 진령산맥이 동서로 달리는 중에 있으며 일대의 취화산(翠華山) 남오대(南五臺) 규봉산(圭峰山) 여산(驪山) 등을 모두 포괄하여 말한다. 당대 불교의 중심지로 도선(道宣), 지엄(智嚴), 종밀(宗密)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하였고 많은 사원이 있어 계율종,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선종 등이 성행했던 수당대 중국불교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사(雲際寺)²⁰⁶⁾의 동쪽 산비탈로 들어가 바위에 나무로 가설하여 방을 만들어 3년을 살았다. 사람과 귀신이 계를 받고 영험스런 감응이 날로 오았는데, 말이 번거로워 신지 않는다. 얼마 후 다시 서울로 들어가니, 또 칙서로 위로하고, 비단 200필을 하사하여 의복의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藏自嘆邊生，西希大化。以仁平三年丙申歲〈卽貞觀十年也〉受勅，與門人僧實等十餘輩，西入唐。謁清涼山，山有曼殊大聖塑相。彼國相傳云，“帝釋天將工來彫也。”藏於像前 禱祈冥感，夢像摩頂授梵偈，覺而未解。及旦有異僧來釋云〈已出皇龍塔篇〉。又曰，“雖學萬教，未有過此文。”以袈裟舍利等，付之而減〈藏公初匿之，故唐僧傳不載〉。藏知己夢聖蒞，乃下北臺，抵太和池。入京師，太宗勅使慰撫，安置勝光別院，寵賜頻厚。藏嫌其繁，擁啓表，入終南雲際寺之東嶸，架崑爲室，居三年。人神受戒，靈應日錯，辭煩不載。旣而再入京，又蒙勅慰，賜絹二百匹，用資衣費。

정관 17년(643) 계묘년²⁰⁷⁾에 신라 선덕왕(善德王)²⁰⁸⁾이 글을 올려 귀환을 요청하였다. (당 태종이) 조서를 내려 허락하고 궁궐로 불러 들여 비단 한 벌과 채색 비단 500단을 하사하였으며, 동궁(東宮)²⁰⁹⁾도 200단을 내리고 또

206) 운제사(雲際寺) :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서안(西安) 남쪽 40km 거리에 있는 서안시 호현(戶縣) 중남산에 있던 절. 당나라 때 계율종의 개창조 도선(道宣)이 삼매를 수행하였던 유서 깊은 절이다. 현재는 작은 절이 남아 있다.

207) 신라 선덕왕 12년

208) 선덕왕(善德王) : 신라 제27대 왕. 재위 632~647년. 634년에 분황사(芬皇寺)를 창건하였고, 635년에는 영묘사(靈廟寺)를 세웠다. 침성대를 쌓고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였다. 5-3 주106) 참조.

209) 동궁(東宮) : 황태자·태자·왕세자를 일컫는 말. 이들의 거처가 왕궁의 동쪽에

예물을 많이 주었다. 자장은 신라에 불경과 불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대장경(大藏經) 한 질과 여러 가지 번(幡)²¹⁰⁾과 당(幢)²¹¹⁾과 화개(花蓋)²¹²⁾ 등 복되고 이익됨이 뛰어난 것들을 요청하여 모두 실었다. (신라에) 도착하자 온 나라가 환영하였으며, 왕명으로 분황사(芬皇寺)²¹³⁾〈『당고승전』에는 왕분사(王芬寺)라 하였다〉에 머물도록 하였는데 시중들과 받들이 넉넉하고 극진했다. 어느 해 여름에 궁중으로 초청받아 『섭대승론(攝大乘論)』²¹⁴⁾을 강의하였다. 또 황룡사(皇龍寺)²¹⁵⁾에서 『보살계본(菩薩戒本)』²¹⁶⁾을 7일 밤낮으로 강연하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 210) 번(幡): 부처와 보살의 공덕을 나타내는 장엄불구(莊嚴佛具)의 하나로 깃발의 총칭이다. 원래 전투에서 군대를 통솔할 때 군의 위세를 드러내는 데 쓰인 것으로, 불교에서는 부처와 보살의 위력을 나타낸다. 당(幢)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 수 나라 때 불사의 공양구 중에서 번을 많이 사용했다. 그 모습은 삼각형의 번두(幡頭), 장방형의 당신(幢身), 번두 하부와 번신 좌우의 늘어져 장식된 번수(幡手), 번신 하부 즉 늘어져 장식된 번족(幡足)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색깔과 크기는 사용 장소와 용도에 따라 달라서 종류가 매우 많다.
- 211) 당(幢): 부처나 보살의 위신과 공덕을 표시하는 장엄(莊嚴) 불구의 하나이다. 번(幡)과 같이 부처와 보살의 위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는 번(幡)과 구별되지 않지만, 원통은 당(幢), 긴 편(片)으로 된 것은 번(幡)이라고 한다.
- 212) 화개(花蓋): 화개(華蓋)라고도 한다. 꽃 등으로 장식한 일산(日傘)이다.
- 213) 분황사(芬皇寺):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절.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되었다. 신라에 옛 부처 때의 인연 있는 일곱 절터 중의 하나로 꼽혔던 중요한 절이다. 자장이 귀국하자 머물게 했던 절이며, 7세기 중반에 원효가 활동하며 『화엄경소』를 지었다. 경덕왕 때인 755년에 36만근의 거대한 동제 약사여래상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명화가 솔거(率居)가 그린 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 등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유적이 있던 유서 깊은 절이다. 5-1 주51) 참조.
- 214) 『섭대승론(攝大乘論)』: 이곳에서는 대승론(大乘論)이라 하여 일반적인 대승 논서로 볼 수도 있으나 『속고승전』자장전에서 『섭대승론』이라 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섭대승론』은 섭론(攝論)이라고도 한다. 무착(無著)이 지은 책으로 삼성설을 기본으로 하여 대승교리를 설명하고, 나아가 유식설(唯識說)을 발전시켰다.

강당을 덮어, 사부대중(四部大衆)²¹⁷⁾이 모두 그 기이함에 탄복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진 지 오래 되었는데, 교법을 보존하고 수행하며 받드는 일에 대한 법과 의례가 없는 듯합니다. 무릇 법과 도리가 아니고서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칙명으로 자강을 대국통(大國統)²¹⁸⁾으로 삼아, 승려들의 모든 규범을 승통(僧統)에게 위임하여 주관하도록 하였다. <살피전대 북제(北齊)²¹⁹⁾ 천보(天保)²²⁰⁾ 연간에 전국에 십통(十統)²²¹⁾을 설치하니, 담당 관청이 “마땅히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에

215) 황룡사(皇龍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구황동에 있던 절. 신라 진흥왕 때인 553년에 착공하여 569년에 완공된 신라불교의 중심 사찰로 지금은 탑과 금당 강당지 등 절터만 보존되어 있다. 높이 225척의 장대한 구층탑(九層塔)과 3만 5천근의 장륙존상과 십대제자상, 49만근의 거대한 황룡사종 등을 갖추었던 신라 국찰(國刹)이다. 5-1 주36) 참조.

216) 보살계본(菩薩戒本): 보살계본에는 크게 범망계(梵網戒)와 지지계(地持戒)와 유가계(瑜伽戒)의 세 계통이 있다. 범망계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범망경』에 나오는 것으로 보살계 10중계와 48경계를 설하고 있다. 지의나 법장 등이 이에 대한 소를 지었다. 지지계는 담무참이 번역한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 나오는 4바라이(波羅夷)계와 41경계를 말한다. 유가계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 나오는 것으로 내용은 지지계본과 비슷하다.

217) 사중(四衆): 사부대중(四部大衆), 즉 불교교단을 구성하는 네 부류, 즉 남녀 출가자집단인 비구(比丘)와 비구니(比丘尼), 남녀 재가자집단인 우바새(優婆塞)와 우바이(優婆夷)를 말한다.

218) 대국통(大國統): 551년(진흥왕 12) 처음으로 전국의 불교를 지도 총괄하기 위하여 국통(國統) 위에 1명을 두었던 직책으로 보인다. 일연의 주처럼 비상설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19) 북제(北齊): 중국 남북조시대에 북조에 속했던 나라. 550~577년. 동위(東魏)의 실권자 고양(高洋)이 효정제(孝靜帝)에게서 양위 받아 등극하여 국호를 제(齊)라 하였다. 내부혼란으로 붕괴하여, 577년 북주(北周)에 패망하였다.

220) 원문의 천보(天寶)는 천보(天保)의 잘못이다. 북제(北齊) 문선제(文宣帝)의 연호. 550~558년.

221) 십통(十統): 북제(北齊)때의 승관(僧官)이다. 『속고승전(續高僧傳)』 권8 법상전

문선제(文宣帝)²²²⁾가 법상법사(法上法師)²²³⁾로 대통(大統)²²⁴⁾을 삼고 나머지는 통통(通統)²²⁵⁾으로 삼았다. 또 양(梁)²²⁶⁾나라와 진(陳)²²⁷⁾나라 때에 국통(國統)²²⁸⁾·주통(州統)·

에 의하면 천보 2년(551)에 십통(十統)의 직(職)을 두었고 법상(法上)을 십통의 대표로 삼았으니 대통(大統)이라고 하고 나머지 9명은 통통(通統)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222) 문선제(文宣帝): 북제(北齊)의 건국자. 재위 550~558년. 동위의 최고 권력자인 고환(高歡)이 547년에 죽고 아들인 고징(高澄)이 계승하였으나 549년에 살해되자 아우인 고양(高洋)이 계승하여 제위에 오르니 바로 문선제이다. 폭군이기도 했으나, 도살을 금하고 천하에 사원을 짓는 등 북제 일대에서 가장 불법이 융성한 때였다.

223) 법상(法上, 495~580): 남북조시대의 고승. 속성은 유(劉)씨이다. 동위와 북제에 걸쳐 40년 동안 대통으로서 불교를 통솔하였다. 특히 북제 문선제에게 신임을 받아 계사로서 존경받았다. 『열반경』과 『능가경』에 뛰어났으며, 『불성론(佛性論)』과 『대승의장(大乘義章)』에 대한 소(疏)를 지었다. 제자로는 정영사 혜원(慧遠, 523~592) 등이 있다.

224) 대통(大統): 『수서(隋書)』 백관지 22에 의하면, 북위(北魏)·북제(北齊) 때 소현시(昭玄寺)에 대통(大統) 1명·통(統) 1명·도유나(都維那) 3명을 두어 승려를 관장하게 하였다고 한다. 북제 문선제는 십통(十統)을 설치하여 법상을 대통(大統)으로 삼았다.

225) 통통(通統): 소현십통(昭玄十統) 중 대통(大統)아래 있던 9명을 말한다.

226) 양(梁): 중국 남북조시대에 남조에 속했던 나라(502~577). 제(齊)나라의 상국이었던 소연(蕭衍,武帝 502~551)이 502년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올라 양나라를 건국하였다. 무제는 불교신앙에 열중하여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548년 동위(東魏)에서 망명한 후경(侯景)이 건강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잇단 쟁투가 벌어져 황제의 폐립이 빈번하다가 진패선이 557년 경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진(陳)나라를 세움으로써 양나라는 멸망하였다.

227) 진(陳): 중국 남북조시대에 남조에 속했던 나라로 남조 최후의 왕조(557~589). 진패선(陳霸先,武帝, 557~559)이 557년 양(梁)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하였다. 선제(宣帝, 568~582) 때에는 북제(北齊)를 공략하여 북쪽으로 진출했으나 다음 후주(後主, 582~589)는 측근을 중용하고 무장을 억압하여 전차 국력이 쇠퇴해지고 마침내 589년에 수(隋)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228) 국통(國統): 북조(北朝) 동위(東魏)의 승관(僧官) 직의 하나. 승관제는 원래 소

국도(國都)·주도(州都)·승도(僧都)·승정(僧正)·도유내(都維乃)²²⁹⁾ 등의 이름이 있었는데, 모두 소현조(昭玄曹)²³⁰⁾에 속하였으니 소현조는 승려를 관장하는 관청 이름이다. 당나라 초에 또 십대덕(十大德)²³¹⁾이 성행하였다. 신라 진흥왕(眞興王)²³²⁾ 11년(550) 경오년

현통(昭玄統)이라 하였는데 그 아래에 국도(國都)를 두었다. 승관제는 위진남북조때 후진(後秦)의 요흥(姚興)이 처음 설치하였다. 북위 도무제(道武帝) 황시(皇始)연간(396~397)에 도인통(道人統)을 만들고 승려들을 관장하도록 하였고 흥안(興安) 원년(452)에 승려 현담(賢曇)을 도인통으로 삼았고, 이후 담요(曇曜)가 뒤를 이어 사문통(沙門統)이라고 고쳤다. 신라에서는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에서 망명해 온 혜량(惠亮)을 국통으로 임명함으로써 처음 설치되었다. 국통 밑에는 대도유나(大都維那)·대서성(大書省) 등의 승관이 있었고, 지방 승정을 담당하는 주통(州統)과 군통(郡統) 등이 있었다. 국통은 현덕왕, 정강왕 때도 임명된 기록이 있어 신라 말까지 제도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 229) 도유내(都維乃) : 북위(北魏) 때에 설치된 승관(僧官) 이름. 문성제(文成帝) 흥안(興安) 원년(452), 도유나를 중앙승관기구 감복조(監福曹)의 수장인 도인통(道人統) 아래에 설치하였다. 감복조는 북위 효문제 때 소현시(昭玄寺)로 고쳤다. 동위(東魏) 때는 소현 도유나를 국통(國統) 아래 두었다.
- 230) 소현조(昭玄曹) : 소현시(昭玄寺)라고도 한다. 남북조시대에 승려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이다. 북위 태무제가 폐불을 단행한 후 문성제가 즉위하여 452년에 불교를 부흥하고 감복조(監福曹)를 설치하여 중앙 승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인통(道人統)과 도유나(都維那)의 직책을 두었다. 이것을 460년에 개칭한 것이 소현시(소현조)이다. 대통(大統) 1인과 통(統) 1인, 도유나 3인 그리고 관원을 두어 지방의 사문조(沙門曹)와 주통(州統)·군통(郡統)·현통(縣統) 등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북조의 여러 나라는 대체로 이와 비슷한 승관제를 시행하였으나 남조에서는 승정(僧正) 등의 승관이 있어 달랐다. 수와 당에서는 외교 관계를 담당하던 홍려시(鴻臚寺) 아래에 소현시를 개칭한 숭현서(崇玄署)를 두었다.
- 231) 십대덕(十大德) : 당(唐)나라 시기의 승관(僧官). 고조(高祖) 무덕(武德) 3년(620), 자비사(慈悲寺)에 승관(僧官) 10명을 설치하고 십대덕(十大德)이라고 명하여 승려와 교단의 일을 통솔하게 하였다.
- 232) 진흥왕(眞興王) : 신라 제24대 왕. 재위 540~576. 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삼맥종(三麥宗) 또는 심맥부(深麥夫)이다. 지증왕의 손자로, 법흥왕의 아우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 김씨이며, 왕비는 박씨로 사도부인(思道夫人)이다. 백제의 땅이었던 한강 유역의 요충지를 획득하고, 백제 성

에 안장(安藏)법사를 대서성(大書省)²³³⁾ 1인으로 삼았으며, 또 소서성(小書省)²³⁴⁾ 2인이 있었다. 이듬해 신미년(551)에 고구려의 혜량(惠亮)법사²³⁵⁾를 국통으로 삼았으니 또한 사주(寺主)라고도 하였다. 보량(寶良)법사를 대도유나(大都維那)²³⁶⁾ 1인으로 삼았고, 주통(州統)은 9인이고 군통(郡統)은 18인이었다. 자장에 이르러 다시 대국통 1인을 두었으니, 대개 비상설 직책이다. 마치 부례랑(夫禮郎)²³⁷⁾을 대각간(大角干)으로 삼고, 김유신²³⁸⁾을

왕을 전사시켰다. 이어 대가야를 평정하고, 창녕에서 북한산, 마운령, 황초령에 이르는 새로 개척한 땅에 순수비를 세웠다. 화랑제도를 창시하여 젊은 인재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 233) 대서성(大書省): 신라 때의 승직(僧職). 진흥왕 11년(550) 안장(安藏) 법사를 임명하였으며, 문무왕 9년(669)에는 신희(信惠)를, 헌덕왕 9년(817)에는 진노(眞怒)를 임명하였다. 지위는 국통(國統)의 밑에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때 1인, 진덕왕 때 2인을 두었다고 하였다.
- 234) 소서성(小書省): 신라 때의 승직(僧職). 『삼국사기』 권40 직관지 하에는 소년서성(少年書省)이라고 하였다. 원성왕 3년(787)에 혜영(惠英)·범여(梵如)를 소년서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소서성은 원성왕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 235) 혜량(惠亮)법사: 고구려의 승려.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온 신라 장군 거칠부를 따라 신라로 귀순하였고, 신라 최초의 승통(僧統)이 되어 백좌강회와 팔관제법을 주관하였다. 『삼국사기』 권44 열전 居柒夫)
- 236) 대도유나(大都維那): 신라 시대의 승직(僧職). 진흥왕 때 처음으로 보량법사(寶良法師)로 대도유나를 삼았고, 진덕왕 원년(647)에 1인을 더하였다.
- 237) 부례랑(夫禮郎): 신라 효소왕 때의 국선(國仙). 아버지는 사찬(沙漣) 대현(大玄)이다. 『삼국유사』 권2 기이 만파식적편에는 실례랑(失禮郎)이라 하였다. 효소왕 원년(692)에 국선(國仙)이 되었고, 천여 명의 낭도가 있었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3 탑상 백률사편에 의하면, 부례랑이 금란(金蘭) 지역에 갔다가 북명(北溟) 부근에서 적인(狄人)에게 붙잡혔다. 이때 국보인 금적(琴笛)이 없어졌는데, 대현(大玄)이 백률사(柏栗寺) 관음전에 빌었더니 부례랑이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금적을 찾아서 돌아왔다고 한다. 이때 효소왕은 부례랑을 대각간으로, 대현을 태대각간으로 삼았다고 한다.
- 238) 김유신: 595~673. 신라 때 장군. 본관 김해(金海),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의 12대손이다. 아버지는 소판(蘇判)·대량주도독(大梁州都督)을 역임한 서현(舒玄), 어머니는 숙흥종(肅訢宗)의 딸 만명(萬明)이다. 진평왕 31년(609) 화

태대각간(太太角干)으로 삼은 것과 같다. 나중에 원성대왕 원년(785)에 이르러 다시 승관을 설치하고 이름을 정법전(政法典)이라 하였으며,²³⁹⁾ 대사(大舍)²⁴⁰⁾ 1인과 사(史)²⁴¹⁾ 2인으로 관사를 구성하였다. 승려 가운데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를 가려서 임명하되, 별다른 일이 있으면 교체하나 따로 정한 연한은 없었다. 그러니 지금의 자주색 옷을 입은 무리는 또한 율사(律寺)와 구별된다. 마을에 전하는 기록에 이르기를, “자장이 당나라에 들어

랑이 되었고, 진평왕 51년(629)에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할 때 중당(中幢)의 당주(幢主)로서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선덕왕 11년(642) 압량주(押梁州) 군주(軍主)가 되었고, 644년 소관에 올랐다. 같은 해에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진덕왕 원년(647)에 1월 여왕을 폐하려고 난을 일으킨 귀족회의 수뇌인 상대등(上大等)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의 반군을 토벌하였고, 648년에는 압량주 군주로서 12개 성을 빼앗은 공으로 이찬으로 승진하고 상주행군대총관(上州行軍大總管)이 되었다. 654년에 진덕왕이 후사 없이 죽자 재상이던 이찬 알천(閼川)과 의논하여 이찬 김춘추(金春秋)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태종 7년(660) 상대등에 올랐고, 신라 정예군 5만과 소정방(蘇定方)이 이끈 당나라군 13만이 연합하여 사비성(泗沘城)을 함락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663년 8월 백제의 부흥군을 두솔성(豆率城)에서 대파하였고, 665년 당나라 고종으로부터 봉상정경평양군개국공(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에 봉해졌다. 668년에 나당 연합군이 평양을 칠 때 연합군 대총관이 되었으나 왕명으로 금성에 남아 국방을 도맡았다. 고구려 정벌 직후 태대각간(太太角干)의 최고직위에 오른 후 당나라 군사를 축출하는데 힘써 한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수복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졌다. 문무왕 13년(673) 7월 병으로 세상을 떠나, 흥덕왕 10년(835) 흥무대왕(興武大王)에 추존되었다.

- 239) 이 기록은 『삼국사기』 권40 직관지에 나온다. 정관(政官) 혹은 정법전이라 제목을 달고 그 아래 직책으로 국통·도유나랑·대도유나·대서성·소년서성·주통·군통을 인원과 함께 열거하였다.
- 240) 대사(大舍) : ①신라의 17등 관계(官階) 중 12등 관등. ②신라 관제의 장관 차관 다음의 직책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13관등인 사지(舍知)에서 11관등인 나마(奈麻) 관등의 관리가 임명되었다.
- 241) 사(史) : 신라 중앙 관청에 속한 하위 관직으로 주로 기록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17관등인 선저지(先沮知)에서 12관등인 대사(大舍) 관등의 관리가 임명되었다.

가자 태종이 무건전(武乾殿)에 맞이하여 『화엄경』²⁴²⁾을 강의하기를 청하니 하늘에서 감로가 내렸으며 비로소 국사를 삼았다”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고승전』²⁴³⁾과 『국사(國史)』²⁴⁴⁾에는 모두 이러한 글이 없다.)

貞觀十七年癸卯，本國善德王上表乞還。詔許引入宮，賜絹一領雜綵五百端，東宮亦賜二百端，又多禮貺。藏以本朝經像未充，乞齋藏經一部，洎諸幡幢花蓋，堪爲福利者，皆載之。既至，洎舉國欣迎，命住芬皇寺〈唐傳作王芬〉給侍稠渥。一夏請至宮中，講大乘論。又於皇龍寺，演菩薩戒本，七日七夜，天降甘澍，雲霧暗靄，覆所講堂，四衆咸服其異。

朝廷議曰，“佛教東漸，雖百千齡，其於住持修奉，軌儀闕如也。非夫綱理，無以肅清。”啓勅藏爲大國統，凡僧尼一切規猷，總委僧統主之。〈按北齊天保中 國置十統，有司奏宜甄異之。於是宣帝，以法上法師爲大統，餘爲通統。又梁陳之間，有國統州統國都州都僧都僧正都維那等名，總屬昭玄曹，曹卽領僧尼官名。唐初又有十大德之盛。新羅眞興王十一年庚午，以安藏法師爲大書省一人，又有小書省二人。明年辛未，以高麗惠亮法師爲國統，亦云寺主，寶良法師爲大都維那一人，及州統九人，郡統十八人等。至藏，更置大國統一人，蓋非常職也。亦有夫禮郎爲大角干，金庾信太大角干。後至元聖大王

242) 『화엄경(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석존이 깨달은 지 이칠일제에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자나불을 설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이라 한다. 내용은 부처가 되는 인행(因行)과 과덕(果德)을 설한 것으로 십지(十地)를 비롯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 수행 계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부인 입법계품은 선재동자 보살행을 묻고자 53선지식을 찾아 구도 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번역본은 60권본, 80권본, 40권본의 세 가지가 있다.

243) 당전(唐傳): 『속고승전(續高僧傳)』 권4 자장전.

244) 국사(國史): 거칠부가 편찬한 역사서인데, 여기에서는 『삼국사기』를 가리킨다.

元年，又置僧官，名政法典，以大舍一人史二人爲司。揀僧中有才行者爲之，有故即替，無定年限。故今紫衣之徒，亦律寺之別也。鄉傳云，藏入唐，太宗迎至武乾殿，請講華嚴，天降甘露，開爲國師云者，妄矣。唐傳與國史皆無文。〉

자장이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 힘써 불교를 전파하였으니, 승니(僧尼) 오부(五部)²⁴⁵⁾로 하여금 각각 배움에 더욱 힘쓰게 하였다. 15일마다 계를 설하고²⁴⁶⁾ 겨울과 봄에는 모두 시험을 치루어²⁴⁷⁾ 계를 지키고 어긴 것을 알게 하였으며, 관원을 두어 그것을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순찰사를 파견하여 지방 사찰을 두루 검열하여 승려들의 잘못을 징계하고 바로잡았으며, 불경과 불상을 장엄하게 꾸미는 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았다. 한 시대에 불교를 보호함이 이때 융성하니, 마치 공자(孔子)가²⁴⁸⁾ 위(衛)나라²⁴⁹⁾에서 노(魯)나라²⁵⁰⁾로 돌아와 음악을 바르게 하니 아(雅)와 송(頌)이 각각 마땅

245) 승니(僧尼) 오부(五部): 승단을 구성하는 다섯 종류의 스님들로,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식차마나(式叉摩那)·사미(沙彌)·사미니(沙彌尼)를 말한다. 20세 미만의 출가한 어린 남녀 스님을 사미·사미니라 하며, 사미니가 구족계를 받고 자 18세부터 20세까지 2년 동안 따로 육법을 배우며 시험하는 것은 식차마나라 한다. 20세 이상이 되어 구족계를 받은 남녀 스님을 비구·비구니라 한다.

246) 승단에서 동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승려들이 매월 보름날과 그믐날에 15일마다 모여 지난 15일 동안의 행위를 반성하고 잘못이 있으면 참회하고 교단에서 지켜야 할 조항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함께 외우는 행사를 포살(布薩)이라 한다. 자장은 이 포살을 시행한 것이다.

247) 승단에서 안거 마지막 날에 정진하던 대중들이 견(見) 문(聞) 의(疑) 삼사에 대해 자신이 잘못을 범한 일이 있는지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을 자자(自恣)라 한다. 포살과 함께 계율 시행의 중심을 이룬다. 자장은 이 자자와 비슷한 계율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248) 원문의 부자(夫子)는 덕행이 높은 이를 일컫는 것으로 여기서는 공자를 말한다.

249) 위(衛)나라: 중국 주(周)나라 때 하남성에 위치하였던 제후국의 하나.

250) 노(魯)나라: 중국 주(周)나라 때 산둥성에 위치하였던 제후국의 하나.

함을 얻은 것과 같다²⁵¹⁾. 이 때를 맞아 나라 사람들 가운데 계를 받고 불교를 숭상하는 집이 열에 여덟 아홉이나 되었으며, 머리 깎고 출가하는 자가 날로 늘어갔다. 이에 통도사(通度寺)²⁵²⁾를 창건하고 계단(戒壇)²⁵³⁾을 쌓아 사방에서 오는 이들을 출가시켰다.〈계단 일은 이미 앞에서 나왔다.〉²⁵⁴⁾ 또 태어난 마을의 집을 새로 수리하여 원녕사(元寧寺)로 만들고 낙성회를 베풀어 『화엄경』만계²⁵⁵⁾를 강의하니, 52년²⁵⁶⁾가 감응하여 몸을 드러내고 강의를

251) 아(雅)와 송(頌): 『시경(詩經)』은 국풍(國風)과 아(雅, 大雅·小雅)와 송(頌)으로 이루어졌는데, 국풍은 여러 나라의 민요이고 아는 공식 연회에 쓰이는 정악(正樂)이며 송은 종묘의 제사에 쓰이는 악시(樂詩)이다. 따라서 아와 송이란 『시경』을 말한다. 『논어(論語)』 자한편에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음악이 바르게 되고 아와 송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子曰, 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라고 하였다. 공자 때 시(詩)와 악(樂)이 뒤섞이고 빠지고 하여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공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시와 악의 도를 알았고, 노나라에 돌아와서 이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252) 통도사(通度寺):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영취산(靈鷲山)에 있는 절. 646년(선덕왕 15)에 자장(慈藏)이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사리(舍利)·가사(袈裟)·대장경(大藏經) 등을 금강계단(金剛戒壇)에 봉안하고 창건하였다. 이에 따라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계단(戒壇)이 있는 불보(佛寶)사찰로서 한국불교의 첫손 꼽히는 종찰이 되었으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이다. 계단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계단 앞에 세운 불상이 없는 대웅전을 비롯한 대광명전 등 넓은 사역에 수많은 전당이 세워져 있는 대찰로서 문화재도 많다.

253) 계단(戒壇): 수계(授戒)의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높은 단을 쌓아 마련한다. 신라에서는 통도사 이후 신라 말에 부석사 화엄사 등에 관단(官壇) 즉 국가의 공적인 계단이 설치되어 승려들에게 수계하였다. 중국에서는 당의 도선이 667년에 장안 교외의 종남산 정업사(淨業寺)에 계단을 설치하고 이후 지방에도 보급되었다.

254) 『삼국유사』 권3 탐사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편에 통도사 계단의 조성과 그 형상 그리고 전래 상황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255) 잡화만계(雜花萬偈)는 『화엄경』을 말한다. 『잡화경(雜華經)』은 일반적으로 『화엄경(華嚴經)』을 통칭하지만, 엄밀하게는 『화엄경』 중에서도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入法界品)을 의미한다. 만계(萬偈)는 『화엄경』의 전체 계송 수를 가리키는 데, 정확히는 60권본이 3만 6천계, 80권본이 4만 5천계, 입법계품이 10만계로 알

들었다. 문인들에게 그 숫자만큼 나무를 심어 그 기이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식수(知識樹)라고 불렸다. 일찍이 신라의 복장이 중국과 같지 않아 조정에 (중국식으로 바꿀 것을) 건의 하니 모두 “좋다”라고 허락하였다. 이에 진덕왕 3년(649) 기유년에 비로소 중국의 의관을 입고, 이듬해 경술년(650)에는 중국의 정삭(正朔)을 받들어²⁵⁷⁾ 처음으로 영휘(永徽)²⁵⁸⁾ 연호를 시행하였다. 이후로 매년 조빙(朝聘)할 때마다 서열이 변방의 윗자리가 되었으니, 자장의 공이다.

藏值斯嘉會，勇激弘通，令僧尼五部，各增奮學，半月說戒，冬春總試，令知持犯，置員管維持之。又遣巡使，歷檢外寺，誠礪僧失，嚴飾經像爲恒式。一代護法，於斯盛矣。如夫子自衛返魯樂正，雅頌各得其宜。當此之際，國中之人，受戒奉佛，十室八九，祝髮請度，歲月增至。乃創通度寺，築戒壇，以度四來(戒壇事已出上)。又改營生緣里第元寧寺，設落成會，講雜花萬偈，感五十二女現身證聽。使門人植樹如其數，以旌厥異，因號知識樹。嘗以邦國服章不同諸夏，舉議於朝，簽允曰“藏。”乃以貞德王三年己酉，始服中朝衣冠，明年庚戌，又奉正朔，始行永徽號。自後每有朝覲，列在上蕃，藏之功也。

려져 있다.

256) 오십이녀(五十二女): 52녀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가 만났다는 53선지식이라는 설과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의 수행단계인 52위라는 설이 있다. 여기서는 다음에 ‘지식수’를 심었다는 것으로 보아 53선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57) 정삭(正朔)은 정월 초하루를 가리키는데, 정삭을 받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은 그 나라의 역법을 따랐다는 것이다. 신라와 당나라는 조빙 관계가 있었으므로 당나라의 정삭을 쓰게 된 것을 말한다.

258) 영휘(永徽): 당 고종(高宗)의 연호. 650~655년. 진덕왕 4년~무열왕 2년.

만년에 서울을 떠나 강릉군(江陵郡)〈지금의 명주(冥州)〉에 수다사(水多寺)²⁵⁹⁾를 세우고 살았다. 다시 이상한 승려 꿈을 꾸었는데, 형상이 북대²⁶⁰⁾에서 본 것과 같았다. 와서 알리기를, “내일 대송정(大松汀)에서 그대를 보리라.”고 하였다.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려 일어나 일찍 나가서 송정에 이르렀다. 과연 문수대성이 감응하여 이르러, 법요를 물었더니 말하기를, “태백산(太白山)²⁶¹⁾ 갈반지(葛蟠地)에서 다시 만나리라.”하고는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송정은 지금까지 가시가 자라지 않으며 또한 매와 새매 종류가 깃들지 않는다고 한다.〉 자장이 태백산에 가서 갈반지를 찾다가 나무 아래에 커다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시자에게 말하기를, “여기가 갈반지구나” 하였다. 이에 석남원(石南院)을 창건하고〈지금의 정암사(淨岩寺)²⁶²⁾이다〉 문수대성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나이든 거사가 남루한 방포(方袍)²⁶³⁾를 입고 첩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메고 와서 시자에게 “자장

259) 수다사(水多寺): 삼국유사 권3 탑상 대산월정사오류성중(臺山月精寺 五類聖衆)편에 월정사는 자장법사가 처음에는 띠집을 지었으며, 다음 신호거사가 와서 살았고, 그 다음에 범일의 문인 신의두타가 오서 암자를 세워 살았으며, 그 후에 수다사의 장로 유연이 와서 살아서 점차 큰 절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수다사는 자장을 계승하는 스님들이 지낸 곳임을 알게 한다.

260) 북대: 자장이 문수의 감응을 얻고 신인을 만났던 중국 오대산의 북대를 말한다.

261) 태백산(太白山):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 봉화군에 걸쳐 있는 산. 백두대간의 모산(母山)으로 오대산 두타산에서 내려와 솟구쳐 고봉으로 둘러싸여 솟아 있으며 서남으로 내려가 소백산맥을 이룬다. 신라 때 국가의 주요 오악의 하나인 북악(北岳)으로 존송되는 등 산악숭배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정암사 외에 남쪽 줄기를 따라 부석사 등 많은 사찰이 세워져 있다.

262) 정암사(淨岩寺):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태백산에 있는 절. 자장이 태백산 갈반지에 창건한 석남원이 바로 이 정암사라고 한다. 창건하였다고 하며 석가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고려시대의 7층 수마노탑이 세워져 있어 우리나라 5대 보궁(寶宮)으로 꼽힌다.

263) 방포(方袍): 가사. 특히 장삼을 말한다.

을 보러 왔다”고 하였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스승을) 시봉한²⁶⁴⁾ 이래로 아직껏 우리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보지 못했는데 그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리도 미친 소리를 하는가?”라고 하였다. 거사가 말하기를, “너희 스승에게 알리기나 하여라”고 하였다. 마침내 들어가서 아뢰니 자장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기를, “아마도 미치광이인가 보다”라고 하였다. 문지기가 나와서 꾸짖으며 쫓아냈다. 거사가 말하기를,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상(我相)²⁶⁵⁾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으리오.”라고 하고는 삼태기를 거꾸로 하여 털자, 개가 변하여 사자보좌(獅子寶座)가 되니 (그 위에) 올라 앉아서 빛을 내며 가버렸다. 자장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위의²⁶⁶⁾를 갖추고 빛을 찾아 남쪽 고개로 재촉하여 올라갔으나, 이미 아득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마침내 쓰러져 죽었다.²⁶⁷⁾ 화장하고 유골을 석혈(石穴)에 안치하였다.

무릇 자장이 세운 절과 탑이 10여 곳이나 되는데, 한 번 세울 때마다 반드시 이상한 상서가 있었다. 그리하여 재가자²⁶⁸⁾의 공양이 거리를 메꾸어 며칠 지나지 않아 완성하게 되었다. 자장의 도구와 옷과 버선과 아울러 태화지의 용²⁶⁹⁾이 바친 오리모양의 목침과 석존의 가사 등은 모두 통도사에

264) 원문의 건추(巾簪)는 수건과 빗자루를 말하는 것으로 어른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265) 아상(我相): 잘못 깨달은 것에 집착하여 이를 참다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266) 위의(威儀): 예법에 맞는 몸가짐

267) 도세(道世)의 『법원주림(法苑珠林)』 자장전에 의하면, 자장은 가벼운 병에 걸려서 영휘 연간(650~655)에 입적하였다고 한다. (大53 p.779c18~19. 因邁微疾, 卒於永徽年中.)

268) 원문의 포새(蒲塞)는 이포새(伊蒲塞, 𑖦 upasaka)의 준말로써 우바새라고도 한다. 곧 출가하지 않은 남자 재가자를 말한다.

269) 『삼국유사』 권3 탑상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편에 자장이 오대산으로 문수를 친견하러 가서 문수로부터 계승을 받은 것을 일러준 것이 태화지의 용이라

있다. 또 현양현(獻陽縣)²⁷⁰⁾〈지금의 언양(彦陽)〉에 압유사(鴨遊寺)가 있으니, 목침의 오리가 일찍이 여기서 이상한 일을 드러내었기에 이름한 것이다.

또 원승(圓勝)²⁷¹⁾ 스님이 있는데, 자장보다 앞서서 중국에 유학하였다가, 함께 고향으로²⁷²⁾ 돌아와 (자장이) 계율을 널리 펴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

찬한다.

일찍이 청량산에 가서 꿈 깨어 돌아와,

7편3취²⁷³⁾를 일시에 열었도다.

승려와 속인이 옷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우리나라 의관을 중국 것으로 만들었네.

暮年謝辭京輦，於江陵郡〈今冥州也〉創水多寺居焉。復夢異僧，狀北臺所見。來告曰，“明日見汝於大松汀。”驚悸而起，早行至松汀。果感文殊來格，諮詢法要，乃曰，“重期於太伯葛蟠地。”遂隱不現〈松汀至今不生荊刺，亦不棲鷹鷂之類云。〉藏往太伯山尋之，見巨蟒蟠結樹下，謂侍者曰，“此所謂葛蟠地。”乃創石南院〈今

하였다.

270) 현양현(獻陽縣)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彦陽邑)의 통일신라 때 행정구역. 신라 지화현(知火縣)이었는데 경덕왕 때 현양현으로 고쳐 양주의 영현이 되게 하였고, 고려 인종 때 언양으로 고쳤다.

271) 원승(圓勝) : 『속고승전(續高僧傳)』 권24 자장전에 부전(付傳)되어 있다. 자장보다 먼저 중국에 들어가 삼학에 통달하고 귀국 후 자장을 도와 계율을 펴다.

272) 원문의 상자(桑梓)는 고향을 가리킨다. 옛날에 집 담 밑에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었으므로 여기서 고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273) 칠편삼취(七篇三聚) : 칠편(七篇)은 계율의 분과로서 바라이(波羅夷)·승잔(僧殘)·투란차(偷蘭遮)·파일제(波逸提)·제사니(提舍尼)·돌길라(突吉羅)·악설(惡說)의 7가지로 분류 한 것을 말하며, 삼취(三聚)는 대승 보살들이 받는 삼취정계(三聚淨戒)로서 섭율의계(攝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섭중생계(攝衆生戒)를 말한다. 즉, 계율의 총칭이다.

淨岩寺)，以候聖降。粵有老居士，方袍纓屨，荷葛簑，盛死狗兒，來謂侍者曰，“欲見慈藏來爾。”門者曰，“自奉巾箒，未見忤犯吾師諱者。汝何人斯，爾狂言乎。”居士曰，“但告汝師。”遂入告，藏不之覺曰，“殆狂者耶。”門人出詬逐之。居士曰，“歸歟！歸歟！有我相者，焉得見我。”乃倒簑拂之，狗變爲師子寶座，陞坐放光而去。藏聞之，方具威儀，尋光而趨登南嶺，已杳然不及，遂殞身而卒。荼毘安骨於石穴中。

凡藏之締構寺塔，十有餘所，每一興造必有異祥。故蒲塞供填市，不日而成。藏之道具布襪，并大和龍所獻木鴨枕，與釋尊田衣等，合在通度寺。又獻陽縣〈今彥陽〉有鴨遊寺，枕鴨嘗於此現異，故名之。

又有釋圓勝者，先藏西學，而同還桑梓，助弘律部云。

讚曰 曾向清涼夢破迴，七篇三聚一時開。欲令緇素衣慚愧，東國衣冠上國裁。

5-7 원효가 엮매이지 않다

[해제]

신라 불교사상가로 첫손 꼽히는 원효의 전기이다. 이 편의 구성은 문헌 자료로 『송고승전』, 행장 그리고 향전을 참조하였고, 전해 들은 형태로 민간 전승과 옛 기록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사방을 돌아다니며 수행한 이모 저모와 널리 펼친 많은 자취는 『송고승전』과 행장에 갖추어 실려 있으므로 일일이 신지 않는다. 다만 마을에 전해오는 기록에 한두 가지 특이한 일이 있다.”하여 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수행과 교화에 관한 사항은 다른 자료에 양보하였다. 또 지금도 내용 일부가 전하고 있는 「서당화상비」와 고려 때 건립되었다는 「화쟁국사비」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이 편의 구성이 원효의 전기에 대한 온전한 복원보다 원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하는 이야기를 채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해 준다.

원효는 지방에서 태어나 여러 스승을 찾아 배웠고 의상과 함께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그만 두었다. 당시 신라에 소개된 대부분의 경론에 대해 하나하나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를 평가한 ‘종요(宗要)’류의 저술을 펴내고, 더욱 관심이 가는 경론에 대해서는 상세한 주석서를 썼으며, 이들 경론을 총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새로운 불교관을 펼쳤다. 여러 저술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체계화한 일심(一心)사상으로서, 이는 신라불교의 가장 탁월한 성과로 평가된다. 원효는 이러한 사상적인 성과와 더불어 직접 사람들을 만나 불교 신앙을 전하는 대중화 운동에도 앞장서서



경주 분황사

신라 사회에 불교가 널리 알려지는 토대도 마련하였다. 원효는 요석공주와 결혼함으로써 교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 그의 불교 활동은 지속적으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후학들에게 폭넓게 계승되었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역주]

원효가 엮매이지 않다

성사(聖師) 원효(元曉)²⁷⁴⁾의 속성은 설(薛)씨이다. 할아버지는 잉피공

274) 원효(元曉, 617~686): 신라의 고승. 속성은 설씨. 경산에서 태어나 여러 스승을 찾아 배웠고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그만 두었다. 당시 신라에 소개된 대부분의 경론을 탐구하여 하나하나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를 평가한 종요(宗要)류의 저술을 펴내고, 더욱 관심이 가는 경론에 대해서

(仍皮公)인데 적대공(赤大公)이라고도 한다. 지금 적대연(赤大淵) 연못 옆에 잉피공의 사당이 있다. 아버지는 담날(談捺) 나마²⁷⁵⁾이다. 압량군(押梁郡) 남쪽<지금의 장산군(章山郡)²⁷⁶⁾> 불지촌(佛地村) 북쪽의 밤골 사라나무²⁷⁷⁾ 아래에서 태어났다. 마을 이름은 불지(佛地)인데, 발지촌(發智村)이라고도 한다<속어로는 불등을촌(弗等乙村)이라고 한다>.²⁷⁸⁾

는 상세한 주석서를 썼다. 이들 경론을 총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상호 대립적이 아닌 화합의 새로운 불교관을 펼쳤다. 여러 저술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체계화한 일심(一心) 사상으로서, 이는 신라불교의 가장 탁월한 성과로 평가된다. 요석궁주와 결혼하여 설총(薛聰)을 낳고 이후 직접 사람들을 만나 아미타불을 알려 주는 등 대중 교화에 매진하였다. 9세기 초에 그를 기리는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가 세워졌고, 고려 숙종 때 화정(和靜)국사로 추앙되기도 하였다. 주요 저서에는 앞의 세 저술 외에 『화엄경소(華嚴經疏)』·『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법화중요(法華宗要)』·『이장의(二障義)』·『판비량론(判比量論)』 등 80여 종이 있다.

275) 원문의 내말(乃末)은 나마(奈麻)이다. 나마는 신라에서 시행된 관등제의 17관등 중 제 11위 관등으로 5두품 이상 받을 수 있는 관등이다.

276) 압량군(押梁郡)·장산군(章山郡): 지금의 경북 경산시를 말한다. 본래 압독국(押督國)이었는데 102년에 신라 파사왕(婆娑王)에 항복하여 장산군을 설치하였고, 일성왕 13년(136)에 압독이 배반하여 신라가 다시 평정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지마왕(112~134) 때에 군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선덕왕 11년(642)에 압독주를 설치하였다가 무열왕 8년(661)에 압독군으로 하였으며, 경덕왕이 장산군(獐山郡)이라고 고쳤다. 고려 초에 장산군(章山郡)으로 고쳐 일연은 장산이라 주를 달았다. 충선왕대에 왕의 이름을 피휘하여 경산(慶山)이라 하여 지금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277) 사라나무: 사라나무[沙羅樹, *Ṣāla*]는 인도가 원산지로 3월경에 우유틈의 작은 꽃이 피는 아주 큰 나무이다. 석가모니의 생애와 관련하여 여러 전기들은 석가모니가 무우수(無憂樹) 밑에서 태어났고 사라수 밑에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팔리어 경전에는 태어날 때의 나무가 무우수가 아니라 사라나무였다고 한다. 원효의 출생과 사라나무의 연관 설화도 이런 석가모니의 생애를 연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278) 원효가 태어난 곳에 대해서 경산시의 압량면 신월동, 압량면 당음동, 자인면 사

사라나무에 대해서는 속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성사의 집은 본래 이 골짜기의 서남쪽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임신하여 달이 찼을 때 마침 이 골짜기의 밤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갑자기 해산하게 되었다. 매우 급해서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서 남편 옷을 나무에 걸고 그 안에 누워 있었다. 그 때문에 그 나무를 사라나무라고 불렀다.”²⁷⁹⁾고 한다. 그 나무의 열매 또한 보통과 달라서 지금도 사라밤이라고 부른다.

옛부터 이렇게 전해 온다. “옛날에 어떤 절의 주지가 절의 종에게 한 사람당 하루 저녁끼니로 밤 두개씩을 주었더니, 종이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밤을 가져다 조사해보니 밤 한 개가 발우에 가득 찼다. 그래서 도리어 밤을 한 개씩만 주라고 판결하였다. 그 때문에 밤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성사가 이미 출가해서 그 집을 회사하여 절로 만들고 초개사(初開寺)라고 하였으며, 사라나무 곁에 절을 지어 사라사(娑羅寺)라고 하였다.

성사의 행장에는 “서울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할아버지를 따랐기 때문이다. 『송고승전(宋高僧傳)』²⁸⁰⁾에는 “본래 하상주(下湘州) 사람이다”라

라골 사라지, 자인면 북사리 제석사 등 여러 견해가 있다.

279) 원효의 어머니가 사라밤나무 아래에서 옷을 나무에 걸고 해산하였다는 이야기는 석가모니의 탄생설화를 그림으로 그릴 때 나무 주변으로 휘장을 둘러치는 것과 비슷한 구성이다.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해산하기 위해 친정으로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갑자기 해산하게 되었는데 무우수 가지를 붙잡고 석가모니를 낳았다. 후대 사람들이 원효를 석존의 탄생에 견주어 추앙하고자 한 뜻을 찾을 수 있는 설화이다.

280) 『송고승전(宋高僧傳)』: 원문에는 당승전(唐僧傳)이라 하였으나 『송고승전』을 잘못 말한 것이다. 『송고승전』 권4 원효전(元曉傳)에는 “원효는 성이 설씨이며 동해 상주 사람이다(釋元曉 姓薛氏, 東海湘州人也).”라고 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바로 아래 기록에서 일연은 상주(湘州)를 상주(尙州)로 보았다. 『송고승전』은 송의 찬녕(贊寧, 919~1002)이 편찬한 승전으로 『고승전(高僧傳)』, 『속고승

고 하였다. 살펴보면 인덕(麟德) 2년(665년, 문무왕 5년)에 문무왕이 상주(上州)와 하주(下州)의 땅을 나누어 삼랑주(揷良州)를 설치하였다.²⁸¹⁾ 곧 하주는 지금의 창녕군(昌寧郡)²⁸²⁾이다. 압랑군(押梁郡)은 본래 하주에 속해 있던 현이다. 상주는 지금의 상주(尙州)이니²⁸³⁾ 상주(湘州)라고도 한다. 불지촌은 지금의 자인현(慈仁縣)에 속한 곳이니,²⁸⁴⁾ 곧 압랑군에서 나누어진 곳이다.

전(續高僧傳)』과 함께 3대 승전, 혹은 『명고승전(明高僧傳)』과 함께 4대 승전으로 불리는 중요한 사서이다. 찬녕이 982년에 칙명으로 편찬한 것으로, 『속고승전』에 이어 당 정관 연간부터 송 988년까지 이르는 343년간의 고승의 전기를 엮은 것이다. 정전 531인에 부전 125인의 전기를 역경(譯經)·의해(義解)·습선(習禪)·명률(明律)·호법(護法)·감통(感通)·유신(遺身)·독송(讀誦)·흥복(興福)·잡과(雜科)의 10개로 분류하여 30권에 수록하였다.

- 281) 상주(上州)와 하주(下州) : 신라의 지방 행정조직. 경상북도 지역 일대에 상주를 설치하여 중심 고을은 감문주(금릉), 일선주(선산) 등으로 바뀌었으며, 경상남도 지역 일대에 하주를 설치하여 비사벌(창녕), 대야(합천), 압랑(경산) 등으로 중심 고을이 바뀌었다. 665년에 하주의 동쪽 지역인 양산을 중심으로 삼랑주(뒤에 양주)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압랑군은 삼랑주에 속하였다. 『삼국사기』 권34 지리지 양주(良州)에, “문무왕 5년인 인덕 2년에 상주와 하주의 땅을 나누어 삼랑주를 설치하였다(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 下州地, 置揷良州.)”고 하였다.
- 282) 창녕군(昌寧郡) : 경남 창녕군. 555년에 신라가 비화가야(非火加耶)를 정복하고 하주(下州)를 설치하였는데 565년에 하주가 합천으로 옮겨 대야주가 되자 이곳은 비사벌군(比斯伐郡)이 되었고 경덕왕 때 화왕군(火王郡)으로 바뀌었으며, 고려 때 창녕군이 되었다.
- 283) 상주(尙州) : 본래 사벌국(沙伐國)으로서 신라 점해왕이 정복하여 주를 두었다. 법흥왕이 상주(上州)로 삼았고 진흥왕은 주를 없애 상락군(上洛郡)으로 하였으며 신문왕이 다시 사벌주를 설치하였다가 경덕왕 때 상주(尙州)가 되었고 혜공왕 때 다시 사벌주가 되었다. 『삼국사기』 권34 지리지)
- 284) 자인현(慈仁縣) : 지금의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고려사』 권57 지리지에 “자인현은 본래 신라의 노사화현(奴斯火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자인현으로 고쳤고, 장산군의 영현이 되었는데, 고려 현종 때 경주의 속현이 되었다(慈仁縣 本新羅奴斯火縣, 景德王改今名, 爲璋山郡領縣. 顯宗九年來屬.)”고 하였다.

성사가 태어나니 어릴 때 이름은 서당(誓堂)²⁸⁵⁾이고 집 이름은 신당(新幢)이다(당은 속어로 털을 말한다). 처음에 어머니가 유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그로 인해 임신하였다. 해산하려 할 때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으니, 진평왕(眞平王)²⁸⁶⁾ 39년(617)으로 대업(大業)²⁸⁷⁾ 13년 정축년이었다. 나면서 총명함이 남달랐고 배움에 일정한 스승을 따르지 않았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수행한 이모저모와 널리 펼친 많은 자취는 『송고승전』과 행장에 갖추어 실려 있으므로 일일이 신지 않는다. 다만 마을에 전해오는 기록에 한두 가지 특이한 일이 있다.

元曉不羈

聖師元曉，俗姓薛氏。祖仍皮公，亦云赤大公。今赤大淵側，有仍皮公廟。父談捺乃末。初示生于押梁郡南(今章山郡)佛地村北栗谷 裴羅樹下。村名佛地，或作發智村(但云弗等乙村)。裴羅樹者，諺云，“師之家本住此谷西南，母既娠而月滿，適過此谷栗樹下，忽分產。而倉皇不能歸家，且以夫衣掛樹，而寢處其中，因號樹曰裴羅樹。”其樹之實，亦異於常，至今稱裴羅栗。古傳，“昔有主寺者，給寺奴一人，一夕饌栗二枚，奴訟于官。官吏怪之，取栗檢之，一枚盈一鉢，乃反自判給一枚。故因名栗谷。”師既出家，捨其宅爲寺，名初開，樹之旁置寺曰裴羅。

285) 서당(誓幢) : 원효의 어릴 때 이름인데, 승려 시절의 대표적인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세기 전반에 원효를 기리는 비를 세울 때 이름이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인 것이 이를 말해 준다.

286) 진평왕(眞平王) : 신라 제26대 왕. 재위 579~632년. 5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재위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원광(圓光)·담육(曇育) 등의 명승을 중국에 보내어 수학하게 하는 등 불교를 진흥시키고 문물을 수용하였다. 5-1 주13) 참조.

287) 대업(大業) : 수 양제(楊帝)의 연호. 605~617년.

師之行狀云, “是京師人”, 從祖考也. 唐僧傳云, “本下湘州之人”. 按麟德二年間, 文武王割上州下州之地, 置插良州. 則下州, 乃今之昌寧郡也. 押梁郡本下州之屬縣. 上州則今尙州, 亦作湘州也. 佛地村今屬慈仁縣, 則乃押梁之所分開也.

師生小名誓幢, 第名新幢(幢者俗云毛也). 初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 有五色雲覆地. 眞平王三十九年 大業十三年丁丑歲也. 生而穎異, 學不從師. 其遊方始末, 弘通茂跡, 具載唐傳與行狀, 不可具載. 唯鄉傳所記, 有一二段異事.

성사가 일찍이 어느 날 길거리를 바람처럼 떠돌며 노래를 불렀다.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주겠나.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다듬으려네.”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했는데, 그 때 태종(太宗)²⁸⁸이 이 노래를 듣고 말하였다.

“이 스님이 아마 귀부인을 얻어서 훌륭한 아이를 낳고 싶은 모양이다.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로움이 매우 클 것이다.”

그때 요석궁(瑤石宮)²⁸⁹〈지금의 학원(學院)이 이곳이다〉에 홀로 사는 공주가

288) 태종(太宗): 신라 제29대 왕인 태종 무열왕(武烈王), 603~661년. 재위 654~661년. 아버지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金龍春)이고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天明)부인이다. 왕비는 김서현(金舒玄)의 딸이자 김유신(金庾信)의 누이인 문명(文明)왕후이고, 그 사이에 문무왕과 김인문(金仁問) 등 여러 아들을 낳았다. 신라 사회가 무열왕에서부터 ‘상대(上代)’에서 ‘중대(中代)’로 바뀐다. 무열왕대에 백제를, 그리고 이어 문무왕대에 고구려를 패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이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후 대체로 무열왕의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중대의 번영기를 누리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89) 요석궁(瑤石宮): 지금의 경주 월성 서쪽에 있던 궁궐터. 요석궁의 공주는 대체로 무열왕의 딸로 알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경

있었다. 궁중의 관리에게 명을 내려 원효대사를 찾아 맞아들이게 하였다. 궁중의 관리가 왕명을 받들어 대사를 찾아 나섰더니 이미 남산(南山)²⁹⁰⁾에서 와서 문천교(蚊川橋)²⁹¹⁾〈사천(沙川)이다. 사람들은 새내 또는 모기내²⁹²⁾라고 한다. 또한 다리 이름을 느릅다리²⁹³⁾라고 한다.〉를 지나다 관리를 만났다. 일부러 물에 떨어져 옷이 젖게 되어, 관리가 대사를 궁으로 데려가서 승복을 말리게 하였기 때문에 머물러 자게 되었다. 공주는 과연 임신하여 설총(薛聰)²⁹⁴⁾

주 고적조에 “요석궁터는 경주부에서 남쪽 3리에 있던 향교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 290) 남산(南山): 경주시 남쪽에 있는 남산을 말한다. 경주시 남쪽에 금오산과 고위산의 두 봉우리를 잇는 산으로 남북 8km 동서 4km의 타원형을 하고 있다. 신라 4 영지의 하나로 곳곳에 유적이 많다. 동 남 서쪽에 모두 34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각각 수십개씩의 절터와 석탑, 석불, 마애불 등이 산재해 있다. 신라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지로부터 불교 수용 이후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이 만들어져 이곳에 불국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291) 문천교(蚊川橋): 경주 시내의 월성 남쪽을 흐르는 남천에 있던, 지금 월정교(月精橋)라고 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이다. 근래의 발굴 조사에 의해 월정교의 자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 292) 사천(沙川) 새내(年川) 모기내(蚊川): 모두 경주의 남쪽을 흐르는 남천을 가리키는 말이다.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경주 시내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새내라고 하였는데, 이 표기를 사천(沙川) 또는 연천(年川)으로 하였다. 연천은 해→새의 변화에 따라 표기한 새내의 다른 표기이다. 반월성 남쪽을 돌아흐르기 때문에 지금은 남천이라고 한다.
- 293) 느릅다리(榆橋):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 고적조에, “다리는 (요석)궁터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 294) 설총(薛聰): 원효와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일찍부터 경전과 사서에 정통하여 구경(九經)을 우리말로 읽어 후생들을 가르쳐 유학의 종주(宗主)가 되었다고 『삼국사기』에서 평가한 신라의 대학자이다. 향찰을 집대성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한문과 유학 연구를 진전시켰다.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여러 꽃을 들어 왕이 정치를 잘하도록 풍자하였다고 한다. 신라 십현(十賢)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았으며, 고려 때 홍유후(弘儒侯)라고 추증하여 유학에 공헌한 첫번째 인물로 꼽혔다.

을 낳았다. 설총은 나면서부터 영민하여 경전과 역사에 두루 통하였으니, 신라 십현(十賢)²⁹⁵⁾의 한 사람이었다. 우리말로 중국과 주변의 풍속과 물건 이름을 알게 하였으며 육경(六經)²⁹⁶⁾과 문학을 풀이하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이들이 이어받아 끊이지 않는다.

원효가 이미 계를 잃고 설총을 낳은 뒤로는 속인의 옷으로 갈아 입고 스스로 소성(小姓)거사라고 불렀다. 우연히 광대들이 춤추고 노는 커다란 박을 얻었는데, 그 생김새가 크고 기이하였다.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고 『화엄경(華嚴經)』²⁹⁷⁾의 “일체에 걸림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²⁹⁸⁾라는 구절에 따라 ‘무애(無碍)’라고 이름짓고, 이에 노래를 만들어

295) 신라 십현(十賢): 『三國史記』 열전에 강수(强首)·최치원(崔致遠)·설총의 전기가 실려 있고, 다음에 최승우(崔承祐)·최언위(崔彦擧)·김대문(金大問)·박인범(朴仁範)·원결(元傑)·왕거인(王巨人)·김운경(金雲卿)·김수훈(金垂訓)의 이름이 실려 있다.

296) 육경(六經):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고전 여섯 가지를 말한다. 즉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춘추(春秋)·예기(禮記)·악기(樂記)이다.

297) 화엄경(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석존이 깨달은 지 이칠일째에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자나불을 설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이라 한다. 내용은 부처가 되는 인행(因行)과 과덕(果德)을 설한 것으로 십지(十地)를 비롯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 수행 계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부인 입법계품은 선재동자 보살행을 묻고자 53선지식을 찾아 구도 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번역본은 60권본, 80권본, 40권본의 세 가지가 있다. 5-6 주242) 참조.

298) 『화엄경』(60권본) 권5 사제품(四諦品)(大9 p.429b18~21)에서 문수사리의 “모든 부처가 오직 일승으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지금의 모든 세상은 일마다 같지 않은가(一切諸佛, 唯一一乘, 得出生死, 云何今見一切佛刹, 事事不同.)”라고 묻자, 이에 대해 현수보살이 답한 계승의 일부분이다.(大9 p.429b 文殊法常爾, 法王唯一法,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一切諸佛身, 唯一一法身, 一心一智慧, 力無畏亦然.) 중국 정토사상가 담란(曇鸞)도 『정토론주(淨土論註)』 권하에서 “시방에 걸림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大40 p.843c20. 十方無碍人, 一道

세상에 퍼지게 하였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시를 지으며 다녀, 가난한 사람과²⁹⁹⁾ 어리석은 무리들이³⁰⁰⁾ 다들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모두 나무(南無)를 부르게 하였으니, 원효대사의 교화가 컸다.

師嘗一日風顛唱街云,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人皆未喻, 時太宗聞之曰, “此師殆欲得貴婦, 產賢子之謂也. 國有大賢, 利莫大焉.” 時瑤石宮〈今學院是也〉有寡公主, 勅宮吏覓曉引入. 宮吏奉勅將求之, 已自南山, 來過蚊川橋〈沙川. 俗云年川, 又蚊川. 又橋名榆橋也〉遇之. 佯墮水中, 濕衣袴, 吏引師於宮, 緇衣曬晾, 因留宿焉. 公主果有娠, 生薛聰.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 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絕.

曉旣失戒生聰, 已後易俗服, 自號小姓居士. 偶得優人舞弄大瓠, 其狀瑰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經 “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 命名曰 “無礙”,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獼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태어난 마을 이름인 불지촌과 절 이름인 초개사와 스스로 원효라고 부른 것은 모두 처음으로 부처를 빛나게 하였다는 의미이다. 원효라는 말도 방

出生死.)”고 하였다.

299) 상추옹유(桑樞瓮牖)는 뽕나무로 대문을 만들고 옹기로 창문을 만든다는 뜻으로 매우 가난한 것을 말한다.(『莊子』讓王篇 “原憲居魯, 環堵之室, 茨以生草, 蓬戶不完, 桑以爲樞, 而甕牖二室, 褐以爲塞, 上漏下濕, 匡坐而弦.”)

300) 확후지배(獼猴之輩)는 원숭이의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없어 무지몽매한 이들을 말한다.

언인테, 당시 사람들이 모두 사투리로 첫새벽을 이른 것이었다. 일찍이 분황사(芬皇寺)³⁰¹⁾에서 지낼 때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짓다가 제14 십회향품(十迴向品)에 이르러 마침내 붓을 꺾고 말았다.³⁰²⁾ 또 일찍이 다툼 때문에 백 그루의 소나무로 몸을 나누었으므로 다들 수행의 단계가 초지(初地)라고 하였다.³⁰³⁾ 또한 해룡(海龍)의 권유로 길거리에서 왕명을 받들어 『금강삼매경소(金剛三昧經疏)』³⁰⁴⁾를 짓는데 소의 두 뿔 위에 붓과 벼루를 두

301) 분황사(芬皇寺):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절.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되었다. 신라에 옛 부처 때의 인연 있는 일곱 절터 중의 하나로 꼽혔던 중요한 절이다. 자장이 귀국하자 머물게 했던 절이며, 7세기 중반에 원효가 활동하며 『화엄경소』를 지었다. 경덕왕 때인 755년에 30만근이 넘는 거대한 동체 약사여래상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이름난 화가 솔거(率居)가 그린 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 등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유적이 있던 유서 깊은 절이다. 5-1 주 51) 참조.

302) 원문에는 제4 십회향품이라 하였으나 제14 십회향품의 잘못이다. (60권본)『화엄경』은 권14~권22에 걸쳐 제21품인 십회향품이 실해졌다. 십회향은 보살이 수행하는 52위 중에서 31위부터 40위까지로서, 지금까지 수행한 공덕을 일체 중생을 위해 돌려주고 이 공덕으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지위이다. 여기서 절필했다는 원효의 『화엄경소』는 처음에 8권이었는데, 이를 고려 때 의천이 『화엄종요』와 합쳐서 10권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서와 권3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하지 않는다.

303) (60권본)『화엄경』 권23 십지품 제22-1(『大正藏』9-547중)에 초지보살이 출가하면 능히 백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고 백 겁의 일을 다 알고 백 가지 범문에 들어가며, “능히 백으로 변신하여 하나하나의 몸에 백 보살을 나타내보여 권속으로 삼는다(能變身爲百, 於一身, 能示百菩薩, 以爲眷屬)”고 하였다. 초지는 보살 십지의 첫 단계로서, 보살 52위 중에서는 41위가 된다. 초지인 환희지(歡喜地)에 들어가자마자 보살은 범부지(凡夫地)를 초월한 자가 되어 보살의 확정된 자리에 들어가 깨달음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는 중요한 지위임을 강조한다.

304) 『금강삼매경소』: 원효가 지은 『금강삼매경』의 주석서. 이 저술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여 흔히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이라고 격을 높여 부른다. 『금강삼매경』은 7세기에 신라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책으로서 스스로 모든 경전의 요점을 포함하고 있는 법 중의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의 중심사상은 반야

었기 때문에 각승(角乘)이라고 하였으니, 본각(本覺) 시각(始覺)³⁰⁵⁾의 미묘한 뜻을 나타낸 것이다. 대안(大安)법사³⁰⁶⁾가 순서대로 배열하여 종이를 붙였으니 또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³⁰⁷⁾이 화답한 것이다.

이미 입적한 후에 설총이 유해를 부수어 진용(眞容)을 빚어 분황사에 안

공관(般若空觀)사상으로 파악되며, 원효가 지은 『금강삼매경론』은 일체법이 오로지 일심(一心)이며 일체중생이 하나의 본각인 일각(一覺)임을 강조하여 일심사상의 실천원리인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이치를 서술하고 있다.

305) 본각(本覺) 시각(始覺): 수행에 의해 번뇌를 차례로 제거하여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것을 시각(始覺)이라 하고, 모든 중생은 본성이 청정하여 본래부터 깨달음의 상태라는 것이 본각(本覺)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심생멸문에서 본각과 시각의 구별이 생긴다고 본다. 진여가 무명의 연을 만나 미혹하게 되면 마음은 혼미해져서 깨달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불각(不覺)이다. 그러나 본성의 작용은 청정하여 본래가 깨달음 그것이기 때문에 본각이다. 불각이 본각 안의 작용과 교법 밖의 연에 의해 차례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시각이라 한다. 시각은 수행자의 단계에 따라 불각, 상사각(相似覺), 수분각(隨分覺), 구경각(究竟覺)으로 나누고, 결국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절대 평등의 대각에 도달한다고 한다. 『송고승전』 원효전에서는 『금강삼매경』이 본각과 시각을 종지로 삼는 것이어서, 소가 끄는 수레의 두 뿔 사이에 붓과 버루를 두게 하여 소 5권을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306) 대안(大安): 7세기에 활동한 신라의 승려.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항상 시장에서 구리그릇을 두드리며 “대안, 대안” 하고 다녔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신라 왕비가 병이 나서 바다 속 용궁에 들어가 『금강삼매경』을 구해 왔는데, 용궁에서 이 경은 대안 성자가 뒤섞인 순서를 바로 맞추고 원효가 해석서를 풀어 강의하면 왕비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대안에게 경전을 맞추라고 명하자 대안은 궁궐에는 들어가지 않고 경전만 맞추겠다고 하여 8품으로 완성하였다. 대안은 원효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며 원효에게 빨리 가져가도록 하였고, 원효는 이를 받아 명작 『금강삼매경론』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송고승전』 권4 元曉傳). 이와 같은 전승은 대안이 교단불교와는 거리를 두고 활동하던 대중 포교 활동가였으며, 새로운 교학에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307) 지음(知音):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의 일화에서 나온 말로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를 말한다. (『列子』, “伯牙鼓琴 志在高山 鍾子期曰 峨峨兮若泰山…… 子期死 伯牙絕絃 以無知音者”)

치하여³⁰⁸⁾ 돌아가심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뜻을 나타냈다. 설총이 그때 옆에서 예를 올리니 상이 갑자기 돌아보았는데, 지금까지도 돌아본 채로 있다. 원효가 일찍이 살던 혈사(穴寺) 옆에 설총의 집터가 있다고 한다.

찬한다.

각승은 처음으로 금강삼매경을 열고,

춤추는 박은 끝내 온 거리의 노래에 걸렸네.

달 밝은 요석궁에서 봄잠을 자고 가니,

문 닫힌 분황사에 돌아보는 그림자만 비었구나.

其生緣之村名佛地，寺名初開，自稱元曉者，皆初輝佛日之意也。元曉亦是方言也，當時人皆以鄉言稱之始旦也。曾住芬皇寺，纂華嚴疏，至第四十迴向品，終乃絕筆。又嘗因訟，分軀於百松，故皆謂位階初地矣。亦因海龍之誘，承詔於路上，撰三昧經疏，置筆硯於牛之兩角上，因謂之角乘，亦表本始二覺之微旨也。大安法師排來而粘紙，亦知音唱和也。旣入寂，聰碎遺骸，塑眞容，安芬皇寺，以表敬慕終天之志。聰時旁禮，像忽廻顧，至今猶顧矣。曉嘗所居穴寺旁，有聰家之墟云。

讚曰 角乘初開三昧軸，舞壺終掛萬街風。月明瑤石春眠去，門掩芬皇顧影空。

308) 유해를 가루로 만들어 소상을 빚어 추모하는 것은 신라 탈해왕에게서도 볼 수 있다. 『삼국유사』 권1 탈해왕조에는 탈해왕이 죽자 소천구(疏川丘)에 장례지냈는데, 유해를 부수어 소상(塑像)을 만들어 궁궐 안에 두었다가 다시 동악 곧 토함산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사의 주석에 죽은지 한참 지난 680년에 뼈를 파내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원효가 죽은 686년과 얼마 멀지 않는 시기이다.

5-8 의상이 교학을 전하다

[해제]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인 의상의 전기를 엮은 글이다. 의상은 삼국통일기를 살면서 획기적인 교학 발전과 대중화를 이룬 통일신라 불교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사상적으로 법계언기를 중심으로 한 신라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화엄종 종단을 이룩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교단을 중심으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선도하여 대중화에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자료는 『삼국유사』의 일반적인 편찬 예와 같이 최치원이 지은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을 토대로 하면서 이와 다른 자료들을 묶어 한 편을 이루었다. 가계, 출가, 입당, 지엄의 현몽, 화엄 수학과 귀국, 부석사 창건, 현수서간, 십찰, 저서, 십제자, 제자들의 활동, 특이한 행적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몰년조차 기록하지 않아 이 자체로는 의상의 온전한 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송고승전』 「의상전」은 가계, 출가, 입당시의 원효 고사, 등주의 선묘 인연, 지엄에게 수학, 귀국시의 선묘 인연, 부석사 창건과 선묘, 국왕의 전장시주 거부, 제자, 생활태도, 제자수련, 제자 저술, 입적 순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구성 체계는 유사하지만 수록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본래 『삼국유사』 자체가 최치원의 「부석본전」과 『송고승전』을 염두에 두고 이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골라 엮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연은 당시에 의상의 전기로 정착되어 있던 「부석존자전」을 염두에 두면서 화엄사상을 신라에 수용하여 화엄종을 떠나간 것을 의상의 주요한 업적으로 평가하



소백산 부석사

여 이 편을 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삼국유사』 「의상전교」는 『송고승전』 「의상전」과 더불어 의상의 생애를 추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삼국유사』 권3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 끝부분에 무극(無極)이 추가 인용한 「부석본비(浮石本碑)」에는 생애의 주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상호 비교된다.

[역주]

의상이 교학을 전하다³⁰⁹⁾

법사 의상(義湘)³¹⁰⁾은 부친이 한신(韓信)이고 성은 김씨이다.³¹¹⁾ 29세에

309) 의상의 전기는 『송고승전』 권4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에도 실려 있는데, 주요 내용이 다르다. 『삼국유사』 권3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 끝부분에는 무극(無極)이 「부석본비(浮石本碑)」를 인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주요 사

경주 황복사(皇福寺)³¹²⁾에서 삭발하였다.³¹³⁾ 얼마 후 중국의 교회를 보러

실에 대한 명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 310) 의상의 이름은 의상(義相, 의상 제자들의 기록인 『법계도기충수록』, 신라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고려 균여의 『법계도원통기』, 고려의 「원융국사비문」, 「균여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 의상(義湘, 『송고승전』, 『삼국유사』), 의상(義想, 신라 최치원의 「법장화상전」, 고려의 「법인국사비문」, 고려 의천의 『원종문류』와 『대각국사문집』 등) 등 여러 표기가 있다. 이곳 『삼국유사』에서는 『송고승전』을 계승하여 의상(義湘)을 채용하였는데, 직계 제자들의 기술과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의상(義相)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상(義相, 625~702)은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이다. 황복사에서 출가한 후 당에 유학하여 지엄에게서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지어 일(一)과 다(多)가 걸림 없이 거듭 전개되는 법계연기 사상을 정립하였다. 귀국한 후 부석사(浮石寺)를 비롯한 여러 절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과 화엄사상을 연마하고 정진하며 화엄종을 펴 나갔다. 한편으로 교단에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선도하여 사람들이 불교 신앙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들이 확장하여 창건하고 운영한 화엄 십찰은 통일신라 불교계의 중추를 이루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일승법계도』 외에 『아미타경의기』가 저술로 알려졌고, 「백화도량발원문」 등 의상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저술이 몇 개 있지만 저술은 많지 않다. 지통(智通) 진정(眞定) 도신(道身) 표훈(表訓) 등 여러 뛰어난 제자가 있다.
- 311) 『송고승전』 「의상전」에서는 의상의 성을 박씨(朴氏)라고 하였다.
- 312) 황복사(皇福寺) : 경북 경주시 구황동(九黃洞) 낭산(狼山) 기슭에 있던 절. 현재 삼층탑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 금당지, 귀부 등 절터 유적이 일부 남아 있다. 692년에 신문왕비 신목왕후(神睦王后)와 신문왕의 아들 효소왕(孝昭王)이 돌아간 전왕 신문왕(神文王)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삼층석탑을 조성하고, 706년에는 신문왕의 아들이자 효소왕의 아우인 성덕왕(聖德王)이 돌아간 신문왕, 신목왕후, 효소왕을 위해 순금제 미타상을 조성하여 탑 안에 안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 사리함기(舍利函記)를 남겼다. 신라말에 경명왕(景明王)이 돌아가자 황복사에서 화장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 권1 왕력 景明王) 의상은 귀국 후에도 674년에 황복사에서 진정, 표훈 등의 제자들에게 『법계도』를 강의하였다. (『法界圖記叢髓錄』 권상1 ; 上元元年 表訓眞定等十餘德, 從和尚所, 學法界圖印於皇福寺)
- 313) 「부석분비」에서는 「관세출가(卍歲出家)」라 하여 20세 전후에 출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고승전』에는 「장이출리(長而出離)하여 불법의 길에 들어섰고 약관(弱冠)의 나이에 원효와 함께 당에 가기를 시도하였다」고 하여 20세 이전의 나

고 마침내 원효(元曉)³¹⁴⁾와 함께 요동으로 가다가 변방의 군사에게 첩자로 붙들려 수십일간 붙잡혀 있다 겨우 빠져나와 돌아왔다.³¹⁵⁾〈이 일은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본전(本傳)과³¹⁶⁾ 원효의 행장에 등에 있다〉

영휘(永徽)³¹⁷⁾ 초년에 마침 당나라 사신이 돌아가는 배를 얻어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³¹⁸⁾ 처음에 양주(揚州)³¹⁹⁾에 머물렀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이에 출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4) 원효(元曉) : 617~686. 신라 불교철학을 정립한 고승. 당시 중요한 여러 경론에 대해 모두 그 대의를 파악하고 저술을 남겼으며, 『대승기신론소』과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일심(一心)사상을 중심으로 불교 교학을 총괄하여 불교철학의 높은 수준을 이룩하고 정토신앙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태종의 딸인 요석궁 공주와 결혼하여 설총(薛聰)을 낳았는데, 설총은 유학자로 큰 활동을 하였다. 5-7 주274) 참조.

315) 「부석본비」에는 원효와 함께 했던 이 첫번째 입당 시도를 650년(永徽元年庚戌)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고구려에 이르러 어려움이 있어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송고승전』에는 바닷가 당주(唐州) 경계에 이르러 억센 비를 만나 옛무덤 인줄 모르고 길가 흙집(土龕)에서 몸을 피한 일을 겪고 원효는 깨침을 얻어 돌아오고 의상만 홀로 중국 등주(登州)로 건너갔으니 이 해가 669년(總章二年)이라고 하였다.

316) 최치원이 지은 본전 : 최치원(崔致遠)이 신라 말에 지은 의상의 전기로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이 원 이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내용은 남아 있지 않고 일부만 『삼국유사』 권3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 고려 초에 균여가 의상의 『법계도』를 해석한 『법계도원통기(法界圖圓通記)』, 고려 각훈이 지은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권2 「석안함(釋安含)」 등에 전한다.

317) 영휘(永徽) : 당 고종(高宗)의 연호, 650~655년.

318) 「부석본비」에는 661년(龍朔元年辛酉)에 당에 들어갔다고 하였고, 『송고승전』에는 669년(總章二年)에 상선을 타고 등주(登州) 해안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생애의 기록은 「부석본비」가 가장 타당성이 있으므로 661년으로 본다. 669년은 의상이 귀국하기 바로 전이라 맞지 않는다.

319) 양주(揚州) : 중국 강소성(江蘇省) 중부, 양자강(揚子江)의 북안에 가깝고 대운하에 임해 있는 도시. 대운하 제일의 요충으로 강남 물자의 대집산지이다. 당나라 때 양주도호부를 설치하였고, 양쯔강의 하구에 가까워 외국무역항으로 발전하

유지인(劉至仁)이 관아 안으로 초빙하여 머무르게 하며 풍족하게 대접하였다.³²⁰⁾ 조금 있다가 종남산(終南山)³²¹⁾ 지상사(至相寺)³²²⁾에 가서 지엄(智儼)³²³⁾을 배알하였다. 지엄의 전날 꿈에 큰 나무 하나가 해동에서 나서 그 가지와 잎이 널리 퍼져 중국³²⁴⁾까지 덮었는데, 그 위에 봉황의 둥지가 있어 올라가 보니 마니보주(摩尼寶珠)³²⁵⁾ 하나가 있고 광명이 멀리까지 미

여 아라비아 상인도 다수 왕래하였다. 당나라 말기 황소(黃巢)의 난으로 황폐되었다가 오대 시대에 오(吳)나라의 도읍인 강도부(江都府)가 되었고, 송나라 때는 양주부(揚州府)가 설치되었다.

- 320) 『송고승전』에는 산둥(山東)반도에 있는 등주(登州)에 도착하여 마을에 탁발을 갔는데, 집주인이 의상의 용모가 수려한 것을 보고 오래 머물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선묘(善妙)라는 여인이 의상을 사모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 321) 종남산(終南山):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서안(西安) 남쪽에 있는 높이 2604m의 산. 당대 불교의 중심지로 도선(道宣), 지엄(智儼), 종밀(宗密)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하였고 계율종,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선종 등이 성행했던 수당대 중국불교의 중심지였다. 5-6 주204) 참조.
- 322) 지상사(至相寺): 중국 섬서성 서안시 장안구 남쪽의 종남산에 있던 절로 수대에 정언이 창건하였다 한다. 지엄(智儼)이 이곳에 주석하여 법림(法琳)과 지정(智正)을 따라 화엄을 배워 화엄종의 토대를 닦은 곳이며, 이 때문에 지엄을 지상대사(至相大師)로 부르기도 한다. 의상과 법장이 이곳에서 지엄에게 화엄을 배웠다. 근래에 복원하여 사찰 규모를 갖추었다.
- 323) 지엄(智儼, 602~668):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 지상대사(至相大師) 또는 운화존자(雲華尊者)로 불린다. 신라의 의상과 중국의 법장의 스승으로서 화엄종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두순(杜順)을 따라 두순의 제자인 달(達)법사에게 배우고 법상(法常)과 지정(智正)에게 교학을 연마하였다. 화엄경을 차례대로 해석한 『수현기(搜玄記)』,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은 『공목장(孔目章)』 『오십요문답(五十要問答)』 등을 저술하여 중국 화엄종의 기반을 이루고 그를 이어 법장이 대성하도록 한 인물이다.
- 324) 신주(神州)는 중국인이 자신의 나라를 말할 때 쓰는 말이다.
- 325) 마니보주(摩尼寶珠): 마니(摩尼, 𑖦𑖅 māni), 마니주(摩尼珠)라고도 하며 보배구슬의 총칭이다. 『玄應音義』 권1) 불행과 재난을 없애주고 흐린 물을 청정하게 하는 덕이 있다고 한다. 여의주(如意珠, 𑖦𑖅 citta-māni)도 마니보주로 번역하는

쳤다. 꿈을 깨고는 놀라서 청소를 하고 기다렸더니 의상이 도착하였다. 특별한 예로 맞아들이고 조용히 이르기를, “내 어제 꿈이 그대가 나에게 올 징조였구나” 하고는 입실(入室)을 허락하였다. (의상이) 화엄경의³²⁶⁾ 미묘한 뜻을 깊게 파헤치자 지엄이 뛰어난 인재를³²⁷⁾ 만난 것을 기뻐하였다. 새로운 이치를 드러내고 깊고 은밀한 이치를 찾아내³²⁸⁾ 남초와 천초가 본래 색깔보다 나아지듯 스승보다 낮게 되었다.³²⁹⁾

얼마 뒤에 신라 승상 김흠순(金欽純)³³⁰⁾이<혹은 김인문(金仁問)³³¹⁾이라고도

데, (『圓覺大抄』 권1하) 이는 용왕의 뇌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제석천의 소유이던 것이 부서져 떨어졌다고도 하며 부처의 사리가 변한 것이라고도 한다. 천수관음(千手觀音)의 40개의 손 가운데 일정마니(日精摩尼)와 월정마니(月精摩尼)가 있는데, 이는 뜨거운 고저를 없애고 청량함을 주는 덕이 있다고 한다.

326) 잡화(雜花)는 『화엄경』을 말한다. 『화엄경』의 뒷부분인 입법계품(入法界品)의 산스크리트본 gaṇḍavyūha를 뜻에 따라 번역하면 여러 가지 꽃(雜花)과 엄숙하게 꾸밈(嚴飾)이 된다. 그래서 『화엄경』을 잡화라고도 말한다. 화엄경(華嚴經)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석존이 깨달은 지 이칠일제에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자나불을 설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이라 한다. 내용은 부처가 되는 인행(因行)과 과덕(果德)을 설한 것으로 십지(十地)를 비롯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 수행 계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부인 입법계품은 선재동자 보살행을 묻고자 53선지식을 찾아 구도 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번역본은 60권본, 80권본, 40권본의 세 가지가 있다. 5-6 주68) 참조.

327) 영질(郢質)은 학문과 문자를 서로 질의할 만한 상대자를 말한다. (『莊子』 郢人墮漫其鼻端 若蠅翼使匠石斲之 匠石運動成風 聽而之盡墮而鼻不傷)

328) 구심색은(鉤深索隱)은 심오하고 은밀한 사물의 이치를 찾아냄을 말한다. (『易經』 繫辭, 探蹟索隱 鉤深致遠)

329) 남천저본색(藍茜沮本色)은 물들이는데 쓰는 쪽이나 쪽두서니가 물들이고 나면 본래 색보다 더 진하게 된다는 데서 나온 말로서 원래보다 더 나아짐을 말한다. 여기서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을 말한다. 청람(靑藍) 곧 푸른색이 쪽에서 나오지만 원래의 쪽보다 더 푸르다(靑出於藍而靑於藍)는 것과 같은 뜻이다.

한다> 김양도(金良圖)³³²⁾ 등과 함께 당나라³³³⁾에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고종(高宗)³³⁴⁾이 대군을 일으켜 신라를 치려 하자 흠순 등이 몰래 사람을 보

-
- 330) 김흠순(金欽純)은 김양도(金良圖)와 함께 문무왕 9년(669) 5월에 백제와 고구려 패망 후 신라와 당 사이에 생긴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에 갔는데(『삼국사기』 권6 문무왕 9년) 당은 다음 해(670) 정월에 김흠순만 귀국을 허락하고 김양도는 머물러 있게 하였다. 김흠순은 이해 7월에 국경구획도를 가지고 귀국했다.(『삼국사기』 권6 문무왕 11년 당에 보낸 답서) 김흠순은 김유신의 아우로 김흠춘(金欽春)이라고도 한다. 진평왕 때 화랑이었으며 문무왕 8년 고구려와의 싸움에 김인문 김양도 등과 함께 대당총관(大幢總管)으로 참전하는 등 여러 차례 전쟁에 나섰고, 당과의 외교에도 활약하는 등 문무왕 때 크게 활약하여 최고위인 각간의 관등에 올랐다.(『삼국유사』 권1 기이 김유신 ; 『삼국사기』 신라본기 참조)
- 331) 김흠순은 670년 정월에 귀국했으므로 일연이 주석에서 제시한 견해처럼 계속 당에 숙위(宿衛)하던 김인문이 맞다. 『삼국유사』 권2 「문호왕법민」에도 김인문으로 되어 있다. 김인문(金仁問, 629~694)은 문무왕이 된 태자 법민(法敏)의 다름가는 태종의 둘째 왕자로 7차례나 당에 들어가 숙위하며 대당 외교를 담당하였다. 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당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고구려 패망 이후에는 악화된 신라와 당과의 사이에서 674년에 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신라왕으로 임명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결국 당에서 죽었다.(『삼국사기』 권44 열전 김인문)
- 332) 김양도(金良圖, ?~670) : 신라가 백제 및 고구려와 벌인 전쟁에 아찬 관등의 부장군(副將軍), 대아찬의 장군(將軍) 직책으로 출전하였고, 6차례 입당하여 활동하며 외교 활동을 하다 669년 김흠순과 함께 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죽었으며 문장에 뛰어났다.(『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 ; 『삼국사기』 권44 열전 김인문) 불교를 깊이 믿어 어릴 때 갑자기 말을 못하고 전신이 마비되어 밀교의 고승 밀본(密本)을 청해다 나온 일도 있고(『삼국유사』 권5 「밀본최사」) 두 딸 화보(花寶)와 연보(蓮寶)를 흥륜사(興輪寺)에 사신(捨身)하여 절의 노비로 삼기도 하였다.(『삼국유사』 권3 「원종흥법위촉멸신」)
- 333) 당(唐)나라 : 618년 이연(李淵)이 건국하여 907년에 멸망한 중국의 왕조. 290년간 20대의 황제가 왕위를 이어 지속되었다. 남북조의 오랜 분열시대를 통일한 수나라가 39여 년만에 멸망하고 뒤이은 왕조로서 세계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중국의 성세를 이루었다. 당이 이룩한 문물과 제도는 동아시아 문화의 전형이 되어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내 의상에게 알려주고 먼저 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함형(咸亨)³³⁵⁾ 원년 경오년(670)에 본국에 돌아와서³³⁶⁾ 조정에 사정을 알렸다. 이에 신인(神印)³³⁷⁾ 대덕(大德)³³⁸⁾ 인 명랑(明朗)³³⁹⁾에게 밀교의 단법(壇法)³⁴⁰⁾을 임시로 개설하게 하여 (담을)물리쳐 신라는 위기를 면하였다.³⁴¹⁾

義湘傳教

法師義湘，考曰韓信，金氏。年二十九，依京師皇福寺落髮。未幾西圖觀化，遂與元曉，道出遼東，邊戍邏之爲謀者，囚閉者累旬，僅免而還。〈事在崔侯本傳及曉師行狀等〉

334) 고종(高宗) : 당의 제3대 왕. 재위 650~683년.

335) 함형(咸亨)은 당 고종의 연호, 670~673년. 원문의 향(亨)은 형(亨)의 잘못이다.

336) 「부석본비」에는 함형 2년(671)에 귀국했다고 하였다고 하여 이곳과 1년의 차이가 있다.

337) 신인(神印) : 무드라(Ṣ mudra, 文豆婁). 여기서는 밀교를 지칭한다. 신라 문무왕 때 명랑(明朗)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종단이다.

338) 대덕(大德) : 높은 덕행이 있는 고승에 대한 존칭. 중국이나 신라에서 승려의 직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신라에서는 왕이 천거하여 7년 임기로 활동하였는데, 화엄종과 법상종에 두었다고 하였다. (崔致遠, 「海印寺善安住院壁記」 및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pp.89~98 참조)

339) 명랑(明朗) : 신라 밀교의 고승으로 신인종(神印宗)의 종조로 꼽힌다. 사간 재량(才良)의 아들이며, 자장의 누이인 남간(南澗)부인이 모친이다. (『삼국유사』 권5 「明朗神印」)

340) 단법(壇法) : 밀교에서 기도하는 작법의 하나. 단을 설치하고 여러 불보살과 제천(諸天)을 안치하여 행하는 수행법이다.

341)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권2 「문호왕법민」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668년에 당 고종이 김인문 등을 불러 당군을 요청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고는 당에 해를 끼치려 한다고 꾸짖고 감옥에 가둔뒤 50만군을 보내 신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의상이 당에서 김인문을 만나 이 사실을 듣고 신라에 돌아와 왕에게 알렸다. 왕이 걱정하여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하니 김천존이 명랑법사가 용궁에서 비법

永徽初會唐使舡有西還者，寓載入中國。初止揚州，州將劉至仁請留衙內，供養豐贍。尋往終南山至相寺，謁智儼。儼前夕夢，一大樹生海東，枝葉溥布，來蔭神州，上有鳳巢，登視之，有一摩尼寶珠，光明屬遠。覺而驚異，洒掃而待。湘乃至。殊禮迎際，從容謂曰，“吾昨者之夢，子來投我之兆，”許爲入室。雜花妙旨，剖析幽微，儼喜逢郢質。克發新致，可謂鉤深索隱，藍茜沮本色。旣而本國承相金欽純〈一作仁問〉良圖等，往囚於唐，高宗將大舉東征，欽純等密遣湘，誘而先之。以咸亨元年庚午還國，聞事於朝，命神印大德明朗，假設密壇法禳之，國乃免。

의봉(儀鳳)³⁴²⁾ 원년(676)에 의상은 태백산(太白山)³⁴³⁾에 가서 조정의 명을 받들어 부석사³⁴⁴⁾를 창건하고³⁴⁵⁾ 대승을 널리 퍼니 신비한 감응이 많았

을 전해 왔으니 초청해서 물어보자고 하였다. 명랑은 낭산 남쪽 신유림에 사천 왕사를 지어 도량을 열면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명랑이 비단으로 절을 임시가설하고 풀로 오방신상을 만들어 자신을 상수로 유가 명승 12인과 문두루 비밀법을 수행하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 당군의 배가 모두 물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342) 의봉(儀鳳): 당 고종의 연호, 676~678년.

343) 태백산(太白山)은 태백산(太白山).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 봉화군에 걸쳐 있는 산이다. 백두대간의 줄기가 동해안을 벌여 오다가 한반도 중앙부로 방향을 틀어 내려가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신라 오악(五岳)의 북악(北岳)으로 예전부터 신앙의 대상이었다. 부석사는 태백산 줄기가 벌여 내려 소백산에 이르기 바로 전에 솟은 봉황산 밑에 자리잡아 태백산의 흐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344) 부석사(浮石寺):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봉황산(鳳凰山)에 있는 절. 의상이 창건한 신라 화엄종의 종찰이다. 『송고승전』에는 창건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을 물리치는데 용으로 변한 선묘(善妙)가 도왔다는 설화를 전하고 있다.

345) 『삼국사기』에도 의상이 왕명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였다고 기록하였다.(권7 문무왕 16년 2월)

다. 중남산 지엄의 문인 현수(賢首)³⁴⁶⁾가 『탐현기(探玄記)』³⁴⁷⁾를 저술하고 그 부분을 의상에게 보내면서 함께 정성스러운 서신을 보내왔다. 서신은 이렇다.³⁴⁸⁾

346) 현수(賢首): 643~712. 중국 화엄종의 제3조이며 화엄교학의 대성자. 이름은 법장(法藏), 호는 국일법사(國一法師) 또는 향상(香象)대사, 강장(康藏)국사라고도 한다. 선조가 강거국 사람이어서 속성은 강씨(康氏)이다. 조부가 중국에 들어와 장안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 지엄에게 사사하여 화엄을 배웠는데, 지엄의 입적 후 28세에 박진(薄塵)에게 출가하였다. 서역 여러 나라의 언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하여 왕명으로 의정(義淨)의 역장(譯場)에 참여하였고, 신역 80『화엄경』과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등 10여종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측천무후의 후대를 받아 화엄사상을 집대성하였고, 측천무후를 위해 화엄사상의 정수인 십현연기(十玄緣起)를 설명할 목적으로 궁전의 금사자에 비유한 『금사자장(金師子章)』을 짓기도 하였다. 일생 동안 30여 차례나 화엄을 강의하고 화엄사상의 조직화에 기여하였으며, 『능가경』, 『밀엄경』, 『범망경』, 『기신론』 등의 경전에 주석을 지었다. 『화엄경』을 해석한 『탐현기(探玄記)』를 비롯하여 화엄종의 체계를 세운 『교분기(教分記)』와 『기신론소(起信論疏)』,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등의 많은 저서가 있다. 제자로는 평관(宏觀)·문초(文超)·지광(智光)·종일(宗一)·혜원(慧苑) 등이 있다.

347) 원문에는 수현소(搜玄疏)라 하였는데 이는 『탐현기(探玄記)』의 잘못이다. 화엄경에 대한 해석서로 지엄은 『수현기(搜玄記)』 5권을 지었고, 법장은 『탐현기』 20권을 지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법장의 저술인 탐현기라야 맞는다. 만약 찬자 일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으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글자는 ‘깊은 이치를 밝힌 책’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348) 이 서신의 진적이 청대까지 중국에 전승되어오다 지금은 일본 천리대(天理大)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李丙壽, 1960 「唐法藏寄新羅義湘書에 對하여」 『海圓黃義敦教授華甲記念論叢』; 1976 『韓國古代史研究』에 고쳐 실음) 이 서간은 별폭과 함께 고려 의천(義天)이 화엄 관계 역대 주요 문적을 모아 편찬한 『원종문류(圓宗文類)』에 실려 있다. (권22 「賢首國師寄海東書」) 서신과 함께 보낸 책 목록을 적은 별폭은 『삼국유사』 권4 「승전축루(勝詮軸樓)」에 실어 놓았는데, 별폭의 진적은 전하지 않는다. 여기 『삼국유사』에 실린 글을 서간 원적과 비교하면 큰 의미 차이는 없으나 15군데의 글자 차이가 있고, 원적에는 마지막에 “법장이 합장합니다.

서경(西京)³⁴⁹⁾ 숭복사(崇福寺)³⁵⁰⁾의 승 법장(法藏)은 해동 신라 화엄법사의 시자에게 글을 올립니다. 한 번 헤어진 지 20여 년이 되니 고개 기울이며 기대하는 정성이 어찌 가슴에서 떠나겠습니까. 더욱이 구름은 만리에 뻗쳤고 바다와 육지는 천겹으로 막히니 이 한몸이 다시 뵈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운데 연연한 그리움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생에 인연을 같이하여 금생에 같이 공부하고, 이같은 과보를 받아 함께 화엄대경에 흠뻑 젖고 특별히 선사에게서 깊은 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러러 듣자오니 상인(上人)께서는 고향에 돌아가신 뒤에 화엄을 열어 펴시고 법계의 걸림 없는 연기를 널리 펴시어 중중한 제망(帝網)³⁵¹⁾으로 불국을 새롭게 하고 이익을 주심이 크고 넓다 하오니 기쁨이 더욱 깊습니다. 이로써 여래께서 입멸하신 뒤에 불일(佛日)을 빛내고 법륜을 다시 굴려 불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할 분은 오로지 법사뿐임을 알겠습니다. 저는 나아감에 이름이 없고 왔다갔다하나 더함이 없습니다. 우러러 이 경전을 생각건대 선사의 은혜에 부끄러우나 분수에 따라 받아 지녀 버리지 않고 이 업에 의지하여 내세의 인연을 맺기를 바라옵니다. 다만 스님³⁵²⁾의 장(章)과 소(疏)가

정월 28일”이라는 구절이 남아 있다. 『원종문류』에 수록된 글은 3군데 다른 부분이 있다.

349) 서경(西京) :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서안(西安) 곧 예전의 장안(長安)이다. 한나라 때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었고 후한의 수도는 낙양(洛陽)이어서 한대의 두 수도 가운데 서쪽의 장안을 서경, 동쪽의 낙양을 동경(東京)이라 한다.

350) 숭복사(崇福寺) : 만년의 법장이 소안탑(小雁塔)으로 유명한 장안의 천복사(薦福寺)에서 주석하였으므로 천복사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351) 중중제망(重重帝網)은 제망중중(帝網重重)과 같은 말로 제석천(帝釋天, Ś Indra)이 사는 제석궁의 보물 그물인 인드라마(因陀羅網)를 이루는 구슬이 서로서로 겹쳐 하나의 구슬에 다른 여러 구슬이 비쳐 보이듯이 화엄 연기의 이치가 서로 걸림이 없이 상입상즉(相入相卽)함을 비유한다.

352) 화상(和尚)은 고승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편지를 주고받는 의상과 법장의

뜻은 풍부하나 글이 간단하여 후인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스님의 미묘한 말씀과 오묘한 뜻을 기록하여 역지로 의기(義記)를 만들었는데, 근래에 승전(勝詮)³⁵³⁾ 법사가 베껴서 고향에 돌아가 그곳에 전하오니 청컨대 상인께서는 잘잘못을 자세히 가려 가르침을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다가오는 내세에 몸을 버리고 몸을 받음에 서로 함께 노사나불³⁵⁴⁾의 회상에서 이와 같은 다함없는 묘법을 들어 받고 한량없는 보현원행(普賢願行)³⁵⁵⁾을 수행하고자 하옵니다. 만일 나쁜 업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앞드려 바라건대 상인께서는 옛일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³⁵⁶⁾ 계시든간에 정도(正道)를 보여주소서. 인편이

스승인 지엄(智嚴)을 말한다.

- 353) 승전(勝詮): 신라 출신으로 법장의 문하에서 화엄을 배워 신라에서 전파한 승려. 법장의 저술을 가져와 의상에게 전해주어 널리 알리게 하였고, 자신은 지방에서 수행과 화엄 전파에 노력했으나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한다.([삼국유사] 권4「승전축루(勝詮膾臚)」참조)
- 354) 노사나(盧舍那)는 『화엄경』의 설법 주체인 노사나불(盧舍那佛)을 말한다.
- 355) 보현원행(普賢願行): 『화엄경』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현보살의 행원, 곧 보살의 실천 수도행을 가리킨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보현보살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보살행을 배우는 선재(善財)의 구도행을 열어주고 마무리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795년에 번역된 40『화엄』에서는 끝부분에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추가하여, 이 부분이 보현행원 사상의 중심 토대가 된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은 첫째는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며(禮敬諸佛), 둘째는 부처를 칭송하고 찬탄하며(稱讚如來), 셋째는 널리 공양하며(廣修供養),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며(懺悔業障),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隨喜功德), 여섯째는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며(請轉法輪),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며(請佛住世),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常隨佛學),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따르며(恒順衆生), 열째는 지은바 모든 공덕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普皆迴向) 것이다.
- 356) 원문의 제취(諸趣)는 중생이 업에 따라 윤회한다는 하늘(天), 인간(人), 짐승(畜生), 아귀(餓鬼), 지옥(地獄)의 오취(五趣) 또는 여기에 아수라(阿修羅)를 더한 육취(六趣, 六道라고도 함)를 말한다.

있을 때마다 안부를 부탁하나이다. 갖추어 쓰지 못합니다. <이 글은 『원종문류(圓宗文類)』³⁵⁷⁾에 있다.>

儀鳳元年，湘歸太伯山，奉朝旨創浮石寺，數啟大乘，靈感顯著。終南門人賢首，撰搜玄疏，送副本於湘處，并奉書懃懇。曰西京崇福寺僧法藏，致書於海東新羅華嚴法師侍者。一從分別二十餘年，傾望之誠，豈離心首。加以烟雲萬里，海陸千重，恨此一身，不復再面，抱懷戀戀，夫何可言。故由夙世同因，今生同業，得於此報，俱沐大經，特蒙先師授茲奧典。仰承上人歸鄉之後，開演華嚴，宣揚法界無尋緣起，重重帝網，新新佛國，利益弘廣，喜躍增深。是知如來滅後，光輝佛日，再轉法輪，令法久住者，其唯法師矣。藏進趣無成，周旋寡況。仰念茲典，愧荷先師，隨分受持，不能捨離，希憑此業，用結來因。但以和尚章疏，義豐文簡，致令後人，多難趣入。是以錄和尚微言妙旨，勒成義記，近因勝詮法師，抄寫還鄉，傳之彼土，請上人詳檢臧否，幸示箴誨。伏願當當來世，捨身受身，相與同於盧舍那，聽受如此無盡妙法，修行如此無量普賢願行。儻餘惡業，一朝顛墜，伏希上人，不遺宿昔，在諸趣中，示以正道。人信之次，時訪存沒。不具。〈文載大文類〉

의상이 이에 열 개의 절³⁵⁸⁾에 가르침을 전하게 하니 태백산의 부석사

357) 원문의 대문류(大文類)는 『원종문류(圓宗文類)』를 말한다.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화엄에 관계된 역대의 주요 문적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지금은 전체 22권중 14권과 22권만 남아 있다. 여기 수록한 법장의 서간은 권22에 「현수국사 기해동서(賢首國師寄海東書)」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다. (韓 4 p.635c4~636a13)

358) 십찰(十刹)은 의상의 가르침을 전파한 화엄종의 주요 사찰을 말한다. 여기에는 6개의 절을 꼽았고, 신라 말에 최치원이 지은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는 십

와 원주의 비마라사(毘摩羅寺)³⁵⁹⁾, 가야산의 해인사(海印寺)³⁶⁰⁾, 비슬산의³⁶¹⁾ 옥천사(玉泉寺), 금정산의 범어사(梵魚寺)³⁶²⁾, 남악³⁶³⁾의 화엄사(華嚴寺)³⁶⁴⁾ 등이 그것이다. 또한 『법계도(法界圖)』 서인(書印)과 약소(略

산(十山)이라 하고는 중악 공산(公山) 미리사(美理寺), 남악 지리산(地異山) 화엄사(華嚴寺), 북악 부석사(浮石寺), 강주(康州) 가야산(迦耶山) 해인사(海印寺), 보광사(普光寺), 웅주(熊州) 가야협(迦耶峽) 보원사(普願寺), 계룡산(雞龍山) 갑사(岬寺), 삭주(朔州) 화산사(華山寺), 양주(良州) 금정산(金井山) 범어사(梵語寺), 비슬산(毘瑟山) 옥천사(玉泉寺), 전주 모산(母山) 국신사(國神寺)의 12개 절을 들고, ‘경유여소(更有餘所)’라 하여 한주(漢州) 부아산(負兒山) 청담사(靑潭寺)를 들어 십여 곳이라고 하여 실제로 13곳의 절을 들었다.(『韓國佛教全書』 3-775하)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십찰은 반드시 10개의 절이 아니라 신라 후반에 화엄종의 주요 사찰로 꼽히던 절을 일컫는 것으로 본다.

359) 비마라사(毘摩羅寺):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산중에 남한강 줄기를 내려다보며 자리잡고 있던 절. 당시 영춘이 원주에 속했으므로 원주 비마라사라 하였다.

360) 해인사(海印寺): 지금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에 있는 절. 802년에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에 의해 중창된 화엄종 사찰이다. 신라 말 화엄종의 중심사찰로 이곳에서 교리의 차이에 따라 남악(南岳)과 북악(北岳)으로 구분된 교파가 있었다. 최치원도 만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고려 때 경론이 많이 간행되었으며 조선초에 고려대장경판이 이곳에 옮겨져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361) 비슬산(毘瑟山):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산. 도성(道成)과 관기(觀機)가 수도하던 유적도 있었다.(『삼국유사』 권3 「包山二聖」참조). 비슬산을 창녕(昌寧, 比斯伐)의 화왕산(火王山) 옥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고, 고성(固城) 연화산(蓮華山) 옥천사로 보기도 한다.

362) 범어사(梵魚寺): 지금의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에 있는 절.

363) 남악(南岳): 신라에는 국가의 주요 산으로 오악을 설정하여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다. 그중 남악은 지리산이다.

364) 화엄사(華嚴寺): 지금의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에 있는 절. 8세기 중반 경에 연기(緣起)가 대찰로 중창하였다. 연기는 근년에 출토되어 현존하는 755년에 이루어진 『화엄경』(80권본) 사경(寫經)의 주도 인물이기도 하다. 화엄사 장륙전(丈六殿, 지금의 각황전)에는 60화엄을 새긴 화엄석경(華嚴石經)이 있었는데 파손되어 현재 1만 여 쪽의 조각이 남아 있다. 각황전 뒤편 언덕에는 중창시기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뛰어난 조형의 사자석탑(獅子石塔)도 남아 있다.

疏)³⁶⁵⁾를 함께 지어 일승의 요점을 모두 포괄하니 천년의 귀감이 되어 다
투어 소중히 지니게 되었다. 다른 찬술은 없으나³⁶⁶⁾ 술의 음식을 맛보는
데 한 점 고기면 족한 것이다. 『법계도』는 총장(總章)³⁶⁷⁾ 원년(668) 무진년
에 이루어졌는데³⁶⁸⁾ 이 해에 지엄이 돌아갔으니³⁶⁹⁾ 마치 공자가 “기린을
잡았다”는 데서 절필한³⁷⁰⁾ 것과 같다. 세상에서 의상이 금산보개여래(金
山寶蓋如來)³⁷¹⁾의 화신이라 전한다. 제자에 오진(悟眞), 지통(智通),³⁷²⁾ 표

365) 원문의 법계도서인병약소(法界圖書印并略疏)는 의상의 대표적인 저술 『일승법
계도(一乘法界圖)』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줄여서 『법계도』라고도 부
르는 이 저술은 210자의 시구를 구불구불 구부러진 도형으로 구성된 계승과 그
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굴곡진 도형 부분을 「법계도인(法界圖
印)」, 전체를 『법계도』라고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이곳의 ‘법계도서인’은 법계도
인, ‘약소’는 법계도의 해설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계도』 끝부분
에 ‘일승법계도는 시와 하나의 도인을 합한 것(一乘法界圖 合詩一印)’이라고 명
시하였고,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주석서인 고려 균역의 『일승법계도원통기』에
서도 9자가 바르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一乘法界圖圓通記』 권상, 韓4 1b)

366) 의상의 다른 저술로는 『십문간법관(十門看法觀)』,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抄記)』,
『소아미타경의기(小阿彌陀經義記)』 등과 발원문 형태의 글이 더 있었다고 한다.

367) 총장(總章): 당 고종의 연호, 668~669년.

368) 『일승법계도』 끝 부분에 “일승법계도는 시와 하나의 도인을 합쳐 말하는 것으
로, 『화엄경』과 『십지경론』에 의거하여 원교의 중요를 나타낸 것이다. 총장 원
년 7월 15일에 적는다(一乘法界圖 合詩一印, 依華嚴經及十地論, 表圓教宗要. 總章
元年七月十五日記.)”라는 의상 자신의 기술이 있다.

369) 지엄은 668년 10월 29일에 입적하였다.(『華嚴經傳記』 권3 釋智儼, 『大正新修大藏
經』 51-163하)

370) 희린(獲麟)은 공자가 『춘추(春秋)』를 편찬하면서 “노(魯)의 애공(哀公) 14년(서
기전 477) 봄에 서쪽에 사냥가서 기린을 잡았다(哀公十四年春 西狩獲麟)”라는 데
까지만 쓴 데서 글을 마치는 절필(絕筆)을 이른다. 당대의 대사인 이백(李白)의
시에도 희린 구절에서 절필한다(絕筆於獲麟)는 구절이 있다.

371) 금산보개여래(金山寶蓋如來): 『금광명경(金光明經)』 권2 공덕천품(功德天品) 제
8에 지심예배하는 제불세존에 보승여래(寶勝如來)를 필두로 그 중간에 ‘금산보
개여래’가 나온다.(『大正新修大藏經』 16-345下) 곧 의상을 부처의 화신으로 추

훈(表訓),³⁷³⁾ 진정(眞定),³⁷⁴⁾ 진장(眞藏), 도용(道融), 양원(良圓),³⁷⁵⁾ 상원(相源),³⁷⁶⁾ 능인(能仁), 의적(義寂),³⁷⁷⁾ 등의 10대덕이 영수가 되니³⁷⁸⁾ 모두

양하였다는 것이 된다. (60)『화엄경』 권6 현수품(賢首品)에 “만약 몸이 금으로 된 산처럼 빛나 비추면 32상의 여러 상호를 갖추리라(若身顯耀如金山 具足衆相三十二)”(『大正新修大藏經』 9-434상)하거나, 권7 불승수미정품(佛昇須彌頂品)에 “구루불의 몸은 금으로 된 산과 같아 여러 길상 중에서 가장 최상이다(拘樓佛身如金山 諸吉祥中最無上)”이라 하고(같은 책, 441중), 입법계품(入法界品)에서 ‘금산불(金山佛)’이라 하는 것들이(같은 책, 728상) 모두 원만한 상호를 구축한 부처를 나타내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역시 의상을 부처의 화신으로 생각 하는 비유의 근거가 된다. 『유마경』에도 여러 부처의 이름 중에 금산불(金山佛)이 나온다.

372) 지통(智通) : 노비 출신으로 낭지(朗智)에게 배우다 의상의 뛰어난 제자가 된 신라 승려. 의상이 소백산에서 화엄을 강의할 때 이를 기록하여 강의한 장소의 이름을 따라 『추동기(錐洞記)』를 엮었다.(『三國遺事』 권5 「朗智乘雲普賢樹」)

373) 표훈(表訓) : 경덕왕 때의 고승. 천궁(天宮)에 왕래하여 경덕왕의 후사(뒤에 혜공왕이 됨)를 낳게 하였다는 인물이며,(『삼국유사』 권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황복사에서 대정(大正) 각간에게 삼본정(三本定)을 강의하였고, 대정에 의해 불국사가 창건되자 초빙되기도 하였다.(『삼국유사』 권5 「大城孝二世父母」) 홍륜사 금당에 봉안된 십성의 한 사람이다. 674년에 황복사에서 의상의 강의를 들었다는 기록으로(『法界圖記叢髓錄』 권상1) 보견대 의상의 제자와 경덕왕대(742~765)의 고승 표훈을 동일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374) 진정(眞定) : 군인 신분으로 남의 집에 품을 팔아 연명하던 기층민 출신으로서 의상의 뛰어난 제자가 된 승려이다.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출가를 미뤘으나 어머니가 빨리 출가하기를 권해 의상 문하에 들어가 뛰어난 제자가 되었다. 의상이 그의 죽을 모친을 위해 90일간 화엄을 강의하였고 강의가 끝나자 모친이 하늘에 태어났다고 하여 불교적 효를 잘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삼국유사』 권5 「眞定師孝善雙美」)

375) 양원(良圓) : 의상의 제자.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는 ‘양원(亮元)’으로 표기하였다.

376) 상원(相源) : 의상의 제자. 『법계도기총수록』에는 ‘상원(相元)’ 또는 상원(常元)으로 표기하였다.

377) 의적(義寂) : 유식을 중심으로 20여부 60여 권의 많은 저술을 남긴 신라 법상종

아성(亞聖)이라 할 만하며 각기 전기가 있다. 오진은 일찍이 하가산(下柯山)³⁷⁹⁾ 골암사(鵲巖寺)에 있으면서 매일 밤 팔을 뻗어 부석사의 등을 켜다. 지통은 『추동기(錐洞記)』³⁸⁰⁾를 지었는데 대개(의상에게) 가르침을 친히 받았기 때문에 글이 신묘한 경지에 이른 것이 많다. 표훈은 일찍이 불국사(佛國寺)³⁸¹⁾에 주석하며 항상 천궁(天宮)에 왕래하였다.³⁸²⁾ 의상이 황복사에

의 승려. 법상종의 의적이 의상의 제자로 수록된 것은 의적이 의상에게 교학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상의 제자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본다. 『法界圖圓通記』 권1 ‘從法相來’)

- 378) 의상의 제자에 대해 『송고승전』에는 지통(智通), 표훈(表訓), 범체(梵體), 도신(道身)을 들었고,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는 진정(眞定), 상원(相圓), 양원(亮元), 표훈(表訓)을 들었다.
- 379) 하가산(下柯山): 경북 안동시 북후면에 있는 산. 학가산(鶴駕山)이라고도 한다.
- 380) 『추동기(錐洞記)』: 의상의 제자인 진정의 모친이 돌아가자 이를 추모하여 의상이 소백산 추동에서 90일간의 화엄강의를 열고 이 내용을 지통이 2권으로 기록한 책이다. 『삼국유사』 권5 「眞定師孝善雙美」에 사정이 알려져 있음 그 내용의 일부가 의상의 『일승법계도』에 대한 주석서를 모은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과 균여의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에 실려 있다. 근래에 그동안 법상의 저술로 알려진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이 바로 이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金相鉉, 1996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 84) 이 책을 다르게 부른 이름도 여럿이 있어, 고려 의천이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요의문답(要義問答)』이라 하고 『송고승전』에는 『추혈문답(錐穴問答)』이라 하였다.
- 381) 불국사(佛國寺): 경북 경주시 진현동 토함산(吐含山)에 있는 절. 751년에 재상을 지낸 각간 김대성(金大城)이 창건하기 시작하여 국가에서 완성하였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5 「大城孝二世父母」참조 8세기 중반의 가장 조화된 조형과 사상을 보여주는 신라의 대표적인 절로서 가람구조, 삼층탑과 다보탑 쌍탑의 조영, 아미타상과 비로자나상 등의 불상, 갖가지 석조물 등의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절이다.
- 382) 『삼국유사』 권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에 표훈이 경덕왕의 요청으로 천제(天帝)에게 가서 경덕왕의 후사(뒤에 해공왕으로 즉위함)를 얻어왔다고 적고 있다.

있을 때 제자들과 탑을 돌았는데 언제나 허공을 밟고 올라가고 계단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탑에는 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다. 제자들도 계단과 3자나 떨어져 허공을 밟고 도니 의상이 돌아보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반드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니 세상에 가르칠 것은 못된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최치원이 지은 본전³⁸³⁾과 같다.

찬한다.

덤불을 헤치고 바다 건너 안개 티끌 무릅쓰니

지상사 문이 열려 상서로운 진객으로 모셨구나.

화엄을 캐어다 고국에 심으니

종남산과 태백산이 한가지 봄이로다.³⁸⁴⁾

湘乃令十刹傳教, 太伯山浮石寺 原州毗摩羅 伽耶之海印 毗瑟之玉泉 金井之梵魚 南嶽華嚴寺等是也. 又著法界圖書印并畧疏, 括盡一乘樞要, 千載龜鏡, 競所珍佩. 餘無撰述, 嘗鼎味一臠足矣. 圖成總章元年戊辰, 是年儼亦歸寂, 如孔氏之絕筆於獲麟矣. 世傳湘乃金山寶蓋之幻有也. 徒弟 悟眞 智通 表訓 眞定 眞藏 道融 良圓 相源 能仁 義寂 等十大德爲領首, 皆亞聖也, 各有傳. 眞 嘗處下柯山鵲嶼寺, 每夜伸臂, 點浮石室燈. 通 著錐洞記, 蓋承親訓, 故辭多詣妙. 訓 曾住佛國寺, 常往來天宮. 湘住皇福寺時, 與徒衆繞塔, 每步虛而上, 不以階升, 故其塔不設梯磴. 其徒離階三尺, 履空而旋, 湘乃顧謂曰, “世人見

383) 최치원이 지은 가장 충실한 의상의 전기인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을 말한다. 최치원은 이밖에 해동화엄초조기신원문(海東華嚴初祖忌辰願文)도 지었다.

384) 중국 화엄종을 일으킨 지엄이 활동한 지상사가 있는 종남산과, 그로부터 배워온 의상이 세운 부석사가 있는 태백산에서 함께 화엄이 크게 진흥되었다는 뜻이다.

此, 必以爲怪, 不可以訓世.” 餘如崔侯所撰本傳.³⁸⁵⁾

讚曰 披榛跨海冒烟塵, 至相門開接瑞珍. 采采雜花栽故國, 終南太伯一般春.

385) 의상의 생애를 기록한 것으로 이 『삼국유사』와 『송고승전』 등의 전기류 기록 외에 「부석본비(浮石本碑)」가 있다. 고려시대에 가장 일차적인 자료로 여겨졌던 「부석본비」는 『삼국유사』(권3 「前後所將舍利」)에 일부가 전하는데, 특히 생애의 주요한 연대 기록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다.(湘武德八年生卅歲出家, 永徽元年庚戌, 與元曉同伴欲西入, 至高麗有難而廻, 至龍朔元年辛酉入唐, 就學於智儼, 總章元年儼遷化, 咸亨二年湘來還新羅, 長安二年壬寅示滅, 年七十八.)

5-9 사복이 말하지 않다

[해제]

원효와 같은 시기에 교유하며 활동하던 사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부인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낳은 사복이 어머니가 죽어 장례지내는데 원효를 능가하는 인식을 보여준 점이 주목된다. 특히 원효가 지혜의 호랑이로 비유한 어머니는 사후 연화장세계에 가게 되는데, 이때 사복이 함께 간다는 사실과, 지금 세상과의 연결점이 풀 줄기를 뽑아 나타나는 세계라는 점이 특이하다. 후대 사람들이 그런 사복을 위해 절을 짓고 점찰회를 실시하였다는 기록도 중요하다. 또한 사복에게는 여기에 기록한 사실 말고 황당한 말이 많이 떠돌아다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사복이 아도나 자장, 원효나 의상과 함께 신라 불교를 일으킨 ‘흥륜사금당십성(興輪寺金堂十聖)’의 하나로 꼽힌 것은 이러한 수준 높은 활동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복에 대해서는 이밖에 고려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23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도 나온다. 이규보가 부안의 원효방(元曉房)을 찾았더니 곁에 사포성인(蛇包聖人)이 살던 암자가 있었는데, 원효가 와서 살자 사포가 원효에게 차를 달여 드리던 곳이라고 하였다. 사복의 일화가 원효에 덧붙여 여러 곳으로 파생된 한 예이다.

[역주]

사복이 말하지 않다

서울³⁸⁶⁾ 만선북리(萬善北里)³⁸⁷⁾에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도 없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열두 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여 사동이라 불렀다. <아래에서 사복(蛇卜) 또는 파(巴)³⁸⁸⁾ 또는 복(伏) 등이라고도 하였는데,³⁸⁹⁾ 모두 아이를 말한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죽었다. 그 때 원효(元曉)³⁹⁰⁾는 고선사(高仙寺)³⁹¹⁾에

386) 경사(京師)는 서울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말한다.

387) 만선북리(萬善北里):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안홍(安弘)이 만선사(萬善寺)에 살았다 하므로 만선사가 있는 곳 북방으로 짐작된다.

388) 사파(蛇巴): 사복(蛇福)과 같은 말.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흥륜사금당십성조(興輪寺金堂十聖條)에는 ‘사파(蛇巴)’로 나온다. 사복의 ‘복’을 뜻으로 말하면 아이(童)이고, 음을 따라 부르는 이름이 복(福), 복(卜), 복(伏), 파(巴) 등이다.

389)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23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는 ‘사포성인(蛇包聖人)’으로 나온다. 이규보가 부안의 원효방(元曉房)을 찾았더니 곁에 한 암자가 있었는데 원효가 이곳에 와서 살자 사포성인(蛇包聖人)이 모시고 있으면서 차를 달여 드리던 곳이라고 하였다.

390) 원효(元曉, 617~686): 중국에 가지 않고 신라에 소개된 대부분의 경론을 탐구하여 하나하나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를 평가한 중요(宗要)류의 저술을 펴내고, 더욱 관심이 가는 경론에 대해서는 상세한 주석서를 썼다. 『십문화쟁론』으로 화합의 새로운 불교관을 펼쳤고,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일심(一心)사상을 체계화하여 신라불교의 가장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후에는 대중 교화에 매진하였다. 5-7 주273) 참조.

391) 고선사(高仙寺):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동에 위치하는데 70년대 덕동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수몰 직전 사지가 발굴되었는데, 탑이 금당 서편에 위치한 특이한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다. 9세기 초반에 이곳에 세워진 원효비인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는 일찍이 파괴되었는데 상부 1편은 동국대박물관에, 하부 수 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으며, 3층석탑(국보 제38호)과 목 없는 귀부는 발굴 무렵 국립경주박물관 뜰로 옮겨져 세워져 있다.

머무르고 있었다. 원효는 그를 보고 예로 맞이하였으나 사복은 답배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예전에 경전을 실고 가던 암소가 이제 죽었으니, 함께 장사 지냄이 어떻소?” 라고 하였다. 원효가 “좋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함께 집에 도착하자 원효로 하여금 포살(布薩)³⁹²하고 계를 주도록 하였다. (원효가) 시신에 다가서서 빌기를, “태어나지 마라.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마라. 태어남이 괴롭다.”고 하였다. 사복이 “말이 번거롭다.”고 하자, (원효가) 고쳐 말하기를, “죽고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수레에 싣고 활리산(活里山)³⁹³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호랑이를 지혜로운 숲에 묻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소?” 라고 하였다. 사복이 이에 계(偈)를 짓기를, “옛날 석가모니 부처께서 사라수³⁹⁴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제 또한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 넓은 세계로 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풀의 줄기를 뽑자 그 아래에 세계³⁹⁵가 있었는데, 밝고 맑았으며 칠보로 된 난간과 누각이 장

392) 포살(布薩) : ㉠ poṣadha, upoṣadha. 우포사타(烏漚沙他) · 우파사(優婆娑) · 포사타(布沙他) · 우파바소타(優波婆素陀) 등으로 음역되며, 장양(長養) · 증장(增長) · 선숙(善宿) · 정주(淨住) · 근주(近住) · 공주(共主) · 설계(說戒) 등으로 의역된다. 출가자가 보름마다(15일과 29일 또는 30일) 모여서 계경(戒經)을 설하며, 그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을 말한다. 재가자의 경우 매달 6재일(六齋日)마다 절에 가서 8계(八戒)를 지킨다.

393) 활리산(活里山) : 위치 미상. 경주 동북쪽에 위치한 명활산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394) 사라수(娑羅樹) : ㉠ śāla. 반낙엽성의 단단한 나무로 히말라야 기슭부터 인도 전역에 퍼져 자라는데, 인도력으로 3월이면 우유빛 나는 작은 꽃이 핀다. 만년의 석가모니가 말라죽어 사는 쿠쉬나가라 사라나무 숲에 당도하여 두 그루 사라수 사이에 북쪽으로 향하여 모로 누운 다음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이때 때 아니게 꽃이 활짝 피어 마치 흰 학이 내려앉은 듯하였다고 하여, 곡수(鵠樹) 또는 학수(鶴樹)라고도 하고, 석가의 입멸을 쌍림열반(雙林涅槃)이라고 부른다.

395) 연화장(蓮華藏) 세계 : ㉠ padmagarbha-lokadhātu. 화장세계(華藏世界), 화장계(華藏界)라고도 한다. 비로자나불이 과거에 발원하고 보살행을 닦아 성취한 청

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시신을 메고 같이 들어가자, 그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원효가 이에 돌아왔다.

후대 사람들이 금강산(金剛山)³⁹⁶⁾ 동남쪽에 절을 짓고 도량사(道場寺)라고 하고는 매년 3월 14일에 점찰회(占察會)³⁹⁷⁾를 행하는 것을 일정한 규칙으로 삼았다. 사복이 세상에 나타나 오직 이것만 보였는데, 세상에서는 황당한 말을 많이 붙였으니, 우습다.

찬한다.

못은 고요하고 용은 잠든다고 어찌 등한하리오,

길 떠나 보내는 한 곡조 번잡하지 않다.

정장엄세계로서 공덕이 무량하고 광대장엄한 세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커다란 연꽃으로 되었는데, 그 속에 모든 국토와 만물을 간직하였기에 연화장세계라 한다. 『화엄경』화장세계품에 의하면, 수미산 맨 위의 풍륜(風輪)에 향수해(香水海)가 있고 그 속에 커다란 연꽃이 있는데, 연화장세계가 그 연꽃 안에 있다고 한다. 주위는 금강륜산(金剛輪山)이 둘러싸고 대지는 금강으로 이루어져 견고하고 청정하며 평평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있다고 한다. 연화장세계의 중앙 향수해에서 나는 대연화는 시방세계를 널리 비치는 중심이며 부처가 그 안에서 나고 중생이 그 사이를 가득 채워 그 장엄한 구조는 크고 넓어 끝이 없다고 하였다. 또 『범망경』에 의하면 노사나불이 천개의 잎으로 된 연화대에 앉아 있는데, 천 잎 하나하나가 한 세계이며, 거기에 노사나불로부터 화현한 천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고, 다시 하나의 세계마다 백억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 이는 무진연기의 깊은 진리를 비유한 것이다.

396) 금강산(金剛山) : 『화엄경(華嚴經)』 보살주처품에 의하면 해중(海中)에 법기(法起)보살(혹은 담무갈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산인데, 흔히 우리나라 강원도 금강산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금강이라고도 부르는 백률사가 위치한 경주 북산을 가리킨다. 법흥왕 때 이차돈이 순교하자 그 목이 날아 떨어진 곳이 금강산이다.

397) 점찰회(占察會) : 『점찰선악업보경(占察業報善惡經)』에 의해 열리는 법회. 신라 시대 원광(圓光)이 처음 열었다고 전한다. 목륜상(木輪相)으로 과거와 현세의 업을 집쳐 보고 참회하여 죄를 없애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고통스런 생사는 원래 고통이 아니거늘,
연화장 생사의 세계가 넓기도 하구나.

蛇福不言

京師萬善北里，有寡女，不夫而孕。旣產，年至十二歲，不語亦不起，因號蛇童。〈下或作蛇卜，又巴，又伏等，皆言童也。〉

一日其母死。時元曉住高仙寺。曉見之迎禮，福不答拜而曰，“君我昔日馱經牒牛，今已亡矣。偕葬何如？”曉曰“諾。”遂與到家，令曉布薩授戒。臨尸祝曰，“莫生兮其死也苦，莫死兮其生也苦。”福曰，“詞煩。”更之曰，“死生苦兮。”

二公舉歸活里山東麓。曉曰，“葬智惠虎於智惠林中，不亦宜乎？”福乃作偈曰，“往昔釋迦牟尼佛，裘羅樹間入涅槃。于今亦有如彼者，欲入蓮花藏界寬。”言訖拔茅莖，下有世界，晃朗清虛，七寶欄楯，樓閣莊嚴，殆非人間世。福負尸共入，其地奄然而合。曉乃還。

後人爲創寺於金剛山東南，額曰道場寺。每年三月十四日，行占察會爲恒規。福之應世，唯示此爾。俚諺多以荒唐之說託焉，可笑。

讚曰 淵默龍眠豈等閑，臨行一曲沒多般。苦兮生死元非苦，華藏浮休世界寬。

5-10 진표가 간자를 전하다

[해제]

완산주 출신으로 미륵과 지장을 찾아 망신참회(亡身懺悔)의 수행을 한 진표의 전기이다. 진표는 금산사의 승제(崇濟)에게 출가하여 계를 얻고자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23세에 선계산에서 치절한 망신참회의 수행으로 지장보살의 현신으로부터 계를 받았다. 다시 영산사에서 용감히 수행하여 미륵의 감응을 얻고 『점찰경』과 증과(證果) 간자(簡子)를 받아 세상에 법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가르침을 얻었다. 진표는 금산사와 아슬라주(강릉)에서 법을 설하고 계를 주었으며 왕실에서도 보살계를 설하였다. 영



모악산 금산사

심(永深)을 비롯한 제자들이 속리산 등에서 간자를 이어받아 수행하였다.

이 편은 이 진표의 전기에 이어 『속고승전(續高僧傳)』에 수록된 수나라 때 탑참법(搭懺法)을 행하던 이를 소개하고 『점찰경』과 참법을 금지한 내용을 소개한 다음, 이에 대한 일연 자신의 논평을 통해 『점찰경』의 의의를 인정하고 진표의 수행을 평가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원래 이 편에 바로 이어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가 실려 있는데, 이는 고려 영잠(瑩岑)이 지은 「관동 풍악산 발연수 개창조 진표율사 진신골장 입석비명(關東楓岳山鉢淵藪開創祖眞表律師眞身骨藏立石碑銘)」(1199년)을 거의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이 편의 기록과 비교하면 대체적인 수행 내용 등은 같으나 출생과 보살의 현신 연대가 다르고 수행으로 간자를 얻은 것이 지장과 미륵이 나란히 현신하였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또 송의 찬녕이 지은 『송고승전』(988년) 권14 명률편의 「백제국 금산사 진표전(百濟國金山寺眞表傳)」은 출가 동기와 두 간자를 이용한 참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역주]

진표가 간자³⁹⁸⁾를 전하다

진표(眞表)스님은 완산주(完山州)³⁹⁹⁾ 〈지금의 전주목(全州牧)〉 만경현(萬頃縣)⁴⁰⁰⁾ 〈혹은 두내산현(豆乃山縣)이라고도 하고 혹은 도나산현(都那山縣)이라고도 하는

398) 간자(簡子): 대나 나무로 만들어 문자를 기록하는데 쓰는 패쪽.

399) 완산주(完山州):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全州). 백제 때 완산으로 불리다가 555년에 완산주가 설치되었다. 백제가 패망한 뒤 신문왕 때인 685년에 완산주를 설치하였고, 경덕왕 15년에 전주로 고쳤다. 고려 때는 전주와 완산으로 번갈아 불렸으나 조선에 들어와 줄곧 전주로 불렸다.

데 지금의 만경이요 옛이름은 두내산현이다. 찬녕(贊寧)의 『송고승전(宋高僧傳)』⁴⁰¹⁾에서 진표의 고향 마을을 금산현(金山縣) 사람⁴⁰²⁾이라고 한 것은 절 이름을 현 이름과 혼동한 것이다. > 사람이다.⁴⁰³⁾ 그의 아버지는 진(眞) 나마이고⁴⁰⁴⁾, 어머니는 길보랑(吉寶娘)이며 성은 정(井)씨이다.

나이가 12살이 되자 금산사(金山寺)⁴⁰⁵⁾ 승제법사(崇濟法師)⁴⁰⁶⁾의 문하에

400) 만경현(萬頃縣): 백제 때 두내산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 만경현으로 고치고 김제군에 예속시켰다.

401) 『송고승전(宋高僧傳)』: 송의 찬녕(贊寧)이 982년에 편찬한 고승전. 당 정관 연간부터 송 988년까지 이르는 343년간의 고승의 전기를 엮은 것으로 정전 531인에 부전 125인의 전기를 역경(譯經)·의해(義解)·습선(習禪)·명률(明律)·호법(護法)·감통(感通)·유신(遺身)·독송(讀誦)·흥복(興福)·잡과(雜科)의 10개로 분류하여 30권에 수록하였다. 권14 명률편(明律篇)에 실려 있는 「진표전(眞表傳)」은 그의 출가시기를 당 개원(開元) 연간(713~742)이라 하고, 사냥과 관련된 자세한 출가 동기를 전하고 있다.

402) 『송고승전(宋高僧傳)』 권14 진표전(眞表傳)에 「진표스님은 백제 사람이다. 집은 금산에 있다(釋眞表者, 百濟人也. 家在金山.).」(大 50 793c)고 하였다. 금산현은 전북 김제군 금산면이다.

403) 고려 신종(神宗) 2년(1199)에 발연사(鉢淵寺)의 주지인 영잠(瑩岑)이 지어서 세운 「관동 풍악산 발연수 개창조 진표율사 진신골장 입석비명(關東楓岳山鉢淵藪開創祖眞表律師眞身骨藏立石碑銘)」에는 전주 벽골군 도나산촌(都那山村) 대정리(大井里)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 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해(義解) 제5에 「진표전간」 다음 항목으로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라는 제목으로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404) 바로 이어서 진표의 성이 정씨(井氏)라고 하였으니 진표의 부친은 성명이 정진(井眞)이 된다. 내말(乃末)은 신라 17관동의 제11관동인 나마(奈麻)의 다른 표기이다. 진표는 백제인이니 통일 후 신라에서 구백제인을 포용하기 위해 수여한 관등일 것이다.

405) 금산사(金山寺): 전라북도 김제군 모악산(母岳山)에 있는 절. 신라 혜공왕 때인 766년에 진표가 미륵의 수기를 받고 중창하였으며 임진왜란에 불탄 것을 1626년에 재건하였다. 주 법당인 미륵전에는 미륵 장륙삼존상이 있으며, 석련대(石蓮臺) 등 신라시대의 유물이 남아 있다.

들어가 머리를 깎고 배우기를 청했다.⁴⁰⁷⁾ 그의 스승이 일찍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일찍이 당나라⁴⁰⁸⁾에 들어가 선도(善道)⁴⁰⁹⁾ 삼장(三藏)⁴¹⁰⁾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후에 오대산(五臺山)⁴¹¹⁾에 들어가 문수보살(文殊菩薩)의

406) 승제법사(崇濟法師):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는 순제(順濟)라고 나온다.

407)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 의하면 진표는 스승인 순제에게 출가하여 사미계법(沙彌戒法)을 받고 『공양차제비법(供養次第秘法)』 1권과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2권을 받았다고 하였다.

408) 당(唐): 618년 이연(李淵)이 건국하여 907년에 멸망한 중국의 왕조. 290년간 20대의 황제가 왕위를 이어 지속되었다. 남북조의 오랜 분열시대를 통일한 수나라가 39여 년만에 멸망하고 뒤이은 왕조로서 세계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중국의 성세를 이루었다. 당이 이룩한 문물과 제도는 동아시아 문화의 전형이 되어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409) 선도(善道): 선도(善導, 613~681)를 말한다. 당(唐) 나라 정토교(淨土敎)의 제3조로서 스승 도작(道綽)과 함께 정토교를 크게 일으켰다. 현종사에서 도작에게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을 배우고 종남산(終南山) 오진사(悟眞寺)에 주석하였다. 일생 동안 『아미타경(阿彌陀經)』을 사경한 것이 10만여 권, 정토변상도(淨土變相圖)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3백여 포(鋪)였다고 한다. 저서로 『관경소』, 『법사찬』 등이 있다. 그의 승탑이 서안 교외 향적사(香積寺)에 세워져 있다.

410) 삼장(三藏): 경(經)·율(律)·론(論)등 불교 경전 전체를 말한다. 이에 모두 통달한 고승을 삼장법사라고 부른다.

411) 오대산(五臺山): 중국 산서성(山西省) 혼주시(忻州市) 오대현(五臺縣)에 있는 오대산을 말한다. 오대산의 다섯 봉우리가 높이 솟았는데 뾰족하지 않고 평평하여 오대라고 이름하였고, 높고 서늘하여 청량산이라고 불렀는데, 『화엄경』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동북방에 청량산(淸涼山)이 있고 여기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한 구절에 따라 문수보살이 거처하는 성지로 신앙되었다. 중국 불교 사상 사대영산(四大靈山)의 하나이다. 오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북대가 가장 손꼽히는 기도처이다. 후한 때부터 산악승배신앙의 성지로 여겨졌으며, 북위 때 이후 불교 성지로서 이름을 떨쳐 화엄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오대산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8세기 후반에 불공(不空)이 금각사를 창건하여 오대산을 밀교의 성지로 다듬었고, 이어 화엄종의 정관(澄觀)이 대화엄사에서 활동하며 오대산을 화엄성지로 재확인하여 이후 청대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 한국과 일본의 승려들도 순례가 이어졌다.

현신을 감응하고 오계(五戒)⁴¹²⁾를 받았다.” 진표가 아뢰기를, “부지런히 수행하면 얼마 동안이면 계를 받게 됩니까?” 하니, 승제가 말하기를 “정성이 지극하다면 1년 안에라도 된다.”고 하였다.

진표는 스승의 말을 듣고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선계산(仙溪山) 불사의암(不思議庵)⁴¹³⁾에 와서 머물러 삼업(三業)⁴¹⁴⁾을 수련했으며 몸을 던져서 수행하는 참회법으로 계를 얻었다.⁴¹⁵⁾ 처음은 7일 밤을 기한으로 하여 오체(五體)⁴¹⁶⁾를 바위에 부딪쳐 무릎과 팔이 다 부서지고 피가 바위 벼랑에 비오듯 흘렀으나 성인의 감응이 없는 것 같았으므로 몸을 버리기로 결심하

412) 오계(五戒) : 재가불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①생명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②남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不偷盜), ③음행하지 말라(不邪淫), ④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⑤술을 마시지 말라(不飲酒) 이다.

413) 선계산(仙溪山) 불사의암(不思議庵) : 지금의 전북 부안군 변산 일대로 추정되는 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변산에 불사의방장(不思議方丈)이 있는데 진표가 살던 곳이며 백척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방장에 있고 그 아래는 무시무시한 골짜기라 하였다.(권34 부안현 佛宇) 조선시대에 변산에 불사의암이 있다고 전승되어 온 것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다.

414) 삼업(三業) : 신(身)·구(口)·의(意)의 업, 즉 신체와 언어와 의지로 짓는 모든 업을 말한다.

415)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 의하면 명산을 돌아다니다가 27살(760년)에 보안현(保安縣)에 있는 변산(邊山)의 불사의방(不思議房)에서 수행하여 미륵상 앞에서 계법을 구하였다. 3년이 되어도 수기를 얻지 못해 발분하여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기도 하고, 3·7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돌에 몸을 부딪치는 참회행을 한지 3일만에 손이 부러지자 7일째에 지장보살이 손을 다시 고쳐주고 가사와 발우를 주자 더욱 정진하였다. 3·7일만에 천안을 얻고 지장보살은 계본을, 미륵보살은 9와 8의 두 간자를 주며 이는 자신의 손가락 빠로서 시각과 본각을 상징하는 데 장차 도솔천에 태어나리라는 가르침을 받으니 이때가 762년 4월 27일이었던다 한다. 이어 금산사를 창건하고 764년에 미륵장륙상을 조성하여 766년에 금당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말하는 740년과 차이가 있다.

416) 오체(五體) : 머리와 양 팔, 양 무릎을 말하는데, 모두 둥글므로 오륜(五輪)이라고도 한다.

고 다시 7일을 기약하였다. 14일이 지나자 지장보살(地藏菩薩)⁴¹⁷⁾이 현신하여 계율을 받았다. 이 때가 바로 개원(開元)⁴¹⁸⁾ 28년(740)⁴¹⁹⁾ 경진년 3월 15일 진시(辰時)⁴²⁰⁾였으니 (진표의) 나이는 23살이었다.⁴²¹⁾

그러나 뜻이 미륵(彌勒)⁴²²⁾에게 있었으므로 감히 중지할 수 없어 바로

417) 지장보살(地藏菩薩): ㉟ Kṣitigarbha.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아 석존이 입멸한 후 미륵보살이 이 땅에 내려와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기까지의 무불(無佛)시대에 지옥을 포함한 육도의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서원한 자비와 연민의 보살이다.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에 조용히 참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대지와 같고 고요하게 생각함이 깊은 것이 신비하게 감추고 있는 것과 같아 지장이라 한다고 하였다.(安忍不動, 猶如大地, 靜慮深密, 猶如祕藏, 故稱地藏.) 지장보살은 과거 먼 옛날에 어나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온갖 악한 짓을 많이 하므로 중생들의 죄를 모두 없애 깨달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내었다고 한다. 이 지장신앙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그때서야 깨달음을 이루겠다(衆生度盡, 方證菩提.)”거나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地獄未空, 誓不成佛.)”라는 말이 생겨났다. 다른 보살들과는 달리 지장보살은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에 따라 머리를 깎은 승려의 형상으로 만들어 모신다. 대체로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육도를 상징하는 석장(錫杖)을 들고 있다.

418) 개원(開元): 당(唐) 현종(玄宗)의 연호. 713~741년.

419) 신라 효성왕(孝成王) 4년.

420) 진시(辰時): 오전 7시~9시.

421) 이에 따르면 진표의 생년은 718년이다. 그런데 「관동풍악발원수석기」에 따르면 734년이 되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422) 미륵(彌勒): ㉟ Maitreya. 미륵은 브라만 집안에서 출생하여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였다. 보살로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다고 한다. 미륵보살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처음 발심할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자씨(慈氏)보살로 부른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하였는데, 수명이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 약 57억 6천만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융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였다. 이런 경설에 따라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영산사(靈山寺)[일명 변산(邊山) 또는 능가산(楞伽山)]로 옮겨 다시 처음과 같이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수행하였다. 과연 미륵이 감응하여 『점찰경(占察經)』⁴²³⁾ 2권〈이 경은 진(陳)⁴²⁴⁾ 나라와 수(隋)⁴²⁵⁾ 나라 무렵에 외국에서 번역된 것이니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미륵이 이 경을 주었을 뿐이다.〉과 증과간자(證果簡子)⁴²⁶⁾ 189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그 가운데 제8 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妙戒)를 말한 것이요, 제9 간자는 구족계(具足戒)⁴²⁷⁾를 더 얻은 것을 이 름이다. 이 두 간자는 바로 내 손가락 빠이고, 나머지는 모두 침단목(沈檀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미륵상생 신앙과, 미륵이 부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미륵하생 신앙의 두 가지 신앙이 있게 된다. 미륵 신앙은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의 세 경전이 중심이 된다. 『해심밀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법상종에서는 이 경의 실주인 미륵을 금당에 봉안하고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

423) 점찰경(占察經):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2권. 수나라 보리등(菩提燈)이 번역. 선악의 업보(業報)를 점찰하고 아울러 대승의 실천을 설한 경전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으로 보고 있다.

424) 진(陳): 중국 남북조시대에 남조에 속했던 나라로 남조 최후의 왕조(557~589). 진패선(陳霸先,武帝 557~559)이 557년 양(梁)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하였다. 선제(宣帝, 568~582) 때에는 북제(北齊)를 공략하여 북쪽으로 진출했으나 다음 후주(後主, 582~589)는 측근을 중용하고 무장을 억압하여 천자 국력이 쇠퇴해지고 마침내 589년에 수(隋)나라에게 멸망하였다.

425) 수(隋, 581~618): 중국 남북조를 통일하여 세운 나라. 북주의 황실과 인척이던 양견(楊堅,文帝 재위 581~604)이 581년에 북주로부터 선양을 받아 수 왕조를 열고, 589년에 남조 진을 멸망시켜 300년간의 분열을 끝내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문제의 둘째 아들인 양제(楊帝, 재위 604~617)가 604년에 부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돌궐을 쳐 판도를 넓혔으나 고구려를 침공하려다 실패하는 등 내정의 실패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618년에 멸망하였다.

426) 증과간자(證果簡子): 증과(證果)는 수행한 결과로 얻는 과보(果報)로 최종의 증과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증과간자는 이러한 과보를 보여주는 간자이다.

427) 구족계(具足戒): 출가자가 받아야 할 계.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이다.

木)⁴²⁸⁾으로 만든 것이니 모든 번뇌에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써 세상에 법을 전하고 남을 구제하는 뗏목⁴²⁹⁾으로 삼아라.”⁴³⁰⁾

釋眞表 完山州(今全州牧), 萬頃縣人(或作豆乃山縣, 或作都那山縣, 今萬頃, 古名豆乃山縣也. 贊寧傳, 釋表之鄉里云金山縣人, 以寺名及縣名混之也.). 父曰眞乃末, 母吉寶娘, 姓井氏. 年至十二歲, 投金山寺崇濟法師講下, 落彩請業. 其師嘗謂曰, “吾曾入唐, 受業於善道三藏, 然後入五臺, 感文殊菩薩現受五戒.” 表啓曰, “勤修幾何得戒耶.” 濟曰 “精至則不過一年.” 表聞師之言, 遍遊名岳, 止錫仙溪山不思議庵, 該鍊三業, 以亡身懺悔得戒. 初以七宵爲期, 五輪撲石, 膝腕俱碎, 雨血崑崖. 若無聖應, 決志捐捨, 更期七日. 二七日終, 見地藏菩薩, 現受淨戒. 卽開元二十八年庚辰三月十五日辰時也. 時齡二十餘三矣. 然志存慈氏, 故不敢中止, 乃移靈山寺(一名邊山 又楞伽山), 又懃勇如初. 果感彌勒現授占察經兩卷(此經乃陳隋間外國所譯, 非今始出也, 慈氏以經授之耳.), 并證果簡子一百八十九介. 謂曰 “於中第八簡子, 喻新得妙戒, 第九簡子, 喻增得具戒. 斯二簡子, 是我手指骨, 餘皆沈檀木

428) 침단목(沈檀木): 침목과 단목을 함께 부르는 말로, 모두 향나무를 말한다.

429) 진벌(津筏)은 나무와 뗏목으로 물을 건너는 수단을 말하는데, 이 세상을 건너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불법을 비유해 말한다.

430)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 의하면 진표가 3·7일을 기약하고 수행하던 중 7일이 되던 밤에 지장보살이 손에 석장을 흔들며 와서 가사와 발우를 주었다. 그리고 만 3·7일이 되자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나타나 지장은 계본(戒本)을 주고, 미륵은 2개의 패를 주면서 “이 두 간자는 바로 내 손가락 뼈이니 이것은 시각(始覺)·본각(本覺)의 두가지 깨달음을 비유한 것이다. 또 아홉째는 법이(法爾)요 여덟째는 신熏성불종자(新熏成佛種子)이니 이로써 마땅히 과보를 알 것이다. 너는 지금의 몸을 버리고 대국왕의 몸을 받아 후에 도솔전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수기하였다고 한다.

造, 喻諸煩惱. 汝以此傳法於世, 作濟人津筏.”

진표가 미륵의 기별⁴³¹⁾을 받고 금산사에 와서 머무르면서 해마다 법단(法壇)을 열고 널리 법을 베풀니 단석의 정결하고 엄숙함이 말세(末世)에 서는 아직 없는 일이었다. 교화가 두루 미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슬라주(阿瑟羅州)⁴³²⁾에 이르자 섬과 섬 사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 물 속으로 맞아 들어 법을 듣고 계를 받았으니 이때가 천보(天寶)⁴³³⁾ 11년(752)⁴³⁴⁾ 임진년 2월 보름날이다. 어떤 책에는 원화(元和)⁴³⁵⁾ 6년(811)이라 했으나 잘못이다. 원화는 헌덕왕대(憲德王代)이다⁴³⁶⁾. 〈성덕왕(聖德王)⁴³⁷⁾ 때로부터 거의 70년 쯤 된다〉

경덕왕(景德王)⁴³⁸⁾이 이 말을 듣고 궁중⁴³⁹⁾으로 맞아들여 보살계⁴⁴⁰⁾를

431) 성별(聖苑)은 부처가 제자에게 장차 부처가 될 것임을 기약하여 주는 예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미륵의 기별(記苑) 곧 수기(授記)를 가리킨다.

432) 아슬라주(阿瑟羅州): 지금의 강원도 강릉(江陵).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는 아슬라주 교화에 앞서 금산에서 속리산(俗離山)으로 향하다가 동구의 길상초가 난 곳을 표시해 두고 명주(溟州, 강릉)로 갔다고 하였다. 본래 고구려 하서량(河西良)을 하슬라주(何瑟羅州)라고도 하였고 신라 경덕왕 때 명주(溟州)로 고쳤다. 고려 때는 하서 또는 명주로 불리다가 충렬왕 때 강릉으로 고쳤다.

433) 천보(天寶): 당(唐) 나라 현종(玄宗)의 연호. 742~756년.

434) 신라 경덕왕 11년.

435) 원화(元和): 당(唐) 나라 헌종(憲宗)의 연호. 806~820년.

436) 헌덕왕(憲德王)의 재위기간은 809~826년. 신라 제41대왕.

437) 성덕왕(聖德王)의 재위기간은 702~737년. 신라 제33대왕.

438) 경덕왕(景德王): 신라 제35대 왕. 재위 742~765. 성은 김(金), 이름은 현영(憲英). 성덕왕(聖德王)의 아들이고, 효성왕(孝成王)의 아우이며, 어머니는 소덕태후(昭德太后)이다. 비(妃)는 삼모부인(三毛夫人) 김씨(金氏)와 경수왕후(景垂王后) 김씨(金氏)이다. 왕권 안정을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757년에 녹읍을 부활하고 9주(州)·5소경(小京)·117군(郡)·293

받고 조(租)⁴⁴¹⁾ 7만 7천석을 내렸으며 왕후와 인척들⁴⁴²⁾도 모두 계품(戒品)⁴⁴³⁾을 받고 비단 5백단과 황금 50량을 보시하였다. 이것을 모두 받아서 여러 절에 나누어 널리 불사를 일으켰다. 그의 유골의 석함은 지금 발연사(鉢淵寺)⁴⁴⁴⁾에 있으니⁴⁴⁵⁾ 곧 바다의 무리들을 위해 계를 베풀던 곳이었다.

현(縣)을 정비하여 지명을 한식(漢式)으로 고쳤으며 이어 관청과 관직의 이름을 한식으로 고쳤다. 불교의 중흥에도 노력하여 754년에 황룡사종을 주조하고, 불국사(佛國寺)와 석불사(石佛寺, 石窟庵) 및 굴불사(掘佛寺) 등을 창건하였고, 각 사찰의 수축과 탑·불상 등 불교 조영물의 제작에 힘썼다.

439) 궁달(宮闈)은 궁중의 작은 문을 뜻하는 것으로서, 궁중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440) 보살계(菩薩戒) : 대승의 보살들이 지키는 계율로서 십중(十重)·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설한 『범망경(梵網經)』 율장품(律藏品)이 근거가 된다. 이는 종래의 교단이 출가자를 위한 비구계와 재가자를 위한 팔관계(八關戒)를 둔 것과 달리 출가와 재가를 포괄하는 새로운 대승의 계율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계에서는 출가자를 위한 계율로서는 종래의 비구계를 사용하면서 『범망경』의 보살계를 재가신자를 위한 계율로 하였다. 보살계 10중계는 살생하지 말라(不殺戒), 주지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不偷盜戒), 음행하지 말라(不婬戒),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戒), 술을 사지 말라(不酤酒戒),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不說過戒),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不自讚毀他戒), 아끼지 말라(不慳戒), 성내지 말라(不瞋戒),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不謗三寶戒)이다.

441) 조(租) :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의 한가지.

442) 초정(椒庭)은 산초나무를 바른 황후의 벽을 말하는 것으로 외척을 뜻하며, 열악(列岳)은 아내의 백(伯)·숙(叔)·부모를 가리키므로 초정은 왕의 인척들을 말한다.

443) 계품(戒品) : 계의 품류(品類)와 종별, 5계·6계·10선계 등이 있다.

444) 발연사(鉢淵寺) :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용계리 금강산에 있던 절. 진표가 창건하여 고려 때까지 제자들이 명맥을 이어가 1199년에 진표를 기리는 비인 「관동풍악발연수석기」를 세웠다.

445)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 의하면 진표는 명주 해변에서 물고기 등에게 계법을 주고 나서 고성군(高城郡) 개골산(皆骨山, 금강산)에 들어가 발연수(鉢淵薺)를 창건하고 점찰법회를 열어 7년을 지냈으며 명주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자 구원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불사의방과 진문대덕방(眞門大德房) 등에서 지냈는데 속리산의 영심(永深)과 융종(融宗), 불타(佛陀) 등이 찾아와 융맹정진

법을 얻은 수제자는 영심(永深)⁴⁴⁶⁾·보종(寶宗)·신방(信芳)·체진(體珍)·진해(珍海)·진선(眞善)·석충(釋忠) 등인데 모두 산문(山門)의 조사가 되었다. 영심은 진표의 간자를 이어받아 속리산에 살며 법통을 이은 제자가 되었는데, 단을 만드는 법이 『점찰경』의 육륜법(六輪法)⁴⁴⁷⁾과는 조금 다르지만 산중에 전하는 본래 법규와 같이 수행하였다.

表旣受聖蒞，來住金山，每歲開壇，恢張法施，壇席精嚴，末季未之有也。風化旣周，遊涉到阿瑟羅州。島嶼間魚鼈成橋，迎入水中，講法受戒，卽天寶十一載壬辰二月望日也。或本云元和六年，誤矣。元和在憲德王代(去聖德幾七十年矣)。景德王聞之，迎入宮闈，受菩薩戒，囑租七萬七千石。椒庭列岳，皆受戒品，施絹五百端，黃金五十兩。皆容受之，分施諸山，廣興佛事。其骨石今在鉢淵寺，卽爲海族演戒之地。得法之袖領，曰永深，寶宗，信芳，體珍，珍海，眞善，釋忠等，皆爲山門祖。深則眞傳簡子，住俗離山，爲克家子，作壇之法，與占察六輪稍異，修如山

하며 계법을 청하자 가르침을 전하고 경전과 간자를 주며 길상초가 있던 곳에 길상사를 창건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다시 아버지와 함께 발연사로 가서 도를 닦으며 효성을 다하였다고 한다. 이후 절의 동쪽 큰 바위 위에 올라가 죽으니 제자들이 그 시체를 옮기지 않고 공양하여 해골이 되어 흩어진 다음에 흙으로 덮고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무덤에 소나무가 자라고 예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유골을 줍기도 하였기 때문에 유골이 모두 없어질까 염려하여 사주(寺主) 영잠(瑩岑)이 1197년에 뼈를 주워 모시고 비석을 세웠다고 하였다.

446) 영심(永深) : 신라의 승려로 진표의 제자. 「관동풍악발연수석기」에 의하면 속리산에 있다가 융종(融宗)·불타(佛陁) 등과 함께 진표에게 가서 참회행을 보여주어 진표의 수제자가 되었으며, 진표로부터 『점찰선악업보경』과 간자 등을 받아 속리산으로 돌아와 길상사(吉祥寺)를 짓고 머물면서 점찰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447) 육륜법(六輪法) : 『점찰선악업보경』의 제3륜상(第三輪相)에 의해 3세(三世)의 과보(果報)를 점쳐서 189종의 차별상을 나타내는 법이다.

中所傳本規.

『당고승전(唐高僧傳)』⁴⁴⁸⁾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였다. “개황(開皇) 13년(593)에 광주(廣州)⁴⁴⁹⁾의 어떤 스님이 참법(懺法)⁴⁵⁰⁾을 행하는데 가족으로 족지 두 장을 만들어 선·악 두 글자를 써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던지게 해서 선을 얻으면 길하다 했다. 또 자박참법(自撲懺法)⁴⁵¹⁾을 행하여 지은 죄가 없어지게 한다고 하여 남녀가 함께 모여 요망스럽게 그 법을 받아들여 비밀히 행하였다. 청주(靑州)⁴⁵²⁾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같이 행하였다. 관사(官司)가 조사해보고 이를 요망하다고 했더니 그들은 말했다. ‘이 탐참법(搭懺法)⁴⁵³⁾은 『점찰경』에 따른 것이며 박참법도 여러 경전에 「오체투지(五體投地)하기를 마치 큰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다」⁴⁵⁴⁾고 한 것에 의한

448) 당승전(唐僧傳)은 『당고승전(唐高僧傳)』 곧 『속고승전(續高僧傳)』을 말한다. 『속고승전』은 당(唐) 정관 19년(645)에 도선(道宣, 596~667)이 찬술한 것으로 『고승전(高僧傳)』 곧 『양고승전(梁高僧傳)』에 수록된 이후의 남북조에서 초당에 이르는 승려들의 전기를 모아 엮은 책으로 실제로는 665년까지 증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 30권에 10개 항목으로 본전(本傳) 414인, 부전(附傳) 201인의 전기를 엮었다.

449) 광주(廣州):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주.

450) 참법(懺法): 참회 수행하는 법.

451) 자박참법(自撲懺法): 자신의 몸을 부딪히는 등 고행을 행하고 참회하는 수행법을 말한다. 『당고승전(大50 p.435c29)에는 작가법(自撲法)이라 하였다.』

452) 청주(靑州): 중국 산둥성(山東省) 유방시(濰坊市) 청주시(靑州市). 산둥반도 안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453) 탐참법(搭懺法): 글자를 던져 점쳐서 참회하는 수행법.

454) 『염불삼매해경』(大13 p.796a 15~16)이나 『현우경』(권1 大4 p.349c26~27)에 “몸에 땅에 던지기를 큰 산이 무너지듯 한다.”(以身投地, 如大山崩.)이라 하고, 『관불삼매해경』(권9 大15 p.689a3~4)에는 “큰 산이 무너지듯 오체를 땅에 던진다.”(如大山崩, 五體投地.)라고 하였다.

것이다.’ 그 때 이 사실을 아뢰니 (황제는) 내사시랑⁴⁵⁵⁾ 이원찬(李元撰)⁴⁵⁶⁾을 시켜 대흥사(大興寺)⁴⁵⁷⁾에 가서 여러 대덕에게 물었다. 대사문인 법경(法經)⁴⁵⁸⁾·언종(彦宗)⁴⁵⁹⁾ 등이 대답하기를, ‘『점찰경』은 현재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머리에 보리등(菩提燈)이 외국에서 번역한 글이라고 쓰여 있으나 근자에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옮겨서 전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바른 이름과 번역한 사람이나 시기나 장소가 모두 없으며 탐참은 여러 경과도 다르므로 따라서 행할 것이 못됩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칙명으로 이를 금지시켰다.”⁴⁶⁰⁾

이제 이것을 논평한다. 청주거사(靑州居士) 등의 탐참 등의 사건은 마치 큰 선비가 문자로 무덤을 파헤치는 것⁴⁶¹⁾과 같으니 가히 범을 그리다가 이

455) 내사시랑(內史侍郎) : 황제가 내리는 명령의 초고를 관장하는 관직명. 내사성의 장관 다음의 차관직이다. 당나라 초에 내사시랑이라 했다가 후에는 중서시랑(中書侍郎)이라고 했다.

456) 『당고승전(大50 p.436a4)에는 이원조(李元操)로 되어 있다.

457) 대흥사(大興寺) : 수와 당의 수도였던 중국 장안(長安)에 있던 사찰인 대흥선사(大興善寺)를 말한다. 수(隋) 개황(開皇) 2년(582) 문제(文帝)가 척점사(陟岾寺)를 이관하여 세운 웅장한 사찰로 수·당대에 많은 승려들이 운집하여 수학하였다.

458) 법경(法經) : 수(隋) 나라 때의 승려. 594년 경전목록인 『중경목록(衆經目錄)』(다른 목록과 구별하기 위해 찬자의 이름을 따서 법경록(法經錄)이라고도 함)을 찬술하였고, 언종(彦宗)과 함께 번경대덕(翻經大德)의 임무를 맡았다.

459) 언종(彦宗, 557~610) : 수(隋) 나라 때의 승려. 592년 대흥선사(大興善寺)에 들어가 번경(翻經)에 종사하였다. 번역한 경전은 23부 100여권이며, 602년 『법경록(法經錄)』을 본떠 경전 목록인 『수중경목록(隋衆經目錄)』(언종록(彦宗錄) 또는 인수록(仁壽錄)이라고도 한다)을 찬술하였다.

460) 이 내용은 『속고승전(續高僧傳)』 권2 달마급다(達摩笈多) 조에 실려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인용문은 몇 글자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일치한다.

461) 문자로 무덤을 파헤치는 것 : 『장자(莊子)』 외물편(外物篇)에 “유자(儒者)가 문자로 무덤을 파헤친다(儒以詩禮發塚)”는 말이 나오는데, 말세의 유학자가 학문을 악용하여 무덤을 파는 악행까지 행한다고 풍자한 것이다.

루지 못하고 개 모양을 만든 것⁴⁶²⁾과 같다. 부처님이 예방한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다. 만약 『점찰경』을 번역한 사람과 시기와 장소가 없다 하여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이야말로 삼을 취하고 금을 버리는 것이다.⁴⁶³⁾ 왜냐하면 그 경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단(悉壇)⁴⁶⁴⁾이 깊고 빈틈없어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고 게으른 사람을 격동케 함이 이 경전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름을 대승참(大乘懺)⁴⁶⁵⁾이라 하였으며 또 육근취(六根聚)⁴⁶⁶⁾ 가운데서 나왔다고도 한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⁴⁶⁷⁾』과 『정원석교록(貞元

462) 화호류구(畫虎類狗)의 고사로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에 나온다. 뛰어난 사람의 호걸풍을 본떠 경박함에 빠진다는 뜻이다.

463) 삼을 취하고 금을 버리다(擔麻棄金)는 『중아함경(中阿含經)』 권16에 있는 고사로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한다. 가난한 사람 둘이 여행을 하다가 길 옆에 마가 무성한 것을 보고 함께 지고 갔는데, 또 가니 은이 있고 다시 가니 금이 있었다. 한 사람은 그 때마다 마를 은으로 바꾸고 은을 금으로 바꾸어 지고 갔으나 다른 사람은 처음에 진 것을 고집하여 마를 계속 지고 갔다.

464) 실단(悉壇) : 圖 siddhānta, 성취·종(宗)·이(理) 등으로 의역한다. 부처가 중생을 교화한 가르침을 4개 범주로 나누어 4실단이라 하는데, 세계·각각위인(各各爲人)·대치(對治)·제일의(第一義)가 그것이다.

465) 대승참(大乘懺) :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에 의한 참법(懺法).

466) 육근취(六根聚) : 고제(苦諦)를 가리킨다. 육근은 안·이·비·설·신·의의 신체 의 여섯 감각 기관을 말하고 취(聚)란 모여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육근에 의해 고통이 생겨 모여 있음을 말한다.

467)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 당(唐) 나라 현종 개원(開元) 18년(730)에 지승(智昇)이 편찬한 20권의 불서(佛書) 목록으로 『개원록(開元錄)』·『지승록(智昇錄)』이라고도 한다. 전반부 10권은 「총괄군경록(總括群經錄)」으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67년부터 730년까지 664년 동안 176명의 역경승들이 번역한 대소승 경·율·론, 합계 2278종 7046권의 역경을 시대별·번역자별로 열거, 수록하였다. 후반부 10권은 「별분승장록(別分乘藏錄)」으로서, 이중 앞부분에는 경을 위주로 7가지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끝부분 2권에는 대·소승의 입장목록(入藏目錄)으로서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 총계 1076부(部) 5048권의 목록이다. 이를 기준으로 “일체경 5천권” 등의 말이 생겨났으며, 역대 대장경의 조판은 대체로 이 목록에

釋教錄』⁴⁶⁸⁾중에는 정장(正藏)⁴⁶⁹⁾에 편입되어 있으니 비록 성종(性宗)⁴⁷⁰⁾은 아니지만 상교(相敎)⁴⁷¹⁾의 대승(大乘)으로는 또한 뛰어난 셈이다. 어찌 답참·박참의 두 참법과 함께 말하겠는가?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⁴⁷²⁾에서 “부처가 장자(長者)⁴⁷³⁾의 아들 빈야다라(那若多羅)⁴⁷⁴⁾에게 일렀다. ‘네가 7일 낮 7일 밤 동안 너의 지난 죄를 뉘우쳐 모두 깨끗이 할 수 있겠느냐?’ 빈야다라가 가르침을 받들어 밤낮으로 정성껏 하여 5일째 되는 날 저녁이 되자 그 방안에 여러가지 물건이 비오듯 내려 수건·복두·총채·빗자루·칼·송곳·도끼와 같은 것이 그의 눈 앞

따라 간행되었다. 지승은 대장경 목록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천자문(千字文) 순서에 따라 차례를 매겼다.

468) 『정원석교록(貞元釋教錄)』: 당(唐) 나라 덕종 정원(貞元) 10년(794) 원조(圓照)가 편찬한 30권의 불서 목록으로 『정원록(貞元錄)』이라고도 한다. 『개원록』에 더하여 경론과 염송법(念誦法) 193권, 경론 소의(疏義) 64권, 새로 모은 고금제령비표기(古今制令碑表記) 86권, 합계 343권과 이 책의 목록 2권을 더하여 345권을 수록하였다.

469) 정장(正藏): 대장경에 정식 수록이 인정된 인도에서 저술된 경전.

470) 성종(性宗): 법성종(法性宗)을 말한다. 일체 제법은 진여법성(眞如法性)에서 생겨났다는 것에서 법성(法性)에 대한 추구를 종지(宗旨)로 하며 화엄종(華嚴宗), 천태종(天台宗) 등이 이에 해당된다.

471) 상교(相敎): 법상종(法相宗)을 말한다. 식(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제법의 현상을 치밀하게 분류 고찰하고 진리의 차별상을 중시하므로 성종(性宗)에 대하여 상종(相宗)이라고 불렸다.

472)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은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을 말한다. 𑖀 Śāriputra-pariprcchā, 1권으로 동진(東晉) 때의 번역되었으나 역자는 알 수 없다. 소승율부에 속하는 대중부 전승의 경전으로 사리불(舍利弗)의 질문에 부처가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계율 전승의 차례, 계율의 분과, 의발과 음식, 상법시대의 불교, 빈야다라의 수계, 정식(淨食)과 부정식, 부처 친척의 출가, 부모와 스승의 은혜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473) 장자(長者): 가문이 좋고 재력과 덕을 갖춘 사람.

474) 『사리불문경』(大24 p.902b4~5)에는 분야다라(分若多羅).

에 떨어졌다. 빈야다라는 기뻐하며 부처에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티끌 세상을 벗어날 상이니, 베고 터는 물건들이다’⁴⁷⁵⁾라고 한 것과 같다. 이에 의거한다면 『점찰경』에서 윤(輪)을 던져 상(相)을 얻는 것⁴⁷⁶⁾과 어찌 다르겠는가? 이에 진표가 참회를 일으켜 간자를 얻고, 법을 듣고, 부처를 본 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경이 거짓이요 헛된 것이라면 미륵이 어찌서 친히 진표스님에게 전해 주었겠는가? 또 이 경을 금해야 한다면 『사리불문경』도 또한 금할 것인가? 언종(彦琮)의 무리는 금을 훔칠 때 (금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⁴⁷⁷⁾고 할 수 있으니 독자들은 자세히 살필 일이다.

찬한다.

말세에 나타나 몽매한 사람 깨우치니

영산(靈山) 선계(仙溪)에서 감응하여 통했다.

정성으로 탑참(搭讖)만 전했다 하지 마라

동해에 다리 놓은 어룡도 감화했도다.

按唐僧傳云, “開皇十三年, 廣州有僧行讖法, 以皮作帖子二枚, 書善惡兩字, 令人擲之, 得善者吉. 又行自撲讖法, 以爲減罪. 而男女合匿, 妄承密行. 青州接響同行, 官司檢察, 謂是妖妄, 彼云, ‘此搭讖法依占察經, 撲讖法依諸經中, 「五體投地如大山崩」’ 時以奏聞, 乃勅內史侍郎李元撰, 就大興寺, 問諸大

475) 『사리불문경』(大24 p.902b4~16)의 내용을 중간 중간에 인용한 것. 약간의 글자 차이가 있다.

476) 윤(輪)을 던져 상(相)을 얻는다는 것은 선·악 두 글자가 새겨진 목륜(木輪)을 돌 던져 나오는 대로 점쳐 참회 수행하는 탑참법을 말한다

477) 확금(攬金)은 남의 금을 훔칠 때 금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고사로 『열자(列子)』에 나온다.

德，有大沙門法經彦琮等對曰，‘占察經見有兩卷，首題菩提燈
在外國譯文 似近代所出 亦有寫而傳者 檢勘群錄，竝無正名譯
人時處，搭讖與衆經復異，不可依行。’因勅禁之。”

今試論之，青州居士等搭讖等事，如大儒以詩書發塚，可謂畫
虎不成，類狗者矣。佛所預防，正爲此爾。若曰，占察經無譯人
時處，爲可疑也。是亦擔麻棄金也。何則 詳彼經文，乃悉壇深
密，洗滌穢瑕，激昂懶夫者 莫如茲典 故亦名大乘讖。又云 出
六根聚中。開元貞元二釋教錄中，編入正藏，雖外乎性宗，其相
教大乘，殆亦優矣。豈與搭撲二讖，同日而語哉？

如舍利佛問經，“佛告長者子邠若多羅曰，‘汝可七日七夜悔
汝先罪，皆使清淨？’多羅奉教，日夜懇惻，至第五夕，於其室
中，雨種種物，若巾若帔若拂箒若刀錐斧等 墮其目前，多羅歡
善，問於佛。佛言，‘是離塵之相，割拂之物也。’” 據此，則與占
察經擲輪得相之事，奚以異哉？乃知表公翹讖得簡，聞法見佛，
可謂不誣。況此經若僞妄，則慈氏何以親授表師？又此經如可
禁，舍利問經亦可禁乎？琮輩可謂攫金不見人，讀者詳焉。

讚曰 現身澆季激慵聾，靈岳仙溪感應通。莫謂翹懃傳搭讖，作
橋東海化魚龍。

5-11 승전과 돌 해골

[해제]

중국의 현수법장(賢首法藏)에게 화엄을 배워 신라에서 전파한 승전의 이야기이다. 승전 자신의 생애 기술은 대부분이 빠져 있고 중국 유학과 화엄 전수 사실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승전이 법장 문하에서 수학하고 귀국할 때 법장이 지엄에게서 동문 수학했던 선배 의상에게 서신과 함께 자신의 저술을 보냈다. 여기에는 이때 가져온 저술 목록과 선물을 보내는 사연이 적힌 서신 별록을 모두 수록하고, 의상이 제자들에게 이 책을 강연하게 하였음을 말하였다. 법장이 보낸 서신 본문은 의상편에 실려 있다. 이 편은 승전의 법장 저술 전래에 이어서 징관의 신역 『화엄경소』를 가져와 강연했던 범수(梵修)의 이야기를 실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신라에 화엄이 전파된 뜻을 더하였다. 그리고 승전이 갈항사(葛項寺)에서 돌 해골에게 화엄을 강의하고, 가귀(可歸)가 그 가르침을 계승하였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다른 편보다도 제목에 맞게 특정 사실만을 집중 편집한 『삼국유사』의 특성이 잘 드러난 항목이다.

[역주]

승전과 돌 해골

승전(勝詮)⁴⁷⁸⁾ 스님은 그 출신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일찍이 배를 타고 중국에 건너가 현수국사(賢首國師)⁴⁷⁹⁾의 강석에 나아가 현묘한 말씀을 받고

미묘한 것을 연구하여 조예가 깊었다. 지혜가 뛰어나 은밀하고 세세한 것을 찾아내고 심오한 것을 다 알아냈다. 인연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처음에 현수는 의상(義相)⁴⁸⁰⁾과 함께 공부하여 지엄(智嚴)⁴⁸¹⁾화상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았다. 현수는 스승의 학설에 대하여 문의(文義)와 과목(科目)을 강연하고 기술하여 승전법사가 고향에 돌아오는 편에 맡기니 의상도 이에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그 별지⁴⁸²⁾는 이렇다. 『탐현기(探玄記)』⁴⁸³⁾ 20권인데 그중 2권은 미완성,

478) 승전(勝詮): 중국 화엄종의 대성자인 법장에게 배우고 신라에 돌아와 화엄을 편 화엄종 승려.

479) 현수국사(賢首國師): 중국 화엄종의 대성자 법장(法藏). 643~712. 지엄(智嚴)에게 의상과 함께 화엄을 배우고 측천무후의 후대를 받아 화엄사상을 집대성하였으며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의 번역에도 참여하였다. 『화엄경』을 해석한 『탐현기(探玄記)』를 비롯하여 화엄종의 체계를 세운 『교분기(教分記)』 외에 『기신론소(起信論疏)』,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등의 많은 저서가 있다. 5-8 주345) 참조.

480) 의상(義相): 625~702.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 황복사에서 출가한 후 당에 유학하여 지엄에게서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지어 일(一)과 다(多)가 결립 없이 거듭 전개되는 법계연기 사상을 정립하였다. 귀국한 후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절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과 화엄사상을 연마하고 정진하며 화엄종을 펴 나갔다. 5-8 주309) 참조.

481) 지엄(智嚴): 602~668.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 지상대사(至相大師) 또는 운화존자(雲華尊者)로 불린다. 신라의 의상과 중국의 법장의 스승으로서 화엄종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두순(杜順)을 따라 두순의 제자인 달(達)법사에게 배우고 법상(法常)과 지정(智正)에게 교학을 연마하였다. 화엄경을 차례대로 해석한 『수현기(搜玄記)』와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은 『공목장(孔目章)』 등을 지어 중국 화엄종의 기반을 이루었다. 5-8 주322) 참조.

482) 법장(法藏)의 서신은 「현수국사기해동서(賢首國師寄海東書)」라는 제목으로 전한다. 韓4 p.635c4~636a13.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서신 원본은 일본 천리대(天理大)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 의상전교(義湘傳敎)에는 서신의 본문을 실고, 이 승전축루 항목에는 도서 목록인 별지를 나누어 실었다.

『교분기(敎分記)』⁴⁸⁴⁾ 3권, 『현의장등잡의(玄義章等雜義)』⁴⁸⁵⁾ 1권, 『화엄범어(華嚴梵語)』⁴⁸⁶⁾ 1권, 『기신론소(起信論疏)』⁴⁸⁷⁾ 2권,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⁴⁸⁸⁾ 1권, 『법계무차별론소(法界無差別論疏)』⁴⁸⁹⁾ 1권을 모두 승전법사가

483) 탐현기(探玄記):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탐현(探玄)』등으로 불리고 20권이다. 중국 화엄종의 대성자인 당의 법장이 스승인 지엄의 『수현기(搜玄記)』를 따라서 동진의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의 대요를 해석한 것이다. 10문(十門)으로 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해석인 수문해석(隨文解釋)에 앞서 교학의 연유와 차별, 종취(宗趣)와 제목의 해석, 번역 그리고 문의분제(文義分齊)가 있다.

484) 『교분기(敎分記)』: 『화엄일승교분기(華嚴一乘敎分記)』,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敎義分齊章)』,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이라고도 하며 4권 혹은 3권이다. 중국 화엄종을 완성한 당의 법장이 전체 교학을 소승교(小乘敎)·대승시교(大乘始敎)·대승종교(大乘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의 5교와 아법구유종(我法俱有宗)·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법무거래종(法無去來宗)·현통가실종(現通假實宗)·속망진실종(俗妄眞實宗)·제법단명종(諸法但名宗)·일체개공종(一切皆空宗)·진덕불공종(眞德不空宗)·상상구절종(相想俱絕宗)·원명구덕종(圓明俱德宗)의 10종으로 나누어 체계화하고, 특히 원교 중에 『법화경』은 동교일승(同敎一乘)인데 비해 『화엄경』은 별교일승(別敎一乘)임을 확실히 하여 화엄의 우위를 확고히 하고 화엄종 형성의 바탕을 이루었다.

485) 『현의장등잡의(玄義章等雜義)』: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486) 『화엄범어(華嚴梵語)』: 『별번화엄경중범어(別翻華嚴經中梵語)』 또는 『화엄번범어(華嚴翻梵語)』, 『화엄범어급음의(華嚴梵語及音義)』라고도 한다. 『화엄경』에 나오는 산스크리트어를 해설한 책으로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487) 『기신론소(起信論疏)』: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5권 혹은 3권이다. 당의 법장이 지은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를 말한다. 『대승기신론』이 여래장엄기 사상임을 밝힌 주석서로 이후의 주석서의 기본이 되었다.

488)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 『십이문론종치의기(十二門論宗致義記)』 2권이다. 당의 법장이 용수(龍樹)가 지은 『십이문론(十二門論)』을 인도 지광법사(智光論師)의 삼시교판(三時敎判)을 받아들여 해석한 책이다.

489) 『법계무차별론소(法界無差別論疏)』: 『대승법계무차별론소(大乘法界無差別論疏)』 2권이다.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에 대해 당의 법장이 찬술한 주석서이다.

베껴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전날에 신라 효충(孝忠)스님⁴⁹⁰⁾이 금 9푼을 보내어 ‘이것은 상인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오니 비록 서신은 받지 못했으나 감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제 서국(西國)⁴⁹¹⁾의 군지(軍持)⁴⁹²⁾와 조관(澡灌)⁴⁹³⁾ 한 개씩을 보내어 작은 성의를 표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아웁니다.”

승전법사가 돌아와서 서신을 의상에게 전했다. 의상이 법장의 서신을 펴 보니 마치 스승 지엄의 가르침을 귀로 듣는 것만 같았다. 수십 일 동안 탐구 검토하여 문하 제자들에게 주어⁴⁹⁴⁾ 이 글을 널리 강연하게 했다. 이 말은 의상전에 있다.⁴⁹⁵⁾

이를 살펴보니 이 원융한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두루 퍼진 것은 실로 승전스님의 공이다. 그 뒤 범수(梵修)⁴⁹⁶⁾스님이 있어서 멀리 당나라에 가서

490) 효충(孝忠): 의상의 선불을 법장에게 전달한 신라 승려로 의상의 제자로 생각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491) 서국(西國): 인도를 말함.

492) 군지(軍持): ① kuṇḍī, kuṇḍikā. 군지(君持) 또는 군치가(拈稚迦) 등으로 음역하고, 병(瓶)·조병(澡瓶)·수병(水瓶) 등으로 의역한다. 범천이나 관음보살의 지물이며 대승 비구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물건의 하나이다.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정병(淨瓶) 이외에 여러 용도의 용기가 있으며, 도기나 청동 등으로 만든다.

493) 조관(澡灌): 물을 담아 두는 주전자.

494) 의상은 제자인 진정(眞定)과 상원(相元), 양원(良圓), 표훈(表訓)을 불러 법장의 『탐현기』를 강의하게 하면서 “나를 넓히는 자는 장공이고, 나를 일으키는 자는 너희들이다.(博我者藏公 起我者爾輩)”고 하였다.(최치원,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

495) 이 의상전은 신라 말에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구절은 현재 전하는 전적으로는 역시 최치원이 지은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 실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상전이라 하였으므로 지금은 전하지 않는 「부석존자전」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496) 범수(梵修): 800년 전후하여 활동한 신라의 화엄 승려.

새로 번역한 후분(後分)『화엄경(華嚴經)』⁴⁹⁷⁾에 대한 정관(澄觀)⁴⁹⁸⁾ 스님의 『화엄경소(華嚴經疏)』⁴⁹⁹⁾를 구해 돌아와 강연했다고 한다. 때는 정원⁵⁰⁰⁾ 기묘년(799)이었다. 이도 또한 불법을 구하여 널리 드날린 사람이라 하겠다.

승전스님은 상주(尙州)⁵⁰¹⁾ 영내의 개령군(開寧郡)⁵⁰²⁾ 경계에 절을 짓고

497) 후분(後分)『화엄경(華嚴經)』: 『화엄경』은 세 차례 번역되었는데, 불타발타라(佛駄跋陀羅)가 418~420년에 번역한 진본(晋本)이라 부르는 60권본, 실차난타(實叉難陀)가 695년부터 699년까지 번역한 당본(唐本)으로 부르는 80권본, 그리고 계빈(闍賓) 등이 795년에 번역한 정원본(貞元本)이라 부르는 40권본이 있다. 여기서는 마지막 40권본을 말한다.

498) 정관(澄觀) 738~839.: 중국 화엄종의 제4조. 월주(越州) 산음인(山陰人)으로 속성은 하후(夏侯)씨이고, 자는 대휴(大休)이며 호는 청량(淸涼)국사이다. 11세에 보림사(寶林寺) 패(霈)선사에게 출가하여 계율과 삼론·기신·열반·화엄·천태·선을 두루 익히고 유학에도 능통하였는데, 특히 법장의 화엄학에 열중하였다. 776년에 오대산과 아미산을 순례하고 오대산 화엄사에서 방등참법(方等懺法)을 수행하고 화엄종지를 펴서 이름을 드날렸다. 796년에 덕종의 부름으로 장안에 가서 계빈삼장과 함께 (40)『화엄경』을 번역하고 종남산 초당사(草堂寺)에서 이 신경의 소를 지었다. 덕종으로부터 청량국사의 호를 받고 순종과 현종도 국사로 봉하였다. 3조인 법장의 직제자는 아니나 법장의 사상을 계승하여 4법계론을 완성하고 선종의 발흥에 대응하여 화엄사상을 발전, 대성시켰다. 『화엄경소(華嚴經疏)』60권, 『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90권, 『화엄경강요(華嚴經綱要)』3권, 『오온관(五蘊觀)』, 『삼성원융관문(三聖圓融觀門)』 등 30여종의 저술이 있다. 제자로는 종밀(宗密)을 비롯하여 승예(僧叡)·법인(法印)·적광(寂光) 등 백 여 명이 있다.

499) 의소(義疏): 정관(澄觀)의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를 말한다. 화엄대소(華嚴大疏)라고 불리며 784~787년 사이에 저술한 80권본 『화엄경』의 주석서이다. 10문으로 나누어 『화엄경』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밝혔는데 두 번째 장교소섭(藏教所攝)에서 제 교관을 소개하고 화엄이 5교 중에 원교임을 밝혔으며 세 번째 의리분제(義理分齊)에서 이사무애 등의 법계연기설을 밝혔다. 80화엄의 해석은 이 정관소가 가장 중요하다. 지은지 10여년 만에 수용된 이 소와 함께 80화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00) 정원(貞元): 당 덕종(德宗)의 연호. 785~805. 정원 기묘년은 799년으로 신라 소성왕(昭聖王) 원년.

501) 상주(尙州): 경상북도 상주시. 통일신라 신문왕 때 전국을 9주로 편제하면서 지

돌 해골들을 관속으로 삼아 『화엄경』⁵⁰³⁾을 강의했다. 신라의 사문 가귀(可歸)가 자못 총명하고 도리를 알아 법등(法燈)을 계승하여⁵⁰⁴⁾ 이에 『심원장(心源章)』⁵⁰⁵⁾을 저술하였다. 그 대략을 말하면, “승전법사는 돌 무리들을 거느리고 논의하고 강연했으니 지금의 갈항사(葛項寺)⁵⁰⁶⁾이다. 그 돌 해골 80여개는 지금까지 주지⁵⁰⁷⁾에게 전하고 있으니 자못 영험과 이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 밖의 사적은 비문에 모두 실려 있으며 『대각국사실록(大覺國師

금의 경복 중서부 지역을 상주의 관할로 하였다.

- 502) 개령(開寧): 경북 김천시(金泉市) 개령면(開寧面). 본래 감문소국(甘文小國)이었고 감문군(甘文郡)이라 하였다가 경덕왕때 개령군으로 고치고 고려 현종 때 상주에 소속되었다.
- 503) 화엄경(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석존이 깨달은 지 이칠일제에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자나불을 설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이라 한다. 내용은 부처가 되는 인행(因行)과 과덕(果德)을 설한 것으로 십지(十地)를 비롯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 수행 계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부인 입법계품은 선재동자 보살행을 묻고자 53선지식을 찾아 구도 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번역본은 60권본, 80권본, 40권본의 세 가지가 있다. 5-6 주242) 참조.
- 504) 전등(傳燈): 스승에서 제자로 교법이 전해지는 것, 전법(傳法)과 같은 말로 법맥이 전해져 끊이지 않는 것이 등불이 서로 이어져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 505) 『심원장(心源章)』: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 506) 갈항사(葛項寺): 승전이 창건한 경상북도 금릉군 남면 금오산 서쪽에 있던 절. 쌍탑이 있는데 동탑 상층 기단 면석에 758년(경덕왕 17)에 영묘사(零妙寺) 언적(言寂)법사와 조문황태후(昭文皇太后)와 경신태왕(敬信太王)의 세 자매가 발원하여 건립하였다는 석탑기가 남아 있어 왕실과 관련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탑은 원터에서 1916년 경북궁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있다.
- 507) 강사(綱司)는 사원의 운영을 책임맡은 삼강전(三綱典)의 직책이라는 뜻으로 주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實錄)』⁵⁰⁸⁾에 있는 것과 같다.

勝詮髑髏

釋勝詮, 未詳其所自也. 常附舶指中國, 詣賢首國師講下, 領受玄言, 研微積慮. 惠鑒超穎, 探蹟索隱, 妙盡隅奧. 思欲赴感有緣, 當還國里. 始賢首與義湘同學, 俱稟儼和尚慈訓. 首就於師說, 演述義科, 因詮法師還鄉寄示, 湘仍寄書(云云). 別幅云“探玄記二十卷, 兩卷未成, 教分記三卷, 玄義章等雜義一卷, 華嚴梵語一卷, 起信疏兩卷, 十二門疏一卷, 法界無差別論疏一卷, 竝因勝詮法師抄寫還鄉. 頃新羅僧孝忠遺金九分云, ‘是上人所寄’, 雖不得書, 頂荷無盡. 今附西國軍持澡灌一口, 用表微誠, 幸願檢領. 謹宣.” 師旣還, 寄信于義湘. 湘乃目閱藏文, 如耳聆儼訓. 探討數旬, 而授門弟子, 廣演斯文. 語在湘傳. 按此圓融之教誨, 遍洽于青丘者, 寔師之功也. 厥後有僧梵修, 遠適彼國, 求得新譯後分華嚴經, 觀師義疏, 言還流演. 時當貞元己卯, 斯亦求法洪揚之流乎.

詮乃於尙州領內開寧郡境, 開創精廬, 以石髑髏爲官屬, 開講華嚴. 新羅沙門可歸, 頗聰明識道理, 有傳燈之續, 乃撰心源章. 其略云, “勝詮法師領石徒衆, 論議講演, 今葛項寺也. 其髑髏八十餘枚, 至今爲綱司所傳, 頗有靈異.” 其他事迹具載碑文, 如大覺國師實錄中.

508) 『대각국사실록(大覺國師實錄)』: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이 편찬한 『원종문류(圓宗文類)』를 말한다. 의천이 화엄종의 여러 전적을 모아 엮은 22책 분량의 이 책 권22에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서간이 「현수국사기해동서(賢首國師寄海東書)」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12 심지가 조사를 잇다

[해제]

진표(眞表)의 제자인 영심(永深)을 계승하여 간자(簡子)로 점찰법을 수행한 심지의 이야기이다. 심지는 헌덕왕의 왕자로서 공산(公山)에서 수행하다 속리산의 영심이 개설한 간자 법회에 찾아갔다. 간절한 예배 끝에 간자 2개를 받아 와서 산신과 함께 동화사(桐華寺) 참당에 자리를 잡아 모셨다. 이어서 고려 예종 때 이 간자를 대궐에 가져다 예배하였다는 이야기를 싣고, 『점찰경』에 나오는 189 간자 중에서 앞과 뒤 10여 개의 이름을 일일이 들고 이것이 선악 과보의 차별상을 나타낸 것임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



팔공산 동화사

189 간자와 『송고승전』 진표전의 108 첩자를 대비시켜 살펴 보고, 고려의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에 진표의 가사와 189 간자가 석충(釋沖)에 의해 고려 태조에게 전해졌다는 기사를 수록하였다. 간자를 중심으로 진표에서 영심, 심지로 이어지는 계승과 석충의 전승 등 점찰 수행의 계보를 엮어 이룬 것이 이 항목이다.

[역주]

심지가 조사를 잇다

심지(心地)⁵⁰⁹⁾ 스님은 신라⁵¹⁰⁾ 제41대 임금 헌덕대왕(憲德大王)⁵¹¹⁾ 김씨(金氏)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효도하고 우애가 있으며 천성이 사리에 밝고 지혜로웠다. 15살⁵¹²⁾에 머리를 깎고 스승을 따라 불도(佛道)를 부지런히

509) 심지(心地) : 심지(心智)라고도 쓴다.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사리함기인 「민애대왕석탑기(敏哀大王石塔記)」에 경문왕 3년(863)에 민애왕(838~839)을 추복하기 위한 석탑 건립을 주관한 인물 중 승려로는 첫 번째로 나오는 전지대덕(專知大德) 직책의 심지(心智)와 동일인으로 생각된다. 심지의 어머니인 헌덕왕비 귀승(貴勝)량은 민애왕과 동기간으로 충공(忠恭)의 딸이다(『삼국유사』 왕력).

510) 진한(辰韓)은 원삼국시대 삼한(三韓) 가운데 하나로,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1 신라본기 시조 혁거세거서간 조를 보면 진한은 경상도 지방에 있었으며 그 중심은 경주지방의 사로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진한은 신라의 이칭으로 쓰였다.

511) 헌덕대왕(憲德大王) : 신라 제41대 왕. 재위 809~826. 휘는 언승(彦昇)으로 소성왕(昭聖王)의 동생이다. 비는 각간 예영(禮英)의 딸 귀승부인(貴勝夫人)이다. 790년(원성왕 6) 당나라에 다녀와 대아찬 잡찬을 거쳐 794년 시중(侍中), 795년 재상이 되었다. 800년 조카인 애장왕(哀莊王)이 즉위하자 병부령으로서 섭정을 하였으며, 이듬해 상대등이 되었다가 809년 동생 계옹(梯邕)과 함께 난을 일으켜 애장왕을 죽이고 즉위하였다. 재위 중반에 잦은 가뭄 등이 있었고 김현창(金顯昌)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당에 사신을 자주 파견하고 문물 교류를 하는 등 친당정책을 폈으며 대동강에 3백리의 장성(長城)을 쌓았다.

닭았다. 중악(中岳)⁵¹³⁾〈지금의 공산(公山)〉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침 속리산의 영심(永深)⁵¹⁴⁾공이 진표율사(眞表律師)의 불골간자(佛骨簡子)⁵¹⁵⁾를 전해 받아 과증법회(果證法會)⁵¹⁶⁾를 개설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정하고 찾아갔으나, 이미 기일이 지난 뒤에 도착하여 참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에 마당에 앉아 땅을 치면서 대중을 따라 예배하고 참회 수행하였다. 7일이 지나자 하늘에서 큰 비와 눈이 내렸는데 서 있는 자리 사방 10자 가량은 눈이 휘날리기만 할 뿐 내리지 않았다. 대중들이 그 신이함을 보고 법당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심지는 사양하고 병을 핑계로 방 안에 물러나 있으면서 법당을 향하여 가만히 예배했더니 팔꿈치와 이마에서 모두 피가 흘러 마치 진표(眞表)공이 선계산에서 그런 것과 같았다.⁵¹⁷⁾ 지장보살⁵¹⁸⁾이 날마다

512) 지학지년(志學之年)은 『논어(論語)』에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15세를 말한다.

513) 중악(中岳) : 부악(父岳) 또는 공산(公山)이라고 하며, 지금의 대구 팔공산(八公山)을 가리킨다. 신라시대에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던 오악(토함산·지리산·계룡산·태백산·부악) 가운데 하나로 중사(中祀)에 속하였다.(『삼국사기』 권32, 잡지 제1 제사).

514) 영심(永深) : 신라의 승려로 진표의 제자. 속리산에 있다가 용종(融宗)·불타(佛陀) 등과 함께 진표에게 가서 참회행을 보여주어 진표의 수제자가 되었다. 진표로부터 『점찰선악업보경』과 간자 등을 받아 속리산으로 돌아와 길상사(吉祥寺)를 짓고 머물면서 점찰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515) 불골간자(佛骨簡子) : 『삼국유사』 권4 진표전간(眞表傳簡) 조에 보면 진표가 미륵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189개의 간자 가운데 제8·9간자는 미륵의 손가락 뼈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516) 과증법회(果證法會) : 과증(果證)은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름을 말한다.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법회이다.

517) 진표공이 선계산에서 그런 것과 같았다는 것은 진표가 선계산 불사의암에 머물면서 온 몸을 던지는 망신참회(亡身懺悔) 끝에 14일만에 지장보살(地藏菩薩)에게 계를 받은 것을 말한다.(『삼국유사』 권4 진표전간)

518) 지장보살 : 圖 Kṣitigarbha. 석가여래의 부축을 받아, 석존이 입멸한 후 미륵보살

와서 그를 문안하고 위로하였다.

법회가 끝나고 산으로 돌아갈 때 도중에서 두 간자가 옷쇼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돌아가서 영심에게 아뢰었다. 영심이 말하기를, “간자는 함 속에 있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검사해보니 봉한 표지는 예전대로인데 열어보니 없었다. 영심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듭 싸서 간직하였다. (심지가) 또 가는데 처음과 같아서 다시 돌아가서 아뢰었다. 영심이 말하기를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그것을 받들어 행하라.” 하고는 간자를 주었다.

심지가 그것을 머리에 이고 산으로 돌아오는데, 산신이 두 선자(仙子)⁵¹⁹⁾를 데리고 나와 맞이하여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심지를 이끌어 바위 위에 앉히고, 돌아가 바위 밑에 엎드려 삼가 정계(正戒)를 받았다. 심지가 “이제 땅을 가려서 성인의 간자⁵²⁰⁾를 모시려 하는데 우리들만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대들 3군⁵²¹⁾과 함께 높은 데 올라가서 간자를 던져 점을

이 이 땅에 내려와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기까지의 무불(無佛)시대에 지옥을 포함한 육도의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서원한 자비와 연민의 보살이다. 『지장 십륜경(地藏十輪經)』에 조용히 참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대지와 같고 고요하게 생각함이 깊은 것이 신비하게 감추고 있는 것과 같아 지장이라 한다고 하였다.(安忍不動, 猶如大地, 靜慮深密, 猶如祕藏, 故稱地藏.) 지장보살은 과거 먼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온갖 악한 짓을 많이 하므로 중생들의 죄를 모두 없애 깨달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내었다고 한다. 이 지장신앙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그때서야 깨달음을 이루겠다(衆生度盡, 方證菩提.)”거나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地獄未空, 誓不成佛.)”라는 말이 생겨났다. 다른 보살들과는 달리 지장보살은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에 따라 머리를 깎은 승려의 형상으로 만들어 모신다. 대체로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육도를 상징하는 석장(錫杖)을 들고 있다.

519) 선자(仙子): 선동(仙童).

520) 성인의 간자: 미륵이 진표에게 준 부처님 뼈로 된 간자를 말한다.

쳐봅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산신 등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쪽을 향해 던지니 간자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갔다. 이때 산신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막고 있던 바위 멀리 물러나니 솟돌처럼 평평하고,

낙엽이 날아 흩어지니 앞길이 밝구나.

불골 간자를 찾아 얻어서,

깨끗한 곳에 모시고 정성을 다하리.”

노래를 마치고 간자를 숲 속의 샘 안에서 찾았다. 곧 그 자리에 집을 짓고 (간자를) 모셨으니 지금 동화사(桐華寺)⁵²²⁾ 첨당(籤堂) 북쪽에 있는 작은 우물이 이것이다.

고려⁵²³⁾ 예종(睿宗)⁵²⁴⁾이 일찍이 성인의 간자를 맞이해 와서 대궐 안에 두고 침례하며 공경하다가 갑자기 9간자 한 개를 잃어버려 상아로 그것을 대신 만들어 본 절에 돌려보냈다. 지금은 점점 변하여 같은 색이 되어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재질은 상아도 옥도 아니다.

釋心地, 辰韓第四十一主, 憲德大王金氏之子也. 生而孝悌, 天性冲審. 志學之年, 落采從師, 拳懃于道. 寓止中岳〈今公山〉, 適

521) 삼군: 산신과 두 선동.

522) 동화사(桐華寺):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팔공산에 있는 절. 『동화사사적기』에 의하면 혜공왕 8년(772)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진표의 계법과 간자를 계승한 심지가 흥덕왕 7년(832)에 중창하였다고 한다. 심지는 경문왕 3년(863)에 민애왕을 추복하기 위한 동화사 원당암 삼층석탑 건립을 주관하였다. 진표의 교법을 계승한 동화사는 법상종의 중요 사찰로서 고려시대에도 유가업, 법상종의 중심 사찰의 하나로 정종 2년에는 동화사 계단(戒壇)에서 경율(經律)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523) 원문의 본조(本朝)는 일연이 살았던 고려시대를 말한다.

524) 예종(睿宗): 고려 16대 임금. 재위 1105~1122년.

聞俗離山深公，傳表律師佛骨簡子，設果證法會，決意披尋，既至後期，不許參例。乃席地扣庭，隨衆禮懺，經七日，天大雨雪，所立地方十尺許，雪飄不下。衆見其神異，許引入堂地。撝謙稱恙，退處房中，向堂潛禮，肘顙俱血，類表公之仙溪山也。地藏菩薩日來問慰。

泊席罷還山，途中見二簡子，貼在衣褶間，持廻告於深。深曰，“簡在函中，那得至此。”檢之封題依舊，開視亡矣。深深異之，重襲而藏之。又行如初，再廻告之。深曰，“佛意在子，子其奉行，”乃授簡子。

地頂戴歸山，岳神率二仙子，迎至山椒。引地坐於崑上，歸伏崑下，謹受正戒。地曰，“今將擇地，奉安聖簡，非吾輩所能指定，請與三君，憑高擲簡以卜之。”乃與神等陟峰巔，向西擲之，簡乃風颺而飛。時神作歌曰，“礙崑遠退砥平兮，落葉飛散生明兮。覓得佛骨簡子兮，邀於淨處投誠兮。”既唱而得簡於林泉中，卽其地構堂安之，今桐華寺籤堂北有小井，是也。

本朝睿王，嘗取迎聖簡，致內瞻敬，忽失九者一簡，以牙代之，送還本寺。今則漸變同一色，難卞新古，其質乃非牙非玉。

『점찰경(占察經)』⁵²⁵⁾ 상권을 살펴보면 189간자의 이름을 서술하였다.⁵²⁶⁾
제1은 상승(上乘)⁵²⁷⁾을 구하여 불퇴위(不退位)⁵²⁸⁾를 얻음이고,⁵²⁹⁾ 제2는 구

525) 점찰경(占察經):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2권으로 수나라 보리등(菩提燈)이 번역하였다. 선악의 업보(業報)를 점쳐 살펴 보고 아울러 대승의 실천을 설한 경전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으로 보고 있다.

526) 『점찰경』 권상에 불자들이 삼세의 과보를 결정하고자 하면 삼륜을 세 번 던져 점수를 합계하여 그 수에 따라 선과 악을 정하는데, 그 가짓수가 189라고 하면서 하나씩 그 의미를 서술하였다.

하는 바의 과보가 마땅히 깨침을 나타냄이요, 제3과 제4는 중승(中乘)⁵³⁰⁾과 하승(下乘)⁵³¹⁾을 구하여 불퇴위를 얻음이요, 제5는 신통을 구하여 성취함을 얻음이요, 제6은 네가지 범행(梵行)⁵³²⁾을 닦아서 성취함을 얻음이요, 제7은 세간선(世間禪)⁵³³⁾을 닦아서 성취함을 얻음이요, 제8은 받고자 하는 묘계(妙戒)⁵³⁴⁾를 얻음이요, 제9는 일찍이 받은 구족계(具足戒)⁵³⁵⁾를 얻음이요, <이 글로써 (진표전간을) 교정하면 미륵보살⁵³⁶⁾이 말한 ‘새로 얻은 계’는 이번 생에 처음으로 얻은 계를 말한 것이요, ‘예전에 얻은 계’는 과거세에 일찍이 받았다가 이번 생에 또 더 받음을 말한 것이니⁵³⁷⁾ 수생(修生)⁵³⁸⁾ 본유(本有)⁵³⁹⁾의 새롭고 오래된 것을 말

527) 상승(上乘): 보살승(菩薩乘), 대승(大乘).

528) 불퇴위(不退位): 수행으로 이미 얻은 공덕을 잃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는 자리.

529)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권상 大17 p.905b3~4. 一者求上乘得不退.

530) 중승(中乘): 연각승(緣覺乘)

531) 하승(下乘): 성문승(聲聞乘), 소승(小乘).

532) 네 가지 범행(梵行):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 무량심(無量心)을 가리키며, 이 네 가지 마음을 행하면 범천(梵天)에 나므로 범행이라 한다.

533) 세간선(世間禪): 삼종선의 하나로 범부들이 수행하는 선.

534) 묘계(妙戒): 보살의 대계(大戒).

535) 구족계(具足戒): ④ upasampanna. 의역하면 열반에 친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가한 비구와 비구니가 갖추어야 할 계율로서 사미니 사미니가 갖추는 10계에 비해 계품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구족계라고한다. 이 구족계를 얻어야 비로소 정식 출가자 곧 비구 비구니의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말한다.

536) 미륵보살(彌勒菩薩):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여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다는 보살이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하였는데 수명이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만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였다. 법상종에서는 중심 경전인 『해심밀경』의 설주인 미륵의 상을 금당에 봉안하고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 5-10 주422) 참조.

한 것이 아님을 알겠다. 제10은 상승(上乘)⁵⁴⁰⁾을 구하여 아직 신위(信位)에 머무르지 않음이요, 다음은 중승(中乘)을 구하여 신위에 머무르지 않음이다. 이렇게 하여 172까지는 모두 과거세나 현세에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여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 일들이다.⁵⁴¹⁾ 제173은 몸을 버려 벌써 지옥에 들어간 것이요.〈이상은 모두 미래의 과보이다.⁵⁴²⁾ 제174는 죽어서 이미 축생이 된 것이다.⁵⁴³⁾ 이와 같이 해서 아귀(餓鬼)⁵⁴⁴⁾, 아수라(阿修羅)⁵⁴⁵⁾,

537) 이 항목 바로 앞에 실린 『삼국유사』 권4 「진표전간」에 미륵보살이 진표에게 『점찰경』 2권과 증과간자 189개를 주면서 그 가운데 제8간자는 신득묘계(新得妙戒), 제9간자는 증득구계(增得具戒)이며 자신의 손가락뼈라고 하였다.

538) 수생(修生): 수행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얻는 것.

539) 본유(本有): 본래 고유하게 갖추고 있는 것.

540) 원문에는 하승(下乘)이라 하였으나 『점찰경』 원문(求上乘未住信)에 의하면 상승(上乘)이라야 맞는다.

541) 이 인용은 『점찰선악업보경』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172까지가 과거 현세 중의 일이고 173 “지옥에 들어감” 이상이 미래의 과보라 하였으나, 『점찰선악업보경』에는 제172가 지옥에 들어가는 미래 과보의 시작이다. 이곳에서는 제188을 제외하여 마지막 제189는 같게 되었다.

542) 제173 이상(已上)은 미래세의 과보에 해당하는 제173(『점찰선악업보경』에는 제172) 이후를 말한다. 윤회하는 6도(六道)의 맨 아래가 지옥이다.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1~22. 一百七十二者捨身已入地獄)

543) 윤회 6도의 하나가 짐승으로 태어나는 축생이다.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2~23. 一百七十三者捨身已作畜生)

544) 아귀(餓鬼): ㉠ pretagati. 업에 의해 윤회하는 6도의 하나로 간담, 질투 등의 악업을 지은 이가 나게 되는 곳이다. 아무 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도 있고, 사람이 남긴 물건이나 사람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아귀도 있다.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3. 一百七十四者捨身已作餓鬼)

545) 아수라(阿修羅, ㉠ asura): 수라는 아수라(阿修羅)의 준말. 윤회 6도의 하나로 아수라들이 모여 싸움만 하는 곳인데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인도의 귀신 아수라에서 유래하였다.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3~24. 一百七十五者捨身已作阿修羅)

인(人)⁵⁴⁶⁾, 인왕(人王)⁵⁴⁷⁾, 천(天)⁵⁴⁸⁾, 천왕(天王)⁵⁴⁹⁾, 법을 들음(聞法)⁵⁵⁰⁾, 출가⁵⁵¹⁾, 성승(聖僧)을 만남⁵⁵²⁾, 도솔천에 태어남⁵⁵³⁾, 정토에 태어남⁵⁵⁴⁾, 부처를 찾아 만남⁵⁵⁵⁾, 하승에 머무름⁵⁵⁶⁾, 중승에 머무름⁵⁵⁷⁾, 상승에 머물러 해탈을 얻음⁵⁵⁸⁾의 189가지가 이것이다.⁵⁵⁹⁾〈위에서 하승에 머무름으로부터 상승에 이르러 불퇴위를 얻음을 말하였고 지금은 상승에서 해탈을 얻는 것 등을 말하여 이로써 구별한 것이다.〉 모두 삼세(三世)의 선악 과보의 차별상이다. 이로써 점을 쳐보고 마음과 행한 일과 서로 맞으면 감응한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지극한 마음이 아니므로 거짓⁵⁶⁰⁾이라고 하는 것이다.⁵⁶¹⁾ 그렇다면 제8과 제9의 두 간

546) 인(人): 윤회 육도의 하나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도.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4~25. 一百七十六者捨身已生人道)

547)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5 一百七十七者捨身已為人王

548) 천(天): 윤회 육도의 가장 상위인 천도.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5~26 一百七十八者捨身已生天道)

549)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6~27 一百七十九者捨身已為天王

550)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7 一百八十者捨身已聞深法

551)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8 一百八十一者捨身已得出家

552)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8~29 一百八十二者捨身已值聖僧

553)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b29~c1 一百八十三者捨身已生兜率天

554)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c1 一百八十四者捨身已生淨佛國 일연은 불국(佛國)을 정토(淨土)라고 표현했다.

555)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c1~2 一百八十五者捨身已尋見佛

556)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c2~3 一百八十六者捨身已住下乘

557)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c3~4 一百八十七者捨身已住中乘

558)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c4~5 一百八十九者捨身已住上乘

559) 이곳에는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大17 p.906c4. “제188은 몸을 버리고 과증을 얻는다.(一百八十八者捨身已獲果證)”가 빠져 있다.

560) 허류(虛謬)는 언행이 허황하여 진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561) 이곳 『삼국유사』의 인용보다 상세한 서술이 『점찰경』에 나온다.

자는 단지 189개 가운데서 나온 것인데 『송고승전(宋高僧傳)』⁵⁶²⁾에는 다만 108침자(籤子)라고 했으니⁵⁶³⁾ 어찌된 것인가? 아마도 저 백팔번뇌(百八煩惱)⁵⁶⁴⁾의 명칭만 알고 말했을 뿐 경문은 찾아보지 않은 것 같다.

또 고려의 문사 김관의(金寬毅)⁵⁶⁵⁾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 2권을 살펴보면 “신라말에 신라의 대덕 석충(釋沖)⁵⁶⁶⁾이 태조에게 진표율사의 가사 한 벌과 계간자(戒簡子) 189개를 바쳤다.” 고 한다. 지금 동화사에 전해 오는 간자와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

찬한다.

궁궐⁵⁶⁷⁾에서 나고 자랐으나 일찍이 속박을 벗어나

부지런하고 슬기로움은 하늘이 내셨구나.

마당 가득 쌓인 눈 속에 신이한 간자를 얻어

562) 『송고승전(宋高僧傳)』: 송의 찬녕(贊寧)이 982년에 칙명으로 편찬한 고승전. 당 정관 연간부터 송 988년까지 이르는 343년간의 고승의 전기를 엮은 것이다. 정전 531인에 부전 125인의 전기를 역경(譯經)·의해(義解)·습선(習禪)·명률(明律)·호법(護法)·감통(感通)·유신(遺身)·독송(讀誦)·흥복(興福)·잡과(雜科)의 10개로 분류하여 30권에 수록하였다. 5-7 주280) 참조.

563) 『송고승전』 권14, 당백제국금산사진표전(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大50 p.794b2~3. 更加一百八籤, 籤上署百八煩惱名目.

564) 백팔번뇌(百八煩惱): 중생의 번뇌의 수가 모두 108가지라고 하는데 번뇌를 구분하여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565) 김관의(金寬毅): 고려시대의 학자.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지냈으며 문서 등을 수집·정리하여 의종 때 『편년통록』을 편찬하였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여기에 수록된 고려 개국의 전설에 관련된 기사가 『고려사(高麗史)』세가(世家)에 인용되어 있다.

566) 석충(釋沖): 석충(釋聰). 고려 태조에게 진표의 가사와 계간(戒簡)을 바치고, 궁예에게 반대하다 죽임을 당하였다.

567) 금궐(金閨): 금문(金門) 곧 금마문(金馬門), 한(漢)나라의 미앙궁(未央宮)의 궁문으로 궁궐을 뜻한다.

동화사 최상봉에 올라 간자를 날렸도다.

按占察經上卷，敍一百八十九簡之名。一者求上乘得不退。二者所求果現當證。第三第四求中下乘得不退。五者求神通得成就。六者修四梵得成就。七者修世禪得成就。八者所欲受得妙戒。九者所曾受得戒具。〈以此文訂，知慈氏所言，新得戒者，謂今生始得戒也，舊得戒者，謂過去曾受，今生又增受也，非謂修生本有之新舊也。〉十者求下乘未住信。次求中乘未住信。如是乃至一百七十二，皆過現世中，或善或惡，得失事也。第一百七十三者，捨身已入地獄。〈已上皆未來之果也。〉一百七十四者，死已作畜生。如是乃至餓鬼，修羅，人，人王，天，天王，聞法，出家，值聖僧，生兜率，生淨土，尋見佛，住下乘，住中乘，住上乘得解脫，第一百八十九等是也。〈上言住下乘至上乘得不退，今言上乘得解脫等，以此爲別爾。〉皆三世善惡果報差別之相。以此占看，得與心所行事相當，則爲感應，否則爲不至心，名爲虛謬。則此八九二簡，但從百八十九中而來者也，而宋傳但云百八籤子，何也？恐認彼百八煩惱之名而稱之，不揆尋經文爾。

又按本朝文士金寬毅所撰，王代宗錄二卷云，羅末新羅大德釋冲，獻太祖以表律師袈裟一領，戒簡百八十九枚。今與桐華寺所傳簡子，未詳同異。

讚曰 生長金閨早脫籠，儉懃聰惠自天鍾。滿庭積雪儉神簡，來放桐華最上峰。

5-13 대현의 유가와 범해의 화엄

[해제]

신라 교학의 쌍벽인 화엄과 유식의 대립적인 모습을 엮은 편이다. 대현은 유가(瑜伽)의 조사로서 용장사(菴長寺)에서 지내며 배우기 어렵다는 유식의 심오한 것을 깨달아 자유롭게 분석하고 잘못된 것을 판정하여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 중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경덕왕 때 가뭄이 들자 궁궐에서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연하여 비를 바라는 재를 올릴 때 법력으로 우물물이 높이 솟구치는 기적을 보였다. 이듬해에 왕이



경주 남산 용장사

화엄의 법해를 황룡사에 초빙하여 『화엄경』을 강연하게 하고 대현의 기적을 말하자, 법해는 바다를 기율여 물이 넘치게 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대로 못이 넘쳐 궁궐이 떠내려 가고 감은사 앞 바닷물이 넘치는 더 큰 이적을 보였다. 이 항목은 대현과 법해를 통해 유식과 화엄 교학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상을 연마하였고, 경덕왕 당시에는 화엄이 더 우위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사례로 설명된다.

[역주]

대현의 유가와 법해의 화엄

유가종⁵⁶⁸⁾의 조사인 대덕(大德)⁵⁶⁹⁾ 대현(大賢)⁵⁷⁰⁾은 남산⁵⁷¹⁾ 용장사⁵⁷²⁾

568) 유가종(瑜伽宗): 유가는 yoga의 음역. 상응(相應)이라고 의역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수련, 정신통일로 해석된다. 인도 불교의 유가행파(瑜伽行派, Yogācāra)에서는 유식사상에 의하여 유가행을 체계화하였다. 유가 유식의 교의는 현장(玄奘)의 인도 유학과 신역 경전을 통해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해져서 현장의 제자 규기(窺基)에 의해 법상종(法相宗)이 개창되었다. 법상종은 유가종, 유식종(唯識宗) 등으로도 불리며, 고려시대에는 유가업(瑜伽業), 자은종(慈恩宗), 상종(相宗) 등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569) 대덕(大德): 덕이 높은 승려에게 붙이던 존칭. 당나라에서 승려에 대한 법계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승과(大選)에 합격한 승려에게 처음으로 주는 승계(僧階)로서 쓰였다.

570) 대현(大賢): 또는 태현(太賢)으로도 쓴다. 그 행적이 고요하고 덕행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기 때문에 대현이라고 이름하였고, 또 그것이 대현의 뜻이라고 13~14세기 일본 승려들의 『범망경』 관계 저술에 나타난다. 대현의 전기 자료로는 이 내용 외에 당 천복사(薦福寺) 승려 도봉(道峯)의 「대현법사의기서(大賢法師義記序)」가 있으나 소략하여 그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도봉은 대현을 인도 중관파의 5대논사와 유식의 세친(世親)에 이어 공유(空有)의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불교의 대의(大義)를 다시 펼친 인물로 평가하였다. 대현은 원측(圓測)의 제자인 도증(道證)이 귀국한 후 그에게 유식학을 수학하였고 규기(窺基)에 비견되는 광범한 분야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학문 경향은 ‘호

에서 살았다. 절에는 석조 미륵⁵⁷³⁾ 장륙상이 있었는데, 대현이 늘 불상 주위를 돌면 석불도 또한 대현을 따라서 얼굴을 돌렸다. 대현은 아무런 법상종의 도리⁵⁷⁴⁾는 뜻과 이치가 깊고 심오하여 나누어 가려내기 어렵다. 중국의 명사 백거이(白居易)⁵⁷⁵⁾도 일찍이 이를 파헤쳐 보았으나 해내지 못하고

법정종(護法正宗)’을 내세워 신유식을 정통으로 하면서도, 구유식에서 출발하여 신유식을 받아들였던 원측(圓測)과 신유식에 충실한 규기(窺基)의 유식학을 종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571) 남산: 경주시 남쪽에 있는 남산을 말한다. 경주시 남쪽에 금오산과 고위산의 두 봉우리를 잇는 산으로 남북 8km 동서 4km의 타원형을 하고 있다. 신라 4 영지의 하나로 곳곳에 유적이 많다. 동 남 서쪽에 모두 34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각각 수십개씩의 절터, 석탑, 석불, 마애불 등이 산재하고 있다. 신라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지로부터 불교 수용 이후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이 만들어져 이곳에 불국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572) 용장사(龍長寺): 경주 남산의 서쪽 산중턱에 있던 절. 일제시기의 조사에서 ‘용장사’라고 쓰여진 기와조각이 발견되었다. 절터에는 자연 암반을 기반으로 삼은 독특한 구상의 삼층석탑(보물 186호), 이 항목에 나오는 대현이 불상을 돌면 불상도 얼굴을 따라 돌린다는 원형 대좌를 갖춘 석불좌상(보물 187호), 마애여래좌상(보물 913호) 등의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남아 있다. 신라 대현이 주석한 이후 별다른 사적이 전하지 않다가 조선 초에 김시습(金時習)이 말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금오신화(金鰲神話)』를 저술하였다.

573) 미륵(彌勒):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여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다는 보살이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하였는데 그 수명이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만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법상종에서는 중심 경전인 『해심밀경』의 설주인 미륵의 상을 금당에 봉안하고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 5-10 주421) 참조.

574) 전량(銓量): 전(銓)은 전(詮)의 오기로 생각된다. 전(詮)은 도리, 량(量)은 표준이 되는 원리를 말한다.

575) 백거이(白居易): 772~846. 당나라의 시인. 자는 낙천(樂天),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이다. 대대로 가난한 관리 집안에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 등의

말하기를 “유식(唯識)은 오묘하여 알기 어려우며 인명(因明)⁵⁷⁶⁾은 분석해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학자들이 배우기 어렵게 된 것이 오래되었다. 대현이 홀로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잠깐 동안에 심오한 뜻을 알아 자유자재로 분석하였다.⁵⁷⁷⁾ 동국(東國)⁵⁷⁸⁾의 후학들이 모두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중국의 학자들도 때로 이것을 얻어서 안목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⁵⁷⁹⁾ 천보(天寶) 12년(753)⁵⁸⁰⁾ 계사년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어 (대현을) 왕명으로 내전에 들어오게 하여 『금광명경(金光明經)』⁵⁸¹⁾을

관직을 지냈다. 사회를 비판하는 시가 고급관료들의 반감을 사 지방 관직으로 밀려나 오랫동안 항주자사 소주자사 등 지방직을 지냈다. 중앙으로 돌아와서도 관직보다 시와 거문고를 벗삼아 지냈고, 만년에는 용문석굴 인근의 향산사를 복원하여 지내며 불교에 심취하였다. 보편적인 주제에 유려하고 평이한 시를 써서 생존시에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원에 써붙여지기도 하였다. 대표적 작품은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다.

576) 인명(因明): ① hetu-vidya, 인도 고대의 논리학. 인도의 논리학은 니야야(Nyāya) 학파와 불교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5세기 경의 진나(陳那, Dignāga)에 와서 추리 추론에 있어 이유(因)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하는 논리학으로 발전하여 이 이후를 신인명(新因明)이라고 한다. 당 현장(玄奘)에 의해 진나의 인명서가 한역된 이후 법상종에서 인명의 연구가 중시되었다.

577) 회회유인(恢恢遊刃)은 자유스럽게 칼을 놀린다는 말로, 자유자재로 이치를 분석한다는 뜻이다.

578) 동국(東國): 동쪽에 있는 나라 곧 우리나라를 말한다.

579) 경덕왕(景德王): 신라 제35대 왕. 재위 742~765. 왕권 안정을 위해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시행하고 9주(州)·5소경(小京)·117군(郡)·293현(縣)을 정비하였다. 754년에 황룡사종을 주조하고, 불국사(佛國寺)와 석불사(石佛寺)와 굴불사(掘佛寺) 등을 창건하였다. 5-10 주438) 참조

580) 천보(天寶): 당 현종(玄宗)의 연호, 742~764년. 천보 12년은 경덕왕 12년(753).

581) 원문의 금광경(金光明經)은 『금광명경(金光明經)』을 말한다. 호국경전의 하나로 참회행의 실천과 함께 호국안민과 왕도를 강조하여 국가적 법회에 『인왕경』과 함께 자주 강경되었다. 5종의 번역이 있으나 진제(眞諦)의 구역과 의정(義淨)이 703년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이 널리 이용되었다. 신라의 원

강연하며 단비를 빌게 하였다. 하루는 재를 올릴 때 발우를 펴 놓고 한참동안 있었으나 정화수를 올리는 것이 늦었다. 감독 관리가 공양하는 이를 꾸짖으니 공양 올리는 이가 말하기를 “궁궐 우물이 말라버려 먼데서 길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현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왜 일찍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낮 강연을 할 때가 되자 향로를 받쳐들고 잠자코 있으니 잠깐 사이에 우물물이 솟아 나와 높이가 일곱 길 정도나 되어 찰당(刹幢)⁵⁸²⁾과 같아져서⁵⁸³⁾ 온 궁중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우물을 금광정(金光井)이라고 이름하였다. 대현은 일찍이 스스로 청구사문(靑丘沙門)⁵⁸⁴⁾이라고 하였다.

찬한다.

남산의 불상을 도니 불상도 따라 얼굴 돌리고

청구에 부처의 광명 다시 중천에 걸렸네.

궁궐 우물에 맑은 물 솟게 하니

금향로의 한 줄기 연기인줄 누가 알리오.

瑜伽祖大德大賢，住南山茸長寺．寺有慈氏石丈六，賢尚旋繞，
像亦隨賢轉面．賢惠辯精敏，決擇了然．大抵相宗銓量，旨理幽
深，難爲剖析．中國名士白居易，嘗窮之未能，乃曰，“唯識幽

효(元曉)와 경흥(憬興)이 소(疏)를 지었고, 고려에서도 법상종 승려들이 기우(祈雨) 등의 국가적 법회에 여러 차례 이 경을 강의하였으며 덕겸(德謙)이 왕명으로 소를 짓기도 하였다.

582) 찰당(刹幢) : 찰(刹, ṣṣetra)은 불법의 전당임을 알리기 위하여 절 앞에 나무나 쇠로 만들어 세우는 깃대 모양의 기둥으로 당간(幢竿)이라고도 한다. 당(幢)은 거기에 매는 깃발을 말한다.

583) 원문의 재(齋)는 나란하다는 뜻의 제(齊)의 오기로 생각됨

584) 청구(靑丘) : 진숙(軫宿) 동남쪽에 있는 일곱 별을 말하는데, 동방의 나라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별칭으로 쓰인다.

難破, 因明擘不開”. 是以學者難承稟者, 尚矣. 賢獨刊定邪謬, 暫開幽奧, 恢恢恢恢游刃. 東國後進, 咸遵其訓, 中華學士, 往往得此爲眼目.

景德王天寶十二年癸巳, 夏大旱, 詔入內殿, 講金光經, 以祈甘霖. 一日齋次, 展鉢良久, 而淨水獻遲. 監吏詰之, 供者曰, “宮井枯涸, 汲遠故遲爾.” 賢聞之曰, “何不早云?” 及晝講時, 捧爐默然, 斯須井水湧出, 高七丈許, 與刹幢齊, 闔宮驚駭. 因名其井曰金光井. 賢嘗自號青丘沙門.

讚曰, 遶佛南山像逐旋, 青丘佛日再中懸. 解教宮井清波湧, 誰識金爐一炷烟.

이듬해 갑오년(754) 여름에 왕이 또 대덕 법해(法海)⁵⁸⁵⁾를 황룡사(皇龍寺)⁵⁸⁶⁾에 초청하여 『화엄경』⁵⁸⁷⁾을 강연하게 하였다. 친히 가서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말하기를, “지난 여름에 대현법사가 『금광명경』을 강연하니 우

585) 법해(法海): 8세기 중반 경덕왕 때 활동하던 화엄종 승려.

586) 황룡사(皇龍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구황동에 있던 절. 신라 진흥왕 때인 553년에 착공하여 569년에 완공된 신라불교의 중심 사찰로 지금은 탑과 금당 강당지 등 절터만 보존되어 있다. 높이 225척의 장대한 구층탑(九層塔)과 3만 5천근의 장륙존상과 십대제자상, 49만근의 거대한 황룡사종 등을 갖추었던 신라 국찰(國刹)이다. 5-1 주36) 참조.

587) 『화엄경(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석존이 깨달은 지 이칠일제에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자나불을 설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이라 한다. 내용은 부처가 되는 인행(因行)과 과덕(果德)을 설한 것으로 십지(十地)를 비롯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 수행 계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부인 입법계품은 선재동자 보살행을 묻고자 53선지식을 찾아 구도 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번역본은 60권본, 80권본, 40권본의 세 가지가 있다. 5-6 주241) 참조.

물물이 일곱 길이나 솟았는데 그대의 법도는 어떠한지요?” 법해가 말하였다. “다만 작은 일인데 무엇을 그리 칭찬하십니까? 곧 바로 바다를 기울여 토함산을 잠기게 하고 서울을 떠내려가게 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왕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생각하였다. 오시(午時)⁵⁸⁸에 경을 강연할 때 향로를 끌어 당겨 가만히 있으니, 조금 있다가 궁중⁵⁸⁹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고 대궐 관리가 뛰어와서 보고하기를, “동쪽 못이 넘쳐서 내전(內殿) 50여 칸이 떠내려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어찌할 줄 모르자 법해가 웃으며 말하기를, “동해를 기울이려고 하여 수맥이 먼저 불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절을 하였다. 이튿날 감은사(感恩寺)⁵⁹⁰에서 아뢰기를, “어제 오시에 바닷물이 넘쳐 불전 계단 앞까지 들어왔다가 포시(晡時)⁵⁹¹에 물러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를 더욱 믿고 공경하였다.

찬한다.

588) 오시(午時):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한낮.

589) 내금(內禁)은 궁중을 말한다.

590) 감은사(感恩寺): 682년 신문왕이 전해에 돌아간 부왕인 문무왕(文武王)을 위해 창건한 절(『삼국유사』 권2 기이 萬波息笛).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절터가 남아 있다. 절의 기록에는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감은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어 해룡(海龍)이 되었다. 이에 신문왕이 부왕의 유지를 이어받아 나라를 지키는 사찰로서 682년에 완공하였다고 전한다.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대종천을 가까이 두고 절 앞에 연못을 조성하였으며, 금당 마루 아래에 공간을 만들어 용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는 구조가 절의 설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금당 앞에 있는 대형 쌍탑은 통일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석탑 양식으로 주목된다. 감은사는 신라 때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성전사원(成典寺院)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영(令, 衿荷臣), 부사(副使, 上堂), 판관(判官, 赤位), 녹사(錄事, 靑位), 사(史, 典)의 관직이 설치된 최고위급 사원이었다.

591) 포시(晡時): 신시(申時)로 저녁 해가 저물 때인 오후 3~5시 사이.

법의 바다에 파도가 일어도 법계는 넓어

사해를 채우고 줄이는 것도 어렵지 않네.

백억 수미산⁵⁹²⁾이 크다고 말하지 마라

모두가 우리 스님의 손가락 끝에 있도다.〈이상은⁵⁹³⁾ 법해를 말한 것이다.〉

明年甲午夏，王又請大德法海於皇龍寺，講華嚴經。駕幸行香，從容謂曰，“前夏大賢法師講金光經，井水湧七丈，此公法道如何。”海曰，“特爲細事，何足稱乎。直使傾滄海，襄東岳，流京師，亦非所難。”王未之信，謂戲言爾。至午講，引爐沉寂，須臾內禁忽有哭泣聲，宮吏走報曰，“東池已溢，漂流內殿五十餘間。”王罔然自失，海笑謂之曰，“東海欲傾，水脈先漲爾。”王不覺興拜。翌日感恩寺奏，昨日午時海水漲溢，至佛殿階前，晡時而還。王益信敬之。

讚曰，法海波瀾法界寬，四海盈縮未爲難。莫言百億須彌大，都在吾師一指端。〈右海云〉

592) 수미산(須彌山) : ☉ sumeru, 인도의 신화를 수용한 것으로, 불교의 우주관에서 이 세계의 중앙에 높이 솟아 있다고 하는 산을 말한다. 이 산이 중심이 되어 주위로 팔산(八山) 팔해(八海)가 겹겹이 둘러싸 한 세계를 이루니 이것이 수미세계이다. 세계의 구조는 풍륜(風輪) 위에 수륜(水輪)이 있고 그 위에 금륜(金輪)이 있어 산과 바다와 육지로 구성된 대지가 있는데 수미산은 그 중앙에 위치한다고 한다. 『장아함경』 권18 염부제주품(閼浮提洲品)에는 수미산의 높이가 수면 위로 8만 4천 유순, 수면 아래로 8만 4천 유순이며, 산의 사면에 사천왕(四天王)의 궁전이 있고 정상에는 33천궁이 있어 제석천(帝釋天)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593) 원문의 石은 右의 잘못.



索引 찾아보기



가귀(可歸) 598, 603
 가라국(呵囉國) 380
 가라국(訶羅國) 382
 가락국 206
 가락국기(駕洛國記) 48, 49, 204
 가사거리(伽師祇離) 171
 가서(加西) 479
 가서(嘉栖) 479
 가서갑(嘉西岬) 493
 가서갑사(嘉西岬寺) 492
 가서사(嘉栖寺) 483, 470
 가서현(加西峴) 479
 가서현(嘉西峴) 488, 490
 가섭미라국(迦葉彌羅國, Kashmir) 34
 가섭불(迦葉佛) 185, 186, 188, 190, 192, 211, 219
 가섭불연좌석(迦葉佛宴坐石) 50
 가슬갑(嘉瑟岬) 479
 가슬현(嘉瑟峴) 479
 가야 33, 49, 201, 379
 가야산 570
 가즈니(Ghazni) 34
 가지산문(迦智山門) 41
 가함(可函) 384
 각간(角干) 285, 406, 435
 각승(角乘) 555, 556
 각유(覺猷) 288, 306, 370
 각훈(覺訓) 54, 470

간다라[建駄羅, Gandhāra] 28, 32, 34, 126
 간다라국 128, 135, 138
 간유(侃遊) 456
 간자(簡子) 581, 605, 609, 614
 간자 범회 605
 간화선(看話禪) 41, 43
 갈나금자성(葛那及自城) 33
 갈반지(葛蟠地) 540
 갈항사(葛項寺) 598, 603
 감산 435
 감산사(甘山寺) 336, 429, 430, 432
 감은사(感恩寺) 617, 622
 감주(監主) 307
 감창고(監倉庫) 370
 감창사(監倉使) 370
 감사(岬寺) 479
 강가[恒河, Gangā] 27, 70
 강고(强古) 238
 강도(江都) 42, 307, 317, 318
 강릉 522
 강릉군(江陵郡) 540
 강사(剛司) 444, 517
 강주(剛州) 373
 강주(康州) 455
 강화도 293
 개국사(開國寺) 366, 367
 개령군(開寧郡) 602
 개원(愷元) 176, 429, 432, 435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594

개창자 557
 객수(客水) 439
 거타지 48
 건운(乾運) 238
 건타라국(建駄羅國, Gandhāra) 34
 결병표(乞兵表) 477
 결승(乞升) 369
 계송잡저(偈頌雜著) 43
 견랑(見郎) 333
 견명(見明) 40
 견성(犬城) 496, 497
 견훤(甄萱) 48, 49, 268
 결가부좌(結跏趺坐) 388
 경덕왕(景德王) 48, 235, 236, 239, 242, 243, 245, 247, 286, 347, 354, 355, 589, 616
 경령전(景靈殿) 305
 경명왕(景明王) 48, 257
 경문대왕(景文大王) 48
 경문왕(景文王) 233
 경북 42
 경순왕(敬順王) 49, 270
 경애왕(景哀王) 48
 경정궁주(鏡井宮主) 281
 경주 254, 426, 430, 437, 447, 470
 경흥 51, 354
 계간자(戒簡子) 614
 계단(戒壇) 229, 291, 538, 574
 계림(鷄林) 276, 439
 계빈국[闕賓國 Kāpiśī] 34
 계율(戒律) 444, 521
 계율 사상 58
 계화왕후(桂花王后) 447, 449
 고골관(枯骨觀) 524
 고구려(高句麗) 48, 49, 50, 53, 193, 194, 208, 226, 309, 316, 534
 고기(古記) 293, 348, 380, 406, 424, 425, 459
 고려 263
 고려국화산조계종인각사가지산하보각국존비명(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 43
 고려영탑사(高麗靈塔寺) 50
 고로리(古路里) 435
 고사(高寺) 438
 고선사(高仙寺) 577
 고선산(古仙山) 384
 고승전(高僧傳) 379, 389
 고시사(古尸寺) 479
 고위산(高位山) 438, 442
 고이현(古伊峴) 414
 고적비보기(古籍碑補記) 487
 고조선(古朝鮮) 47, 49
 고종(高宗) 234, 317, 563
 고창(高昌) 30
 고파리(古巴里) 433, 435
 곤륜국(崑崙國) 128, 149
 골돌국(骨咄國, Khuttal) 34
 골암사(鵲巖寺) 573
 공공(共工) 225

- 공관 사상 58
 공산(公山) 443, 605, 607
 공자(孔子) 537, 571
 공주(公州) 329, 426
 과거세 612
 과거칠불(過去七佛) 185
 과보 613
 과증법회(果證法會) 607
 관기(管記) 310
 관동 풍악산 발연수 개창조 진표율사
 진신골장 입석비명(關東楓岳山
 鉢淵蔽開冊祖眞表律師眞身骨藏立
 石碑銘) 582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 379, 384
 관음 43, 50, 335, 336, 358, 373, 395,
 397, 424
 관음대사 357
 관음대성(觀音大聖) 268, 271, 272, 273,
 277, 440
 관음방(觀音房) 396, 417
 관음보살(觀音菩薩) 345, 360, 375, 408,
 417, 426
 관음상(觀音像) 262, 263, 268, 269, 272,
 275, 276, 280, 285, 417
 관음송(觀音松) 364
 관음신앙(觀音信仰) 53, 55, 262, 263,
 285, 354, 359, 557
 관음예참(觀音禮懺) 418
 관음진신 359
 관초리부인 432, 433
 광덕 51
 광명사(廣明寺) 42
 광종(光宗) 233, 288, 293
 광주(廣州) 20, 27, 149
 광함(廣函) 505
 교관(敎觀) 313
 교분기(敎分記) 600
 교정랑(姣貞娘) 324
 교종 40, 490
 구광선(九光扇) 251
 구덕(丘德) 289, 309
 구류손불(拘留孫佛) 190
 구법고승전(求法高僧傳) 505
 구본(求本) 507
 구부(九府) 450
 구사군(仇史郡) 337
 구산문도회(九山門徒會) 43
 구산사선(九山四選) 41
 구시나국(拘尸那國, Kuśinagara) 33
 구위 32
 구위국(拘衛國, Kuwi) 34
 구이(九夷) 48
 구자국(龜茲國, Kucha) 26, 35
 구정(九鼎) 230
 구족계(具足戒) 587, 611
 구참공(瞿昆公) 511, 512, 517
 구충답 230, 232
 구한(九韓) 48, 226, 232
 국도(國都) 533
 국사(國史) 187, 232, 290, 326, 404,
 412, 536

국선(國仙) 275, 278, 280, 322, 325,
 510, 511
 국존(國尊) 42
 국청사(國淸寺) 318
 국통(國統) 220, 532, 534
 군지(軍持) 601
 군통(郡統) 534
 굴불사(掘佛寺) 244, 248
 굴산사(崛山寺) 358, 367
 굴산조사(崛山祖師) 365
 굴석사(掘石寺) 248
 굴자군(屈自郡) 337
 굴정역(屈井驛) 460
 굴정현(屈井縣) 461
 굽타왕조 37
 궁파 48
 귀계(歸戒) 483
 귀산(貴山) 470, 478, 480
 귀축 51
 근악(近岳) 458
 금강령(金剛嶺) 276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 418
 금강사(金剛寺) 396, 510, 518
 금강사(金剛社) 419
 금강산(金剛山) 579
 금강삼매경 556
 금강삼매경론 544
 금강삼매경소(金剛三昧經疏) 554
 금강상 499
 금강신상 502

금강지(金剛智) 20, 22
 금곡사(金谷寺) 483
 금관가야 201
 금관국(金官國) 202, 206
 금관성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 50
 금관주(金官州) 202
 금광명경(金光明經) 417, 616, 619, 621
 금광정(金光井) 620
 금란(金蘭) 279
 금산보개여래(金山寶蓋如來) 571
 금산사(金山寺) 581, 583, 589
 금산현(金山縣) 583
 금악(金岳) 461
 금인(金人) 195, 301
 금주(金州) 271
 금탑(金塔) 318
 금고독원(給孤獨園, Jetavana
 Anāthapindikārāma) 89
 금한(及漢) 433
 금양(兢讓) 454, 456
 기린산(麒麟山) 408
 기림사(祇林寺) 306, 370
 기별(記別) 416, 528, 589
 기신론소(起信論疏) 544, 600
 기원 47
 기인(其人) 491
 기자(箕子) 48
 기자조선 48
 기주(冀州) 178
 기출변(旗出邊) 204

길기트(Gilgit) 34
 길보랑(吉寶娘) 583
 길상암 42
 김개원(金愷元) 435
 김관의(金寬毅) 606, 614
 김부대왕(金傅大王) 48, 49
 김서룡(金瑞龍) 304, 305
 김승로(金承老) 304
 김알지(金閼智) 48
 김양도(金良圖) 563
 김양신(金亮辛) 491
 김유신(金庾信) 48
 김육진(金陸珍) 447
 김이생(金利生) 292
 김인문(金仁問) 562
 김인부(金仁夫) 273
 김정고(金貞高) 280
 김정희(金正喜) 447
 김제상 48
 김지성(金志誠) 429, 431
 김지전(金志全) 434, 435
 김척명(金陟明) 485
 김춘추(金春秋) 435
 김필월(金弼輿) 239
 김현 51
 김흔(金昕) 373
 김흠순(金欽純) 562
 김희령(金希寧) 191
 까치 골짜기[鵲岬] 494

나가라다나[那揭羅駄娜, Nagaradhana] 111
 나가르주나[Nāgārjuna, 용수龍樹] 97
 나갈가라국 379
 나갈가성(那竭呵城) 389
 나갈국(那竭國) 390
 나갈성(那竭城) 390
 나건가라국(那乾訶羅國) 384
 나란타사(那蘭陀寺) 506
 나령군(棕靈郡) 373
 나리군(棕李郡) 372
 나마(奈麻) 238, 546, 583
 나무(南無) 553
 나발(螺髮) 140, 249
 나생군(棕生郡) 372
 나성군(棕城郡) 372
 나시크(Nasik) 33
 나이군(棕已郡) 373
 나전함 305
 나찰 385
 나찰녀(羅刹女) 379, 381
 나한(羅漢) 420, 424
 나한당(羅漢堂) 396, 419
 낙(酪) 392
 낙랑국(樂浪國) 47, 48
 낙산(洛山) 50, 358, 359, 361, 367
 낙산관음 360
 낙산사(洛山寺) 289, 319, 362

낙성회 510, 518, 538
 난야(蘭若) 310, 343
 난타벽제(難陀關濟) 50
 남대(南臺) 408, 418
 남대방(南帶方) 47, 48
 남동(南洞) 340
 남모랑(南毛娘) 324
 남방불교 201
 남부여 49
 남산(南山) 254, 437, 438, 551, 617, 620
 남악 570
 남암(南庵) 343, 351
 남염부제(南閻浮提) 217
 남원(南原) 454, 457
 남월(南越) 311
 남월산(南月山) 50, 430
 남인도 32
 남천축 31, 33, 36, 100
 남천축국(南天竺國, Chālukya) 27, 33, 84, 96
 남파 32
 남파국(覽波國, Lampāka) 34
 남해 42
 남해왕(南解王) 48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576
 남입전(納入田) 443
 낭중(郎中) 269, 370
 낭지 51
 내도랑(內道場) 251
 내동면 430, 447

내물왕 48
 내부(內府) 371
 내사시랑 442, 593
 내사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 442
 내산국(萊山國) 460
 내시(內侍) 306
 내전(內殿) 306
 노(魯)나라 537
 노례왕(努禮王) 48
 노사나불(盧舍那佛) 401, 568
 노숙(老宿) 370
 노장사상 429
 노힐부득(努盼夫得) 50, 335, 338
 녹사(錄事) 191
 녹야원(鹿野苑, Mrgadāva) 36, 77, 80
 논장 506
 뇌방(磊房) 340
 눌지왕(訥祗王) 204
 느릅다리 551
 능가산(楞伽山) 587
 능인(能仁) 572



다라니(陀羅尼) 351
 다르마차크라[達磨斫葛羅, Dharmacakra] 74
 다마스쿠스 38
 다문(多聞) 225

다방(茶房) 306
다섯 성중(五類聖衆) 424, 427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18
단국(丹國) 232
단군 48, 54
단군조선 48
단법(壇法) 564
단월(檀越) 440, 442, 483, 501
달달박박(怛怛朴朴) 50, 335, 338
달성 41
담날(談捺) 546
담복화(舊菖花) 384
담정(曇貞) 21
당 32, 193, 196, 227, 248, 265, 296, 298
당(幢) 530
당고승전(唐高僧傳) 45, 400, 528, 530, 536, 592
당서 31
대가(大家) 503
대각간(大角干) 281, 534
대각국사 289
대각국사실록(大覺國師實錄) 603
대감(大監) 455
대국통(大國統) 521, 531, 534
대나마(大奈麻) 488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 505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31, 32, 379
대덕(大德) 564, 617

대도구라(大都仇羅) 280
대도유나(大都維那) 534
대발로르[大勃律, Balor] 118
대발로르국(Balor Major) 28, 30, 124, 128
대발률국(大勃律國) 34
대벽지불(大辟支佛) 110
대보리(大菩提) 345
대보산(大寶山) 209
대부시경(大府寺卿) 304
대불림국(大拂臨國) 34
대불전(大佛田) 339
대미상(大悲像) 266
대사(大舍) 433, 535
대산 50, 58
대서성(大書省) 534
대선사(大禪師) 42, 306, 370
대성(大聖) 51, 225, 400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408, 419
대송정(大松汀) 540
대승(大乘) 37, 79, 89, 96, 104, 107, 109, 115, 133, 175, 177, 470, 565, 595
대승경전(大乘經典) 477
대승법 135, 138, 142, 144, 174
대승사(大乘寺) 244, 246
대승참(大乘懺) 594
대식국(大寔國, Arab) 34
대아간(大阿干) 448
대아라한(大阿羅漢) 409

- 대안(大安) 555
 대오라니(大烏羅尼) 280
 대왕 449
 대운사(大雲寺) 177, 178
 대웅(大雄) 41
 대일본불교전서(大日本佛教全書) 18
 대일역법(大一曆法) 185, 191
 대작갑사 492
 대장경(大藏經) 41, 312, 421, 530
 대장수지록(大藏須知錄) 43
 대종(代宗) 235, 248, 251
 대천(大天) 75
 대초(大綃) 280
 대통(大統) 275, 281, 532
 대파미르[大播蜜, Pamir] 167
 대향화국(大香華國) 217
 대현(大賢) 58, 278, 616, 617, 620, 621
 대화불(大化佛) 386
 대흥사(大興寺) 593
 대흥선사 21
 덕기(德耆) 367
 덕기방(德耆坊) 366
 테칸 38
 도나산현(都那山縣) 582
 도덕경 429, 430
 도량사(道場寺) 579
 도리천(初利天) 93, 275, 277, 317, 416
 도선(道宣) 58, 193, 288, 299, 317, 469, 522
 도선사(道仙寺) 437, 443
 도세(道世) 522
 도술가 51
 도술천 613
 도유나(都維那) 177
 도유나(都維乃) 533
 도융(道融) 572
 도의(道義) 41
 도중사(道中寺) 254
 도참(圖讖) 301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 354
 도헌 454
 도화녀 48
 돈황(敦煌) 17, 30
 돈황석실유서(敦煌石室遺書) 18
 돈황학(敦煌學) 18
 돌궐(突厥, Turq) 35
 동경(東京) 271, 442, 490
 동경흥륜사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 50
 동국(東國) 315, 619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576
 동국통감(東國通鑑) 56
 동궁(東宮) 529
 동대(東臺) 408, 417
 동도(東都) 438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 223, 231
 동래 온천 459
 동래현(東萊縣) 460
 동량(棟梁) 382, 444
 동명성제(東明聖帝) 198

동명왕 198

동명왕편(東明王篇) 54

동부여(東扶餘) 48

동사강목(東史綱目) 56

동이(東夷) 225

동인도 32

동지(桐旨) 460

동진 32

동천축 31, 32, 35, 96

동축사(東竺寺) 215, 219

동평군(東平郡) 483

동해 433, 435

동화사(桐華寺) 605, 609, 614, 615

두내산현(豆乃山縣) 582

두양잡편(杜陽雜編) 244

두타(頭陀) 427

두타승(頭陀僧) 402

득오미정대사(得奧微定大師) 457

등주 557

ㄱ

라그만(Laghman) 29, 34

라다크(Ladakh) 34

라쉬트라쿠타(Rashtrakuta) 38

람파카[覽波, Lampāka] 28, 34, 138, 139

루오전유(羅振玉) 18

ㄴ

마가다[摩揭陀, Magadha] 27, 35, 75

마가다국 35, 36, 79

마나사(摩那斯) 393

마납(磨衲) 280

마니보주(摩尼寶珠) 561

마등오촌(馬等烏村) 439

마립간 47

마야부인(摩耶夫人) 349

마야사(摩耶斯) 380

마하보디사 36

마하보리사(摩訶菩提寺, Mahābodhi Temple) 77, 79

마한(馬韓) 47, 49

막고굴(莫高窟) 17

만경현(萬頃縣) 582

만불산(萬佛山) 249, 251

만선북리(萬善北里) 577

만수실리천비천발경(曼殊室利千臂千鉢經) 20, 21

만어사(萬魚寺) 379, 382

만어산(萬魚山) 379, 380

만월산(滿月山) 408

만파식적(萬波息笛) 48, 275

말갈(靺鞨) 226, 232

말갈 발해(靺鞨 渤海) 48

망신참회(亡身懺悔) 581

망해사 48

매현(買峴) 490

면지촌(面知村) 490
 멸참(滅讎) 483
 명관(明觀) 289, 309
 명덕대왕(明德大王) 449
 명랑(明朗) 51, 58, 510, 518, 564
 명륜 582
 명신(明神) 454, 458
 명운(明運) 25, 178
 명중 382
 명주(冥州) 50, 58, 325, 366, 374, 401, 406
 명주(明州) 366
 명주(溟州) 366, 401, 406
 명주도(溟州道) 370
 명주성 358, 371
 명주영(溟州營) 371
 명활산 483
 명활성(明活城) 477
 모기내 551
 모니점(牟尼岾) 414
 모의천(茅矣川) 517
 몽고 40, 223
 몽고병란 234
 묘각사(妙覺寺) 318
 묘계(妙戒) 587, 611
 묘문암(妙門庵) 41
 묘범산(妙梵山) 424, 425
 무건전(武乾殿) 536
 무극(無極) 289, 319, 558
 무기(無寄) 54

무등곡(無等谷) 340
 무량사(無量寺) 40
 무량수불(無量壽佛) 346, 419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408, 419
 무릉왕국(武陵王國) 264
 무림(茂林) 523
 무애(無碍) 552
 무열왕 429, 447
 무왕(武王) 48, 49
 무우(無憂) 218
 무우수(無憂樹) 92
 무우왕(無憂王) 219
 무의자(無衣子) 294
 무장사(鑿藏寺) 50, 447, 448, 452
 무장사지 448
 무차대재(無遮大齋) 129
 무착 429
 무현(畝峴) 490
 묵화상(默和尚) 289, 312
 문무왕 462, 548
 문성왕 288, 289, 296
 문수(文殊) 219, 395, 424
 문수감사(文殊岬寺) 396, 422
 문수대성(文殊大聖) 410, 413, 527, 540
 문수보살(文殊菩薩) 43, 222, 224, 395, 397, 399, 400, 401, 402, 409, 416, 420, 521, 522, 584
 문수사 50
 문수예참(文殊禮讎) 421
 문잉림(文仍林) 218

문종(文宗) 233
 문천교(蚊川橋) 551
 문호왕법민(文虎王法敏) 48
 문희(文姬) 435
 물계자(勿稽子) 51
 미륵(彌勒) 257, 336, 432, 581, 586,
 587, 589
 미륵보살 322, 333, 611
 미륵보살상 429, 430
 미륵불(彌勒佛) 321, 335, 341, 429
 미륵불상 335
 미륵삼존상 254
 미륵상 254, 328
 미륵선화(彌勒仙花) 50, 321, 329, 330,
 331, 333,
 미륵신앙 322
 미륵 장륙상 618
 미륵존상(彌勒尊像) 346, 348, 431
 미승(味勝) 338
 미시(未尸) 321, 331
 미시랑 50
 미추왕 48
 미타 336, 395, 397
 미타방(彌陀房) 396, 419
 미타불 335, 430
 미타상 335, 348, 435, 447
 미타신앙 557
 미타예찬(彌陀禮懺) 419
 미타전(彌陀殿) 50, 447, 449, 451
 민육(旻育) 491

민장사(敏藏寺) 50, 57, 262, 275, 285
 민지(閔漬) 43, 522
 밀교 19, 20, 21, 22, 41, 58, 251, 564
 밀본 51, 58
 밀양 379, 487
 바가바(婆伽婆) 387
 바다흐산[捕特山, Badakhshān] 145
 바라나시[彼羅睺斯, Vārāṇasī] 27, 33, 35,
 73, 83
 바라나시국 36
 바미얀[犯引, Bāmiyān] 29, 34, 144, 145,
 156
 바수반두[天親, Vasubandhu] 130
 바이샬리[毗耶離, Vaiśālī] 27, 33, 35, 91
 박박(朴朴) 340, 345
 박사 분절(芬節) 266
 박산(博山) 390
 박참 595
 박참법 592
 박트리아[縛底耶] 145
 박혁거세 49
 반고(盤古) 191
 반승(飯僧) 55
 발마 506
 발연사(鉢淵寺) 590
 발지촌(發智村) 546

발티스탄(Baltistan) 34
 발하나국(跋賀那國, Ferghāna) 34
 발해 54
 발흐(Balkh) 29, 34
 백거이(白居易) 618
 백고좌법회 470
 백두산(白頭山) 417
 백련결사 40
 백련사(白蓮社) 54, 396, 420
 백률사(栢栗寺) 50, 57, 244, 247, 262, 275, 276, 280
 백암수(白嵒藪) 454, 457
 백엄(伯嚴) 458
 백엄사 50, 454
 백엄선사(伯嚴禪寺) 455
 백운자(白雲子) 466
 백월산(白月山) 335, 336, 340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 348
 백월산양성성도기(白月山兩聖成道記) 336
 백은함 305
 백의대사(白衣大士) 362
 백제 48, 49, 50, 53, 226, 227, 228
 백제국 금산사 진표전(百濟國金山寺眞表傳) 582
 백좌도량(百座道場) 481
 백팔번뇌(百八煩惱) 614
 백팔염주 352
 백호(白毫) 249, 340
 백흔(伯欣) 454, 458
 버터[蘇, ghrta] 85
 번완(繁完) 283
 범마(梵摩) 338
 범수(梵修) 598, 601
 범어사(梵魚寺) 570
 범왕(梵王) 94, 226, 387
 범인국(犯引國, Bāmiyān) 34
 범일(梵日) 358, 359, 365, 368, 402, 424, 427
 범천왕(梵天王) 386
 범행(梵行) 611
 범경(法經) 593
 범계도(法界圖) 570
 범계무차별론소(法界無差別論疏) 600
 범계연기 557
 범단(法壇) 589
 범등(法燈) 603
 범륜사(法輪社) 396, 421, 502
 범림사(法林寺) 499, 502
 범민(法敏) 435
 범상 532
 범상종 40, 336, 429, 618
 범성(法性) 401
 범왕 50
 범왕금살(法王禁殺) 50
 범원주림(法苑珠林) 522
 범을 들음[聞法] 613
 범장(法藏) 567, 598, 601
 범적방(法積房) 339
 범정동(法精洞) 340

범종곡(法宗谷) 339
 범해(法海) 58, 178, 617, 621, 623
 범현(法顯) 31, 32, 379, 390
 범화경(法華經) 246, 285, 359, 419
 범화 예참 41
 범흥왕(法興王) 250, 05, 323, 348, 482
 뽕갈 38
 변산(邊山) 587
 변신사리 288
 변한 48, 49
 변화관음 354
 별전(別傳) 402
 보(寶) 457
 보각(普覺) 43
 보개(寶開) 285
 보당암(寶幢庵) 41
 보덕(普德) 50, 208
 보드가야 33
 보량(寶良) 534
 보리(菩提) 225, 343
 보리등(菩提燈) 593
 보리사 80
 보림(寶林) 380, 382, 383
 보문품 285
 보살계(菩薩戒) 415, 480, 581, 589
 보살계본(菩薩戒本) 530
 보살행(菩薩行) 344
 보시(布施) 116
 보양(寶壤) 51, 485, 487, 488, 489, 494, 495, 498
 보요(普耀) 289, 311
 보요선사(普耀禪師) 310
 보장봉로 보덕이암(寶藏奉老 普德移庵) 50
 보종(寶宗) 591
 보질도(寶叱徒, 寶川) 396
 보질도태자 50, 58
 보천(寶川) 395, 396, 404, 405, 411, 414, 416, 417
 보천암 396
 보천암(寶川庵) 396, 407, 421
 보타락가산(寶陞洛伽山) 361
 보현보살(普賢菩薩) 257, 260
 보현신앙 257
 보현원행(普賢願行) 568
 복전(福田) 417~421
 본각(本覺) 555
 본유(本有) 611
 본초(本草) 206
 본피부(本彼部) 237
 봉덕사(奉德寺) 238
 봉덕사종 235, 245
 봉성사(奉聖寺) 275, 281, 487, 496, 497
 봉암사 454
 부개사(夫蓋寺) 515
 부궤(負簣) 515
 부동상(不動像) 420
 부득(夫得) 340, 345, 346
 부례랑(夫禮郎) 275, 277, 278, 280, 534
 부석본비(浮石本碑) 289, 315, 558

- 부석사 557, 565, 569, 573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 557
부안 576
부인사(符仁寺) 41
부하라(Bukhara) 29, 154
부호장(副戶長) 491
북대(北臺) 407, 409, 417, 419, 528, 540
북대방(北帶方) 47, 48
북부여(北扶餘) 48
북송산(北崇山) 297
북암(北庵) 342, 351
북인도 32, 379
북제(北齊) 531
북천(北川) 324
북천국(北天國) 33
북천축(北天竺) 31, 32, 35, 103, 382, 383, 389
북천축국 105, 110, 113
북택(北宅) 454
북택청(北宅廳) 456
분수승(焚修僧) 306
분황사(芬皇寺) 50, 237, 354, 356, 484, 521, 530, 554~ 556
분황사 약사상 235
불골간자(佛骨簡子) 607
불공(不空) 20, 22, 251, 397
불교[像敎] 310
불국기 31, 32, 379
불국사(佛國寺) 236, 245, 573
불국토(佛國土) 55, 244, 397
불국토 신앙 244, 359, 397
불등을촌(弗等乙村) 546
불법 119
불보은경(佛報恩經) 420
불사의암(不思議庵) 585
불아전(佛牙殿) 305
불아함(佛牙函) 304
불연국토설(佛緣國土說) 379
불일사(佛日社) 42
불지촌(佛地村) 546, 548, 553
불퇴위(不退位) 610, 613
불파부제(弗巴浮堤) 386
브라만[婆羅門, brāhmana] 126, 385
비구 471, 473
비로자나(毗盧遮那) 421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 395, 397, 409, 420
비마라사(毘摩羅寺) 570
비보기(裨補記) 490
비슬산(毗瑟山) 41, 443, 570
비야리성(毗耶離城, Vaiśālī) 33
비잔틴제국(Byzantine Empire) 29, 30, 34, 153
비장산(臂長山) 476
비허(備虛) 497
비형량 48
빈야다라(拏若多羅) 595
빙산사(氷山寺) 307

- 사(史) 535
- 사굴산문 424
- 사금갑(射琴匣) 48
- 사대영탑(四大靈塔) 78
- 사대탑(四大塔) 89
- 사동 577
- 사라사(娑羅寺) 547
- 사라수 578
- 사란달라국(閼蘭達羅國) 33
- 사랑부(沙梁部) 281, 478
-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 595, 596
- 사마갈라사(奢摩揭羅閼) 137
- 사마르칸드(Samarqand) 29, 34, 155, 158
- 사목곡(沙木谷) 456
- 사미(沙彌) 366
- 사방불(四方佛) 244, 248
- 사방여래(四方如來) 246
- 사복(蛇卜) 51, 576~579
- 사부대중(四部大衆) 531
- 사불산(四佛山) 244, 246
-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50
- 사산조 38
- 사여수(似如樹) 333
- 사율국(謝廳國, Zābulistān) 34
- 사이(四夷) 48
- 사자바위(獅子岩) 337
- 사자보좌(獅子寶座) 541
- 사자좌 269
- 사주(寺主) 177, 534
- 사천왕사(四天王寺) 499, 502
- 사천왕상 501
- 사탁간(娑鐸幹) 142
- 사파자(娑播慈) 25, 28, 118
- 사파자국(娑播慈國) 30, 34
- 사포(絲浦) 213
- 사포성인(蛇包聖人) 576
- 사포체(Sa spo rtse) 34
- 사호라살타나(社護羅薩他那) 142
- 사히스[沙糸] 140
- 살생하지 않겠다는 계[不殺戒] 392
- 살찬(薩漣) 278, 433
- 삼강전(三剛典) 489
- 삼강전(三綱典) 487
- 삼국본사(三國本史) 400
- 삼국사(三國史) 478
- 삼국사기(三國史記) 44, 46, 47, 54, 56, 223, 289, 322, 397, 475
- 삼국유사 40, 43, 45, 52~56, 58, 290, 354, 395, 448, 469, 487, 500, 505, 522, 557, 582
- 삼귀(三歸) 386
- 삼귀오계 379
- 삼기산 483
- 삼도보계 93
- 삼도보계탑(三道寶階塔) 93
- 삼매(三昧) 502
- 삼맥종(三麥宗) 322

삼모부인(三毛夫人) 237
 삼보 67, 96, 100, 114, 116, 119, 129,
 135, 137, 138, 140, 142, 144,
 146, 160
 삼사(三師) 326
 삼세(三世) 613
 삼소관음(三所觀音) 50
 삼업(三業) 585
 삼장(三藏) 111, 309, 473, 584
 삼존 421
 삼존상 502
 삼중대사(三重大師) 41
 삼천불 502
 삼한 49, 230
 삼한공신(三韓功臣) 462
 삼화령(三花嶺) 254, 255
 삼량주(插良州) 548
 상가바드라[Sanghabhadra, 衆賢] 108
 상교(相敎) 595
 상률(庖律) 220
 상방(上房) 305
 상상과(上上科) 41
 상수(上守) 305
 상승(上乘) 610, 612, 613
 상왕산(象王山) 409
 상원(相源) 572
 상원사(上院寺) 410
 상의(尙衣) 434
 상장군(上將軍) 292, 305
 상제(上帝) 300
 상좌(上座) 178, 456, 489
 상주(上州) 548
 상주(尙州) 548, 602
 상주(湘州) 548
 상카시아 35
 상호(相好) 249
 상호장(上戶長) 491
 새내 551
 생의(生義) 254
 생의사(生義寺) 255
 생의사석미륵(生義寺石彌勒) 50
 서경(西京) 443, 567
 서국(西國) 601
 서당(誓幢) 549
 서당화상비 544
 서대(西臺) 408, 419
 서역(西域) 32, 37, 198, 201, 203, 361
 서역기(西域記) 391
 서역전(西域傳) 390
 서인도 32
 서천국(西天國, Sindh) 33
 서천축(西天竺) 31, 33, 36, 213, 217
 서천축국(西天竺國) 28, 100, 103
 석가 395, 397
 석가만일도량(釋迦萬日道場) 442
 석가모니(釋迦牟尼) 288, 385, 578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190, 420
 석가불 219
 석가삼존상 214

석가세존(釋伽世尊) 190, 401
 석가여래(釋迦如來) 409, 420
 석가여래행적승(釋迦如來行蹟頌) 54
 석굴사(石岬寺) 497
 석남원(石南院) 522, 540
 석불사 236, 245
 석장사(錫杖寺) 501
 석주(石柱) 74
 석충(釋忠) 591
 석충(釋冲) 606, 614
 선계산(仙溪山) 581, 585
 선관(禪觀) 208, 209
 선덕왕(善德王) 219, 223, 232, 242,
 254, 255, 288~290, 354, 400,
 500, 517, 529
 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 48
 선도(善道) 584
 선도성모 51
 선묘 557
 선무외(善無畏) 20
 선문염송(禪門拈頌) 42
 선문염송사원(禪門拈頌事苑) 43
 선사(禪師) 42, 489
 선악 과보 605
 선월사(禪月社) 42
 선유사(仙遊寺) 21
 선유사사리탑명(仙遊寺舍利塔銘) 21
 선율 51
 선재동자 359
 선종(宣宗) 40, 289, 313, 490
 선종랑(善宗郎) 524
 선지식(善知識) 350
 선천촌(仙川村) 338
 설신(薛伸) 303
 설원랑(薛原郎) 325
 설인귀(薛仁貴) 193, 197
 설총(薛聰) 430, 551, 556
 섭대승론(攝大乘論) 58, 530
 성겁(成劫) 189
 성덕 233
 성덕왕(聖德王) 48, 232, 235, 238, 239,
 397, 405~407, 413, 429, 589
 성덕종(聖德鐘) 239
 성도(成道) 416
 성승(聖僧) 613
 성오평(省烏坪) 406, 426
 성왕(聖王) 194, 198
 성의사(性義寺) 256
 성제(成帝) 198
 성종(性宗) 595
 성태(性泰) 271
 성함(星函) 391
 세간선(世間禪) 611
 세달사(世達寺) 358, 372
 세속오계(世俗五戒) 469, 480
 세조(世祖) 202
 세지 395, 424
 세헌(世獻) 406
 소그드(Sogd) 29
 소록(疎勒, Kashgar) 35

소발나구달라(蘇跋那具怛羅,
 suvarnagotra) 33
 소발로르[小勃律, Balor] 124
 소발로르국(Balor Minor) 28, 128
 소발률국(小勃律國) 34
 소백화(小白華) 362
 소보감사(所寶岬寺) 492
 소불전(小佛田) 339
 소비잔틴 34, 151, 153
 소사(小舍) 433, 435
 소서성(小書省) 534
 소성(昭成) 449
 소성(小姓)거사 552
 소성왕 447
 소승(小乘) 37, 79, 89, 96, 104, 107,
 109, 115, 133, 141
 소승법 144, 146, 160, 165, 171, 173,
 180
 소작감사 492
 소현조(昭玄曹) 533
 속고승전(續高僧傳) 58, 469, 484, 522,
 582
 속리산 607
 손순 51
 솔도파(塞堵婆) 392
 송 297, 300, 301, 310
 송(頌) 537
 송고승전(宋高僧傳) 544, 547, 557, 582,
 583, 606, 614
 송정 540
 수(隋) 197

수구다라니(隨求陀羅尼) 415
 수기(授記) 224, 392
 수다사(水多寺) 403, 424, 427, 522, 540
 수로부인(水路夫人) 48
 수로왕(首露王) 201, 202, 204, 380
 수립(秀立) 454, 457
 수마트라(Sumatra) 20, 27
 수문(水文) 488
 수미산 623
 수바르나고트라[蘇跋那具怛羅,
 Suvarnagotra] 28, 30, 33, 105
 수바만다나[娑般檀寺, Subha-bandhana]
 71
 수범(修梵) 338
 수생(修生) 611
 수선사 40, 41, 42
 수원사(水源寺) 321, 329, 330
 수이전(殊異傳) 58, 469, 470
 수정사(水精社) 396, 419
 수행(秀行) 177
 수힐매리(首盼買里) 433
 숙종(肅宗) 234, 237
 순금합 305
 순도조려(順道肇麗) 50
 순영(順英) 488
 숭복사(崇福寺) 567
 숭제(崇濟) 581, 583, 585
 쉬그난[識匿, Shighnān] 30, 35, 167
 슈라바스티[舍衛, Śrāvastī] 35, 89
 스리랑카 32

스와트(Swat) 34
 스타인(Stein) 17
 승관(僧官) 275, 535
 승광별원(勝光別院) 528
 승니(僧尼) 537
 승도(僧徒) 251
 승도(僧都) 533
 승도촌(僧道村) 339
 승상 562
 승선(承宣) 305
 승실(僧實) 526
 승전(僧傳) 51, 58, 208, 598~602
 승전(勝詮) 568, 598
 승정(僧正) 533
 승조(僧肇) 519
 승직(僧職) 443
 승통(僧統) 313, 531
 시각(始覺) 555
 시랑(侍郎) 264, 292
 시비[尸毗, Śibi] 131
 시알코트(Sialkot) 33
 시어사(侍御史) 303
 시원전(十員殿) 302, 305, 306, 307
 시중(侍中) 441
 시지(柴地) 414
 시짱(西藏) 34
 식닉국(識匿國 Shighnān) 35
 신계리 430
 신광사(神光寺) 297

신당(新幢) 549
 신도 32
 신두고라국(新頭故羅國 Sindh-gujarat)
 33
 신드(Sindh) 33
 신드구자라트[新頭故羅, Sindh-Gujarāt]
 28, 35, 36, 108
 신라 49, 52, 211, 212, 223, 226, 230,
 236, 242, 244, 257, 263, 296,
 310, 321, 372
 신라불국토 신앙 335
 신라삼보(新羅三寶) 211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 497
 신무대왕 48
 신문왕(神文王) 397, 405, 412, 459, 460
 신방(信芳) 591
 신서(信書) 442
 신성굴(神聖窟) 416
 신원(信元) 489
 신위(信位) 612
 신의(信義) 395, 402, 403, 424, 427
 신인(神印) 564
 신인종(神印宗) 518
 신적(神笛) 279, 280
 신중상(神衆像) 450
 신증동국여지승람 360, 448
 신총 51
 신탁(神卓) 454, 457
 신현정(神見井) 272
 신표(信孝) 424, 425, 427

신호사(神孝寺) 303, 305
 실단(悉壇) 594
 실라디티야[尸羅栗底, Śīlāditya] 36, 75
 실성왕(實聖王) 48
 심감(心鑑) 318
 심맥종(深麥宗) 322
 심원장(心源章) 603
 심지(心地) 51, 58, 605~607, 608
 심호(沈湖) 290
 십대덕(十大德) 533
 십문화쟁론 544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 600
 십일면관음 263, 354
 십일면관음상(十一面觀音像) 265
 십일지(十一地) 350
 십제자 557
 십찰 557
 십통(十統) 531
 십현(十賢) 552
 십회향품(十迴向品) 554
 싱할라[師子, Sinhala] 149

아나사산(阿那斯山) 384
 아녹보리(阿耨菩提) 386
 아니점(阿尼帖) 488, 490
 아도(阿道) 204, 576
 아도기라(阿道基羅) 50
 아라비아 31
 아라한 115
 아랍 31, 34, 38, 109, 145, 146, 149, 153, 155, 158, 160, 165
 아랍[大寔, Arab] 29, 100, 151
 아리나 506
 아리아발마(阿離耶跋摩) 505
 아무다리아[縛叉, Amu Darya] 158
 아미타(阿彌陀) 450
 아미타불(阿彌陀佛) 341, 434
 아미타상(阿彌陀像) 429, 430, 447, 450, 447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108
 아비지(阿非知) 227, 228
 아상(我相) 541
 아상가[無着, Asanga] 130
 아쇼카왕(阿育王) 193, 196, 199, 211, 213, 217, 220
 아쇼카왕탑 193
 이수라(阿修羅) 612
 아슬라주(阿瑟羅州) 581, 589
 아야사산(阿耶斯山) 380
 아유타국(阿踰陀國) 201, 203
 아찬 281

아(雅) 537
 아곡현(阿曲縣) 230
 아귀(餓鬼) 612
 아나사(阿那斯) 393

아프가니스탄 34, 35
 아함경(阿含經) 185, 188
 아행(阿行) 369
 아호리(阿好里) 433, 435
 악봉귀(樂鵬龜) 440
 안강(安康) 483
 안강현(安康縣) 511, 513
 안렴사(按廉使) 292
 안상(安常) 275, 278, 280, 281, 283
 안서 178
 안서대도호 180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 167, 173, 175, 176, 180
 안서대사 24
 안서도호 26, 30
 안서로 32
 안일호장(安逸戶長) 470
 안장(安藏) 534
 안홍(安弘) 231
 알자방(謁者房) 303
 암곡리 447
 암곡촌(暗谷村) 448
 암라(菴羅, Āmra) 91
 압량군(押梁郡) 546, 548
 압록강 197
 압유사(鴨遊寺) 542
 야건가라국 379
 야무나(Yamuna) 27
 야별초(夜別抄) 371
 야차(夜叉) 97, 131
 약사여래(藥師如來) 458
 약사여래동상(藥師如來銅像) 237
 약사여래입상 276
 양(梁) 264, 532
 양가(兩街) 251
 양동(楊同) 28, 118
 양동국(楊同國) 30, 34, 128
 양부(陽孚) 454, 456
 양사(壤寺) 339
 양성(良誠) 433, 435
 양원(良圓) 572
 양종(兩宗) 40
 양주(梁州) 382
 양주(揚州) 560
 양주(襄州) 369
 양주성 371
 양지(良志) 51, 242, 499, 500
 어록(語錄) 43
 어모부위(禦侮副尉) 491
 어부(御府) 371
 어불당(御佛堂) 305
 어사대(御史臺) 303
 연기국(焉耆國, Kharashar) 35
 연양(彦陽) 542
 연중(彦琮) 593, 596
 엄장 51
 엄흔(嚴欣) 454, 458
 업장(業障) 346
 여적(女狄) 232

역대가(歷代歌) 191
 역대연표(歷代年表) 42
 역덕산(亦德山) 246
 역수(逆水) 439
 연곡현(連谷縣) 465
 연오랑 세오녀(延烏郎 細烏女) 48
 연화대(蓮花臺) 345, 346
 연화장 578, 580
 연화장세계(蓮花藏世界) 339, 576
 연회 51
 연희궁(延禧宮) 191
 열반경(涅槃經) 208, 209, 420
 열반예참(涅槃禮懺) 420
 염관(鹽官) 366
 염부제(閻浮提) 93, 199
 염부제주(閻浮提洲) 196
 염불사(念佛師) 51
 염장 48
 영랑(永郎) 283
 영묘사 242, 502, 503
 영묘사(靈妙寺) 242, 330
 영묘사(靈廟寺) 499, 501, 517
 영묘사장륙(靈妙寺丈六) 50
 영묘사장륙(靈廟寺丈六) 500
 영변(靈卮) 413
 영산사(靈山寺) 581, 587
 영심(永深) 581, 591, 605, 607, 608
 영여사(迎如師) 51
 영월(寧越) 358, 373
 영일 42
 영일현 516
 영잠(瑩岑) 582
 영재 51
 영취사(靈鷲寺) 50, 459, 461
 영탑사(靈塔寺) 208, 210
 예맥(穢貊) 48, 232
 예종(睿宗) 288, 289, 302, 312, 605, 609
 예참 397
 연지(焉耆) 35
 오(吳) 264
 오가야(五伽耶) 48
 오갑사 494
 오계(五戒) 381, 386, 525, 585
 오공(悟空) 32
 오공입축기(悟空入竺記) 32
 오교(五敎) 40
 오대 424
 오대사(五臺社) 421, 422
 오대산(五臺山) 23, 50, 58, 218, 222,
 223, 395, 399, 401, 416, 424,
 425, 464, 521, 584
 오대산 신앙 397, 424
 오대산월정사사적(五臺山月精寺事蹟)
 522
 오도안찰사(五道按察使) 490
 오방신앙 397
 오백나한 395
 오백나한상(五百羅漢像) 297
 오부(五部) 537

- 오브루체프(Obruchev) 17
 25, 26, 30, 32, 35, ~37, 39
- 오상(五常) 326
- 오세문(吳世文) 191
- 오어사(吾魚寺) 516
- 오어사(吾魚社) 42
- 오월(吳越) 232, 310
- 오장국(烏長國, Uddiyāna) 34
- 오장나 32
- 오정석(吳廷碩) 464
- 오진(悟眞) 571, 573
- 오천축(五天竺) 31, 35
- 오천축국 84, 96, 100, 109, 116, 128
- 오체투지(五體投地) 386
- 오타니(大谷光瑞) 18
- 오희태수(吳興太守) 264
- 옥녀담(玉女潭) 21
- 옥룡집(玉龍集) 185
- 옥저(沃沮) 48
- 옥지(玉池) 381, 382
- 옥천사(玉泉寺) 41, 570
- 온광(蘊光) 303, 305
- 와한[胡蜜, Wakhan] 30, 35, 163, 165, 167, 169
- 완산주(完山州) 581, 582
- 왕대종록(王代宗錄) 606, 614
- 왕분사(王芬寺) 484, 530
- 왕사성(王舍城, Rājagṛha) 77
- 왕세의(王世儀) 481
-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17, 18, 23, 25, 26, 30, 32, 35, ~37, 39
- 왕원록(王圓籙) 17
- 왕후사(王后寺) 204
- 왕희지 43
- 외도(外道) 67
- 요동 560
- 요동성(遼東城) 194, 197
- 요동성육왕탑(遼東城育王塔) 50
- 요본(遼本) 312
- 요석공주 545
- 요석궁(瑤石宮) 550, 556
- 요세(了世) 40
- 용강현(龍岡縣) 208
- 용녀(龍女) 440
- 용보(龍寶) 281
- 용성(用成) 491
- 용수(龍樹) 228
- 용왕당 311
- 용장사(茸長寺) 616, 617
- 용천사(湧泉寺) 42
- 용춘(龍春) 228
- 용흥사(龍興寺) 178
- 우곡현(羽曲縣) 374
- 우금리(禹金里) 285
- 우디아나[烏長, Uddiyāna] 28, 34, 135
- 우디아나국 137
- 우마이야(Umawiyah) 38
- 우수주(牛首州) 373
- 우자함(右字函) 197

우장군(右將軍) 264
 우전국(于闐國, Khotan) 35
 우조(憂助) 514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34
 우현(羽縣) 374
 옥면 51
 운문사(雲門寺) 42, 479, 484, 485, 487, 497
 운문산선원(雲門山禪院) 488, 490
 운문선사(雲門禪寺) 487, 495
 운제사(雲際寺) 528
 울산 459
 울주(蔚州) 230, 406
 울지인나(鬱地引那) 135
 울진국(蔚珍國) 415
 웅천(熊川) 321, 329
 원 295
 원광(圓光) 51, 58, 469, 479~481, 483, 485, 487, 493
 원녕사(元寧寺) 395, 402, 524, 538
 원성대왕(元聖大王) 48, 447, 448, 535
 원승(圓勝) 542
 원제(元帝) 198
 원종 42
 원종문류(圓宗文類) 568
 원종홍법 위촉멸신(原宗興法 猷勸滅身) 50
 원주(院主) 489, 570
 원통사(圓通社) 396, 418
 원향 227
 원홍(元弘) 289, 296, 310
 원화(原花) 321, 323
 원효(元曉) 51, 58, 316, 358, 360, 363, 368, 510, 516, 544, 551, 553, 545~557, 560, 576~578
 원효방(元曉房) 576
 월명사 51
 월성(月城) 186, 187, 220
 월장(月藏) 338
 월정사(月精寺) 50, 395, 403, 424, 427, 464
 월지국(月支國) 389
 위(衛)나라 537
 위만조선(魏滿朝鮮) 47
 위 없는 도(無上道) 340
 위오야차(饑五夜叉) 25
 위토전(位土田) 414
 유가(瑜伽) 51, 616
 유가종 617
 유년(逾年) 47
 유덕사(有德寺) 50, 462
 유동보살(幼童菩薩) 425
 유리광사(琉璃光寺) 339
 유리동(瑠璃洞) 340
 유리함 305
 유사(劉思) 289, 309
 유사강(流沙江) 415
 유석(庾碩) 292
 유수관(留守官) 444
 유식(唯識) 58, 429, 616, 619

유식사상 58
 유연(有緣) 403, 424, 427
 유주(幽州) 198
 유지인(劉至仁) 561
 유학(儒學) 473, 477
 육경(六經) 552
 육계(肉髻) 249
 육근취(六根聚) 594
 육두품 429
 육륜법(六輪法) 591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 420
 육신통(六神通) 386
 육예(六藝) 326
 육재일(六齋日) 480
 육정(六正) 326
 윤응(尹應) 491
 윤질(尹質) 297
 율사(律寺) 535
 율장(律藏) 177, 506
 융기(隆基) 405
 융천사 51
 음의 24
 응유(鷹遊) 232
 의상(義湘) 360, 558
 의상(義相) 51, 58, 288, 289, 298,
 300, 316, 358, 368, 544, 562,
 564~566, 569, 571, 573, 576,
 598, 599, 601
 의안군(義安郡) 337
 의적(義寂) 572
 의정(義淨) 505
 의천(義天) 40, 313
 의초(義超) 177
 이공(理恭) 405
 이규보(李奎報) 54, 576
 이녹수(李祿綏) 370
 이라바티[伊羅鉢底, Airāvātī] 54, 70
 이란 34
 이목(璃目) 484, 487, 492, 495, 497
 이백전(李白全) 304
 이부(二府) 47, 48
 이사로(李思老) 491
 이산(梨山) 339
 이상택(里上宅) 237
 이서국(伊西國) 48
 이선(李僊) 490
 이슈카심(Ishkāsim) 30
 이승휴 54
 이심사(里審使) 488
 이영장(李令長) 306
 이원찬(李元撰) 593
 이장용(李藏用) 42
 이정(頤貞) 24
 이지미(李之美) 297
 이차돈 50, 275
 이찬(伊嚙) 432, 435
 이찬(伊漣) 228, 237
 이척정(李則禎) 491
 이현(耳峴) 513

이혜 51
 이홍(理洪) 405
 익령 367
 익령현(翼嶺縣) 366
 익장(益莊) 360
 인(人) 613
 인각사(麟角寺) 43
 인더스강 38, 129
 인도 32, 33, 35, 37, 211, 315, 505, 506
 인명(因明) 619
 인수탑(仁壽塔) 21
 인여수(印如樹) 333
 인왕(人王) 613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417
 인장(仁章) 432, 435
 인천(人天) 110
 인흥사(仁弘社) 42
 일관(日官) 283, 301, 464, 465
 일길간 435
 일길찬(一吉喰) 432, 433
 일당(一幢) 433
 일본 232
 일승 571
 일심(一心)사상 58, 544
 일연(一然) 40, 43, 52, 53, 56, 185,
 201, 212, 242, 257, 464, 487,
 500, 505
 일조(日照) 405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18, 23, 25, 26,
 30, 31

일체법(一切法) 401
 입내시(入內侍) 304
 입적(入寂) 477
 잉피공(仍皮公) 545



자란달라 33
 자문일기(紫門日記) 304
 자박참법(自撲懺法) 592
 자블리스탄[謝颯, Zābulistān] 29, 34,
 142, 144
 자블리스탄국 156
 자성(自性) 401
 자성산(慈成山) 380
 자인현(慈仁縣) 548
 자장(慈藏) 51, 58, 218, 220, 222, 223,
 225, 229, 230, 289, 290 309,
 395, 397, 399, 402, 404, 424,
 425, 427, 521, 522, 526, 528,
 530, 531, 534, 535, 537, 539,
 541, 576
 작갑(鵲岬) 484, 493
 작갑사(鵲岬寺) 487, 494, 497
 잘란다라[闍蘭達羅, Jālandhara] 28, 103
 잘란다라국 35, 107
 잠비(Djambi) 27
 장경동(藏經洞) 17
 장령산(長嶺山) 408
 장로(長老) 403, 427, 489

- 장륙삼존상 501
- 장륙존상(丈六尊像) 211, 214, 222, 215, 220, 230, 234, 243, 499, 502, 503
- 장목왕후(莊穆王后) 318
- 장사(莊舍) 372, 373, 414
- 장산국(菟山國) 460
- 장산군(章山郡) 40, 546
- 장생(長生) 488
- 장생표(長生標) 487
- 장생표탑(長生標塔) 490
- 장서기(掌書記) 490
- 장승요(張僧繇) 264
- 장안 30
- 장엄사(莊嚴寺) 178
- 장자(長者) 595
- 장전(莊田) 435
- 장절(仗節) 293
- 장천굴(掌天窟) 415
- 장춘(長春) 285, 286
- 장춘랑 과랑(長春郎 罷郎) 48
- 재계(齋戒) 362
- 재상 459, 460
- 재조(再雕) 41
- 저족문(猪足門) 490
- 적곡촌(赤谷村) 511
- 적대공(赤大公) 546
- 적대연(赤大淵) 546
- 적멸(寂滅) 392
- 적선촌(赤善村) 511
- 전백제(前百濟) 48
- 전주목(全州牧) 582
- 전한(前漢) 197
-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 50
- 절도대사(節度大使) 176
- 점승(占崇) 273
- 점찰경(占察經) 581, 582, 587, 591, 592, 593, 594, 596, 605, 610
- 점찰보(占察寶) 470, 483
- 점찰 수행 606
- 점찰예참(占察禮懺) 418
- 점찰회(占察會) 576, 579
- 정거천(淨居天) 416
- 정광(正匡) 269
- 정극영(鄭克永) 297
- 정림사(定林社) 42
- 정명(政明) 405
- 정반왕(淨飯王) 385
- 정법전(政法典) 535
- 정보(正甫) 267
- 정수사 51
- 정신(淨神) 404, 405
- 정신대왕(淨神大王) 397, 404
- 정신왕(淨神王) 411
- 정안(鄭晏) 42
- 정암사(淨岩寺) 395, 402, 424, 425, 540
- 정원석교록(貞元釋教錄) 594
- 정유(淨油) 414
- 정자(貞慈) 328
- 정장(正藏) 595

정조(靜照) 43
 정종(靖宗) 233, 445
 정취보살(正趣菩薩) 50, 359, 368
 정취보살상 358
 정토 613
 정토사(淨土寺) 40, 359, 375
 정토신앙 53
 정혜사(定惠寺) 312
 정혜쌍수 40
 정화(靖和) 258
 정효(貞孝) 470
 젓[乳, ksīra] 85
 제망(帝網) 567
 제석궁(帝釋宮) 288, 300
 제석신앙 257
 제석천(帝釋天) 94, 257, 259, 527
 제승법수(諸乘法數) 43
 제왕운기(帝王韻紀) 54
 제호화상(醍醐和尚) 364
 조계산(曹溪山) 294
 조계종(曹溪宗) 370
 조관(澡灌) 601
 조군(趙君) 24, 176
 조동선 43
 조로아스터(Zoroaster) 156
 조론(肇論) 519
 조사(祖師) 492
 조산대부(朝散大夫) 239
 조상기 429

조설(早雪) 48
 조신(調信) 50, 358, 360, 373, 375, 377
 조정사원(祖庭事苑) 43
 조파도(祖派圖) 43
 종남산(終南山) 227, 298, 521, 528,
 561, 565, 574
 중요(宗要) 544
 좌도(左道) 300
 좌번 알자(左番謁者) 304
 주(周) 230
 주겁(住劫) 189
 주국(柱國) 442
 주도(州都) 533
 주인(主人) 487, 489
 주지(住持) 442, 444
 주질현(盩厔縣) 21
 주첩(柱貼) 455
 주첩공문(柱貼公文) 487, 488
 주통(州統) 532, 534
 주포(主浦) 203
 죽령(竹嶺) 245
 죽지랑 48
 중국 32
 중대(中臺) 409, 420
 중사(中使) 513
 중생사(衆生寺) 50, 57, 262, 263, 275,
 277, 285, 440
 중승(中乘) 611~613
 중아찬(重阿臚) 429, 431, 434
 중악(中岳) 607

중인도 32
 중천축국(中天竺國) 27, 31, 32, 33, 35, 36, 83, 84, 89, 96, 103, 111, 113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42, 43
 중화(中華) 232
 즉위년(卽位年) 47
 증과(證果) 581
 증과간자(證果簡子) 587
 지겸(志謙) 40
 지귀(志鬼) 517
 지눌(知訥) 40
 지론 58
 지리산 42
 지법(智法) 208
 지상사(至相寺) 299, 561, 574
 지식(知識) 492
 지엄(智儼) 299, 315, 316, 557, 561, 562, 565, 571, 598, 599
 지장(知莊) 373, 375, 397, 424, 581
 지장경(地藏經) 418
 지장방(地藏房) 396, 418
 지장보살(地藏菩薩) 408, 418, 581, 586
 지장사(地藏寺) 443, 437
 지장상(地藏像) 418
 지철로왕(智哲老王) 48
 지통(智通) 571
 지화사(知畵事) 264
 직비각(直秘閣) 264
 직세(直歲) 489
 진(眞) 583
 진(陳) 265, 309, 532
 진골(眞骨) 219, 459, 521
 진기(珍奇) 491
 진덕왕(眞德王) 48, 539
 진선(眞善) 591
 진성여대왕 48
 진신사리 454
 진신신앙 395
 진양부(晉陽府) 305
 진양부첩(晉陽府貼) 490
 진언 43
 진여원(眞如院) 395, 396, 397, 410, 413, 414, 420
 진자(眞慈) 50, 321, 328, 329, 330, 331
 진장(眞藏) 572
 진재(眞才) 283
 진전사(陳田寺) 41
 진정(眞定) 572
 진정사 51
 진주 454
 진지왕(眞智王) 321, 326, 328, 330
 진평왕(眞平王) 215, 219, 230, 245, 475, 481, 512, 549
 진표(眞表) 51, 58, 336, 581, 582, 585, 589, 596, 605, 607, 614
 진한(辰韓) 48, 49
 진해(珍海) 591
 진흥왕(眞興王) 48, 187, 212, 232, 289, 290, 309, 322, 533
 질지왕(鎡知王) 204

집사시랑(執事侍郎) 429, 434

집신주삼보감통록 193

징관(澄觀) 397, 598, 602

六

차사원(差使員) 490

찬고도(纂古圖) 185, 191

찬녕(贊寧) 582, 583

찰당(刹幢) 620

찰주(刹柱) 228

찰주기(刹柱記) 222, 229

참법(懺法) 582, 592

창녕군(昌寧郡) 548

창원 335

창조(倉租) 414

처용랑 48

처현(處玄) 465

천(天) 613

천궁(天宮) 573

천녀(天女) 440

천룡사(天龍寺) 50, 438, 437, 439, 440, 442

천룡팔부(天龍八部) 362

천문감사(天門岬寺) 492

천복사 20

천부관음(千部觀音) 524

천불(千佛) 190, 391

천불동(千佛洞) 17

천사옥대(天賜玉帶) 48, 223, 230

천수관음(千手觀音) 356

천수관음상 354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418

천수대비 50

천신(天神) 225

천왕(天王) 613

천인(天人) 525

천제(天帝) 259, 300, 318

천존고(天尊庫) 279, 282

천진공(天真公) 514

천책(天頌) 54

천축 508

천태(天台) 313

천태종 40, 54

철반(鐵盤) 229

침당(籤堂) 609

침자(籤子) 614

청구 620

청구사문(靑丘沙門) 620

청도군(淸道郡) 487, 488

청도군 도전장(都田帳) 489

청량산(淸涼山) 527

청분(淸玢) 43

청주(靑州) 592

청주거사(靑州居士) 593

체진(體珍) 591

초(楚) 230

초개사(初開寺) 547, 553

초계(草溪) 456
 초전법륜처 36
 초조(初雕) 41
 초지(初地) 554
 초팔현(草八縣) 456
 총경(聰敬) 433
 총령 32, 35, 171
 총령진(蔥嶺鎮, Tashukurghan [Pamir])
 35, 169
 총림법석 366
 최공연(崔公衍) 305
 최숙(崔肅) 270, 441
 최승로(崔丞魯) 269, 437, 441
 최승로(崔承老) 262
 최언위(崔彦擧) 462
 최유덕(崔有德) 462
 최은함(崔殷謨) 267, 270, 440
 최이 42
 최제안(崔齊顔) 270, 437, 441, 442
 최충(崔冲) 303
 최치원(崔致遠) 49, 557, 560, 574
 최홍(崔弘) 305
 추동기(錐洞記) 573
 추항(籌項) 470, 479
 추화(推火) 496
 축생 612
 춘주(春州) 373
 출가 557, 613
 충담(忠談) 48, 256
 충렬왕 43

충원공(忠元公) 459, 460
 춘의천사(襯衣天使) 273
 치산촌(雉山村) 338, 339
 치트랄(Chitral) 34
 칠보(七寶) 393
 칠보대(七寶臺) 387
 칠보대사(七寶臺寺) 177
 칠십이국(七十二國) 47, 48
 칠처가람 354
 침단목(沈檀木) 248, 587
 침향합(沈香合) 305



카나우지(Kanauj) 27, 33, 35, 37, 38
 카니슈카[葛諾歌, Kaniska] 130
 카니야쿱자[葛那及自, Kānyakubja] 83
 카라샤르[焉耆, Kharashar] 30, 180, 181
 카부단(Kabudhan) 29, 154
 카불(Kabul) 34, 142
 카슈가르[疏勒, Kashgar] 30, 35, 171,
 173, 178, 180
 카슈미르[迦葉弥羅, Kashmir] 28, 34, 35,
 103, 113, 118, 124
 카슈미르국 128
 카시(喀什) 35
 카자흐스탄(Kazakhstan) 35
 카틀론(Khatlon) 34
 카피시[闐賓, Kāpiśi] 29, 34, 127, 139,

카피시국 128, 142, 146
 카필라[迦毗羅, Kapila] 35, 92
 카필라국[伽毗羅國] 385
 콜카타 27
 쿠쉬나가라[拘尸那, Kuśinagara] 27, 33,
 69, 77
 쿠위[拘衛, Kuwi] 28, 137
 쿠차[龜茲, Kucha] 30, 35, 173
 쿠차(庫車) 35
 쿠탈[骨咄, Khuttal] 30, 160
 쿠파(Kufa) 34
 크림[酪, dadhi] 85
 크샤트리아 224
 키쉬(Kish) 29, 154

ㄷ

타마사바나[多摩三磨娜, Tamasāvana] 110
 타사국[吒社國, Takshar] 33
 타쉬켄트(Tashkent) 29, 154
 타쉬쿠르간[渴飯檀, Tāshukurghān] 30,
 170
 타쉬쿠르간(塔什庫爾干) 35
 타지키스탄 30, 34, 38
 타클라마칸 17, 30
 탁라(托羅) 232
 탁샤르[吒社, Takshar] 28, 33, 35, 107
 탁샤르국 108

탈해왕(脫解王) 48
 탐라립티 27
 탐현기(探玄記) 565, 599
 탐 291
 탐참(搭讖) 595, 596
 탐참법(搭讖法) 582, 592
 태대각간(太대角干) 281, 462, 535
 태백산(太伯山) 522, 565, 569, 574
 태백산(太白山) 540
 태수(太守) 491
 태자사의랑(太子司議郎) 239
 태조(太祖) 296, 487, 488, 494, 496, 614
 태종(太宗) 435, 451, 528, 536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407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48
 태화사(太和寺) 229, 291
 태화지(太和池) 225, 230, 402, 528
 토론삼한집(討論三韓集) 437, 438
 토번국 34
 토하라 30, 34, 35, 139, 145, 148, 156,
 160, 163
 토함산 622
 토화라국(吐火羅國, Tokhara) 34
 통도사(通度寺) 288, 229, 291, 309,
 522, 538, 541
 통일신라 235
 통통(通統) 532
 투르크[突厥, Turk] 30, 121, 126, 127,
 128, 139, 142, 153, 158, 160,
 161

투르키스탄 27
티베트 28, 30, 33, 119, 124, 170
티베트[吐蕃, Tibet] 121
티베트[土蕃, Tibet] 105

교

파르고나(Farghona) 34
파르스(Fars) 34
파미르 169
파사국(波斯國, Persia) 34
파사석탑(婆娑石塔) 202
파진찬(波珍漣) 449
파키스탄 30, 33, 34
판방(板房) 340
팔각구층탑 464
팔관회(八關會) 222, 226
팔대보살(八大菩薩) 395, 408, 418
팔라(Pala) 38
팔렘방(Palembang) 27
팔부신장상(八部神將像) 502
패엽(貝葉) 198
패협(貝莢) 507
팽조 289
팽조적(彭祖狄) 310
편자브 28
펀치(Punch) 33
페르가나[跋賀那, Ferghāna] 30, 34, 158, 160

페르시아[波斯, Persia] 29, 31, 34, 38, 148, 156
페사와르(Peshwar) 34
펜지켄트(Penjikent) 29, 155
펠리오(Pelliot) 17, 18, 23
평양성(平壤城) 208, 209
평창 395
포도(蒲圖) 195
포뢰(蒲牢) 250
포산(包山) 41, 42, 51
포살(布薩) 578
포천산 51
표훈(表訓) 48, 571, 573
폭스(Fuchs) 18
풍로산(風廬山) 409
풍요(風謠) 503
풍월도(風月道) 324
프라티하라(Pratihara) 38
피라닐사(彼羅寢斯) 25
피라닐사국(彼羅寢斯國 Vārānas) 33
필수(筆受) 20

능

하가산(下柯山) 573
하곡현(河曲縣) 213, 406
하르샤 38
하르샤바르다나(HarsaVardhana) 왕조 37
하북 178

하상주(下湘州) 547
 하서군(河西郡) 406
 하서부(河西府) 395, 406, 422
 하솔(河率) 426
 하승(下乘) 611, 613
 하옥녀담기우표(賀玉女潭祈雨表) 21
 하전(下典) 237
 하주(下州) 548
 한(漢) 195, 198
 한기리(漢歧里) 355
 한기부 354
 한남(漢南) 310
 한림랑(翰林郎) 239
 한신(韓信) 558
 향사동(恒沙洞) 516
 향사사(恒沙寺) 516
 해동(海東) 231, 337, 393, 508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44, 54, 470, 485, 497, 505
 해동금석원 447
 해동법화전홍록(海東法華傳弘錄) 54
 해룡왕사(海龍王寺) 310
 해양(海陽) 40
 해인사(海印寺) 313, 570
 해현(蟹峴) 375
 해현령(蟹懸嶺) 374
 행군(行軍) 196
 향득 51
 향전(鄉傳) 338
 향화(香火) 496
 허왕후(許皇后) 202
 허참정(許參政) 313
 허텐(和田) 35
 허황옥(許黃玉) 201
 헌덕왕 589, 605, 606
 현양현(獻陽縣) 542
 현종(獻宗) 234
 혁거세 47, 48
 현각(玄恪) 507
 현겁(賢劫) 188, 391
 현금(玄琴) 275, 279, 280
 현도(玄度) 433, 435
 현량(玄兩) 489
 현세 612
 현수(賢首) 557, 565, 598, 599
 현신성도무량수전(現身成道無量壽殿) 349
 현신성도미륵지전(現身成道彌勒之殿) 348
 현신성불 335, 336
 현실성도 336
 현유(玄遊) 508
 현의장등잡의(玄義章等雜義) 600
 현장(玄奘) 31, 32, 379
 현종(顯宗) 233
 현태(玄泰) 507
 현회(玄會) 489
 혈사(穴寺) 556
 형현(硯峴) 513
 혜공 58, 510, 514, 517, 519

혜공왕(惠恭王) 48, 235, 238
 혜과(慧果) 22
 혜량(惠亮) 534
 혜륜(惠輪) 508
 혜림(慧琳) 18, 23
 혜성가 51
 혜숙(惠宿) 510~512
 혜숙사 513
 혜심(慧諶) 42, 289
 혜업(惠業) 507
 혜원(惠遠) 389
 혜조(慧照) 289, 312
 혜초(慧超) 17, 19~21, 26, 27, 30, 31, 37, 38
 혜초(惠超) 19
 혜통 51, 58
 혜현 51
 혜훈(惠訓) 220
 호(胡) 119, 126, 128, 139, 142, 144, 154, 160, 161
 호계사(虎溪寺) 202
 호국(胡國) 29, 30, 35, 156
 호국(胡國-安曹史石驪米康, Sogd) 34
 호국불교(護國佛教) 55
 호밀 32
 호밀국(胡蜜國, Wakhan) 35
 호세랑(好世郎) 511
 호장(戶長) 491
 호장동정(戶長同正) 491
 호탄[于闐, Khotan] 30, 175, 178, 180
 혼주(嶺州) 179
 홍경(弘慶) 311
 홍계(弘繼) 258
 홍양호 447
 화개(花蓋) 530
 화랑(花郎) 322, 325, 327, 328, 510, 511
 화랑국선(花郎國仙) 321, 325
 화산(花山) 337
 화엄 51, 567, 574, 598, 616
 화엄경(華嚴經) 349, 359, 413, 420, 536, 538, 552, 562, 602, 603, 617, 621
 화엄경소(華嚴經疏) 554, 598, 602
 화엄범어(華嚴梵語) 600
 화엄법사 567
 화엄사(華嚴寺) 570
 화엄사(華嚴社) 395, 396, 414, 421
 화엄사상 58, 557
 화엄신앙 397
 화엄신중(華嚴神衆) 421
 화엄신중예참(華嚴神衆禮懺) 422
 화엄종 40, 557
 화엄회(華嚴會) 421
 화장사(華藏寺) 396, 421
 화쟁국사비 544
 환해탈문(幻解脫門) 350
 환희(歡喜) 220
 활리산(活里山) 578
 황건(黃巾) 301
 황룡(黃龍) 212

황룡사(皇龍寺) 185~187, 211, 212,
 215, 219, 222, 226, 230, 232,
 235, 236, 481, 484, 521, 530,
 621
 황룡사구층탑찰주본기(皇龍寺九層木
 塔刹柱本記) 522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 50, 222
 황룡사장륙(皇龍寺丈六) 50
 황룡사종 235
 황룡사중 분황사약사 봉덕사중(皇龍寺
 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50
 황룡사탑(皇龍寺塔) 223, 288, 291, 293,
 294, 527
 황룡사(皇隆寺) 484, 493
 황복사(皇福寺) 559, 573
 황옥(黃玉) 203, 206
 회연(晦然) 40
 회진동(懷眞洞) 339
 회진암(懷眞庵) 339
 획린(獲麟) 191
 효가원(孝家院) 426
 효공왕(孝恭王) 48
 효명(孝明) 395, 396, 404, 405, 407, 411
 효명암(孝明庵) 411
 효성왕(孝成王) 48, 238
 효소왕(孝昭王) 48, 232, 278, 279, 397,
 407
 효양(孝讓) 449
 효정(孝貞) 237
 효조(孝照) 405
 효조왕(孝照王) 405, 407

효충(孝忠) 601
 후당 296
 후백제 48, 49
 후지타 도요하치(藤田豊八) 18
 후한(後漢) 203
 휴도왕(休屠王) 195
 흑수(黑水) 48
 흔지(欣支) 433, 435
 흠순 563
 흥광(興光) 405
 흥광대왕(興光大王) 239
 흥교사(興敎寺) 372
 흥덕왕 48, 289, 309
 흥륜사(興輪寺) 50, 257, 309, 321, 328
 흥륜사벽화보현(興輪寺壁畫普賢) 50
 흥종(興宗) 445
 희명(希明) 354, 355
 희양산(曦陽山) 456
 희양산문 454
 희현(希玄) 369
 히말라야산[雪山] 104, 105
 히삼 38



譯注者 역주자

● 鄭炳三 정병삼...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문학박사. 신라불교사와 화엄사상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상사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역사문화학과 교수. 『오늘 나는 사찰에 간다』(2003)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2000) 『의상 화엄사상 연구』(1998) 『일연과 삼국유사』(1998)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2007, 공저) 『추사와 그의 시대』(2002, 공저) 『중국화엄사상사』(2005, 공역) 등의 저서와 「고려 후기 體元 관음신앙의 특성」(2009) 「몽산 저술의 간행과 16세기 조선 불교」(2007) 「신라 구법승의 구법과 전도」(2007)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승려비문의 문도 구성」(2006) 「慧超의 활동과 8세기 신라밀교」(2005) 「8세기 신라의 불교사상과 문화」(2005) 등의 여러 논문이 있다.

● 羅淨淑 라정숙...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주요논문 「『삼국유사』를 통해 본 신라와 고려의 관음신앙」(2009), 「고려시대 지장신앙」(2005) 등이 있다.

● 朴堯娟 박광연...이화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고전번역원 연수부를 수료했다. 신라 법화사상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주요논문 「新羅 中古期の 法華信仰」(2008) 「의적의 『법화경집행기』 편찬 배경과 특징」(2007)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2002) 등이 있다.

● 玉娜頰 옥나영...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신라불교사와 밀교사상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2007) 등이 있다.





韓國傳統思想書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

●간행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伽山智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圓學 · 기획실장 藏寂 · 勝源(前) · 재무부장 正念

문화부장 修鏡 · 사회부장 世英 ·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玄宗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宗薰 · 불교신문사장 慧慈 · 기획국장 彌燈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제1팀… 海住 동국대학교 교수

제2팀… 金榮郁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팀… 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4팀… 李晉吾 부산대학교 교수

제5팀… 圓徹 해인총림 강원 前 강사

제6팀… 古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제7팀… 彌山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正德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선임연구원… 金宰晟 · 金鐘仁 · 李洪九

연구원… 權奇燦 · 金惠珍

편집 · 제작… 尙賢淑 · 朴鍾壹





韓國傳統思想叢書 한국전통사상총서

韓國人の歴史와 그 文化의 最古層에 穩연히 자리하고 있는 韓國의 傳統佛敎思想은 우리 精神史의 原型이며 韓民族 數千年 知性史의 基軸이다. 일천칠백여 년간 한국인 그리고 한국 내에서 유구히 전승·축적된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代表하는 작품들을 精選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주석·번역하여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으로 엮었다.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國內·外에 널리 刊行·流通시킴을 目標로 대한불교조계종이 文化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海住	精選 元曉 … 晉譯華嚴經疏序 · 無量壽經宗要 등 17篇
海住	精選 知訥 … 勸修定慧結社文 · 修心訣 · 圓頓成佛論 등 7篇
金榮郁	精選 休靜 … 淸虛堂行狀 · 禪家龜鑑 · 禪教訣 등 5篇
海住	精選 華嚴 I … 華嚴一乘法界圖 · 法性偈 주석 모음 등 7篇
鄭炳三	精選 華嚴 II … 海印三昧論 · 大覺國師文集 등 4篇
鄭炳三	精選 諸敎學 … 三彌勒經疏 · 成唯識論學記 (選) 등 6篇
金榮郁	精選 公案集 … 禪門拈頌說話
金榮郁	精選 禪語錄 … 眞覺語錄 · 白雲語錄 등 4篇
李晋吾	精選 詩選集 … 無衣子詩集 · 湖山錄 등 26篇
鄭炳三	精選 文化 … 往五天竺國傳 · 三國遺事 (選)
圓徹	精選 戒律 I … 梵網經古述記 I
圓徹	精選 戒律 II … 梵網經古述記 II · 菩薩戒本宗要并序
智冠	精選 韓國高僧碑文 … 韓國高僧碑銘 15基

